발간등록번호
79-6500450-000037-01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VIII

| 남원읍 편 |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Folklore & Natural History Museum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Ⅷ

남원읍 편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Folklore & Natural History Museum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발간사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발간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내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제주인의 일상과 관련된 생활도구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서귀포시 남원읍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남쪽에서 으뜸(南元)'이라는 뜻을 가진 남원읍은 9개 법정리, 17개 행정리, 1개 무인도를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면적은 189.09㎢로 서귀포시 읍면동 지역 중 가장 넓으며 인구는 19,038명으로 동홍동(22,885명)과 대정읍(21,364명) 다음으로 많습니다. 따뜻한 기온과 풍부한 강수량으로 제주도 내 감귤 재배 면적의 24%를 차지하는 '제주 감귤의 대표 주산지'입니다.

남원읍의 역사는 선사시대로부터 시작됩니다. 주요 하천을 중심으로 그 시대를 반영하는 토기 등 각종 유물들이 발견되기도 했으며, 고려시대에는 '호아현'이라는 이름으로 문헌에 등장합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목축문화가 번성하게 되는데, 의귀리 출신 김만일(1550~1632)은 임진왜란 시기 조정에 헌마(獻馬)하여 종1품의 관직을 얻고 집안 대대로 목장을 경영하기도 했습니다.

남원읍은 현대사를 겪으며 급격한 변화와 마주하게 됩니다. 일주도로 개설 이전까지 남원읍의 중심을 이루었던 중산간 마을들은 4·3을 겪으며 작은 생활도구마저 불타버리는 아픔을 겪었고, 산업 동향이 감귤산업으로 집중되게 되면서 목축문화가 침체되었습니다. 태흥리 등 일부 지역에서 유명했던 소금 생산 문화도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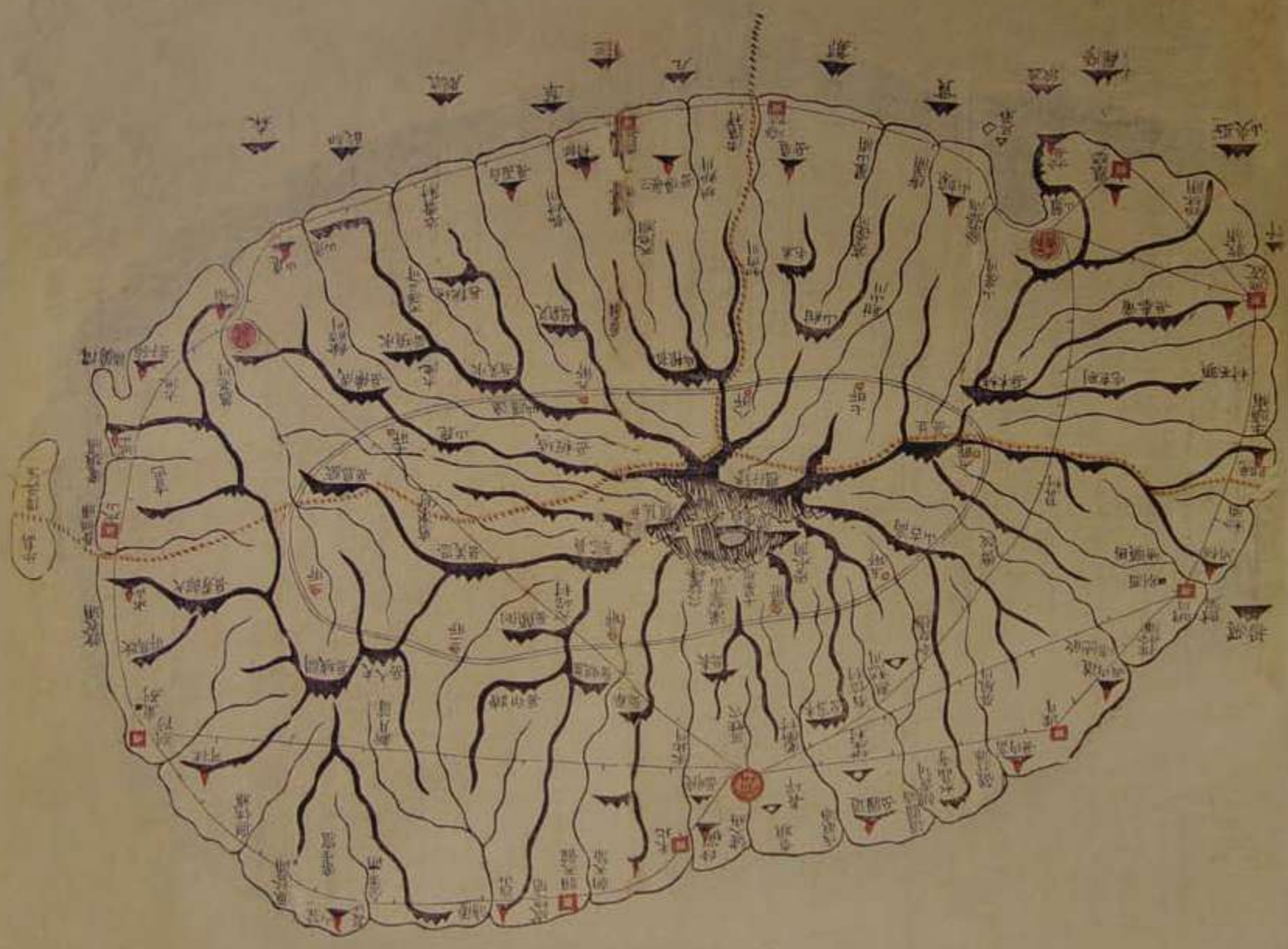
사회문화가 바뀌고 기술수준이 향상되면 사용하는 도구와 문화는 자연스럽게 변화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삶은 과거를 떼어내 단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과거를 아는 것이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변화를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남원읍 6개 마을을 중심으로 '오늘의 남원'을 글과 사진으로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19라는 비정상적인 환경에 놓여있었으나 이장님과 노인회장님, 사무장님 및 많은 어르신들의 협조로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향후 남원읍을 비롯하여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고 정리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자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0. 12. 25.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 정 래


남원읍
수망리
한남리
신흥리
신례리
하례리
위미리
위남리
태흥리
남원리
한라산



Ⅰ. 조사 개요 009

1. 조사 개요 010
2. 조사단 구성 011
3. 조사 범위와 정리 방법 011
4. 조사 마을 개관 013

Ⅱ. 조사 내용 039

1. 의생활 040
   1.1. 바느질 도구 040
   1.2. 손질 도구 053
   1.3. 세탁 도구 058
   1.4. 의복 060
   1.5. 기타 도구 077

2. 식생활 083
   2.1. 식기류 083
   2.2. 조리 도구 118
   2.3. 저장과 운반 도구 150
   2.4. 제기 168
   2.5. 기타 185

3. 주생활 189
   3.1. 집 구조 189
   3.2. 가재도구 195
   3.3. 조명 도구 206
   3.4. 난방 도구 208
   3.5. 연장류 213
   3.6. 기타 도구 237

4. 농업 관련 256
   4.1. 파종 관련 258
   4.2. 김매기와 수확 관련 273
   4.3. 건조와 손질 관련 282
   4.4. 운반 도구 299
   4.5. 계량 도구 309
   4.6. 저장 도구 318
   4.7. 기타 도구 326

5. 어업 관련 330
   5.1. 물옷 330
   5.2. 테왁과 망사리 338
   5.3. 채취 도구 346
   5.4. 기타 도구 357

6. 목축 관련 360
   6.1. 마소 관련 360
   6.2. 돼지 관련 385

Ⅲ. 마무리 389

부록 395

1. 의귀리 양인필 · 현정자 씨의 도구 이야기 396
2. 남원1리 김수정 씨의 바닷일 이야기 486



I

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급격한 사회 변화로 제주 고유의 민속 문화가 사라져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과학기술 발전 등을 통해 '옛 것'으로 치부되어 소실되어가는 과거 생활 자료들을 발굴하고 기록하는 일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일이다. 단절 되어가는 제주 문화의 파편을 연결하는 소중한 조각이기 때문이다. 민속자료의 연구·조사·수집·활용 등을 담당하는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이에 따라 2013년부터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발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에는 남원읍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추진하였다. 해안에서부터 중산간에 이르기까지 자연환경에 따라 다양한 문화 분포를 보이고 있는 남원읍 조사를 위해 6개의 행정마을을 선정하였고, 20회의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이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방역 수칙 준수와 마을 주민 분들의 협조로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다.

세부 조사 대상은 의·식·주생활 도구 및 농업·어업·목축업 관련 도구로, 도구의 재료, 쓰임새 및 각각이 가지는 특징 등을 조사하였다. 기록 강화를 위해 현장에서 직접 찍은 도구 사진과 제보자의 구술도 함께 꼼꼼히 정리했다. 제주의 과거 생활 문화에 이름과 나이, 성격을 찾고 정리한 이번 사업이 훗날 제주도 민속 연구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조 사 명: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Ⅷ-남원읍편
- 조사지역: 남원읍 6개 행정마을(남원1리, 수망리, 신례1리, 위리2리, 의귀리, 태흥2리)
- 조사기간: 2020. 5. 1.~10. 30.
  - 예비조사: 2020. 5. 1.~5. 28.
  - 현지조사: 2020. 5. 29.~10. 30.
- 조사내용: 의·식·주생활 도구 및 농업·어업·목축업 관련 도구 전반
- 조사방법: 선행 연구 검토, 문헌 조사, 현지 조사 등

2. 조사단 구성

- 조 사 단 장: **노 정 래**(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장)
- 조 사 책 임: **부 용 식**(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자연사연구과장)
- 조 사 원: **황 이 새**(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 외부조사원: **김 보 향** · **권 미 소**(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3. 조사 범위와 정리 방법

3.1. 조사 대상지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Ⅷ』은 서귀포시 남원읍 17개의 행정마을 가운데 남원1리, 수망리, 신례1리, 위미2리, 의귀리, 태흥2리의 6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마을 중 남원1리, 위미2리, 태흥2리는 해안 마을이고, 수망리, 신례1리, 의귀리는 중산간 마을이다. 해안 마을과 중산간 마을 두루 조사하여, 지역적인 차이에서 오는 마을의 특징을 균형 있게 살펴 정리하였다.

3.2. 조사 방법과 제보자

남원읍 지역의 생활 도구 조사는 민족지학적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6개 마을의 제보자들을 만나, 도구의 사용 용도 등에 관한 구술을 듣고, 도구의 실물을 직접 촬영하는 형태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제보자의 구술은 디지털 녹음기에 녹음한 후, 이를 전사하여 제보자들의 발화 내용을 그대로 살려 도구 사진과 함께 책에 실었다.

이번 남원읍 조사에서 만난 제보자는 총 47명이다. 남원1리 10명, 수망리 7명, 신례1리 8명, 위미2리 8명, 의귀리 8명, 태흥2리 6명의 제보자를 만나 면접 조사를 하였다. 마을별 제보자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다음의 제보자 외에 마을 노인회장님, 이장님, 마을 리사무소 사무장님의 도움을 받았다.

<표 1> 마을별 제보자

마을	제보자	생년	성별
남원1리	강 순 화	1941	여
	고 영 주	1935	남
	김 동 곤	1941	남
	김 수 정	1931	여
	양 덕 부	1960	남
	장 덕 지	1945	남
	정 개 은	1939	남
	정 덕 준	1945	남
	정 창 휴	1942	남
	현 창 언	1937	남
수망리	김 두 생	1942	남
	김 두 천	1934	남
	김 방 언	1957	남
	김 성 찬	1935	남
	정 병 순	1949	여
	현 금 옥	1934	여
	현 원 휴	1932	남
신례1리	강 문 선	1933	여
	강 복 자	1935	여
	고 방 순	1937	여
	고 신 생	1931	여
	김 공 률	1965	남
	김 길 순	1941	여
	김 복 선	1942	여
	김 석 종	1938	남
위미2리	강 도 범	1937	남
	신 옥 예	1938	여
	양 경 용	1941	여
	오 상 종	1942	남
	오 순 만	1941	여
	오 춘 보	1935	여
	장 덕 송	1939	여
	현 순 열	1952	여
의귀리	김 묘 생	1939	여
	김 병 수	1945	남
	김 예	1927	여
	양 인 필	1935	남
	오 경 수	1941	남
	오 철 호	1972	남
	오 희 일	1941	남
	현 정 자	1937	여
태흥2리	강 승 삼	1937	남
	고 영 수	1943	남
	김 용 남	1946	남
	양 기 화	1938	여
	오 춘 화	1947	여
	이 대 현	1955	남

3.3. 정리 방법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Ⅷ, 남원읍 편』은 조사한 생활 도구들을 의생활, 주생활, 농업 관련, 어업 관련, 목축 관련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현장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문헌 조사를 하며 차례대로 정리하였다. 분야별로 보면, 의생활에서는 바느질 도구와 손질 도구, 세탁 도구, 옷감과 의복 등에 대하여 다루었다. 식생활과 관련해서는 식기류와 조리 도구, 저장과 운반 도구, 제기 등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주생활 관련 도구는 먼저 집 구조를 다룬 후에 가재도구와 조명 도구, 난방 도구, 연장류, 집 관련 기타 도구 순으로 제시하였다. 농업 관련 도구는 파종 관련 도구, 김매기와 수확 관련 도구, 건조와 손질 관련 도구, 운반 도구, 계량 도구, 저장 도구 등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어업과 관련해서 조사된 자료는 물옷, 테왁과 망사리, 채취 도구를 중심으로 기술하였고, 목축 도구는 마소 관련 도구와 돼지 관련 도구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이 책에서 도구에 대한 기술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그 도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도구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 도구의 재료, 쓰임새, 각각이 가지는 특징 등을 설명하였다. 이 책에 제시하고 있는 도구들은 모두 이번 남원읍 조사에서 조사한 것으로, 분야별로 현장에서 직접 찍은 도구 사진과 제보자의 구술을 함께 실었다. 제보자의 구술은 채록한 내용을 그대로 전사하여 옮기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표준어 대역을 하였다. 조사된 내용 중에 도구의 사진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구술 자료만으로 도구의 쓰임새 등을 설명하였다. 현장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도구는 제외하였다.

4. 조사 마을 개관

4.1.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은 제주도 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동쪽으로는 서귀포시 표선면, 서쪽으로는 서귀포시에 접해 있다. 9개의 법정동과 17개의 행정동, 48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속도서로는 무인도인 지귀도(위미1리, 20필지, 87,424㎡)가 1개 있다. 남원읍에 소속된 17개 마을 중 하례2리, 신례1리, 한남리, 남원2리, 위귀리, 수망리, 신흥2리 등 7개 마을이 중산간 마을의 성격을 띠며, 하례1리, 신례2리, 위미1리, 위미2리, 위미3리, 남원1리, 태흥1리, 태흥2리, 태흥3리, 신흥1리 등 10개 마을이 해안마을의 성격을 띠고 있다.

<표 2> 남원읍 행정구역 현황

법정리(9개)	행정리(17개)	자연마을(48개)
남원리	남원1리	비안동, 신성동, 광지동, 중앙동
	남원2리	서의동, 월산동, 수은동
태흥리	태흥1리	진은동, 가원동, 서소동, 이엄동
	태흥2리	금성동, 뒤못동, 무도동, 조치명동, 가시물통
	태흥3리	삼덕동
위미리	위미1리	명륜동, 대화1동, 대화2동, 서성동, 상위미동
	위미2리	세천동, 대원상동, 대원하동, 상원동, 대성동
	위미3리	종정동
하례리	하례1리	태성동, 장성동, 망장포
	하례2리	학림동
신례리	신례1리	역원동, 부전동, 만지동, 사가동
	신례2리	공천포, 황학동
한남리	한남리	대전동
수망리	수망리	향사동
의귀리	의귀리	월산동, 산하동, 중앙동
신흥리	신흥1리	방구동, 취락구조, 보말동
	신흥2리	고수동, 석수동

* 출처: 2019년 서귀포시 통계연보

남원읍은 행정구역상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중반까지 일부는 호아현(호촌현)에 속하고, 나머지 일부는 토산현에 속하였다가 1416년(태종 16) 제주목·대정현·정의현이 설치될 때 정의현에 속하게 되었다. 18세기 후반에는 호아현과 토산현 지역을 중면으로 개칭하였으며, 따라서 정의현 중면에 속하게 되었다. 19세기 중반 중면이 동중면과 서중면으로 나뉘었는데, 대부분의 마을은 서중면에 속했다. 1906년 시행된 제주 지역의 제주군·대정군·정의군 3군제가 1914년에 통합되면서 제주군 서중면이 되었다. 1915년 5월 1일 도제(島制)가 시행되면서 종래의 제주군은 제주도로 개편되면서 제주도 서중면이 되었고, 1935년 4월 1일부터 서중면은 남원면으로 개칭하게 되었다.

해방 후 1946년에는 제주도제가 실시되고 도내에 남·북 제주군이 설치되면서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면이 되었다. 1980년부터 남원면이 남원읍으로 승격되어,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이 되었으며, 2006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남제주군이 서귀포시에 통합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이 되었다.

4.2. 자연환경

(1) 지형과 지질

남원읍 지형은 북서쪽 한라산을 중심으로 남동쪽 방향의 해안을 향해 점차 낮아지는 특성을 보인다. 즉 한라산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하례1·2리, 신례1·2리, 위미1·2·3리 등의 마을은 상대적으로 한라산 방향에서 멀리 떨어진 남원1·2리, 태흥1·2·3리, 신흥1·2리보다 경사 차이가 상대적으로 더 급한 지형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3> 해발고도로 본 마을별 공간적 범위와 위치

마을명	해발고도(m)	마을 위치	마을명	해발고도(m)	마을 위치
남원1리	5 ~ 40	해안	하례1리	10 ~ 73	해안
남원2리	50 ~ 70 80 ~ 100	중산간	하례2리	140 ~ 200	중산간
태흥1리	5 ~ 30	해안	신례1리	90 ~ 150	중산간
태흥2리	5 ~ 20	해안	신례2리	2 ~ 13	해안
태흥3리	5 ~ 15	해안	한남리	120 ~ 140	중산간
위미1리	5 ~ 30 100 ~ 120	해안	수망리	145 ~ 190	중산간
위미2리	5 ~ 30 65 ~ 90	해안	의귀리	70 ~ 110	중산간
위미3리	25 ~ 33	해안	신흥1리	5 ~ 18	해안
			신흥2리	65 ~ 80	중산간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2008), 『남원읍 역사문화지』,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6쪽.

남원읍의 지형적 특징은 지표면에서부터 높이 솟아오른 오름 지형, 하천 지형 및 해안 지형에서 찾을 수 있다. 남원읍에 위치한 오름은 총 29개이다. 오름의 위치를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한남리가 8개로 가장 많고, 신례리가 7개, 하례리와 수망리가 각각 5개, 위미리, 남원리, 의귀리, 신흥리가 각각 1개로 나타난다. 남원읍 오름

분포의 특징은 중산간 지역과 산간 지역에 탁월하다는 점이다. 즉, 남원읍 오름은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크게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고, 필요한 자연자원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제공처 역할을 해 왔다.

남원읍에 있는 지방 2급 하천은 효돈천, 송천을 포함하여 8개이다. 이 중 주변지역과 경계지역을 흐르지 않고 순수하게 남원읍 내를 관통하는 하천은 신례천, 종남천, 전포천, 서중천, 의귀천, 신흥천 6개이다.

남원읍 해안과 연안 해저에는 주로 태흥리용암을 비롯하여 공천포용암, 위미리용암, 세천동용암, 수령산용암, 여절악용암 등으로 형성된 현무암 지대가 있다. 주로 시기가 다른 용암류가 서로 엉키면서 형성된 아아(aa) 용암류의 특성이 나타난다. 즉 남원읍 해안 내 용암류가 탁월하게 분포함으로 인해 패사로 형성된 해빈이나 사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반면에 현무암류가 파쇄되어 형성된 검은모래 해빈이 신례2리(공천포 주변) 등지에 부분적으로 분포하는 특징을 보인다.

남원읍 해안지형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남원1리의 '큰엉'이라 불리는 해식애와 그 주변에 발달한 해식동굴이다. 남원1리 해안은 제주도 내에서도 용암류에 의해 형성된 전형적인 해식애를 보이는 곳으로, 높이 20m의 비교적 큰 규모의 해식애가 길게 형성되어 있으며 그 아래쪽에는 해식동굴이 형성되어 있다.

(2) 토양과 식생

남원읍 내에는 네 가지 색상을 가진 토양이 분포한다. 농암갈색토가 대부분의 해안지역과 중산간 지역 및 일부 산간 지역에 분포하는 등 가장 넓게 나타난다. 이를 중심으로 암갈색토와 흑색토가 주변지역에 부분적으로 분포한다. 화산회토인 농암갈색토와 흑색토에 비해 비화산회토인 암갈색토의 농업 생산력이 뛰어난데, 주요 네 가지 토양 중 남원읍 지역에서 가장 적게 분포하고 있다. 그나마 나타나는 곳은 남원1리와 남원2리, 하례1리와 신례2리, 위미1리와 위미2리의 일부 지구이다. 이들 마을은 상대적으로 다른 마을에 비해 농업 환경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으며 대부분 해안 지역에 분포하는 위치적 특성도 보인다.

열악한 토양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농가들은 감귤을 재배해도 단순한 노지 재배보다는 시설(하우스, 비가림) 재배나 당도가 높은 한라봉, 천혜향 등과 같은 품종을 선택하여 재배하는 농가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3) 기후

남원읍에는 기후 특성 파악을 위한 관측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거리가 가까운 서귀포 관측소 자료를 참고하고자 한다. 그러나 마을이 위치한 고도와 지형지물 등의 영향으로 일반화 하여 반영할 수 없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제주도 내 관측소별 기온, 강수량, 상대습도, 일조시간, 풍속의 값은 〈표 4〉와 같다. 서귀포 지역은 평균 기온이 16.93℃로 가장 따뜻하며, 성산과 고산 지역에 비해 1℃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강수량의 경우도 2,099.37㎜로 제주도 평균 강수량보다 약 300㎜가 많으며 일조시간이 2,107.86hr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감귤농업을 주로 하는 남원읍에 유리한 조건이 되고 있다.

<표 4> 2009~2018년 제주도 4개 지역별 기후요소 평균값

관측소	기온(℃)	강수량(㎜)	상대습도(%)	일조시간(hr)	풍속(㎧)
제주	16.27	1,472.66	69.40	1,807.14	3.22
서귀포	16.93	2,099.37	71.65	2,107.86	2.26
성산	15.65	2,063.18	73.76	2,009.89	3.14
고산	15.73	1,188.95	75.03	2,004.50	6.60
평균	16.15	1,706.04	72.46	1,982.35	3.81

* 출처: 2013년 서귀포시 통계연보; 2019년 서귀포시 통계연보

(4) 동식물

한국에는 537종의 조류가 알려져 있으며, 이 중 제주도에 기록된 것은 422종으로 전체의 약 78.5%에 해당된다. 겨울철새와 통과조류가 많은 편인데, 제주도의 지리적 위치에 따른 것이다.

남원읍 지역에 서식하는 조류는 15목 35과 92종이다. 특히 남원읍 지역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로 기러기목 오리과에 속하는 '흑기러기'(천연기념물 제325호), 매목 매과에 속하는 '황조롱이'(천연기념물 323호), 올빼미목 올빼미과에 속하는 '큰소쩍새'와 '솔부엉이'(천연기념물 324호) 등 3목 3과 4종이 있다. 환경부고시 멸종위기종으로는 기러기목 오리과에 속하는 '흑기러기'(2급)와 '호사비오리'(2급), 매목 수리과에 속하는 '물수리'(2급), '벌매'(2급), '말똥가리'(2급), 매과에 속하는 '조롱이'(2급), 참새목 까치딱새과에 속하는 '긴꼬리딱새'(2급) 등 3목 4과 7종이 있다.

남원읍의 식물은 바닷가 해안에서부터 한라산 백록담까지 해발고도의 차이에 의하여 여러 형태의 식생이 분포하고 있다. 해안식물군락, 저지대의 상록활엽수림, 초지, 낙엽활엽수림, 침엽수림 및 고지대의 관목림 등이 해안에서부터 한라산 백록담까지 순차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식물은 64종류(1급 8종류, 2급 56종류)가 있으며, 제주도에는 29종류(1급 6종류, 2급 23종류)가 있다. 이 중 남원읍에 분포하는 멸종위기 야생식물로는 '물부추', '갯대추', '무주나무', '으름난초', '한란', '백운란', '솔잎란', '순채', '개가시나무' 등이 있다.

외래식물 중 토착화된 식물을 귀화식물이라 한다. 주로 목장, 묵밭, 나지, 길가 등에 분포하는데, 한국의 287종 귀화식물 중 제주에는 205종류 37과 121속 190종 13변종 2품종이 있다. 이 중 환경부 지정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중 남원읍에 분포하는 귀화식물로 '돼지풀', '물참새피', '털물참새피', '도깨비가지' 등 4종이 있다.

식물분야의 천연기념물은 노거수, 자연림과 인공림, 식물의 자생지, 특산식물과 희귀식물 등이 지정된다. 남원읍이 자생지로 지정된 천연기념물은 '제주 신례리 왕벚나무 자생지'(천연기념물 제156호), '제주의 한란'(천연기념물 제191호)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기념물로는 '신흥 동백나무 군락'(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27호), '위미 동백나무 군락'(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39호)이 있다. 이 외에 남원읍 '물영아리오름'은 환경부 지정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협약에 등록되어 있다.

4.3. 인문환경

(1) 선사유적

남원읍은 서쪽의 효돈천, 동쪽의 송천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그 사이에는 신례천, 종남천, 전포천, 서중천, 의귀천, 신흥천 등 6개의 건천이 자리하고 있다. 선사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공간은 이들 하천과 연관이 깊다.

남원읍 내 신석기 시대의 흔적은 한남리와 남원리, 태흥리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한남리 유적'(남원읍 한남리 1063-1번지 일대)은 해발 150m에 위치하며 서중천변에 자리하고 있다. 확인된 유구는 신석기 시대 수혈유구 3기, 집석유구 5기, 소토유구 3기이다. 출토유물로는 토기류, 석기류가 있으며 토기류는 대부분 신석기 시대 후·만기의 점렬문계토기, 이중구연토기, 무문양토기가 출토되었다. 석기류는 대부분 공이석기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 갈돌과 지석이 확인되었다. 한남리 유적은 해안가 중심의 신석기 유적과 달리 중산간지대 하천변 평탄대지에서 주거 흔적이 확인된 예로, 제주도 중산간지대의 신석기 시대 후·만기의 생활상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남원리 유적'은 서중천 하류에서 서쪽으로 500m 떨어진 남원1리 속칭 '성두왓' 지경에서 약간 해안가로 내려온 지점에 있다. 패각이 소량 혼입된 두께 0.7cm 이내의 신석기 시대 후기 추정 토기가 발견되었다. '태흥리 유적'은 의귀천 하류, 태흥1리 해안가에 있다. 사립이 혼입된 두께 0.7~0.8cm 이내 적갈색토기편이 발견되었다.

(2) 탐라시대 유적

탐라시대 초기(B.C.200 ~ A.D.200) 유적은 신례리에서 찾을 수 있다. '신례리 유적'은 효돈천, 신례천, 종남천이 남쪽 해안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고인돌 2기와 삼양동식토기, 곽지리식토기 시기에 해당되는 적갈색토기편이 수습되는 유물산포지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신례천을 따라 동편으로 두 개의 비교적 큰 바위그늘집터도 확인되었다. 의귀리에서도 일부 유적이 발견되었는데 두께 0.7cm 내외의 삼양동식 적갈색 토기편과 석재편이 수습되었다.

탐라시대 전기(A.D.200 ~ A.D.500) 유적으로는 하례리와 남원1리, 태흥2리, 태흥3리 등이 있으며 당시 대표 유물인 곽지리식 토기가 발견되었다. 또한 바위그늘 집자리가 하례리에서 2건 발견되었다.

탐라시대 후기(A.D.500 ~ A.D.1105)는 '탐라'라는 명칭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시기로, 탐라를 대표하는 토기로 적갈색 심발형의 고내리식토기가 있다. 이 시기에 해당되는 유적의 수량이 매우 적은데, 당시 마을 형성이 주로 해안가에서 이루어졌고, 해당 지역의 개발이 근대까지 이르면서 많은 파괴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바위그늘집자리 유적으로 신례리와 한남리가 있으며 모두 고내리식토기와 관련한 토기들이 발견되었다.

(3) 고려·조선시대 유적

현재 남원읍 지역에 남아 있는 역사유적 및 그 흔적들은 대부분 고려시대와 조선

시대에 만들어졌다. 방어유적인 '환해장성', '고려정씨열녀비', '봉수와 연대', 조선시대 목마장 유적인 '잣성'과 '김만일 유적'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환해장성'은 해안을 따라 길게 쌓은 석성으로 본래 삼별초 항쟁과 관련하여 만들어진 유적으로 보고 있다. 조선시대에도 외적 침입을 막기 위해 주민들에 의해 보수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 남원읍 지역 해안에는 남원1리와 태흥1리의 경계인 서중천 하구에서 '들용머리'를 연결하는 해안, 즉 남태교에서 태흥1리 들렁머리 해안도로를 따라 100여 미터 정도 남아 있다.

한남리에 남아 있는 '고려정씨열녀비'는 공민왕 23년(1374)에 일어난 목호의 난(합적의 난)과 관련이 깊다. 목호의 난이란 목호들이 본국인 원나라를 멸망시킨 명나라에 자기들이 키운 말을 보낼 수 없다고 하며 일으킨 난을 의미한다. 고려정씨열녀비에 의하면, 이 열녀비의 주인공 정씨는 석곡리보개(몽골족)의 처였으며, 비문에 남편이 목호의 난 때 죽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 열녀비 비문기록을 통해 탐라에서 목호의 난이 실제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중산간 마을인 남원읍 한남리에도 몽골족이 거주했음을 알 수 있다.

'봉수'는 봉(횃불)과 수(연기)로 급보를 전하던 통신방법으로 대체로 해안이나 인근 봉수를 멀리서 쉽게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되었다. 남원읍 지역의 봉수로는 '자배봉수'와 '호촌봉수'가 있었다. 자배봉수는 위미2리 산 143번지 자배봉(211.3m)에 위치했고 봉수터는 현재 기단부만 자배봉 북쪽 봉우리에 남아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제주도편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축조시기를 대략 1500년 전후로 보고 있다. 호촌봉수는 하례 1리 95-11번지 예촌망(67.5m)에 있었다. 『세종실록지리지』(1454)에는 '호아촌봉수', 『탐라지』(1653)에는 '호촌봉수'로 기록되어 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봉수터가 남아 있었으나 감귤원이 조성되면서 사라졌다.

'연대'는 해안 구릉지에 위치하여 횃불과 연기로 급한 군사소식을 전하던 통신수단이다. 대부분 가까이서 적선이 어느 곳에 정박하는가를 자세히 관찰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남원읍에는 '벌포연대', '우미연대', '금로포연대'가 있었다.

벌포연대는 태흥2리 248번지 해안에 위치했다. '벌포'라는 명칭은 태흥리 바닷가를 '펄개', '벌포(개)'라고 불렀던 것에서 유래한다. 우미연대는 위미 1리 2878번지에 위치했다. 현재 기단부만 남아 있으며, 초석으로 추정되는 돌들이 과수원 경계 돌담으로 이용되었고, 일부는 과수원을 조성하면서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금로포연대는 남원리 2490-8번지 해안에 위치했다. 위미3리와의 경계지점으로 '연디병디'라 불리고 있으나 현재는 연대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

<표 5> 남원읍 지역 방어유적 현황

구 분	명 칭	축조 시기	소재지	형 태	읍소 지역
봉수	자배	1500년경	위리2리 산 143번지 (자배봉 위)	2중 원형석축 외단 : 확인곤란 내단 : 직경 11m	동쪽: 토산봉수 서쪽: 호촌봉수
	호촌	1454년경			동쪽: 자배봉수 서쪽: 삼매양봉수
연대	벌포	1439년경	태흥 2리 248번지	형태 확인 불가	동쪽: 소마로연대 서쪽: 금로포연대
	금로포	불명확	남원리 2490-8번지	형태 확인 불가	동쪽: 벌포연대 서쪽: 우미연대
	우미	불명확	위미 1리 2878번지	기단부만 존재 하부 : 8.5m×9.3m	동쪽: 금로포연대 서쪽: 보목연대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2008), 『남원읍 역사문화지』,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64~165쪽, 167쪽.

1430년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 중산간 초지대에는 10개의 국영 목마장이 있었다. 제주목사가 3읍 감목관을 겸직하면서 제주도 전 국영 목장지대의 마정을 통솔하였다. 대체로 제주목 중산간 지역에는 1소장부터 6소장까지, 대정현 중산간 지대에는 7, 8소장, 정의현 지역에는 9, 10소장이 있었다. 남원읍 중산간 지역은 9소장에 속했으며 관련 유적으로 하례2리에 '점마소'(목장에서 기르던 마을 점검하던 곳), 하례2리·신례1리·위미1리·위미2리·한남리·수망리에 '잣성'(국영목장의 상·하 경계선으로 쌓은 돌담. 우마들이 농경지에 들어가 입히는 피해를 예방하고, 한라산 삼림지역으로 들어가 동사(凍死)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이 일부 남아 있다.

특히 남원읍 한남리 서중천에서 표선면 가시리 안좌천 사이의 넓은 초지대에는 김만일(1550~1632) 가문 후손들이 산마감목관을 역임하며 운영했던 '산마장'이 있었다. 김만일은 의귀리 출신으로 임진왜란 직후 중앙정부의 요청으로 1594년(선조 27)에 전마(戰馬) 500필을 바친 것을 계기로 계속해서 말을 진상하였다. 그가 소유한 말은 광해군 때에 1만 필에 이르렀다고 한다. 조정에 말을 바친 공로로 김

만일은 높은 관직(종1품 숭정대부 헌마공신)과 포상을 받았고, 1658년(효종 9) 10소장과 별도로 산마장을 개설하면서 김만일의 아들 김대길을 산마감목관(종6품)으로 임명하였다. 이 감목관직은 1895년(고종 25)까지 가문에 세습되었다. 김만일 관련 유적으로 '의귀리 김만일 묘역'(의귀리 1773번지/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65호)이 있다. 묘비 전면에는 '숭정대부 동지중추부사 오위도총부 도총관 김공지묘(崇政大夫同知中樞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金公之墓)'라는 명(銘)이 새겨져 있으며 17세기 제주분묘의 산담과 봉분의 축조양식 및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도 평가받고 있다.

(4) 일제강점기 유적

남원읍 내 일제강점기 유적으로 '물오름(괴평이오름) 진지동굴', '생기악 진지동굴', '논고악 진지동굴', '수악 진지동굴' 등 일본군 유적이 있다. 대정읍 등 서부지역에 비해서는 매우 적은 편이다.

일제강점기 제주인의 도일(渡日)과 관련한 흔적도 있다. 위미항(앞개포구)은 제주-오사카를 운항하는 정기여객선이 기항한 항구였다. 기미가요마루(930톤/1922년 취항)와 함경환(1,200톤/1918년 취항), 복목환(1,600톤)이 취항하였으며, 위미항은 서귀-남원지역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였다. 위미항을 통해 2,357명이 도일하였고 1,129명이 입도하였다고 전하며, 현 서귀포시 관내에서 가장 많은 수치라 한다. 이러한 배경으로 위미항 앞에는 새로운 상가가 형성되었다. 황하소주공장, 잡화상, 이발소와 여관 등이 문을 열었고, 선박을 건조하거나 수리하기도 했다고 한다.

(5) 4·3 유적

'4·3'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특히 1948년 10월 17일 해안선으로부터 5㎞ 떨어진 산간지역은 적성지역으로 간주하여 소탕전을 벌이겠다는 포고문이 발표되었고 이에 따라 남원면 중산간 마을이 초토화되거나 주민들이 해안 마을로 소개하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1948년 11월부터 1949년 1월 사이 무장대와 토벌대에 의한 많은 피해가 있었으며, 남원면사무소, 남원국민학교, 남원중학교, 위미국민학교, 하례국민학교 등이 소실되기도 했다. 〈표 6〉은 남원읍 관내 4·3 유적지 현황 자료이다. 자료를 통해 의귀리와 수망리 등 중산간 마을에 큰 피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6> 남원읍 관내 4·3 유적지 현황

마을	구분	유적지명	위치	개요
남원리	잃어버린 마을	버너리굴	남원리 1691번지 일대	1948년 11월경 소개되어 복구되지 못한 마을
	희생터	진쟁이 소금밭	남원리	1948년 11월 17일 남원 상동 주민들이 집단 희생당한 곳
		남원지서 서녘밭	남원리	1948년 10월 28일 남원면 중산간마을 주민 등 50~60여 명이 희생당한 곳
	주둔지	남원지서 옛터	남원리 1339-2번지	4·3당시 남원면 일대를 관할하던 경찰토벌대가 주둔했던 곳
태흥리	희생터	들렁머리	태흥리	1949년 2연대가 주둔하면서 여러 차례 민간인을 희생시켰던 장소
	주둔지	군부동산	태흥1리 1235-1번지	1949년 1월 20일 의귀리에 주둔했던 2연대 1대대 2중대가 이동해 주둔했던 곳
	희생자 집단묘지	모자쌍묘	태흥3리 249-1번지	토벌대에 의해 같은 날 희생된 어머니 무덤 1기와 자녀 4명을 합장한 무덤 1기 등 2개의 묘지가 나란히 있는 곳
위미리	희생터	마매기모루	위미리	1948년 12월 13일 신례리 주민 여럿이 위미지서 경찰관들에 의해 희생된 곳
	주둔지	위미지서	위미리 2811-1번지	1946년 초에 위미경찰관 출장소로 설립되어 지서·파출소·분소로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의귀리	희생터	장판거리	의귀리	1949년 1월 10일과 1월 12일에 110여 명의 주민들이 토벌대에 의해 희생된 곳
		높은모루	의귀리	의귀국민학교에 주둔했던 토벌대들이 주민들을 희생시켰던 장소
	주둔지	의귀국민 학교	의귀리 1483-3번지	1948년 12월 26일부터 1949년 1월 20일까지 제2연대 1대대 2중대가 주둔했던 곳
	희생자 집단묘지	송령이골	의귀리 1931-1번지	1949년 1월 12일 의귀초등학교 전투에서 사망한 무장대의 시신이 집단매장된 곳
		현의합장묘 옛 터	의귀리 765-7번지	1949년 1월 10일과 12일 의귀초등학교 동쪽 장판거리 우녁밭에서 토벌대에 의해 희생된 자들의 시신을 집단 매장했던 곳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2008), 『남원읍 역사문화지』,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18~220쪽.

<표 6> 남원읍 관내 4·3 유적지 현황

마을	구분	유적지명	위치	개요
수망리	주둔지	영군모루 주둔소	수망리 158번지 일대	1948년 12월 하순부터 1949년 1월 20일까지 의귀국민학교에 주둔했던 제2연대 1대대 2중대원들이 전반초소로 활용했던 곳
	희생자 집단묘지	현의합장묘	수망리 893번지	2003년 9월, 유족들이 의귀리 현의합장묘 옛 터에 있던 시신들을 옮겨와 새로 조성한 집단묘지
	비석	군인전사자 충혼비	수망리 산182-4번지	1949년 1월 12일 '의귀전투'에서 전사한 육군일등상사 문석춘 외 3명의 군인들을 기리는 충혼비
		경찰관 순직비		무장대의 흉탄에 순직한 경찰 고일수, 송만석 외 1명, 경위 박원국 외 5명을 기리는 기념비
		남원면장 순직비		1948년 10월 26일 무장대의 습격으로 순직한 남원면장 양기형을 기리는 기념비
		남원면 서무계장 순직비		1948년 11월 21일 무장대의 습격으로 순직한 남원면 서무계장 강항진을 기리는 기념비
		대청단원 순직비		무장대의 습격으로 순직한 대청단원 강항진 외 6명을 기리는 기념비
		민보단원 순직비		무장대의 습격으로 순직한 민보단원 김윤선 외 5명을 기리는 기념비
		민보단 및 한청단원 순직비		무장대의 습격으로 순직한 김성욱 외 45명의 민보단 및 한청단원을 기리는 기념비
		이장 순직비		무장대의 습격으로 순직한 이장 김태후를 기리는 기념비
		자경대원 순직비		1949년 1월 3일 무장대의 습격으로 순직한 자경대원 김윤수 외 27명의 대원을 기리는 기념비
한남리	잃어버린 마을	빌레가름	한남리 938번지 일대	1948년 11월 7일 소개 후 복구되지 못한 마을
신례리	희생터	항애골	신례리	1948년 12월 12일 신례1리 주민들이 토벌대에 의해 희생당한 곳
	주둔지	수악주둔소	신례리 산2-1번지	1949년 가을 경 세워진 경찰 주둔지
	역사현장	오림반		4·3 초기 무장대가 훈련했던 곳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2008), 『남원읍 역사문화지』,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18~220쪽

(6) 광복 후 일반 유적

광복 후 일반 유적으로 '남원읍 충혼묘지'가 있다. 1952년 12월 15일 남원리 2339번지에 조성했으나, 1991년 수망리 산 182-4번지로 이전하여 9,421㎡(2,030평) 규모로 재조성했다. 순국선열 1위, 육군 76위, 해군·해병 25위, 애국단원 6위, 전상군경 1위, 전몰군경 1위 등 110위가 안장(2008년 기준)되어 있다.

이밖에 제주의 비석 문화와 관련된 유적으로 '걸서악 소안밭 채석장'이 있다. 하례리 산124번지 걸서악 서편 절벽으로, 이곳에서 채석한 돌을 이용하여 석공들이 돌자귀로 다듬고 숫돌로 밀어 비석돌로 만들었다. 서귀포 지역에서는 산방산 석재와 함께 인기였다고 한다.

4.4. 현황

남원읍의 전체 면적은 189.09㎢로, 서귀포시 3읍 2면 12동 중에서 가장 넓으며 제주도 전체 면적의 10.2%, 서귀포시 전체 면적의 21.7%를 차지하고 있다. 임야가 103.486㎢로 54.72%, 과수원이 43.905㎢로 23.21%, 전이 11.069㎢로 5.85%, 목장용지가 8.959㎢로 4.73%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답은 없다. 도서로는 위미리에 87,424㎡ 규모의 지귀도(무인)가 있다.

2020년 10월 31일 기준 행정리별 세대 및 인구는 〈표 7〉과 같다. 총 8,577세대 18,744명이 거주 중이며 남원1리가 약 24%, 위미2리가 약 12%로 가장 많은 인구 분포를 보이고 있다. 지역 내 노인인구의 비중은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신흥1리, 신흥2리, 의귀리가 29%로 가장 높고 위미3리 18%, 남원1리 19%로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전체 인구에서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되는 만큼, 남원읍 대부분 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 단계로 진입했음을 알 수 있다.

<표 7> 남원읍 관내 세대 및 노인 인구수

구분	총 인구수(외국인 제외)				노인 인구수(65세 이상)		
	세대	인구			인구		
		계	남	여	계	남	여
합계	8,577	18,744	9,666	9,078	4,542	1,939	2,603
신흥1리	367	774	395	379	222	86	136
신흥2리	258	534	288	246	157	65	92
태흥1리	380	791	413	378	220	94	126
태흥2리	531	1,130	571	559	316	115	201
태흥3리	201	429	225	204	101	38	63
의귀리	487	1,117	572	545	320	138	182
수망리	203	408	202	206	107	45	62
한남리	237	487	253	234	137	60	77
남원1리	2,090	4,530	2,317	2,213	873	394	479
남원2리	274	609	320	289	143	61	82
위미1리	838	1,852	961	891	415	177	238
위미2리	1,034	2,263	1,165	1,098	575	247	328
위미3리	177	406	213	193	74	33	41
신례1리	564	1,316	693	623	332	141	191
신례2리	225	477	245	232	127	55	72
하례1리	477	1,073	549	524	283	122	161
하례2리	234	548	284	264	140	68	72

* 출처: 서귀포시 남원읍 홈페이지(https://www.seogwipo.go.kr/local/namwon/main.htm)

서귀포시의 대표 작물인 감귤 생산을 중심으로 남원읍 농업현황을 살펴보면 남원읍은 제주도 전체 대비 감귤 재배 면적이 약 25%, 서귀포시 대비 약 37%에 달하는 수준이다. 〈표 8〉에 따르면 생산량 역시 남원읍이 서귀포시 내에서 최대임을 알 수 있다. 남원읍 감귤 생산량 중 노지온주(조생)가 54.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하우스감귤과 비가림 감귤이 23.6%를 차지해 시설 재배 규모도 크다.

<표 8> 서귀포시 읍면동 지역 감귤생산량(2018년 기준)

읍면동	노지온주 (극조생)	노지온주 (조생)	노지온주 (보통)	하우스감귤 (조기출하)	비가림 (월동)감귤	만감류 (시설)	만감류 (노지)
남원읍	7,287.00	72,321.00	934	16,179.00	5,139.00	20,060.00	398
대정읍	2,771.00	16,810.00	359	-	1,006.00	4,942.00	250
성산읍	1,818.00	26,435.00	552	715	739	2,525.00	301
안덕면	4,492.00	22,554.00	352	462	1,415.00	2,962.00	403
표선면	3,230.00	27,983.00	604	1,760.00	3,546.00	8,684.00	305
송산동	659	2,881.00	42	750	510	1,443.00	46
천지동	4	41	-	-	51	44	4
효돈동	2,580.00	5,514.00	17	510	801	1,944.00	38
영천동	2,207.00	15,519.00	59	267	349	2,905.00	148
동홍동	429	4,039.00	7	41	55	714	16
서홍동	887	7,076.00	-	75	196	998	43
대륜동	961	11,930.00	45	233	235	1,840.00	117
대천동	1,892.00	14,056.00	203	224	447	5,824.00	121
중문동	2,419.00	16,372.00	143	211	314	2,409.00	90
예래동	4,476.00	11,055.00	84	430	467	1,655.00	123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감귤 생산 정보

남원읍 내 어업 가구는 257호, 어업 인구는 565명, 해녀 수는 312명으로 제주도 전체 기준 약 6%, 서귀포시 기준 약 13% 수준이다. 행정리별 어업 현황을 보면 위미리가 어업 가구, 어업 인구, 해녀 수 규모에서 가장 큰데, 제1종 어항(국가어항)인 위미항이 위치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9> 남원읍 어업 현황

지역	어업 가구(호)	어업 인구(명)	해녀 수(명)
합 계	257	565	312
신흥리	16	35	17
태흥3리	19	44	20
태흥2리	43	90	49
태흥1리	8	20	15
남원리	36	80	57
위미2리	53	117	60
위미1리	42	93	38
신례리	7	16	5
하례리	33	70	51

* 출처: 2020 서귀포시 해양수산 현황(서귀포시 해양수산 기본 현황)

남원읍 축산업 현황으로 마을 공동목장이 5곳이 있고 축우수로 1,957마리, 입식두수로 610마리가 있다. 의귀공동목장의 규모가 가장 크다. 가축단위의 사육은 소 3,629마리, 돼지 19,819마리, 닭 20,787마리, 말 495마리, 산양(흑염소) 3,165마리, 개 3,095마리, 꿀벌 7,639마리, 오리 820마리, 기타 가축 110마리로 총 59,559마리가 있으며, 돼지와 닭의 비중이 큰 편이다.

<표 10> 남원읍 마을공동목장 현황

목 장 명	소 재 지	조합원(명)	축우수	입식두수	토지소유현황(㏊)		
					계	국유 도유	사유
합계	5개소	569	1,958	610	957	512	445
남원·한남 공동목장	한남리산59번지외 11필지	11	650	200	220	200	20
수망 공동목장	수망리산189-1번지외 14필지	99	200	120	188	23	165
의귀 공동목장	수망리산158-1번지외 27필지	175	780	60	305	280	25
위미2,3리 공동목장	위미리1189번지외 62필지	15	150	80	61	9	52
신례 공동목장	신례리산12번지외 44필지	269	178	150	183	0	183

* 출처: 남원읍 소득지원팀

4.5. 조사마을별 세부 개관

(1) 남원1리

남원1리는 동쪽으로 태흥1리, 서쪽으로 위미3리, 남쪽으로 바다, 북쪽으로 남원 2리와 접해있다. 마을 형성의 기원은 탐라시대 전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남원1리 해안가 지역에서 적갈색 경질토기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마을 형성은 서옷귀(현 남원 2리)에 살던 사람들이 500여 년 전에 바닷가에 내려와 살기 시작하면서부터인 것으로 본다. 이후 광지동(넙으못동네)에도 사람이 모여살기 시작하면서 마을이 커졌다.

남원1리의 옛 이름으로는 '쉘록개[쉘록깨]·쉘롯개[쉘롣깨]'와 '제산잇개[제사깨·저사닛개]', '넙으못', '순물' 등이 있다. '쉘롯개'의 한자 표기로 金老浦(금로포: 『남사일록』(1679~1680)), 金露浦(금로포: 『제주읍지』(18세기 말)), 今露浦·今路浦(금로포: 《제주삼읍전도》(1872), 《정의군지도》(1899)) 등이 있다. 원래 음성형은 '쉘롯개' 또는 '쉘록개' 정도로 실현되었는데 나중에는 '쉐'의 훈가자로 쓰인 金(금)을 今(금)으로 표기하여 '금롯개', '금록개' 정도로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중반 지도인 《제주삼읍도총지도》(18세기 중후반)와 《제주삼읍전도》(1872)에는 소열포(所悅浦)로 표기하였는데, 한자 차용 표기만을 놓고 보면 '소열개' 정도를 한자로 차용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열(所悅)은 '쉘'의 표기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즉 쉘록개[쉘록깨]·쉘롯개[쉘롣깨]는 옛 문헌 속 금로포이자 소열포일 것임을 알 수 있다.

행정구역상 남원리는 18세기까지 의귀리(衣貴里)에 속해 있었다. 19세기에 의귀리가 의귀리(衣貴里)와 동의리(東衣里), 서의귀리(西衣貴里) 등 3개 마을로 나뉘었을 때는 서의귀리에 속했다. 서의귀리는 20세기 초반에 서의리(西衣里)라 하였는데 남원리는 계속해서 서의리에 속해 있었다.

1910년경이 되어서야 서의리 남쪽 지역인 '제산잇개·재산잇개' 일대와 '넙은못동네' 일대를 남원리(현 남원1리)라 했다. 1914년에는 남원리와 서의리(현 남원2리)를 병합하여 남원리가 확장되었다. 남원(南元)이라는 이름은 '남쪽의 으뜸 마을'이라 하여 인위적으로 새로 지은 것으로 추정한다.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일주도로공사가 추진되면서 남원1리는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고, 경찰주재소(1925년)와 서중면사무소(1926년)가 의귀리로부터 이전되어 설치된다. 이후 1935년 서중면이 남원면으로 개칭되었고 광복과 4·3사건 등 여러 변화를 거치다 1953년 현재의 남원1리와 남원2리로 분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남원1리는 비안동, 신성동, 광지동, 중앙동 등 4개의 자연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2020년 10월 31일 기준 4,530명(남자 2,317명, 여자 2,213명)이 거주하고 있다. 남원읍 인구의 24%를 차지하는 비율로 가장 높다. 중심부 도로를 따라 가옥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교육시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이나 문화시설, 생활시설이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며 위치하고 있다.

주민들의 주된 소득원은 감귤 산업이며 마을 자원으로 해안가에 위치한 '큰엉' 해안경승지를 비롯하여 너븐(넓은)못, 서중천 하구 등의 자연자원과 다이노대발이 파크, 돈짓당 등의 인문자원이 있다. 이 중 해안가에 위치한 '큰엉'은 학술적으로는 해식애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제주도 내 가장 전형적으로 발달한 해식애 중의 하나로 꼽힌다. '큰엉' 해식애 하부에는 크고 작은 해식동굴도 발달해 있다.

(2) 위미2리

위미2리는 동쪽으로 위미3리, 서쪽으로 위미1리, 남쪽으로 바다, 북쪽으로 신례리와 한남리에 접하고 있다. 약 15세기경 마을이 성립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위미리는 일찍부터 '뛔미' 도는 '뛔밋개'라 부르고 한자로 又尾村(우미촌), 又尾浦(우미포), 又美浦(우미포), 又尾里(우미리), 又美里(우미리), 爲美(위미) 등으로 표기되었다. 又尾浦(우미포)와 又美浦(우미포)는 '뛔밋개'의 한자 차용 표기이고, 又尾村(우미촌)과 又尾里(우미리), 又美里(우미리)는 '뛔미마을'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한자 표기 爲美(위미)를 쓰기 시작하였을 때는 又尾(우미)를 '뛔미'라 하지 않고 '우미'라 하고 이와 유사한 한자음을 가진 '爲美(위미)'를 쓴 것으로 보인다.

옛 문헌 기록을 통해 살펴보면 『남사록』(1601~1602)과 『탐라순력도』(1702) 등에 '又尾浦(우미포)', 《탐라도》(17세기 말)와 《탐라지도》(1709), 《제주삼읍도총지도》(18세기 중반) 등에 '又尾浦(우미포), 又尾村(우미촌)', 『증보탐라지』에 '又尾村(우미촌)', 『호구총수』(1789)에 '爲美里(위미리)', 『제주대정정의읍지』 등에 '爲美(위미)', 《제주삼읍전도》(1872)와 《정의군지도》(1899) 등에 '又美浦(우미포), 又美里(우미리)', 『정의읍지』(1899)와 《정의지도》 등에 '東爲美里(동위미리)', 『삼군호구가간총책』(1904)에 '東美(동미)'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즉 18세기부터 爲美里(위미리)라는 표현이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 말부터 爲美里(위미리)는 동위미리와 서위미리 등 2개의 마을로 나뉜다. 20세기 초반에는 동위미리를 '동미리'라 하고 서위미리를 위미리와 신미리로 나누어 당시 3개의 마을이 된다. 1908년경에 위미리와 신미리, 동미리 등 3개 마을을 병합하여 위미리라 하였고, 1914년에는 위미리 일부가 신례리로 병합되기도 했다.

1950년대부터 '앞개동네'와 '옷뛔미' 일대를 위미1리라 하고, '동구두미동네'와 '연듯동네', '안가름·안카름' 일대를 위미2리라 하였다. 이후 1990년부터 위미2리의 '연동네' 일대를 위미3리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위미2리는 세천동, 대원상동, 대원하동, 상원동, 대성동 등 5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인구는 2020년 10월 31일 기준 2,263명(남자 1,165명, 여자 1,098명)으로 남원읍 내에서 약 12%(2번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산간에서 해안까지 길게 자리 잡고 있어 감귤산업에 의한 농업 이외에 제1종항인 위미항을 중심으로 수산업을 발달시켜 왔으며, 일부는 서비스업(식당, 상가)과 목축업을 경영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대표 유적으로는 위미2리 산 143번지 자배봉(211.3m)에 위치했던 '자배봉수'가 있다. 1500년을 전후한 시기 설치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기단부만 자배봉 북쪽 봉우리에 터로 남아있다. 식물과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39호 '위미 동백나무 군락'이 위미리 903-6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현맹춘(1858~1933) 할머니가 집 주변 방풍수로 심은 것이 지금까지 자라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직경이 10cm 이상인 것이 약 500여 그루이고, 가장 큰 나무의 둘레는 1.4m, 높이는 10m에 달한다.

(3) 태흥2리

태흥2리는 동쪽으로 태흥 3리, 서쪽으로 태흥1리이고 남쪽으로 바다, 북쪽으로 의귀리와 신흥2리에 접하고 있다. 태흥2리는 850여 년 전 태흥1리 '소숫물' 가까이

에 있는 '묵은가름' 일대에 사람이 모여살고, 그 사람들 중 일부가 조선 후기(1600년대)에 해안가인 '풀개[풀깨]'와 '소곰밧', '소곰막', '봉안잇개' 일대에 옮겨와 살면서 지금과 같은 마을로 형성되었다고 한다.

태흥2리의 옛 이름은 '풀개[풀깨] 또는 펄개[펄깨]'이다. '펄'로 이루어진 '개'라는 데서 붙인 것이다. '펄'은 '풀'이라고도 하는데 '뻘'의 제주어이다. 벌포(伐浦)는 '펄개[펄깨]' 또는 '풀개[풀깨]'의 한자 차용 표기인데 '펄'의 한자음이 없기 때문에 평음인 벌(伐)을 파장하여 '펄·풀'을 표기한 것이다. 浦(포)는 '개'의 훈독자 표기이다.

옛 문헌을 통해 알아보면 태흥2리 지역은 『남사록』(1601~1602)과 『남사일록』(1679~1680), 《탐라도》(17세기 말), 《탐라순력도》(1703), 《탐라지도》(1709), 《제주삼읍도총지도》(18세기 중반) 등에 '伐浦(벌포)', 『증보탐라지』(18세기 중후반)에 '保閑(보한)', 『호구총수』(1789)와 『제주읍지』(18세기 말), 《제주삼읍전도》(1872년), 《정의군지도》(1899) 등에 '保閑里(보한리), 伐浦(벌포)', 『정의읍지』(1899)와 『제주군읍지』(1899) 등에 '西保閑里(서보한리)', 『삼군호구가간총책』(1904)에 '保閑(보한)', 『조선지지자료』(1910년경)에 '泥浦(니포), 保閑里(보한리)' 등으로 표기되어있다. 18세기 중반 이후부터 등장하는 보한리(保閑里)라는 명칭은 '봉한이·봉안이'와 '봉한잇개' 일대에 형성된 마을이라는 데서 연유했다고는 하나 확실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마을이 커지면서 19세기 말부터 일제강점기 초까지 지금의 태흥2리는 보한리 동쪽 마을이라는 의미로 '동보한리' 또는 '동보리'라 하였다. 그러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당시 '보한리(서보한리)'와 '동보한리'를 병합하여 '태흥리'라 하였고 1953년부터 '풀개' 일대를 태흥2리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태흥2리는 접시형태의 평야지대를 형성하면서 해안가를 중심으로 취락이 형성되어 있다. 일주도로변을 끼고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 교통이 편리하며 태흥1, 3리와 달리 중산간 지역이 거의 없다. 기후는 비교적 온화하고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마을 주민들은 주로 감귤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일부 수산업에 종사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과수원이 253ha로 전체 면적의 64.7%를 구성하고 있다.

금성동, 뒤못동, 무도동, 조치명동, 가시물통 등 5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2020년 10월 31일 기준 인구는 1,130명(남자 571명, 여자 559명)으로 태흥1리(791명)와 태흥3리(429명)를 합친 수준이다.

태흥2리 마을 포구인 '펄개' 주변에는 일제강점기까지 약 30정보에 이르는 면적을 이용해 소금을 생산하던 염전이 있었다. 『한국수산지』(1910)에는 태흥리에 1,439평의 소금밭이 있고 1년에 7,920근의 소금이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다. 태흥2리 소금밭 해안 중 '뱃머리 소곰밭' 부분은 현재 운동장으로 매립되었고, '안소곰밭' 부분은 물이 들고 나는 조간대에 해당된다.

또한 조선시대 외적의 침입을 막을 목적으로 연기를 피워 신호하여 연락을 도모하는 통신시설로 '벌포연대'가 있었다. 동쪽으로 표선면 표선리 소마로연대, 서쪽으로는 남원리 금로포연대와 교신했다.

(4) 신례1리

신례1리는 동쪽으로 위미1리, 서쪽으로 하례리, 남쪽으로 신례2리, 북쪽으로 조천읍 교래리와 접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1300년(충렬왕 26) '호촌현(狐村縣)'이라는 속현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본다. 호촌현은 오늘날 신례리와 하례리의 지경을 통할하는 지역이었고 '호아현(狐兒縣)'이라고도 했다.

옛 문헌기록에 따르면 『태종실록』에 '狐兒縣(호아현)', 『신증동국여지승람』에 '狐兒縣(호아현), 狐兒川(호아천), 狐村(호촌), 狐兒村(호아촌), 狐村里(호촌리), 狐村橋(호촌교)', 『남사록』(1601~1602)에 '狐村浦(호촌포)', 《탐라도》(17세기 말)에는 '狐村(호촌), 狐村浦(호촌포), 狐村望(호촌망)', 이원진 『탐라지』에는 '狐村里(호촌리), 狐村橋(호촌교), 狐村川(호촌천)', 《탐라순력도》(1702)에 '狐村浦(호촌포), 狐村望(호촌망)', 《탐라지도》(1709)와 《제주삼읍도총지도》(18세기 중반) 등에 '狐村(호촌), 狐村烽(호촌봉), 狐村浦(호촌포)', 『증보탐라지』에 '烏旨里(오지리)', 『호구총수』(1789)에 '狐村里(호촌리)', 『순조실록』에 '狐村浦(호촌포)', 《제주삼읍전도》(1872)와 《정의군지도》(1899) 등에 '狐村烽(호촌봉), 狐村浦(호촌포), 禮村里(예촌리), 梧旨里(오지리)', 『정의읍지』(1899)와 《정의지도》 등에 '上禮村里(상예촌리), 下禮村里(하예촌리), 狐村峰(호촌봉)', 『삼군호구가간총책』(1904)에 '禮村(예촌), 下禮(하례)' 등으로 표기 되어있다.

즉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狐村(호촌) 또는 狐村里(호촌리)라 하다가, 19세기 중

반에 狐를 禮로 고쳐 禮村(예촌) 또는 禮村里(예촌리)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禮를 존중하는 마을', '禮가 있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바꾼 것이라 한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예촌리는 신례리 일부와 위미리 일부를 병합하여 신례리(新禮里)가 되었다. '새 예촌리' 또는 '새로 탄생한 예촌리'라는 의미라 할 수 있다. 1940년대 말부터 옛 '예촌(예촌리)' 일대와 '새왓동네' 일대를 '신례1리'라 하고 '굴왓동네'와 '종남골', '공새밋개' 일대를 신례2리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신례1리는 현재 역원동, 부전동, 만지동, 사가동 등 4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2020년 10월 31일 기준 1,316명(남자 693명, 여자 623명)이 거주 중이며 대부분의 토지는 감귤과수와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광활한 중산간지대 초지를 보유하고 있어 목장지대를 이용한 축산과 감귤산업이 주 소득원이다.

문화재로 '제주 신례리 왕벚나무 자생지'(천연기념물 제156호)가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가는 제1횡단도로의 수악교 남쪽 높이 5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왕벚나무는 우리나라가 원산지로서 그 수가 매우 적은 희귀종이므로 생물학적 가치가 높고, 식물지리학적 연구가치가 크다.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 제3-45호로 '양금석 가옥'도 있다. 60여 년 전에 지은 양씨 종가댁으로 600여 평의 대지 한가운데 안채가 있으며 바깥채는 안채와 마주보게 배치되어 있다. 양씨 종가댁은 안채·바깥채를 통틀어 방이 넷이고 툇마루가 셋이며, 마루방 셋이 배치되어 있는 제주도 전통 초가 양식 중에서도 다양한 공간구성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5) 의귀리

의귀리는 동쪽으로 신흥2리, 서쪽으로 한남리와 남원2리, 남쪽으로 남원리와 태흥1·2리, 북쪽으로 수망리와 접하고 있다. 약 450여 년 전부터 마을이 형성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넉시오롬' 바로 북동쪽, 중앙동 아래쪽의 유물산포지에서 탐라시대 전기의 적갈색 경질토기가 확인된 것으로 보아 1,000여 년 전부터 사람이 들어와 살았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의귀리의 옛 이름은 '옷귀' 또는 '옥귀', '옥기'라 하였다. 옛 문헌 기록에 따르면

『남사록』(1601~1602)에 '五耳里(오이리)', 《탐라도》(17세기 말)에서 '衣貴村(의귀촌)', 《탐라순력도》(1702)에 '衣貴(의귀)', 《탐라지도》(1709)에 '東衣貴(동의리)', 《제주삼읍도총지도》(18세기 중반)에 '東衣貴村(동의귀촌), 衣貴(의귀)', 『증보탐라지』에 '東·西衣貴(동·서의귀)', 『호구총수』(1789)에 '東義貴里(동의귀리), 西義貴里(서의귀리)', 『탐라지초본』(18세기 중반)에 '義貴(의귀)', 《제주삼읍전도》(1872)에 '衣貴里(의귀리), 東衣里(동의리)', 《정의군지도》(1899) 등에 '衣貴里(의귀리), 東衣貴(동의귀)', 『제주군읍지』(1899)와 『정의읍지』(1899) 등에 '東衣里(동의리)', 『삼군호구가간총책』(1904)에 '東衣(동의), 新衣(신의)', 『조선지지자료』(1910년경)에 '西衣里(서의리), 衣貴里(의귀리)' 등으로 표기하였다.

『남사록』(1601~1602)에 등장한 '五耳里(오이리)'는 '옷귀ᄆᆞ을' 또는 '옥귀을'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五는 '오'의 음가자 표기, 또는 '옷'이나 '옥'의 불완전한 음가자 표기이다. 耳는 '귀'의 훈가자 표기, 里는 'ᄆᆞ을>마을'의 훈독자 표기이다. 17세기 말부터 등장하는 '衣貴(의귀)'라는 표현은 '옷귀을'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衣는 '옷'의 훈가자 표기, 貴는 '귀'의 음가자 표기이다. '義貴(의귀)'는 衣貴의 衣를 달리 표기한 것에 불과하다. 이름에 대한 설화로 임진왜란 당시 의귀리 출신 김만일(金萬鎰)이 국난의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헌마(獻馬)한 뒤로 그의 후손이 어의(御衣)한 벌을 받은 데서 '옷귀'라 불렸다고 전해지기도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옷귀'[五耳·衣貴]라 불렸던 의귀리는 18세기 '동옷귀'와 '서옷귀'로 나뉘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동옷귀'는 다시 '동옷귀'와 '새옷귀'로 나뉘기도 했다. 일제강점기 초반에는 '동옷귀'를 '동의리'라 하고 '새옷귀'는 '의귀리'라 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정의군 서중면 수망리 일부(일부는 수망리에 병합)와 동의리 일부(일부는 신흥리에 병합), 의귀리 일부(일부는 한남리에 병합)를 병합하여 의귀리(衣貴里)가 되었다. 당시만 해도 의귀리는 남원읍 지역의 중심지였다. 1915년 도사제(島司制)를 실시하고 현 남원읍 지역을 서중면으로 명명하게 되면서 서중면사무소가 의귀리에 개소했던 것이다. 서중면 당시 의귀리가 면의 중심지였기에 현재 중앙동의 버스정류소 네거리에서 제3의귀교(개턴물)까지 거리에는 오일장이 열렸고 이를 '장판거리'라 불렀다. 이 장에는 육지 상인들도 몰려들어 술, 짚신, 초석, 버섯과 생필품 등을 판매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1912년~1918년 일주도로 개통 이후 중산간도로에서 일주도로 위주로 교통체제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1923년 제주경찰서 경찰관 주재소가 의귀리에 설치되었으나 1925년 남원리로

이전해갔고, 1926년에는 면사무소가 남원리로 이전했다. 따라서 의귀리 오일장도 소멸되었고 특히 1948년 4·3사건 당시 큰 피해를 당하기도 하였다.

2020년 10월 31일 현재 인구는 1,117명(남자 572명, 여자 545명)이며 월산동, 산하동, 중앙동 등 3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중앙동은 의귀리 중심에 있는 마을이며 월산동은 중앙동 동쪽에 있다. 산하동은 '넉시오름' 바로 동쪽에 형성된 마을로 오름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는 데서 연유하였다.

의귀리는 현재 감귤산업이 마을 소득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무말랭이, 고구마, 유채 등의 환금작물, 1980년대에는 바나나와 파인애플 등 고소득 작물을 재배해 많은 소득을 올리기도 했으나, 1990년대에 들어 농산물 수입 자유화의 여파로 시설감귤 재배농가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과거 수 백 필씩 조정에 헌마할 정도로 활발했던 축산업은 감귤산업의 발전으로 현재는 침체된 상태이다.

(6) 수망리

수망리는 동쪽으로 신흥2리, 서쪽으로 한남리, 남쪽으로 의귀리, 북쪽으로 표선면 가시리와 조천읍 교래리와 접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에 '수망(水望)'이라 하였고 『제주읍지』(정의현지 방리 중면)에 '물보라마을은 정의현 관문에서 서쪽으로 25리 거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수망리는 550여 년 전 경주 김씨가 '돔박낭밧(동백나무밭)' 일대에 터전을 잡은 후 점차 사람들이 모여들어 정착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다. 옛 이름은 '믈ᄇᆞ라〉물우라·무라'이다. 민간에서는 '물우라' 또는 '무라·무롯·무랏'이라고 한다. 문헌 속에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水望(수망)', 『탐라지』에 '水望川(수망천)', 《탐라도》(17세기 말)와 《탐라지도》 (1709), 《제주삼읍도총지도》(18세기 중반) 등에 '水望村(수망촌), 水望川(수망천)', 『증보탐라지』와 『호구총수』(1789), 《제주삼읍전도》(1872), 《정의군지도》(1899), 『정의읍지』(1899) 등에 '水望里(수망리)', 『삼군호구가간총책』(1904)에 '水望(수망), 東水(동수)'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즉 水望(수망)은 '믈ᄇᆞ라〉믈보라〉믈우라' 또는 '믈울러리' 정도의 음성형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水는 '믈〉물'의 훈독자 표기, 望은 '라-'의 유사음 '보라'의 훈가자 표기이다.

수망리는 20세기 초반에 '동수망'과 '수망'으로 나뉘기도 하였으나 1912년 『구한국행정구역명칭일람』에 '수망리'만 나오는 것으로 보아 1905년경부터 동수망과 수망이 수망리로 병합된 것으로 보인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정의군 서중면 수망리 일부(일부는 의귀리에 병합)와 동중면의 안좌리(일부는 가시리에 병합) 일부를 병합하여 '수망리'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제강점기 수망리에는 전동산동((앞)동산동네), 장고동(장고못동네·장구못동네), 영아동(영아리동네) 등의 자연마을이 있었다. 그러나 1948년 4·3 사건 때 큰 피해를 당하여 한때 폐동까지 되었고 현재는 향사동 1개 자연마을만 있다. 향사동은 수망리 중심마을로 예전에 향사가 있었던 곳을 중심으로 한 마을이라는 데서 연유하였다. 향사동은 다시 '묵은가름'과 '알동네'로 나뉜다.

면적은 30.79㎢으로 임야 92%의 광활한 야초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 소득원은 감귤과 목초지를 이용한 축산업이다. 2020년 10월 31일 기준 인구는 408명(남자 202명, 여자 206명)으로 남원읍 내에서는 위미3리 다음으로 가장 적다.

수망리에는 '물영아리오름'이 있다. 산정에 화구호를 가진 오름으로, 총 면적은 717,013㎡이며, 둘레 4,339m, 해발 508m, 비고 128m이다. 2000년에 전국에서 최초로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7년에는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예로부터 이 오름의 산신이 노하면 분화구 일대가 안개에 휩싸이고 천둥번개와 폭우가 쏟아진다는 전설이 전해 오고 있다. 『탐라지』에는 '수영악(水盈嶽)'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정의현 북쪽 삼십 리에 있다. 그 꼭대기에는 못이 있다."라는 기록이 있다. 《탐라순력도》(1702)에는 '물영아리악(勿永我里嶽)'이라 되어 있고, 오름의 정상부는 '유수(有水)'라고 기록되어 있다.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종 2급인 '물장군'과 '맹꽁이', 그 밖에 '물여귀' 등 습지 식물 210종, 47종의 곤충과 8종의 양서·파충류 등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오름의 하단부에서 산정부에는 인공림과 자연림이 조성되어 있다.



Ⅱ

조사 내용

1. 의생활

의생활은 사람이 살아가며 입는 옷이나 그 옷을 입는 일에 관한 것이다.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옷감, 바느질 도구가 있어야 한다. 또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세탁 도구, 헤어진 옷을 수선하기 위한 손질 도구가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의생활에 관련된 도구를 바느질 도구, 손질 도구, 세탁 도구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또한 제보자들이 1980년대 이전에 입었던 전통 옷과 미리 장만해 놓은 수의 등도 살펴보았다.

1.1. 바느질 도구

(1) 미싱

'미싱'은 바느질을 할 때 사용하는 기계로 일본어(ミシン)에서 온 말이다. 표준어의 '재봉틀'에 대응하는데 제보자에 따라 '미승'이라고도 한다.

"어머니가 일본에서 미싱을, 저디 잇는디이 사삼사건 때 막 불부떠 가니까 중요헌 거를, 옛날 구뎅이렌 헌다. 그 고구마를 묻젠 허면은 구뎅이 판에 그딜 묻어서 무시걸로 더펏주게. 겐 피신헷당 잠잠허니까 완 보니까 다른 딘 다 불부트고 미싱은 건져냇지. 겐 그것을 수리헤서 쭉 사용을 헷주. 옷도 멘들고, 남원리에서 점빵을 허면서 옷을 멘들앙 헤 주고. 점빵허멍 미싱허멍 산 거주." [1]

1) 남원1리 장덕지 씨 구술.

(어머니가 일본에서 재봉틀을, 저기 있는데 사삼사건 때 마구 불붙어 가니까 중요한 거를, 옛날 구덩이라고 해. 그 고구마를 묻으려고 하면 구덩이 파서 거길 묻어서 뭣으로 덮었지. 그래서 피신했다가 잠잠하니까 와서 보니까 다른 데는 다 불붙고 재봉틀은 건져냈지. 그래서 그것을 수리해서 쭉 사용했지. 옷도 만들고, 남원리에서 가게를 하면서 옷들 만들어서 해 주고. 가게하면서 재봉하면서 산 거지.)



〈사진 1〉 장덕지 씨 소장 '미싱'



〈사진 2〉 장덕지 씨 소장 '미싱'



〈사진 3〉 장덕지 씨 소장 '미싱'



〈사진 4〉 '미싱'의 손잡이 부분

<사진 1>은 남원1리 장덕지 씨(1945년생)의 어머니가 사용했던 손재봉틀이다. 장 씨의 어머니는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살았었는데, 재봉일을 했었다고 한다. 사진의 재봉틀은 장 씨의 어머니가 일본에서 들어올 때 가지고 들어온 것으로, 제주에 돌아와서 결혼한 후에도 계속 재봉일을 했었다고 한다. 재봉틀은 나무로 된 상자 위에 고정되어 있고, <사진 2>의 왼쪽의 뚜껑을 덮는 형태로 되어 있다. 재봉틀의 보관함은 나무로 된 상자의 앞쪽 위의 판을 열어 안에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흔 육십이 년 뒌 거. 저걸로 뭐 물질허는 속곳도, 물옷도 만들어나고 위에 적삼 하얀 거 그것도 만들어나고 몸뻬도 허고. 발미싱 헤난 거 저거 바꾸 건디 흔 이십 년 뒛어. (혼수로 헤 온 거?) 으, 으. 물질 잘헤낫저. 애기상군. 힘들엉, 족은아덜 난에 설런. 낭 밧도 흔 만 펭 둬 가고 물질허고 그거 허고 절대 못 허크라라, 힘들엉."[2]

(한 육십이 년 된 거. 저걸로 뭐 물질하는 '속곳'도, 물옷도 만들었었고 위에 (입는) 적삼 하얀 거 그것도 만들었었고 몸뻬도 하고. 발재봉틀 했던 거 저거 바꾼 지 한 이십 년 됐어. (혼수로 해 온 거?) 으, 으. 물질 잘했었어. '아기상군'. 힘들어서, 작은아들 낳고 그만뒀어. 귤나무밭도 한 만 평 되어 가고 물질하고 그거 하고 절대 못 하겠더라, 힘들어서.)



〈사진 5〉 강순화 씨 소장 '미싱'



〈사진 6〉 강순화 씨 소장 '미싱'

<사진 5>는 남원1리 강순화 씨(1941년생)가 사용하고 있는 '미싱'이다. 강 씨가 결혼할 때 혼수로 장만해 온 것으로 사진의 재봉틀로 물질할 때 입었던 '속곳'과 '물적삼' 등 물옷도 만들고 몸뻬도 만들어 입었다고 한다. 원래는 발재봉틀로 사용했던 것을 약 이십 년 전에 손재봉틀로 고쳐서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다.

"지금도 쓰기는 쓰는데. 결혼헐 때 가져온 거, 처녀 때 쓰고 잇던 거. 그니까 지금 한 육십 년."[3]

(지금도 쓰기는 쓰는데. 결혼할 때 가져온 거, 처녀 때 쓰고 있던 거. 그러니까 지금 한 육십 년.)

2) 남원1리 강순화 씨 구술.
3) 태흥2리 김용남 씨 구술.
4) 신례1리 김길순 씨 구술.
5) 남원1리 김동곤 씨 구술.

"우리 뚤이 으섯 설에, 큰뚤이 으섯 설에 우리 저 동녁 편이 살단이 이디 이사 와신디 그때 산 거난 멧 년 뒈시코? 지금 가이가 쉰, 쉰으섯이난 흔 오십 년 거의 뒛저. 겐 판난 못 썬게. 이젠 못 써, 너무 오래뒈난산디."[4]

(우리 딸이 여섯 살에, 큰딸이 여섯 살에 우리 저 동녘 편에 살다가 여기 이사 왔는데 그때 산 거니까 몇 년 되었을까? 지금 걔가 쉰, 쉰여섯이니까 한 오십 년 거의 됐어. 그래서 고장나서 못 썼어. 이젠 못 써, 너무 오래되어서인지.)

"육십 년대부터 써난. 우리 집사름이 옛날 양재 학원 다녔어요. 중학교 나온 후제 양재 학원 다니면서. 전동식으론 나중에 바꾼 거, 결혼헐 때 헨 온 거에서 나중에 전동식으로 바꽌."[5]

(육십 년대부터 썼었어. 우리 집사람이 옛날 양재 학원 다녔어요. 중학교 나온 후에 양재 학원에 다니면서. 전동식으론 나중에 바꾼 거, 결혼할 때 해서 온 거에서 나중에 전동식으로 바꿨어.)



〈사진 7〉 김용남 씨 소장 '미싱'



〈사진 8〉 김길순 씨 소장 '미싱'



〈사진 9〉 김동곤 씨 소장 '미싱'



〈사진 10〉 고영주 씨 소장 '미싱'

<사진 7>은 태흥2리 김용남 씨(1946년생) 아내가 사용하고 있는 '미싱'이다. 김 씨의 아내가 결혼 전부터 사용하던 것을 결혼하면서 가지고 온 것으로,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다. <사진 8>은 신례1리 김길순 씨(1941년생)가 사용하고 있는 재봉틀이다. 김 씨 큰딸이 여섯 살 때 장만한 것인데 구입해서 사용한 지 오십 년이 되었다고 한다. <사진 9>는 남원1리 김동곤 씨(1941년생) 아내가 사용했던 재봉틀인데, 김 씨의 아내가 결혼할 때 장만했던 것으로 그 후에 전동식으로 고쳐 사용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은 채 보관만 하고 있다. <사진 10>은 남원1리 고영주 씨(1935년생) 아내가 사용하고 있는 재봉틀이다.

"저거 막 오래됏어. 저거는 옛날에 손미싱이엔 헌 거 잇어낫어, 손미싱 손으로 돌려난 건데 그것이 막 뭐 허고, 그때는 옷이 막 나올 때 아니난 우리냥으로 질쌈헹 미녕이영 베영 막 만들엇어. 그런 거 나대로 멘들젠 허니까 저 미싱, 손미싱 영 영 허단 손이, 어깨 아프니까 발만 메운 거야."[6]

(저거 아주 오래됐어. 저거는 옛날에 손재봉틀이라고 하는 것 있었었어. 손재봉틀 손으로 돌렸던 건데 그것이 아주 뭐 하고, 그때는 옷이 마구 나올 때 아니니까 우리대로 길쌈해서 무명이랑 베랑 마구 만들었어. 그런 거 나대로 만들려고 하니까 저 재봉틀, 손재봉틀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손, 어깨 아프니까 발만 메운 거야.)

"손미싱 허단에 이 저 손미싱은 손으로 영 허단 보민 이디 걸 뭐 정리를 못 헤. 게난 발로 허면은 이디 걸 얼마든지 정리허고 허거든. 저 미싱으로 옷덜 그냥 입는 옷덜 다 멘들아. 아이덜 옷도 멘들앙 입지고. 게난 질쌈헹 옷감을 다 만들었어, 우리 친정에서는. 옷감을 다 멘들아근에 옷은 따로 멘들어야 뒈니까."[7]

(손재봉틀 하다가 이 저 손재봉틀은 손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여기 걸 뭐 정리를 못 해. 그러니까 발로 하면 여기 걸 얼마든지 정리하고 하거든. 저 재봉틀로 옷들 그냥 입는 옷들 다 만들어. 아이들 옷도 만들어서 입히고. 그러니까 길쌈해서 옷감을 다 만들었어, 우리 친정에서는. 옷감을 다 만들어서 옷은 따로 만들어야 되니까.)

6) 의귀리 김예 씨 구술.
7) 의귀리 김예 씨 구술.
8) 남원1리 고영주 씨 구술.


〈사진 11〉 의귀리 김예 씨 소장 '미싱'

<사진 11>은 의귀리 김예 씨(1927년생)가 소장하고 있는 재봉틀이다. 김 씨는 손재봉틀을 사용하다가 손과 어깨가 아파서 발재봉틀로 고쳐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예전에는 길쌈을 해서 옷감을 가정에서 직접 만들어 냈는데, 이러한 옷감을 가지고 재봉틀로 아이들의 옷을 만들어서 입혔다.

"이거 엿날 미승, 발미승 헐 때 꼴아 앉아난 거주게. 게난 발미승 나이 들고 허난 발빼분 거주게. (구멍은) 뭐 놓는 거주게."[8]

(이거 옛날 재봉틀, 발재봉틀 할 때 깔아 앉았던 거지. 그러니까 발재봉틀 나이 들고 하니까 발빼버린 거지. (구멍은) 뭐 넣는 거지.)


〈사진 12〉 고영주 씨 소장 '발미싱 의자'


〈사진 13〉 고영주 씨 소장 '발미싱 의자'(뒤)

<사진 12>은 남원1리 고영주 씨 댁에서 사용했던 발재봉틀 의자이다. 발재봉틀은 책상과 같은 형태이다. 앉아서 발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의자가 필요한데 <사진 12>의 의자는 고 씨가 직접 만들어 고 씨의 아내가 사용했던 의자다. 의자 앞쪽은 물건을 넣을 수 있도록 뚫려 있는데, 헝겊이나 바느질 도구 등 재봉질에 필요한 물건 따위를 보관했다고 한다.

한편, 재봉틀이 잘 돌아가려면 윤활유가 필요하다. 재봉틀에 바르는 기름을 '미싱 기름'이라고 한다. 제보자에 따라 '미승 기름', '미싱 지름', '미승 지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저런 기름 주는 것도 이젠 병으로 뒌 거나 영 줍는 거. 저거는 일본 시대에 나온 거라."[9]
(저런 기름 주는 것도 이젠 병으로 된 거나 이렇게 집는 거. 저거는 일본 시대에 나온 거야.)



〈사진 14〉 고영주 씨 소장 '미싱 기름'



〈사진 15〉 장덕지 씨 소장 '미싱 도라이바'

<사진 14>는 남원1리 고영주 씨가 보관하고 있는 '미싱 기름'이다. 고 씨의 아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재봉틀에 기름칠할 때 사용하는 물건이다. 위 사진이 놓여 있는 형태에서 뒤집어 뾰족한 부분을 재봉틀에 대어 기름을 넣는다.

한편, <사진 15>는 남원1리 장덕지 씨가 보관하고 있는 재봉틀용 드라이버이다. <사진 1>의 재봉틀 상자 안에 들어 있는 것으로 재봉틀의 나사를 조일 때 사용하는 것이다.

(2) 바농상지

'바농상지'는 바늘, 실, 가위, 헝겊 따위의 바느질 도구를 담는 그릇으로, '반짇고리'를 말한다. 보통 크기가 작은 대바구니를 '바농상지'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플라스틱 그릇이나 천 바구니 따위를 이용하기도 한다.

9) 남원1리 고영주 씨 구술.
10) 신례1리 강문선 씨 구술.

"실 ᄀᆞ튼 거, 헝벅 ᄀᆞ튼 거 필요헌 거 담아 놓는 거. 무시거 영 줍젠 허민 존존헌 헝벅덜 놧잖아이. 그런 것덜게. 이거 나가 멘든 거, 바농상지 쓰젠. 미승으로 헌 거. 이제 나 미승 메누리네 줘 부난 엇주만은 신 때는 나가 만들엇주."[10]
(실 같은 거, 헝겊 같은 거 필요한 거 담아 놓는 거. 무엇 이렇게 기우려고 하면 자잘한 헝겊들 넣었잖아. 그런 것들. 이거 내가 만든 거, '바농상지' 쓰려고. 재봉틀로 한 거. 이제 내가 재봉틀 며느리에게 줘 버리니까 없지만 있을 때는 내가 만들었지.)



〈사진 16〉 김복선 씨 소장 '바농상지'



〈사진 17〉 김동곤 씨 소장 '바농상지'



〈사진 18〉 고영주 씨 소장 '바농상지'



〈사진 19〉 강문선 씨 소장 '바농상지'

<사진 16>은 신례1리 김복선 씨(1942년생)가 보관하며 사용하고 있는 '바농상지'다. 가는 대나무를 결어 만든 'ᄀᆞ는대구덕'을 반짇고리로 활용, 테두리는 노끈으로 둘러 사용하고 있다. 바구니에는 바느질 도구 외에 보자기, 양말, 옷감 등을 함께 넣어 보관하고 있다. <사진 17>은 남원1리 김동곤 씨 아내가 사용했던 '바농상지'다. 재봉틀에 사용하는 실패를 비롯하여 여러 개의 실패 등이 들어 있다. <사진 18>은 남원1리 고영주 씨 아내가 사용하고 있는 '바농상지'다. 작은 보자기에 자투리 옷감이나 실패

를 구분하여 넣고, 바느질자 등과 같이 보관하고 있다. '바농상지' 둘레에 바늘겨레가 달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19>는 신례1리 강문선 씨(1933년생) 사용하고 있는 '바농상지'다. 마대의 천을 재봉틀로 기워 만들었다.

(3) 바농 졸레

'바농졸레'는 바늘을 끼워 보관할 때 사용하는 '바늘겨레'를 말한다. 실을 감아 둔 실패에 바늘을 찔러 보관하기도 하지만 별도로 바늘겨레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



〈사진 20〉 고영주 씨 소장 '바농 졸레'



〈사진 21〉 오순만 씨 소장 '바농 졸레'

<사진 20>은 남원1리 고영주 씨 아내가 사용하고 있는 바늘겨레다. 붉은색 천 안에 솜을 넣어 만든 것으로 반짇고리 둘레에 매달아 사용하고 있다. <사진 21>은 위미2리 오순만 씨(1941년생)가 사용하고 있는 바늘겨레로, 작은 주머니에 솜을 넣어 바늘겨레로 쓰고 있다. 바늘과 시침핀이 꽂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4) 고넹이포

'고넹이포'는 헝겊으로 만든 작은 보자기로, 바느질용 물건들을 구분하여 넣는 데 사용한다.

"거 고넹이거치 생겻다 헤서 고넹이포렌 허주."[11]
(거 고양이같이 생겼다고 해서 '고넹이포'라고 하지.)

11) 신례1리 강문선 씨 구술.
12) 신례1리 강문선 씨 구술.



〈사진 22〉 고영주 씨 소장 '고넹이포'



〈사진 23〉 고영주 씨 소장 '고넹이포'

<사진 22>와 <사진 23>는 남원1리 고영주 씨 아내가 사용하고 있는 '고냉이포'다. '고냉이'는 '고양이'에 대응하는 말이고, '포'는 보자기를 가리키는 말이다. 고 씨에 의하면 헝겊으로 만든 자루가 고양이 귀 모양과 비슷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자루 안에는 자투리 천을 넣어 보관하고 있었다.

(5) 실패

'실패'는 바느질하는 데 사용하는 실을 감아 두는 물건이다. 나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기성 제품도 있지만 종이나 천을 접어 그 위에 실을 감아 실패로 사용하기도 한다.

"건 실패렌 허주게, 실패. 실 감아 둔 거. 무시거 아무거라도 이녁이 쓰기 존 거 헹 실 감앙 놔두민 영 풀멍 쓰기 조난."[12]
(건 실패라고 하지, 실패. 실 감아 둔 거. 무엇 아무거라도 자기가 쓰기 좋은 거 해서 실 감아서 놔두면 이렇게 풀면서 쓰기 좋으니까.)



〈사진 24〉 고영주 씨 소장 '실패'



〈사진 25〉 오순만 씨 소장 '실패'



〈사진 26〉 강문선 씨 소장 '실패'



〈사진 27〉 강문선 씨 소장 '실패'

<사진 24>는 남원1리 고영주 씨 아내가 사용하고 있는 실패다. 종이를 겹쳐 접어 그 위에 실을 말아 사용하고 있다. <사진 25>는 위미2리 오순만 씨가 사용하고 있는 실패다. <사진 26>은 신례1리 강문선 씨의 실패로, 쓰다 만 치약 튜브에 실을 감아서 사용하고 있다. <사진 27>은 신례1리 고방순 씨(1937년생)가 사용하고 있는 실로, 재봉틀용 실패이다. 재봉틀에 이것을 바로 끼워 사용한다.

(6) 속돌

'속돌'은 녹이 슬어 잘 들지 않는 바늘을 갈 때 사용하는 돌을 말한다. 이 '속돌'은 바늘 따위를 갈 때도 사용하지만 예전에는 놋그릇을 닦을 때 사용하기도 했다.

"거 속돌, 따끄는 거. 저런 속돌 뿟안 우리 다까졋구나, 항이 아니고. 이거 바농 다까, 바농 다끄는 거."[13]

(거 속돌, 닦는 거. 저런 속돌 빻아서 우리 (놋그릇) 닦았구나, 항이 아니고. 이거 바늘 닦아, 바늘 닦는 거.)

"놋그릇 다끄는 건 저 바당에 가근에 저이 무시것이 잇어. 돌ᄀᆞ루 닮은 거 뿟앙. 그거 다끄는 것이 잇어.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엇인디, 속돌 닮은 거이, 속돌 ᄀᆞ루 줏어다근에 막 뿟아근에 허민 이거를 막 잘 져. 다른 거는 안 져도 그걸로 헌 거는 잘 져. 산디찍으로, 여기는 나룩찍이 엇이난 산디찍 빌어단 허민 막 잘 져. 게고 우리 제서 때 뒈가민 ᄒᆞᆫ 스무 그릇을, 열 그릇을 허젠 허민 엥간히 팔월 멩질 뒈 가민 엥간히, 돌ᄀᆞ루 봉가다근에 ᄒᆞ곡 산디찍 부벼근에 ᄉᆞ못 따끄곡 허민." [14]

(놋그릇 닦는 건 저 바다에 가서 저 무엇이 있어. 돌가루 같은 거 빻아서. 그거 닦는 것이 있어.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속돌' 같은 거, '속돌' 가루 주워다가 마구 빻아서 하면 이거를 아주 잘 져. 다른 거는 안 져도 그걸로 한 거는 잘 져. 밭볏짚으로, 여기는 볏짚이 없으니까 밭볏짚 빌려다가 하면 아주 잘 져. 그리고 우리 제사 때 돼 가면 한 스무 그릇을, 열 그릇을 하려고 하면 어지간히 팔월 명절 돼 가면 어지간히, 돌가루 주워다가 하고 밭볏짚 부벼서 사뭇 닦고 하면.)

<사진 28>은 위미2리 오순만 씨가 보관하고 있는 '속돌'이다. 녹슨 바늘을 갈 때 사용하는 것으로 바늘뿐만 아니라 놋그릇을 닦을 때도 '속돌'을 갈아 사용했다고 한다. 놋그릇을 '속돌'로 갈았다는 것은 태흥2리 양기화 씨(1938년생)의 구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양 씨에 의하면 팔월 명절이 가까워지면 바닷가에서 '속돌'을 주워다가 잘게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밭볏짚으로 닦았었다고 한다.



〈사진 28〉 오순만 씨 소장 '속돌'

(7) 바농질자

'바농질자'는 표준어의 바느질자로, 옷감의 길이나 몸의 치수를 재는 데 쓰는 자다. 바느질자는 보통 왕대나 나무를 납작하게 잘라 만들어 사용한다.

"ᄒᆞᆫ 치가 오 쎈치. 보통 삼십삼 센치를 ᄒᆞᆫ 자엔 허지 안허여게. 게난 ᄒᆞᆫ 치가 오 센치 ᄒᆞ꼼 더 뒐 거주. 이거 대로 멘들엇당 이거 헌 거. 나가 박달나무로 멘들아 줫는디 건 큰메누리산디 족은메누리산디 가졍 가 불언. 저건 이제 할망 쓰는 거고." [15]

(한 치가 오 센티미터. 보통 삼십삼 센티미터를 한 자라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한 치가 오 센티미터 조금 더 될 거지. 이거 대로 만들었다가 이거 한 거. 내가 박달나무로 만들어 줬는데 큰며느리인지 작은며느리인지 가지고 가 버렸어. 저건 이제 할머니(아내) 쓰는 거고.)

13) 위미2리 오순만 씨 구술.
14) 태흥2리 양기화 씨 구술.
15) 남원1리 고영주 씨 구술.



〈사진 29〉 고영주 씨 소장 '바농질자'



〈사진 30〉 장덕지 씨 소장 '자'

<사진 29>는 남원1리 고영주 씨 아내가 사용하고 있는 바느질자다. 눈금 하나가 한 치인데 한 치의 길이는 성냥개비 하나의 길이와 같았다고 한다. 그래서 성냥개비에 맞추어 길이를 재어 자에 표시하기도 했다고 한다. <사진 30>은 남원1리 장덕지 씨가 보관하고 있는 재봉용 자다. 장 씨의 어머니가 사용했던 것으로, 장 씨가 물려받아 보관하고 있는 재봉틀 안에 다른 재봉 도구들과 함께 보관되어 있다.

(8) ᄀᆞ세

'ᄀᆞ세'는 옷감, 종이 따위를 자르는 '가위'를 말한다. 날이 있는 두 개의 쇠를 교체시켜 가운데 고정시키고 지레의 원리를 이용하여 벌렸다 오므렸다 하며 자른다.



〈사진 31〉 김예 씨 소장 'ᄀᆞ세'



〈사진 32〉 고방순 씨 소장 'ᄀᆞ세'

<사진 31>은 의귀리 김예 씨가 사용하고 있는 가위다. 김 씨는 이 가위를 아이들 옷을 만들어 입힐 때 옷감을 자르는 용도로 사용했다. <사진 32>는 신례1리 고방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ᄀᆞ세'다. 이제는 사용하지 않아 연장들과 함께 보관되고 있는데 녹이 많이 슨 상태다.

1.2. 손질 도구

(1) 다듬이돔베

'다듬이돔베'는 다듬이질을 할 때 밑에 받치는 네모난 나무판을 말한다. '돔베'는 표준어의 '도마'에 대응하는 제주어인데, 다듬이질하던 것을 도마로도 이용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잇엇단에 저디 문 썩어 벳주게. 다듬이허는 판 다듬이돔베. 저디 문 썩엄서."[16]
(있었다가 저기 모두 썩어 버렸지. 다듬이하는 판 '다듬이돔베'. 저기 모두 썩고 있어.)

"우리 사삼사건 직후니까 혼 오십 년도에 만들어실 거라, 오십 년도에. 나 그때 열 살. 아부지가 만든 거 물령 쓰는 거주. 저 빨래 헤근에 이 옛날엔 그 뭐 잇잖여. 두드려야, 그때는 다리미도 엇고 뭐 허니까 두드려근에 옷을 허거든. 그거 허고 이 저 명주, 명주 거튼 거는 생멩주 뭐 허니까 그것도 빨아근에 막 그디서 다듬이헤근에 이 저 풀을 죽이는 거주. 그거 허고 이 경조사 때는 그 고기 써는 거. (의귀리에 멩주 많이 헤낫수꽈?) 에구, 많이 헷어. 우리 저 뽕썹 허레 저 **꺼지 가 오고. 많이 헷어. 여자덜이 얼마나 그 당시 저 못 젼딘 걸 알아? 그거 헤근에 허곡 또 손으로 그걸 두드령 뿔곡 또 다듬이, 잔치 때나 뒈민 새각시 옷덜 허젠 허민 걸 다듬이로 다 헤야 뒈. 밤중 뒈민 그 소리가, 동네 야단이라. 시집이나 가게 뒌 그 새각시네 집은." [17]
(우리 사삼사건 직후니까 한 오십 년에 만들었을 거야, 오십 년에. 나 그때 열 살. 아버지가 만든 거 물려서 쓰는 거지. 저 빨래해서 이 옛날엔 그 뭐 있잖아. 두드려야, 그때는 다리미도 없고 뭐 하니까 두드려서 옷을 하거든. 그거 하고 이 저 명주, 명주 같은 거는 생명주 뭐 하니까 그것도 빨아서 마구 거기서 다듬이해서 이 저 풀을 죽이는 거지. 그거 하고 이 경조사 때는 그 고기 써는 거. (의귀리에 명주 많이 했었습니까?) 에구, 많이 했어. 우리 저 뽕잎 하러 저 **까지 갔다 오고. 많이 했어. 여자들이 얼마나 그 당시 저 못 견딘 걸 알아? 그거 해서 하고 또 손으로 그걸 두드려서 빨고 또 다듬이, 잔치 때나 되면 새색시 옷들 하려고 하면 걸 다듬이로 다 해야 돼. 밤중 되면 그 소리가, 동네 야단이야. 시집이나 가게 된 그 새색시네 집은.)

16) 신례1리 김길순 씨 구술.
17) 의귀리 김병수 씨 구술.

"돔베도 나가 멘든 건디. 육십 년대 초에 멘든 거. 엿날에 그 빨래헐 때 다듬이질 헐 때 옷 천을 다듬을 때 허곡 그때 여기서 떡도 만들고 고기도 썰고, 옛날에 큰 대서 때, 그런 때 써낫주. (무슨 낭으로 만들엇수꽈?) 돔박낭. 돔박낭 그 전이 저 집 우연에 잇어낫어. 집 뒤에 잇어낫주게. 혼 백오십 년 뒌 동백낭."[18]

('돔베'도 내가 만든 건데. 육십 년대 초에 만든 거. 옛날에 그 빨래할 때 다듬이질 할 때 옷 천을 다듬을 때 하고 그때 여기서 떡도 만들고 고기도 썰고, 옛날에 큰 대사 때, 그런 때 썼었지. (무슨 나무로 만들었습니까?) 동백나무. 동백나무 그 전에 저 집 터앝에 있었었어. 집 뒤에 있었었어. 한 백오십 년 된 동백나무.)



〈사진 33〉 김병수 씨 소장 '다듬이돔베'



〈사진 34〉 오경수 씨 소장 '다듬이돔베'

<사진 33>은 의귀리 김병수 씨(1945년생)가 소장하고 있는 '다듬이돔베'다. 김 씨의 부모님이 1950년경에 만들어 사용했던 것을 김 씨가 물려받아 사용해 왔다. 김 씨의 구술에 의하면 이 '다듬이돔베'를 빨래를 하고 나서 다듬이질할 때 받침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경조사 때는 고기를 써는 도마로 이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전통사회에서는 명주를 직접 만들어 손으로 방망이를 두드리며 옷을 장만해야만 했다.

<사진 34>는 의귀리 오경수 씨(1941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다듬이돔베'다. 오 씨가 1960년대 초에 집 뒤 터앝에 있었던 오래된 동백나무를 잘라 만들었다고 한다. 오 씨 집에서도 이 '다듬이돔베'를 다듬이질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집안 대소사가 있을 때면 떡을 만들고 고기를 썰 때에 사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사진에서 칼질을 했던 자국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8) 의귀리 오경수 씨 구술.

(2) 홍짓대와 다듬이마께

'홍짓대'는 다듬잇감을 감아서 다듬이질할 때에 쓰는 나무로 된 것으로, 표준어의 '홍두깨'에 대응하는 말이다. '다듬이마께'는 '다듬잇방망이'에 대응하는 제주어로, '다듬이돔베'에 놓인 옷을 다듬이질할 때 사용하는 방망이다.

"건 홍짓대. 뭐 다듬이질헐 때 허는 거주게. 미녕 거튼 거 이디 돌돌 몰아근에 마께로 막 두드리는 거."[19]

(건 홍두깨. 뭐 다듬이질할 때 하는 거지. 무명 같은 거 여기 돌돌 말아서 방망이로 마구 두드리는 거.)



〈사진 35〉 고방순 씨 소장 '홍짓대'



〈사진 36〉 고방순 씨 소장 '홍짓대'

<사진 35>와 <사진 36>은 신례1리 고방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홍짓대'다. 무명 따위를 돌돌 감아서 천을 두드리면서 다듬이질할 때 사용했었다고 한다.

"다듬이허는 마께도 셔낫주. 빨래헤근에 풀헹 이 다듬이헤낫주게. 요새 거트민 풀헤근에 막 손 보주게. 미녕 거튼 거, 멩지 거튼 거 뿔아근에 막 다듬이헤사 옷 헹 입엇주게."[20]

(다듬이하는 방망이도 있었지. 빨래해서 풀해서 이 다듬이했었지. 요새 같으면 풀해서 마구 손 보지. 무명 같은 거, 명주 같은 거 빨아서 마구 다듬이해야 옷 해서 입었지.)

19) 신례1리 강문선 씨 구술.
20) 신례1리 강문선 씨 구술.



〈사진 37〉 고방순 씨 소장 '다듬이마께'



〈사진 38〉 고영주 씨 소장 '다듬이마께'

<사진 37>은 신례1리 고방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다듬이마께'고, <사진 38>은 남원1리 고영주 씨 집에서 사용했던 '다듬이마께'다. '다듬이마께'는 다듬이판인 '다듬이돔베'에 옷감을 곱게 접어 놓아 두드리기도 하고 옷감을 홍두깨에 감아서 두드리기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3) 다리미와 인두

'다리미'는 옷이나 천 따위의 주름이나 구김을 펴고 줄을 세우는 데 쓰는 도구를 말한다. 쇠붙이로 만들며 바닥이 판판하고 매끄럽게 되어 있는데, 숯불을 넣어 뜨겁게 달구어 사용한다. '인두'는 바느질할 때 불에 달구어 천의 구김살을 눌러 펴거나 솔기를 꺾어 누르는 데 썼던 도구다.

"옷 다리는 거. 다리미 그거에 숫불 놩. 동글랑허게 이만이 허민이, 동골랑헌 거라. 창 납작헌 거주게. 불살롸근에 화로불 살롱 옷 영 허민 영 둘이 심주게. 저디 심곡 이디 심곡 허민 쑥쑥 다려, 쑥쑥 다려." [21]

(옷 다리는 거. 다리민 그것에 숯불 넣어서. 동그랗게 이만큼 하면, 동그란 거야. 바닥 납작한 거지. 불살라서 화롯불 살라서 옷 이렇게 하면 이렇게 둘이 잡지. 저기 잡고 여기 잡고 하면 쑥쑥 다려, 쑥쑥 다려.)

21) 신례1리 강문선 씨 구술.
22) 남원1리 장덕지 씨 구술.



〈사진 39〉 고방순 씨 소장 '다리미'



〈사진 40〉 고방순 씨 소장 '다리미'

<사진 39>와 <사진 40>은 신례1리 고방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다리미다. 신례1리 강문선 씨 구술에 의하면 먼저 두 사람이 천의 끝에서 천을 당기며 잡고 있고, 그 위에 사진의 다리미에 숯을 넣은 후 다리미 바닥이 뜨거워지면 손에 들고 다리미를 쑥쑥 밀고 당기면서 다리미질을 했다고 한다.

한편, '인두' 역시 다리미처럼 쇠로 만들며 바닥이 반반하고 긴 손잡이가 달려 있다.

"저디 인두 끈어진 것이 잇는데 그건 우리 어머니가 헷던 것이 아니고. 거는 우리 ᄉᆞ춘 형이 준 거." [21]

(저기 인두 끊긴 것이 있는데 그건 우리 어머니가 했던 것이 아니고. 거는 우리 사촌형이 준 거.)

<사진 41>은 남원1리 장덕지 씨가 보관하고 있는 인두다. 장 씨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옷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인두를 사용하는 것을 종종 봤었는데, 어머니가 사용했던 것은 남아 있지 않고, 사진의 인두는 사촌형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한다.



〈사진 41〉 장덕지 씨 소장 '인두'

1.3. 세탁 도구

(1) 뿔레판

'뿔레판'은 빨래할 때 쓰는 판으로, 넓적한 나무판을 물결같이 울퉁불퉁하게 파 놓은 것이다.

"건 뿔레헐 때게, 막 오랜 거 아니라. 이제도 건 써. 세탁기 시난 세탁기 허주만은 것에 놩 마께로 두드림도 허곡 막 손으로 영 영."[23]
(그건 빨래할 때, 아주 오랜 거 아니야. 이제도 그건 써. 세탁기 있으니까 세탁기 하지만 그것에 놔서 방망이로 두드리기도 하고 마구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사진 42〉 강문선 씨 소장 '뿔레판'

<사진 42>는 신례1리 강문선 씨가 사용하고 있는 빨래판이다. 강 씨는 요즘은 세탁기를 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 소소한 것들은 지금도 빨래판을 쓰며 빨래를 한다고 한다.

(2) 세답마께

'세답마께'는 빨래를 할 때 옷의 때를 빼기 위하여 빨랫감을 두드려서 빠는 데 쓰는 방망이다. 표준어 '빨랫방망이'에 대응하는 말로 세답(洗踏)을 할 때 사용하는 '마께(방망이)'여서 '세답마께'라고 한다. 제보자에 따라 '서답마께', '물마께', '뿔레마께'라고 하기도 한다.

"빨래헐 때 두드리는 거."[24]
(빨래할 때 두드리는 거.)

"서답헐 때 때 지렌 두드리는 거주, 서답마껜."[25]
(세답할 때 때 지라고 두드리는 거지, 세답마께는.)

23) 신례1리 강문선 씨 구술. 24) 신례1리 김길순 씨 구술. 25) 신례1리 강문선 씨 구술.



〈사진 43〉 고영주 씨 소장 '세답마께'



〈사진 44〉 현원휴 씨 소장 '세답마께'



〈사진 45〉 현창언 씨 소장 '세답마께'



〈사진 46〉 김길순 씨 소장 '빨래마께'



〈사진 47〉 오경수 씨 소장 '서답마께'



〈사진 48〉 강도범 씨 소장 '세답마께'

<사진 43>은 남원1리 고영주 씨, <사진 44>는 수망리 현원휴 씨(1932년생) 집에서 사용했던 빨랫방망이다. <사진 45>는 남원1리 현창언 씨(1937년생), <사진 46>은 신례1리 김길순 씨, <사진 47>은 의귀리 오경수 씨, <사진 48>은 위미2리 강도범 씨(1937년생)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빨랫방망이다.

1.4. 의복

(1) 봇뎃옷

'봇뎃옷'은 깃과 섶을 달지 않은 갓난아이의 옷으로, 표준어의 '배냇저고리'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봇뎃창옷'이라고도 한다. 제주에서는 아기가 태어나서 사흘째 되는 날에 아기 목욕을 시키고 '봇뎃옷'을 입혔다. 소재는 계절에 상관없이 베로 만들어 입혔는데, 옷의 소매를 길게 해서 아기가 얼굴을 할퀴지 못하게 하였고 옷고름은 실을 꼬아서 한쪽을 길게 해서 단 것이 특징이다.

"몸 ᄀᆞ렵넨 베로 멘근 옷 입졋어. 거 봇뎃옷. 경허고 그 옷도 빌어 뎅겻수궤, 애기 잘 키운 사름 거 얻어다 입져. 그 애기 잘 크는 집이 잇지? 그민 거를 얻어다 입져, 역불로. 잘 크렌 경헤낫저. 옛날엔 몸도 ᄀᆞ릐와낫주게이. 게난 애기덜 다 입졋주게. 옛날엔 문 이녁냥으로 멘들멍 입지곡 빌엉도 입지곡."[26]

(몸 가렵다고 베로 만든 옷 입혔어. 거 배냇저고리. 그리고 그 옷도 빌려 다녔잖아요, 아기 잘 키운 사람 거 얻어다가 입혀. 그 아기 잘 크는 집이 있지? 그럼 거를 얻어다 입혀, 일부러. 잘 크라고 그렇게 했었어. 옛날에는 몸도 가려웠었지. 그러니까 아기들 다 입혔지. 옛날에는 모두 자기대로 만들면서 입히고 빌려서도 입히고.)

'봇뎃옷'은 보통 아기의 할머니가 만들어 주지만, 동네에서 아기를 잘 키운 집에 가서 빌려다가 입히기도 했다. 베로 만든 '봇뎃옷'을 입히면 아이가 몸이 가렵지 않는다고 한다.

(2) 치마저고리

'치마저고리'는 치마와 저고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엿날에사게. 절간 간 때 해 입엇주게. 절간 뎅길 때, 그때 절간 한복만 입엉 뎅길 때난. 이제 저 절간에 뎅기는 사름들이 한복만 입엉 뎅겻주게. 이제덜은 아무거나 쓰붕이나 입엉 가도 옛날엔, 우리 막 열심히 헐 때 똑 한복 입어사 갓주, 아무 상엇이 경. 게난 절간에 뎅길 때난 이제 저 어디 사름덜. (절간에 뎅기젠 이거 장만헌 거구나게.) 그디 사름덜 아고야, 느 한복 입엉 뎅길 때 그땐 무사 체대도 좋아나신디, 허리가 갑자기 아팡 벵신 뒈 부난 요디도 못 강 앚앙만 살아. 땅에 굽엉. 수술도 못 허고 일만, 일만."[27]

(옛날에야. 절간 갈 때 많이 입었지. 절간 다닐 때, 그때 절간에 한복만 입고 다닐 때니까. 이제 저 절간에 다니는 사람들이 한복만 입고 다녔지. 이제는 아무거나 바지나 입고 가도 옛날엔, 우리 아주 열심히 할 때 꼭 한복 입어야 갔지, 아무 상없이 그렇게. 그러니까 절간에 다닐 때니까 이제 저 어디 사람들. (절간에 다니려고 이거 장만한 거구나.) 거기 사람들 아이고야, 너 한복 입고 다닐 때 그땐 왜 체대도 좋았었는데, 허리가 갑자기 아파서 병신 되어 버리니까 요기도 못 가서 앉아서만 살아. 땅에 굽어서. 수술도 못 하고 일만, 일만.)

"에이구, 이거 입어난 거 닮도 안허고. 이것도 오래서 이거나 ᄀᆞ트게 허고 이건 겨울 거옌 허고 저건 ᄒᆞ꼼 여름 거난에. (치마 짝이 안 맞은 거?) 저거 ᄒᆞᆫ 마흔남은 해 입어나실 거라. 양단이랏자 춤 양단이 아니고 무시거. 양단 춤 양단은 췌고 비싸주게. 이건 경 비싼 건 아니. 인주 무시거."[28]

(에이구, 이거 입었던 거 같지도 않고. 이것도 오래서 이거나 같게 하고 이건 겨울 거라고 하고 저건 조금 여름 거니까. (치마 짝이 안 맞은 거?) 저거 한 마흔 넘은 해 입었을 거야. 양단이어도 참 양단이 아니고 무엇. 양단 참 양단은 최고 비싸지. 이건 그렇게 비싼 건 아니. 인주 무엇.)

"마흔에나 오십에 입어난 거. 그때베끼 더 입느냐? 한복덜. 이거 입엉 사둔칩이, 제주시, 제주시 외도여게, 우리 메누리. 그디도 뎅기고. 잔치에 잔치, 우리 집의 아덜이 이제 육십이주게. 가이 풀 때영 약혼헐 때영 경헹 그때 입어난 거 이것덜. 그땐 아메도 오십쯤, 사십쯤 경 뒌 때."[29]

(마흔에나 오십에 입었던 거. 그때밖에 더 입니? 한복들. 이거 입고 사돈집에, 제주시, 제주시 외도야, 우리 며느리. 거기도 다니고. 잔치에 잔치, 우리 집의 아들이 이제 육십이지. 걔 팔 때랑 약혼할 때랑 그렇게 그때 입었던 거 이것들. 그땐 아무래도 오십쯤, 사십쯤 그렇게 되었을 때.)

26) 신례1리 강문선 씨 구술.
27) 위미2리 오순만 씨 구술.
28) 위미2리 오순만 씨 구술.
29) 위미2리 장덕송 씨 구술.



〈사진 49〉 오순만 씨 소장 '치마저고리'



〈사진 50〉 오순만 씨 소장 '치마저고리'



〈사진 51〉 오순만 씨 소장 '치마저고리'



〈사진 52〉 오순만 씨 소장 '치마저고리'



〈사진 53〉 오순만 씨 소장 '치마저고리'



〈사진 54〉 장덕송 씨 소장 '치마저고리'

<사진 49>에서 <사진 51>은 위미2리 오순만 씨가 입었던 치마저고리다. 오 씨가 사오십대에 입었던 것으로 <사진 49>은 겨울용, <사진 50>은 봄용, <사진 51>은 여름용이다. 오 씨는 이 치마저고리들을 외출할 때 입었는데 그중에서도 주로 절에 갈 때 입었다고 한다. 또 사돈집의 경조사에 방문할 때 치마저고리를 입었다.

"엿날에 상제 뒈민 이런 거 입엉 뎅겻주게. 어멍 아방 죽을 때 어디 고견 가젠 허민. 이녁 상제 몸 뒌 때. 그때 삼 년, 삼 년 동안 삭망허고 헷주게, 그때. 그때 입엉 뎅겨난 거. 상제 뒈민 아무 옷이나 경 막. 아방 죽어부난. 스물아홉에 서른 뒈자마자, 서른 나는 해에." [30]

(옛날에 상제 되면 이런 거 입고 다녔지. 어머니 아버지 죽었을 때 어디 조문 가려고 하면. 자기가 상제 몸 되었을 때. 그때 삼 년, 삼 년 동안 삭망하고 했지, 그때. 그때 입고 다녔던 거. 상제 되면 아무 옷이나 그렇게 마구. 아버지(남편) 죽어버렸으니까. 스물아홉에 서른 되자마자, 서른 되는 해에.)

<사진 52>과 <사진 54>는 위미2리 오순만 씨가 입었던 치마저고리다. 오 씨는 <사진 53>의 치마저고리를 조문을 갈 때나 당신이 상제가 되었을 때 입고 다녔던 것이라고 한다. <사진 54>은 위미2리 장덕송 씨(1939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치마저고리다.

"스물에 시집오난 옷을 헹 입엇주, 그전이는 옷이랑마랑 아무것도 엇엇어. 우리 시어멍 ᄒᆞ나 사 준 것산디 몰라. 게난 스물에 이거, 어디 먹으레 갈 때 나 이거 입으민 막 곱덴 허멍. 곤 거난에 막 애끼멍 애껴 입어난 거주게. 어디 갈 때만 입는 거." [31]

(스물에 시집오니까 옷을 해서 입었지, 그전에는 옷은 커녕 아무것도 없었어. 우리 시어머니 하나 사 준 것인지 몰라. 그러니까 스물에 이거, 어디 먹으러 갈 때 나 이거 입으면 아주 곱다고 하면서. 고운 거니까 아주 아끼면서 아껴서 입었던 거지. 어디 갈 때만 입는 거.)

30) 위미2리 오순만 씨 구술.

31) 태흥2리 양기화 씨 구술.


〈사진 55〉 양기화 씨 소장 '치마'


〈사진 56〉 양기화 씨 소장 '치마'


〈사진 57〉 양기화 씨 소장 '치마'

<사진 55>에서 <사진 57>은 태흥2리 양기화 씨가 보관하고 있는 '치마'다. <사진 55>는 양 씨가 결혼할 때 입었던 치마인데 양 씨는 이 치마를 곱게 보관해 두면서 아껴 입었다고 한다.

"이거 시집온 때 친정에서 허연. 국제시장, 부산 국제시장서 육지 강 완에 헨에 저 거시기 시집온 날 입엉 온 거, 이거. 어, 이디 시집이 가민 또 뚠 옷 골아입져주게. 지네 집이서 헌 옷 골아입져. 이거 게난 드레스로 저 장옷 소곱에 이거 입엉 온 거. 이거 완전, 열아홉에, 이거 열아홉에 헌 거. 치만 튿엉 데껴변."[32]

(이거 시집올 때 친정에서 했어. 국제시장, 부산 국제시장에서 육지 갔다 와서 해서 저 거시기 시집온 날 입고 온 거, 이거. 어, 여기 시집에 가면 또 다른 옷 갈아입혔지. 자기네 집에서 헌 옷 갈아입혀. 이거 그러니까 드레스로 저 장옷 속에 이거 입고 온 거. 이거 완전, 열아홉에, 이거 열아홉에 한 거. 치마는 뜯어서 던져 버렸어.)


〈사진 58〉 오순만 씨 소장 '저고리'


〈사진 59〉 오순만 씨 소장 '저고리'

64 |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8 _ 남원읍 편 |

<사진 58>과 <사진 59>는 위미2리 오순만 씨가 보관하고 있는 저고리다. <사진 58>은 오 씨가 결혼할 때 친정에서 마련해 주어 입고 온 저고리다. 오 씨의 구술에 의하면 부산 국제시장에서 구입한 원단으로 만든 것으로 현재 치마는 남아 있지 않지만 저고리는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사진 60>은 장덕송 씨가 보관하고 있는 색동 치마저고리로, 장 씨의 손녀가 입었던 옷이다.


〈사진 60〉 장덕송 씨 소장
'색동 치마저고리'

(3) 적삼

'적삼'은 윗도리에 입는 홑옷이다. 모양은 저고리와 같다.

"건 적삼. 옛날에 육지 갈 때, 저 서른 안 뒌 때 갓구나. 스물대여섯에 육지 간에, 물질 허레 간에 이거 만든 거라. 잘도 오랜 거. (물적삼이꽈?) 물적삼이 아닌디 그냥 입엉 뎅길 걸로 헹 그때 만든 거, 통영 간에. (그럼 물질 갈 때 미싱 가졍 간 거?) 아니, 그디서 미싱 빌언. 잘도 오랜 거, 이거 서른도 안 뒌 때 만든 거. 천은 광목, 광목. 광목 그디서 산덜 앚앙 이거 허고, 이런 거 만들고 수 놓아근에 베겟모메기. 시집가젠 허민 그런 거 문 준비허곡. 이거 완전. 미싱은 전주네 집이 강 빌어."[33]

(건 적삼. 옛날에 육지 갈 때, 저 서른 안 되었을 때 갔구나. 스물대여섯에 육지 가서, 물질 하러 가서 이거 만든 거야. 아주 오랜 거. ('물적삼'입니까?) '물적삼'이 아닌데 그냥 입고 다닐 거로 해서 그때 만든 거, 통영 가서. (그럼 물질 갈 때 재봉틀 가지고 간 거?) 아니, 거기서 재봉틀 빌려서. 아주 오랜 거, 이거 서른도 안 된 때 만든 거. 천은 광목, 광목. 광목 거기서 사서들 앉아서 이거 하고, 이런 거 만들고 수 놓아서 베갯모. 시집가려고 하면 그런 거 모두 준비하고. 이거 완전. 재봉틀은 전주네 집에 가서 빌려.)

32) 위미2리 오순만 씨 구술.
33) 위미2리 장덕송 씨 구술.

의생활

Ⅱ. 조사 내용 | 65



〈사진 61〉 오순만 씨 소장 '적삼'

<사진 61>은 위미2리 오순만 씨가 보관하고 있는 '적삼'이다. 오 씨가 이십 대에 통영 지역에 물질 갔을 때 직접 만든 것이다. 광목천을 그곳에서 구입하고 재봉틀을 빌려서 만들었다.

(4) 속바지와 속치메

'속바지'와 '속치메'는 치마 안에 입는 바지와 치마를 말한다.

"이거 바지. 이거에 저거 입엉 온 거. (치마만 엇인 거?) 으, 이거 바로 시집올 때 입엉 온 거게. 이 바지에 이거에, 강알 터지고. 게난 놈 이거 아져 가근에 만들렌 헤도 내벼 둬근에 새걸로만 만들엄주게. 이거 영 강알 터도. 옛날엔 터졋주게. 옛날엔 턴에 사름 덜마다 이거. 이거 입엉 속치마 입고 우이 치마 제라허게 입고. 안에 또 속에 팬티 입고 중간 거 입고 이거 입곡 이거 우이 속치마 입고 치마 입고 우인 저고리 입엉 장옷 입고. 또 우이 장옷 쓰고. 저것이 첨 제라헌 거여. 저것이 시집온 때 헌 거난. 아이고, 친정에 어멍이 헤 준 거주게, 돈 주난. 국제시장서 산 거라. 제라허게 춤 양단. 저건 진짜 양단 존 거, 비싼 거."[34]

(이거 바지. 이거에 저거 입고 온 거. (치마만 없는 거?) 으, 이거 바로 시집올 때 입고 온 거. 이 바지에 이거에, 샅 터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거 가지고 가서 만들라고 해도 내버려 두고 새걸로만 만들고 있지. 이거 이렇게 샅 터도. 옛날에는 터졌지. 옛날에 터서 사람들마다 이거. 이거 입고 속치마 입고 위에 치마 제대로 입고. 안에 또 속에 팬티 입고 중간 거 입고 이거 입고 이거 위에 속치마 입고 치마 입고 위엔 저고리 입고 장옷 입고. 또 위에 장옷 쓰고. 저것이 참 제대로인 거야. 저것이 시집왔을 때 한 거니까. 아이고, 친정에 어머니가 해 준 거지, 돈 주니까. 국제시장에서 산 거야. 제대로 참 양단. 저건 진짜 양단 좋은 거, 비싼 거.)

34) 위미2리 오순만 씨 구술.



〈사진 62〉 오순만 씨 소장 '속바지'



〈사진 63〉 오순만 씨 소장 '속치메'

<사진 62>와 <사진 63>은 위미2리 오순만 씨가 보관하고 있는 속바지와 속치마이다. 모두 오 씨가 시집올 때 치마 안에 입었던 것으로, 오 씨는 결혼할 때 입었던 옷을 치마를 제외하고 <사진 58>의 저고리, 다음의 <사진 65>와 <사진 66>의 장옷을 보관하고 있다.

(5) 두루마기

'두루마기'는 외출할 때 치마저고리 위에 덧입는 웃옷이다.

<사진 64>는 위미2리 오순만 씨가 입었던 두루마기다.



〈사진 64〉 오순만 씨 소장 '두루마기'

(6) 장옷

'장옷'은 예전에 여자들이 나들이할 때에 얼굴을 가리느라고 머리에서부터 길게 내려 쓰던 옷을 말한다. 제주에서는 결혼식 예복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파랑헌 거 똑 중간에 짓은 붉은 걸로 허고. ᄒᆞ난 빌고 ᄒᆞ난 친정에서가 만들어 준 거고. ᄒᆞ난 친촉신디 빌어야 쓸 거. ᄒᆞ난 입곡 ᄒᆞ난 데멩이에 써야주. 영 썽. 던져 불젠 허단 ᄀᆞ만이 놔뒀주." [35]

(파란 거 꼭 중간에 깃은 붉은 거로 하고. 하나는 빌리고 하나는 친정에서 만들어 준 거고. 하나는 친척에게 빌려야 쓸 거. 하나는 입고 하나는 머리에 써야지. 이렇게 써서. 던져 버리려고 하다가 가만히 놔뒀지.)

"이거 손으로 멩주 짠 거라, 우리 할머니네. 저 뽕나무 멕영, 뽕나무 멕여근에 할무니가, 우리 할무니가 이거 손지 풀 때 장옷, 완전 멩지, 손으로 멘든 멩지 아니꽈. 치마저고리 어머니가 만들고." [36]

(이거 손으로 명주 짠 거야, 우리 할머니네. 저 뽕나무 먹여서, 뽕나무 먹여서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이거 손주 팔 때 장옷, 완전 명주, 손으로 만든 명주 아닙니까. 치마저고리 어머니가 만들고.)



〈사진 65〉 오순만 씨 소장 '장옷'



〈사진 66〉 오순만 씨 소장 '장옷'



〈사진 67〉 장덕송 씨 소장 '장옷'

35) 위미2리 오순만 씨 구술.
36) 위미2리 오순만 씨 구술.

"시집올 때 영 썬 와난 거. 치마저고린 그땐 인주로 헤 부난에 다 데껴 불고 그것만 넴견. 놔둬도 좀도 안 치곡." [37]

(시집올 때 이렇게 써서 왔던 거. 치마저고리는 그때는 인주로 해 버리니까 다 던져 버리고 그것만 남겼어. 놔둬도 좀도 안 일고.)

<사진 65>와 <사진 66>은 위미2리 오순만 씨가 보관하고 있는 '장옷'이다. 오 씨가 시집올 때 장옷 하나는 치마저고리 위에 입고 또 다른 하나는 머리에 썼었다고 한다. 오 씨가 보관하고 있는 장옷은 오 씨의 친정에서 할머니가 직접 짠 명주로 어머니가 만들었다. <사진 67>은 위미2리 장덕송 씨가 시집올 때 머리에 쓰고 왔던 것으로 지금까지 잘 보관하고 있다.

(7) 갈옷

'갈옷'은 감물을 들인 옷을 말한다. 광목천 따위에 제주의 토종 감인 '풋감'을 빻아 물을 들인 것이다. '감옷'은 통기성이 좋고 땀이 나거나 물에 젖어도 몸에 달라붙지 않고 빨리 건조되어서 일을 할 때나 여름에 입기에 제격인 옷이다.

"면은 잘 들어, 면은 잘 드니까 이거 더 감물 들영 모기 신 디 가민 물지 안허여. 과짝헤 부니까. 경헹 역불 허는 거야. 역불 모기 잇는 밧디 이거 입엉 가. 이거 나 거고 이건 아방 거." [38]

(면은 잘 들어, 면은 잘 드니까 이거 더 감물 들여서 모기 있는 데 가면 물지 않아. 바짝하니까. 그래서 일부러 하는 거야. 일부러 모기 있는 밭에 이거 입고 가. 이거 내 거고 이건 아버지(남편) 거.)

"저디 감 이시난 딴 다 들연. 일헐 땐, 밧에 갈 때 다 이것만 입엉 가. 다 헨 이추룩 나가 헨 들엿어." [39]

(저기 감 있으니까 따서 다 들였어. 일할 때는, 밭에 갈 때 다 이것만 입고 가. 다 해서 이처럼 내가 해서 들였어.)

37) 위미2리 오순만 씨 구술.
38) 남원1리 강순화 씨 구술.
39) 남원1리 강순화 씨 구술.

"갈옷이 여름에 영 헹 입으민 이것이 시원허주게. 이거 면 닮은 거라, 면 닮은 거 입언에. 이 몸뻰 영장밧디서 자꾸 주난. 혼 번씩 저 서이 마농 허는 그런 디 일 뎅길 때 입으면 시원헌다게."[40]

(갈옷 여름에 이렇게 해서 입으면 이것이 시원하지. 이거 면 같은 거야, 면 같은 거 입어서. 이 몸빼는 장지에서 자꾸 주니까. 한 번씩 저 서쪽에 마늘 하는 그런 데 일 다닐 때 입으면 시원해.)



〈사진 68〉 강순화 씨 소장 '갈옷'



〈사진 69〉 장덕송 씨 소장 '갈옷'



〈사진 70〉 장덕송 씨 소장 '갈옷'

<사진 68>은 남원1리 강순화 씨가 만들어 입고 있는 '갈옷'이다. 집에 자라고 있는 '풋감'을 따서 직접 물을 들여서 입는다. 강 씨는 밭일을 할 때 '갈옷'을 입으면 모기가 물지 않아 좋다고 한다. <사진 69>와 <사진 70>은 위미2리 장덕송 씨가 입고 있는 '갈옷'이다. 장지에서 받은 광목 몸빼에 직접 물을 들인 것으로, 이것을 입으면 여름에 시원하다고 한다.

<사진 71>은 수망리 현원휴 씨의 감물을 들인 셔츠다. 현 씨가 여름 외출복으로 입고 있는 옷으로, 현 씨는 감물을 들이면 땀이 차지 않아 시원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감물 들인 옷을 자주 찾아 입는다고 했다.



〈사진 71〉 현원휴 씨 소장 '감옷'

40) 위미2리 장덕송 씨 구술.
41) 신례1리 김길순 씨 구술.
42) 신례1리 김길순 씨 구술.

(8) 호상옷

'호상옷'은 사람이 죽었을 때 시신에게 입히는 옷인 '수의'를 말한다. 제주에서는 '저승옷'이라고도 한다. 신례1리 김길순 씨는 오십 대에 자신의 수의를 장만해 두었다고 한다. 수의는 보통 명주와 삼베로 만들지만 김 씨는 명주로 만들어 두었다. 호상옷은 보통 명주와 참베를 가지고 만든다. 무명은 시신이 썩을 때 새까맣게 된다고 하고, 모시는 자손들이 머리에 새치가 생긴다고 믿었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보이는 호상옷은 김길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수의와 김 씨가 구술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나가 이거 혼 오십 대에 장만헤져신가? 이거 나 아는 친촉신디 강 헷수다. 잘헤 줍디다. 이것도 허라, 저것도 허라 허멍. 그 어른이 잘허는 어른이주게."[41]

(내가 이거 한 오십 대에 장만했나? 이거 나 아는 친척에게 가서 했습니다. 잘해 줍디다.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하면서. 그 어른이 잘허는 어른이지.)

"호상옷은 명주허고 춤베만 헙니다. 안동, 안동 베가 젤 존 거우다. 겐디 그때 안동 베로 허카 허단 멩주가 고와 벤. 곱게 헹 놔둬사 죽엉 갈 때 곤 거 입엉 가야주. 한 번 입는 거, 이거 마지막 입는 건디."[42]

(수의는 명주하고 참베만 합니다. 안동, 안동 베가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안동 베로 할까 하다가 명주가 고와 보여서. 곱게 해서 놔둬야 죽어서 갈 때 고운 거 입고 가야지. 한 번 입는 거, 이거 마지막 입는 건데.)



〈사진 72〉 '얼굴 싸개'



〈사진 73〉 '손 싸개'

"이건 저 앞이 허는 거, 얼굴 가리는 거." 43)
(이건 저 앞에 하는 거, 얼굴 가리는 거.)

<사진 72>는 시신의 머리에 씌우는 모자이다. 김 씨는 이것을 '얼굴 싸개'라고 하였다. <사진 73>은 '손싸개'인데 시신의 손에 끼우는 장갑으로 '악수'라고도 한다.

"이건 더프는 거 이불. 옷 다 입은 다음에 우에, 젤 우에. 게난 막 여라 가지랍디다." 44)
(이건 덮는 거 이불. 옷 다 입은 다음에 위에, 제일 위에. 그러니까 아주 여러 가지랍디다.)

'손수건'은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쓰는 작은 수건인데 <사진 74>는 시신의 몸에 지니도록 만든 손수건이다. <사진 75>는 시신에 옷을 다 입히고 맨 마지막에 덮어주는 이불로, '천금'이라고도 부른다.


〈사진 74〉 '손수건'


〈사진 75〉 '이불'


〈사진 76〉 '속옷'

43) 신례1리 김길순 씨 구술.
44) 신례1리 김길순 씨 구술.
45) 신례1리 김길순 씨 구술.
46) 신례1리 김길순 씨 구술.
47) 신례1리 김길순 씨 구술.

"속옷, 우리말로 팬티라, 이거. 젤 속에 이거 입는 거." 45)
('속옷', 우리말로 팬티야, 이거. 제일 속에 이거 입는 거.)

<사진 76>은 수의의 제일 안에 입는 '속옷'이다.

"속옷 다음은 이거 정베이" 46)
('속옷' 다음은 이거 '정벵이'.)


〈사진 77〉 '정벵이'


〈사진 78〉 '속치마'


〈사진 79〉 '겉치마'

<사진 77>은 속곳을 입은 후에 입는 바지다. 김 씨는 이것을 '정벵이'이라고 했는데, '정벵이'는 가랑이가 무릎까지 내려오는 홑바지인 '잠방이'에 대응하는 말이다. <사진 78>은 수의에 입는 속치마이고 <사진 79>는 겉치마로, 속치마보다 치마폭이 조금 넓었다.

"적삼 입어 낭, 치마 입어 낭, 저고리 입을 거. 속치마 입어 낭, 치마 입어 낭. 요거는 적삼 속에 입어근에, 그다음은 속치마 입어근에, 그다음은 치마 입어근에, 그다음은 저고리 입을 거." 47)
(적삼 입고 나서, 치마 입고 나서, 저고리 입을 거. 속치마 입고 나서, 치마 입고 나서. 요거는 적삼 속에 입고, 그다음은 속치마 입고, 그다음은 치마 입고, 그다음은 저고리 입을 거.)



〈사진 80〉 '적삼'



〈사진 81〉 '저고리'

<사진 80>은 저고리 안에 입는 적삼이고 <사진 81>은 저고리다.

"젤 우이 입지는 거. 장옷이엔 허주. 남자는 두루마기주만은 여자는 장옷." [48]
(제일 위에 입히는 거. '장옷'이라고 하지. 남자는 두루마기지만 여자는 '장옷'.)



〈사진 82〉 '장옷'



〈사진 83〉 '보선'

<사진 82>는 수의의 맨 위에 입는 '장옷'이다. 김 씨의 말에 따르면 남자가 입는 것은 '두루마기'라고 하고 여자옷은 '장옷'이라고 한다.

<사진 83>은 수의에 신는 버선이다.

"이추룩 몰아 불민 다리지 안헤도 뒙니다, 입질 때. 경 안헹 아멩이나 놔두민 다려야 뒈여. 나도 하르방 거 다려 보카 꺼낸 보난 이추룩 허난 안 다려도 뒈켄 허영 그냥 아정 가난 막 좁디다게." [49]
(이처럼 말아 버리면 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입힐 때. 그렇지 않고 아무렇게나 놔두면 다려야 돼. 나도 할아버지(남편) 거 다려 볼까 꺼내서 보니까 이처럼 하니까 안 다려도 되겠다고 해서 그냥 가지고 가니까 아주 좋습디다.)

<사진 84>는 신례1리 김길순 씨가 신문지에 말아서 보관하고 있는 있는 수의를 펼친 것이다. 김 씨는 수의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신문지에 말아서 보관하고 있었다. 그렇게 보관하면 구김이 적어 다리지 않아도 입힐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사진의 왼쪽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의에 좀이 생기지 않도록 신문지 안에 향나무를 함께 넣어 보관하고 있었다.



〈사진 84〉 신문지에 말아서 보관하고 있는 '호상옷'

(9) 두건

'두건'은 상중에 남자 상제나 남자 친척들이 머리에 쓰는 것을 말한다. 베로 위는 막고 밑은 네모나게 만들었다.

"장나민 두건. 옛날엔 촌수 헤근에 칠팔 촌꺼지 줘나신디 이젠 동네 사름덜 다 줘. 동네에서 조문 가시민." [50]
(초상나면 두건. 옛날에는 촌수 해서 칠팔 촌까지 줬었는데 이제는 동네 사람들 다 줘. 동네에서 조문 가면.)



〈사진 85〉 김성찬 씨 소장 '두건'

48) 신례1리 김길순 씨 구술.
49) 신례1리 김길순 씨 구술.
50) 수망리 김성찬 씨 구술.

<사진 85>는 수망리 김성찬 씨(1935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두건'이다. 예전에는 초상이 나면 가까운 친척들에게만 이 두건을 나눠줬지만 점차적으로 나눠주는 범위가 확대되어 조문을 간 동네 사람들에게도 두건을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사진 86〉 장덕송 씨 소장 '보선'

(10) 보선

'보선'은 '버선'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보통 무명이나 광목천 따위로 만들어 신었다.

<사진 86>은 위미2리 장덕송 씨가 보관하고 있는 '보선'으로 치마저고리를 입을 때 맞추어 갖춰 신었던 것이다.

(11) 젖가리개

'젖가리개'는 가슴을 감싸는 여성용 속옷이다.

"이건 지금은 아니주만 옛날은 이거 입엉 다녓주, 어떵 헐 말이라. 베로 헹 만들안에 이거. 이거 젖가리개. 이거 여름에 입젠, 여름에."[51]
(이거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은 이거 입고 다녔지, 어떻게 할 말이야. 베로 만들어서 이거. 이거 젖가리개. 이거 여름에 입으려고, 여름에.)

<사진 87>은 신례1리 강문선 씨가 보관하고 있는 '젖가리개'이다. 강 씨가 여름용으로 사용하고자 직접 베로 만들어 착용했던 것이다.



〈사진 87〉 강문선 씨 소장 '젖가리개'

51) 신례1리 강문선 씨 구술.
52) 신례1리 고방순 씨 구술.

1.5. 기타 도구

(1) 베틀

'베틀'은 무명이나 명주 따위의 천을 짜는 사용하는 도구를 말한다. 목화를 재배하고 누에를 직접 길러 실을 뽑고 옷감을 짜서, 옷을 만들어 입었던 시절에 가정에서 옷감을 짤 때 사용했던 가정용 직조기라 할 수 있다. 남원읍 도구 조사에서는 베틀의 들어가는 일부 부분을 조사할 수 있었는데, '도투마리', 'ᄇᆞ디(바디)'와 'ᄇᆞ디집(바디집)'이 그것이다.



〈사진 88〉 고방순 씨 소장 '도투마리'

<사진 88>은 신례1리 고방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도투마리'다. '도투마리'는 베틀의 한 부분으로 옷감 짤 때 날실을 감아 놓는 틀을 말한다. 양쪽의 넓은 판이 베틀에 고정되어 있고 가운데 부분에 실을 감아서 사용한다.

"이거는 미녕 짤 때 ᄇᆞ디라고 헤, ᄇᆞ디."[52]
(이거는 무명 짤 때 (쓰는) 바디라고 해, 바디.)



〈사진 89〉 고방순 씨 소장 'ᄇᆞ디'



〈사진 90〉 고방순 씨 소장 'ᄇᆞ디집'



〈사진 91〉 고방순 씨 소장 'ᄇᆞ디집비녀'



〈사진 92〉 고방순 씨 소장 'ᄇᆞ디집'

<사진 89>에서 <사진 92>은 베틀에 들어가는 'ᄇᆞ디'와 'ᄇᆞ디집'이다. 'ᄇᆞ디'는 표준어의 '바디'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가늘고 얇은 대오리를 참빗같이 세워, 두 끝을 앞뒤로 하여 대오리를 대고 단단하게 실로 얽어 만드는데, 살의 틈마다 날실을 꿰어서 옷감의 날을 고르며 북의 통로를 만들어 주고 씨실을 쳐서 옷감을 짜는 역할을 한다. 이 바디의 굵기에 따라 옷감의 굵기나 바탕 조직의 치밀도가 달라지는데, 옷감의 샛수가 높을수록 올과 조직이 곱기 때문에 고급으로 여긴다.

'ᄇᆞ디집'은 표준어의 '바디집'에 대응하는 말로, 베틀의 바디를 끼우는 테를 말한다. 홈이 있는 두 짝의 나무 바디집(<사진 90>)에 바디(<사진 89>)를 끼운다. 바디의 양쪽 끝에는 구멍이 나 있는데, <사진 91>의 '바디집비녀'를 꽂는다.

"난, 거 안 헤 보고 우리 시어멍네가 헷주게. 베틀 보기만 헤난."[53]
(난, 거 안 해 보고 우리 시어머니가 했지. 베틀 보기만 했었어.)

신례1리 고방순 씨는 직접 베틀로 옷감을 짜 보지는 않았다고 한다. 시집을 와서 보니 시어머니가 사용했던 베틀이 있었는데, 지금은 앞의 사진에서 보는 일부 부품만 남아 있을 뿐이다.

53) 신례1리 고방순 씨 구술.
54) 신례1리 고방순 씨 구술.

(2) 부담

'부담'은 옷이나 책 따위의 물건을 담아서 보관했던 큰 바구니를 말한다. 대오리를 엮어서 상자 같이 만들어 사용했다.

"거는 옛날에 부담이엔 허주, 부담. 옷 거튼 거 담고. 이거 시집이서 잇어난 거. 그건 그냥 쓴 게 아니고 ᄇᆞ른바구리거치 헤서 써낫어."[54]
(거는 옛날에 '부담'이라고 하지, '부담'. 옷 같은 거 담고. 이거 시집에 있었던 거. 그건 그냥 쓴 게 아니고 'ᄇᆞ른바구리'같이 해서 썼었어.)



〈사진 93〉 고방순 씨 소장 '부담'



〈사진 94〉 고방순 씨 소장 '부담'

<사진 93>은 신례1리 고방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바구니다. 본체는 가로 62㎝, 세로 38㎝, 높이 37㎝이고, 뚜껑은 가로 71㎝, 세로 47㎝, 높이 17㎝의 크기다. 고 씨의 구술에 의하면, 옷 따위를 넣어 보관할 때 사용했었는데, 보통 바구니 위에 천을 발라 'ᄇᆞ른바구리'의 형태로 사용했었다고 한다. 'ᄇᆞ른바구리'의 'ᄇᆞ른'은 풀칠한 종이나 헝겊 따위를 '바르다'의 의미이고, '바구리'는 '바구니'에 대응하는 제주어이다.

(3) 쳉빗 바구리

'쳉빗'은 빗살이 아주 가늘고 촘촘한 빗인 '참빗'에 대응하는 말이다. '쳉빗 바구리'는 '참빗'이나 머리빗 따위를 넣어 보관했던 바구니를 가리킨다.

"옛날 챙빗이영 머리 빗는 것덜 놔난 거."[55]
(옛날 참빗이랑 머리 빗는 것들 넣었던 거.)



〈사진 95〉 고방순 씨 소장 '챙빗 바구리'

<사진 95>는 신례1리 고방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바구니다. 대오리를 엮어 만든 작은 바구니로, 고 씨는 이것을 '챙빗바구리'라 불렀다. 머리를 빗는 참빗이나 작은 거울 등 자잘한 물건 등을 보관할 때 사용했다고 한다. 크기는 가로 21㎝, 세로 19㎝, 높이 16㎝이다.

(4) 탕건

'탕건'은 성인 남성들이 갓 아래 받쳐 쓰던 모자의 하나다. 보통 말총을 잘게 세워서 앞쪽은 낮고, 뒤쪽은 높게 턱이 지도록 뜬다. 전통 사회에서 남성들이 집안에서는 탕건을 그대로 쓰고 있다가 외출할 때는 그 위에 갓을 썼다.



〈사진 96〉 장덕지 씨 소장 '탕건'

"건 탕건. 그거는 나가 구입헌 거라. 한 사십 년 뒌 거라."[56]
(건 탕건. 그거는 내가 구입한 거야. 한 사십 년 된 거야.)

<사진 96>은 장덕지 씨가 보관하고 있는 탕건이다. 사십여 년 전에 구입한 것으로, 착용하지는 않지만 장식용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55) 신례1리 고방순 씨 구술.
56) 남원1리 장덕지 씨 구술.

(5) 페렝이

'페렝이'는 여름철 햇볕을 가리기 위하여 쓰는 모자다. 보통 밀짚이나 보릿짚으로 엮어 만든다.



〈사진 97〉 강문선 씨 소장 '페렝이'

<사진 97>은 신례1리 강문선 씨가 사용하고 있는 '페렝이'다. '페렝이'는 재료에 따라 밀짚으로 만들면 '밀낭페렝이(밀짚모자)'라고 부르고, 대로 만들면 '대페렝이'라고 한다. 강 씨가 보관하고 있는 '페렝이'는 밀짚 대신 보릿대를 이용하여 '페렝이'를 결어 사용하였다.

(6) 옷감

'옷감'은 옷을 만드는 데 쓰는 천을 말한다. 옷감이 흔하지 않았던 시절, 어르신들은 자투리 옷감도 소홀히 하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사용했다.

"이거는 큰옷을 만들젠 헤신디 다듬젠 허민 힘드난 그 만드는 사름이, 아이고, 이거 따로 만들지 안허켄 새로 멩지 상 허곡 이걸랑 죽엉 가거덜랑 무끄고. 이거 막 옛날 산 거, 완전 존 베주게. 춤베. 이걸로 장옷 허젠 허단 장옷 허지 말렌. 이거 뿔아근에 막 다듬이질헤야 만들 거난. (큰옷이 뭐꽈?) 제 지낼 때 입엉 허는 옷이주게."[57]
(이건 큰옷을 만들려고 했는데 다듬으려고 하면 힘드니까 그 만드는 사람이, 아이고, 이거 따로 만들지 않겠다고 새로 명주 사서 하고 이거는 죽어서 가거든 묶고. 이거 아주 옛날에 산 거, 아주 좋은 베지. 참베. 이걸로 장옷 하려고 하다가 장옷 하지 말라고. 이거 빨아서 마구 다듬이질해야 만들 거니까. (큰옷이 뭡니까?) 제 지낼 때 입고 하는 옷이지.)

57) 위미2리 오순만 씨 구술.



〈사진 98〉 오순만 씨 소장 '베'



〈사진 99〉 강문선 씨 소장 '험벅'

<사진 98>은 위미2리 오순만 씨가 보관하고 있는 '베'다. 제사 때나 일이 있을 때 입는 '큰옷'을 만들려고 장만했는데, 사용하지 못했다고 한다. <사진 99>는 신례1리 강문선 씨가 보관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자투리 옷감이다. 강 씨는 이것을 '험벅'이라고 불렀다.

(7) 돈주멩기

'주멩기'는 표준어의 '주머니'에 대응하는 말로, 자질구레한 물품 따위를 넣어 허리에 차거나 들고 다니도록 만든 물건이다. '돈주멩기'는 돈이나 중요한 것을 넣어 허리에 차고 다니는 주머니를 말한다.



〈사진 100〉 강문선 씨 소장 '돈주멩기'

"막 오랜 거라. 이거 아마 이거 혼 오십 년 넘어실걸. 이런 거 장사헐 때도 쓰곡, 장사헐 때도 쓰곡 그냥 저 개인으로도 쓰곡 허여. 영 허리에 차민 잊어먹지 안허영 좋주게."[58]

(아주 오랜 거야. 이거 아마 이거 한 오십 년 넘었을걸. 이런 거 장사할 때도 쓰고, 장사할 때도 쓰고 그냥 저 개인으로도 쓰고 해. 이렇게 허리에 차면 잊어버리지 않아서 좋지.)

<사진 100>은 신례1리 강문선 씨가 사용했던 돈주머니다. 강 씨는 사진의 돈주머니를 허리에 차고 있으면 잊어버리지 않아 안심할 수 있다고 한다.

58) 신례1리 강문선 씨 구술.

2. 식생활

식생활 도구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생활 환경의 변화는 식생활 도구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나무나 흙, 돌로 만들어 사용하던 것들이 플라스틱이나 유리, 스테인리스로 바뀐 지 오래다. 제주의 전통적인 나무 그릇이나 옹기그릇 등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대나무로 만든 채롱이나 바구니, 항아리 등의 전통 도구는 다른 물건들에 비하면 여러 가정에 많이 남아 있는 편이나 그 외의 식생활 도구는 남아 있는 경우가 드물다.

남원읍 지역에서는 다행히도 전통 식생활 도구를 잘 보관하고 있는 제보자를 만나 그동안 조사하지 못했던 '밥통', '장통', '낭쟁반', '수저통', '곰박' 등을 볼 수 있었다. 또 여러 종류의 놋그릇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식생활 도구를 이 장에서 식기류, 조리 도구, 저장과 운반 도구, 제기 등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2.1. 식기류

2.1.1. 그릇

(1) 밥사발과 국사발

'그릇'은 음식이나 물건 따위를 담는 도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밥과 국을 담는 그릇을 '밥그릇', '국그릇'이라고 하는데, 제주에서는 '밥사발'과 '국사발'로 부르는 경

우가 많다. 그릇은 만드는 재료에 따라 '사기그릇', '놋그릇', '알루미늄그릇', '스테인리스그릇'으로 나뉜다. 시대에 따라 식생활 도구의 주재료도 달라진다. 1970년대까지는 '사기그릇'을 주로 사용하다가 197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 이후에는 '알루미늄그릇', '스테인리스그릇'을 이용했다. 최근에 와서는 자기나 유리로 만든 그릇이 쓰이고 있다.



〈사진 1〉 고방순 씨 소장 '밥사발'과 '국사발'



〈사진 2〉 고방순 씨 소장 '밥사발'과 '국사발'



〈사진 3〉 고방순 씨 소장 '밥사발'과 '국사발'



〈사진 4〉 고방순 씨 소장 '밥사발'

<사진 1>에서 <사진 3>은 신례1리 고방순 씨(1937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밥사발'과 '국사발'이고, <사진 4>는 고 씨가 보관하는 크기가 다른 '밥사발'이다. 고 씨는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신례1리 양금석 가옥'의 고(故) 양금석 씨의 아내이다. 사진의 그릇들은 모두 '양금석 가옥'에 보관되어 있다. <사진 1>은 고 씨가 친정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시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건 국그릇, 밥그릇은 벌러져 불언 엇인게. 이거 언제꺼지 쓴 건 몰라, 오래부난 몰르크라. 이건 나가 장만헤져실 거라. 엿날에 이런 거 하낫주게. 경헌디 문 데껴 부난. 이거 쓰단에 아레미그릇 잇어양, 아레미. 아레미사발 그거 써낫주게. 그거 쓰단에 이제 저 스덴으로. 아르미그릇 나오난 사기그릇 안 썻주. 경헨에 요 스덴 나오니깐이 이것도 내불고."[1)]

(건 국그릇, 밥그릇은 깨져 버려서 없네. 이거 언제까지 쓴 건 몰라, 오래니까 모르겠어. 이건 내가 장만했을 거야. 옛날에 이런 거 많았었지. 그런데 모두 던져 버리니까. 이거 쓰다가 알루미늄그릇 있어요, 알루미늄. 알루미늄사발 그거 있었지. 그거 쓰다가 이제 저 스테인리스로. 알루미늄그릇 나오니까 사기그릇 안 썼지. 그래서 요 스테인리스 나오니까 이것도 내버리고.)



〈사진 5〉 고방순 씨 소장 '밥사발'



〈사진 6〉 고방순 씨 소장 '밥사발'



〈사진 7〉 고방순 씨 소장 '국사발'



〈사진 8〉 고방순 씨 소장 '국사발'

1) 신례1리 강문선 씨 구술.



〈사진 9〉 고방순 씨 소장 '국사발'



〈사진 10〉 고방순 씨 소장 '국사발'



〈사진 11〉 고방순 씨 소장 '국사발'



〈사진 12〉 강문선 씨 소장 '국그릇'

<사진 5>와 <사진 6>은 신례1리 고방순 씨가 사용했던 밥그릇이고, <사진 7>에서 <사진 11>은 신례1리 고방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국그릇이다. <사진 12>는 신례1리 강문선 씨(1933년생)가 사용했던 국그릇으로, 강 씨가 사용했던 사기그릇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다. 강 씨는 위의 사기그릇 사용하다가 알루미늄그릇이 나오자 알루미늄그릇을, 또 스테인리스그릇이 나오자 스테인리스그릇을 사용했다고 한다.

"국은 사발, 사발이 경 힘들어. 사발은 그때는 ᄆᆞ물사발이엔 헌 사발이 잇어낫어. 게난 ᄆᆞ물사발은 영 헨 둘러져도 이 굽뎅이엔, 이 밑창엔 요치룩 동그롯 동그롯허게시리 그때 헤진 거 잇어낫주. 그것에 국을 떵 줭 먹어낫주게."[2]

((국은) 사발, 사발이 그렇게 힘들어. 사발은 그때는 'ᄆᆞ물사발'이라고 하는 사발이 있었어. 그러니까 'ᄆᆞ물사발'은 이렇게 해서 둘러져도 그 굽이라고, 이 밑창에는 요처럼 동긋 동긋하게 그때 했던 거 있었어. 그것에 국을 떠 줘서 먹었지.)

"(국은) 게난 사발에만 거리지도 못허곡, 기자 닥치는 양 그릇도 경 식구 하민 다 일일이 헐 수가 엇어. 게민 사발 하나에 둘리가 거려도 먹곡, 어른신던 하나도 가곡 경헨 헤낫주. 식구 한 사름은 다 일일이 다 하나 헐 수가 엇어."[3]

(국은 그러니까 사발에만 뜨지도 못하고, 그저 닥치는 대로 그릇도 그렇게 식구 많으면 다 일일이 할 수가 없어. 그럼 사발 하나에 둘이 떠서도 먹고, 어른에게는 하나도 가고 그렇게 했었지. 식구 많은 사람은 다 일일이 다 하나 할 수가 없어.)

의귀리 현정자 씨(1937년생)에 따르면 그릇이 많지 않았던 시절, 밥은 큰 양푼에 떠서 같이 먹더라도 국은 따로 떴었는데, 국도 그릇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마다 각자의 그릇을 차지할 수는 없었다고 한다.



〈사진 13〉 김두천 씨 소장 '아레미 밥사발'



〈사진 14〉 강문선 씨 소장 '아레미 밥사발'

<사진 13>은 수망리 김두천 씨(1934년생) 집에서 사용했던 알루미늄 밥사발이다. <사진 14>는 신례1리 강문선 씨가 보관하고 있는 알루미늄 밥사발의 사진이다.

(2) ᄆᆞ물사발과 ᄆᆞ물젭시

'ᄆᆞ물사발'과 'ᄆᆞ물젭시'는 그릇 안에 있는 동그란 점무늬가 있는 사발과 접시를 말한다. 제보자에 따라 '눈돋은사발', '눈돋은젭시'라고도 한다. 이 무늬는 그릇을 만들어 구울 때 그릇을 겹쳐 놓으면서 위아래의 그릇이 붙지 않도록 조개껍질 따위를 놓았던 흔적이다.

2) 의귀리 현정자 씨 구술.
3) 의귀리 현정자 씨 구술.

"(이런 밥사발, 국사발 나온 거는 언제라?) 이런 거는 이거 이다음에 나오랏지. 이다음에. 이거는 왜 허, 허느냐 허면은 나가 어린 때 일본서 아홉 설에 들어오랏거든, 여기. 제주돌 아홉 설에 들어오라신디 일본 사발 보고 여기 들어오란 보난 이 사발이 잇거든게. 게난에 요거는 이다음에 나온 거, 이다음에. 이건 처음 나오고 이거는 내중에 나온 거라."[4]

((이런 밥사발, 국사발 나온 것은 언제야?) 이런 거는 이거 이다음에 나왔지. 이다음에 이거는 왜 하, 하느냐 하면 내가 어렸을 때 일본에서 아홉 살에 들어왔거든, 여기. 제주도를 아홉 살에 들어왔었는데 일본 사발 보고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이 사발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이다음에 나온 거, 이다음에. 이건 처음 나오고 이거는 나중에 나온 거야.)



〈사진 15〉 고방순 씨 소장 'ᄆᆞ물사발'



〈사진 16〉 고방순 씨 소장 'ᄆᆞ물사발'

<사진 15>는 신례1리 고방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ᄆᆞ물사발'이다. 의귀리 현정자 씨 구술에 의하면 <사진 15>의 'ᄆᆞ물사발'은 <사진 1>에서 <사진 4>의 사발들보다 먼저 나왔다고 한다. 현 씨가 어렸을 때 일본에서 들어와 보니 제주에서는 이미 이 'ᄆᆞ물사발'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사진 17〉 고방순 씨 소장 'ᄆᆞ물젭시'



〈사진 18〉 고방순 씨 소장 'ᄆᆞ물젭시'



〈사진 19〉 고방순 씨 소장 'ᄆᆞ물젭시'



〈사진 20〉 고방순 씨 소장 'ᄆᆞ물젭시'

<사진 17>에서 <사진 20>은 신례1리 고방순 씨가 사용했던 'ᄆᆞ물젭시'다. 'ᄆᆞ물사발'과 'ᄆᆞ물젭시'의 'ᄆᆞ물'은 '메밀'에 대응하는 제주어인데, 고 씨는 그릇의 문양이 메밀 모양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3) 보시

'보시'는 반찬 등을 떠 놓는 그릇으로, 표준어의 '보시기'에 대응하는 말이다.



〈사진 21〉 고방순 씨 소장 '보시'



〈사진 22〉 고방순 씨 소장 '보시'

<사진 21>과 <사진 22>는 신례1리 고방순 씨가 사용했던 보시기다.

4) 의귀리 현정자 씨 구술.

(4) 젭시

'젭시'는 반찬 따위를 뜰 때 사용하는 높이가 낮고 낮은 그릇으로, 접시를 말한다.

"젭시, 건 보시나 마찬가지. 반찬 거리는 거. 콩ᄂᆞ물 숢은 거나 마농지나."[5]
(접시, 그건 보시기나 마찬가지. 반찬 뜨는 거. 콩나물 삶은 것이나 마늘장아찌나.)



〈사진 23〉 고방순 씨 소장 '젭시'



〈사진 24〉 고방순 씨 소장 '젭시'



〈사진 25〉 고방순 씨 소장 '젭시'



〈사진 26〉 고방순 씨 소장 '젭시'

<사진 23>에서 <사진 26>은 신례1리 고방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접시다. 지름이 약 10cm 정도의 작은 접시로, 고 씨는 콩나물 등의 나물 무침을 떠 놓기도 하고 마늘장아찌를 떠 놓을 때 이 보시기를 사용했다고 한다.

5) 신례1리 고방순 씨 구술.
6) 신례1리 고방순 씨 구술.
7) 신례1리 고방순 씨 구술.

(5) 쟁반

'쟁반'은 얕고 동글납작하거나 네모난 그릇을 말한다. 전통사회에서는 나무를 이용한 그릇이 많았다. 나무로 만든 쟁반은 사용 용도에 따라 다양한 크기로 제작해 사용했다.

"옛날엔 이것에 떡 놔낫주. 저 권당덜안티 ᄂᆞ놔줄 때, 반 태울 때 써난 거."[6]
(옛날에는 이것에 떡 놨었지. 저 권당들한테 나눠줄 때, 반기 태워줄 때 썼던 거.)

"거는 우리 친정에서 써난 거게. 이디 왕은 써 보진 안허고."[7]
(그것은 우리 친정에서 썼던 거야. 여기 와서는 써 보지는 않고.)



〈사진 27〉 고방순 씨 소장 '쟁반'



〈사진 28〉 고방순 씨 소장 '쟁반'



〈사진 29〉 고방순 씨 소장 '쟁반'



〈사진 30〉 고방순 씨 소장 '쟁반'

<사진 27>에서 <사진 30>은 신례1리 고방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나무로 만든 쟁반이다. <사진 27>에서 제일 앞에 있는 큰 쟁반은 제사상 등에 떡이나 과일을 올릴 때 사용했고, <사진 29>와 <사진 30>의 쟁반은 <사진 27>의 뒤쪽에 있는 것인데 비교적 작은 쟁반으로 손님들에게 떡과 고기를 내줄 때 사용했던 것이라고 한다. 이 쟁반들은 고 씨가 친정(애월읍 금성리)에서 물려받은 것으로, 신례1리에서 사용했던 것은 아니라고 한다.

"친정서 가정온 건 저거허고 밥통허고 그 왕기 같은 거이. 밥그릇 큰 것들 잇잖아. 그런 거허고 얼멩이허고 또 그런 거주게. 시집온 때가 아니고 온 후에 강 가정 왓주. 우리 어무니가 써난 거 시집간 후에 간 후제 가져왓주."[8]

(친정에서 가져온 거는 저것(쟁반)하고 밥통하고 그 왕기 같은 거. 밥그릇 큰 것들 있잖아. 그런 거하고 어레미하고 또 그런 거지. 시집온 때가 아니고 온 후에 가서 가지고 왔지. 우리 어머니 썼던 것을 시집간 후에 가서 가져왔지.)

고 씨는 위 사진의 쟁반 외에도 앞의 <사진 1> 밥그릇과 국그릇, 밥을 넣어 이불 안에 보관할 때 사용했던 <사진 43>의 밥통, 농기구 중의 어레미도 친정에서 물려받아 가지고 왔다.

(6) 술잔

'술잔'은 술을 따라 마시는 잔으로, 크기와 모양이 여러 가지이다.

"두잔거리. 막걸리 거튼 거 먹고 허는 거."[9]

('두잔거리'. 막걸리 같은 거 먹고 하는 거.)

8) 신례1리 고방순 씨 구술.
9) 신례1리 고방순 씨 구술.
10) 신례1리 강문선 씨 구술.



〈사진 31〉 고방순 씨 소장 '술잔'



〈사진 32〉 고방순 씨 소장 '술잔'



〈사진 33〉 고방순 씨 소장 '술잔'



〈사진 34〉 고방순 씨 소장 '술잔'

<사진 31>에서 <사진 34>는 신례1리 고방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술잔'이다. 고 씨는 이들 술잔을 '두잔거리'라고 하며 주로 제사 때 막걸리 따위를 마실 때 사용했었다고 한다.

"잔, 잔, 술잔. 옛날에 막걸리, 집이서 만든 술이, 저것에 먹엇주게, 집이서 만든 거. 후젠 이것에 오차도 먹곡 커피도 먹곡게."[10]

(잔, 잔, 술잔. 옛날에 막걸리, 집에서 만든 술, 저것에 먹었지, 집에서 만든 거. 후에는 이것에 차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사진 35〉 고방순 씨 소장 '잔'



〈사진 36〉 고방순 씨 소장 '잔'



〈사진 37〉 고방순 씨 소장 '잔'



〈사진 38〉 강문선 씨 소장 '잔'

<사진 35>에서 <사진 37>은 신례1리 고방순 씨가 사용했던 잔이고 <사진 38>은 신례1리 강문선 씨가 보관하고 있는 잔이다. <사진 38>의 잔도 막걸리 등을 마실 때 사용했는데, 나중에는 차나 커피를 마실 때 사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7) 종지

'종지'는 간장, 된장 따위를 담아서 상에 놓는 작은 그릇을 일컫는데 흔히 '장종지'라 한다. '종지'는 형편에 따라서 술잔과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같이 사용하기도 했다.

"옛날 장종지. 요새 넉둥베기허는 사름덜 지금도 쓰지."[11]
(옛날 간장 종지. 요새 윷놀이하는 사람들 지금도 쓰지.)

"이건 종제기. 제서 때 뭐 술잔, 지금은 뭘로 올려신디, 제사에 감주 드리고 술도 올리고 헹 영 절 헤난 거지."[12]
(이것은 '종제기'. 제사 때 뭐 술잔, 지금은 뭘 올리는지, 제사에 감주 드리고 술도 올리고 해서 이렇게 절 했던 거지.)



〈사진 39〉 고방순 씨 소장 '종지'



〈사진 40〉 고방순 씨 소장 '종지'



〈사진 41〉 김병수 씨 소장 '장종지'



〈사진 42〉 신옥예 씨 소장 '종제기'

<사진 39>와 <사진 40>은 신례1리 고방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종지이고, <사진 41>은 의귀리 김병수 씨(1945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종지다. 옛날 간장 종지로 사용했던 종지를 요즘에는 종지에 담아서 던지는 윷인 '종지윷'을 할 때 사용하기도 한다. <사진 42>는 위미2리 신옥예 씨(1938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종지다. 신 씨는 이것을 '종제기'라 불렀는데 제사 때 감주 등을 올리는 술잔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11) 의귀리 김병수 씨 구술.
12) 위미2리 신옥예 씨 구술.

(8) 밥통

'밥통'은 밥을 담는 통으로, 말 그대로 밥을 담아 보관할 때 사용했던 그릇이다.

"이건 밥통이라, 밥통. 밥 이디 담앙 옛날은 이불 헹 놔근에, 이불 속에 놓잖아. 밥을 여기에 담앙 이불 아랫목에 놧다근에 거려. 뚜껑은 벌러 불고. 우리 어머니, 친정어머니 써난 거."[13]

(이건 밥통이야, 밥통. 밥 여기 담아서 옛날은 이불 해서 놔서, 이불 속에 놓잖아. 밥을 여기에 담아서 이불 아랫목에 놨다가 떠. 뚜껑은 깨져 버리고. 우리 어머니, 친정어머니가 썼던 거.)

"그 항아리 맞추는 디 간에 그 맞추안, 우리 어무니가."[14]

(그 항아리 맞추는 데 가서 그 맞췄어, 우리 어머니가.)



〈사진 43〉 고방순 씨 소장 '밥통'



〈사진 44〉 고방순 씨 소장 '밥통'(위)

<사진 43>은 신례1리 고방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밥통이다. 고 씨가 친정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으로, 이 그릇에 밥을 떠넣어 이불 속에 보관했었다고 한다. 전기밥통이 없었던 시절 밥을 따뜻하게 보관하려고 일부러 밥통을 맞추어 만들어서 사용했었다고 한다.

(9) 낭푼

'낭푼'은 표준어의 '양푼'으로, 음식을 담거나 데우는 데 쓰는 그릇을 말한다. 보통 그릇의 높이가 낮고 아가리가 넓은데, 제주에서는 '낭푼'에 밥을 떠서 가운데 놓고 온 식구가 함께 먹었었다.

13) 신례1리 고방순 씨 구술. 14) 신례1리 고방순 씨 구술. 15) 태흥2리 양기화 씨 구술. 16) 신례1리 강문선 씨 구술.

"엿날에 우리 시할망 때 또시 그것에이 밥 거려근에 놓고, 밥 거령 같이 먹곡."[15]

(옛날에 우리 시할머니 때 또 그것에 밥 떠 놓고, 밥 떠서 같이 먹고.)

"낭푼이 그냥 밥도 펑 먹고 그냥 요샌 히여뜩허게 내불주만은 옛날엔 이런 것에 밥 펑 먹엇주게, 보리밥이니까. 족은 것에도 먹곡 큰 것에도 여러, 수정 여라이민. 수정 여라이민 이것에 퍼 놔근에. 저건, 저건 장남이. 장남 저걸로 하나 밥 먹엇주, 보리밥. 장남, 일허는 사름게. 정 하영 먹엇주게. 요새사 한 방울베끼 안 먹주만은 저걸로 ᄒᆞ나 먹엇어, 보리밥. 경헤야 일허주, 일을 못 허주게."[16]

(양푼, 그냥 밥도 떠서 먹고 그냥 요새는 아무렇게나 내버리지만 옛날에는 이런 것에 밥 떠서 먹었지, 보리밥이니까. 작은 것에도 먹고 큰 것에도 여러, (사람) 수가 여럿이면. 수가 여럿이면 이것에 떠 놔서. 저건, 저건 장정이. 장정 저걸로 하나 밥 먹었지, 보리밥. 장정, 일하는 사람. 저렇게 많이 먹었지. 요새야 한 방울밖에 안 먹지만 저걸로 하나 먹었어, 보리밥. 그래야 일하지, 일을 못 하지.)



〈사진 45〉 양기화 씨 소장 '놋낭푼'



〈사진 46〉 김동곤 씨 소장 '놋낭푼'



〈사진 47〉 현원휴 씨 소장 '낭푼'



〈사진 48〉 강문선 씨 소장 '낭푼'

<사진 45>는 태흥2리 양기화 씨(1938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놋낭푼'이다. 양 씨가 시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인데 양 씨가 시집와서 시할머니와 같이 지낼 때 밥을 떠서 같이 먹었던 그릇이라고 한다. 김 씨의 구술에 따르면 예전에는 보리밥을 지어 이 낭푼에 퍼 놓고는 여럿이 함께 밥을 먹었다고 한다. 또한 일을 해야 하는 장정들은 많이 먹어야 했기에 낭푼 하나 가득 밥을 뜨면 그 밥을 다 먹었다고 한다.

한편, <사진 46>은 남원1리 김동곤 씨(1941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놋낭푼'이고, <사진 47>은 수망리 현원휴 씨(1932년생) 집에서 사용하는 양푼이다. 예전에는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할 때 사진과 같은 양푼에 밥을 떠서 밥상 가운데 놓고 온 가족이 같이 먹었다고 한다. <사진 48>은 신례1리 강문선 씨가 사용했던 양푼이다. 두 개의 양푼 모두 밥을 뜨는 용기로 사용했는데 밥을 같이 먹는 사람 수에 따라 양푼의 크기가 달라졌다. 양기화 씨와 마찬가지로 강문선 씨 역시 장정인 경우 작은 양푼 하나의 양을 먹기도 했다고 말했다.



〈사진 49〉 현순열 씨 소장 '낭푼'



〈사진 50〉 고영주 씨 소장 '낭푼'

<사진 49>는 위미2리 현순열 씨(1952년생)가 사용하고 있는 양푼이고, <사진 50>은 남원읍 고영주 씨(1935년생) 집에서 쓰고 있는 양푼이다. 이 양푼들은 주로 조리를 하거나 채소류를 담아두는 그릇으로 사용하였다.

(10) 장통

'장통'은 간장이나 된장을 담는, 나무로 된 통을 말한다.

"뒌장 밧디 갈 때 담아 가는 통이주게."[17]
(된장 밭에 갈 때 담아 가는 통이지.)



〈사진 51〉 고방순 씨 소장 '장통'



〈사진 52〉 고방순 씨 소장 '장통'(위)

<사진 51>은 신례1리 고방순 씨가 사용했던 장통이다. 통나무의 가운데를 파서 만든 것으로, 고 씨는 밭일을 갈 때 이 통에 된장을 넣어 점심 바구니에 넣고 다녔다고 한다.

(11) 수저통

'수저통'은 수저를 담거나 꽂아 두는 통을 말한다.

"수저는 수저통이 잇엇주. 저 낭 헨 판에. 그거에 영헹 살레 에염더레. 대나무 여꺼도 뒈고, 여끈 것도 잇고. 경헌 디도 잇고, 나무로 팡 헌 사름도 잇고."[18]
(수저는 수저통이 있었지. 저 나무 해서 파서. 그거에 이렇게 찬장 옆에. 대나무를 엮어도 되고, 엮은 것도 있고. 그러는 데도 있고, 나무로 파서 하는 사람도 있고.)

17) 신례1리 고방순 씨 구술.
18) 의귀리 양인필 · 현정자 씨 구술.



〈사진 53〉 고방순 씨 소장 '수저통'



〈사진 54〉 고방순 씨 소장 '수저통'(위)

<사진 53>은 신례1리 고방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수저통이다. 전에는 왕대를 잘라 수저통으로 만들어 사용했는데 특이한 점은 물이 빠지도록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이다. 수저통 위쪽으로도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구멍에 줄을 묶어 손잡이를 만들어 사용했었다고 한다. 의귀리 양인필ㆍ현정자 씨 구술에 의하면 수저통은 나무를 파서도 만들고, <사진>의 대나무처럼 왕대는 아니지만 작은 대나무를 엮어서 만들기도 했다. 그리고 수저통은 보통 찬장 옆쪽에 걸거나 세워 두었다고 한다.

2.1.2. 차롱과 구덕

(1) 차롱

'차롱'은 표준어의 '채롱'에 대응하는 말로, 대를 쪼개어 가늘게 다듬어서 네모나게 짠 그릇이다. 보통 집안에 제사나 명절 등 큰일이 있을 때 음식을 담을 때 이 차롱을 사용하는데 그 용도에 따라 '적차롱', '떡차롱'으로 나누기도 한다.

"떡 놓고 적 지진 거 놓고 허주. 적차롱이 뚜로 잇어. 이거 뜯어져 가난 우리 할망이 문딱 감춰근에 썸주. 이거 적차롱이구나. 이거 상웨떡 ᄀᆞ튼 거 놓고 저 문친떡 ᄀᆞ튼 거 놓는 거. 문친떡 무시거 거, 시리떡 잇잖여게."[19]

(떡 넣고 적 지진 거 넣고 하지. '적차롱'이 따로 있어. 이거 뜯어져 가니까 우리 할머니가 모두 감춰서 쓰고 있지. 이거 '적차롱'이구나. 이거 상화떡 같은 거 넣고 시루떡 같은 거 넣는 거. '문친떡' 뭐지 거, 시루떡 있잖아.)

"저것도 적차롱이라. 이거 물린 거. 우리 하르부지가 저거 덩드렁 잇지 안허여. 대 앗다다근에 홀타가지고 다 전 거."[20]

(저것도 '적차롱'이야. 이거 물려받은 거. 우리 할아버지가 저거 '덩드렁' 있지 않니. 대 가져다가 훑아서 다 결은 거.)



〈사진 55〉 현창언 씨 소장 '떡차롱'



〈사진 56〉 현창언 씨 소장 '차롱'

19) 남원1리 현창언 씨 구술.
20) 남원1리 현창언 씨 구술.

<사진 55>와 <사진 56>은 남원1리 현창언 씨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롱'이다. 현 씨 집에서는 '떡차롱'과 '적차롱'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차롱'을 오래 사용하여 그 테두리가 헐자 현 씨의 아내가 직접 나일롱 줄을 감아 수선해 사용하고 있다. <사진 56>의 앞의 왼쪽의 '차롱'은 '적차롱'으로 '떡차롱'에 비해 조금 크고 깊이가 깊다. 이 '적차롱'은 현 씨의 할아버지가 직접 '덩드렁'에서 대나무를 두드리며 장만해 결은 것이라고 한다.

"차롱은 이거 뭐 떡도 만들어 놓고 뭐 묵도 만들어 놓고. 거의 옛날 집은 집터에 이런 대가 잇엇주. 여기는 수리대, 수리대 허주게. 이것도 아무나 못 만들어. (의귀리에 차롱 ᄌᆞ는 어른이?) 오자 신자 국자 어른이 잇어낫수다. 지금 살아시믄 백팔 센가 뒈실 거우다."[21]

(채롱은 이거 뭐 떡도 만들어 넣고 뭐 묵도 만들어 넣고. 거의 옛날 집은 집터에 이런 대가 있었지. 여기는 '수리대(이대), 수리대' 하지. 이것도 아무나 못 만들어. (의귀리에 채롱 결는 어른이?) 오자 신자 국자 어른이 있었습니다. 지금 살았으면 백팔 센가 되었을 겁니다.)

"정기, 지금 사름은 빙떡이엔 허는 거, 우리 정기주. 우리 정기엔 허는디 거 지졍 놔난 거. 이제 식게헤도 이젠 이거 안 써."[22]

(빙떡, 지금 사람은 빙떡이라고 하는 거, 우리 '정기'지. 우리 '정기'라고 하는데 거 지져서 놨던 거. 이제 제사해도 이젠 이거 안 써.)

"그거 영장헐 때 옛날에 써나신디 이젠 안 허여. 식게헐 때영 영장헐 때 저 소곱에 놔근에 경허영 써난 건디 요새, 요샌 영장 무신 그런 거 헴냐게. 그냥 설러 부난. 막 오랜 거여, 이거. 오십 년 뒘저, 이거."[23]

(그거 초상할 때 옛날에 썼었는데 이젠 안 해. 제사할 때랑 초상할 때 저 속에 넣어서 그렇게 썼던 건데 요새, 요새는 초상 무슨 그런 거 하니. 그냥 치워 버리니까. 아주 오랜 거야, 이거. 오십 년 돼, 이거.)

21) 의귀리 오희일 씨 구술.
22) 위미2리 장덕송 씨 구술.
23) 위미2리 장덕송 씨 구술.


〈사진 57〉 오희일 씨 소장 '차롱'


〈사진 58〉 장덕송 씨 소장 '차롱'

<사진 57>은 의귀리 오희일 씨(1941년생) 아내가 사용하고 있는 '차롱'이다. '차롱'은 마을마다 전문적으로 결는 사람이 따로 있거나 집안에 채롱이나 바구니를 잘 결는 남자 어른이 있었다. 오 씨에 의하면 의귀리에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의귀리에 살던 오신국 어르신이 손재주가 워낙 좋아 바구니나 채롱 따위를 잘 결었다고 한다. <사진 58>은 위미2리 장덕송 씨(1939년생)가 사용했던 '차롱'이다. 예전 제사 때 빙떡 등을 만들어서 넣어 둘 때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제사 음식을 하더라도 이 '차롱'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우리가 제사 지내고 헐 때는 썻는데 메누리 가져가 부난. 그렇다고 버릴 수가 잇어게? 이거 적차롱이주, 적차롱. 고기 헤근에 적고지레 헌 것덜 놓곡 허는 거. 이건 적차롱이주게, 떡차롱이 아니라. 적차롱은 크고 떡차롱은 작고. 생선도 구웡 놓고게. 이 적이 모관허고 여기 틀려. 이제는 모관허고 이디 ᄀᆞ트는디 옛날엔 여기는 **적이라고 헤서. 옛날에는 정의는 혼 고지에 네 개씩 끼우고 또 요만씩 헤서. 옛날엔 경 헤낫어."[24]

(우리가 제사 지내고 할 때는 썼는데 며느리 가져가 버리니까. 그렇다고 버릴 수가 있어? 이거 '적차롱'이지, '적차롱'. 고기 해서 적꼬치에 한 것들 넣고 하는 거. 이건 '적차롱'이지, '떡차롱'이 아니야. '적차롱'은 크고 '떡차롱'은 작고. 생선도 구워서 넣고. 이 적이 '모관'하고 여기 달라. 이제는 '모관'하고 여기 같은데 옛날에는 여기는 **적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정의'는 한 꼬치에 네 개씩 끼우고 또 요만큼씩 해서.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어.)

24) 남원1리 고영주 씨 구술.



〈사진 59〉 고영주 씨 소장 '적차롱'



〈사진 60〉 강도범 씨 소장 '차롱'

<사진 59>는 남원1리 고영주 씨 집에서 사용했던 '적차롱'이다. 예전에 김 씨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사용했었지만 지금은 아들 며느리에게 제사를 물려 주고 나서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고 씨 집에서는 '적차롱'과 '떡차롱'을 구분하여 사용했는데, '적차롱'을 '떡차롱'보다 큰 것을 사용했다. <사진 59>의 '차롱'에는 적꼬치도 넣고 생선도 구워 보관했다고 한다. <사진 60>은 위미2리 강도범 씨(1937년생) 아내가 사용했던 '차롱'이다.

"ᄀᆞ만시라 보게, 이것이 멧 년도 줄은 몰르켜. 나가 제서헐 때 이거 헤신디 우리 족은아덜이 국민학교 때에 이거 산 거라. 국민학교 때 사난 가이가 이제 오십, 오십ᄋᆞ답이라. 경허난 멧 년이라? 오십 년 됏어. 이거는 저 거시기 소고기 뒈지고기 헹 적갈 헤놓는 거. 요거는 요거보다 족은 것이 멋진 거 잇어낫어. 게민 요 소곱에 놩 동네에 일, 저 사름 죽잖아. 죽으민 소상도 허곡 대상도 헐 때에 요거면은 요거 담아근에 톡 허게 놩 요레 헤여근에 저 제물 떡 헹 뎅겨난 거. 제물 떡 그릇이고."[25]

(가만있어 보자, 이것이 몇 년도 인지는 모르겠어. 내가 제사할 때 이거 했는데 우리 작은아들이 국민학교 때에 이거 산 거야. 국민학교 때 사니까 걔가 이제 오십, 오십여덟이야. 그러니까 몇 년이야? 오십 년 됐어. 이거는 저 거시기 소고기 돼지고기 해서 적 해서 넣는 거. 요거는 요거보다 작은 것이 멋진 거 있었어. 그럼 요 속에 놔서 동네에 일, 저 사람 죽잖아. 죽으면 소상도 하고 대상도 할 때에 요거면 요거 담아서 톡 하게 놔서 요리 해서 저 제물 떡 해서 다녔던 거. 제물 떡 그릇이고.)

"이거는 차반지옌 헤난. 우리 이거에 전기떡 지정 놓고 또 공정, 옛날에 영장나면 공정, 막 이만이 돌레떡 헤근에 놔난 거."[26]

(이거는 '차반지'라고 했었어. 우리 이거에 빙떡 지져서 넣고 또 '공정', 옛날에 초상나면 '공정', 아주 이만한 도래떡 해서 넣었던 거.)



〈사진 61〉 오춘보 씨 소장 '차롱'



〈사진 62〉 이대현 씨 소장 '차반지'

<사진 61>은 위미2리 오춘보 씨(1935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채롱이다. 오 씨는 작은아들이 초등학생일 때 위의 채롱을 구입했기에 이 채롱을 보관한 지 벌써 약 오십 년이 되었다고 한다. 오 씨는 소고기나 돼지고기 적을 만들어서 둘 때 사용했다. <사진 62>은 태흥2리 이대현 씨(1955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채롱인데, 이 씨는 이 채롱을 '차반지'라고 했다. 이것은 이 씨의 아버지가 직접 결어 만든 것이라고 한다.



〈사진 63〉 현금옥 씨 소장 '차롱'



〈사진 64〉 현금옥 씨 소장 '차롱'

25) 위미2리 오춘보 씨 구술.
26) 태흥2리 이대현 씨 구술.



〈사진 65〉 김성찬 씨 소장 '차롱'



〈사진 66〉 김성찬 씨 소장 '차롱'



〈사진 67〉 양기화 씨 소장 '차롱'



〈사진 68〉 김동곤 씨 소장 '차롱'

<사진 63>과 <사진 64>는 수망리 현금옥 씨(1934년생)가 사용했던 '차롱'이고, <사진 65>와 <사진 66>은 수망리 김성찬 씨(1935년생) 집에서 사용했던 '차롱'이다. <사진 67>은 태흥2리 양기화 씨가 사용했던 '차롱', <사진 68>은 남원1리 김동곤 씨 아내가 사용했던 '차롱'이다.

"경허난에 지금도, 지금도 그거 경 헤긴에 젯상 엠드레 다 들러다 놔. 차롱 써, 차롱 써. 차판도 쓰고 헌디 차롱이 오히려 더 좋아. 것에 헹 두껑 탁 더껑 갖당 노민 저 상에, 출림 새에 문지도 아이 들곡 기자 그것에 톡톡 아래 요런 종이 꼴아근에 적갈도 헤영 톡 두껑 더껑 상 엠더레 앗당 노민 어둑으민덜 두껑 올앙 출려 놓주게."[27]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도 그거 그렇게 해서 제사상 옆으로 다 들어다 놔. 채롱 써, 채롱 써. 쟁반도 쓰고 하는데 채롱이 오히려 더 좋아. 그것에 해서 뚜껑 탁 덮어서 가져다 놓으면 저 상에, 차리는 사이에 먼지도 안 들고 그저 그것에 톡톡 아래 요런 종이 깔아서 적도 해서 톡 뚜껑 덮어서 상 옆으로 가져다 놓으면 어두우면 뚜껑 열어서 차려 놓지.)

의귀리 현정자 씨 집에서는 제사 때 아직도 채롱을 사용한다고 한다. 채롱 외에도 제사상을 차릴 때는 쟁반 등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채롱에 종이를 깔아서 음식을 놓고 뚜껑을 딱 닫아 두면 다른 음식들을 준비하는 사이에 음식에 먼지도 들어가지 않고 해서 좋아 채롱을 여전히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2) 차반지

'차반지'는 대오리를 결어 만든 작은 채롱이다. 보통 마소를 돌보는 목동인 '테우리'들이 마소를 돌보러 다닐 때 점심을 싸고 다녔던 1~2인용 도시락이다. 채롱 양쪽에는 끈을 매달았는데, '테우리'들이 마소를 보러 다닐 때 이 끈을 어깨에 걸치고 다니거나, 들에 갔을 때 나뭇가지에 끈을 매달아 '차반지'를 보관하였다. 이 '차반지'는 지역이나 제보자에 따라 '테우리 차반지'라고도 하고 '동고랑', '동고령', '밥당석'이라고도 불렀다. 다음의 구술에서처럼 의귀리 현정자 씨는 '정심 차반지', '정심 차롱'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소랑소랑허게 헤도 통이 영 기퍼. 지프고 또 두껑도 만들고. 두껑 딱 맞게 헤영. 그것에 또 양쪽으로 끈 돌아매게 헤긴에 하르방덜 영 메엉도 가고. 메엉도 가고, 지엉도 가고. 정심 차반지, 견디 정심 차반지게, 정심 차롱이엥 골아."[28]

(조그만하게 해도 통이 이렇게 깊어. 깊고 또 뚜껑도 만들고. 뚜껑 딱 맞게 해서. 그것에 또 양쪽으로 끈 달아매게 해서 할아버지들 이렇게 메어서도 가고. 메어서도 가고, 지고도 가고. 점심 '차반지', 그런데 점심 '차반지'야, 점심 채롱이라고도 말해.)

27) 의귀리 현정자 씨 구술.
28) 의귀리 현정자 씨 구술.

"차반지, 차반지. 우리는 우리 어린 때 차반지렌 헷어, 우리 동네에서는. 아부지가 차반지에다 밥 싸렌 허민 어무니가 막 허고. 이거 아부지가 물 촞으레 다니고, 그다음에 뭘 허느냐 허면 사냥을 참 잘헷어이. 뭐를 잡으레 다니느냐 허면은 지달이를 잡으러 다녀. 그걸 잡으러 가젠 허면 이걸 반드시 가졍 가주게. 지달이 잡으레 강 하룻밤 자고 걸 가져 왕 나가 많이 먹엇주게. 초등학교 사오 학년 때."[29]

('차반치', '차반지'. 우리는 어렸을 때 '차반지'라고 했어, 우리 동네에서는. 아버지가 '차반지'에다 밥 싸라고 하면 어머니가 마구 하고. 이거 아버지가 말 찾으러 다니고, 그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 사냥을 참 잘했어. 뭐를 잡으러 다니느냐 하면 '지달이'를 잡으러 다녀. 그걸 잡으러 가려면 이걸 반드시 가지고 갔지. '지달이' 잡으러 가서 하룻밤 자고 걸 가지고 와서 내가 많이 먹었지. 초등학교 사오 학년 때.)



〈사진 69〉 양덕부 씨 소장 '차반지'



〈사진 70〉 양덕부 씨 소장 '차반지'(안쪽)

<사진 69>는 남원1리 양덕부 씨(1960년생)의 아버지가 사용했던 '차반지'다. 사진에서 양쪽에 끈이 달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양 씨의 아버지는 말을 몰러 다니거나 사냥을 하러 갈 때 양 씨의 어머니가 싸준 점심을 이 차반지에 넣어 메고 다녔다고 한다. 양 씨는 아버지가 사용했던 마소 관련 다른 물건들과 함께 이 '차반지'를 '김만일 기념관'에 기증했다. 지금은 기념관에 보관 중이다. '차반지' 아래짝의 크기는 가로 23㎝, 세로 16㎝, 높이 9㎝이고, 뚜껑의 크기는 가로 27㎝, 세로 19㎝, 높이 6㎝이다.

29) 남원1리 양덕부 씨 구술.

(3) 구덕

'구덕'은 대오리를 결어서 만든 바구니다. 쓰임새에 따라 질구덕, 서답구덕, 물구덕 등으로 나뉜다. 'ᄀᆞ는대구덕'은 대오리를 아주 가늘게 쪼개서 촘촘하게 짠 바구니로, 주로 제사 때 제물을 넣어 들고 다니거나 친척이나 동네 큰일에 쌀이나 떡 등의 부조를 넣고 다닐 때 사용했다. 'ᄀᆞ는대구덕'은 제보자에 따라 '곤대구덕', '곤대바구리'라고도 한다.

"ᄀᆞ는대구덕은 이거 좁지니까 ᄀᆞ는 대, ᄀᆞ늘다는 말이주게. ᄀᆞ느니까 ᄀᆞ는대구덕이주. 잔치집이나 조문이나 갈 적에 제물 떡 헹 요 소곱에 또 차롱 낭 들렁 갓거든. 또 잔치나 조문이나 갈 적에 쏠 낭 가곡."[30]

('ᄀᆞ는대구덕'은 이거 가느니까 가는 대, 가늘다는 말이지. 가느니까 'ᄀᆞ는대구덕'이지. '식게칩'이나 조문이나 갈 적에 제물 떡 해서 요 속에 또 채롱 넣어서 들고 갔거든. 또 잔치나 조문이나 갈 적에 쌀 넣어 가고.)

"어디 부지 아져 갈 때. 잔치헐 때나 영장난 디 쏠 그디 ᄒᆞᆫ 말씩 담아근에게. 식게칩인 ᄒᆞᆫ 뒈, 사둔칩이 부주헐 땐 ᄒᆞᆫ 말 경 헤낫수다."[31]

(어디 부조 가지고 갈 때. 잔치할 때나 초상난 데 쌀 거기 한 말씩 담아서. 제삿집엔 한 되, 사돈집에 부조할 땐 한 말 그렇게 했었습니다.)

남원1리 고영주 씨에 의하면 'ᄀᆞ는대구덕'이라는 이름은 '가는 대오리'를 엮어 만든 데서 온 것으로, 'ᄀᆞ는대구덕'은 주로 제삿집에 제물 떡을 해서 갈 때 먼저 채롱에 넣고 그것을 다시 이 구덕에 넣어 들고 갈 때 사용했다고 한다. 또 잔칫집이나 조문을 갈 때 부조인 쌀을 넣고 갈 때도 이 'ᄀᆞ는대구덕'을 사용했다. 신례1리 김복선 씨 역시 'ᄀᆞ는대구덕'은 부조로 쌀을 넣고 갈 때 사용하는 것으로, 사돈집의 잔치나 초상 때 가져가는 부조는 쌀 한 말, 제삿집에는 쌀 한 되 정도가 보통 부조하는 양이다.

30) 남원1리 고영주 씨 구술.
31) 신례1리 김복선 씨 구술.



〈사진 71〉 양기화 씨 소장 'ᄀᆞ는대구덕'



〈사진 72〉 양기화 씨 소장 'ᄀᆞ는대구덕'

<사진 71>과 <사진 72>는 태흥2리 양기화 씨가 보관하고 있는 'ᄀᆞ는대구덕'으로 양 씨가 결혼할 즈음에 구입한 것이다. <사진 71>이 <사진 72>의 바구니보다 조금 크다. 두 개 모두 친척이나 이웃의 제사에 떡이나 쌀을 넣어 가지고 가거나 잔치 등의 큰일에 부조로 쌀을 가지고 갈 때 사용했던 것이다. 하나는 양 씨가 시집오기 전 의귀리에 살 때 구덕을 겯는 이웃의 할아버지에게 부탁하는 만든 것이고, 하나는 결혼한 후에 태흥2리에 와서 현 씨 할아버지가 만든 바구니를 구입한 것이다. <사진 72>의 작은 것은 쌀 두 되 정도를, <사진 71>의 큰 것은 쌀 한 말 정도를 넣고 다닐 때 사용했었다고 한다. 흰쌀은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주로 좁쌀이나 보리쌀로 일이 있을 때마다 부조를 했다고 한다.

"나 애기 업고 친척 집이 가젠 허민 ᄉᆞ못 이거 버쳐근에이 영 헹 갓당 영 헹 갓당. 아이고, ᄒᆞᆫ 번은 이것에 헨에 우리 친정집이 제 먹으레, 우리 시어멍이 이제 제물, 제물 떡을 담아근에이 제서 먹으레 가렌 허주게. 제서 먹으레 갈 때 제물도 헹 가고, 제주도 놩 가고 쏠도 ᄒᆞᆫ 뒈, 놩 친정집이 가는 거. 경헹 가단 이거 이거 옆뎅이 걸쳥 애기 업곡 헹 가는디 이디서 의귀리 가젠 허난 너미 버쳔. 가단 보난에 아이고, 너미 버쳔에 이거 부련에 이거는 지곡 애기는 이레 이 구덕 우터레 지완에 가단 보난 애기가 오줌을 싸 불언."[33]

"ᄒᆞᆫ 육십 년 뒘실 거라. 나 스물에 완 보난에 이것덜 헴시난 이거 맞추앙 헌 거. 그 하르방은 엿날 죽어벳주게. 이것도 그거. 옛날에 나 스물에 오란에 요거허고 요거허곡. 그 하르방은 옛날에 죽어벳주게. 현 씨 하르방. 이 ᄀᆞ는대구덕허고 이거허고 ᄯᅳᆫ사름이라. 이거는 저 의귀리 살 때 그 구덕 저는 사름이 우리 집 사난에 그 사람 빌언에, 너무 고와. 이것이 검엉헤부난이주, 대도 헤영허고 막 고와. 너미 고와. 게근에 이거 ᄒᆞ나허고 이거는 시집온 때 요디서. 이거는 제물 떡 그릇. 옛날에 저 어디 갈 때, 식게칩이고 무시거 헐 때 이거는(작은 거) 친촉 막 한 디, 친촉 한 디 이거 소빡 둠앙 가고. 요거는(큰 거) 동네칩이, 동네칩이 ᄒᆞ나 헨에 이레 담앙 가고. 제물 빵이고 옛날에 빙떡 지져근에 놔근에. 이거는 또 이제 고견밧디 영 헹 가는 거. 거기 떡 헹 이것에 (작은 거) 영 헹 담앙 이것에 영 가고 요거는 어떤 때 쏠도 ᄒᆞᆫ 말 헤근에 저 무시거 헐 때, 잔치 때. 잔치 때는 이거 조그만 두 뒈짜리 쏠 놔근에 헹 가고(작은 거), 요거는 ᄒᆞᆫ 말 헹 가고(큰 거). 경허멍 뎅겻주게. 쏠은 그때 좁썰도 허고 보리썰도 허고. 막 생각헤영 허젠 허민 곤쏠은 엇어. 것도 ᄒᆞᆫ 말도 못 헤. 두 뒈나. 어떤 때 ᄒᆞᆫ 뒈도 담앙 가, 동네칩이."[32]

(한 육십 년 됐을 거야. 나 스물에 와서 보니까 이것들 하고 있으니까 이거 맞춰서 한 거. 그 할아버지는 옛날 죽어버렸어. 이것도 그거. 옛날에 나 스물에 와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그 할아버지는 옛날에 죽어버렸어. 현 씨 할아버지. 이 'ᄀᆞ는대구덕'하고 이거하고 다른 사람이야. 이거는 저 의귀리 살 때 그 구덕 겯는 사람이 우리 집에 사니까 그 사람 빌려서, 너무 고와. 이것이 거메서이지, 대도 하얗고 아주 고와. 너무 고와. 그래서 이거 하나하고 이거는 시집왔을 때 요기서. 이거는 제물 떡 그릇. 옛날에 저 어디 갈 때, 제삿집이고 뭐 할 때 이거는(작은 거) 친척 아주 많은 데, 친척 많은 데 이거 가득 담아서 가고. 요거(큰 거)는 동넷집에, 동넷집에 하나 해서 이리 담아서 가고. 제물 빵이고 옛날에 빙떡 지져서 넣어서. 이거는 또 이제 '고견밧디' 이렇게 해서 가는 거. 거기 떡 해서 이것에(작은 거) 이렇게 해서 담아서 이것에 이렇게 가고 요거는(큰 거) 어떤 때 쌀도 한 말 해서 저 뭐 할 때, 잔치 때. 잔치 때는 이거(작은 거) 조그만 두 뒈 짜리 쌀 넣어서 해서 가고(작은 거), 요거는 한 말 해서 가고(큰 거). 그러면서 다녔지. 쌀은 그때 좁쌀도 하고 보리쌀도 하고. 아주 생각해서 하려고 하면 흰쌀은 없어. 것도 한 말도 못 해. 두 되나. 어떤 때 한 되도 담아서 가, 동넷집에.)

32) 태흥2리 양기화 씨 구술.

33) 태흥2리 양기화 씨 구술.

(내가 아기 업고 친척 집에 가려고 하면 사뭇 이거 (힘에) 부쳐서 이렇게 해서 갔다가 이렇게 해서 갔다가. 아이고, 한 번은 이것에 해서 우리 친정집에 제사 지내러, 우리 시어머니가 이제 제물, 제물 떡을 담아서 제사 지내러 가라고 하지. 제사 지내러 갈 때 제물도 해서 가고, 제주도 넣어서 가고, 쌀도 한 되 넣고 친정집에 가는 거. 그렇게 가다가 이거 옆구리에 걸치고 아기 업고 해서 가는데 여기서 의귀리 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에) 부쳤어. 가다가 보니까 아이고, 너무 (힘에) 부쳐서 이거 부려서 이거는 지고 아기는 이리 이 바구니 위로 지워서 가다가 보니까 아기가 오줌을 싸 버렸어.)

한편 양 씨는 <사진 71>의 'ᄀᆞ는대구덕'에 제물을 넣고 친정 제삿집의 갈 때 있었던 일화도 들려주었다. 'ᄀᆞ는대구덕'은 물건을 넣고 옆구리에 끼워 들고 가거나 줄을 이용하여 등에 지고 다닌다. 태흥2리에서 친정인 의귀리까지는 한참을 걸어가야 하는데 아기를 업고 제물을 넣은 바구니를 옆구리에 끼워 들고 가는데 너무 힘에 부쳐서 바구니를 위에 아이를 앉게 해서 지고 갔다고 한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바구니 위에 앉은 아이가 오줌을 싸 버리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시집왕 얼마 엇엉, 혼 삼 년 잇당 산 거우다. 부지허젠 허난. 이걸로 부지 하영 앗다 벳주, 사돈칩이영. 난 그때 부지허젠 허난 혼 말 담젠 허난양 저거 족앙 안 뒈크랍디다. 경헹 아예 큰 걸로 삿수궤. 한 말 담앙 좋아. 그건 한 말 못 담아. 들어가지 안헹. 사돈칩이 갈 때, 곤썰 혼 말도 허고 보리쏠 혼 말도. 제사집이 갈 땐 그냥 제숙이영 제주영 쌀이영 놩 가고. 친정에 갈 때. 당에도 들렁 가. 당에 갈 때는 요기 밥헤 놓은 거 여라 가지 놩, 고기도 놓고 밥도 놓고. 고기는 생선, 생선 놓고 또 뭐 과일도 하나 놓고 솔라니 구워근에. 그땐 뒈지고긴 안 헷어. 솔라니만 헷어. 제라허게 당엔 돌레떡도 허고, 돌레떡은 메밀, 메밀로."[34]

(시집와서 얼마 없어서, 한 삼 년 있다가 산 겁니다. 부조하려고 하니까. 이걸로 부조 많이 가져갔지, 사돈집이랑. 난 그때 부조하려고 하니까 한 말 담으려고 하니까 저거 작아서 안 되겠습디다. 그래서 아예 큰 걸로 샀잖아요. 한 말 담아서 좋아. 그건 한 말 못 담아. 들어가지 않아서. 사돈집에 갈 때, 흰쌀 한 말도 하고 보리쌀 한 말도. 제삿집에 갈 때는 그냥 '제숙'이랑 제주랑 쌀이랑 넣어서 가고. 친정에 갈 때. 당에도 들고 가. 당에 갈 때는 요기 밥해 놓은 거 여러 가지 넣어서, 고기도 넣고 밥도 넣고. 고기는 생선, 생선 넣고 또 뭐 과일도 하나 넣고 옥돔 구워서. 그때는 돼지고기는 안 했어. 옥돔만 했어. 제대로 당엔 도래떡도 하고, 도래떡은 메밀, 메밀로.)

"ᄀᆞ는대구덕은 나도 써지카 부덴 막 곱게 포에 싸멍 놔둬나신디, 겐디 써지질 안허여."[35]

('ᄀᆞ는대구덕'은 나도 쓸 수 있을까 봐 아주 곱게 보자기에 싸면서 놔뒀었는데, 그런데 쓰게 되질 않아.)

"이거 엿날 조문이나 뭐 갈 때 쏠도 낭 가고 뭐 허는 거주. 조문 갈 때도 허고 식게칩이 갈 때도 허고 잔치집이 옛날은 다 그런 쏠로 부지헷주게. 이젠 그런 거 엇어져 벳주만은."[36]

(이거 옛날 조문이나 뭐 갈 때 쌀도 넣어서 가고 뭐 하는 거지. 조문 갈 때도 하고 제삿집에 갈 때도 하고 잔칫집에 옛날은 다 그런 쌀로 부조했지. 이젠 그런 거 없어져 버렸지만.)

〈사진 73〉 김길순 씨 소장 'ᄀᆞ는대구덕'

〈사진 74〉 오희일 씨 소장 'ᄀᆞ는대구덕'

<사진 73>은 신례1리 김길순 씨(1941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ᄀᆞ는대구덕'이다. 이 구덕은 김 씨가 결혼하고 삼 년 후에 구입한 것으로, 한 말 들이용이라고 한다. 김 씨는 그 전에 사용하던 것이 작아서 큰 것을 구입하여 사돈집에 부조를 할 때 쌀을 한 말 정도 넣어 가지고 다녔다고 한다. 또 제삿집에 제물을 넣어 갈 때도 사용했고, 김 씨는 당에 갈 때도 제단에 올릴 밥, 생선, 과일을 넣어 들고 다녔다. 김 씨는 이 바구니를 사용할 일이 있을까 해서 곱게 보자기에 싸서 보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34) 신례1리 김길순 씨 구술.
35) 신례1리 김길순 씨 구술.
36) 의귀리 오희일 씨 구술.

한편, <사진 74>는 의귀리 오희일 씨 집에서 사용했던 'ᄀᆞ는대구덕'이다. 오 씨도 김 씨와 마찬가지로 제삿집이나 조문을 갈 때 부조인 쌀을 넣어서 가지고 갈 때 'ᄀᆞ는대구덕'을 사용했다고 한다.



〈사진 75〉 김성찬 씨 소장 'ᄀᆞ는대구덕'



〈사진 76〉 오춘보 씨 소장 'ᄀᆞ는대구덕'



〈사진 77〉 강승삼 씨 소장 'ᄀᆞ는대구덕'



〈사진 78〉 강도범 씨 소장 'ᄀᆞ는대구덕'



〈사진 79〉 현원휴 씨 소장 'ᄀᆞ는대구덕'



〈사진 80〉 현창언 씨 소장 'ᄀᆞ는대구덕'

<사진 75>는 수망리 김성찬 씨 집에서 사용했던 'ᄀᆞ는대구덕'이고, <사진 76>은 위미2리 오춘보 씨가 사용했던 'ᄀᆞ는대구덕'이다. <사진 77>은 태흥2리 강승삼 씨(1937년생), <사진 78>은 위미2리 강도범 씨, <사진 79>는 수망리 현원휴 씨, <사진 80>은 남원1리 현창언 씨(1937년생)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ᄀᆞ는대구덕'이다.

한편, 가는 대로 만든 바구니를 태흥2리 이대현 씨, 의귀리 김병수 씨는 'ᄀᆞᆫ대구덕'이라고 불렀다.

"이거는 멧 개월 걸려. 이거 큰 대 헤다가 이만큼 다술루젠 허면, 허고 이거는 죽순으로 허는 거고 바우. 이건 바우주게. 죽순으로 허는 거고 이거는 매운대. 이거는 아주 대도 비싼 걸로 헷어, 수리대. 이것도 바위를 잘 안 돌라 부난 이렇게 뒌 거."[37]
(이거는 몇 개월 걸려. 이거 큰 대 해다가 이만큼 다스리려고 하면, 하고 이거는 죽순으로 하는 거고, 가장자리. 이건 가장자리지. 죽순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매운대'. 이거는 아주 대도 비싼 것으로 했어, 수리대. 이것도 가장자리 잘 안 둘러 버리니까 이렇게 된 거.)

"아부지가 졸고 난 져근에 표선 오일장 막 팔레 다녀낫어. 중학교 다닐 때 걸어서. 나가 덩드렁 이거, 이거. 이거 헤서 대 비여다가 막 칼로 헤서 훌트고 아부진 졸고. 경헨 출구덕, 애기구덕 우리가 다 멘들아난. 골체 이런 것도 다 헤나고."[38]
(아버지가 겯고 나는 져서 표선 오일장에 막 팔러 다녔었어. 중학교 다닐 때 걸어서. 내가 '덩드렁' 이거, 이거. 이거 해서 대 베어다가 마구 칼로 해서 훑고 아버지는 겯고. 그래서 '출구덕', '아기구덕' 우리가 다 만들었었어. 삼태기 이런 것도 다 했었고.)

"ᄀᆞᆫ대구덕, 저 여자덜 경조사 때 부조 아정 가는, 쌀 그때는 돈으로 안 허고 쌀로 헷거든. 게난 거 아정 가는 거야. 거 얼마 헤서 ᄒᆞ는 게 아니고 그 대개 엿날 사돈칩 같은 데는 곤썰 즉, 말허믄 지금 입쌀인디 그거 ᄒᆞᆫ 말씩 헷지. 관뒈로 네 개. 그거 ᄒᆞᆫ 말만 들어게? 거 ᄀᆞ득이 아니 놩 갈 수도 엇곡. 식게집은 뭐 부모 제사 때나 친정 부모 제사 때나 뒈면은 그자 ᄒᆞᆫ 관뒈 정도 앗앙 가고."[39]

37) 태흥2리 이대현 씨 구술.
38) 태흥2리 이대현 씨 구술.
39) 의귀리 김병수 씨 구술.

('고대구덕', 저 여자들 경조사 때 부조 가지고 가는, 쌀 그때는 돈으로 안 하고 쌀로 했거든. 그러니까 거 가지고 가는 거야. 거 얼마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대개 옛날 사돈집 같은 데는 흰 쌀 즉, 말하면 지금 입쌀인데 그거 한 말씩 했지. 관되로 네 개. 그거 한 말만 들어? 거 가득 안 넣고 갈 수도 없고. 제삿집은 뭐 부모 제사 때나 친정 부모 제사 때나 되면 그저 한 관되 정도 가지고 가고.)

"(이디도 구덕 ᄌᆞ는 사름이 잇엇수꽈?) 으, 그렇지. 이거는 ᄒᆞᆫ엇이 뭐 솜씨가 좋게는 허진 안 헷는디 첨 돌아가셨지만은 오신국 씨라고 아주 이쁘게 만드는 분이 잇는디 그분은 돌아가시고 이거는 그 사름 게 아니라. 그 사름 솜씨가 아니야."[40]

((여기도 바구니 겯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으, 그렇지. 이거는 한없이 뭐 솜씨가 좋게 하진 않았는데 첨, 돌아가셨지만 오신국 씨라고 아주 예쁘게 만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돌아가시고 이거는 그 사람 게 아니야. 그 사람 솜씨가 아니야.)



〈사진 81〉 이대현 씨 소장 '고대구덕'



〈사진 82〉 김병수 씨 소장 '고대구덕'

<사진 81>은 태흥2리 이대현 씨가 보관하고 있는 '고대구덕'들이다. 바구니의 본체는 제주에서 '수리대'라고 불리는 이대를 가늘게 쪼갠 대오리로 엮었고 위쪽 둘레는 어린 대나무를 이용했다고 한다. 이 씨는 아버지가 바구니를 만들 때 옆에서 거들었었다고 하는데, 대를 장만하여 다듬어 손질하고 바구니를 결어 만드는 데는 몇 개월이 걸리는 작업이라고 한다. 이 씨의 아버지 고(故) 이사문 씨는 전문적으로 '고대구덕', '출구덕', '애기구덕' 등의 바구니를 만들었는데, 이 씨가 대오리를 손질하고 시장에 팔러 다니는 일도 도왔다고 한다.

40) 의귀리 김병수 씨 구술.

<사진 82>는 의귀리 김병수 씨 집에서 사용했던 '고대구덕'이다. 김 씨에 의하면 여자들이 경조사 때 부조인 쌀을 넣고 다니는 바구니로, 보통 사돈집의 경우는 입쌀을 한 말, 제삿집에는 한 되 정도 넣고 갔다고 한다. 이러한 바구니를 전문적으로 겯는 어르신들은 어느 마을이나 한두 분씩 있었다. 의귀리에도 오신국 씨가 있었는데 오 씨는 마을의 여러 사람에게 회자될 만큼 바구니나 채롱 등을 겯는 솜씨가 좋았다고 한다.

"고대바구니엔 허고 고대구덕이엔도 허고. 고대구덕이라, 엿날은. 고대구덕인디 여기다가 엿날 잔치허는 집이 먹으러 갈 때 쏠 ᄒᆞᆫ 말 상 이디 놩 들러 갓어. 경헤난 거, 이거 식게 먹으러 갈 때 저물 떡 사 놩 영 헹 가고. 쏠 한 말 쌍 여기 놩 잔치 먹으레 가고."[41]

('고대바구니'라고도 하고 '고대구덕'이라고도 하고. '고대구덕'이야, 옛날은. '고대구덕'인데 여기다가 옛날 잔치하는 집에 먹으러 갈 때 쌀 한 말 사서 여기 넣어서 들고 갔어. 그러니까 서, 이거 제사 지내러 갈 때 제물 떡 사 넣어서 이렇게 해서 가고. 쌀 한 말 싸서 여기 넣어서 잔치 먹으러 가고.)

'ᄀᆞ는대구덕', '고대구덕'을 남원1리 강순화 씨(1941년생)는 'ᄀᆞ는대바구니'라고 하였다. <사진 83>은 강 씨가 사용했던 '고대바구니'다. 강 씨는 '고대바구니'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고대구덕'이라고 불렀었다고 한다. <사진 84>는 남원1리 장덕지 씨(1945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바구니다. 장 씨의 어머니가 사용했던 것으로, 장 씨는 이것을 '관대구덕'이라고 불렀다.



〈사진 83〉 강순화 씨 소장 '고대바구니'



〈사진 84〉 장덕지 씨 소장 '관대구덕'

41) 남원1리 강순화 씨 구술.

2.2. 조리 도구

(1) 솟

'솟'은 밥을 짓거나 국 따위를 끓이는 데 쓰는 '솥'을 말한다. 각 가정에는 부엌에 보통 서너 개의 솥을 두고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다.

"정지에 솟이 세 개. 무쉐솟.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또 작은 거 하나. 큰 거는 제사 때나 많이 밥헐 때 허고 족은 거는 집의 식구덜 헐 때 허고, 작은 건 국 끌릴 때 허고. 저거, 저런 것은 말 석 뒈쯤 들어, 말 석 뒈. 일곱 뒈. 메주도 숢곡 식구 많이 헐 땐 거기 국도 끌리고 밥도 허고 다."[42]

(부엌에 솥이 세 개. 무쇠솥.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또 작은 거 하나. 큰 거는 제사 때나 많이 밥할 때 하고 작은 거는 집의 식구들 (밥)할 때 하고, 작은 건 국 끓일 때 하고. 저거, 저런 것은 말 석 되쯤 들어, 말 석 되. 일곱 되. 메주도 삶고 식구 많이 할 때는 거기 국도 끓이고 밥도 하고 다.)

남원1리 강순화 씨에 의하면 부엌에 세 개의 솥이 있었는데 큰솥은 식되 일곱 되 들이 크기로 주로 제사 때 많은 양의 밥을 할 때 주로 썼다. 중간 크기의 솥은 일상생활에서 가족들의 밥을 할 때, 제일 작은 솥은 국을 끓일 때 사용했다.

"솟은 경헤도, 처음 나 온 땐 네 개 아니 놧주. 큰솟 하나 앚지고, 이펜이 두 개, 두 개 헨에 세 개 앚지곡. 그루후제라사 쩨끌락헌 거 하나 더 앚져수다게. 게난 그때는 세 개. (제일 큰솟은) 두 말떼기주게. 두 말떼기엔 헌 거는 두 말 쏠은 들어가도 밥은 못 헤, 밥은 못 헤."[43]

(솥은 그래도, 처음 내가 왔을 때는 네 개 안 놨지. 큰솥 하나 얹고, 이편에 두 개, 두 개 해서 세 개 얹고. 그 후에야 자그마한 거 하나 더 얹었지요. 그러니까 그때는 세 개. (제일 큰솥은 두 말들이지. 두 말들이라고 하는 거는 두 말 쌀은 들어가도 밥은 못 해, 밥은 못 해.)

"두 말떼기 헐 땐 무신 감절 치나 무신 저 콩, 콩 숢을 때, 그런 때 사용허주." [44]

(두 말들이 할 땐 무슨 고구마를 찌거나 무슨 저 콩, 콩 삶을 때, 그런 때 사용하지.)

42) 남원1리 강순화 씨 구술. 43) 의귀리 현정자 씨 구술. 44) 의귀리 현정자 씨 구술. 45) 남원1리 강순화 씨 구술.



〈사진 85〉 김공률 씨 집의 '정지'의 '솟'



〈사진 86〉 김공률 씨 소장 '가메솟'

의귀리 현정자 씨는 1950년대 후반 결혼했을 때, 처음은 부엌에 세 개가 놓여 있었다고 한다. 가장 큰솥은 두 말들이 크기로, 그 솥은 주로 고구마를 찌거나 콩을 삶을 때 사용했고, 평상시 밥을 지을 때는 작은 솥 두 개를 이용했다.

<사진 85>와 <사진 86>은 신례1리 김공률 씨(1965년생) 집의 '정제(부엌)'에 놓여 있는 솥들이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예전 부엌에 예전에 사용했던 솥들이 그대로 놓여 있는 모습이다. '가메솟' 아궁이에 불을 지폈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흔 삼십 년 뒛지. 우에 거는 나 물려받은 거야, 시어머니안티. 게고 저 밑에 건 나가 산 거. 뭐 그때 뭐 딸린 때도 쓰고, 무슨 약 딸릴 때도 쓰고 콩 숢을 때도 쓰고."[45]

(한 삼십 년 됐지. 위의 거는 내가 물려받은 거야, 시어머니한테. 그리고 저 밑의 건 내가 산 거. 뭐 그때 뭐 달일 때도 쓰고, 무슨 약 달일 때도 쓰고 콩 삶을 때도 쓰고.)



〈사진 87〉 강순화 씨 소장 '솟'



〈사진 88〉 강순화 씨 소장 '솟'

<사진 87>과 <사진 88>은 남원1리 강순화 씨가 사용하고 있는 큰솥이다. 이것은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아 사용해 온 것으로 약초를 달이거나 콩을 삶을 때 사용했던 솥이다.

솥은 그 크기나 재료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 '무쉐(무쇠)'로 만든 솟은 '무쉐솟(무쇠솥)', 알루미늄으로 만든 솟을 '아르미솟'이라고 한다.



〈사진 89〉 고영주 씨 소장 '무쉐솟'



〈사진 90〉 현창언 씨 소장 '무쉐솟'

<사진 89>은 남원1리 고영주 씨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쇠솥이다. 고 씨의 집 본채 뒤에 작은 창고를 지어 거기에 아궁이를 설치하고 <사진 89>의 무쇠솥과 다음 <사진 91>의 알루미늄으로 된 큰솥 두 개를 놓아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다. 이 솥들은 예전 집안의 큰일이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해 설치해 둔 것인데 최근에도 고사리를 삶을 때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불을 피웠던 흔적이 그대로 솥에 남아 있었다. <사진 90>은 남원1리 현창언 씨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무쇠솥이다. 집에 붙어 있는 귤밭 한쪽 구석에 이 솥이 놓여 있는데 현재를 잘 사용하지 않아 비닐 덮개를 덮어 보관하고 있었다.

"흔 삼십 년 뒈신가. 우리 집사람 산 때 써난 거니까. 우리 집사름이 지금 돌아간 지가 이십오 년. 밥도 허고 국도 끓이고. 집사름 돌아가고 난 후제 안 써 봣지."[46]

(한 삼십 년 되었나. 우리 집사람 살았을 때 썼던 거니까. 우리 집사람이 지금 돌아간 지가 이십오 년. 밥도 하고 국도 끓이고. 집사람 돌아가고 난 후에는 안 써 봤지.)

46) 신례1리 김석종 씨 구술.



〈사진 91〉 고영주 씨 소장 '솟'



〈사진 92〉 오순만 씨 소장 '솟'



〈사진 93〉 오경수 씨 소장 '솟'



〈사진 94〉 오희일 씨 소장 '솟'



〈사진 95〉 현창언 씨 소장 '솟'



〈사진 96〉 김석종 씨 소장 '솟'

<사진 91>은 남원1리 고영주 씨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알루미늄 솥이고, <사진 92>는 위미2리 오순만 씨(1941년생)가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솥이다. 두 솥 모두 아궁이에 불을 땠던 흔적이 남아 있는데,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사진 93>은 의귀리 오경수 씨, <사진 94>는 의귀리 오희일 씨 집에 설치되어 있는 솥이다. 이들 솥도

최근까지도 사용하고 있는데 김석종 씨의 말에 의하면 주로 고사리를 삶을 때 쓴다고 한다. <사진 95>는 남원1리 현창언 씨, <사진 96>은 신례1리 김석종 씨(1938년생) 집에 보관하고 있는 솥인데, 최근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한편, 제보자들이 보관하는 물건 중에는 솥과 함께 사용하던 솥뚜껑만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그 전에 쓰던 거를 여기 가져와서 (칠십년대 중반에 지금 집으로) 뭐 쓰다가 내 분 거주. 게난 요거는 필요허지게, 항 뚜껑도 허곡 따시 여라모로 쓸 디가 많았지. 그래서 저거는 놔두게 뒌 거지."[47]
(그 전에 쓰던 거를 여기 가져와서 (칠십년대 중반에 지금 집으로) 뭐 쓰다가 내버린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필요하지, 항아리 뚜껑도 하고 또 여러모로 쓸 데가 많았지. 그래서 저거는 놔두게 된 거지.)


〈사진 97〉 강순화 씨 소장 '솟뚜껑'


〈사진 98〉 현창언 씨 소장 '솟뚜껑'


〈사진 99〉 김병수 씨 소장 '솟뚜껑'


〈사진 100〉 김성찬 씨 소장 '솟뚜껑'

<사진 97>은 남원1리 강순화 씨, <사진 98>은 남원1리 현창언 씨가 사용하고 있는 솥뚜껑이다. <사진 99>은 의귀리 김병수 씨, <사진 100>은 수망리 김성찬 씨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솥뚜껑이다. 예전 사용했던 무쇠솥인 경우는 솥은 보관되어 있지 않더라도 솥뚜껑이 항아리를 덮는 뚜껑 용도로 쓰여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솥뚜껑이 무쇠솥의 뚜껑이 아니라 곡식을 보관하는 항아리 등의 덮개로 쓰기 위해 돌로 뚜껑을 만든 것들도 볼 수 있었다.

"물린 거주게. 건 보리 같은 거, 쌀 거튼 거 허면은 쥐가 만헷거든. 걸로 더퍼. 까끈 거주게. 멘든 거주게. 뚜껑이라고 헐 수 있주."[48]
(물린 거지. 건 보리 같은 거, 쌀 같은 거 하면 쥐가 많았거든. 그걸로 덮어. 깎은 거지. 만든 거지. 뚜껑이라고 할 수 있지.)


〈사진 101〉 현창언 씨 소장 '돌뚜껑'


〈사진 102〉 이대현 씨 소장 '돌뚜껑'

<사진 101>은 남원1리 현창언 씨가 보관하고 있는 돌로 만든 뚜껑이다. 예전 창고에 곡식을 보관할 때 항아리에 곡식을 담은 뒤 이것을 덮어 두면 쥐가 들어가지 못해서 곡식을 보관하는 항아리의 덮개로 매우 유용했다고 한다. <사진 102>는 태흥2리 이대현 씨 부모님이 사용했던 돌로 만든 뚜껑이다. 지금은 깨진 상태로 보관되어 있다.

47) 의귀리 김병수 씨 구술.
48) 남원1리 현창언 씨 구술.

(2) 시리

'시리'는 표준어의 '시루'에 대응하는 제주어로, 떡을 찔 때 사용하는 그릇이다. 제사나 명절 등의 의례를 중시 여겼던 전통 사회에서는 떡을 각 가정에서 직접 만들어 제사상에 올렸기 때문에 떡을 찌는 데 쓰던 시루를 각 가정에서 갖추어 사용했었다. 예전에는 질그릇으로 만든 시리를 사용하다가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 그릇들이 보급되면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알루미늄 시루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었다.

"시리에 놩 치는 거는 시리떡. 집집마다 제사 지내젠 허민 기본 다 잇거든."[49]
(시루에 넣어서 찌는 거는 시루떡. 집집마다 제사 지내려고 하면 기본 다 있거든.)

제사나 명절 때에 만드는 떡 중 시루떡은 빠지지 않는다. 남원1리 현창언 씨는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떡은 필수로 만들어야 했기에 각 가정에 기본적으로 시루가 있었다고 한다.


〈사진 103〉 양기화 씨 소장 '지세시리'

<사진 103>은 태흥2리 양기화 씨가 보관하고 있는 시루다. 양 씨가 시집와 보니 시댁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양 씨가 물려받아 보관하고 있다. 이 시리는 쌀 석 되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이다. 시루를 이용하여 떡을 찔 때는 시루에 난 구멍으로 가루가 새지 않도록 무엇을 깔아 주어야 하는데 양 씨는 그것을 양하 잎을 이용했다고 한다. 양하 잎을 바닥에 깔고 쌀가루를 넣고 고르게 한 다음 다시 양하 잎을 깔아 그 위에 가루를 넣으면서 양하 잎으로 시루떡의 켜를 지었다. 흰쌀이 귀했던 시절 흰쌀로만 시루떡을 만들 수 없어서 좁쌀 가루로 시루떡을 만들기도 했다. 제주에서는 시루떡을 '시리떡' 또는 '친떡', '침떡'이라고도 했는데, 좁쌀 가루로 만든 시루떡을 '조친떡'이라고 했다.

49) 남원1리 현창언 씨 구술.
50) 태흥2리 양기화 씨 구술.

"이거 나 스물에 시집오란 보난 잇언게. 우리 시할망 헤난 거. 이거 지세, 잘못허단 벌러져. 그거 석 뒈쯤 들 거라. 시리도 너미 그득으민 안 뒈지, 족으민 족은 대로. 쏠 골아 오라근에 그디 무시거 저 거 구멍 똘라져 부난 세라 불주게. 가루는 세라 불민 그디 양에 썹이나 양에 썹이나. 다른 건 엇엇어. 그 양에는 먹는 거난에. 양에 이파리 놔근에, 꼴앙 고망을 막아. 막아근에 그루를 영 영 놔근에 또 그레 양에 썹을 놔. 또 헤영헌 그루 놩 메와근에 따시 양에 썹을 놔. 게근에 떡 쳐근에. 곤쏠도 제서 때에, 제서 때에 쪼금 헤근에 제서 때에만 헷주게. 다 허지는 못 허여. 상에 올릴 거만 쪼금만 허곡 그 우터레 반은 조, 반은 곤썰로 허고 또시 층계 놔근에 좁썰로 허곡 경허멍 헤근에 우리는 좁썰로 헌 거 먹고. 에이구, 이제는 좁썰도 에려와. 시리떡엔 허고 조친떡이엔 허고 조로 허난 조친떡이주."[50]
(이거 내가 스물에 시집와서 보니까 있었어. 우리 시할머니가 했던 거. 이거 '지세', 잘못하다 간 깨져. 그거 석 되쯤 들 거야. 시루도 너무 가득하면 안 되지, 작으면 작은 대로. 쌀 갈아 와서 거기 뭐 저 거 고망 뚫려서 새어 버리지. 가루가 새어버리면 거기 양하 잎이나 양하 잎이나. 다른 건 없었어. 그 양하는 먹는 거니까. 양하 잎 놔서, 깔아서 구멍을 막아. 막아서 가루를 이렇게 이렇게 넣어서 또 그리 양하 잎을 놔. 또 하얀 가루 넣어서 메워서 다시 양하 잎을 놔. 그래서 떡을 쪄서. 흰쌀도 제사 때에, 제사 때에 조금 해서 제사 때에만 했지. 다 하지는 못 해. 상에 올릴 거만 조금만 하고 그 위에 반은 조, 반은 흰쌀로 하고 또 층계 놔서 좁쌀로 하고 그러면서 해서 우리는 좁쌀로 한 거 먹고. 에이구, 이제는 좁쌀도 어려워. 시루떡이라고 하고 '조친떡'이라고 하고, 조로 하니까 '조친떡'이지.)


〈사진 104〉 고방순 씨 소장 '시리'


〈사진 105〉 고방순 씨 소장 '시리'(아래)

<사진 104>는 신례1리 고방순 씨가 사용했던 시루다. 앞의 <사진 103>과 위 <사진 104>의 시루는 '지세 시리'로 '지세'는 옹기를 굽는 방법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다. 제주에서 옹기를 굽는 가마를 '굴'이라고 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노랑굴'과 '검은굴', '지에굴'이 바로 그것이다. 우선 '노랑굴'은 1100~1200℃의 고온에서 허벅, 항아리를 비롯한 옹기를 구워내는데 적갈색을 띤다. '검은굴'은 약 900℃의 온도에서 연기를 먹여 검게 구워내는 굴을 말한다. '지에굴'은 기와를 구워 내는 가마를 말한다. '지세 시리'는 '검은굴'에서 구워낸 시루다. 일반적으로 시루에는 <사진 10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손잡이가 달려 있다. 시루의 바닥은 평평하고 수증기 구멍이 있는데 구멍의 개수는 보통 5개에서 7개 정도이다.

"시리, 게난 그때도 사삼사건에 전에 시리덜이 어디 벌러지지 안헹들 이신 디가 잇엉. 게민 혼 집이 시민 다 빌어다근 헤낫어."[51]
(시루, 그러니까 그때도 사삼사건에 전에 시루들이 어디 깨지지 않아서들 있는 데가 있어서. 그럼 한 집에 있으면 다 빌려다가 했었어.)

"지세 시리로만 (떡을) 쳐신디 ᄒᆞ쏠 세상이 ᄒᆞ쏠 낫안 바꽈져 가난에 알미늄 낫주. 그 전인 그런 것도 엇고. 그때는이, 저 엿날에 부제칩이서덜 써나난 영 이만큼 큰 것도 잇고, 요만큼 작은 것도 잇어."[52]
('지세 시리'로만 (떡을) 쪘는데 조금 세상이 조금 나아서 바뀌어 가니까 알루미늄이 나왔지. 그 전에는 그런 것도 없고. 그때는, 저 옛날에 부잣집에서들 썼었던 이렇게 이만큼 큰 것도 있고, 요만큼 작은 것도 있어.)

"큰 시리에, 족은 시리 엇인 사름은 큰 시리에 허젱 허민 시리 ᄒᆞ나 ᄀᆞ득일 게 엇이민 기자 알로 두 빗이나 세 빗이나 헤영 치민 비우젱은 허민 벌러지주게. 게민 옷 앗당 그레 ᄀᆞ득허게 담앙 꽁꽁 누루떵 톡 어퍼근에 그걸 베주게. 게난 이만큼 통 짚은 거 요만이헌 거 어프젱 허민 살락헤 불주게. 요것이 지금 떡은 요 물만이베낀 엇인디 이 우트렌 공간이난 옷을 딱 담아. 겡헹 어퍼 놔근에 시리떡을 영 베주게. 게난 그때 넘은 사름베낀 모른덴 허난, 그런 건."[53]

51) 의귀리 현정자 씨 구술. 52) 의귀리 현정자 씨 구술. 53) 의귀리 현정자 씨 구술. 54) 태흥2리 양기화 씨 구술.

(큰 시루에, 작은 시루가 없는 사람은 큰 시루에 하려고 하면 시루 하나에 가득 채울 게 없으면 그저 아래로 두 켜나 세 켜나 해서 찌면 비우려고 하면 깨지지. 그러면 옷을 가져다가 그리 가득하게 담아서 꽁꽁 눌러서 톡 엎어서 그걸 베지. 그러니까 이만큼 통 깊은 거 요만한 거 엎으려고 하면 들썩해 버리지. 요것이 지금 떡은 요 물만큼밖에 없는데 이 위로 공간이니까 옷을 딱 담아. 그래서 엎어 놔서 시루떡을 이렇게 베지. 그러니까 그때 넘은 사람밖에 모른다고 하니까, 그런 건.)

제사 등의 의례에 시루떡은 빠지지 않았지만 집집마다 시루를 갖추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루떡을 찌기 위해서 시루를 빌려서 사용하기도 했다. 또 용도에 맞는 크기의 시루가 없어 혹이라도 큰 시루에 떡을 찌게 되면 시루에서 꺼낼 때 떡이 부서질까 봐 시루 위쪽에 옷들을 담아 공간을 두지 않고 시루를 뒤집어 떡을 꺼내기도 했다고 한다.

"저거는 우리 온 때 저거 아져 뎅겨 가민 부서지카 부덴, 이걸로 간편허영 좋켜 헹. 아멩 아져 뎅겨도 부서지지 안허고."[54]
(저거 (<사진103 >)는 우리 왔을 때 저거 가지고 다니면 부서질까 봐, 이걸로 간편해서 좋겠다 했어. 아무리 가지고 다녀도 부서지지 않고.)



〈사진 106〉 양기화 씨 소장 '시리'



〈사진 107〉 김성찬 씨 소장 '시리'

<사진 106>은 태흥2리 양기화 씨가 상용했던 알루미늄 시루다. 양 씨가 시집왔을 때 <사진 103>의 '지세시리'가 있기는 했지만 무겁고 깨질 위험이 있어 편리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이 알루미늄 시리를 주로 사용했다고 한다. <사진 107>은 수망리 김성찬 씨 아내가 사용했던 알루미늄 시루다.

(3) 남도고리

'남도고리'는 나무를 파서 만든 그릇으로, 통나무를 잘라서 가운데를 파서 만든다. '남도고리'의 '남'은 나무를 말하고, '도고리'는 크고 넓은 그릇을 일컫는다. '남도고리'는 '낭도고리'라고도 불리는데, 표준어의 '함지박'에 대응한다. '남도고리'는 제사나 명절에 떡을 반죽하거나 음식을 버무리는 등 조리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밥 등을 뜨는 그릇으로도 사용했다.

"나 시집오란 일단 딱 오란 보난, 뒷날 아칙 밥을 먹젠 밥을 출려 논 거 보난, 남도고리. 남으로 만든 영 낭푼이ᄀᆞ치 영 만든 거. 그것에 밥을 퍼 놔. 퍼 노민, 밥은 뭔 밥이냐 허민 좁쏠, 그때 저 뒈약세기엔 헤난 게 잇어. 저 요만은헌에 ᄒᆞᆫ 사발 드는 거, 낭으로 판 거. 큰, 큰 거는 솔박이고. 뒈약세기로 쏠을 떠긴에 밥을 허주. 게난 뒈약세기로 쏠 하나 떵 노믄 감저는 낭푼이로 하나 썰엉 놩 밥을 허지. 밥을 허민 그 밥을 풀 때는 밥자로 닥닥닥 젓엉 서꺼지게 허영 그 남도고리에 밥을 퍼 놩 이젠 출려 노민 멧 식구가 앉느냐 헤민 우리 시아주방들이 저 다섯 성젠디 ᄒᆞᆫ 사름은 선생으로 나가 불고, 우리 하르방은 군인 가 불고 허난에."[55]

(내가 시집와서 일단 딱 와서 보니까, 뒷날 아침에 밥을 먹으려고 차려 놓은 것을 보니까, 함지박. 나무로 만든 이렇게 양푼같이 이렇게 만든 거. 그것에 밥을 퍼 놔. 퍼 놓으면, 밥은 무슨 밥이냐 하면 좁쌀, 그때 저 식되라고 했던 게 있어. 저 요만해서 한 사발 드는 거, 나무로 판 거. 큰, 큰 거는 '솔박'이고. 식되로 쌀을 떠서 밥을 하지. 그러니까 식되로 쌀 하나 떠서 넣으면 고구마는 양푼으로 하나 썰어 넣어서 밥을 하지. 밥을 하면 그 밥을 풀 때는 밥자도 닥닥닥 저어서 섞이게 해서 그 함지박에 밥을 퍼 놔서 이제 차려 놓으면 몇 식구가 앉느냐 하면 우리 시아주버니들이 저 다섯 형제인데 한 사람은 선생으로 나가 버리고, 우리 할아버지는 군인가 버리고 하니까.)



〈사진 108〉 김동곤 씨 소장 '남도고리'

55) 의귀리 현정자 씨 구술.
56) 의귀리 현정자 씨 구술.

<사진 108>은 남원1리 김동곤 씨가 보관하고 있는 '남도고리'다. 김 씨 부모님이 사용했던 것을 보관하고 있는데 금이 간 것은 철사로 조인 자리가 보인다. 의귀리 현정자 씨 구술에 따르면 이 '남도고리'에 밥을 떠 가족이 같이 먹었다고 한다.

(4) 고소리

'고소리'는 표준어의 '소줏고리'에 대응하는 제주어로, 소주를 내리는 데 쓰는 재래식 증류기를 말한다. 두 개의 항아리를 맞댄 모양으로 가운데가 잘록하고 한쪽에는 술이 나오는 주둥이가 달려 있다. '고소리'는 시루처럼 솥 위에 얹혀 사용하는데, '고소리' 밑의 솥에서 끓는 증기가 고소리 윗부분의 찬 곳에 닿아 냉각됨으로써 술이 되어 가운데 주둥이를 통해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내린 술을 '고소리술'이라고 한다.

"술 짜는 거? 고소리게, 고소리. 술 멘들아 놔긴에 헐 때엔 고소리에 술 그 만든, 궤민 담아. 알로. 솟딜 노민, 고소릴 솟 우트레 놓아. 놓아긴에 또 그 바윌 다 돌아가멍 저 짐 아이 나가게 다 영 붙여 불어. 가루 헤여근에 영 줍앙. 솟, 솟이 요 솟 바위에 앚져살 거 아니라? 게민 그딘 짐 못 나가게 헤여. 헤여긴에 궤여 가민 요 고소리 존등이로 술이 나오주. 경허곡 고소리 이 우엔 물 놓곡."[56]

(술 짜는 거? 소줏고리, 소줏고리. 술 만들어 넣어서 할 때에는 소줏고리에 술 그 만든, 괴면 담아. 아래로. 솥에 놓으면, 소줏고리를 솥 위로 놓아. 놓아서 또 그 가장자리를 다 돌아가면서 저 김이 안 나가게 다 이렇게 붙여 버려. 가루 해서 이렇게 집어서. 솥, 솥 요 솥 가장자리에 얹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긴 김이 못 나가게 해. 해서 끓어 가면 요 소줏고리 부리로 술이 나오지. 그리고 소줏고리 이 위에는 물 넣고.)



〈사진 109〉 고방순 씨 소장 '고소리'



〈사진 110〉 고방순 씨 소장 '고소리'(윗쪽)

<사진 109>는 신례1리 고방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소줏고리로 고 씨의 시어머니가 사용했던 것이다. 의귀리 현정자 씨의 구술의 의하면, 술을 뽑을 때는 사진의 소줏고리를 솥 위에 올려 놓고 뜨거운 김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반죽한 가루로 솥과 소줏고리 사이의 틈을 모두 막는다. 소줏고리 아래에 발효된 술을 넣고 위에는 '장태'에 차가운 물을 넣고 올려놓는다. 그러면 소줏고리의 아래 들어있는 술이 뜨거워지면서 증류가 되어 위로 올라가서 부리를 통해 술이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고소리술'이다.

(4) 돔베와 칼

'돔베'는 칼로 음식의 재료를 썰거나 자질 때에 밑에 받치는 도구로 '도마'를 말한다. 보통 가정에서 평상시에 사용하는 '돔베'는 크기가 작지만, 큰일 때 일 미터가 넘는 길이의 큰 '돔베'를 사용했다. 이 '돔베'에서는 반죽한 떡을 밀기도 하고 고기를 썰기도 했다.

"적갈 거튼 거 헐 때 이걸로 허는 거주게. 돔베가 건 떡 허고 궤기 썰곡. 다듬이허는 것도 셔나신디, 다듬이허는 돔베가 또로 싯주게, 다듬이돌."[57]
(적 같은 거 할 때 이걸로 하는 거지. 도마가 그건 떡 하고 고기 썰고. 다듬이하는 것도 있었는데, 다듬이하는 도마가 따로 있지, 다듬잇돌.)



〈사진 111〉 고방순 씨 소장 '돔베'



〈사진 112〉 고방순 씨 소장 '돔베'(아래)

57) 신례1리 고방순 씨 구술.

<사진 111>은 신례1리 고방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도마다. 사진의 도마는 제사 등 집안의 큰일에 떡을 밀고 고기를 썰 때 사용했던 것이다. 고 씨는 음식을 할 때의 '돔베'와 '다듬이 돔베'가 따로 있다고 한다. 고 씨는 다듬이질할 때는 나무로 된 '돔베'가 아니라, 다듬이돌을 이용했다고 한다. <사진 112>에서 '돔베' 아래의 다리를 둥글게 깎아 만든 것을 볼 수 있다.

"고기 써는 돔베, 잔치헐 때. 잔치헐 때 그 도감이 앚앙 고기 썰주게. 이거 재제소에 강 오려당 멘든 거라."[58]
(고기 써는 도마, 잔치할 때, 잔치할 때 그 '도감'이 앉아서 고기 썰지. 이거 재제소에 가서 오려다가 만든 거야.)

"이거 엿날엔 서답 두드릴 때, 서답 두드릴 때 다듬는 마께 헤가지고 때려났는데 이거는 그 용도는 아니고 옛날에 도감 뭐 헐 때. 나가 만든 거주. 혼 이십 년쯤베끼 안 뒈실 거라. 우리 아이덜 풀 때 써져신가? 아이덜이 사 남맨데 삼 남맨 다 집에서 (잔치) 헷어."[59]
(이거 옛날에는 빨래 두드릴 때, 빨래 두드릴 때 다듬는 방망이 해서 때렸었는데 이것은 그 용도는 아니고 옛날에 '도감' 뭐 할 때. 내가 만든 거지. 한 이십 년쯤밖에 안 됐을 거야. 우리 아이들 팔 때 썼나? 아이들이 사 남매인데 삼 남매는 다 집에서 (잔치) 했어.)



〈사진 113〉 강순화 씨 소장 '돔베'



〈사진 114〉 김두생 씨 소장 '돔베'

58) 남원1리 강순화 씨 구술.
59) 수망리 김두생 씨 구술.



〈사진 115〉 현순열 씨 소장 '돔베'



〈사진 116〉 오희일 씨 소장 '돔베'

<사진 113>은 남원1리 강순화 씨가 보관하고 있는 '돔베'다. 잔치할 때 사용했던 것이다. 제주에서 잔칫날 손님에게 삶을 돼지고기를 얇고 넓적하게 썰어 대접한다. 이때 고기를 전문적으로 써는 사람을 '도감'이라고 하는데, '도감'이 고기를 썰 때 사용했었다고 한다. 강 씨 남편인 정개은 씨가 직접 재제소에 가서 나무를 오려다가 만든 것이다. <사진 114>는 수망리 김두생 씨(1942년생) 집에서 사용했던 '돔베'다. 김 씨에 의하면 <사진 114>와 같은 큰 '돔베'에서 다듬잇방망이로 옷감을 두드리며 다듬이질하기도 했다고 한다. <사진 115>는 위미2리 현순열 씨, <사진 116>은 의귀리 오희일 씨가 보관하고 있는 '돔베'다.

"거 우리 아덜 장게갈 때 오일장에 강 사단에, 놈의 거 빌엉 안 쓸라고 이녁 거 여라 개 사단 썼주. 큰아덜 장게갈 때, 가이 이제 육십. 그때 같이 산 거. 여섯 개 사단에 엇인 사름 줘 불고 이거. 집이서 잔치허난 고기 썰고 야채 허는 거 뭐 오만 거 다 했잖아."[60]

(거 우리 아들 장가갈 때 오일장에 가서 사다가, 남의 거 빌려서 안 쓸려고 자기 거 여러 개 사다가 썼지. 큰아들 장가갈 때, 걔 이제 육십. 그때 같이 산 거. 여섯 개 사다가 없는 사람 줘 버리고 이거. 집에서 잔치하니까 고기 썰고 야채 하는 거 뭐 오만 거 다 했잖아.)



〈사진 117〉 강순화 씨 소장 '칼'

<사진 117>은 남원1리 강순화 씨가 사용하고 있는 칼이다. 예식장에서 결혼식과 피로연을 치르는 문화가 보편화되기 전에는 결혼을 할 때 각 가정에서 잔치를 열어 축하 손님을 맞았다. 찾아온 손님들을 대접할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있어야 했고 그 사람들이 사용할 조리 도구를 갖추어야 했는데, 강 씨는 큰아들을 장가보낼 때 잔치를 하면서, 고기를 썰고 야채를 써는 등 음식을 준비할 때 사용할 용도로 사진의 칼을 구입했다고 한다. 여러 자루의 칼을 사서 그때 사용하고 난 뒤 몇 개는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사진 117>의 칼은 강 씨의 집에서 사용해 온 것이다. 두 개의 칼 중에서 하나는 손잡이 부분이 떨어진 채 보관하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손잡이를 바꾼 모양으로 있었다. 손잡이에 흙이 묻어 있는 것으로 보아 강 씨는 이 칼을 밭일에 사용했던 것 같다.



〈사진 118〉 현창언 씨 소장 '칼'



〈사진 119〉 김길순 씨 소장 '칼'

<사진 118>은 남원1리 현창언 씨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칼이고, <사진 119>는 신례1리 김길순 씨가 사용하고 있는 칼이다.

60) 남원1리 강순화 씨 구술.

(4) 밥자

'밥자'는 밥을 푸는 데 쓰는 '밥주걱'을 말한다. 나무나, 놋쇠, 플라스틱 따위로 밥자를 만드는데, 그 재료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정해진다. 나무로 만든 것을 '낭밥자', '놋쇠'로 만든 것을 '놋밥자'라 일컫는다.

"시어멍안티 물린 거. 막 오랜 거. 나 시집왕 보난 저만이 헤선게, 이제도. 이제도 무사냐 허민 이제도 저 뭐 헐 때 콩 거튼 거 숢을 때나 뭐 헐 땐 쓸 곳이 잇어, 혼 번썩. 이 놋밥자 따끄민 막 고울 건디 따끄지 안허난 ᄀᆞ자 안 따까 봔."[61]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거. 아주 오랜 거. 내가 시집와서 보니까 저만큼 했던데, 이제도. 이제도 왜냐하면 이제도 저 뭐 할 때 콩 같은 거 삶을 때나 뭐 할 때는 쓸 곳이 있어, 한 번씩. 이 놋밥주걱 닦으면 아주 고울 건데 닦지 않으니까 그저 여태까지 안 닦아 봤어.)

"그때 이거는 시커멍헌 건디 이거를 헤영허는 무시것이 잇주게. 이시난 이거를 계속 다까 간다, 다까 온다. 이거 아주 거멍헌 건디 막 다깟주게."[62]

(그때 이거는 시커먼 건데 이거를 하얗게 하는 뭐가 있지. 있으니까 이거를 계속 닦아 간다, 닦아 온다. 이거 아주 거먼 건데 마구 닦았지.)

"이 밥자도 시어머니신디 물린 거."[63]

(이 밥주걱도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거.)

"밥자, 밥 거리는 거. 스덴 나오기 전인 남죽으로 밥 젓고."[64]

(밥자, 밥 뜨는 거. 스테인리스 나오기 전에는 죽젓개로 밥 젓고.)



〈사진 120〉 오순만 씨 소장 '놋밥자'



〈사진 121〉 양경용 씨 소장 '놋밥자'



〈사진 122〉 양기화 씨 소장 '놋밥자'



〈사진 123〉 강문선 씨 소장 '밥자'

<사진 120>은 위미2리 오순만 씨가 보관하고 있는 놋밥주걱이다. 오 씨가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것인데 오 씨가 시집와서 보니 시어머니가 이미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 오 씨는 지금도 가끔 콩을 삶을 때 이 밥주걱을 사용할 일이 있다고 한다. <사진 121>은 위미2리 양경용 씨(1941년생), <사진 122>는 태흥2리 양기화 씨가 보관하고 있는 놋밥주걱이다. 이것 모두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것이다. 놋그릇을 그냥 보관하면 놋쇠가 산화되어 검어지는데 이것들은 닦으면 닦을수록 곱게 된다고 한다. <사진 123>은 신례1리 강문선 씨가 사용했던 밥주걱이다.

(4) 국자

'국자'는 국이나 액체를 뜨는 데 쓰는 도구로, '남국자'는 나무로 만든 국자이다. 통나무의 한쪽을 둥글게 하여 옴폭 들어가게 파고 손잡이를 길게 만들어 사용했다.

"건 국도 거리고 죽도 거리는 거주게. 산 거. 깨지난 나가 주엇주. 하르방 어떵 허코 허민 이레 아져 오라 헹."[65]

(그건 국도 뜨고 죽도 뜨는 거지. 산 거. 깨지니까 내가 기웠지. 할아버지(남편) 어떻게 할까 하면 이리 가지고 오라고 해서.)

61) 위미2리 오순만 씨 구술.
62) 위미2리 오순만 씨 구술.
63) 위미2리 양경용 씨 구술.
64) 신례1리 강문선 씨 구술.
65) 남원1리 고영주 씨 구술.

"국 거릴 때, 국 거릴 때. 전인 낭으로 만든 거, 낭으로 만든 거."[66]
(국 뜰 때, 국 뜰 때. 전엔 나무로 만든 거, 나무로 만든 거.)



〈사진 124〉 고영주 씨 소장 '남국자'



〈사진 125〉 강문선 씨 소장 '국자'

<사진 124>는 남원1리 고영주 씨 집에서 사용했던 나무국자다. 국을 뜨거나 죽을 뜰 때 사용했던 것으로, 나무에 금이 간 것을 철사로 기운 흔적이 남아 있다. 아내가 '남국자'가 깨졌다고 걱정하자 고 씨가 수선해 주어 사용해 왔다고 한다. <사진 125>는 신례1리 강문선 씨가 사용하고 있는 국자다. 지금은 <사진 125>처럼 스테인리스 국자를 사용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나무국자를 썼다.

(5) 곰박과 함박

'곰박'은 우묵한 바닥에 구멍이 나서 삶은 떡 따위를 건지는 데 쓰는 나무로 만든 조리 도구다. '곰박'은 국자처럼 손잡이가 길게 나 있다. 현대식 도구들이 나오면서, '건지기'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손잡이가 없이 바가지 모양으로 되어 무언가를 건질 때 사용하는 조리 도구를 '함박'이라고 한다.

"건질 때 쓰는 거. 송펜 거튼 거 숢는 거 건질 때."[67]
(건질 때 쓰는 거. 송편 같은 거 삶는 거 건질 때.)

66) 위미2리 오순만 씨 구술.
67) 신례1리 고방순 씨 구술.
68) 의귀리 현정자 씨 구술.
69) 남원1리 고영주 씨 구술.

"함박이엥 허는 건 떡 건지는 거. 그 낭으로 만든 거주게, 것도. 솔박ᄀᆞ치 만들아도 솔박보당은 품도 크곡 기럭시도 크곡. 경헹 고냥을 요거만썩 고냥 뚤라. 함박을 멘들민 욜로 허민, 그만이헌 함박이민 요 기럭신 헐 거라. 경헹 이디 궁기, 고냥 뚤르민 떡을 영 건지민 물 싹 빠지게."[68]
(함박이라고 하는 건 떡 건지는 거. 그 나무로 만든 거지, 것도. '솔박'같이 만들어도 '솔박'보다는 너비도 크고 길이도 크고. 그래서 구멍이 요거만큼씩 구멍 뚫어. '함박'을 만들면 요리로 하면, 그만한 '함박'이면 요 길이는 할 거야. 그래서 여기 구멍, 구멍 뚫으면 떡을 이렇게 건지면 물이 싹 빠지게.)



〈사진 126〉 고방순 씨 소장 '곰박'



〈사진 127〉 고방순 씨 소장 '곰박'(옆)

<사진 126>은 고방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곰박'이다. 송편 등을 삶아서 건질 때 사용했던 것이다. 의귀리 현정자 씨는 삶을 떡을 건질 때 '곰박' 대신 '함박'을 이용했다. '함박'은 손잡이가 없이 바가지 모양으로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물속의 것을 건지면 물이 싹 빠지게 되어 있다.

"떡 ᄀᆞ튼 거 숢아근에 영 건지는 거 아니라? 옛날엔 낭으로 헌 곰박 잇는디 구멍이 잇주게. 곰박은 솟 밋 할망 빌민 솟 밋 할망덜이 가졍 뎅기주게. (솟밋 할망이 뭐꽈?) 큰일 밧디 가서 불 숨는 사람. 솟, 솟 밋, 솟 밋 할망은 여자게. 음식덜 허는 사름."[69]
(떡 같은 거 삶아서 이렇게 건지는 거 아니야? 옛날에는 나무로 만든 '곰박'이 있는데 구멍이 있지. '곰박'은 '솥 밑 할머니' 빌리면 '솥 밑 할머니'들이 가지고 다니지. ('솥 밑 할머니'가 뭡니까?) 큰일 있는 데 가서 불 때는 사람. 솥, 솥 밑, '솥 밑 할머니'는 여자야. 음식들 하는 사람.)

"이거 고사리 건질 때 허는 거. 데쓰고 숢앙 건질 때."[70]
(이거 고사리 건질 때 하는 거. 뒤집고 삶아서 건질 때.)

"이거는 국수도 삶앙 건지고 뭐 허는 거."[71]
(이거는 국수도 삶아서 건지고 뭐 하는 거.)


〈사진 128〉 고영주 씨 소장 '건지기'


〈사진 129〉 현금옥 씨 소장 '건지기'


〈사진 130〉 양경용 씨 소장 '건지기'


〈사진 131〉 오희일 씨 소장 '건지기'

<사진 128>은 남원1리 고영주 씨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지기다. 고 씨에 의하면 예전에는 삶은 떡을 건질 때 나무로 만든 것으로 썼는데, 그것을 '곰박'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곰박'은 보통 동네의 큰일을 있을 때 부엌에서 음식을 하는 여자들이 가지고 다녔다고 한다. <사진 129>는 수망리 현금옥 씨, <사진 130>은 위미2리 양경용 씨가 사용하고 있는 건지기이다. 양 씨는 고사리를 삶을 때 이것으로 고사리를 뒤집고 건진다고 했다. 또한 <사진 131>은 의귀리 오희일 씨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지기'다.

(6) 남죽

'남죽'은 죽이나 범벅 따위를 저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표준어의 '죽젓개'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남죽'은 기다란 나무를 깎아 만들어 사용하는데, 이를 대정읍이나 안덕면, 한경면 등 제주시 서쪽 지역에서는 '베술기', '베수기'라고 부른다.

"이거 뭐 허는 거냐 허면 큰솟디 곳사 큰솟 저런 솟디 밥헤영, 잔치 때, 그땐 압력도 엇고 허니까 밥허영 이걸로 젓어, 남죽. 밥 젓을 때도 이걸로 헷지, 옛날은. 솟 바위 부뜬 건 솩솩 쓸고. 이거 아방이 만든 거. 이거 이제도 써. 웨 쓰느냐? 우미 딸릴 때 부꺼 가민 속 젓어. 우미 딸릴 때."[72]
(이거 뭐 하는 거냐 하면 큰솥에 아까 큰솥 저런 솥에 밥해서, 잔치 때, 그땐 압력(솥)도 없고 하니까 밥해서 이걸로 저어, '남죽'. 밥 저을 때도 이걸로 했지, 옛날은. 솥 가장자리에 붙은 건 삭삭 쓸고. 이거 아버지(남편)가 만든 거. 이거 이제도 써, 왜 쓰느냐? 우뭇가사리 달일 때 끓어 올라 가면 속 저어. 우뭇가사리 달일 때.)


〈사진 132〉 고영주 씨 소장 '남죽'


〈사진 133〉 강순화 씨 소장 '남죽'

"옛날엔 이거 대개 돔박낭으로 멘들앗어."[72]
(옛날에는 이거 대개 동백나무로 만들었어.)


〈사진 134〉 고방순 씨 소장 '남죽'

70) 위미2리 양경용 씨 구술.
71) 의귀리 오희일 씨 구술.
72) 남원1리 강순화 씨 구술.
73) 남원1리 정개은 씨 구술.

<사진 132>는 남원1리 고영주 씨가 보관하고 있는 '남죽'이고, <사진 133>은 남원1리 강순화 씨가 사용하고 있는 '남죽'이다. <사진 134>는 신례1리 고방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남죽'이다. 예전에는 이 남죽을 죽을 저을 때뿐만 아니라 큰솥에 많은 양의 밥을 했을 때 밥이 다 되면 이것으로 밥을 젓고, 솥 가장자리에 묻은 밥을 긁어모을 때도 썼다. <사진 133>은 강 씨 남편인 정개은 씨가 만든 것으로, 정 씨의 말에 따르면 예전이 보통 이러한 도구는 동백나무를 이용해서 많이 만들었다고 했다.

(7) 방에혹과 방엣귀

'방에혹'은 쌀 등을 찧거나 빻을 때 사용하는 돌절구로 표준어의 '방아확'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지역이나 제보자에 따라 '방에톡', '돌혹'이라고도 한다. 대개 예전에는 이것을 '남방에' 가운데 끼워 넣어서 사용했는데, 오늘날 방아확만 남아서 돌절구로 사용하고 있다. '방엣귀'는 방아확 속에 든 것을 찧을 때 쓰는 길쭉한 방망이로 '방앗공이'를 말한다. 방아를 찧을 때 두 사람이 찧는 것을 '두콜방에', 세 사람이 찧는 것을 '세콜방에', 네 사람이 찧는 것을 '네콜방에'라고 한다.

"그 낭은, 밑에로 낭이고이, 영 도고리ᄀᆞ치 허곡 가운데 쪼끌락헌 방에혹, 남방에. 경 허고 돌 영 헌 거는 돌방에게, 건. 방엣귀 영 헤긴에 서이가 지민, 서이너이가 질 땐 소리 치믄 볼 만헤여. 세콜방에, 네콜방에."[74]

(그 나무는, 밑에는 나무이고, 이렇게 함지박같이 하고 가운데 자그마한 방아확, 남방아. 그리고 돌 이렇게 한 거는 돌방아, 건. 방앗공이 이렇게 해서 셋이 찧으면, 세넷이 찧을 때는 소리 치면 볼 만해. '세콜방에', '네콜방에'.)

"이건 방에혹이주, 방에혹. 우리는 무슨 그 이젠, 옛날은 방에가 허다가 방에가 못 쓰게 뒈니까 그루후에 이 혹만 이용헴지.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마늘도 다지고, 요즘은 뭐 기구덜 좋게 나왓잖아. 거 나오기 전에 마늘도 삐져서 쓰고. 옛날엔 이거 다 남으로 뒈지. 이렇게 헤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게, 옛날에."[75]

(이건 방아확이지, 방아확. 우리는 무슨 그 이젠, 옛날은 방아를 하다가 방아를 못 쓰게 되니까 그 후에 이 확만 이용하고 있지.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마늘도 다지고, 요즘은 뭐 기구들 좋게 나왔잖아. 그거 나오기 전에 마늘도 빻아서 쓰고. 옛날에는 이거 다 나무로 됐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오게, 옛날에.)

"이게 방엣귀지. 게난 이런 걸 집이서 쓸 때 이렇게 이렇게 뿟앗어."[76]

(이게 방앗공이지. 그러니까 이런 걸 집에서 쓸 때 이렇게 이렇게 빻았어.)

"이렇게 작으면 허리 아파서 못 하잖아. 여긴 나무가 잇엇어, 둥그렇게. 가운데다 이걸 묻엇어. 옆에 곡식이 흩어지면 빗자루로 쓸어. 찧으면 튀어 나가니까."[77]

(이렇게 작으면 허리 아파서 못 하잖아. 여기 나무가 있었어, 둥그렇게. 가운데다 이걸 묻었어. 옆에 곡식이 흩어지면 빗자루로 쓸어. 찧으면 튀어 나가니까.)



〈사진 135〉 정개은 씨 소장 '방에혹'



〈사진 136〉 정개은 씨 소장 '방엣귀'



〈사진 137〉 정개은 씨가 방아를 찧는 모습



〈사진 138〉 고방순 씨 소장 '방엣귀'

74) 의귀리 현정자 씨 구술.
75) 남원1리 정개은 씨 구술.
76) 남원1리 정개은 씨 구술.
77) 남원1리 강순화 씨 구술.

<사진 135>와 <사진 136>은 남원1리 정개은 · 강순화 씨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에혹'과 '방엣귀'다. <사진 137>은 남원1리 정개은 씨(1939년생)가 방아를 찧는 것을 시현하고 있다. 방아확에 비해서 방앗공이가 커 보이지만 원래 남방아는 방아확이 둘레로 나무로 된 부분까지 있어 넓이가 넓은 것이다. 당연히 그에 맞춰진 방앗공이로, 남방아를 사용할 때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정 씨는 남방아에서 사용하던 방에확을 마늘을 찧을 때 등에 사용해 왔다고 한다. <사진 138>은 신례1리 고방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방앗공이다.

"방에에 써난 거. 남방엔디 그냥 방에, 방에 헷주. 그거는 방엣귀. 시방까지도 그디 마농도 뿟고." [78]

(방아에 썼던 거. 남방아인데 그냥 방아, 방아 했지. 그거는 방앗공이. 지금까지도 거기 마늘도 빻고.)



〈사진 139〉 오희일 씨 소장 '방에혹'



〈사진 140〉 오희일 씨 소장 '방엣귀'



〈사진 141〉 이대현 씨 소장 '방에혹'



〈사진 142〉 이대현 씨 소장 '방엣귀'

<사진 139>와 <사진 140>은 의귀리 오희일 씨 집에서 사용해 온 '방에혹'과 '방엣귀'다. <사진 141>과 <사진 142>는 태흥2리 이대현 씨의 '방에혹'과 '방엣귀'다. 이대현 씨도 정개은 씨와 마찬가지로 이 '방에혹'을 지금까지도 마늘 빻을 때 등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 씨 부모님이 사용하던 것을 물려받아 사용하다 보관하고 있는데, 방아확은 화단을 가꾸는 데 쓰고 있다.

"메주 거튼 거 뭐 삐지는 거 놔가지고 허는 거. 이거 쌀 거튼 것도 놩 지고. 언제부터 헌 거 확실히 몰라. 물려받은 거지." [79]

(메주 같은 거 뭐 빻는 거 넣어서 하는 거. 이거 쌀 같은 것도 넣어서 찧고. 언제부터 쓴 거 확실히 몰라, 물려받은 거지.)

"찧는 거 찧는 거. 이거 흔 오십 년 뒈실 거라. 이거 만든 사름은 죽어벳어. 여기 사름 아니고 목장에, 목장 보레 완에 목장 직허면서 이런 거 만들고." [80]

(찧는 거 찧는 거. 이거 한 오십 년 됐을 거야. 이거 만든 사람은 죽어버렸어. 여기 사람은 아니고 목장에, 목장 보러 와서 목장 지키면서 이런 거 만들고.)



〈사진 143〉 현창언 씨 소장 '돌방에'



〈사진 144〉 김성찬 씨 소장 '돌방에'

<사진 143>은 남원1리 현창언 씨의 텃밭 한쪽에 놓여 있는 '방에혹'이고, <사진 144>는 수망리 김성찬 씨가 보관하고 있는 '방에혹'이다. 앞서 <사진 135>, <사진 139>, <사진 141>의 방아확이 남방아에 쓰였던 것이 남아 있는 것이라면 <사진 143>과 <사

78) 의귀리 오희일 씨 구술.
79) 남원1리 현창언 씨 구술.
80) 수망리 김성찬 씨 구술.

진 144>는 처음부터 돌절구로 만들어져 사용해 온 것이다. 앞선 방아확과 비교해 보면, 확실히 크기가 크고 지면에 닿는 바닥이 평평하게 만들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창언 씨는 <사진 143>의 방아확을 쌀가루를 빻을 때도 썼지만 콩을 삶아 메주를 만들기 위해 빻을 때도 사용했다고 한다. 현 씨의 '돌방에'는 현 씨가 현 씨의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사진 144>의 '돌방에'는 김성찬 씨가 약 오십 년 전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만든 것이라고 한다.



〈사진 145〉 오순만 씨 소장 '절구'



〈사진 146〉 오순만 씨 소장 '마께'



〈사진 147〉 김길순 씨 소장 '절구'



〈사진 148〉 김길순 씨 소장 '마께'

한편, '방에혹'과 '방엣귀'를 대신해 지금까지도 간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절구'와 '마께'이다. <사진 145>와 <사진 146>은 위미2리 오순만 씨가 사용하고 있는 절구와 절굿공이다. 오 씨는 절굿공이를 '마께'라고 하는데, '마께'는 '방망이'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사진 147>과 <사진 148>은 신례1리 김길순 씨가 사용하고 있는 절구와 절굿공이다. 이것들 역시 '방에혹', '방엣귀'처럼 마늘을 빻을 대 주로 사용했다고 한다.

(7) 절벤본

'절벤본'은 떡 종류의 하나인 절편을 만들 때 사용하는 떡살이다. 절편은 쌀가루 반죽을 익힌 후 손으로 둥글게 만들어 두 개를 붙인 후 이 '절벤본'으로 누른다. 그럼 '절벤본'의 문양이 떡 위에 찍힌다.

"집이서 헐 때는 이거 썻지, 뭐. 이거 칠십 년대꺼지는 이거 썼어. 칠십 년대 말. 팔십 년대 뒈난 떡집이 강 다 헤다가 헷지."[81]

(집에서 할 때는 이거 썼지, 뭐. 이거 칠십 년대까지는 이거 썼어. 칠십 년대 말. 팔십 년대 되니까 떡집에 가서 다 해다가 했지.)

"동백낭일 거라. 이거 고성봉 씨라고 (그 사람이) 만들엇어. 우리보단 한 열 살 위야. 겐디 손재주가 굉장히 좋아낫어. 우리 어무니 때부터 써난 거지게, 오십 년대 뒈난 우리 그때 뭐 열 설이난 뭐 얼마. 오십 년도 아니면 오십일 년도 만들어져실 거라, 저거."[82]

(동백나무일 거야. 이거 고성봉 씨라고 (그 사람이) 만들었어. 우리보다 한 열 살 위야. 그런데 손재주가 굉장히 좋았었어. 우리 어머니 때부터 썼던 거지. 오십 년대 되니까 우리 그때 뭐 열 살이니까 뭐 얼마. 오십 년도 아니면 오십일 년도 만들었을 거야, 저거.)



〈사진 149〉 김병수 씨 소장 '절벤본'

<사진 149>는 의귀리 김병수 씨 집에서 사용했던 '절벤본'이다. 김 씨에 의하면 1970년대 말까지 제사 때 등에 올리는 떡을 만들 때 이 '절벤본'을 사용했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정에서 떡을 하지 않고 떡집에 맡기게 되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진 149>의 '절벤본'은 의귀리의 고성봉 씨가 만든 것이라고 한다.

81) 의귀리 김병수 씨 구술.
82) 의귀리 김병수 씨 구술.



〈사진 150〉 이대현 씨 소장 '절벤본'



〈사진 151〉 이대현 씨 소장 '절벤본'

<사진 150>은 태흥2리 이대현 씨가 보관하고 있는 '절벤본'이다. 이 씨는 부모님이 사용하던 것을 물려받아 보관하고 있다.

(8) 바드렝이와 고수왈

'바드렝이'는 떡을 찔 때 솥 안에 받치는 도구다. 표준어의 '겅그레'에 대응하는 말로, 찌는 것이 솥 안의 물에 잠기지 않도록 보통 임시로 나뭇개비를 걸쳐 놓기도 하고 댓조각을 얽어서 만들기도 한다. 근래에 와서는 철사를 얽어 만들기도 한다. '고수왈'은 솥에 '바드렝이'를 넣을 때 '바드렝이'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받침 역할을 하는 것이다.

"상웨떡 칠 적에 받치는 거. 우리 할망은 아직도 저거 허여. 우리 메느리덜 잘 먹으니까. 옛날엔 대나무 빙허게시리 여꺼 가지고, 이건 신식으로 멘든 거."[83]
(상화떡 찔 적에 받치는 거. 우리 할머니는 아직도 저거 해. 우리 며느리들 잘 먹으니까. 옛날에는 대나무 빙 엮어서, 이건 신식으로 만든 거.)

"옛날엔 대 헤근에 헤신디, 대 저런 거. 저런 것도 혼 디가 베랑 엇어낫어."[84]
(옛날에는 대 해서 했는데, 대 저런 거. 저런 것도 한 데가 별로 없었어.)

83) 남원1리 현창언 씨 구술.
84) 신례1리 강문선 씨 구술.

"바드렝인 대, 대로 여껑. 철사로도, 그건 내중에. 그 떡 칠 때는, 상웨떡 칠 때는 바드렝이 우트레 천을 끌아. 물 적정 천을 끌주. 물 아이 적지민 그것에 붙엉 떼기가 궂주."[81]
(겅그레는 대, 대로 엮어서. 철사로도, 그건 나중에. 그 떡을 칠 때는, 상화떡을 칠 때는 겅그레 위로 천을 깔아. 물 적셔서 천을 깔지. 물 안 적시면 그것에 붙어서 떼기가 궂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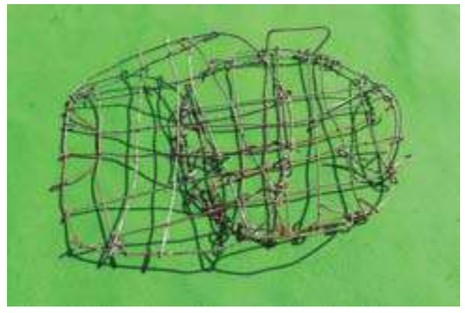
〈사진 152〉 현창언 씨 소장 '바드렝이'



〈사진 153〉 김공률 씨 소장 '바드렝이'



〈사진 154〉 고영주 씨 소장 '바드렝이'



〈사진 155〉 강문선 씨 소장 '고수왈'

<사진 152>는 남원1리 현창언 씨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겅그레다. 현 씨의 아내가 지금도 상화떡을 만들 때 이 '바드렝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사진 153>은 신례1리 김공률 씨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겅그레이고, <사진 154>는 남원1리 고영주 씨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겅그레다. 고 씨는 기성 찜통에 들어 있는 받침에 철사로 손잡이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사진 155>는 강문선 씨가 사용했던 '고수왈'이다.

85) 의귀리 현정자 씨 구술.

"(떡) 찌젠 허민 고수왈 놔. 솟 안에 고수왈, 고수왈이엔 허주, 그거. 바드렝이 만들 아근에 바드렝이 안네 그 노는 거ᄀᆞ라 고수왈이엥 허주. 그거 놩 그 우트레 바드렝이 놩 떡을 놩 쳐."[86]

(떡을 찌려고 하면 '고수왈'을 놓아. 솥 안에 '고수왈', '고수왈'이라고 하지, 그거. 겅그레 만들어서 겅그레 안에 그 놓는 것보고 '고수왈'이라고 하지. 그거 놓고 그 위로 겅그레 놓고 떡을 쪄.)

"(밑에 고수왈은 뭐로 만든 거?) 낭으로두 허고 저, 이 가루 치는 체가 잇어. 그 체가 그디 체 떼어뒁 그 옆이 망만 놓앙. 게민 그거 놩 우트레 바드렝이 놩 떡을 쳐. 고수왈이엥 ᄀᆞᆯ아. 게난에 할망덜이 아, 그 고수왈 ᄒᆞᆫ저 앗당 놓으라게. 바드렝이 놔근에 ᄒᆞᆫ저 치게. 경 헤여."

((밑의 '고수왈'은 뭐로 만든 거?) 나무로도 하고 저, 이 가루를 치는 체가 있어. 그 체가 거기 체 떼어두고 그 옆의 망만 놓아서. 그럼 그거 놓고 위에 '바드렝이' 놓고 떡을 쪄. '고수왈'이라고 말해.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아, 그 '고수왈' 어서 가져다 놓아라. 겅그레 놔서 어서 찌게. 그래.)

86) 의귀리 현정자 씨 구술.
87) 의귀리 현정자 씨 구술.
88) 신례1리 강문선 씨 구술.

(10) 다라

'다라'는 '대야'의 일본어식 표현이다. 예전에는 앞서 <사진108>에서와 같이 나무로 만든 '남도고리'나 양푼 모양으로 만든 질그릇인 '장테' 등을 조리할 때 사용했으나 근래에 와서는 플라스틱이나 양은 등으로 만들어진 여러 종류의 대야를 사용하고 있다.

"다라 엿날에 떡 헤난 거. 이건 유 씨, 유ᄋᆞ름. 저 올레 신 거. 지름 허젠 ᄆᆞᆯ렴주, 지름 짤 거."[88]

(대야 옛날에 떡 했던 거. 이건 들깨 씨, 들깨 열매. 저 '올레' 있는 거. 기름 하려고 말리고 있지, 기름 짤 거.)



〈사진 156〉 고영주 씨 소장 '다라'



〈사진 157〉 강문선 씨 소장 '다라'

<사진 156>은 남원1리 고영주 씨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야이고, <사진 157>은 신례1리 강문선 씨가 사용하고 있는 대야다. 강 씨는 이 '다라'를 예전에 떡을 반죽하거나 할 때 사용했다고 한다. 지금은 기름을 짤 들깨 씨를 넣어 말리고 있다.

2.3. 저장과 운반 도구

(1) 항

'항'은 '항아리'로, 아래위가 좁고 배가 부른 질그릇이다. 전통사회에서 대표적인 저장 도구로 무엇을 담는지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달랐다. 물을 받아 두는 것을 '물항', 된장이나 간장을 담아 두는 '장항', 곡식류를 보관하는 '쏠항'으로 구분하였다. 또 크기가 작은 항아리로 '망데기', '단지' 등도 있다.

"물항은, 물항은 큰 거 놓앗주. 물항을 큰 걸 노민 엿날엔 황이 지세황이엥 헌 황이 잇엇어. 지세황인디 저, 재료가 뜰린 거라. ᄒᆞ쏠 얍곡. 게민 그 지세항에 물을 질어다 노민 여름엔 할망덜이 허는 말이 수왕수왕수왕헌 게 물이 씨원헌다 허곡. 사개항엔 경 안 헤도 지세항을 돈 엇엉 사질 못헤여. 비싸. 게난에 그거는 부제칩 사름 물항으로 놓아. 게난 돈 엇인 사름은 기냥 지금 이신 사기항 그거 놔근에 물을 질어다 노민 지세항에 물이 씨원헌뎅 허주. 물항은 딱 하나."[89]

(물독은, 물독을 큰 거 놓았지. 물독을 큰 걸 놓으면 옛날에는 항아리가 '지세황'이라고 하는 항아리가 있었어. '지세황'인데 저, 재료가 다른 거야. 조금 얇고. 그럼 그 '지세항'에 물을 길어다 놓으면 여름에는 할머니들이 하는 말이 서걱서걱서걱한 게 물이 시원하다고 하고. 사기항아리라고 그렇게 안 해도 '지세항'을 돈 없어서 사지를 못해. 비싸. 그러니까 그거는 부잣집 사람 물독으로 놓아.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그냥 지금 있는 사기항아리 그거 놔서 물을 길어다 놓으면 '지세항'에 물이 시원하다고 하지. 물독은 딱 하나.)

"이것덜 ᄉᆞ못 엿날에. 물항은 그거 물항이주. 그거 장항이고, 장항. 족은 건 망데기. 시집온 다음에 산 거. 물린 건 하나토 엇고. 나 스물에 시집오란 이제 팔십넷인디 시집오랑 이거 살림살이로 산 거."[90]

(이것들 사뭇 옛날에. 물독은 그거 물독이지. 그거 '장항'이고, '장항'. 작은 건 '망데기'. 시집온 다음에 산 거. 물려받은 건 하나도 없고. 내가 스물에 시집와서 이제 여든넷인데 시집와서 이거 살림살이로 산 거.)

"이건 나가 산 거, 서른일곱 설에. 그릇 장서신디, 여기 풀레 왕 그릇 장서신디 요디서. 이거영 이거영 ᄒᆞ루에 산 거. 이거 장항, 요거는 감자, 요거는 뒌장 담는 거. 요거(작은 거) 간장 담앙, 지금도 사서 안 먹고 나가 담아서만 먹지. 조선간장 이거 담은 거 세 개 잇어, 세 개. 뒌장은 이거 똘이 가졍 온 거."[91]

(이거 내가 산 거, 서른일곱 살에. 그릇 장수에게, 여기 팔러 와서 그릇 장수에게 요기서. 이거랑 이거랑 하루에 산 거. 이거 간장 항아리, 요거는 고구마, 요거는 된장 담는 거. 요거(작은 거) 간장 담가서, 지금도 사서 안 먹고 내가 담아서만 먹지. 조선간장 이거 담은 거 세 개 있어, 세 개. 된장은 이거 딸이 가지고 온 거.)



〈사진 158〉 현정자 씨 소장 '항'과 '망데기'



〈사진 159〉 양경용 씨 소장 '항'과 '망데기'

<사진 158>은 의귀리 현정자 씨의 항아리들이다. <사진 159>는 위미2리 양경용 씨가 보관하고 있는 항아리들이다. 별다른 보관 그릇이 없었던 시절에는 항아리가 여러 용도로 쓰였기 때문에 집집마다 크기나 모양이 조금씩 다른 여러 개의 항아리를 갖춰 놓고 생활하였다.

89) 의귀리 현정자 씨 구술.
90) 의귀리 현정자 씨 구술.
91) 위미2리 양경용 씨 구술.

"시월덜이나 십일월덜에나 콩 삶아서 발로 볼르는 거라. 겐 영 멘들앙 옛날식으로는 찍에 영 헤근에, 산디찍에 영 헹 돌아메근에 그걸 멧 날 메칠 헤여근에 막 오래 물려. 경 안허민 이런 문틀에나 구덕에 놔근에 틔와근에 그거 흔 메칠 트민, 잘 트거든. 저런 문창에 놩은 뒈싹닥 뒈싹닥 허단 보민 잘 틔와지면은, 그대로 내불민 자연히 물라. 물르민 흔 오 일, 오 일 벳디서 물려근에 막 물에 시쳐근에. 저 장을 둠젠 허민 날 봐근에 모날이나 둑날이나 이녁 본멩일은 안 뒈거든. 게난에 개날이나 모날이나 소날이나 경헤근에 그거 뒌장 담아근에 흔 오십 일 넘엉 흔 육십 일은 뒈사. 이런 항에 담아근에. 섣덜에 담으민 흔 이월이나 삼월이나 뒈 가민 장을 거려. 거령 뒌장은 무르쥐 영 소금 더껑 놔두고 간장은 솖아. 솖아사 갓 안 써근에. 갓 쓰니까 이것에 헤서 자꾸 벳을 쏘아야 헤. 벳 안 쏘이민 안 뒈지. 경허민 뒌장이 너무 맛좋아, 뒌장이 너무 맛좋아. 콩 서 말, 서 말이민 관뒈로 열두 개. 열두 개 담으면은 우리는 수정 하지 안허니까. 경헹 항에 담아 둠서 일 년 먹주게"[92]

(시월이나 십일월에나 콩 삶아서 발로 밟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옛날식으로 짚에 이렇게 해서, 밭볏짚에 이렇게 해서 달아매서 그걸 몇 날 며칠 해서 아주 오래 말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틀에나 바구니에 놔서 틔워서 그거 한 며칠 트면, 잘 트거든. 저런 문창에 놔서 뒤집었다가 뒤집었다가 하다가 보면 잘 트면, 그대로 내버리면 자연히 말라. 마르면 한 오 일, 오 일 볕에서 말려서 마구 물에 씻어서. 저 장을 담그려고 하면 날을 봐서 토끼날이나 닭날이나 자기 본명일은 안 되거든. 그러니까 개날이나 토끼날이나 소날이나 그렇게 그거 된장 담아서 한 오십 일 넘어서 한 육십 일은 되어야. 이런 항아리에 담아서. 섣달에 담그면 한 이월이나 삼월이나 되어 가면 장을 떠. 떠서 된장은 으깨서 소금 덮어서 놔두고 간장은 삶아. 삶아야 가시 안 생겨서. 가시 생기니까 이것에 해서 자꾸 볕을 쏘아야 해. 볕 안 쏘이면 안 되지. 그러면 된장이 너무 맛좋아, 된장이 너무 맛좋아. 콩 서 말, 서 말이면 관되로 열두 개. 열두 개 담으면 우리는 (가족) 수가 많이 않으니까. 그래서 항아리에 담아 두면서 일 년 먹지.)

위미2리 양경용 씨는 집 담벼락 앞에 나란히 놓여 있는 '항'과 '망데기'를 보여주면서 장 담그는 방법을 설명해 주기도 했다. 먼저 장을 담을 때는 10~11월에 콩을 잘 삶아 발로 밟은 후 그것을 네모반듯한 모양으로 만들고, 짚으로 그것을 묶어 집 안에 매달아 두었다. 이후 꽤 오랜 시간 동안 매달아 둔 것을 여러 차례 뒤집으며 말린 후 다 마르면 물에 깨끗하게 씻어내야 한다. 장을 담글 때는 날을 봐야 하는데 만약 자기가 장을 담그는 날과 같은 날 띠를 가졌다면 그날은 피해 장을 담아야 한다. 섣달에 담

근 장은 2~3월이 되면 뜰 수 있다. 담가 뒀던 된장은 꺼내 으깬 후 소금을 덮어 놔두면 되고, 간장은 끓여 두어야 한다. 장을 담글 때는 보통 콩 서 말 정도를 준비해 담근다. 이것은 관되로 계산하면 열두 개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담아둔 장은 약 1년 정도 가족이 먹을 수 있다고 한다.



〈사진 160〉 김길순 씨 소장 '항'과 '망데기'



〈사진 161〉 오철호 씨 소장 '항'들



〈사진 162〉 현창언 씨 소장 '항'



〈사진 163〉 이대현 씨 소장 '항'

<사진 160>은 신례1리 김길순 씨 집 옆 감귤밭에 놓여 있는 항아리이고, <사진 161>은 의귀리 오철호 씨(1972년생) 집 마당 한쪽의 항아리들이다. 크기별로 모양이 다른 여러 항아리와 단지, 허벅이 놓여 있다. <사진 162>는 남원1리 현창언 씨 집 옥상에 놓여 있는 항아리로, 현 씨 아내는 지금까지도 장을 담근다고 한다. <사진 163>은 태흥2리 이대현 씨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항아리다.

92) 위미2리 양경용 씨 구술.

"친정어멍이 물려준 거. 거 장 담앙 셀아가난 막은 거. 우이 뚜껑이지. 장테로 쓰긴 써낫어. 이것이 보리쏠도 씻고이 글후젠 이거 영. 보리쏠 씻을 때 헤난 거. 겐디 이거 보리쏠 시치젠 허민 버쳉 못 허여, 이젠."[93]

(친정어머니가 물려준 거. 거 간장 담아서 새니까 막은 거. 위에 뚜껑이지. '장테'로 쓰기 썼었어. 이것이 보리쌀도 씻고 그 후에 이거 이렇게. 보리쌀을 씻을 때 했던 거. 그런데 이거 보리쌀 씻으려고 하면 (힘에) 부쳐서 못 해, 이젠.)



〈사진 164〉 강순화 씨 소장 '항'과 '장테'

<사진 164>는 남원1리 강순화 씨가 사용하고 있는 항아리와 '장테'다. 강 씨가 친정어머니에게 물려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강 씨는 이 항아리에 간장을 담았었는데 금이 나서 간장이 새자 시멘트를 발라 땜질해 사용하고 있다. 보통 항아리에 곡식이나 장 등을 넣어 보관할 때 뚜껑을 닫아 두는데, '장테'를 뚜껑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사진 165〉 현정자 씨 소장 '항'



〈사진 166〉 현정자 씨 소장 '항'



〈사진 167〉 강승삼 씨 소장 '항'



〈사진 168〉 김동곤 씨 소장 '항'



〈사진 169〉 김동곤 씨 소장 '항'



〈사진 170〉 강도범 씨 소장 '항'

<사진 165>와 <사진 166>은 의귀리 현정자 씨, <사진 167>은 태흥2리 강승삼 씨, <사진 168>과 <사진 169>는 남원1리 김동곤 씨, <사진 170>은 위미2리 강도범 씨가 보관하고 있는 항아리다.

"정지에 놔난 건 물항. 김치독허고. 그때 할망덜이난 그냥 짐치항, 짐치항 헷주. 글쎄 저거보다 더 커. 막 큰 거야, 것도이 저 사름 사는 정도에 따라 틀렷지. 뭐 엇인 사름은 저 정도도 허고 부잣집은 저보다 큰 것도 허고 너미 커도 좋진 안허니까."[94]

(부엌에 놨던 건 물독. 김칫독하고. 그때 할머니들이니까 그냥 '짐치항', '짐치항' 했지. 글쎄 저거보다 더 커. 아주 큰 거야, 것도 저 사람 사는 정도에 따라 달랐지. 뭐 없는 사람은 저 정도도 하고 부잣집은 저보다 큰 것도 하고 너무 커도 좋지는 않으니까.)

"우리 물 받앙 먹어낫어. 동백낭은 깨껏허거든, 춤 메가지고 이런 항아리 노면은 물 골라근에 먹언. 옛날은 이런 나무가 잇어야 뒈여. 춤, 물 받젠 허면은."[95]

(우리 물 받아서 먹었었어. 동백나무는 깨끗하거든, '춤' 매서 이런 항아리 놓으면 물 고여서 먹었어. 옛날은 이런 나무가 있어야 돼. '춤', 물 받으려고 하면.)

93) 남원1리 강순화 씨 구술.
94) 의귀리 김병수 씨 구술.
95) 남원1리 현창언 씨 구술.

"나무에 저 새 비영 여껑 영 졸라무껑 물항더레 물 받아근에도 쓰곡, 비 올 땐 초집이 물 샐민 그레 받앙 쓰곡 경헤낫어. 춤항이엥 헷주."[96]
(나무에 저 띠 베어서 엮어서 이렇게 잘라매서 물독에 물 받아서도 쓰고, 비 올 때는 초가집에 물이 새면 그리 받아서 쓰고 그랬었어. '춤항'이라고 했지.)

한편, 물이 귀했던 제주에서는 빗물을 받았다가 사용하기도 했다. 집 주변의 큰 나무에 짚을 꼬아 만든 새끼줄을 달아매서 나무에서 내려오는 물을 항아리에 받았다. 이 새끼줄을 '춤'이라고 하고 아래 놓아둔 항아리를 '춤항'이라고 한다. 의귀리 김병수 씨의 구술에 의하면 '춤'을 매서 물을 받는 나무는 동백나무를 이용했다고 한다.

"저거는 얼만 안 뒌 거고.(앞에 찍은 거) 이거도 거의 같은 연대에 산 거야. 그때는 그 대정 사름덜이 다 지고 왓어. 아이고 거기서 어떻게 지고 왓는지. 대정항이주게. 사삼 끝낭 이디 내려왕 살 때 그때 산 거지. 게난 저 항아리가 여라 개란디."[97]
(저거는 얼마 안 된 거고. 이거도 거의 같은 연대에 산 거야. 그때는 그 대정 사람들이 다 지고 왔어. 아이고, 어떻게 지고 왔는지. 대정에서 만든 항아리지. 사삼사건 끝나서 여기 내려와서 살 때 그땐 산 거지. 그러니까 저 항아리 여러 개였는데.)

한편, 의귀리 김병수 씨가 보관하고 있는 항아리들은 대정에서 구입해 온 것이라고 한다.

(2) 망데기

'망데기'는 중두리 정도 크기의 중배가 부르지 않은 옹기를 말한다. '망데기'는 김치를 담거나 장을 담는 용도로 쓰였다. 또 젓갈을 많이 담갔을 때도 이 '망데기'에 담아 보관하기도 했다.

"쏠망데기, 망데기 놩 먹엇주. 그 좁쏠을 원, 예를 들엉 닮은 대승 혼 대라도 허믄 그레 놩 경헨 뒈약세기 그디 들이쳥 그거로 하나 떠근에 헤여. 게난에 식구가 하도 그 뒈약세기로 하나 더 쏠을 안 거려, 어려우난에게. 경헤여."[98]
('쌀망데기', '망데기'에 넣어서 먹었지. 그 좁쌀을 원, 예를 들어서 같은 큰 되 한 되라도 하면 그리 넣어서 그런 '뒈약세기' 거기 들어뜨려서 그거로 하나 떠서 해. 그러니까 식구가 많아도 그 '뒈약세기'로 하나 더 쌀을 안 떠, 어려우니까. 그래.)

"항이 아니고 망데기에, 족은 거그라 망데기엔 허여. 망데기 자리젓도 따로 담고 멜젓도 따로 담는디 가정마다 것도 못 허여, 엇엉. 장은 담는디 장 엇은 디도 많아. 그게 콩이 잇어야 담지."[99]
(항아리가 아니고 '망데기'에, 작은 것보고 '망데기'라고 해. '망데기' 자리젓도 따로 담고 멸치젓도 따로 담는데 가정마다 것도 못 해, 없어서. 장은 담그는데 장 없는 데도 많아. 그게 콩이 있어야 담그지.)

"것도 우리 어무니가 다. 오십 년대, 육십 년대 뒐 거라. 요거는 망데기. 망데기는 뭐 고구마나 뭐야 여기서 뭐엔 허나, 간장으로 조려 가지고 마늘 같은 거 헤서 담는 것덜. 지엔 허는디 여기서는. 마농지."[100]
(것도 우리 어머니가 다. 오십 년대, 육십 년대 될 거야. 요거는 '망데기'. '망데기'는 뭐 고구마나 뭐야, 여기서 뭐라고 하지, 간장으로 조려서 마늘 같은 거 해서 담그는 것들. '지'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마농지'.)


〈사진 171〉 현정자 씨 소장 '망데기'


〈사진 172〉 김병수 씨 소장 '망데기'


〈사진 173〉 양경용 씨 소장 '망데기'

96) 의귀리 현정자 씨 구술.
97) 의귀리 김병수 씨 구술.
98) 의귀리 현정자 씨 구술.
99) 의귀리 현정자 씨 구술.
100) 의귀리 김병수 씨 구술.

<사진 171>은 의귀리 현정자 씨가 보관하고 있는 '망데기'다. 현 씨는 쌀을 '망데기'에 넣고 이것을 부엌 한쪽에 놓아 보관했다고 한다. 이것을 '쏠망데기'라고 불렀는데, 현 씨는 '망데기' 안에 '뒈약세기'를 넣어 두고 쌀을 뜰 때 사용했다. <사진 172>는 의귀리 김병수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망데기'이고, <사진 173>은 위리2리 양경용 씨가 사용했던 '망데기'다.



〈사진 174〉 현순열 씨 소장 '망데기'



〈사진 175〉 김병수 씨 소장 '망데기'

<사진 174>는 위미2리 현순열 씨, <사진 175>는 의귀리 김병수 씨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망데기'인데, 지금도 젓갈을 담을 때 사용하고 있다. '망데기'의 위를 덮고 있는 천 안으로 '망데기' 안에 젓갈이 들어있는 것이 보인다.

"(마농지는 뭐에 담앗수꽈? 단지에?) 것도 저, 단지가 아니고 저 항, 족은 항에. 알동이엔 헌 동이가 잇엇어. 알동이는 요만은 크주. 게난에 그때는 마농지도 아무 디도 엇엉 마농이 엇엉 질 못 헷어. 나 그거 일 년 그거 담아 봐신디, 우리 밧디 간 허난에 마농이 하도 잘뒈언. 경허난에 그걸 헤당 다 담으난 그 알동이로 하나가 뒌 거 아니? 그게 완전 요새 ᄀᆞ트민 소고기 반찬보담도 더 좋은 반찬이라, 게난. 아니, 그거 마농지 봄 난 그거 헤연에 담은 건디 팔뤌 출 헐 때 뒈난 그게 엇어 불언. 다 먹어 비언, 그거. 그것만 먹어난 그것만 먹언. 아이고, 게난 그게 아무 집이나 엇엇어. 경 어려와."[101]

101) 의귀리 현정자 씨 구술.
102) 신례1리 강문선 씨 구술.

((마늘장아찌는 뭐에 담았습니까? 단지에?) 것도 저 단지가 아니고 저 항아리, 작은 항아리에. '알동이'라고 하는 동이가 있었어. '알동이'는 요만큼 크지. 그러니까 그때는 마늘장아찌도 아무데도 없어서 마늘이 없어서 장아찌를 못 했어. 내가 그거 일 년 그거 담아 봤는데, 우리 밭에 가서 하니까 마늘이 아주 잘됐어. 그러니까 그걸 해다가 다 담그니까 그 '알동이'로 하나가 된 거 아니? 그게 완전 요새 같으면 소고기 반찬보다도 더 좋은 반찬이야, 그러니까. 아니, 그거 마늘장아찌 봄 되니까 그거 해서 담근 건데 팔월 꼴 할 때 되니까 그게 없어. 다 먹어 버렸어, 그거. 그것만 먹었었어, 그것만 먹었어. 아이고, 그러니까 그게 아무 집에나 없었어. 그렇게 어려워.)

의귀리 현정자 씨는 '망데기' 크기의 항아리를 '알동이'라고도 불렀다. '알동이'는 항아리를 구울 때 아랫쪽에 놓았던 동이를 말한다. 현 씨는 이것에 마늘장아찌 등을 담았다.

(3) 단지

'단지'는 목이 짧고 배가 부른 작은 항아리를 말한다. 앞에서 살펴봤던 '망데기'에도 장아찌를 담아 보관했지만 보통 젓갈이나 장아찌 등을 담아 보관할 때 '단지'를 활용했다.

"김치도 담곡 젓갈도 담곡. 족은 건 젓 주로 담앗주, 젓. 이디 가시 안 쓰게시리 톡허게 험벅이나 무시거 더꺼이. 경헹 두께 더꺼 불민 어떵 안허여. 이거 오랫어."[102]
(김치도 담고 젓갈도 담고. 작은 건 젓 주로 담았지, 젓. 여기 가시 안 쓰게끔 톡 헝겊이나 뭐 덮어서. 그래서 뚜껑 덮어 버리면 어떻지 않아. 이거 오랬어.)

"그것에 자리젓 같은 거 담아낫주게. 족은 것에, 하영 헤도 먹지도 안허고."[103]
(그것에 자리젓 같은 거 담았었지. 작은 것에, 많이 해도 먹지도 않으니까.)

"이건 간장 놓는 거."[104]
(이건 간장 넣는 거.)

103) 신례1리 김길순 씨 구술.
104) 신례1리 고방순 씨 구술.



〈사진 176〉 김용남 씨 소장 '단지'



〈사진 177〉 강문선 씨 소장 '단지'



〈사진 178〉 김길순 씨 소장 '단지'



〈사진 179〉 고방순 씨 소장 '장단지'

<사진 176>은 태흥2리 김용남 씨(1946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단지이고, <사진 177>은 신례1리 강문선 씨가 사용했던 단지다. 강 씨는 단지에 김치를 담아 두기도 하고 젓갈을 담아 두기도 했는데, <사진 178>의 단지에는 주로 젓갈을 담았다. 젓갈을 담고 위에 헝겊을 덮고 뚜껑을 덮어 버리면 구더기가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사진 179>는 신례1리 고방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장단지'다. 큰 항아리의 간장을 덜어 보관하는 그릇으로, 간장을 따르는 주둥이가 있다.

105) 위미2리 양경용 씨 구술.

(4) 장테

'장테'는 양푼 모양으로 만든 질그릇이다.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기도 하고 장독을 덮는 뚜껑으로 쓰이기도 했다. 또 물을 받아 놓고 설거지하는 그릇으로 쓰이기도 했다.

"이거 장테. 그믓 나 변. 이거는 딴 거 벌러져 벤 엇어 부난 이건 항아린 항아리만 쓰난에 딴 거 더껏주게. 고구마 씻고, 감저."[105]

(이거 '장테'. 금 나 버렸어. 이거는 다른 거 깨져 버려서 없으니까 이건 항아리는 항아리만 쓰니까 다른 거 덮었지. 고구마 씻고, 고구마.)



〈사진 180〉 현창언 씨 소장 '장테'



〈사진 181〉 양경용 씨 소장 '장테'

<사진 180>은 남원1리 현창언 씨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테'다. <사진 181>은 위미2리 양경용 씨의 '장테'로 오른쪽에 금이 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182〉 강도범 씨 소장 '장테'



〈사진 183〉 강도범 씨 소장 '장테'



〈사진 184〉 오희일 씨 소장 '장테'



〈사진 185〉 이대현 씨 소장 '장테'



〈사진 186〉 정개은 씨 소장 '장테'



〈사진 187〉 김용남 씨 소장 '장테'

<사진 182>와 <사진 183>은 위미2리 강도범 씨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테'이다. <사진 184>는 의귀리 오희일 씨, <사진 185>는 태흥2리 이대현 씨, <사진 186>은 남원1리 정개은 씨, <사진 187>은 태흥2리 김용남 씨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테'다. 대부분 항아리나 단지의 뚜껑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의귀리 현정자 씨 구술에 의하면 '장테'는 원래 살림살이로 사용하는 것으로, 항아리 뚜껑이 아니었다고 한다. 보통 그릇이나 야채를 씻을 때 쓰는 그릇인 장테는 지금의 것보다 약한 것이다. 항아리 뚜껑으로 '장테'가 나온 것은 이후의 일이다.

"장테가 요즘 거보단 약헌 거, 약해. 그때는 황 두껑 아이 나오라낫어. 장테는 그 살렴으로 쓰는 거. 황 뚜껑이엔 헹 나오진 안헷어. 게난 이 멧 년 후제 살기 좋곡 개발이 뒈어 가난 황 뚜껑이여 무신 황이여 벨거 다 나오라낫주."[106]

('장테'가 요즘 거보다는 약한 거, 약해. 그때는 항 뚜껑이 안 나왔었어. '장테'는 그 살림으로 쓰는 거. 항아리 뚜껑이라고 해서 나오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이 몇 년 후에 살기 좋고 개발이 돼 가니까 항아리 뚜껑이며 무슨 항아리며 별거 다 나왔었지.)

(5) 허벅

'허벅'은 모양이 둥글며 배가 불룩하고 위의 아가리는 좁은 동이로, 물을 길어 나르거나 곡식을 보관할 때 사용했던 그릇이다. 그 쓰임에 따라 물을 길어 나를 때 쓰는 것을 '물허벅', 술을 담아 나르거나 보관하는 '술허벅', 죽을 나르는 '죽허벅', 씨를 담아 보관하는 '씨허벅' 등으로 부른다. '허벅'은 질흙으로 만들어 쓰다가 근래에 들어 '양철허벅', '플라스틱허벅'이 나와 사용했지만 각 가정에 수도가 보급되면서부터 점차 사라지는 물건 중 하나이다.



〈사진 188〉 김공률 씨 소장 '허벅'



〈사진 189〉 김공률 씨 소장 '허벅'

<사진 188>과 <사진 189>의 '허벅'은 신례1리 김공률 씨가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물 질 땐 허벅 헷주게. 허벅, 대바지. 대바지는 족은 거, 아이덜 지는 거. 우리 지는 건 허벅. 우린 만지내또도 잇고 진서방물도 잇고 다 틀리주게. 네커리엔 진서방물, 또 저 아래는 한질또 다 틀려. 그디 강 물 졍 오는 거라. 허벅 물구덕에 놩, 대로 만든 물구덕 잇엇어이. 대바지는 아이덜 저추룩헌 항아리 닮은 거주게, 저추룩헌 항아리 닮은 거에 조그만헌 거 부리 요만인헌 거 잇어."[107]

(물 길을 때는 '허벅' 했지. '허벅', '대바지'. '대바지'는 작은 거, 아이들 지는 거. 우리 지는 건 '허벅'. 우리는 '만지내또'도 있고 '진서방물'도 있고 다 다르지. 네거리에는 '진서방물', 또 저 아래는 '한질또' 다 달라. 거기 가서 물 지고 오는 거야. '허벅' '물구덕'에 넣어서, 대로 만든 '물구덕'이 있었어. '대바지'는 아이들 저런 항아리 같은 거지. 저런 항아리 같은 거에 조그마한 거 부리 요만한 거 있어.)

106) 의귀리 현정자 씨 구술.
107) 신례1리 강문선 씨 구술.

물을 길어 나르는 일은 어른들만의 일은 아니었는데, 어린이용, 크기가 작은 '허벅'인 '대바지'가 있어 아이들도 이 '대바지'를 지고 물을 길어 왔다. 이 '대바지'는 지역에 따라서는 '대베기'라고도 불렀다.



〈사진 190〉 오철호 씨 소장 '허벅'



〈사진 191〉 고방순 씨 소장 '허벅'

<사진 190>은 의귀리 오철수 씨가 보관하고 있는 '허벅'이다. 마당 한 켠에 사용하지 않는 여러 항아리들과 같이 진열하여 장식품으로 두고 있다. <사진 191>은 신례1리 고방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허벅'이다.

"물 질엉, 게난 그때 마차 잇인 사름은 마차 끗엉 강 헤 오고 마차 엇인 사름은 져 왓주게. 그 물 잘잘 나민 고에기옌 헤근에 밑에 받는 거 헹. 고에기는 소가죽. 고에기는 밑에 물 몸에 오지 말게시리, 젖지 말렌 헌 거, 그거는."[108]

(물 길어서, 그러니까 그때 마차 있는 사람은 마차 끌고 가서 해 오고 마차 없는 사람은 져 왔지. 그 물 촬촬 나면 '고에기'라고 해서 밑에 받는 거 해서. '고에기'는 소가죽. '고에기'는 물 몸에 오지 않게끔, 젖지 말라고 한 거, 그거는.)

'허벅'의 주요 용도는 물을 길어 나르는 것이다. 예로부터 제주는 물이 귀해 물을 나는 곳을 찾아 길어다 식수를 이용하였다. 물은 '허벅'에 길어 '물구덕'에 넣어서 지고 왔다. '물허벅'을 넣은 '물구덕'을 지고 오다 보면 물을 흘리기도 하는데, 이때 물이 몸에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소가죽을 말려 깔개로 이용하기도 했다. 이 깔개를 '고에기'라고 한다. 소가죽 대신에 점차 비료 포로 썼던 비닐이나 장판지 조각을 이용하기도 했다.

"경허민 또 채소를, 채소옌 곧지 말앙 숭키옌 헤사주. 숭키를 저 물구덕 귀허게 놩 가근에 냇가에 강 씻엉 또 귀허게 놔긴에 졍 와, 그때는. 물구덕 옆에, 허벅 논 옆이 영 양쪽으로. 경허고 또 빨래헐 거 시민 그레 꽉허게 담아 놩 강 빨래허여근에 또 그 물 질엉 놔뒁 그 옆데레 꽉 채와근에 놩 오곡. 그 시절은 경헷어."[109]

(그러면 또 채소를, 채소라고 말하지 말고 '숭키'라고 해야지. 푸성귀를 저 '물구덕'에 귀하게 넣어서 가서 냇가에 가서 씻어서 또 귀하게 넣어서 지고 와, 그때는. '물구덕' 옆에, '허벅' 넣은 옆에 이렇게 양쪽으로. 그리고 또 빨래할 거 있으면 그리 꽉 담아 넣어서 가서 빨래해서 또 그 물 길어서 놔두고 그 옆으로 꽈 채워서 넣어서 오고. 그 시절은 그랬어.)

"게민 우리 물을, 물을 질레 냇가에 갈 거 아니? 내창이엔 골아사주, 엿날 말. 내창에 강 물을 졍 오민 그걸 오라긴에 팡팡팡 비웁주. 허벅으로 영 헹 져긴에 팡팡팡 비우곡. 졍 오라근에 팡팡허게 다 비와지민 이젠 나오라근에 영헌 무뚱 엠에 돌 헤영 팡을 만들아. 넙삭한 돌, 이치룩 넙삭, 물구덕 놀 만헌 것에 발 돋져긴에, 발 돋져긴에 허민 물 비와지민 그 팡더레 오랑 부려 놓주게. 게민 또 물 질레 갈 땐 그대로 베도 아이 벳기고 그대로 졍 나가곡 졍 들어오고."[110]

(그럼 우리 물을, 물을 길으러 냇가에 갈 거 아니? '내창'이라고 말해야지, 옛날 말. 내에 가서 물을 지고 오면 그걸 와서 펑펑펑 비우지. '허벅'으로 이렇게 해서 져서 펑펑펑 비우고. 지고 와서 펑펑 다 비우면 이제는 나와서 이런 문앞 옆에 돌 해서 '팡'을 만들어. 넓적한 돌, 이처럼 넓적, '물구덕' 놓을 만한 것에 발 돋게 해서, 발 돋게 해서 하면 물 비우면 그 '팡'에 와서 부려 놓지. 그럼 또 물 길으러 갈 때는 그대로 바도 안 벗기고 그대고 지고 나가고 지고 들어오고.)



〈사진 192〉 양금석 가옥의 '물팡'



〈사진 193〉 양금석 가옥의 '물팡'

108) 의귀리 오희일 씨 구술. 109) 의귀리 현정자 씨 구술. 110) 의귀리 현정자 씨 구술.

물을 길어서 지고 오면 '물구덕'을 진 채 물독에 물을 붓는다. 붓고 나서는 '허벅'이 든 '물구덕'은 부엌 입구 쪽에 있는 '물팡'에 부려 보관한다. <사진 192>와 <사진 193>은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신례1리 양금석 가옥의 '물팡'이다.

(6) 추니

'추니'는 술 따위를 담는 항아리다. 위 아가리는 좁고 몸통은 가늘고 긴 모양을 한 항아리로, 술을 담그고 보관할 때 사용했던 그릇이다.

"시어머니가 술 담가난 거. 시어머니 허는 거 하영 봣어. 고소리 허는 거 봔. 그 옆으로, 고소리 옆으로 술 졸졸졸. 게민 거 맛보고."[111]

(시어머니가 술 담갔던 거. 시어머니 하는 거 많이 봤어. 소줏고리 하는 거 봤어. 그 옆으로, 소줏고리 옆으로 술이 졸졸졸, 그럼 그거 맛보고.)

"나 혼 서른에. 술 사단 담아난 거."[112]

(나 한 서른에. 술 사다가 담았던 거.)

"(추니) 그거는 제라허게 장사술 하영 담는 거. 게난 사 올 때도 그 추니로 사 오민 이만은 높아이. 이만이 노프고 일로 비웁는 디도 잇주게. 겐디 그거는 장삿칩에서 아져오주, 개인 칩이 추니가 힘들어, 잇인 집이가. 가다 오다나 잇주."[113]

((추니') 그거는 완전히 장사 술 많이 담는 거. 그러니까 사 올 때도 그 '추니'로 사 오면 이만큼은 높아. 이만큼 높고 이리로 붓는 데는 있지. 그런데 그거는 장삿집에서 가져고 오지, 개인 집 '추니'가 힘들어, 있는 집이. 오다 가다나 있지.)



〈사진 194〉 김길순 씨 소장 '추니'



〈사진 195〉 김성찬 씨 소장 '술추니'

<사진 194>는 신례1리 김길순 씨의 시어머니가 사용했던 '추니'로 김 씨가 직접 술이 담가 보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담그는 것을 옆에서 자주 봤었다고 한다. <사진 195>는 수망리 김성찬 씨 집에서 사용했던 '추니'다. 의귀리 현정자 씨에 의하면 '추니'는 술을 많이 담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술을 전문적으로 장사하는 집에는 갖추고 있으나 개인 집마다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

(7) 술펭

'술펭'은 술을 담는 병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술펭'의 '펭'은 '병'의 제주어이다.



〈사진 196〉 고방순 씨 소장 '술펭'



〈사진 197〉 고방순 씨 소장 '술펭'



〈사진 198〉 고방순 씨 소장 '술펭'



〈사진 199〉 고방순 씨 소장 '술펭'

111) 신례1리 김길순 씨 구술.
112) 수망리 김성찬 씨 구술.
113) 의귀리 현정자 씨 구술.

<사진 196>에서 <사진 199>는 신례1리 고방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술병이다. 모두 모양이 조금씩 다른데 금이 가거나 부리가 상해 있다. 의귀리 현정자 씨는 술을 담아 두는 이러한 술병을 '두리벵, 두루병'이라고 불렀다.

"(술 담는 뭐가 잇잖아예?) 저 두리벵. 저 사기로 만들앙 굽은 이만이허고. 영 길어, 길어. 목자린 영 길어, 길어. 두루병이엥 골아낫어. 두루병이엔 골아낫어. 두루병."[114]
((술 담는 뭐가 있잖아요?) 저 '두리벵'. 저 사기로 만들어서 굽은 이만하고. 이렇게 길어, 길어. 목은 이렇게 길어, 길어. '두루병'이라고 말했었어. '두루병'이라고 말했었어, '두루병')

2.4. 제기

'제기'는 제례에 사용되는 그릇과 관련 도구이다. 일반적으로 각 가정에서 제기는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식기류와는 구분하여 따로 보관하며 사용한다. 보통 제보자의 집에서는 '놋그릇' 제기를 물려받아 사용하다가 점차 스테인리스 그릇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놋그릇 제기를 마련헤 가지고, 할아버지 더 웃대에 마련헌 거지. 그래 가지고 계속 물려받으면서 사용헤 왓는데 일제시대에 더러는 공출당헤 가지고 저거는 막 숨겻다가, 저거는 돌, 돌 뭐에다, 저 벡케라고 헤가지고 그런 디 막 소곱에 숨겻다가. 그 외에 막 공출당헤서 많이 없어졌어. 옛날에는 젤 웃대 하르부지 제기, 그다음 차기 하르부지 제기 헤서, 우리 아버님은 놋그릇이 아니고 요즘 나온 스덴이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건 육십 년 대니까 그 이전에는 다 놋그릇이었어요. 댓수로 헤서 다 마련된 건데."[115]
(이 놋그릇 제기를 마련해 가지고, 할아버지 더 윗대에 마련한 거지. 그래 가지고 계속 물려받으면서 사용해 왔는데 일제시대에 더러는 공출당해서 저거는 마구 숨겼다가, 저거는 돌, 돌 뭐에다, 저 '벡케'라고 해서 그런 데 아주 속에 숨겼다가. 그 외에 많이 공출당해서 많이 없어졌어. 옛날에는 제일 윗대 할아버지 제기, 그다음 차기 할아버지 제기 해서, 우리 아버님은 놋그릇이 아니고 요즘 나온 스테인리스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건 육십 년 대니까 그 이전에는 다 놋그릇이었어요. 대수로 해서 다 마련된 건데.)

놋그릇은 일제강점기 때 공출 대상이었다. 남원읍의 많은 제보자들도 놋그릇을 공출했다고 기억하고 있다. 남아 있는 놋그릇들은 공출당하지 않으려고 잘 숨겨 두었던 것들로 그 이후에 제사를 지낼 때 사용했었다고 한다.

"이 놋그릇 나 살림 살멍도 이거 써 봣지. 우리 아버님 대 식게까지 썻으니까 육십 년대꺼지 썼지. 그 이후로는 스덴 나오니까 스덴으로, 처리허기 좋으니까 바꿔 불언에 안 썼는디."[116]
(이 놋그릇 내가 살림 살면서도 이거 써 봤지. 우리 아버님 대 제사까지 썼으니까 육십 년 때까지 썼지. 그 이후로는 스테인리스가 나오니까 스테인리스로, 처리하기 좋으니까 바꿔 버려서 안 썼는데.)

"우리 어머님네 계실 때는 그 아랫동서덜이 막 멩질날, 전전날 모영 다 저 놋그릇을 닦고 그다음 멩질 전날은 다 방아 찧고 뭐. 여러 가지 재료 만들고. 전날은, 멩질 전날은 떡 만들고. 혼 삼 일 일허는 걸 봤어요, 어린 때. (놋그릇은 뭐로 다까나신고예?) 저 나무 재, 옛날에 그 부섭에서 불 때 나민 그 재가 잇으민 그거 헤서 산디찍, 그 당시는 산디찍을 헤가지고 이렇게 뭉크려 가지고, 부벼서 그 재를 찍어서 무치면서 따끄면은 아주 빤질빤질. 제 색깔이 다 나와요."[117]
(우리 어머님네 계실 때는 그 아랫동서들이 명절날, 전전날 모여서 다 저 놋그릇을 닦고 그다음 명절 전날은 다 방아를 찧고 뭐. 여러 가지 재료 만들고. 전날은, 명절 전날은 떡 만들고. 한 삼 일 일하는 걸 봤어요, 어렸을 때. (놋그릇은 뭐로 닦았었나요?) 저 나무 재, 옛날에 그 '부섭'에서 불 때고 나면 그 재가 있으면 그거 해서 밭볏짚, 그 당시는 밭볏짚을 해서 이렇게 구겨 가지고, 비벼서 그 재를 찍어서 묻히면서 닦으면
아주 반질반질. 제 색깔이 다 나와요.)


〈사진 200〉 김동곤 씨 소장 '제기'

114) 의귀리 현정자 씨 구술.
115) 남원1리 김동곤 씨 구술.
116) 남원1리 김동곤 씨 구술.
117) 남원1리 김동곤 씨 구술.

<사진 200>은 남원1리 김동곤 씨가 보관하고 있는 놋그릇 제기이다. 김 씨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김 씨의 집에서는 1960년대까지 사진의 놋그릇을 사용했었다고 한다. 김 씨의 구술에 의하면, 놋그릇을 닦을 때는 마루에 놓여 있는 화로인 '부섭'의 재를 밭볏짚에 묻혀 닦았다고 한다. 명절에는 삼 일 전서부터 여자들이 모여 놋그릇을 닦고 음식을 준비해야 했다. 놋그릇을 관리하는 것이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때문에 스테인리스 그릇이 보급되자 사용하기 편한 제기로 바꾸었다고 한다.

"할아버지서부터 물렷는데 내 생각에, 이거 자세허게 언제부터 쓴 건 몰라. 계속 내려온 거고. 우리 아버지 제사꺼지 이걸로 헷지." [118]
(할아버지부터 물렸는데 내 생각에, 이거 자세하게 언제부터 쓴 건 몰라. 계속 내려온 거고. 우리 아버지 제사까지 이걸로 했지.)

"스덴 사발 나옴 시작허난 이거 안 썻주. 이거 허젠 허민 여자덜이 제사 전날에 이거 막 다까야 뒈거든. 이거 불치로 산디찍으로 헹 허민 잘 다까져. 스덴은 삼십 대 뒈난 나와신가?" [119]
(스테인리스 사발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거 안 썼지. 이거 하려고 하면 여자들이 제사 전날에 이거 마구 닦아야 되거든. 이거 재로 밭볏짚으로 해서 하면 잘 닦여. 스테인리스는 삼십 대 되니까 나왔나?)



〈사진 201〉 정창휴 씨 소장 '제기'



〈사진202〉 현창언 씨 소장 '제기'

118) 남원1리 정창휴 씨 구술.
119) 남원1리 현창언 씨 구술.

<사진 201>은 남원1리 정창휴 씨(1942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놋그릇 제기다. 정 씨는 할아버지 때부터 물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사용해서 물린 것인지는 모른다고 한다. 아버지가 제사를 지낼 때까지 사진의 놋그릇을 사용했다고 한다. <사진 202>는 남원1리 현창언 씨가 보관하고 있는 놋그릇이다. 현 씨도 삼십 대에 스테인리스 그릇이 나오기 시작하자 놋그릇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1) 멧그릇, 갱그릇

'메'와 '갱'은 제사 때 올리는 밥과 국으로, '멧그릇'과 '갱그릇'은 메와 갱을 뜰 때 사용하는 그릇을 말한다.



〈사진 203〉 김동곤 씨 소장 '멧그릇'와 '갱그릇'



〈사진 204〉 강승삼 씨 소장 '멧그릇'와 '갱그릇'

<사진 203>은 남원1리 김동곤 씨, <사진 204>는 태흥2리 강승삼 씨가 보관하고 있는 '멧그릇'과 '갱그릇'이다.

"이건 우리가 큰집이니까, 제사헐 때 써난 거. 이거 오래지 안헷어, 이건 쓴 지, 한 삼십 년 전까진 이거 썼지." [120]
(이건 우리가 큰집이니까, 제사할 때 썼던 거. 이거 오래지 않았어, 이건 쓴 지, 한 삼십 년 전까지는 이거 썼지.)

120) 태흥2리 강승삼 씨 구술.

"친정에 왕할무니가 허단 건디 조케덜이, 우리 오라방네 다 죽어부난 그 저 우리 조케덜이 분시 몰랑 다 버려 분 거. 버려 부난 국사발, 밥사발 이시난 나가 갓단에 내불엇주. 친정 왕할머니 헤난 거. 나가 가져온 거 오래지 안헤연." [121]

(친정에 증조할머니가 하던 건데 조카들이, 우리 오라버니네 다 죽어버리니까 그 저 우리 조카들이 분수 몰라서 다 버려 버리는 거. 버려 버리니까 국사발, 밥사발 있으니까 내가 가져다가 내버렸지. 친정 증조할머니가 했던 거. 내가 가져온 거 오래지 않았어.)



〈사진 205〉 김동곤 씨 소장 '멧그릇'



〈사진 206〉 김동곤 씨 소장 '멧그릇'



〈사진 207〉 정창휴 씨 소장 '멧그릇'



〈사진 208〉 정창휴 씨 소장 '멧그릇'

<사진 205>과 <사진 206>은 남원1리 김동곤 씨, <사진 207>과 <사진 208>은 남원1리 정창휴 씨, <사진 209>과 <사진 210>은 태흥2리 강승삼 씨가 보관하고 있는 '멧그릇'이다. 그릇의 모양, 특히 뚜껑이 모양이 조금씩 다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21) 위미2리 신옥예 씨 구술.



〈사진 209〉 강승삼 씨 소장 '멧그릇'



〈사진 210〉 강승삼 씨 소장 '멧그릇'



〈사진 211〉 현창언 씨 소장 '멧그릇'



〈사진 212〉 신옥예 씨 소장 '멧그릇'

<사진 211>은 남원1리 현창언 씨가 보관하고 있는 '멧그릇'으로 사용하지 않은 지 삼십 년이 넘었다고 한다. <사진 212>는 위미2리 신옥예 씨가 보관하고 있는 놋그릇인데 친정에서 증조할머니가 사용하던 것이라고 한다.



〈사진 213〉 김동곤 씨 소장 '갱그릇'



〈사진 214〉 정창휴 씨 소장 '갱그릇'



〈사진 215〉 현창언 씨 소장 '갱그릇'



〈사진 216〉 신옥예 씨 소장 '갱그릇'

<사진 213>은 남원1리 김동곤 씨, <사진 214>는 남원1리 정창휴 씨, <사진 215>는 남원1리 현창언 씨, <사진 216>은 위미2리 신옥예 씨(1938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갱그릇이다.

"요거는 큰사발에 헨에 그 웃대 상에 놘. 이거 두껑이라. 멧그릇 두껑. 사발도 막 큰 거라. 웃대 할망덜 하르방덜 허는 거."[122]

(요것은 큰사발에 해서 그 윗대 상에 놨어. 이거 뚜껑이야. 멧그릇 뚜껑. 사발도 아주 큰 거야. 윗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하는 거.)



〈사진 217〉 양기화 씨 소장 '멧그릇' 뚜껑

<사진 217>은 태흥2리 양기화 씨가 보관하고 있는 '멧그릇' 뚜껑이다. 윗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사용했던 큰 사발의 뚜껑인데 본체는 어떻게 됐는지 모른 채 뚜껑만 남아 있었다.

122) 태흥2리 양기화 씨 구술.
123) 신례1리 강문선 씨 구술.
124) 신례1리 강문선 씨 구술.

"식게 때 지금도 썸주게, 놋그릇. 엿날 건, 조상 식게 멩질에 쓰는 사발이니까 자기 사발이라고 헤가지고 사 놔. 산, 어른덜이 사 놔근에 죽을 때도 자기 그릇으로 허는 거. 그거는 초상이 자기가, 자기 그릇이니까 쭉허게 쓰주게."[123]

(제사 때 지금도 쓰고 있지, 놋그릇. 옛날 건, 조상 제사 명절에 쓰는 사발이니까 자기 사발이라고 해서 사 놔. 산, 어른들이 사 놔서 죽을 때도 자기 그릇으로 하는 거. 그거는 조상이 자기 그릇이니까 쭉 쓰지.)

"그거 써도 놋그릇 지금도 썸서, 제서 때에. 제삿날에 영 궨당덜 ᄉᆞ빡 오주게. 겨민 밥 갈라 먹는 거. 상에 올리는 건 놋그릇 올리고 그냥 먹는 건 이거 쓰고. 놋그릇은 아덜네 식게 멩질 허는 디 가 벳주게, 시에. 시에 문 가 벳어."[124]

(그거 써도 놋그릇 지금도 쓰고 있어, 제사 때에. 제삿날에 이렇게 친척들 가득 오지. 그럼 밥 나눠 먹는 거. 상에 올리는 건 놋그릇 올리고 그냥 먹는 건 이거 쓰고. 놋그릇은 아들네 제사 명절 하는 데 가 버렸지, 시에. 시에 모두 가 버렸어.)



〈사진 218〉 강문선 씨 소장 '멧그릇'과 '갱그릇'

<사진 218>은 신례1리 강문선 씨의 그릇이다. 강 씨는 <사진 218>의 스테인리스 그릇이 나온 후에도 제사상에는 놋그릇을 사용한다고 한다. 사진의 그릇은 제삿집에 온 손님들과 음식을 먹을 때 사용했다. 강 씨에 의하면 제사상에 올리는 그릇도 제사를 지내는 사람 각각의 그릇이 있어서 해당하는 그릇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2) 놋숟가락

'놋숟가락'은 놋으로 된, 밥이나 국물 따위를 떠먹는 도구다. 보통 제기인 경우는 제사나 명절 때만 꺼내어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놋숟가락인 경우는 평상시 밥을 먹을 때 사용하기도 했다.

"놋숟가락은 제사 때도 쓰고 가정에서도 쓰곡 허주."[125]
(놋숟가락은 제사 때도 쓰고 가정에서도 쓰고 하지.)


〈사진 219〉 정창휴 씨 소장 '놋숟가락'


〈사진 220〉 정창휴 씨 소장 '놋수저'


〈사진 221〉 정창휴 씨 소장 '놋숟가락'


〈사진 222〉 현창언 씨 소장 '놋숟가락'

<사진 219>에서 <사진 221>은 남원1리 정창휴 씨가 보관하고 있는 놋숟가락이다. <사진 222> 남원1리 현창언 씨가 보관하고 있는 놋숟가락이다.

(4) 펜틀과 쟁반

'펜틀'은 제를 지낼 때 등에 떡을 괴어 올릴 때 쓰는 나무 그릇을 말한다.

"제사상에 떡 올릴 때 쓰는 거. 펜틀, 펜틀이렌 헤낫주."[126]
(제사상에 떡 올릴 때 쓰는 거. '펜틀', '펜틀'이라고 했었지.)

"친떡 헤가지고 친떡 두 빗 놓고 인절미 혼 칭, 그다음 절벤 혼 칭, 그다음 솔벤 혼 칭 그다음 우찍. 지름떡이엔 허는디 옛날에는 우찍을 요멘씩 멘들아 가지고 저 엿을, 엿을 만들앗다가 그 엿을 발라서 우찍을 만들아. 기름엿 발라서. 게민 일곱 개 올리던지 다섯 개 올리던지. 우찍은 젤 우이 젤, 마감으로 우에 한 줄. 저 제펜이라고 헤서 팟 안 무친 거. 제펜 이렇게 한 줄 이렇게 한 줄 헤서 두 줄 놓고 그 우에 또 인절미 뭐 크면은 세 줄. 그다음은 세 개 영 영 놓고. 솔벤은 두 줄, 거 넓으니까 반달 닮은 거 넓으니까 두 줄로 이렇게 논 다음에 젤 우에 혼 줄로 또 놔요."[127]
(시루떡 해서 시루떡 두 '빗' 놓고 인절미 한 층, 그다음 절편 한 층, 그다음 솔편 한 층 그다음 '우찍'. 기름떡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우찍'을 요만큼씩 만들어 가지고 저 엿을, 엿을 만들었다가 그 엿을 발라서 '우찍'을 만들어. 기름엿 발라서. 그럼 일곱 개 올리든지 다섯 개 올리든지. '우찍'은 제일 위에 제일, 마감으로 위에 한 줄. 저 '제펜'이라고 해서 팥 안 묻힌 거. '제펜' 이렇게 한 줄 이렇게 한 줄 해서 두 줄 놓고 그 위에 또 인절미 뭐 크면은 세 줄. 그다음은 세 개 이렇게 이렇게 놓고. 솔편은 두 줄, 그것 넓으니까 반달 같은 거 넓으니까 두 줄로 이렇게 놓은 다음에 제일 위에 한 줄로 또 놔요.)

"(이렇게 떡 놓는 거를?) 궵시 허라 헷주. 궵시엔 허면은 통틀어서 말허는 건데 적갈이나 떡 올리는 그런 작업허는 걸 다 궵시엔 헷주."[128]
((이렇게 떡 놓는 거를?) '궵시' 해라 했지. '궵시'라고 하면 통틀어서 말하는 건데 적이나 떡 올리는 그런 작업하는 것을 다 '궵시'라고 했지.)


〈사진 223〉 김동곤 씨 소장 '펜틀'


〈사진 224〉 고방순 씨 소장 '쟁반'

125) 의귀리 양인필 씨 구술.
126) 남원1리 김동곤 씨 구술.
127) 남원1리 김동곤 씨 구술.
128) 남원1리 김동곤 씨 구술.



〈사진 225〉 고방순 씨 소장 '쟁반'



〈사진 226〉 고방순 씨 소장 '쟁반'

<사진 223>은 남원1리 김동곤 씨가 보관하고 있는 '펜틀'이다. 제사상에 제물을 올릴 때 사용했던 것으로, 김 씨는 '펜틀'에 제물을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고 상차림 하는 것을 '궵시'라고 했다. <사진 224>와 <사진 226>은 신례1리 고방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쟁반으로 제사상에 제물을 올릴 때 사용했던 그릇이다. <사진 226>의 쟁반은 <사진 225>의 쟁반들 중에서 맨 앞쪽 있는 것으로 제물을 올릴 때 썼던 것이고, <사진 225>의 뒤쪽 작은 쟁반들은 제삿집 등에서 손님에게 반기를 나눌 때 사용했던 것이다.

"이거 서른에 산 거. 놋그릇 가졍 안 헤 봔. 친정에서 헐 때 팔월 멩질 뒈민 따끄렌만 허민 아이구, 막 부에 낭 죽어짐 직허여. 겨난 놋그릇 허고장 안허영 나가 제사헐 때 이거 산 헷주. (놋그릇 뭐로 따까?) 무스거 속돌 뽓앙 따끄고, 따끄는 것이 잇어. 막 뽓아, 좀질게. 그거 뽓앙 그 ᄀᆞ루를. 막 뽓앙 좀질게. 겐 산디찍으로. 불치로도 다깟주게, 불치도 헹 다깟주. 이제도 문 이런 거 다끄는 것도 문 사단 다깜선게, 절간에 간 보민."[129]

(이거 서른에 산 거. 놋그릇 가지고 안 해 봤어. 친정에서 할 때 팔월 명절 되면 닦으라고만 하면 아이고, 아주 화가 나서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놋그릇 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제사할 때 이거 사서 했지. (놋그릇 뭐로 닦아?) 뭐 '속돌' 빻아서도 닦고, 닦는 것이 있어. 마구 빻아, 자잘하게. 그거 빻아서 그 가루를. 마구 빻아서 자잘하게. 그래서 밭볏짚으로. 재로도 닦았지, 재도 해서 닦았지. 이제도 모두 이런 거 닦는 것도 모두 사다가 닦고 있던데, 절에 가서 보면.)

129) 위미2리 오순만 씨 구술.
130) 태흥2리 강승삼 씨 구술.
131) 남원1리 김동곤 씨 구술.



〈사진 227〉 정창휴 씨 소장 '쟁반'



〈사진 228〉 오순만 씨 소장 '쟁반'

<사진 227>은 남원1리 정창휴 씨가 보관하고 있는 놋그릇으로 된 쟁반이다. <사진 228>은 위미2리 오순만 씨가 보관하고 있는 쟁반과 접시다. 놋그릇을 사용하려면 깨끗이 닦아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오 씨는 친정에서 제사나 명절 전에 놋그릇을 닦는 일이 지긋지긋했다고 한다. 그래서 시집가서 제사를 할 때는 스테인리스 그릇이 나오자 이 그릇을 장만해서 사용했다고 한다.

(5) 술잔과 잔대

'술잔'은 술을 따라서 제사상에 올리는 데 쓰고, '잔대'는 잔을 받치는 접시 모양의 그릇이다. 남원읍 조사에서는 놋그릇 제기를 보관하고 있는 몇몇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 제보자들은 다른 놋그릇 제기는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술잔과 잔대는 여전히 놋그릇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놋잔덜은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 이거는 웨잔, 웨잔도 하나 분실헤 불고. 삼 부처민 세 개 올리고 부처는 두 개 올리고."[130]

(놋잔들은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 이거는 외잔, 외잔도 하나 분실해 버리고. 삼 부처면 세 개 올리고 부처는 두 개 올리고.)

"저 잔은 삼 부처가 잇고 두 부처가 잇고 헌디 삼 부처에는 잔 세 개. 작은 거 이렇게 세 개 놓면 삼 부처, 이거 두 개는 두 부처." [131]

(저 잔은 삼 부처가 있고 부처가 있고 한데 삼 부처에는 잔 세 개. 작은 거 이렇게 세 개 놓으면 삼 부처, 이거 두 개는 부처.)



〈사진 229〉 강승삼 씨 소장 '술잔'과 '잔대'



〈사진 230〉 강승삼 씨 소장 '술잔'과 '잔대'



〈사진 231〉 강승삼 씨 소장 '술잔'과 '잔대'



〈사진 232〉 김동곤 씨 소장 '술잔'과 '잔대'



〈사진 233〉 김동곤 씨 소장 '술잔'과 '잔대'



〈사진 234〉 김동곤 씨 소장 '술잔'과 '잔대'

<사진 229>에서 <사진 231>은 태흥2리 강승삼 씨의 놋술잔과 잔대이다. 강 씨는 다른 제기는 스테인리스 그릇으로 바꾸었지만 술잔과 잔대는 놋그릇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사진 232>에서 <사진 234>는 남원1리 김동곤 씨가 보관하고 있는 술잔과 잔대이다. 사용한 지 오래된 놋그릇이 관리되지 않은 채 보관되고 있었다.



〈사진 235〉 정창휴 씨 소장 '술잔'과 '잔대'



〈사진 236〉 정창휴 씨 소장 '술잔'과 '잔대'



〈사진 237〉 현창언 씨 소장 '술잔'과 '잔대'



〈사진 238〉 현창언 씨 소장 '술잔'과 '잔대'

<사진 235>와 <사진 236>은 남원1리 정창휴 씨가 보관하고 있는 술잔과 잔대다. <사진 237>과 <사진 238>은 남원1리 현창언 씨가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아 사용했던 술잔과 잔대다.

(5) 모셋그릇

'모셋그릇'은 모사를 담는 그릇으로, 보시기처럼 오목하게 생겼으며 굽이 있다. 표준어로는 '모삿그릇'이다.

"요거는 모셋그릇이라고 헤서 분양헤서 이레 비웁는 거. 분양 잔 비웁는 거."[132]
(요것은 모삿그릇이라고 해서 분향해서 이리 붓는 거. 분향 잔 붓는 거.)

132) 태흥2리 강승삼 씨 구술.



<사진 239>는 태흥2리 강승삼 씨가 사용하고 있는 모삿그릇이다. 제사상에 올렸던 술을 붓는 그릇이다.

〈사진 239〉 강승삼 씨 소장 '모세그릇'

(4) 향로, 상합, 촛대

'향로'는 제사를 지낼 때 향을 피는 자그마한 화로다. '상합'은 표준어의 '향합'으로 제사 지낼 때 피우는 향을 넣어서 보관하는 함이다.



〈사진 240〉 김동곤 씨 소장 '향로'



〈사진 241〉 현창언 씨 소장 '향로'



〈사진 242〉 정개은 씨 소장 '향로'



〈사진 243〉 오순만 씨 소장 '향로'

<사진 240>은 남원1리 김동곤 씨가 보관하고 있는 놋향로이다. <사진 241>은 남원1리 현창언 씨의 향로로, 현 씨는 '멧그릇', '갱그릇' 등의 놋그릇 제기는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술잔이나 향로는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었다. <사진 242>은 남원1리 정개은 씨, <사진 243>은 위미2리 오순만 씨가 사용하고 있는 향로다.

"이거는 향 놓는 거."[133]
(이거는 향 놓는 거.)



〈사진 244〉 강승삼 씨 소장 '상합'



〈사진 245〉 현창언 씨 소장 '상합'



〈사진 246〉 정창휴 씨 소장 '상합'



〈사진 247〉 오순만 씨 소장 '상합'

<사진 244>는 태흥2리 강승삼 씨, <사진 245>는 남원1리 현창언 씨가 사용하고 있는 향합이다. <사진 246>은 남원1리 정창휴 씨 부모님이 사용하던 향합으로, 정 씨가 다른 제기들과 함께 물려받아 보관하고 있다. <사진 247>은 위미2리 오순만 씨가 사용하고 있는 향합인데 향합 안에 향나무 가지 조각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33) 태흥2리 강승삼 씨 구술.

"이거양 막 여라 가지 아니꽈, 봅서. 이건 상가지. 상가지 하나썩 다 놩 헤야 변허지 안 허지. 이거 향냄새가 그렇게. 제사 때 이거 씁니께게. 이거 헤 가민 향냄새가, 연기 올라가민 냄새가 좁니다게. 지금은 센꼬덜 허지만 센꼬보단 이것이 좋덴 헙니께."[134]
(이거요 아주 여러 가지 아닙니까, 보세요. 이건 '상가지'. '상가지' 하나씩 다 놓고 해야 변하지 않지. 이거 향냄새가 그렇게. 제사 때 이거 씁니다. 이거 해 가면 향냄새가, 연기 올라가면 냄새가 좋습니다. 지금은 '센꼬'들 하지만 '센꼬'보다는 이것이 좋다고 합니다.)



〈사진 248〉 김길순 씨 소장 '상가지'

<사진 248>은 신례1리 김길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상가지'다. '상가지'는 향나무의 가지로, 이것을 깎아 제를 지낼 때 향을 피우기도 하고, 이것을 넣어 끓인 물로 제기 등을 닦기도 한다. 김 씨는 수의를 보관하는 묶음에 이 '상가지'를 사이사이 넣어 보관하고 있었다.

(6) 촛대

'촛대'는 초를 꽂아 불을 밝혀 둘 수 있게 만든 도구다.



〈사진 249〉 정개은 씨 소장 '촛대'



〈사진 250〉 현창언 씨 소장 '촛대'

<사진 249>는 남원1리 정개은 씨 집에서 사용했던 촛대이다. <사진 250>은 남원1리 현창언 씨가 보관하고 있는 촛대인데 현재는 부러진 상태이다.

134) 신례1리 김길순 씨 구술.

2.5. 기타

(1) 뒈약세기

'뒈약세기'는 쌀 등의 곡식을 뜨기 위해서 쌀독 등에 넣어 두고 사용하는 그릇이다.

"이거 친정어멍이 준 거. 이걸로 쏠, 쏠이. 쏠 영 거려근에 먹곡. 야 이거 두고두고 쓰라, 이거 막 좋나, 허멍 헨게. 물린 지 오랫저. 우리 어멍 죽은 지도 오래고. 흔, 나가 거시기 사십에 죽으난. 이거 막 오랜 거, 낭으로 판 거 아니가."[135]
(이거 친정어머니가 준 거. 이걸로 쌀, 쌀. 쌀 이렇게 떠서 먹고. 야, 이거 두고두고 써라, 이거 아주 좋아, 하면서 했어. 물린 지 오랬어. 우리 어머니 죽은 지도 오래고. 한, 내가 거시기 사십에 죽으니까. 이거 아주 오랜 거, 나무로 판 거 아니니.)



〈사진 251〉 김묘생 씨 소장 '뒈약세기'



〈사진 252〉 김공률 씨 소장 '뒈약세기'



〈사진 253〉 김복선 씨 소장 '뒈약세기'



〈사진 254〉 강복자 씨 소장 '뒈약세기'

135) 신례1리 강복자 씨 구술.

<사진 251>은 의귀리 김묘생 씨(1939년생), <사진 252>는 신례1리 김공률 씨, <사진 253>은 신례1리 김복선 씨(1942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뒈약세기'이다. <사진 254>는 신례1리 강복자 씨(1935년생)가 사용하고 있는 '뒈약세기'로, 강 씨가 친정어머니에게서 사십여 년 전에 물려받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2) 상

'상'은 음식을 차려 낼 때 사용하는 '밥상'을 가리킨다. 식사할 때 밥이나 반찬 등을 상 위에 올려 두고 둘러앉아서 밥을 먹었다. 보통 상은 나무나 스테인리스로 만든다.

"거 밥 먹는 거게, 상. 발 접으민 차판으로도 쓰곡. 아이덜 큰 후제사 나왓주." [136]
(거 밥 먹는 거, 상. 발 접으면 쟁반으로도 쓰고. 아이들 큰 후에야 나왔지.)



〈사진 255〉 고영주 씨 소장 '상'



〈사진 256〉 김두생 씨 소장 '상'

<사진 255>는 남원1리 고영주 씨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이다. 상의 발을 접어 쟁반으로도 이용했다고 한다. <사진 256>은 수망리 김두생 씨가 보관하고 있는 상이다.

"상은 아니. 게난에 이 바닥이엔 헌 거, 정제. 정젠디, 골아사주. 집을 똑 지금 이치룩 앚앗주. 앚아신디 칸을 딱 영만 짤랏어. 칸을 영 짤르난 이짝은 정제. 이짝은 검질, 검질이엥 헤민 알카? 쉐촐 그런 거. 그걸 이디 바닥에 끌앙, 이디 앚앙 밥을 먹주, 그 바닥에, 그걸. 게난 이 바닥드레 그 남도고리에 밥 퍼근에 이디 앚아 노민 가족이 다 이디 앚앙 밥을 먹어. 수저는 혼 사름에 하나썩 시난에. 그 사삼사건 끝 때주게, 그때가."[137]
(상은 아니. 그러니까 이 바닥이라고 하는 거, 부엌. 부엌인데, 말해야지. 집을 꼭 지금 이처럼 앉았지. 앉았는데 칸을 딱 이렇게만 잘랐어. 칸을 이렇게 자르니까 이쪽은 부엌. 이쪽은 검불, 검불이라고 하면 알까? 쇠꼴 그런 거. 그걸 여기 바닥에 깔아서, 여기 앉아서 밥을 먹지, 그 바닥에, 그걸. 그러니까 이 바닥에 그 함지박에 밥 퍼서 여기 가져다 놓으면 가족이 다 여기 앉아서 밥을 먹어. 수저는 한 사람에 하나씩 있으니까. 그 사삼사건 끝 때지, 그때가.)

위 사진의 상이 보편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상을 갖추지 못하고 식사하는 경우도 많았다. 의귀리 현정자 씨는 사삼사건 끝난 즈음, 가족이 모여 식사할 때 부엌 한쪽 바닥에 검불을 깔고 둘러앉아 상이 없이 바닥에 놓인 함지박의 밥을 떠서 먹었다고 한다.

(2) 차판

'차판'은 음식을 담은 그릇을 받쳐서 운반하는 도구이다. 표준어의 '쟁반'에 대응하는 말이다. 크기별로 여러 종류의 쟁반이 있는데, 작은 것은 접시 대신 음식을 놓는 그릇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사진 257〉 현순열 씨 소장 '차판'



〈사진 258〉 고방순 씨 소장 '쟁반'

<사진 257>은 위미2리 현순열 씨가 사용하고 있는 쟁반이다. <사진 258>은 신례1리 고방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쟁반인데, 크기가 다른 여러 개의 쟁반을 갖추어 사용했었다.

136) 남원1리 고영주 씨 구술.
137) 의귀리 현정자 씨 구술.

(3) 약탕기

‘약탕기’는 탕약을 달일 때 쓰는 그릇이다.



〈사진 259〉 고방순 씨 소장 ‘약탕기’

<사진 259>는 신례1리 고방순 씨 집에서 사용했던 약탕기로, 손잡이가 부러진 채 보관되고 있다.

(4) 수세미

‘수세미’는 박과에 속하는 덩굴성 한해살이 풀이다. 열매 안의 그물 모양의 섬유질을 이용해서 수세미로 사용했다.

> “옛날에 식기 다끌 때 솟 거튼 거 다끌 때 써.”[138]
> (옛날에 식기 닦을 때 솥 같은 거 닦을 때 써.)



〈사진 260〉 김석종 씨 소장 ‘수세미’

<사진 260>은 신례1리 김석종 씨가 보관하고 있는 ‘수세미’다. 지금은 식기를 닦는 수세미가 보편화되어 있지만, 수세미가 기성품화 되지 않을 때 가정에서는 직접 기른 수세미를 말려 수세미로 사용했다.

138) 신례1리 김석종 씨 구술.

3. 주생활

인간에게 집은 바람이나 햇빛을 막아주고 몸을 쉬게 하는 기본적인 용도를 넘어, 인간 생활의 출발이 되는 공간이다.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 중 하나가 주거 문화다.

제주의 집은 전통 초가에서 1970년대 이후 빠른 변화를 보인다. 새마을운동과 함께 마을 안길이 확장되고 지붕과 부엌 등의 가옥 구조가 개량되었다. 이러한 주거 양식의 변화는 주거 관련 도구들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 장에서는 주생활 관련 도구를 집의 구조, 가재도구, 조명도구, 난방도구, 연장류 등으로 나눠 정리하였다.

3.1. 집 구조

(1) 정주석

‘정주석’은 거리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대문 대신 설치한 대로, 여기에 긴 통나무로 된 ‘정낭’을 걸치게 된다. ‘정주석’은 이러한 ‘정낭’을 걸칠 수 있게 구멍이 세 개 뚫려 있다. 보통 ‘정주석’은 현무암이나 나무로 만들었는데 돌로 만든 것을 ‘정주석’, 나무로 만든 것을 ‘정주목’이라고 한다.


〈사진 1〉 의귀리 김예 씨 집 앞의 '정주석'


〈사진 2〉 태흥2리 마을 길의 '정주석'

<사진 1>은 의귀리 김예 씨(1927년생) 집 대문 옆에 세워져 있는 '정주석'이다. <사진 2>는 태흥2리에서 마을 길에 세워져 있는 '정주석'이다. '정주석'에는 세 개의 '정낭'을 꽂아 그 표시로 집안의 사람이 있는지 등을 알린다. 때문에 '정주석'에 보통 세 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데, <사진 1>은 구멍이 네 개가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 문

'문'은 내부와 외부를 드나들거나, 물건을 넣었다 꺼냈다 하기 위하여 틔워 놓은 곳이나, 그곳에 달아 놓고 여닫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 위치나 목적, 재료, 여닫는 방법에 따라 그것을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


〈사진 3〉 양금석 가옥의 '호령창'(왼쪽)과 '대문'(오른쪽)


〈사진 4〉 양금석 가옥의 '정짓문'과 '헛간문'

1) 남원1리 김동곤 씨 구술.
2) 남원1리 김동곤 씨 구술.

<사진 3>은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인 신례1리 양금석 가옥의 '대문'과 '호령창'이다. '대문'은 큰 문으로 주로, 한 집의 주가 되는 출입문을 이른다. 제주에서 '대문'은 대청마루 정면의 마루문을 말하고, 대문 옆의 작은 문은 '호령창'이라고 했다. <사진 3>에서와 같이 '호령창'을 다는 경우는 제주에서도 남동쪽 지역으로 서귀포시, 표선면, 남원읍 등의 지역에서만 볼 수 있다. <사진 4>은 양금석 가옥의 '정짓문'과 '헛간문'이다. '정지'는 '부엌'에 대응하는 제주어로, '정짓문'은 부엌문을 말한다. '정짓문'과 '헛간문' 모두 널문으로 되어 있다.

"이 집 짓기 전에, 사삼사건에 불타 부니까 그루후제 집을 짓어서 그때 짓엇던 집의 문, 그 옛날 문을 또 신흥리서, 그땐 신흥리는 우리 살던 집은 불 안 탓으니까 그디 문을 떼다가 돌앙 쓰다가 이제 이 집 다 없어지게 뒈니까 저 문만."[1]
(이 집 짓기 전에, 사삼사건에 불타 버리니까 그 후에 집을 지어서 그때 지었던 집의 문, 그 옛날 문을 또 신흥리에서, 그때는 신흥리는 우리 살던 집은 불 안 탔으니까 거기 문을 떼다가 달아서 쓰다가 이제 이 집 다 없어지게 되니까 저 문만.)

"(요 문허고 요거 ᄐᆞ나우다.) 다른 거. 이건 바깥 창문, 바깟더레 향허는 거. 요거는 마루허고 방 사이에 방문. 이건 장식혜영 놔두니까 누게 방문이카 부덴 열엉 들어가젠도 헤낫어."[2]
((요 문하고 요거 다릅니다.) 다른 거. 이건 바깥 창문, 바깥으로 향하는 거. 요거는 마루하고 방 사이에 방문. 이건 장식해서 놔두니까 누구 방문일까 봐 열고 들어가려고도 했었어.)


〈사진 5〉 김동곤 씨 소장 '문'


〈사진 6〉 김동곤 씨 소장 '문'


〈사진 7〉 김방언 씨 소장 '문'

<사진 5>와 <사진 6>은 남원1리 김동곤 씨(1941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방문이다. 나무 살로 되어 있는 문에 창호지를 바르는 것으로, 두 문의 모양이 조금 다르다. <사진 5>는 방과 마루 사이에 다는 문이고, <사진 6>은 바깥으로 통하는 데에 다는 문이다. 김 씨 집에서는 1940년대 후반에 집을 지을 때 예전 집에 달렸던 문을 가져다가 다시 사용했다. 그 후 1990년대에 지금의 집으로 다시 짓기 전까지 사용했던 문이라고 한다. <사진 7>은 수망리 김방언 씨(1957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문이다.



〈사진 8〉 정덕준 씨 소장 '문'



〈사진 9〉 정덕준 씨 소장 '문'

<사진 8>과 <사진 9>는 남원1리 정덕준 씨(1945년생) 창고 천장에 보관하고 있는 '문'이다. 예전 초가에 달렸던 문으로, 집을 새로 지으면서 떼어내어 보관만 하고 있다.

"이거는 숫도절귀. 암도절귀는 저 안에 방문 이런 옆에 잇는 거."[3]
(이거는 수톨쩌귀. 암톨쩌귀는 저 안에 방문 이런 옆에 있는 거.)

사진의 문짝을 방 입구에 달아 고정시킬 때는 '도절귀'가 필요하다. '도절귀'는 표준어 '돌쩌귀'에 대응하는 제주어로, 문짝을 문설주에 달아 여닫는 데 쓰는 두 개의 쇠붙이를 말한다. 암짝은 문설주에, 수짝은 문짝에 박아 맞추어 꽂는다. 이 돌쩌귀의 암수를 '암도절귀', '숫도절귀'라고 부른다. 각각 표준어의 '암톨쩌귀', '수톨쩌귀'에 대응하는 말이다.

3) 남원1리 김동곤 씨 구술.

(3) 마리와 난간

'마리'는 표준어 '마루'에 대응하는 제주어이다. '난간'은 마루나 방 바깥쪽으로 좁다랗게 마루같이 길게 널을 깔아 놓은 곳을 말한다.



〈사진 10〉 양금석 가옥의 '마리'



〈사진 11〉 양금석 가옥의 '난간'

<사진 10>과 <사진 11>은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인 신례1리 양금석 가옥의 마루와 '난간'이다. 모두 널마루로 되어 있다.

(4) 풍체

'풍체'는 햇볕을 가리기 위하여 또는 비가 들이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처마 끝에 덧붙이는 가리개를 말한다. 표준어의 '차양'에 대응한다.

"초집 헐 때, 풍체 받칠 때 저런 거 헤낫어. 겐디 (풍체) 이 근처에는 별로 없었어. 저 사삼사건 전에는 우리도 요 우쪽에 살았는데 그땐 풍체 헤나고 이 사삼사건 후에는, 이쪽더레는안 허고 이 표선 쪽더레는 많이 헷어, 가시리쪽더레."[4]
(초가집 할 때, 차양을 받칠 때 저런 거 했었어. 그런데 차양이 이 근처에는 별로 없었어. 저 사삼사건 전에는 우리도 요 위쪽에 살았는데 그때는 차양 했었고 이 사삼사건 후에는, 이쪽으로는 안 하고 이 표선 쪽으로는 많이 했어, 가시리 쪽으로.)

의귀리 김병수 씨에 구술에 의하면 사삼사건 이전에는 차양을 하는 집이 있었는데, 그 후에는 의귀리 쪽에는 차양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4) 의귀리 김병수 씨 구술.

(5) 헛간

‘헛간’은 막 쓰는 물건 따위를 보관하는 곳을 말한다.

“옛날 잔치나 큰일 허젠 허면은 불 땔 디가 없잖여. 저 저 우리 아부지, 어무니 돌아가실 때 삼 년 헷거든. 그러면은 어떵 허냐 말여. 집 빌지 못허니까 여기서 고기도 솖곡 떡도 솖곡 허젠 만들어 논 거지. 비나 오면 어떨 말이라. 겨울에 추워도 허기 좋고.”[5]
(옛날 잔치나 큰일 하려고 하면 불 땔 데가 없잖아. 저 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삼 년 했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집 빌리지 못하니까 여기서 고기도 삶고 떡도 삶고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지. 비나 오면 어떠할 말이야. 겨울에 추워도 하기 좋고.)



〈사진 12〉 고영주 씨 집의 ‘헛간’

<사진 12>는 남원1리 고영주 씨(1935년생) 집 뒤에 있는 헛간이다.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여러 물건이나 마늘 등을 보관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잔치나 상을 치르는 것과 같은 큰일이 있을 때 음식 등을 하는 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한다.

5) 남원1리 고영주 씨 구술.
6) 남원1리 고영주 씨 구술.
7) 남원1리 정개은 씨 구술.

3.2. 가재도구

(1) 궤

‘궤’는 옷 따위의 물건을 넣도록 나무로 짠 가재도구를 말한다. 별다른 장롱이 없었던 전통사회에서는 가정마다 ‘궤’를 두어 옷이나 귀중품을 보관하였다. 남원읍 지역에서도 각 가정마다 한두 개씩의 궤를 보관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결혼할 때 혼수품으로 장만한 것들도 있었고, 부모님이 사용했던 것을 물려받은 궤들도 여럿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 13〉 고방순 씨 소장 ‘족보함’



〈사진 14〉 고방순 씨 소장 ‘궤’

<사진 13>과 <사진 14>는 신례1리 고방순 씨(1937년생)가 소장하고 있는 궤다. 양금석 가옥에 보관하는 있는 것으로, 고 씨와 남편인 고(故) 양금석 씨가 사용했던 것이다. <사진 13>은 족보함으로 사용하던 궤로 여러 문서를 보관했던 것이다. 궤의 오른쪽 상단에 ‘族譜函(족보함)’이라는 글씨가 흐릿하게나마 보인다.

“물린 거. 할망 때부터, 나에게 할머니. 하도 오래뒈난 그자 농약도 놓고 헴주.”[6]
(물린 거. 할머니 때부터, 나에게 할머니. 하도 오래되니까 그저 농약도 놓고 하고 있지.)

“이 궤는 굉장히 오랜 거야. 어무니 때 써난 거. 어머니가 사용허단 내부니까.”[7]
(이 궤는 굉장히 오랜 거야. 어머니 때 썼던 거. 어머니가 사용하다가 내버리니까.)



〈사진 15〉 고영주 씨 소장 '궤'



〈사진 16〉 정개은 씨 소장 '궤'

<사진 15>는 남원1리 고영주 씨 집 헛간에 놓여 있는 궤다. 고 씨의 할머니 때서부터 사용했던 것으로, 지금은 너무 낡아 헛간에 두고 농사 도구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사진 16>은 남원1리 정개은 씨(1939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궤다.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

"목수 빌언에 짠 거. 아이덜 낳기 전이. 맏이가 살아시민 예순네 살. 그거 팔월 멩질 날 죽어불고 우리 큰아덜이 구월달에 나고, 구월달에 난 게 환갑. 저건 마주목, 여기선 목구실낭이엔 허여. 이 동네 목구실낭이 막 하낫어. 이제는 과수원 생기면서 재, 매미 때문에 없애 불엇주. 그게 매미가 잘 앉거든. 그래서 없애 불엇어."[8]

(목수 빌려서 짠 거. 아이들 낳기 전에. 맏이가 살았으면 예순네 살. 그거 팔월 명절날 죽어버리고 우리 큰아들이 구월에 태어나고, 구월에 태어난 게 환갑. 저건 멀구슬나무, 여기에서 '목구실낭'이라고 해. 이 동네 멀구슬나무가 아주 많았었어. 이제는 과수원 생기면서 '재', 매미 때문에 없애 버렸지. 그게 매미가 잘 앉거든. 그래서 없애 버렸어.)



〈사진 17〉 고영주 씨 소장 '궤'



〈사진18〉 고영주 씨 소장 '궤'

<사진 17>과 <사진 18>은 남원1리 고영주 씨 집에서 쓰고 있는 궤다. 고 씨가 목수에게 부탁하여 직접 짠 것으로, 멀구슬나무로 만들었다고 한다.

"궤 나 열아홉에 시집오난에 그때 이신 거주. 이 시어멍네가 헤 논 거라. 시어멍네가 사준 거라. 조끗디서 시집와근에, 궨찬헌 집이서 시집오멍도 궤 하나 안 헹 완. (궤 두 개 다 시어머니가?) 하나만 시어머니가 헤 준 거, 하난 누게가 주난. 요건 준 거고 방에 건 시어멍이 준 거. 큰큰헌 거. 마루 건 시이모가 준 거라. 나 서른도 안 된 때 줘실 거라. 육지 강 사난, 필요 엇이난 나 줘주."[9]

(궤 내가 열아홉에 시집오니까 그때 있었던 거지. 이 시어머니네가 해 놓은 거야. 시어머니가 사준 거야. 근처에서 시집와서, 괜찮은 집에서 시집오면서도 궤 하나 안 해 왔어. (궤 두 개 다 시어머니가?) 하나만 시어머니가 해 준 거, 하나는 누가 주니까. 요건 준 거고 방의 건 시어머니가 준 거. 크디큰 거. 마루의 건 시이모가 준 거야. 나 서른도 안 됐을 때 줬을 거야. 육지 가서 사니까 필요 없으니까 나에게 줬지.)



〈사진 19〉 오순만 씨 소장 '궤'



〈사진 20〉 오순만 씨 소장 '궤'

<사진 19>와 <사진 20>은 위미2리 오순만 씨(1941년생)가 사용하고 있는 궤다. <사진 19>의 궤는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것이고, <사진 20>은 시이모님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오 씨에게 준 것이다. 거실의 장식 가구로 놓여 있는 <사진 20>의 궤는 일반 궤보다 조금 작은 크기로 오 씨가 칠을 하는 등의 손질을 한 것이라고 한다.

8) 남원1리 고영주 씨 구술.
9) 위미2리 오순만 씨 구술.

"우리가 써난 거. 저 밑에 건 결혼헐 때 마누라가 헤 온 거주. 우이 건 물리다시피 헌 거주 뭐. 옛날엔 목구슬낭이엔 헌 거, 궤 거의 목구슬낭으로 헷주. 이젠 못 봐, 그런 나무 엇어. 옷 거튼 거 보관허주."[10]

(우리가 썼던 거. 저 밑의 건 결혼할 때 마누라가 해 온 거지. 위의 건 물리다시피 한 거지 뭐. 옛날에는 멀구슬나무라고 하는 거, 궤 거의 멀구슬나무로 했지. 이젠 못 봐, 그런 나무 없어. 옷 같은 거 보관하지.)



〈사진 21〉 오경수 씨 소장 '궤'



〈사진 21〉 오경수 씨 소장 '궤'

<사진 21>과 <사진 22>는 의귀리 오경수 씨(1941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궤다. <사진 21>은 오 씨의 아내가 혼수로 장만해 온 것이고, <사진 22>의 궤는 물려받은 것이다.

궤는 벚나무, 느티나무, 팽나무, 멀구슬나무 등으로 만든다. 그 만든 나무에 따라 궤에 나무 이름을 붙여 벚나무로 만든 궤를 '사오기궤', 느티나무로 만든 궤는 '굴무기궤', 멀구슬나무로 만든 '먹구실낭궤'라고 부르기도 한다. 남원읍에서는 멀구슬나무로 만들었다는 궤를 자주 접할 수 있었는데, 의귀리 오 씨의 궤도 '먹구실낭궤'라고 한다. 의귀리 오경수 씨와 남원1리 고영주 씨에 의하면 예전에는 남원읍 지역에 멀구슬나무가 많아 쉽게 구할 수 있었기에 그것으로 궤를 많이 만들었다고 한다.

"시집올 때 산 온 거. 해방뒈는 헤가 나 열아홉이었어. 열아홉에 해방뒝 나 시집완에 스물흔 설 나난 우리 큰아덜 나고."[11]

(시집올 때 사서 온 거. 해방되는 해가 나 열아홉이었어. 열아홉에 해방돼서 내가 시집와서 스물한 살 되니까 우리 큰아들 낳고.)



〈사진 23〉 김예 씨 소장 '궤'



〈사진 24〉 오희일 씨 소장 '궤'

<사진 23>은 의귀리 김예 씨가 보관하고 있는 궤다. 해방되는 해에 결혼한 김 씨가 결혼할 때 장만한 것이라고 한다. <사진 24>는 의귀리 오희일 씨(1941년생) 아내가 사용하는 궤다.



〈사진 25〉 현창언 씨 소장 '궤'



〈사진 26〉 현창언 씨 소장 '궤'

10) 의귀리 오경수 씨 구술.
11) 의귀리 김예 씨 구술.



〈사진 27〉 현창언 씨 소장 '궤'



〈사진 28〉 현창언 씨 소장 '궤'



〈사진 29〉 정개은 씨 소장 '궤'



〈사진 30〉 정개은 씨 소장 '궤'

<사진 25>에서 <사진 28>은 남원1리 현창언 씨(1937년생)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궤들이다. 궤의 겉면에 비슷한 모양의 장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모양이 조금씩 다르고 나무의 재질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29>와 <사진 30>은 남원1리 정개은 씨가 부모님에게 물려받아 사용하고 있는 궤다.

(2) 뒤주

'뒤주'는 쌀 따위의 곡식을 보관하는 함이다. 나무로 궤짝같이 만드는데, 네 기둥에 짧은 발이 있다. 위쪽 뚜껑을 여는 형태로 문이 달려 있다.



〈사진 31〉 고방순 씨 소장 '뒤주'

<사진 31>은 신례1리 고방순 씨가 사용했던 뒤주다. 양금석 가옥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다.

(3) 살레

'살레'는 그릇이나 반찬 따위를 넣을 때 사용하는 가구다.

"경허곡 또 난 오란 보난에 그때 다른 딘 저 찬장이 엇엇어. 엇어신디 우리 씨집인 오란 보난 우리 씨할아부지가 만들엉사 놔신디 어떵사 헤신디 이 똑 영 헹 네귀반장허게 헤영 영 헨에 이디 칸, 네 칸으로 허곡 발 영 돋진 거. 경헨 낭 문으로 열곡 더끄곡 헌 저 찬장인디 바닥엔 보난에 대 헤연 여껀. 거 살레, 살레, 옛날. 살레가 두 칸. 영 이 층인디 칸은 네 칸. 바닥에 그거 물 빠지렌 대나무 끌안."[12]

(그리고 또 난 와서 보니까 그때 다른 데는 저 찬장이 없었어. 없었는데 우리 시집에는 와서 보니까 우리 시할아버지 만들어서 놨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 꼭 이렇게 해서 네모반듯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칸, 네 칸으로 하고 발 이렇게 돋게 한 거. 그래서 나무 문으로 열고 덮고 하는 저 찬장인데 바닥에 보니까 대 해서 엮었어. 거 '살레', '살레', 옛날. '살레'가 두 칸. 이렇게 이 층인데 칸은 네 칸. 바닥에 그거 물 빠지라고 대나무 깔았어.)

"거 살레, 흔 ᄉᆞ십 년 뒘서."[13]

(거 찬장, 한 사십 년 되고 있어.)

12) 의귀리 현정자 씨 구술.
13) 수망리 김성찬 씨 구술.



〈사진 32〉 김성찬 씨 소장 '찬장'

<사진 32>는 수망리 김성찬 씨(1935년생) 집에서 사용했던 '찬장'이다. 김 씨는 이것을 '살레'라고 칭했는데, 사용한 지 사십 년이 된 것이라고 한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창고 안에 보관 중이다. 의귀리 현정자 씨 구술에 따르면 결혼해서 보니 시집에는 시아버지가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찬장이 있었다고 한다. '살레'는 이단 네 칸의 구조를 띤 것으로 찬장의 바닥을 그릇을 씻어 넣어 놓았을 때 물이 빠지도록 대나무가 깔려 있었다고 한다.

(4) 책상

'책상'은 앉아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할 때 앞에 놓고 쓰는 상을 말한다.

"저 책상허고 궤짝허고, 애기 엄마가 시집올 때 궤허고 책상허고 혼수로 헤 아졍 온 거. 찬장 하나허고 이불 세 채. 나 스물일곱, 아이 어멍은 스물다섯. 그때 가마 탄 거는 아니고 차로 허긴 헷는데 옷은 한복도 허고 양복도 허고. 육십칠 년도 장만."[14]

(저 책상하고 궤하고, 아기 엄마가 시집올 때 궤하고 책상하고 혼수로 해서 가지고 온 거. 찬장 하나하고 이불 세 채. 나 스물일곱, 아이 어머니는 스물다섯. 그때 가마 탄 거는 아니고 차로 하긴 했는데 옷은 한복도 하고 양복도 하고. 육십칠 년도 장만.)

"일제강점기 때 거주게. 장○○ 씨 형이 썻으니까, 굉장히 오랜 거여. 우리 막 먼 권당. 요것이 영 높아난 건데 앉앙 쓰게시리 영 끈어 분 거주. 이거 칠허난 영 헤도 잘도 오랫어."[15]

(일제강점기 때 거지. 장○○ 씨 형이 썼으니까, 굉장히 오랜 거야. 우리 아주 먼 친척. 요것이 이렇게 높았던 건데 앉아서 쓰게끔 이렇게 잘라 버린 거지. 이거 칠하니까 이렇게 해도 아주 오랬어.)



〈사진 33〉 김두생 씨 소장 '책상'



〈사진 34〉 장덕지 씨 소장 '책상'

<사진 33>은 수망리 김두생 씨(1942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책상'이다. 김 씨의 아내가 1960년대 후반에 결혼할 때 장만해 온 것으로, 김 씨의 구술에 의하면 궤나 찬장, 이불 등의 살림살이 외에 책상도 혼수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진 34>는 남원1리 장덕지 씨(1945년생)가 사용하고 있는 '책상'이다. 장 씨가 먼 친척뻘 되는 지인에게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는 다리가 긴 높은 책상이었는데, 수리하여 앉은뱅이책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5) 제사상

'제사상(祭祀床)'은 제사 때 제물을 차려서 벌여 놓는 상을 말한다. 보통 제사나 명절 등 제를 지낼 때 사용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는 쓰지 않고 별도로 잘 보관해 두었다가 특별한 날에만 꺼내어 사용했다.

"상이 세 개 잇엇어. 상 ᄒᆞ나에 ᄒᆞᆫ 대. 우리 아버지 때부터 저 상이 없었어. 옛날엔 가시낭, 가시낭이엔 헌디. 옛날에 다 이렇게 짜는 사름덜 헤근에 짜. 거의 못을 안 써서. 만약에 못 벡힌 거 이시민 거 근래에 와서 수리헌 거."[16]

(상이 세 개 있었어. 상 하나에 한 대. 우리 아버지 때부터 저 상이 없었어. 옛날에는 가시나무, 가시나무라고 하는데. 옛날에 다 이렇게 짜는 사람들 해서 짜. 거의 못을 안 써서. 만약에 못 박힌 거 있으면 거는 근래에 와서 수리한 거.)

14) 수망리 김두생 씨 구술.
15) 남원1리 장덕지 씨 구술.
16) 남원1리 김동곤 씨 구술.



〈사진 35〉 김동곤 씨 소장 '제사상'



〈사진 36〉 김동곤 씨 소장 '제사상'의 뒷면



〈사진 37〉 김동곤 씨 소장 '제사상'의 다리



〈사진 38〉 김동곤 씨 소장 '제사상'의 다리 연결 부분

<사진 35>에서 <사진 38>은 남원1리 김동곤 씨가 보관하고 있는 제사상이다. <사진 35>는 상을 펼쳐 놓은 모습이고, <사진 36>은 상을 접은 뒷모습, <사진 37>과 <사진 38>은 제사상의 다리 부분의 모습이다. 김 씨가 어렸을 때는 상 세 개를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두 개만 남아 보관하고 있다. 김 씨에 구술에 의하면 명절을 지낼 때 한 대에 상 하나를 차리는 것으로 3대까지는 제사상으로 쓰고 김 씨의 아버지에 대한 제사상은 별도의 상을 이용했다고 한다. 제사상은 다리를 끼워 세워 사용하는 것으로, <사진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못 박음질 등의 흔적이 없다. 옛날 집이나 가재도구들을 못을 사용하지 않고 만들었는데, 김 씨의 말에 따르면 혹시라도 옛날 만들어진 제사상에 못을 박은 흔적이 있다면 그것은 나중에 상을 수리하면서 남긴 흔적이라고 한다.

"옛날 할아버지부터 써난 거. 할아버지에 할아버지. 오래뎬 거여. 상 두 개 잇어난디 하난 저거. 난 이거, 아부지가 열다섯에 돌아가니까, 나가 종손이거든 종손이니까 내가 사용헷지. 스물다섯 설부터 계속 헌 거야. 우리 집사름이 스물하나에 여기 시집왓거든. 결론헤 가지고 그때부턴 우리 집사람이 식게헷지. (이 상을 멧 설까지 썻수꽈?) 한 삼십오 세, 십 년 썼지. 글후젠 신식으로 우리 애들 첨, 좋은 거 사단 쓰는 거. (무슨 낭으로 멘든 거꽈?) 이거 무슨 낭인지 잘 모르겠네. 굴무기도 잇어낫는디 이거 굴무긴 아니. 멀구슬나무 같애."[17]

(옛날 할아버지부터 썼던 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오래된 거야. 상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저거. 난 이거, 아버지가 열다섯에 돌아가니까, 내가 종손이거든 종손이니까 내가 사용했지. 스물다섯 살부터 계속 한 거야. 우리 집사람이 스물하나에 여기 시집왔거든. 결혼해 가지고 그때부터는 우리 집사람이 제사했지. (이 상을 몇 살까지 썼습니까?) 한 삼십오 세, 십 년 썼지. 그 후에는 신식으로 우리 애들 첨, 좋은 거 사다가 쓰는 거. (무슨 나무로 만든 겁니까?) 이거 무슨 나무인지는 잘 모르겠네. 느티나무도 있었는데 이거 느티나무는 아니. 멀구슬나무 같아.)



〈사진 39〉 현창언 씨 소장 '제사상'



〈사진 40〉 현창언 씨 소장 '제사상'

<사진 39>와 <사진 40>은 남원1리 현창언 씨가 보관하고 있는 제사상이다. 현 씨의 할아버지가 물려받아 사용하던 것을 현 씨가 스물다섯 살 때부터 제사를 지내면서 다시 또 물려 받아 이십 년 정도 사용했다고 한다. 그 후에는 새로 나온 제사상을 사용했다. 사진의 제사상은 확실하지 않지만 멀구슬나무로 만든 것 같다고 한다. 현 씨는 이것을 창고 천장에 보관하고 있었다.

17) 남원1리 현창언 씨 구술.

3.3. 조명 도구

(1) 각지

'각지'는 표준어의 '등잔'에 대응하는 말로, 기름을 담아 등불을 켜는 데에 쓰는 그릇이다. '각지'에 기름과 심지를 넣어서 불을 피우는데, 이를 '각지불(등잔불)'이라고 한다.

<사진 41>은 신례1리 고방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등잔과 등잔대이다. 등잔대에 고리가 보이는데, 여기에 등잔 받침대를 걸어 등잔을 높이 올려 등잔불을 피웠다고 한다. 등잔대의 높이는 51㎝이고, 아래쪽 판의 크기는 28㎝×28㎝이다.



〈사진 41〉 고방순 씨 소장 '각지'

생활 환경의 변화는 조명 기구의 변천에서도 볼 수 있다. 전깃불이 들어오기 전에는 접시에 기름을 넣고 심지를 끼워 불을 켜기도 했지만 위 사진처럼 등잔불을 피우기도 했다. 등잔불 이후에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바람을 막고 불빛을 밝게 하기 위해 남포등을 씌우는 유리로 만든 '등핏불' 등을 사용하다가 1970년대 이후에 전기가 들어오면서부터 전깃불을 사용했다.

(2) 남포등

'남포등'은 석유를 넣은 그릇의 심지에 불을 붙이는 등이다.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바람을 막고 불빛을 밝게 하기 위하여 등피를 끼운다. 남포등의 '남포'는 램프(lamp)를 일본어식으로 발음한 말이다. 남포등을 '호야, 호야등, 호야불'으로 부르기도 한다.



〈사진 42〉 고방순 씨 소장 '남포등'

<사진 42>는 신례1리 고방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남포등이다. 이것은 바닥에 내려놓고도 사용할 수 있고 <사진 42>처럼 놓은 곳에 매달아 불을 피울 수도 있게 되어 있다. 불을 피워 사용하고 나면 남포등의 등피에는 그을음이 생기기 때문에 전등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유리를 닦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다.

(3) 전등

'전등'은 전기의 힘으로 밝은 빛을 내는 등으로, 흔히 백열전기등을 이른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제주에 전기가 보급되면서 전등을 이용하여 불을 켜기 시작했다.



〈사진 43〉 고영주 씨 집의 '백열등'



〈사진 44〉 고영주 씨 집의 '백열등'

<사진 43>과 <사진 44>는 남원1리 고영주 씨 집의 전등이다. 요즘은 형광등과 엘이디등(LED) 등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3.4. 난방 도구

(1) 화리

'화리'는 숯불을 담아 놓는 그릇인 '화로'를 말한다. 주로 불씨를 보존하거나 난방을 위하여 사용하는데, 만드는 재료에 따라서 '정동화리', '돌화리', '옹기화리', '양은화리', '사기화리' 등으로 나뉜다. 남원리 지역에서는 마루 한쪽에 고정된 화로인 '부섭'을 많이 만들어 사용했었다.

"정동화리옌 헨 방에서 쓰는 거, 방에서 쓰는 거. 세 발 돋은 정동화리."[18]
(정동화로라고 해서 방에서 쓰는 거, 방에서 쓰는 거. 세 발 돋은 정동화로.)

"것도 어머니네 헤난 거. 어머니 거주. 아버진 세 번째 아덜이난 그런 거 물리질 안했어."[19]
(것도 어머니네 했던 거. 어머니 거지. 아버지는 세 번째 아들이니까 그런 거 물려받지 않았어.)


〈사진 45〉 현창언 씨 소장 '정동화리'(위)


〈사진 46〉 현창언 씨 소장 '정동화리'(옆)


〈사진 47〉 장덕지 씨 소장 '정동화리'(위)


〈사진 48〉 장덕지 씨 소장 '정동화리'(옆)

<사진 45>와 <사진 46>은 남원1리 현창언 씨의 정동화로다. 현 씨가 조부모님에게 물려받아 사용해 왔던 것을, 지금은 현 씨의 아들이 장식품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사진 47>과 <사진 48>은 남원1리 장덕지 씨가 보관하고 있는 정동화로다. 어머니가 바느질 일을 할 때 인두 등을 달굴 때 사용하는 용도로도 사용했던 것인데 장 씨 집에서 곱게 닦아 잘 보관하고 있다.

"이제도 썸주게. 쓸 일이 만헙니다. 방에서 쓰는 거주게. 거는 아무 집이나 없엇어. 그냥 불살라근에, 겨울 추우민게 불살라 논 거주."[20]
(이제도 사용하고 있지. 쓸 일이 많습니다. 방에서 쓰는 거지. 거는 아무 집에나 없었어. 그냥 불살라서, 겨울 추우면 불살라 놓은 거지.)


〈사진 49〉 고방순 씨 소장 '화리'


〈사진 50〉 김공률 씨 소장 '화리'


〈사진 51〉 고영주 씨 소장 '화리'


〈사진 52〉 김성찬 씨 소장 '화리'

18) 의귀리 양인필 씨 구술.
19) 남원1리 장덕지 씨 구술.
20) 남원1리 고영주 씨 구술.

<사진 49>은 신례1리 고방순 씨, <사진 50>은 신례1리 김공률 씨(1965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화로다. <사진 51>은 남원1리 고영주 씨의 화로는 지금도 겨울철이 되면 방 안에 두고 가끔 사용할 일이 있다고 한다. <사진 52>는 수망리 김성찬 씨가 사용하고 있는 화로다.

(2) 부섭과 돌화리

'부섭'은 제주의 전통 가옥의 마루나 부엌에 돌로 고정되도록 만든 돌화로다. 서귀포 지역이나 남원읍 지역 등 제주의 일부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데, 난방의 기능뿐만 아니라 음식 조리 기능도 갖춘 물건이다.

"경허고 부섭이엔 헌 거는 저 마루, 마루옝 헌 디가 잇주. 마루옝 헌 디 이제 가운디 요것이 대문이민 이 가운디를 안 헹 쪼끔 안트레 들어오랑. 게난 지금 그트민 저거 대문이민 이 정돈 들어오랑 부섭을 네귀반장허게 영 헤여. 게민 이디서 나무 헤당 이디서 불 와랑와랑 살랑 불 추곡."[21]

(그리고 '부섭'이라고 하는 거는 저 마루, 마루라고 하는 데가 있지. 마루라고 하는 데 이제 가운데 요것이 마루문이면 이 가운데를 안 하고 조금 안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저거 마루문이면 이 정도는 들어와서 '부섭'을 네모반듯하게 이렇게 해서. 그럼 여기서 나무 해다가 여기서 불 활활 살라서 불 쬐고.)

의귀리 현정자 씨 말에 따르면 '부섭'은 마루의 가운데에서 조금 안쪽에 네모반듯하게 두고 나무를 해 와서 불을 쬘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고 한다.

"옛날 불 때 나면 그 부섭이라고 헤가지고 마루에 돌로 멘든, 돌로 사각형 식으로 이렇게 멘든 저 화로처럼 멘든 것이 잇어. 그것에 나무 헤서 겨울철에 막 불 때면서 방 안에 난방 허고 헷는데. 모여 앉아서 거기서 길쌈도 허고 어른덜 막 겨울철에."[22]

(옛날 불 때고 나면 그 '부섭'이라고 해서 마루에 돌로 만든, 돌로 사각형 식으로 이렇게 만든 저 화로처럼 만든 것이 있어. 그것에 나무 해서 겨울철에 마구 불 때면서 방 안에 난방 하고 했는데. 모여 앉아서 거기서 길쌈도 하고 어른들 마구 겨울철에.)

"음식, 음식은 큰일 때나 구워 먹을 때. 식게 때 적갈도 굽곡, 우리 저 이딧말로 삔떡 지질 때 그런 때 쓰주. 정기떡이엔 하영 골안."[23]

(음식, 음식은 큰일 때나 구워 먹을 때. 제사 때 적도 굽고, 우리 저 여깃말로 빙떡 지질 때 그런 때 쓰지. '정기떡'이라고 많이 말했어.)

남원1리 김동곤 씨에 따르면 이 '부섭'은 겨울철에 난방용으로 이용하는데, 주로 어른들이 '부섭' 근처에 모여앉아 길쌈을 할 때 불을 피웠었다고 한다. 의귀리 양인필 씨는 '부섭'에서 음식을 하는 경우는 큰일이 있을 때인데 이때 적을 굽거나 빙떡을 지질 때 '부섭'을 사용했었다고 한다.

"옛날 마루에 놩, 옛날에 제숙이라고 허잖아요. 그걸 구워난 거예요."[24]

(옛날 마루에 놓아서, 옛날에 '제숙'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구웠던 거예요.)



〈사진 53〉 양금석 가옥의 '부섭'



〈사진 54〉 김공률 씨 소장 '돌화리'

<사진 53>은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신례1리 양금석 가옥의 마루에 설치되어 있는 '부섭'이다. 마루의 뒷문 가까이에 고정되어 있는데, 불을 피웠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사진 54>는 신례1리 김공률 씨가 보관하고 있는 돌화로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마루에 놓고 제사 때 등에 제사상에 올리는 제육이나 생선을 구울 때 이용했었다고 한다.

21) 의귀리 현정자 씨 구술.
22) 남원1리 김동곤 씨 구술.
23) 의귀리 양인필 씨 구술.
24) 신례1리 김공률 씨 구술.

"부섭엔 불젓가락. 그건 이런 게 아니라 동그란 쒜로 멘들앙. 고리로 영."[25]
('부섭'에는 부젓가락. 그건 이런 게 아니라 동그란 쇠로 만들어서. 고리로 이렇게.)

"(부섭에) 접제기 잇주게. 그땐 접제기엥 골앗어, 불젓가락. 숟가락도 잇엇어. 불접제기. 저 숫불 담는 숟가락도 잇주게. 옆에 놩. 그것도 잇주. ᄒᆞ쏠 큰 거."[26]
('부섭'에 '접제기' 있지. 그땐 '접제기'라고 말했어, 부젓가락. 숟가락도 있었어. '불접제기'. 저 숯불 담는 숟가락도 있지. 옆에 놔서. 그것도 있지. 조금 큰 거.)

"옛날에 부섭에 놔근에 고기 굴 때 쓰는 거."[27]
(옛날에 '부섭'에 놔서 고기 구울 때 쓰는 거.)


〈사진 55〉 고방순 씨 소장 '불젓가락'

<사진 55>는 신례1리 고방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불젓가락'이다. '불젓가락'은 표준어의 '부젓가락'에 대응하는 말로, 화로에 꽂아 두고 불덩이를 집거나 불을 헤치는 데 쓰고자 쇠로 만든 젓가락이다. 고 씨는 이것을 '부섭'에 걸쳐두고 고기를 구울 때 사용했다고 한다. 한편, 의귀리 양인필, 현정자 씨는 이것을 '접제기', '불접제기'라고 하였다.

(3) 굴묵

'굴묵'은 온돌방에 온기를 넣기 위해 불을 때는 아궁이를 말한다. 이 '굴묵'을 때는 일을 '굴묵 짇다'라고 한다.

25) 남원1리 고영주 씨 구술.
26) 의귀리 양인필 · 현정자 씨 구술.
27) 신례1리 고방순 씨 구술.
28) 수망리 김두생 씨 구술.


〈사진 56〉 양금석 가옥의 '굴묵'


〈사진 57〉 양금석 가옥의 '굴묵'

<사진 56>과 <사진 57>은 신례1리 양금석 가옥의 '굴묵'이다. 제주의 옛날 가옥의 경우는 난방을 위해 방마다 이런 '굴묵'이 설치되어 있는데, 부엌과 인접한 방에는 부엌의 아궁이가 '굴묵'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외부 벽으로 설치되기도 한다. <사진 56>에서 보는 것처럼 외부 벽 안쪽으로는 작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다 불을 땔 때 필요한 땔감이나 마른 소똥 등의 연료를 보관하였다.

3.5. 연장류

(1) 톱

'톱'은 나무 따위를 자르거나 켜는 데 사용하는 연장이다. 강철로 된 얇은 판에 한쪽 또는 양쪽 가장자리가 날카로운 이로 되어 있다. 사용 용도나 그 모양, 크기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다르다.

"요거는 목수가 사용허는 것이 아니고, 요거는 목수 사용하는 거고. 일반 개인 집이서도, 땔나무 같은 거. 옛날은 전부 나무로만 방이나, 밥 지을 때도 나무나 아니면 짚 같은 거 헤서 허니까 가정에 다 있었어. 나대 같은 거."[28]
(요거는 목수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요거는 목수 사용하는 거고. 일반 개인 집에서도, 땔나무 같은 거. 옛날은 전부 나무로만 방이나, 밥 지을 때도 나무나 아니면 짚 같은 거 해서 하니까 가정에 다 있었어. '나대' 같은 거.)

"그건 목수일 헐 때 쓰던 건디 거 다 망가져 분 거. 이거는 키는 거 이건 자르는 거. 킨다는 건 나무를 이렇게 길게, 길게 벌르는 거고 요거는 토막 낼 때 가로 요렇게 자를 때는 요걸로 쓰고 길게 이렇게 킬 때는 요걸로 쓰고."[29]

(그건 목수일 할 때 쓰던 건데 거 다 망가져 버린 거. 이거(날이 굵은 쪽)는 켜는 거 이건(날이 가는 쪽) 자르는 거. 켠다는 건 나무를 이렇게 길게, 길게 쪼개는 거고 요거는 토막 낼 때 가로 요렇게 자를 때는 요걸로 쓰고 길게 이렇게 켤 때는 요걸로 쓰고.)

"이거 나 만들안. 높은 디 거 그치젠. 정헌 가젱이덜이여, 정헌 가젱이, 방풍낭 끈젠. 나 미치지 못허난 어떵헐 말이냐?"[30]

(이거 내가 만들었어. 높은 데 거 자르려고. 저런 가지들이며, 저런 가지, 방풍나무 자르려고. 내가 미치지 못하니까 어떠할 말이니?)



〈사진 58〉 김두생 씨 소장 '톱'



〈사진 59〉 김두생 씨 소장 '양놀톱'



〈사진 60〉 장덕지 씨 소장 '톱'



〈사진 61〉 강문선 씨 소장 '톱'

29) 수망리 김두생 씨 구술.
30) 신례1리 강문선 씨 구술.

<사진 58>과 <사진 59>는 수망리 김두생 씨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사진 58>의 톱은 일반 가정에서 땔감 등을 장만할 때 사용했던 톱이다. <사진 59>는 김 씨가 목수 일을 할 때 사용했던 톱으로, 양쪽에 날이 있는 양날톱이다. 날이 굵은 쪽은 나무를 켤 때 사용하는 것이고, 날이 가는 것은 나무를 자르는 용도라고 한다. <사진 60>은 남원1리 장덕지 씨가 보관하고 있는 톱이고, <사진 61>은 신례1리 강문선 씨(1933년생)가 사용하고 있는 톱이다. 강 씨는 작은 톱을 단단한 나무에 묶어 사용하고 있는데 방풍 나무의 가지를 자를 때 키가 닿지 않기 때문에 사진에서처럼 긴 나무에 묶어 사용하고 있다.

"쒜 짤를 때 쓰는 거."[31]

(쇠 자를 때 쓰는 거.)

"톱날 갈 때, 여기 톱날이 딱 이렇게 놔서 여기 딱 고정헤서 줄로 영 줄이는 거. 만든 거주, 생각헌 것도 잇고 나가 본 것도 잇고."[32]

(톱날 갈 때, 여기 톱날이 딱 이렇게 놔서 여기 딱 고정해서 줄로 이렇게 줄이는 거. 만든 거지, 생각한 것도 있고 내가 본 것도 있고.)



〈사진 62〉 정개은 씨 소장 '쒜톱'



〈사진 63〉 오경수 씨 소장 '톱 고정하는 거'

<사진 62>는 남원1리 정개은 씨가 보관하고 있는 쇠붙이를 자를 때 사용하는 쇠톱이다. <사진 63>은 의귀리 오경수 씨가 톱날을 갈 때 톱을 고정하는 데 사용했던 도구다. 사진의 왼쪽 부분에 톱날을 끼워 고정해서 줄로 톱날을 갈았다고 한다.

31) 남원1리 정개은 씨 구술.
32) 의귀리 오경수 씨 구술.

(2) 망치와 못빼기

'망치'는 못을 박거나 두드릴 때 쓰는 연장이다. '못빼기'는 박혀 있는 못을 빼낼 때 쓰는 도구로, 표준어의 '못뽑이'에 대응한다. 망치로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망치의 한쪽이 못뽑이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사진 64〉 정개은 씨 소장 '망치'



〈사진 65〉 김두생 씨 소장 '망치'



〈사진 66〉 오경수 씨 소장 '망치'



〈사진 67〉 오경수 씨 소장 '망치'

<사진 64>는 남원1리 정개은 씨, <사진 65>는 수망리 김두생 씨, <사진 66>과 <사진 67>은 의귀리 오경수 씨가 보관하고 있는 망치다. 김 씨와 오 씨는 한때 목수 일을 했는데 여러 종류의 망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황에 따라 적당한 것을 골라 사용했다고 한다.

"것도 망친데 요거는 못 뺄 수도 있는 망치. 저거는 못 박는 거베끼 안 뒈고." [33]
(것도 망친데 요거는 못 뺄 수도 있는 망치. 저거는 못 박는 거밖에 안 되고.)

<사진 68>과 <사진 69>는 의귀리 오경수 씨가 보관하고 있는 못뽑이다.



〈사진 68〉 오경수 씨 소장 '못빼기'



〈사진 69〉 오경수 씨 소장 '못빼기'



〈사진 70〉 김두천 씨 소장 '못빼기'



〈사진 71〉 김두생 씨 소장 '망치'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여 못을 뽑을 때 사용하는데 망치와 못뽑이가 같이 되어 있다. <사진 70>은 수망리 김두천 씨(1934년생)의 못뽑이인데 자루가 부러져 현재는 사용하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다. <사진 71>은 수망리 김두생 씨가 사용하고 있는 망치다. 김 씨는 이 못뽑이도 앞의 <사진 65>와 마찬가지로 망치라고 부르고 있다.

33) 수망리 김두생 씨 구술.

(3) 메와 겐노

'메'는 묵직하고 둥그스름한 쇠토막에 자루를 박아 무엇을 치거나 박을 때 쓰는 연장이다. '메'는 주로 돌 따위를 깰 때 사용한다. 돌을 깨고 다듬는 일을 할 때 사용하는 연장은 크기에 따라 구분하기도 한다. 제일 큰 것을 '메'라 하고 그보다 작은 것을 '겐노', 또 그보다 작은 것을 '돌망치'라 부르기도 한다. '겐노'는 일본어(げんのう)에서 온 말이다.

"이거는 제라헌 큰 돌 벌를 때, 이거는 메엔 허주, 메."[34]
(이거는 온전한 큰 돌 쪼갤 때, 이거는 메라고 하지, 메.)



〈사진 72〉 오희일 씨 소장 '메'



〈사진 73〉 오희일 씨 소장 '겐노'

<사진 72>와 <사진 73>은 의귀리 오희일 씨가 사용하고 있는 메와 '겐노'다. 오 씨는 <사진 72>을 큰 돌을 깰 때 사용했던 것이라고 한다.

"메는 이보다 큰 거주. 돌 깰 때 허는 거. 이건 겐노 돌 다듬는 거."[35]
(메는 이보다 큰 거지. 돌 깰 때 하는 거. 이건 '겐노' 돌 다듬는 거.)

34) 수망리 김두생 씨 구술.
35) 신례1리 김석종 씨 구술.
36) 남원1리 고영주 씨 구술.
37) 의귀리 오경수 씨 구술.

"담 다울 때, 돌 다듬을 때 허는 거. 돌 깨는 건 함마렌 허는 것이 이거보다 더 크주게."[36]
(담을 쌓을 때, 돌을 다듬을 때 하는 거. 돌 깨는 건 해머라고 하는 것이 이것보다 더 크지.)

"겐노엔 허주. 돌 벌르는 거. 작은 건 망치, 돌망치."[37]
('겐노'라고 하지. 돌 깨는 거. 작은 건 망치, 돌망치.)



〈사진 74〉 김석종 씨 소장 '겐노'



〈사진 75〉 고영주 씨 소장 '겐노'



〈사진 76〉 오경수 씨 소장 '겐노'



〈사진 77〉 오경수 씨 소장 '돌망치'

<사진 74>는 신례1리 김석종 씨(1938년생), <사진 75>는 남원1리 고영주 씨가 보관하고 있는 '겐노'다. 김 씨는 돌을 깨는 것은 메이고, 돌을 다듬는 것을 '겐노'라고 했다. 그런데 고 씨는 '겐노'보다 크며 돌을 깰 때 쓰는 것을 '함마'라고 불렀다. '함마'는 '해머'의 일본어식 표현이다. <사진 76>과 <사진 77>은 의귀리 오경수 씨가 사용했던 '겐노'와 '돌망치'다.

(4) 도치

'도치'는 나무를 찍거나 팰 때 쓰는 연장인 '도끼'를 말한다. 쐐기 모양의 큰 쇠 날의 머리 부분에 구멍을 뚫어 단단한 나무 자루를 박아 사용한다.

"저건 옛날 필수품이라. 지들커 엇을 적에 갖다가 깨영 쓰곡. 이거 물리멍 말멍, 옛날 써난 거 계속 허는 거주."[38]
(저건 옛날 필수품이야. 땔감 없을 때에 가져다가 깨서 쓰고. 이거 물리고 말고, 옛날 썼던 거 계속 하는 거지.)

"큰 도치라 헤가지고 나무 깰 때. 나가 산 거."[39]
(큰 도끼라 해서 나무 깰 때. 내가 산 거.)

"요건 나무를 깨는 거. 요거는 나무 끈는 거."[40]
(요건 나무를 깨는 거. 요거는 나무 자르는 거.)


〈사진 78〉 현창언 씨 소장 '도치'


〈사진 79〉 현원휴 씨 소장 '도치'

<사진 78>은 남원1리 현창언 씨, <사진 79>는 수망리 현원휴 씨(1932년생)가 사용했던 도끼다. 현창언 씨에 의하면 나무 따위로 땔감을 쓰던 시기에 도끼는 가정마다 필수품이었다고 한다. <사진 80>과 <사진 81>은 수망리 김성찬 씨가 직접 장만하여 보관하고 있는 도끼다. 김 씨의 말에 따르면 두 도끼의 용도가 다른데 <사진 80>은 나무를 쪼갤 때 쓰는 것이고, <사진 81>은 나무를 자를 때 쓰는 용도라고 한다.


〈사진 80〉 김성찬 씨 소장 '도치'


〈사진81〉 김성찬 씨 소장 '도치'

"나무 깰 때 쓰는 거. 장작 팰 때 허는 거. 저거 나무 깽 다 데명 놧네. 저기 불 때여근에, 뭐 땔 땐." [41]
(나무 깰 때 쓰는 거. 장작 팰 때 하는 거. 저거 나무 깨서 다 쌓아 놨어. 저기 불 때서, 뭐 땔 때는.)


〈사진 82〉 오희일 씨 소장 '도끼'


〈사진 83〉 정개은 씨 소장 '도치'

<사진 82>는 의귀리 오희일 씨가 사용했던 도끼다. 오 씨의 마당 한쪽 구석에서 쌓아 놓은 장작을 볼 수 있었는데, 깨어 놓은 나무들이 바로 그 옆에 설치해 놓은 아궁이에 불을 땔 때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사진 83>은 남원1리 정개은 씨 집에 보관하고 있는 도끼다. 다른 도끼들에 비해 손잡이 길이가 짧은 것이 특징이다.

38) 남원1리 현창언 씨 구술.
39) 수망리 김성찬 씨 구술.
40) 수망리 김성찬 씨 구술.
41) 의귀리 오희일 씨 구술.

(5) 나대

'나대'는 찍어서 나무 따위를 자르는 데 쓰는 연장으로, '나대'라는 이름은 일본어(なた)에서 온 말이다. '나대'는 보통 땔감으로 쓸 나무를 자를 데 주로 사용하였는데, 남원읍 지역에서는 감귤밭 주변에 바람을 막기 위해 심어 놓은 나무들을 가지치기할 때 많이 사용했다.

"솔입 허러도 가고 낭허레도 뎅겨나신디 낭 허렐 더 뎅겻어. 나무가 때기 좋주게. 생길오름이엔 헌 디, 그디도 뎅기고 여기 으생이오름이엔 헌 디도 다니고. 낭허젠 허민 나대 가졍 가사."[42]

(솔가리 하러도 가고 나무하러도 다녔는데 나무하러 더 다녔어. 나무가 때기 좋지. '생길오름'이라고 하는 데, 거기도 다니고 여기 '으생이오름'이라고 하는 데도 다니고. 나무하려고 하면 나대를 가지고 가야.)

신례1리 김길순 씨는 땔감으로 쓸 솔가리를 그러모으거나 나무하러 마을 주변에 있는 오름에 자주 다녔는데 그때 '나대'를 가지고 다녔다고 한다.

"나대는 나뭇가지 자를 때 저거 간단허게 좋지. 호미 거튼 거 허면 낫으로 허면, 낫은 약헤가지고 자룩도 부러지고 허니까."[43]

('나대'는 나뭇가지를 자를 때 저거 간단하게 좋지. 낫 같은 거 하면 낫으로 하면, 낫은 약해서 자루도 부러지고 하니까.)



〈사진 84〉 정개은 씨 소장 '나대'



〈사진85〉 오경수 씨 소장 '나대'

42) 신례1리 김길순 씨 구술. 43) 남원1리 정개은 씨 구술.
44) 수망리 김성찬 씨 구술. 45) 신례1리 김복선 씨 구술.



〈사진 86〉 김두천 씨 소장 '나대'



〈사진 87〉 김두생 씨 소장 '나대'

"나무 짤를 때, 나무가지 짤를 때."[44]

(나무 자를 때, 나뭇가지 자를 때.)

<사진 84>는 남원1리 정개은 씨가 사용했던 '나대'다. 나뭇가지 따위를 자를 때 낫은 약해서 부러지기도 하지만, '나대'는 가지고 다니면서 간단하게 자를 수 있어서 편하다고 한다. <사진 85>는 의귀리 오경수 씨, <사진 86>은 수망리 김두천 씨, <사진 87>은 수망리 김두생 씨가 보관하고 있는 '나대'다. '나대'의 손잡이를 천이나 고무 따위로 감아서 사용하고 있다.

"나대로 소소헌 건 나대로 끈엇주게. 지금은 톱으로 끈어도. 아이고, 지들커 허레, 나무허레 ᄒᆞ루 세 번썩, 네 번썩."[45]

('나대'로 소소한 건 나대로 끊었지. 지금은 톱으로 끊어도. 아이고, 땔감 하러, 나무하러 하루 세 번씩, 네 번씩.)



〈사진 88〉 양기화 씨 소장 '나대'



〈사진 89〉 오희일 씨 소장 '나대'



〈사진 90〉 김성찬 씨 소장 '나대'



〈사진 91〉 김복선 씨 소장 '나대'

<사진 88>은 태흥2리 양기화 씨(1938년생), <사진 89>는 의귀리 오희일 씨, <사진 90>은 수망리 김성찬 씨, <사진 91>은 신례1리 김복선 씨(1942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나대'다. <사진 84>에서 <사진 91>처럼 '나대'의 날 모양이나 손잡이가 제각각 다르다는 것이 흥미롭다.

(6) 자귀

'자귀'는 나무를 깎아 다듬거나 나무를 깰 때 사용하는 연장이다.

"나무 까끌 때."[46]

(나무 깎을 때.)



〈사진 92〉 오경수 씨 소장 '곱자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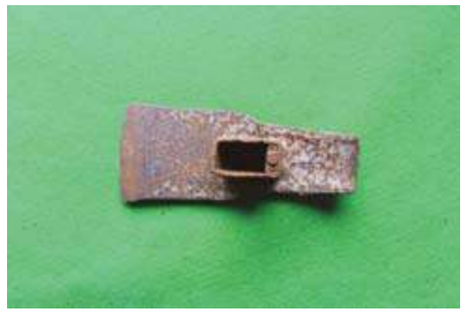


〈사진 93〉 김성찬 씨 소장 '자귀'

46) 의귀리 오경수 씨 구술.
47) 수망리 김두생 씨 구술.



〈사진 94〉 정개은 씨 소장 '자귀'



〈사진 95〉 김두생 씨 소장 '자귀'

<사진 92>는 의귀리 오경수 씨가 나무를 깎을 때 사용했던 자귀다. <사진 93>은 수망리 김성찬 씨, <사진 94>는 남원1리 정개은 씨가 사용하고 있는 자귀다. 오 씨는 이것을 끝이 안쪽으로 꼬부라진 자귀의 뜻을 가진 '곱자귀'라고 불렀다. '곱자기'는 표준어 '옥자귀'에 해당한다. <사진 95>는 수망리 김두생 씨가 보관하고 있는 자귀의 날이다. 김 씨는 손잡이가 빠진 자귀날만을 보관하고 있다.

(7) 대패

'대패'는 나무를 곱게 밀어 깎는 연장이다. 나무를 매끄럽게 깎아 다듬는 용도로도 쓰이고, 나무의 골을 파는 데도 사용한다.

"나무 까끌 때 쓰는 거. 손대패엔 허는데 저거. 전기 나온 후젠 전기 대패. 칠십 년대 초 나오난. 나중에 전부 다 전기 제품으로 쓰니까. 옛날에 전기가 안 들어올 때 저런 손대패. 손대패 중에 판이 넓은 거, 긴 거는 반듯허게 가끄젠 허민 긴 걸로 사용허고 그자 무데기로 막 가까 낼 때는 짧은 걸로. 근데 대패는 좀 긴 대패허고 짧은 거 두 가지베끼 없어."[47]

(나무 깎을 때 쓰는 거. 손대패라고 하는데 저거. 전기 나온 후에는 전기 대패. 칠십 년대 초 나오니까. 나중에 전부 다 전기 제품으로 쓰니까. 옛날에 전기가 안 들어올 때 저런 손대패. 손대패 중에 판이 넓은 거, 긴 거는 반듯하게 깎으려고 하면 긴 걸로 사용하고 그저 무더기로 마구 깎아 낼 때는 짧은 걸로. 그런데 대패는 좀 긴 대패하고 짧은 거 두 가지밖에 없어.)

"대패도 손대패가 잇고 시아게 대패가 잇고 줄 대패가 잇고. 줄 대팬 둘리가 이러큼 영 자룩을 영 박아, 잡게시리 양쪽으로 둘리가 밀렷당 당겻당 허는 거, 큰 거 밀 때. 홈베기대패도 전미리 후미리도 다 잇는데 이제는 그런 거는 잘 안 허고."[48]

(대패도 손대패가 있고 마무리 대패가 있고 '줄대패'가 있고. '줄대패'는 둘이 이렇게 이렇게 자루를 이렇게 박아, 잡게끔 양쪽으로 둘이 밀었다가 당겼다가 하는 거, 큰 거 밀 때. 홈대패도 '전미리', '후미리'도 다 있는데 이제는 그런 거는 잘 안 하고.)

"이건 나무 깨끗허게 까끄는 거. 대팬 홈 파는 대패도 잇고, 시아게 대패 잇고."[49]

(이건 나무 깨끗하게 깎는 거. 대패는 홈 파는 대패도 있고. 마무리 대패 있고.)



〈사진 96〉 김두생 씨 소장 '대패'



〈사진 97〉 오희일 씨 소장 '대패'



〈사진 98〉 오경수 씨 소장 '대패'



〈사진 99〉 이대현 씨 소장 '대패'

48) 의귀리 오희일 씨 구술.
49) 의귀리 오경수 씨 구술.



〈사진 100〉 오경수 씨 소장 '끌'



〈사진 101〉 오경수 씨 소장 '징'

50) 의귀리 오경수 씨 구술.



<사진 100>과 <사진 101>은 의귀리 오경수 씨가 보관하고 있는 끌과 정이다. 오 씨는 돌을 쪼갤 때 끌을 대고 두드려서 구멍을 어느 정도 낸 후 정을 놓고 두드려서 쪼갠다고 한다. 끌에는 돌을 쪼갤 때 쓰는 것도 있고 나무를 다듬을 때 쓰는 것도 있는데, 크기도 여러 종류다.

"돌 깰 때 쓰는 게 끌이 요런 것이 그냥 코지 난 디 있어. 이건 낭 가끌 때."[51]
(돌 깰 때 쓰는 게 끌이 요런 것이 그냥 '코지' 난 데 있어. 이거는 나무 깎을 때.)



〈사진 102〉 오희일 씨 소장 '끌'



〈사진 103〉 오희일 씨 소장 '끌'

<사진 102>와 <사진 103>은 의귀리 오희일 씨가 보관하고 있는 끌이다. <사진 102>는 돌을 쪼갤 때, <사진 103>은 나무의 홈을 파거나 깎을 때 사용하는 것이다.

"끌, 옛날에는 손으로 헐 때는 구멍 뚫는 거. 저건 구멍 뚫는 거고. 게난 한 치 끌로부터 오 푼, 너 푼, 서 푼 끌로 넓이를. 저거를 구멍 팔려면은 요렇게 헤 가지고 표시를 헤야 뒈니까 끌 너비에 맞은 거라, 끌 너비에. 요거 요렇게 헤 가지고. 구멍 팔려면은 손으로 일일이 그리지 못허니까 딱 요 길이만 표시헤 놩 넓이는 끌 너비에 맞는 거니까. 구멍 그리는 거. 연필로 그리면은 넓이가 딱 ㄱ트지 안헤. 게난 요거는 똑거치 고정이 뒌 거니까 짝 그리면은 이거 구멍 두 개 파는 건데 요거 한꺼번에 쫙 긋어 불민 구멍 두 개가 나와. 요렇게 딱 그어 불민 뒈는 거지."[52]

51) 의귀리 오희일 씨 구술.
52) 수망리 김두생 씨 구술.
53) 수망리 김두생 씨 구술.

(끌, 옛날에는 손으로 할 때는 구멍 뚫는 거. 저건 구멍 뚫는 거고. 그러니까 한 치 끌로부터 오 푼, 너 푼, 서 푼 끌로 넓이를. 저거를 구멍 파려면 요렇게 해 가지고 표시를 해야 되니까 끌 너비에 맞은 거야, 끌 너비에. 요거 요렇게 해 가지고. 구멍 파려면 손으로 일일이 그리지 못하니까 딱 요 길이만 표시해 놔서 넓이는 끌 너비에 맞는 거니까. 구멍 그리는 거. 연필로 그리면 넓이가 딱 같지 않아. 그러니까 요거는 똑같이 고정이 된 거니까 짝 그리면 이거 구멍 두 개 파는 건데 요거 한꺼번에 쫙 그어 버리면 구멍 두 개가 나와. 요렇게 딱 그어 버리면 되는 거지.)

"처음 헐 때는 거즘 다 초가집이고 문도 우리 손으로 다 짜고 헷는데 내중에 전문이마다 다 따로 헤서 헷는데 옛날에는 혼자 다 헷어."[53]
(처음 할 때는 거의 다 초가집이고 문도 우리 손으로 다 짜고 했는데 나중에 전문가마다 다 따로 해서 했는데, 옛날에는 혼자 다 했어.)



〈사진 104〉 김두생 씨 소장 '너비 표시 도구'



〈사진 105〉 김두생 씨가 문틀에 홈을 팔 너비를 표시하는 모습



〈사진 106〉 김두생 씨가 끌로 홈을 파는 모습



〈사진 107〉 김두생 씨 소장 '끌'

<사진 104>는 홈을 팔 너비를 표시하는 도구이고, <사진 105>는 수망리 김두생 씨가 <사진 104>의 도구로 문틀에 홈을 팔 너비를 표시하는 모습이다. <사진 106>은 김 씨가 끌로 홈을 파는 시범을 보이는 모습이고, <사진 107>은 김 씨가 보관하고 있는 끌이다. 김 씨 구술에 의하면 끌은 너비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는 데 약 3cm인 한 치 너비의 끌에서부터 약 1.5cm인 오 푼 너비의 끌, 너 푼 너비, 서 푼 너비의 끌이 있다. 나무에 홈을 파려고 할 때, 연필로 일일이 표시해서 하려면 번거롭고 넓이가 꼭 맞지는 않으므로, <사진 104>의 도구를 활용해 홈을 팔 곳을 표시한다. 그리고 나서 끌로 홈을 판다. 그러면 똑같은 너비를 홈을 팔 수 있다고 한다. 김 씨는 예전 목수로 집을 지을 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틀을 짰었다고 한다.

(9) 줄

'줄'은 쇠붙이를 쓸거나 깎는 데에 쓰는 연장이다. 건축 관련해서는 아직도 일본어가 많이 남이 있다. 줄도 목재나 금속 따위를 갈거나 다듬는 데 쓰는 공구를 가리키는 일본어 '야스리(やすり)'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건 톱 갈 때 쓰는 거. 야스리엔 허주. 야스린 일본말, 줄, 줄."[54]
(그건 톱 갈 때 쓰는 거. '야스리'라고 하지. '야스리'는 일본말, 줄, 줄.)

"다 ᄌᆞ룩 나냥으로 만들고. 이거 허당 보민 자룩이 판나 불어. 경허민 이 자룩은 다른 걸로 바꾸는 거지. 자룩 소낭으로 헌 거."[55]
(다 자루 나대로 만들고. 이거 하다가 보면 자루가 고장나 버려. 그러면 이 자루는 다른 걸로 바꾸는 거지. 자루 소나무로 한 거.)


〈사진 108〉 오희일 씨 소장 '줄'


〈사진 109〉 김두생 씨 소장 '줄'

<사진 108>은 의귀일 오희일 씨가 보관하고 있는 줄이다. 오 씨는 이 줄을 톱을 갈 때 사용하며 '야스리'라고 불렀다. <사진 109>는 수망리 김두생 씨가 보관하고 있는 줄이다. 두 개의 줄 모두 나뭇가지를 잘라 손잡이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건 구라인다, 날 가는 거. 뭐 갈 때, 곡궹이 날 갈 때. 뾰족허게 헤야주."[56]
(그건 그라인더, 날 가는 거. 뭐 갈 때, 곡괭이 날 갈 때. 뾰족하게 해야지.)


〈사진 110〉 오경수 씨 소장 '구라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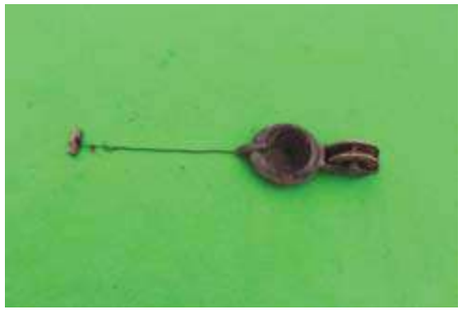
한편 날을 세울 때 사용하는 '그라인더'가 있다. <사진 110>은 의귀리 오경수 씨가 사용했던 그라인더인데, 오 씨를 이를 '구라인다'라고 불렀다. 곡괭이 등의 날을 뾰족하게 갈 때 사용했던 것이다.

(10) 먹통과 먹줄

'먹통'과 '먹줄'은 목공이나 석공이 줄을 치는 데 사용하는 도구다. '먹통'은 먹물을 담는 그릇이고, '먹줄'은 먹물을 먹인 줄이다. 먹통에 딸린 먹줄에 먹을 묻혀 곧게 줄을 치는 데 사용한다.

"쪽 뎅경 탁 허민 영 선 그려져."[57]
(쭉 당겨서 탁 하면 이렇게 선 그려져.)

54) 의귀리 오희일 씨 구술.
55) 의귀리 오희일 씨 구술.
56) 의귀리 오경수 씨 구술.
57) 의귀리 오경수 씨 구술.



〈사진 111〉 오경수 씨 소장 '먹통'과 '먹줄'



〈사진 112〉 김두생 씨 소장 '먹통'과 '먹줄'

<사진 111>은 의귀리 오경수 씨가 사용했던 먹통과 먹줄이고, <사진112>는 수망리가 사용했던 먹통과 먹줄이다. 선을 그리고 싶은 부분 위로 각 사진의 왼쪽을 줄을 쭉 당겨서 줄을 튕기면 그 아래에 선이 그려진다.

(11) 빠루

'빠루'는 굵고 큰 못을 뽑는 연장인 '배척'으로, '빠루'라는 말은 일본어 '바루(バル)'에서 온 말이다. 보통 한쪽 끝은 장도리 모양으로 되어 못뽑이로 쓰고, 다른 끝은 평평한 날로 되어 있어 지렛대로 쓸 수 있다.

"못 빠는 거, 빠루, 빠루. 지렛대도 허지."[58]
(못 빼는 거, 배척, 배척. 지렛대도 하지.)



〈사진 113〉 현창언 씨 소장 '빠루'



〈사진 114〉 현순열 씨 소장 '빠루'

58) 남원1리 현창언 씨 구술.



〈사진 115〉 김두생 씨 소장 '빠루'



〈사진 116〉 김성찬 씨 소장 '빠루'

<사진 113>은 남원1리 현창언 씨, <사진 114>는 위미2리 현순열 씨(1942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배척이다. <사진 115>와 <사진 116>은 수망리 김두생 씨, 김성찬 씨가 사용했던 배척이다.

(12) 추

'추'는 끈에 매달려 늘어진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데, 여기서 '추'는 공중의 한 점에서 늘어뜨린 가는 줄에 매단 작은 추인 '수직추'를 말한다. 가는 줄이 중력에 의해 수직선을 이루므로 사물의 기울기 정도를 확인할 때 사용한다.

"바로 삿나 안 삿나 보는 거. 기둥 세왕 틀어졋나 안 틀어졋나 볼 때."[59]
(바로 섰나 안 섰나 보는 거. 기둥 세워서 틀어졌나 안 틀어졌나 볼 때.)



〈사진 117〉 오경수 씨 소장 '추'



〈사진 118〉 오희일 씨 소장 '추'

59) 의귀리 오경수 씨 구술.

<사진 117>과 <사진 118>은 의귀리 오경수 씨, 오희일 씨가 사용했던 수직추다. 목수였던 오경수 씨는 집을 지을 때 기둥이 수직으로 바로 섰는지 확인할 때 이 추를 사용했었다고 한다.

(13) 못 거는 거

'못 거는 거'는 못질을 할 때 못을 집어 올릴 때 사용했던 도구다.

"이거는 우리 창고에도 저 나무상자가 있는데 나무상자 짤 때 못을 딱 걸려가지고. 못 이런 나무통에 노나 그릇에 못 비운 다음에 이렇게 허면은 못이 다 걸려요. 꼭지가 다 걸려 가지고, 게난 빼면서 상자 짜는 거. 경헤야 빨르지 경 안허민 하나하나 줍젠 허민."[60]

(이거는 우리 창고에도 저 나무상자가 있는데 나무상자 짤 때 못을 딱 걸려서. 못 이런 나무통에 넣거나 그릇에 못 부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못이 다 걸려요. 꼭지가 다 걸려서, 그러니까 빼면서 상자 짜는 거. 그래야 빠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하나 주우려고 하면.)



〈사진 119〉 정개은 씨 소장 '못 거는 거'

<사진 119>는 남원1리 정개은 씨가 못을 꺼낼 때 사용했던 도구다. 남원 지역에서는 귤을 보관하는 컨테이너가 나오기 전 귤을 담는 상자를 직접 제작했는데 정 씨 역시 귤농사를 지으면서 정 씨를 귤을 보관할 상자를 직접 만들어 사용했다고 한다. 방풍용으로 심었던 삼나무를 잘라서 나무상자를 만들었는데, 오려온 나무판자를 이으며 못질을 할 때, 그릇에 들어있는 못을 <사진 119>의 도구로 들어 올리면 못의 머리가 사진 왼쪽 쇠꼬챙이 사이사이에 걸려 한꺼번에 여러 개의 못을 집어 올릴 수 있다고 한다. 그렇게 못을 집어서 못질을 하는 것이 못을 하나씩 집으면서 작업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했기에 이 도구가 매우 유용했다고 한다.

(14) 정술

'정술'은 낚싯대에 낚싯바늘을 매어 달기 위하여 쓰는 가늘고 질긴 '낚시줄'을 말한다. 가볍고 질긴 '정술'은 낚싯줄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담 다울 때 같은 때 이렇게 줄 쳐서 허는 거."[61]

(담 쌓을 때 같은 때 이렇게 줄 쳐서 하는 거.)



〈사진 120〉 오경수 씨 소장 '정술'



〈사진 121〉 김두생 씨 소장 '줄'

<사진 120>은 의귀리 오경수 씨가 사용했던 '정술'이다. 오 씨는 담을 쌓을 때 곧게 쌓기 위해서 사진의 줄을 묶어두고 그것에 맞추어 담을 쌓았다고 한다. <사진 121>은 수망리 김두생 씨가 보관하고 있는 줄이다.

(15) 곱은자

'곱은자'는 표준어의 '곱자'에 대응하는 말로, 나무나 쇠를 이용하여 90도 각도로 만든 'ㄱ'자 모양의 자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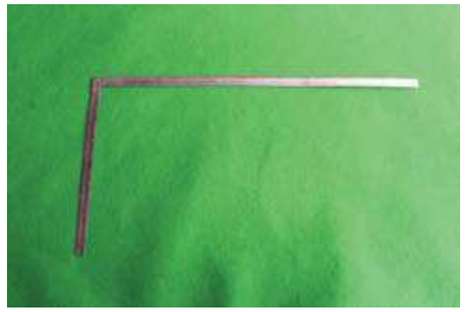
"목수일 헐 때 이거 엇이민 못 해. 이게 젤 선생이라. 목수일 헐 때 대장."[62]

(목수일 할 때 이거 없으면 못 해. 이게 제일 선생이야. 목수일 할 때 대장.)

60) 남원1리 정개은 씨 구술.
61) 의귀리 오경수 씨 구술.
62) 의귀리 오경수 씨 구술.



〈사진 122〉 오경수 씨 소장 '곱은자'



〈사진 123〉 김두생 씨 소장 '곱은자'

<사진 122>는 의귀리 오경수 씨가 사용했던 곱자다. 오 씨는 곱자가 목수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도구라고 한다. <사진 123>은 수망리 김두생 씨가 보관하고 있는 곱자다.

(16) 송곳

'송곳'은 작은 구멍을 뚫는 데 쓰는 도구다.



〈사진 124〉 오경수 씨 소장 '송곳'



〈사진 125〉 김예 씨 소장 '송곳'

<사진 124>와 <사진 125>는 의귀리 오경수 씨, 김예 씨가 사용하고 있는 송곳이다. 오 씨는 송곳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단단한 철사의 끝을 뾰족하게 갈고 나뭇가지를 잘라 손잡이를 끼워 송곳을 사용하고 있다.

(17) 연장통

'연장통'은 못이나 나사 따위의 연장을 보관하는 통이다.

"그런 거야 만들멍 써야지, 목수가 뭐."[63]
(그런 거야 만들면서 써야지, 목수가 뭐.)

"이거는 지붕에 올라가면은 못도 담곡 끌도 담고. 허리에 창, 꼭 허게 필요헌 거라."[64]
(이거는 지붕에 올라가면은 못도 담고 끌도 담고. 허리에 차서, 꼭 필요한 거야.)



〈사진 126〉 김두생 씨 소장 '연장통'

<사진 126>은 수망리 김두생 씨가 사용하는 연장통이다. 못이나 나사, 끌 따위의 작은 부품이나 연장을 보관하는 것으로, 사진의 나무 상자는 김 씨가 직접 만들어 사용했던 것이라고 한다. 사진 뒤쪽의 가방은 지붕 등에 올라가서 작업할 때, 못이나 끌 따위를 넣고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사용했던 것이라고 한다.

3.6. 기타 도구

(1) 화심

'화심'은 억새꽃을 뽑아 말려두었다가 칡 줄기를 말린 억새에 나선으로 감아 만드는 심지이다. 억새의 꽃인 '미'로 만들었기 때문에 '미심'이라고도 한다. 이것에 불을 붙여 두면 불이 쉽게 꺼지지 않고 오래 갔다. 표준어의 '화승'에 대응한다.

63) 수망리 김두생 씨 구술.
64) 수망리 김두생 씨 구술.



〈사진 127〉 장덕지 씨 소장 '화심'

<사진 127>은 남원1리 장덕지 씨(1945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화심'이다. 예전 사용했던 것을 재현해 만든 것으로, 성냥이 귀했던 시절 '화심'은 부싯깃으로 불을 일으켜서 붙일 때도 사용하고, 여기에 불을 붙여 두면 천천히 타 들어가 불을 오래 보관할 수 있었다고 한다.

(2) 덩드렁과 덩드렁마께

'덩드렁'은 짚 따위를 두드릴 때 밑에 받치는 돌이고, '덩드렁마께'는 '덩드렁'이라는 돌 위에 짚 따위를 놓고 두드릴 때 사용하는 방망이다.

"이거 덩드렁, 덩드렁. 마께가 없어. 이 돌이 젤 중요헌 거, 필수품이라, 옛날은. 이건 완전히 옛날 거고. 이 대나무 헤근에 구덕도 절고 닥닥닥 두드려 가지고."[65]
(이거 '덩드렁', '덩드렁'. 방망이가 없어. 이 돌이 제일 중요한 거, 필수품이야, 옛날은. 이건 완전히 옛날 거고. 이 대나무 해서 바구니도 겯고 닥닥닥 두드려 가지고.)

"멍석도 하르부지가 저건 스무 개나 잇어신디 다 엇어져 불엇어. 산디찍 저 덩드렁에 닥닥닥 뭇앙 멍석도 절고. 산디찍으로 절엇주. 여기는 벼가 안 나니까 벳찝이 엇주. 산디찍."[66]
(멍석도 할아버지가 저건 스무 개나 있었는데 다 없어져 버렸어. 밭볏짚 저 '덩드렁'에 닥닥닥 마아서 멍석도 겯고. 밭볏짚으로 결었지. 여기는 벼가 안 나니까 볏짚이 없지. 밭볏짚.)

"산디찍 두드릴 적에 허는 거. 나 멍석, 멩텡이 잘 졸아."[67]
(밭볏짚 두드릴 적에 하는 거. 나 멍석, 망태기 잘 결어.)



〈사진 128〉 현창언 씨 소장 '덩드렁'



〈사진 129〉 고영주 씨 소장 '덩드렁'

<사진 128>은 남원1리 현창언 씨가 보관하고 있는 '덩드렁'이다. 현 씨에 의하면, 지금 '덩드렁마께'는 보관하고 있지 않지만, 농사를 짓고 관련 도구들을 각 가정에서 만들어 사용했던 전통사회에서 '덩드렁'은 가정의 필수품이었다고 한다. '덩드렁'으로 대나무를 두드려서 바구니를 겯고 밧볏짚을 두드려서 멍석을 만들어 결어 사용했다. <사진 129>는 남원1리 고영주 씨가 보관하고 있는 '덩드렁'이다. 고 씨가 멍석이나 망태기를 결을 때 사용했던 것이다.

"덩드렁은 무시거 영 쫄른 거 두드리는 거 덩드렁. 그런 마께도 우리 셔."[68]
('덩드렁'은 뭐 이렇게 짧은 거 두드리는 거 '덩드렁'. 그런 방망이도 우리 있어.)

"덩드렁은 저 돌, 먹돌 헤가지고 영 헤영 넙작헌 거. 덩드렁은 옛날 새끼 꼴 때 그 찍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거."[69]
('덩드렁'은 저 돌, 먹돌 해서 이렇게 해서 넓적한 거. 덩드렁은 옛날 새끼 꼴 때 그 짚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거.)

65) 남원1리 현창언 씨 구술.
66) 남원1리 현창언 씨 구술.
67) 남원1리 고영주 씨 구술.
68) 수망리 현금옥 씨 구술.
69) 의귀리 오희일 씨 구술.



〈사진 130〉 오희일 씨 소장 '덩드렁마께'



〈사진 131〉 김성찬 씨 소장 '덩드렁마께'

<사진 130>은 의귀리 오희일 씨가 보관하고 있는 '덩드렁마께'고, <사진 131>은 수망리 김성찬 씨의 '덩드렁마께'다. <사진 130>의 '덩드렁마께'는 보관 상태가 양호한 편이나, <사진 131>은 보관이 그다지 좋지 못하다. 수망리 김 씨는 짚 따위를 두드릴 때 이것을 사용하지 않게 되자 빨랫방망이 용도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집밖에 아무렇게나 놓아 두어서 사진에서처럼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였다.

(3) 간지와 공젱이

'간지'와 '공젱이'는 물건을 벽 따위에 걸어 두는 데 쓰는 도구다. '간지'는 긴 막대로 두 끝에 끈을 매어 벽에 달아매어 두는 것으로, 옷 따위를 걸어 두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다. 표준어의 '횃대'에 대응하는 말이다. '공젱이'는 물건을 걸 수 있게 만든 걸이다.

"옛날엔 못이 엇고 허니까 이거 헤근에 옷 걸고 헤낫주게. 거 간지, 영 ᄒᆞ나로 뒌 게 공젱이."[70]

(옛날에는 못이 없고 하니까 이거 해서 옷 걸고 했었지. 거 횃대, 이렇게 하나로 된 게 '공젱이'.)

<사진 132>와 <사진 133>은 남원1리 고영주 씨 집의 창고에 걸려 있는 '간지'다. 창고마다 벽면으로 사진처럼 '간지'를 매달아 놓고 물건을 차곡차곡 걸어 두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사진 134>와 <사진 135>는 신례1리 양금석 가옥의 '공젱이'다.



〈사진 132〉 고영주 씨 집 헛간의 '간지'



〈사진 133〉 고영주 씨 집 헛간의 '간지'



〈사진 134〉 양금석 가옥의 '공젱이'



〈사진 135〉 양금석 가옥의 '공젱이'

(4) 통쒜와 걸쒜

'통쒜'는 여닫게 되어 있는 물건을 잠그는 장치로, 표준어의 '자물쇠'에 해당한다. '통쒜'는 주로 궤를 잠글 때 사용했다. '걸쒜'는 문을 걸어 잠그기 위해 문에 다는 고리를 말하는데 표준어로는 '걸쇠'이다.

70) 남원1리 고영주 씨 구술.



〈사진 136〉 고방순 씨 소장 '통쒜'



〈사진 137〉 고방순 씨 소장 '통쒜'



〈사진 138〉 양금석 가옥의 '걸쒜'



〈사진 139〉 양금석 가옥의 '걸쒜'

<사진136>과 <사진 137>은 신례1리 고방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통쒜'다. 궤 문에 걸어 잠그는 용도로 사용했다. <사진 138>과 <사진 139>는 신례1리 양금석 가옥 헛간의 걸쇠다. <사진 138>은 건물 안에서 걸어 잠그는 것이고, <사진 139>는 건물 바깥쪽에서 잠글 수 있도록 문 바깥쪽에 달려 있는 걸쇠다.

(5) 애기구덕

'애기구덕'은 아기를 재울 때 사용하는 '요람'을 말한다. '구덕'은 대오리를 엮어 만든 바구니로, 전통사회에서는 긴 사각형 모양의 대오리 엮어 만든 '구덕'을 이용했으나, 근래에 와서는 쇠로 만든 요람을 사용했다. 최근에 와서는 최신 육아용품에 밀려 이조차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아이덜 키울 때 써난 거. 막내 나난 그걸로, 막내가 마흔ᄋᆞ덥. 경헹 그것에 손주도 크고 물려받으멍. 막내, 가이 크고 가이 아덜 크곡. (그 전이 다른 아이덜은 뭐로 키웟수꽈?) 애기구덕 대나무로 뒌 거. 나 애기 네 개 낫주게. 대구덕에 허단 이거 아방이 이런 것에 ᄒᆞᆫ번 헤 보렌 산 거주게. 이거 남원 오일장 헐 때 사 온 거. 아덜 키우고, 가이 아덜이 스물ᄋᆞ답, 이 구덕에서 큰 아덜 둘 키우고 또 조카 ᄒᆞ나 키우고."[71]

(아이들 키울 때 썼던 거. 막내 낳으니까 그걸로, 막내가 이제 마흔여덟. 그래서 그것에 손주도 크고 물려받으면서. 막내, 걔 크고 걔 아들 크고. (그 전에 다른 아이들은 뭐로 키웠습니까?) '애기구덕' 대나무로 된 거. 나 아기 네 개 낳았지. '대구덕' 하다가 이거 아버지가 이런 것에 한번 해 보라고 산 거지. 이거 남원 오일장 할 때 사 온 거. 아들 키우고, 걔 아들이 스물여덟, 이 구덕에서 큰 아들 둘 키우고 또 조카 하나 키우고.)

"손지 키울 때 산 거, 장에 강. 가이가 지금 스물ᄋᆞ답."[72]

(손주 키울 때 산 거, 장에 가서. 걔가 지금 스물여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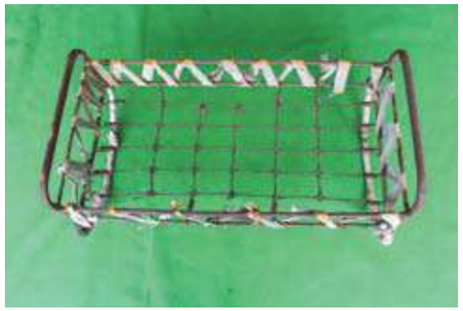
"이걸로 아이덜 너이 키왓어. 큰아덜이 육십ᄒᆞ나. 그거 헐 때(그 아들 키울 때)는 대구덕 허고 이건 손지."[73]

(이걸로 아이들 넷 키웠어. 큰아들이 육십하나. 그거 할 때(그 아들 키울 때)는 '대구덕' 하고 이건 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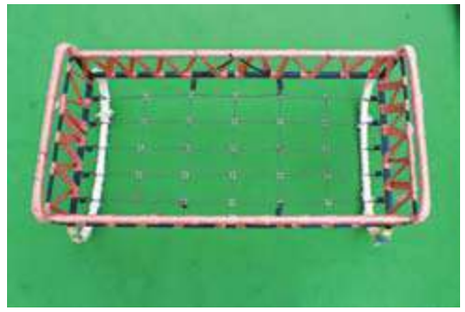
"우리 아덜 둘리, 지금 서른아홉, 서른일곱 난 거 이디서 키왓어. 이걸로 키우고 또 빌려줘단 가져오고."[74]

(우리 아들 둘, 지금 서른아홉, 서른일곱 된 거 여기서 키웠어. 이걸로 키우고 또 빌려줬다가 가져오고.)

71) 남원1리 강순화 씨 구술.
72) 위미2리 양경용 씨 구술.
73) 남원1리 현창언 씨 구술.
74) 수망리 김방언 씨 구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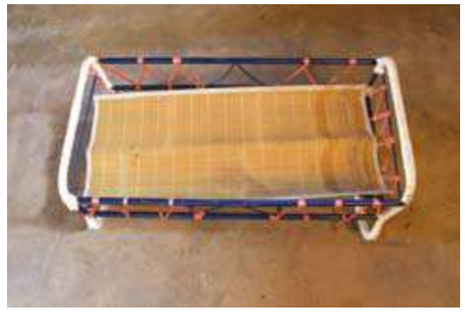
〈사진 140〉 강순화 씨 소장 '애기구덕'



〈사진 141〉 양경용 씨 소장 '애기구덕'



〈사진 142〉 현창언 씨 소장 '애기구덕'



〈사진 143〉 김방언 씨 소장 '애기구덕'

<사진 140>은 남원1리 강순화 씨가 사용했던 '애기구덕'이다. 강 씨는 네 명의 자녀를 키웠는데, 위로 셋은 대나무로 만든 요람을 이용했고 막내아들을 키울 때 이 쇠로 만든 '애기구덕'을 이용했다고 한다. 막내아들과 막내아들의 아들, 조카까지도 <사진 140>의 구덕을 이용했다. <사진 141>은 위미2리 양경용 씨가, <사진 142>는 남원1리 현창언 씨 집에서 손주를 키울 때 사용했던 '애기 구덕'이다. 제보자들에 의하면 1970년대 중반까지는 대나무로 만든 '애기구덕'을 이용하다가 그 후에 위 사진과 같은 '애기구덕'을 2000년대 전까지 이용했다. <사진 143>은 수망리 김방언 씨가 두 아들을 키울 때 사용했던 것으로 약 40년이 넘은 '애기구덕'이다.

(6) 비치락

'비치락'은 표준어의 '빗자루'에 대응하는 말로, 먼지나 쓰레기를 쓸어 내는 도구다. 쓰이는 용도에 따라 '마당비', '방비' 등이 있는데, 주로 짚이나 띠, 싸리 따위로 만든다.

"마당 씰 때 쓰는 거. 그거 멘들곡 말곡. 대는 핫어, 수리대."[75]
(마당 쓸 때 쓰는 거. 그거 만들고 말고. 대는 많아, 이대.)

"거 이런 디 쓰는 거, 대비치락. 나가 멘들주, 누게가 헤 줘. 대사 하간 디 하영 시난 거 그차단 이추룩 톡톡 무껑 멘든 거주. 이디는 대비치락 안 헹 안 뒈주게, 올레영."[76]
(거 이런 데 쓰는 거, 대빗자루. 내가 만들지, 누가 해 줘. 대야 여러 곳에 많이 있으니까 그거 잘라다가 이처럼 톡톡 묶어서 만든 거지. 여기는 대빗자루 안 해서는 안 되지, '올레'랑.)



〈사진 144〉 김복선 씨 소장 '뒈약세기'



〈사진 145〉 강복자 씨 소장 '뒈약세기'

<사진 144>는 남원1리 고영주 씨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빗자루다. 마당을 쓸 때 사용하는 것으로 고 씨가 직접 이대를 잘라 만들었다고 한다. <사진 145>는 신례1리 강문선 씨가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대빗자루다. 마당이나 '올레'를 쓸기 위해서는 꼭 이러한 빗자루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한다.

75) 남원1리 고영주 씨 구술.
76) 신례1리 강문선 씨 구술.



<사진 146>은 태흥2리 김용남 씨(1946년생) 집에서 사용하는 싸리비다. 김 씨는 집 텃밭 한쪽 구석에 싸리를 심어 두었다가 매번 만들어 사용한다

〈사진 146〉 김용남 씨 소장 '싸리비'

"옛날에도 이거라. 옛날에 방에 써낫주, 몽글아 부난 이제는 그자 이디 써. 이것도 막 커난 거주게, 몽글아 부난 거주."[77]

(옛날에도 이거야. 옛날에 방에 썼었지, 닳으니까 이제는 그저 여기 써. 이것도 마구 컸던 거지, 닳으니까 그거지.)



〈사진 147〉 고신생 씨 소장 '방비'



〈사진 148〉 강문선 씨 소장 '비치락'

<사진 147>은 신례1리 고신생 씨(1931년생)가 사용하고 있는 비다. 방에 사용하는 것으로 손잡이에 천을 덧대어 수선해서 사용하고 있다. <사진 148>은 강문선 씨가 사용하고 있는 빗자루다. 실내용으로 사용하던 것이 헐자 현재는 마당을 쓸 때 사용하고 있었다.

77) 신례1리 강문선 씨 구술.
78) 의귀리 현정자 씨 구술.
79) 남원1리 정개은 씨 구술.
80) 의귀리 오희일 씨 구술.

(7) 콕박세기

'콕박세기'는 박을 반으로 쪼개서 만든 바가지를 말한다.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 제품이 보급되기 이전에는 바가지 용도로, 물 따위를 뜰 때 많이 사용하던 물건이다.

"(뭣에 놩 쏠을 씻어수꽈?) 콕박세기. 낭푼이도 엇어, 그때 처음 오랑 산 때는. 게난 콕박세긴 경 쉬워시카 부덴? 처음 오란 성 다왕 살 땐 쏠 씻고 하간 데굴베기 헹 살앗어게? 기자 좁쏠도 기자 놩 씻지 안헹."[78]

((뭐에 놔서 쌀을 씻었습니까?) '콕박세기'. 양푼도 없어, 그때 처음 와서 살았을 때는. 그러니까 '콕박세기'는 그렇게 쉬웠을까 봐?) 처음 와서 성을 쌓아서 살 때는 쌀 씻고 온갖 (곳에서) 구르면서 살았어? 그저 좁쌀도 그저 놔서 씻지 않고.)

"비료 헐 때 거령 쓰곡, 솔박 대신. 콕은 잘 자라. 콕헤서 요리헹 먹어도 맛있어. 이거 한 이십 년 뒈어. 사료도 거리고 비료 헐 때 거령 쓰고."[79]

(비료 할 때 떠서 쓰고, '솔박' 대신. 박은 잘 자라. 박 해서 요리해서 먹어도 맛있어. 이거 한 이십 년 됐어. 사료도 뜨고 비료 할 때 떠서 쓰고.)

"계속 썸주. 궂인 물도 거리고 농약 헐 때 농약 박세기도 허고. 프라스틱 나오기 전인 문 이거 썻주."[80]

(계속 쓰고 있지. 더러운 물도 뜨고 농약 할 때 농약 바가지도 하고. 플라스틱 나오기 전에는 모두 이거 썼지.)



〈사진 149〉 오희일 씨 소장 '콕박세기'



〈사진 150〉 정개은 씨 소장 '콕박세기'

<사진 149>는 의귀리 오희일 씨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콕박세기'다. 바가지용으로 현재도 비료를 뜨거나 사료를 뜰 때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박은 집에서 직접 길러 요리해 먹기도 하고 사진에서처럼 바가지 등의 용기로 쓰기도 한다. <사진 150>은 남원1리 정개은 씨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콕박세기'다. 정 씨는 지금도 이 '콕박세기'를 농약을 뿌릴 때 바가지로 쓰고 있는데 플라스틱 제품이 나오기 전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박을 쪼개어 만든 이러한 바가지를 사용했다고 한다.

(8) 개판

'개판'은 장사를 지낼 때, 땅속에 관을 넣고 나서 그 위를 덮는 판을 말한다.

"저거 사람 죽으민 관 우에, 관 우에 저거 톡 더끄는 거, 개판. 우리 밧디 큰 저베낭 시난 그거 끈으난 요거 헹 놔두민 뒈겟다 헹 저거 상당히 오랜 거라. 저게 저베낭, 조밤낭. 우리 집이 할망 죽을 때 저거 쓰고 헤도, 이제 나 죽을 때 쓸 거주."[81]

(저거 사람 죽으면 관 위에, 관 위에 저거 톡 덮는 거, '개판'. 우리 밭에 큰 구실잣밤나무 있으니까 그거 자르니까 요거 해서 놔두면 되겠다 해서 저거 상당히 오랜 거야. 저게 구실잣밤나무, 구실잣밤나무. 우리 집의 할머니 죽을 때 저거 쓰고 해도, 이제 내가 죽을 쓸 거지.)

"이거는 저밤낭. 이거는 전부 다 여기 있는 거, 우리 집 지을랴니까 짤랑 놔둔 거. 여기 막 크게 키왓어. 키왓단 여기 집 짓고, 통로 허젠 허니까 잘라 가지고 제재소에 강 오려가지고 온 거지. 칠십 년에 이 집을 짓은 거니까. 십팔 년도 우리 아버지 임헐 때도 저걸 썻지. 어머니 돌아갔을 때도 저거 쓰고."[82]

(이거는 구실잣밤나무. 이거는 전부 다 여기 있는 거, 우리 집 지으려니까 잘라서 놔둔 거. 여기 마구 크게 키웠어. 키웠다가 여기 집 짓고, 통로 하려고 하니까 잘라서 제재소에 가서 오려서 온 거지. 칠십 년에 이 집을 지은 거니까. 십팔 년도 우리 아버지 임할 때도 저걸 썼지. 어머니 돌아갔을 때도 저거 쓰고.)

81) 수망리 김성찬 씨 구술.
82) 남원1리 정개은 씨 구술.


〈사진 151〉 김성찬 씨 소장 '개판낭'


〈사진 152〉 정개은 씨 소장 '개판'

<사진 151>은 수망리 김성찬 씨가 창고 한쪽에 보관하고 있는 '개판'이고, <사진 152>는 남원1리 정개은 씨가 보관하고 있는 '개판'이다. 모두 구실잣밤나무로, 수망리 김 씨는 자신의 밭에 있었던 나무를 잘라 '개판'을 마련해 두었다. 남원리 정 씨는 1970년대에 지금의 집을 지을 때, 집 지을 자리에 있었던 나무를 잘라 '개판'을 마련해 두었다고 한다. 현재는 어머니, 아버지 장례를 지낼 때 쓰고 남은 나무를 보관해 두고 있다고 한다.

(9) 먹과 벼루, 붓

'먹과 벼루'는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기 위해 검을 물을 가는 데 쓰는 문방구이고, 그 중에서도 '붓'은 글씨를 쓰는 도구다. 붓글씨를 쓰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각 가정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지방문을 쓰기 위해 갖추어 두는 필수품이었다.

"집이서 제사 때 지방 쓰고, 옛날은 대소상을 전부 헷잖아게. 저 전부 헤가지고 일포허고 소상 허고 대상을 전부 헷잖아. 그때마다 축을 쓰고, 제사 때도 지방 쓰고 헷지."[83]

(집에서 제사 때 지방 쓰고, 옛날은 대소상을 전부 했잖아. 저 전부 해서 일포 하고 소상 하고 대상을 전부 했잖아. 그때마다 축을 쓰고, 제사 때도 지방 쓰고 했지.)

83) 남원1리 정개은 씨 구술.



〈사진 153〉 정개은 씨 소장 '먹과 벼루'



〈사진 154〉 현창언 씨 소장 '붓'

<사진 153>은 남원1리 정개은 씨가 보관하고 있는 '먹과 벼루'이고, <사진 154>는 남원1리 현창언 씨의 '붓'이다. 현 씨는 이것을 제사 때 지방문을 쓰거나 의례 때 축문 등을 쓸 때 사용했다.

(10) 요강

'요강'은 실내에 두고 오줌을 누는 그릇이다. 사기나 놋쇠 따위로 작은 단지처럼 만든다. 예전에 여자가 결혼할 때 혼수품으로 장만해 갔던 물건 중의 하나다.

"마누라가 결혼헐 때 헤 온 거주. 궤허고 요강허고 책상 거튼 거, 이불허고 헤 왓주."[84]
(마누라가 결혼할 때 해 온 거지. 궤하고 요강하고 책상 같은 거, 이불하고 해 왔지.)

"우리 시어머니 써난 거. 이거 나 가져온 거로구나. 가져온 거 시어머니 오줌 자꾸 싸난 거야."[85]
(우리 시어머니 썼던 거. 이거 내가 가져온 거로구나. 가져온 거 시어머니 오줌 자꾸 쌌던 거야.)

"나 시집올 때 사기 요강 헹 와신디 건 벌러져 벳주게. 벌러져 부난 이거."[86]
(내가 시집올 때 사기 요강 해서 왔는데 그건 깨져 버렸어. 깨져 버리니까 이거.)

"우리 메느리 시집올 때 헨 오라난. 시집올 때 이런 거 헌다게, 옛날."[87]
(우리 며느리 시집올 때 해서 왔었어. 시집올 때 이런 거 해, 옛날.)



〈사진 155〉 오경수 씨 소장 '요강'



〈사진 156〉 강순화 씨 소장 '요강'



〈사진 157〉 오춘보 씨 소장 '요강'



〈사진 158〉 고영주 씨 소장 '요강'



〈사진 159〉 강문선 씨 소장 '요강'



〈사진 160〉 김수정 씨 소장 '요강'

84) 의귀리 오경수 씨 구술.
85) 남원1리 강순화 씨 구술.
86) 신례1리 강문선 씨 구술.
87) 남원1리 김수정 씨 구술.

<사진 155>는 의귀리 오경수 씨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요강이다. 오 씨의 아내가 결혼할 때 궤, 책상과 함께 혼수로 장만해 온 것이라고 한다. <사진 156>은 남원1리 강순화 씨가 보관하고 있는 요강이다. 이 요강도 강 씨가 결혼할 때 가지고 온 것으로, 강 씨의 시어머니가 자주 사용했었다고 한다.

<사진 157>은 위미2리 오춘보 씨(1935년생), <사진 158>은 남원1리 고영주 씨, <사진 159>는 신례1리 강문선 씨, <사진 160>은 남원1리 김수정 씨(1931년생)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요강'이다.

(11) 방석

'방석'은 바닥에 앉을 때 밑에 까는 작은 깔개를 말한다. 실외에서 일할 때 깔고 앉는 용으로 나무나 새끼줄 따위로 만들어 사용했다. 나무로 만든 것을 '낭방석', 짚을 꼬아 만든 줄로 만든 것을 '줄방석'이라고 구분하기도 한다.

"(방석은) 촐 그 새 비어당 만들아. 줄, 줄. 그걸로 영 만들아. 줄방석이엔 골안. 낭방석은 내중에라가난. 그거 낭방석이엥 헌 건 요새처럼 널작허게 안 헤영 그자 토막. 낭토막 짤라긴에 방석."[88]

((방석은)꼴 그 새 비어다가 만들어. 줄, 줄. 그걸로 이렇게 만들어. '줄방석'이라고 말했어. '낭방석'은 나중에 되가니까. 그거 '낭방석'이라고 한 건 요새처럼 널찍하게 안하고 그저 토막. 토막 잘라서 방석.)

"저거 프라스틱 안 날 때 만들어 줭 쓰단 거. (줄방석은) 그거는 이 줄 빌 때 헤나근에 남으민 걸로 방석 만들주게."[89]

(저거 플라스틱 안 나올 때 만들어 줘서 쓰던 거. ('줄방석'은) 그거는 이 줄 벨 때 하고 나서 남으면 그걸로 방석 만들지.)

"방석, 끌앙 앚는 거. 나가 멘든 거. 옛날에 정지에 불 땔 때 저거 끌아 앚고 불 때는 거."[90]

(방석, 깔고 앉는 거. 내가 만든 거. 옛날에 부엌에 불 땔 때 저거 깔고 앉아서 불 때는 거.)

88) 의귀리 현정자 씨 구술. 89) 신례1리 김길순 씨 구술. 90) 의귀리 오경수 씨 구술. 91) 신례1리 고방순 씨 구술.



〈사진 161〉 김길순 씨 소장 '낭방석'



〈사진 162〉 정개은 씨 소장 '낭방석'

<사진 161>은 신례1리 김길순 씨(1941년생)가 사용하고 있는 나무 방석이다. 플라스틱으로 된 방석이 나오기 전에 만들어 사용해 온 것이다. 김 씨의 구술에 의하면 '줄방석'을 만들어 쓰기도 했는데, '줄방석'은 초가의 지붕을 일 때 지붕을 묶다 남은 줄을 이용해서 만들어 사용했다. <사진 162>는 남원1리 정개은 씨가 만들어 정 씨의 아내가 부엌에서 바닥에 앉아 불을 지필 때 사용했었다고 한다.

(12) 간데기

'간데기'는 일본어(かんてき)에서 온 말로 '풍로'에 해당하는 말이다. '간데기'는 화로의 하나로, 흙이나 쇠붙이로 만드는데, 아래에 바람 구멍을 내어 숯불을 피울 때 불이 잘 붙도록 하였다.

"이것에 저 무시거 밥헐 때 이것에 써난 거주. 간데기게."[91]

(이것에 저 뭐 밥할 때 이것에 썼던 거지. '간데기'.)



〈사진 163〉 오희일 씨 소장 '간데기'



〈사진 164〉 고방순 씨 소장 '간데기'

<사진 163>은 의귀리 오희일 씨, <사진 164>는 신례1리 고방순 씨 집에서 사용했던 '간데기'다. 고 씨는 이것을 밥할 때 사용하던 것이라고 했다.

(13) 텔레비전

'텔레비전'은 전파를 매개로 하여 영상을 전달하는 가전제품이다. 1970년대 들어 제주에 흑백텔레비전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사진 165〉 김두생 씨 소장 '텔레비전'

<사진 165>는 수망리 김두생 씨가 보관하고 있는 텔레비전이다. 김 씨가 1970년대에 처음으로 텔레비전 구입하여 사용했던 것이라고 한다. 컬러텔레비전이 보급되면서 컬러텔레비전으로 가전제품을 교체하고 난 뒤 이것을 줄곧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14) 사다리

'사다리'는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을 오르내릴 때 디딜 수 있도록 만든 도구다. 주로 곧은 나무를 잘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사진 166〉 김성찬 씨 소장 '사다리'



〈사진 167〉 김두생 씨 소장 '사다리'

<사진 166>은 수망리 김성찬 씨 집의 한쪽 벽면에 걸어 보관하고 있는 사다리고, <사진 167>은 수망리 김두생 씨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사다리다. 두 사다리 모두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15) 초석

'초석'은 왕골이나 짚 따위를 엮어 만든 자리를 말한다. 특히 제사 때 제를 올리는 자리에 깔기도 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초석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과 구분하여 '제석'의 제주어인 '젯자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오랫주, 뭐. 시집오난 시어멍이 허렌 허난."[92]
(오랬지, 뭐. 시집오니까 시어머니가 하라고 하니까.)

"초석, 젯자리렌 헤도 뒈주."[93]
(초석, '젯자리'라고 해도 되지.)



〈사진 168〉 김길순 씨 소장 '초석'



〈사진 169〉 고방순 씨 소장 '초석'

<사진 168>은 신례1리 김길순 씨 집에서 제사 때 사용하는 초석이다. 김 씨는 시어머니가 사용하던 것을 물려받아 사용하고 있다. <사진 169>는 신례1리 고방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초석'이다.

92) 신례1리 김길순 씨 구술.
93) 신례1리 고방순 씨 구술.

4. 농업 관련

남원읍 지역은 현재 감귤 농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장려에서 제주의 감귤 사업은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밭농사를 하던 땅에 감귤 묘목을 심기 시작하여 이후 감귤 농업이 빠르게 확대되었다. 과수원의 면적에서 보면, 1970년에 58ha에 지나지 않던 것이, 1980년에 3,096ha로 증가하였다. 2000년에는 과수면적이 5,424ha에 이르는데, 이는 전체 농업 면적의 95%를 차지할(남원읍 역사 문화지, 2008:635) 정도로, 남원읍에서 감귤 농업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깡 농사 본격적으로 지은 건 언제과?) 나가 스물일곱 살 때부터 확실히. 농사를 통지낭 심어가지고 접붙이기 시작헤 가지고. 통지낭 나대로 헤서 것에 접붙여 가지고 헷지."[1)]

((귤 농사 본격적으로 지은 건 언제입니까?) 내가 스물일곱 살 때부터 확실히. 농사를 '통지나무'를 심어서 접붙이기 시작해 가지고. '통지나무' 나대로 해서 그것에 접붙여서 했지.)

"밀감 농사 혼 육십 년 졋주. 나가 스물다섯에 헤시난 육십 년. 위미가 일찍 시작헷주. 미깡 모종 일본서 들어온 거 받앙. 신청허민 그걸 백 프로 다 받을 수가 없어. 부락에서 그거 허영 나눠. 그때 예를 들어 백 개 신청허민 육십 개, 오십 개 이렇게. 돈벌이는 그거 혼 오 년, 오 년 뒈니까 수확헐 수가 있는 거지."[2)]

(밀감 농사 한 육십 년 지었지. 내가 스물다섯에 했으니까 육십 년. 위미가 일찍 시작했지. 감귤 모종 일본에서 들어온 거 받아서. 신청하면 그걸 백 프로 다 받을 수가 없어. 부락에서 그거 해 나눠. 그때 예를 들어 백 개 신청하면 육십 개, 오십 개 이렇게. 돈벌이는 그거 한 오 년, 오 년 되니까 수확할 수 있는 거지.)

"처음은 통지낭. 통지낭 자기대로 베영 헌 사름들투 잇곡 또 모자란 사름덜은 사당 그 엿날부터 그 묘목 장사꾼덜이 잇엇어. 게난. 아이, 우리 처음 묘목은 부락으로, 일산이엔 헹 일년생을 일본서 온 게 잇엇어. 건 열두 봉, 겨난 그땐 미깡이 혼 열 개 못 삿어. 열두 본, 열두 본. 그걸 부락으로 사단에 지금 이 집 짓은 우연이 저짝에 잇어낫주, 질 나부난 거주. 그딜 심언. 그걸 처음 심어두 약 헐 충도 몰르고, 그때는 뭣도 몰랏어. 경헤신디 그 낭이 보난 품종이 좋안게."[3)]

(처음은 '통지나무'. '통지나무' 자기대로 베어서 한 사람들도 있고 또 모자란 사람들은 사다가 그 옛날부터 그 묘목 장사꾼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아이, 우리 처음 묘목은 부락으로, 일산이라고 해서 일년생을 일본에서 온 게 있었어. 건 열두 본, 그러니까 그때는 귤 한 열 개 못 샀어. 열두 본, 열두 본. 그걸 부락으로 사다가 지금 이 집을 지은 텃밭이 저쪽에 있었지, 길 나버려서 거지. 거길 심었어. 그걸 처음 심어도 약을 할 줄도 모르고, 그때는 뭣도 몰랐어. 그랬는데 그 나무가 보니까 품종이 좋았어.)

남원1리 정개은 씨(1939년생)는 스물일곱 살에 감귤 농사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통지나무'를 심었다가 접붙이기를 해 가면서 감귤 묘목을 키웠다고 한다. 위미2리 강도범 씨(1937년생)는 감귤 농사를 지은 지 육십 년이 되었으며 강 씨가 살고 있는 위미2리가 남원읍 지역에서도 감귤 농사를 일찍 시작했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들어오는 감귤 묘목을 신청하여 심었다고 한다. 의귀리의 양인필 씨도 처음 귤 묘목을 심을 때는 '통지나무'로 심기도 하고, 일본에서 들어온 묘목을 마을에서 사다가 심기도 했다.

이처럼 남원읍 지역은 1960년대 중반부터 감귤 농사를 시작하면서 땅을 갈아 곡식을 파종하던 밭에 감귤 묘목들이 심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밭일과 관련된 농사 도구들이 빠르게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여기에서는 남원읍 일부 제보자에게서 조사할 수 있었던 농업 관련 도구를 파종 관련 도구, 김매기와 수확 도구, 건조와 손질 도구, 운반 도구, 계량 도구 기타 도구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1) 남원1리 정개은 씨 구술.
2) 위미2리 강도범 씨 구술.
3) 의귀리 양인필 · 현정자 씨 구술.

4.1. 파종 관련

4.1.1. 밭갈이 도구

(1) 잠대

'잠대'는 논밭을 가는 데 사용하는 농기구로 '쟁기'를 말한다. '잠대'는 소의 몸통에 둘러매는 '멍에'와 한쌍을 이루어 밭을 가는 데에 이용한다.

"요거는 보섭 요 나무는 몽클, 요거는 쟁기 성에, 요 나무는 설칫, 요거는 돌벵이뿔이고 요거는 양죽머리, 양죽머리엔 헙니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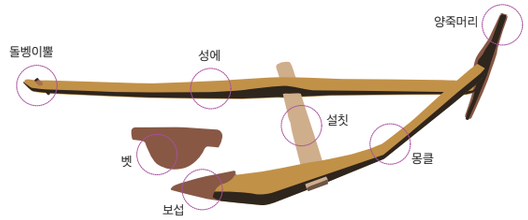
(요거는 보습 요 나무는 쟁깃술, 요거는 쟁기 성에, 요 나무는 한마루, 요거는 물추리막대이고 요거는 양지머리, '양죽머리'라고 합니다.)

"잠대는 가시낭. 이거 좀가시낭, 요것도 좀가시낭. 양죽머리는 소낭이우다. 이거 만든 지가 아메도 흔 오십 년은 뒛지. 흔 삼십, 삼십도 전이 헷어. 다 만들엇주, 나냥으로 다 만들엇어, 이거. 쓰기는 칠십오 년도까지 썼어. 칠십오 년도 뒈니까 나가 경운기를 가져왓거든. 칠십오 년도에, 칠십오 년도 아, 날짜는 모르겠네, 유월덜인디. 그 유월덜에 경운기를 가져오니까 이제 이것도 허고 소도 풀아 버리고. 소가 그때 필요 없으니까."[5]

(쟁기는 가시나무. 이거 '좀가시낭', 요것도 '좀가시낭'. 양지머리는 소나무입니다. 이거 만든 지가 아무래도 한 오십 년은 됐지. 한 삼십, 삼십도 전에 했어. 다 만들었지, 나대로 다 만들었어, 이거. 쓰기는 칠십오 년도까지 썼어. 칠십오 년도 되니까 내가 경운기를 가져왔거든. 칠십오 년도, 칠십오 년도 아, 날짜는 모르겠네, 유월인데. 그 유월에 경운기를 가져오니까 이제 이것도 하고 소도 팔아 버리고. 소가 그때 필요 없으니까.)

4) 의귀리 오희일 씨 구술.
5) 의귀리 오희일 씨 구술.
6) 의귀리 오희일 씨 구술.





〈사진 1〉 오희일 씨 소장 '잠대'

<사진 1>은 의귀리 오희일 씨(1941년생)가 사용했던 쟁기다. 오 씨가 직접 만들어 사용했던 것으로, 오 씨는 이 쟁기를 칠십오 년도 경운기를 장만할 때까지 사용했다고 한다. 쟁기의 본체는 가시나무이고 양지머리는 소나무로 만들었다고 한다.

(2) 멍에

'멍에'는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하여 마소의 목에 얹는 구부러진 막대를 말한다. 소나 말을 수레에 연결해서 수레를 끌거나 쟁기를 끌어 밭을 갈게 할 때, 소나 말에 수레나 쟁기를 연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다.



〈사진 2〉 오희일 씨 소장 '멍에'



〈사진 3〉 오희일 씨 소장 '멍에'(펼친 모습)

"이건 멍에, 이건 쉐 접궤 요거는 줄대, 요거는 등테, 이거는 벌레, 요거 오리목, 요건 영 헤근에 요걸 똑 무끄는 겁주. 벌레는 이거 영 조여지지 못허게. 여기 쉐가 살 거니까."[6]

(이건 멍에, 이건 소 목대 요거는 '줄대', 요거는 등태, 이거는 비겨미, 요거는 '오리목', 요거는 이렇게 해서 요걸 꼭 묶는 거지요. 비겨미는 이거 이렇게 조여지지 못하게. 여기 소가 설 거니까.)

<사진 2>는 의귀리 오희일 씨가 사용했던 '멍에'다. 앞의 구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멍에의 각각의 명칭을 오 씨가 상세히 설명하였다.

"접궤는 쉐 목에 허면은 멍에 벗어지지 말렌. 야게기에 걸려서 요거는 이런 뒷목에 가고 이거는 쉐 아굴탁에. 겐 이거 줄라무꺼 불어사 아니 벗어지주. 접궤는 윤노리, 윤노리라고 헷어. 곧작헌 걸로 허민 안 뒈여. 곧작헌 것도 이러큼 오그려야 뒈게 뒌 거주. 쉐 야가지가 이레 들어갈 거난. 낭 쪼금 오그라지 듯헌 거 끈어다가 좀 오그려서 불에 구워서. 이거(멍에)는 머귀낭으로도 허고 버드낭으로도 허고."[7]

(목대는 소 목에 하면 멍에 벗겨지지 말라고. 목에 걸려서 요거는 이런 목덜미에 가고 이거는 소 턱에. 그래서 이거 잘라매어야 안 벗겨지지. 목대는 윤노리, 윤노리라고 했어. 곧은 것으로 하면 안 돼. 곧은 것도 이렇게 오그려야 되게 된 거지. 소 목이 이리 들어갈 거니까. 나무 조금 오그라진 듯한 거 잘라다가 좀 오그려서 불에 구워서. 이거는 머귀나무로 하고 버드나무로도 하고.)

"(멍에는) 목수가 만들주. 거벼운 낭, 머귀낭으로 허고 접궤는 윤누리, 윤노리낭."[8]

((멍에는) 목수가 만들지. 가벼운 나무, 머귀나무로 하고 '접궤'는 윤노리, 윤노리나무.)



〈사진 4〉 오희일 씨 소장 '멍에'의 '접궤'



〈사진 5〉 오희일 씨 소장 '멍에'의 '벌레'와 '오리목'

7) 의귀리 오희일 씨 구술.
8) 의귀리 양인필 씨 구술.
9) 의귀리 오희일 씨 구술.

<사진 4>는 의귀리 오희일 씨의 멍에다. '멍에'는 '멍에'와 '접궤'로 이루어졌다. '접궤'는 멍에 가운데로 두 개의 나무를 꿰어서 목 아래로 매는 나뭇가지인데 표준어의 '목대'에 대응한다. 제보자에 따라서 '접궤'를 '줍게', '접게'라고도 한다. 의귀리 오희일 씨, 양인필 씨(1935년생)의 구술에 의하면 멍에는 가벼운 머귀나무로 하고, 목대는 윤노리나무로 만들었다고 한다.

"이건 멍굴로 멘든 거. 이거 다 만든 거주, 나가. 이거 다 나가 만든 거. 쟁기도 이거 나가 만든 거라. 산에 가서 이걸 걷어다가 이렇게 이렇게 헤 가지고 껍질을 싹 벗경. 옛날은 구정물에 컨 내벳주 막 오래. 이거 조물아정 부드럽게시리. 그땐 이건 다 멘드는 거난 자급자족으로. 멍굴로 멘드는데 나일론줄이 나오니까 이걸로 멘든 거, 나중에 교체헌 거."[9]

(이건 멀꿀로 만든 거. 이거 다 만든 거지, 내가. 이거 다 내가 만든 거. 쟁기도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산에 가서 이걸 걷어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껍질을 싹 벗겨서. 옛날은 구정물에 담가서 내버렸지, 아주 오래. 이거 물러져서 부드럽게끔. 그땐 이거 다 만드는 거니까 자급자족으로. 멀꿀로 만드는데 나일론줄이 나오니까 이걸로 만든 거, 나중에 교체한 거.)

<사진 5>는 멍에의 '벌레'와 '오리목' 부분이다. '벌레'는 멍에의 두 개의 줄이 소의 뒷다리에 닿지 않도록 두 줄 사이에 끼우는 막대기이고, '오리목'은 쟁기의 물추리막대에 묶어 멍에와 쟁기를 연결하는 줄이다. <사진 5>의 삼각형 모양의 줄은 의귀리 오희일 씨가 직접 산에서 멀꿀을 걷어다가 껍질을 벗겨 장만하여 만든 줄이다. 나일론줄이 나오기 전까지 농가에서는 농기구에 사용하는 줄들을 오 씨와 같이 직접 만들어 사용했다. <사진 5>에서 왼쪽의 줄은 나일론줄로 나중에 교체한 것이라고 한다.

(3) 보섭과 벳

'보섭'은 쟁기 따위 농기구의 술바닥에 끼우는, 넓적한 삽 모양의 쇳조각으로 표준어 '보습'에 대응한다. '벳'은 '보섭' 위에 비스듬하게 덧댄 쇳조각으로 표준어로 '볏'이라고 한다.

"보섭은 봉오지에 찔르고 벳은 여기 시민 영 영 어프는 거. 그 갈아가는 벙에를 영 어퍼. 게민 뒤에서 가는."[10]
(보습은 봉우리에 찌르고 볕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엎는 거. 그 갈아가는 볏밥을 이렇게 엎어. 그럼 뒤에서 가는.)

"이거 잠대에 앞에 끼와 가지고. 이거 아니면 밭을 못 갈앗지. 이렇게 헤서 메와난 거지. 내 손으로 밧을 소에 메와서 갈앗기 때문에 알지. 이거 제대허고 와서 바로 농사일을 시작헷기 때문에. 이건 마지막에 써난 거지. 앞이 거는 돌, 자갈에서 밀려 가지고 이게 꺼꺼지기도 허고 돌로 망가져 가지고, 내중에 쓰단 보믄. 이거 농사지으면서 맨 마지막에 허단 그 후에 경운기가 나니까 이거 안 헌 거야."[11]
(이거 쟁기의 앞에 끼워서. 이거 아니면 밭을 못 갈았지. 이렇게 해서 메웠던 거지. 내 손으로 밭을 소에 메워서 갈았기 때문에 알지. 이거 제대하고 와서 바로 농사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건 마지막에 썼던 거지. 앞의 거는 돌, 자갈에서 밀려서 이게 꺾이기도 하고 돌로 망가져, 나중에 쓰다가 보면. 이거 농사지으면서 맨 마지막에 하다가 그 후에 경운기가 나오니까 이거 안 한 거야.)


〈사진 6〉 정개은 씨 소장 '보섭'


〈사진 7〉 정개은 씨 소장 '벳'

<사진 6>과 <사진 7>은 남원1리 정개은 씨가 보관하고 있는 보습과 벳이다. 보습은 밭을 갈 때 돌에 걸려 꺾이기도 하고 다이기도 한다. 정 씨는 농사를 지으면서 여러 개의 보습을 사용했는데, 경운기가 등장하면서 쟁기로 밭을 갈지 않게 되자 마지막에 사용했던 보습과 벳을 보관하고 있었다.

10) 의귀리 현정자 씨 구술.
11) 남원1리 정개은 씨 구술.

"잠대라고 쉐 메와서 밧 갈 때 이거. 이렇게 다 메와가지고 쭈르르르."[12]
(쟁기라고 소 메워서 밭 갈 때 이거. 이렇게 다 메워서, 쭈르르르.)

"벳이 요로큼 헤근에, 톡 허민 흙을 갈앙 올라오면은 딱 허게 넘어갑니다. 흑이 자처지는 거주."[13]
(볏이 요처럼 해서, 톡 하면 흙을 갈아서 올라오면 딱 하게 넘어갑니다. 흙이 젖혀지는 거지.)


〈사진 8〉 현원휴 씨 소장 '벳'


〈사진 9〉 오희일 씨 소장 '벳'


〈사진 10〉 김성찬 씨 소장 '벳'


〈사진 11〉 오춘화 씨 소장 '벳'

<사진 8>은 수망리 현원휴 씨(1932년생), <사진 9>는 의귀리 오희일 씨가 보관하고 있는 벳이다. 오 씨의 구술처럼 벳은 갈려서 올라온 흙을 젖히는 역할을 한다. <사진 10>은 수망리 김성찬 씨(1935년생)가 사용했던 벳이고, <사진 11>은 태흥2리 오춘화 씨(1947년생) 남편이 사용했던 벳이다.

12) 수망리 현원휴 씨 구술.
13) 의귀리 오희일 씨 구술.

4.1.2. 땅 파는 도구

(1) 갈레죽

'갈레죽'는 흙을 파헤치거나 떠서 던지는 도구인 '가래'를 말한다. 근래에 와서는 '갈레죽'이라는 명칭보다는 '삽'이라는 명칭을 더 많이 사용하는데, 나무로 만든 것을 '낭삽'이라고도 한다.



〈사진 12〉 고방순 씨 소장 '갈레죽'

<사진 12>는 신례1리 고방순 씨(1937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갈레죽'이다. 전체 길이는 76㎝이고, '갈레죽'의 판의 크기는 28㎝×18㎝이다. '갈레죽'의 경우는 길이가 길면 자루가 부러지기 쉽기 때문에 자루의 길이가 비교적 짧은 편이다.

"낭으로 된 건 아주 엿날. 그 모양만은 나도 봐난 도래가 잇는디, 우리 세대엔 엇엇어. 조룩은 낭으로 된 것도 하주."[14]
(나무로 된 거 아주 옛날. 그 모양만은 나도 봤던 적이 있는데, 우리 세대에는 없었어. 자루는 나무로 된 것도 많지.)

"그건 구뎅이 팔 때 대중 쓰곡 밧디도 쓰주게. 그런 때 계속 써, 삽 계속 써. 고구마 종자 놓젠 허민."[15]
(그건 구덩이 팔 때 대중 쓰고 밭에도 쓰지. 그런 때 계속 써, 삽 계속 써. 고구마 종자 놓으려고 하면.)

"그런 때나 쓰곡. 또 우리 무신 나무, 우리 미깡낭 심젠 허민 그걸로 다 헷주."[16]
(그런 때나 쓰고. 또 우리 무슨 나무, 우리 귤나무 심으려고 하면 그걸로 다 했지.)

의귀리 양인필 씨는 나무로 된 삽을 보기는 했지만 사용해 보지는 않았다고 한다. 나무삽은 양 씨 이전 세대에서 사용했던 것이다. 지금은 쇠로 되어 있는 삽을 고구마 종자를 심기 위해 구덩이 팔 때 등에 사용하고 있다. 현정자 씨는 귤나무를 심을 때도 일일이 삽으로 묘목 심을 자리를 파서 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삽이야 나무 묘목 심을 때. 저 메종, 메종 심을 때 호박도 심곡. 이렇게 파 가지고 밑에 거름 놓고 흙 덮어 가지고. 모종을 심어야 뒈니까 그때는 삽이 꼭 필요허여. 삽 없이 못 허지. 호박이나 뭐 오일 놓든가 이런 고구마 묘를 헐 때도 지금도 계속 쓰는 거지."[17]
(삽이야 나무 묘목 심을 때. 저 모종, 모종 심을 때 호박도 심고. 이렇게 파서 밑에 거름을 넣고 흙 덮어서. 모종을 심어야 되니까 그때는 삽이 꼭 필요해. 삽 없이 못 하지. 호박이나 뭐 오이를 놓던가 이런 고구마 모종을 할 때도 지금도 계속 쓰는 거지.)

"옛날에게 감저 구뎅이도 파고 또 미깡 구뎅이도 파고 또 영장밧디 갈 때도 사용허고. 또 집이서 뭐 배추나 놈삐, 뭐 우영에 싱그주게. 이젠 뭐 미깡낭 좀 싱글 때도 쓰고."[18]
(옛날에 고구마 구덩이도 파고 또 귤(나무) 구덩이도 파고 또 장지에 갈 때도 사용하고. 또 집에서 뭐 배추나 무, 뭐 터앝에 심지. 이제는 귤나무 좀 심을 때도 쓰고.)



〈사진 13〉 정개은 씨 소장 '삽'



〈사진 14〉 김방언 씨 소장 '삽'

14) 의귀리 양인필 씨 구술.
15) 의귀리 현정자 씨 구술.
16) 의귀리 양인필 씨 구술.
17) 남원1리 정개은 씨 구술.
18) 신례1리 김방언 씨 구술.



〈사진 15〉 오경수 씨 소장 '삽'



〈사진 16〉 김두생 씨 소장 '농기구'

<사진 13>은 남원1리 정개은 씨가 보관하고 있는 삽이다. 삽은 나무 묘목을 심거나 모종을 심을 때 꼭 필요한 농기구로 정 씨는 지금도 삽을 사용하고 있다. <사진 14>는 수망리 김방언 씨(1957년생)가 사용하고 있는 삽이다. <사진 15>는 의귀리 오경수 씨(1941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삽이고, <사진 16>은 수망리 김두생 씨(1942년생)의 창고에 걸려 있는 삽을 비롯한 여러 농기구다.

(2) 따비

'따비'는 풀뿌리를 뽑거나 밭을 가는 데 사용하는 농기구다. 보습이 양 갈래로 되어 있고 사람이 직접 손과 발을 이용하여 판다. 화전을 일구거나 쟁기로 갈 수 없는 밭이나 돌이 많은 밭을 일굴 때, 밭을 개간할 때 썼던 도구다.

"따비 잇주. 우리는 벨로 안 썻는디 우리 조상들은 썻주. 밑에 저 철로, 두 개짜리 잇고."[19]

(따비 있지. 우리는 별로 안 썼는데 우리 조상들은 썼지. 밑에 저 철로, 두 개짜리 있고.)

"웨 이거 나가 있느냐 허면 처음에 나가 바나나 농사를 헷어. 바나나 농사를 헹 뿔리를 빠젠 허면 이걸로. 나 한 서른다섯쯤 뒐 때 시작헷지. 미깡낭 혼참 허다가 바나나 붐이 막 일어 가지고 바나나 시세가 좋으니까 그때는 웨국산 수입이 안 들어올 때주게. 안 들어올 때니까 그때는 바나나 농사가 잘뒛지, 잘둬 가지고 계산이 맞았지. 그 이후에 수입 개방둬니까 나가 바나나 허단 그때 끗나 불엇주게. 수입 개방둬니까 기름값도 안 나오지. 바나나 농사가 한 삼 년 지엇어, 삼 년. 바나난 일 년 내기니까 일 년 농사허믄 새로 심어서 키와야 둬고. 바나나 농산 일 년 싱경 수확헤 나민 뿌리 파 가지고 새로 묘목 심어야 둬고."[20]

(왜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처음에 내가 바나나 농사를 했어. 바나나 농사를 해서 뿌리를 빼려고 하면 이것으로. 나 한 서른다섯쯤 될 때 시작했지. 감귤나무 한참 하다가 바나나 붐이 마구 일어서 바나나 농사가 잘됐지, 잘돼서 계산이 맞았지. 그 이후에 수입 개방되니까 내가 바나나 하다가 그때 끝나 버렸지. 수입 개방되니까 기름값도 안 나오지. 바나나 농사가 한 삼 년 지었어, 삼 년. 바나나는 일 년 내기니까 일 년 농사하면 새로 심어서 키워야 되고. 바나나 농사는 일 년 심어서 수확하고 나면 뿌리 파서 새로 묘목 심어야 되고.)

"그것도 마찬가지. 처음은, 처음은 이거 만들엉 허다가. (바나나 낭) 계속헐 수도 잇어. 헐 수도 잇는데 옆으로 새끼 모종 난 거 그걸로 키우면은 저 좋질 안허여. 상품성이 잘 안 나오니까 매년 새로 심어서. 저 바나나를 생산헤낫주. 옛날은 낭으로 헤가지고 밑에만 보섭 모냥으로 찔러가지고 이추룩 헷지. 그거 우리도 써낫지. 그건 사람이 돌아가면은 영장날도 가근에 땅 파고 이 밧 개간헐 때. 저 테역밧디, 테역밧도 옛날도 저 삽이 잇어. 나무 조록 헌 삽이 잇엇는데 돌팟덜, 자갈 많은 디 그걸로 밧을 갈앗지. 우리도 그걸 써 봣지. 써 봣주만은 쓰기가 불편헷어."[21]

(그것도 마찬가지. 처음은, 처음은 이거 만들어서 하다가. (바나나 나무) 계속할 수도 있어. 할 수도 있는데 옆으로 새끼 모종 난 거 그걸로 키우면 저 좋지 않아. 상품성이 잘 안 나오니까 매년 새로 심어서. 저 바나나를 생산했었지. 옛날은 나무로 해서 밑에만 보습 모양으로 찔러서 이처럼 했지. 그거 우리도 썼었지. 그건 사람이 돌아가면 장삿날도 가서 땅 파고 이 밭 개간할 때. 저 꼴밭, 꼴밭도 옛날도 저 삽이 있어. 나무 자루 한 삽이 있었는데 돌밭들, 자갈 많은 데 그걸로 밭을 갈았지. 우리도 그걸 써 봤지. 써 봤지만 쓰기가 불편했어.)

19) 의귀리 양인필 씨 구술.
20) 남원1리 정개은 씨 구술.
21) 남원1리 정개은 씨 구술.



〈사진 17〉 정개은 씨 소장 '따비'



〈사진 18〉 정개은 씨 소장 '따비'

<사진 17>과 <사진 18>은 남원1리 정개은 씨가 사용했던 따비로, 정 씨가 바나나 농사를 지을 때 바나나 나무의 뿌리를 캐려고 사용했다. 바나나 나무는 다음 해에서 옆으로 줄기를 벋은 모종에서 바나나를 수확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바나나는 상품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매년 모종을 새로 심어야 했다. 때문에 바나나를 수확하고 나면 바나나 나무를 캐내야 하는데 위 사진의 따비는 이때 사용했던 것이다.

(3) 곡괭이와 괭이

'곡괭이'는 땅이 묻힌 돌이나 나무뿌리 따위를 파낼 때 쓰는 쇠로 만든 농기구다. 길고 뾰족한 쇠붙이의 가운데에 긴 나무 자루를 박은 형태다. '곡괭이'는 '목괭이'라고도 한다. '괭이'는 밭을 새로 일구거나 땅을 팔 때, 그리고 흙을 고를 때 사용하는 도구다. 표준어의 '괭이'에 대응하는 말인데, 지역에 따라 '광이'라고도 부른다.

"목괭이는 돌 파. 게난 돌 이신 밧디 삽도 잘 안 들어가고 괭이도 잘 아이 들어가민 그 목괭이에 코지로 영 일러 놩 긁어내곡."[22]
(곡괭이는 돌을 파. 그러니까 돌이 있는 밭에 삽도 잘 안 들어가고 괭이도 잘 안 들어가면 그 곡괭이의 코로 이렇게 일구어 놔서 긁어내고.)

"돌덜 박아진 거 일르지 못허는 거. 이건 나가 산 거."[23]
(돌들 박힌 거 일으키지 못하는 거. 이건 내가 산 거.)

"돌도 파고 낭뿔리거튼 거 파는 거. 쒜는 오래뒌 건디 그 자룩은 이제야 멘든 거. 부러지민 새로 멘들고."[24]
(돌들 파고 나무뿌리같은 거 파는 거. 쇠는 오래된 건데 그 자루는 이제야 만든 거. 부러지면 새로 만들고.)

"괭이는 기자 거볍게시리 땅 쪼꼼 팔 적에. 저, 채소나 심을 때 경허곡 헷주."[25]
(괭이는 그저 가볍게 땅 조금 팔 적에. 저, 채소나 심을 때 그러고 했지.)



〈사진 19〉 현창언 씨 소장 '곡괭이'



〈사진 20〉 오경수 씨 소장 '곡괭이'



〈사진 21〉 김두생 씨 소장 '곡괭이'



〈사진 22〉 현원휴 씨 소장 '곡괭이'

22) 의귀리 현정자 씨 구술.
23) 남원1리 현창언 씨 구술.
24) 의귀리 오경수 씨 구술.
25) 의귀리 양인필 씨 구술.

<사진 19>는 남원1리 현창언 씨(1937년생), <사진 20>은 의귀리 오경수 씨가 사용했던 곡괭이다. 돌이나 나무뿌리를 캘 때 사용하는 것이다. 곡괭이의 쇠는 오래된 것이고, 그 위의 자루만 부러지면 새로 끼우고, 새로 끼우면서 사용해 온 것이다. <사진 21>은 수망리 김두생 씨, <사진 22>는 수망리 현원휴 씨가 보관하고 있는 곡괭이다.



〈사진 23〉 김길순 씨 소장 '손궹이'

<사진 23>은 신례1리 김길순 씨(1941년생) 사용하고 있는 괭이로 손잡이의 길이가 짧다. 보통 괭이는 서서 이것을 어깨 위로 들어 휘둘러 땅을 찍는데 <사진 23>의 괭이는 앉아서 작업을 하는 용도로 만들어졌다.

"영 수둠 올릴 때 수둠 줄 때. 높이 영 있으면 옆이 걸 영 흑 올리는 거. 뭐 지슬 같은 거 그런 거 수둠 올릴 때."[26]

(이렇게 북 올릴 때 북 줄 때. 높이 이렇게 있으면 옆의 걸 이렇게 흙 올리는 거. 뭐 감자 같은 거, 그런 거 북 올릴 때.)



〈사진 24〉 오경수 씨 소장 '궹이'



〈사진 25〉 오희일 씨 소장 '궹이'

<사진 24>는 의귀리 오경수 씨가 감자 등의 북을 올릴 때 사용하는 괭이다. <사진 25>는 오희일 씨가 흙을 고를 때 사용하는 괭이다.

(4) 쉐스랑

'쉐스랑'은 땅을 파헤쳐 고르거나 두엄, 풀 무덤 따위를 쳐내는 데 쓰는 갈퀴 모양의 농기구다. 표준어의 '쇠스랑'에 대응하는데, 제보자에 따라 '쉐스랑'이라고 하기도 하고, '쉐시랑', '소스랑', '쉐스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쉐스렁은 걸름 뿌릴 때 쓰는 거고. 소막에 소걸름 틀 때도 쓰곡 경허는 도구고."[27]

(쇠스랑은 거름 뿌릴 때 쓰는 거고. 외양간에 소두엄 뜰 때도 쓰고 그러는 도구이고.)

"옛날 걸름 내곡 땅 파곡. 손잡이 나가 바꾼 거."[28]

(옛날 거름 내고 땅 파고. 손잡이 내가 바꾼 거.)

"땅 팔 때, 거름팟, 저 옛날에는 그게 옛날 통시덜 헤나지 안헷어. 그 걸름 허고 쉐 길러나면은 쉐걸름 풀 때 그거 찍어근에 내쳐낫주. 혼 사십 때까지 도새기 질롸난 거 닮아. 그때 뒈 가난 다 신식이 뒈 가니까 도새기도 안 질루고 소도 목장 거튼 디 놩 허단에 차차차차 엇어지지 시작허난 다 엇어져 불엇주."[29]

(땅 팔 때, 거름밭, 저 옛날에는 그게 옛날 돼지우리들 했었지 않아. 그 거름 하고 소 기르면 쇠두엄 풀 때 그거 찍어서 내었었지. 한 사십 때까지 돼지 길렀던 거 같아. 그때 돼 가니까 다 신식이 돼 가니까 돼지 안 기르고 소도 목장 같은 데 놔서 하다가 차차차차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다 없어져 버렸지.)

"그거는 여기서 밧 작업헐 때 쓰는 거. 옛날엔 주로 거름을 트거나, 그때는 뒈지를 키왔으니까 필수 하나씩은 잇엇는데, 거기서 거름을 낼려면 그것이 꼭 필요했어요."[30]

(그거는 여기서 밭 작업할 때 쓰는 거. 옛날에는 주로 거름을 트거나, 그때는 돼지를 키웠으니까 필수 하나씩은 있었는데, 거기서 거름을 내려면 그것이 꼭 필요했어요.)

26) 의귀리 오경수 씨 구술.
27) 의귀리 양인필 씨 구술.
28) 남원1리 고영주 씨 구술.
29) 신례1리 김석종 씨 구술.
30) 태흥2리 김용남 씨 구술.



〈사진 26〉 고영주 씨 소장 '쉐스랑'



〈사진 27〉 현원휴 씨 소장 '쉐스랑'



〈사진 28〉 김석종 씨 소장 '소스랑'



〈사진 29〉 김용남 씨 소장 '족은 쉐스렁'

<사진 26>은 남원1리 고영주 씨가 사용하고 있는 쇠스랑이다. 쇠스랑의 갈퀴는 쇠로 되어 있어 계속 사용할 수 있는데, 나무로 되어 있는 자루는 오래되면 삭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한다. 고 씨는 쇠스랑의 자루를 직접 곧은 나무를 구해 바꿔 끼웠다고 한다. 자루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길이를 달리할 수 있는데, <사진 26>은 큰 키의 고 씨에게 맞도록 제작되어 자루의 길이가 길다.

<사진 27>은 수망리 현원휴 씨가 사용했던 쇠스랑이고, <사진 28>은 신례1리 김석종 씨(1938년생)가 사용했던 쇠스랑이다. 쇠스랑의 주 용도는 땅을 파고 거름을 내는 것이다. 신례1리 김석종 씨는 주로 돼지우리나 외양간의 거름을 낼 때 쇠스랑을 사용했는데, 농업 방식이 신식으로 바뀌면서 돼지나 소를 키우지 않게 되었고, 그러면서 쇠스랑도 사용할 일이 없었다고 한다.

<사진 29>는 태흥리 김용남 씨(1946년생)가 사용하고 있는 작은 쇠스랑으로, 갈퀴 부분의 크기는 다른 쇠스랑과 같은데 자루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다. 김 씨는 쇠스랑은 예전 돼지우리의 거름 작업을 할 때 꼭 필요한 농기구였기에 농가마다 하나씩은 있었다고 한다. 지금 <사진 29>의 작은 쇠스랑은 밭일을 할 때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4.2. 김매기와 수확 관련

4.2.1. 호미류

(1) 골겡이

'골겡이'는 표준어의 '호미'로, 김을 매거나 고구마 따위의 농작물을 캘 때 사용하는 농기구다. 지역이나 사람에 따라 '골각지', '골게기'라고도 하는데, 사용 용도나 밭의 환경에 따라서 호미의 날, 자루, 손잡이 모양이나 크기가 다르다.



〈사진 30〉 오희일 씨 소장 '골겡이'



〈사진 31〉 강복자 씨 소장 '뒈약세기'

<사진 30>은 의귀리 오희일 씨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호미이고, <사진 31>은 의귀리 오경수 씨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호미다. <사진 30>의 호미의 손잡이는 오 씨가 직접 나무를 잘라 손잡이를 고쳐 사용하고 있다.

"이것도 검질메는 거주. 검질 존존헐 때 영 긁어 불민 뒈여. 이거 중간에 나온 거." [31]
(이것도 김매는 거지. 김 자잘할 때 이렇게 긁어 버리면 돼. 이거 중간에 나온 거.)

31) 신례1리 강문선 씨 구술.



〈사진 32〉 양경용 씨 소장 '골겡이'



〈사진 33〉 현원휴 씨 소장 '골겡이'



〈사진 34〉 현순열 씨 소장 '골겡이'



〈사진 35〉 강문선 씨 소장 '골겡이'

<사진 32>는 위미2리 양경용 씨(1941년생)가 사용하고 있는 호미다. <사진 33>은 수망리 현원휴 씨가 사용했던 호미이고, <사진 34>는 위미2리 현순열 씨(1952년생)가 사용하고 있는 호미이다. <사진 35>는 신례1리 강문선 씨(1933년생)가 사용하고 있는 호미인데 다른 것들이 호미의 날이 상당히 넓다. 강 씨는 사진의 호미도 김을 맬 때 사용하는 것인데, 김이 자잘했을 때 땅을 긁어내는 데에 사용한다고 한다. <사진 32>부터 <사진 35>까지에서 각각의 호미 날과 손잡이 모양이 조금씩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 남원1리 정개은 씨 구술.
33) 남원1리 현창언 씨 구술.

"이거는 검질멜 때 전부 다 쓰는 거지. 이거는 어디냐면 우리가 저 거름 산에, 그때 우리가 무신 거름을 사냐 허면 돈분이나 양계장에서 파는 계분. 그거 사면은 이거 깔쿠리야. 깔쿠리 헤 가지고 끗어가는 거. 거름 마대 담아진 거 영 끗어가는 거."[32]
(이거는 김맬 때 전부 다 쓰는 거지. 이거는 어디냐면 우리가 저 거름을 사서, 그때 우리가 무슨 거름을 샀는가 하면 돈분이나 양계장에서 파는 계분. 그거 사면 이거 갈고리야, 갈고리 해서 끌어가는 거. 거름 마대에 담긴 거 이렇게 끌어가는 거.)



〈사진 36〉 정개은 씨 소장 '골겡이'



〈사진 37〉 정개은 씨 소장 '깔쿠리'

<사진 36>과 <사진 37>은 남원1리 정개은 씨가 보관하고 있는 호미와 갈고리다. 호미는 지금도 김맬 때 사용하는 것이고, 갈고리는 거름이 든 마대 따위를 끌 때 사용했던 것이다.

한편, 남원리 조사에서는 서서 과수원의 잡풀을 제거하는 도구도 조사할 수 있었다.

"이거 김매는 거. 요새는 앉앙 안 매, 과수원 밭에. 이렇게 이렇게 극는 거지. 이건 신식으로 나온 거."[33]
(이거 김매는 거. 요새는 앉아서 안 매, 과수원 밭에. 이렇게 이렇게 긁는 거지. 이건 신식으로 나온 거.)



〈사진 38〉 현창언 씨 소장 '김매는 도구'



〈사진 39〉 풀을 긁어내는 시범을 보이는 현창언 씨

<사진 38>은 남원1리 현창언 씨가 소장하고 있는 김매는 도구다. 현 씨가 과수원에 사용하는 것으로 과수원에 난 풀을 앉아서 일일이 매기 힘들기 때문에 과수원을 돌아다니면서 어린 풀들을 긁어내는데 그때 이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다. <사진 39>는 현 씨가 직접 풀을 긁어내는 시범을 보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2) 호미

'호미'는 곡식이나 나무, 풀 따위를 벨 때 사용하는 도구로, '낫'을 말한다. 베는 곡식이나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낫의 날이나 자루의 모양이나 크기가 조금씩 다르다.

"이거 뭐 빌 때. 옛날에 조도 비고 산디도 비고 보리도 비고. 이건(손잡이) 깨지니까 나가 멘든 거지."[34]

(이거 뭐 벨 때. 옛날에 조도 베고 밭벼도 베고 보리도 베고. 이건(손잡이) 깨지니까 내가 만든 거지.)

"이거 빔질허는 거. 산에 강 검질 헹 비어 와사, 팔월 나민 눌엇다가 그걸로 불 솜앙 밥헤 먹고, 불 땔 거로. 보리도 비고, 보리도 비민 나가 얼마나 빨리 비카 부덴?"[35]

(이거 베는 일하는 거. 산에 가서 검불 해서 베어 와야, 팔월 되면 쌓았다가 그걸로 불 때서 밥해 먹고, 불 땔 거로. 보리도 베고, 보리도 베면 내가 얼마나 빨리 벨까 봐?)

34) 의귀리 오경수 씨 구술.
35) 위미2리 양경용 씨 구술.



〈사진 40〉 오경수 씨 소장 '호미'



〈사진 41〉 양경용 씨 소장 '호미'



〈사진 42〉 오희일 씨 소장 '호미'



〈사진 43〉 정개은 씨 소장 '호미'

<사진 40>은 의귀리 오경수 씨가 보관하고 있는 낫이다. 손잡이는 원래 있었던 것이 깨져 오 씨가 직접 만들었다고 한다. 낫은 조나 밭벼 등 곡식을 수확할 때 사용했던 것이다. <사진 41>은 위미2리 양경용 씨(1941년생)가 사용하고 있는 호미다. 예전 땔감을 마련하거나 보리를 벨 때 호미가 필요했다. <사진 42>는 의귀리 오희일 씨가 사용하고 있는 낫이고, <사진 43>은 남원1리 정개은 씨가 보관하는 낫이다.

"이건 내가 하우스 안에 밀감 돌아메는 인부들 빌어 가지고 전부 다 돌아메민 일 년 농사기 때문에 농사져 나민 그 끈 자르는 거, 하우스에 그 끈이 높이 매달기 때문에 그거 짜르는 호미. 하우스에 그 유인 끈, 유인 끈이라고 헤. 한라봉이든 뭐든 이렇게 헤 가지고 전부 돌아메야 뒈니까. 전부 줄 매지. 밀감이 거 상허지 안허게 바람 부나 뭐 헤도, 사람이 뎅겨도 상처 안 나게 노프게 돌아메는 거. 그 유인 끈 짜르기로 쓰는 거, 이거. 요즘은 팔더라고, 팔아도 그전에는 팔도 안허니까 전부 다 만들어 썻지."[36]
(이건 내가 하우스 안에 밀감 달아매는 인부들 빌려 가지고 전부 다 달아매면 일 년 농사이기 때문에 농사지고 나면 그 끈 자르는 거, 하우스에 그 끈을 높이 매달기 때문에 그거 자르는 호미. 하우스에 그 유인 끈, 유인 끈이라고 해. 한라봉이든 뭐든 이렇게 해 가지도 전부 달아매야 되니까. 전부 줄 매지. 밀감이 거 상하지 않게 바람이 불거나 뭐 해도, 사람이 다녀도 상처 안 나게 높이 달아매는 거. 그 유인 끈 자르기로 쓰는 거, 이거. 요즘은 팔더라고, 팔아도 그전에는 팔지도 않으니까 전부 다 만들어 썼지.)

"방풍낭 가지치기허는 거, 숙대낭거튼 거."[37]
(방풍나무 가지치기하는 거, 삼나무같은 거.)


〈사진 44〉 정개은 씨 소장 '호미'


〈사진 45〉 현창언 씨 소장 '호미'

<사진 44>는 남원1리 정개은 씨, <사진 45>는 남원1리 현창언 씨가 사용하고 있는 낫이다. 두 사진의 낫 모두 과수원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사진 44>는 시설 재배하고 있는 과일나무의 열매가 처지지 않도록 올려 묶었던 줄들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사진 45>는 과수원의 방풍용 삼나무를 가지치기할 때 사용하는 낫이라고 한다. 높이 달려 있는 것을 제거할 때 굳이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손잡이를 길게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다.

"낭가지같은 거 찍는 거주."[38]
(나뭇가지같은 거 찍는 거지.)

"가지고 뎅기면서 밭에 풀, 담에 얽어진 풀 짤르는 거."[39]
(가지고 다니면서 밭의 풀, 담에 얽힌 풀 자르는 거.)


〈사진 46〉 김두천 씨 소장 '호미'


〈사진 47〉 현창언 씨 소장 '호미'


〈사진 48〉 오경수 씨 소장 '호미'


〈사진 49〉 정개은 씨 소장 '호미'

36) 남원1리 정개은 씨 구술.
37) 남원1리 현창언 씨 구술.
38) 수망리 김두천 씨 구술.
39) 남원1리 정개은 씨 구술.

<사진 46>은 수망리 김두천 씨(1934년생), <사진 47>은 남원1리 현창언 씨, <사진 48>은 의귀리 오경수 씨가 사용하고 있는 낫이다. <사진 46>에서 <사진 48>의 낫들은 풀을 제거하거나 곡식을 수확할 때 사용하는 낫에 비해 날이 두껍고 단단하게 만들어졌는데 나뭇가지 등을 잘라낼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진 49>는 남원1리 정개은 씨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정 씨가 가지고 다니면서 밭이나 밭담에 벋은 덩굴풀을 자르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4.2.2. 타작 도구

(1) 도께

'도께'는 표준어의 '도리깨'로 곡식의 낟알을 떠는 데 쓰는 농기구다. 긴 막대기의 한쪽 끝에 곧고 가느다란 나뭇가지 두세 개를 달아서 막대기를 휘두르면 매달린 나뭇가지가 돌아가도록 만들어졌다.

"콩도 두드리고, 팟도 두드리고, 보리도 두드리고 다 헤낫어. 설남은에 헤실 거주. 저거는 허당 헐민 그냥 고청 쓰곡, 고청 쓰곡 헌 건디. 이거 고자 썬에 이거 콩 올린 안 싱그난 거주, 이거 놔둠서 쓰는 거. 콩 영 헹 ᄒᆞ썰 헌 거 이디 놩 두드리고. 족은 건 몽둥이로 두드령도 허고, 영헌 디 벌영 이걸로 두드렷주게. 겨난 이거 작년꺼장 헌 거. 작년꺼장 헌 건디 이젠 안 헐 거. 아무 콩이라도 이 엠에 싱거 노민 ᄒᆞ쏠 안아당 놩 요걸로 두드리고. 족으민 막뎅이라도 ᄯᅮ리고 헹, ᄒᆞ썰 하민 저걸로 두드리고."[40]

(콩도 두드리고, 팥도 두드리고, 보리도 두드리고 다 했었어. 서른 조금 넘었을 때 했을 거야. 저거는 하다가 헐면 그냥 고쳐서 쓰고, 고쳐서 쓰고 한 건데. 이거 곧이 써서, 이거 콩 올해는 안 심으니까 그거지, 이거 놔두고 쓰는 거. 콩 이렇게 해서 조금 한 거 여기 놔서 두드리고. 적은 건 몽둥이로 두드려서도 하고, 이런 데 벌여서 이걸로 두드렸지. 그러니까 이거 작년까지 한 거. 작년까지 한 건데 이젠 안 할 거. 아무 콩이라도 이 옆에 심어 놓으면 조금 안아다가 놔서 요걸로 두드리고. 적으면 막대기라도 때리고 해서, 조금 많으면 저걸로 두드리고.)

40) 수망리 현금옥 씨 구술.
41) 의귀리 양인필 씨 구술.
42) 의귀리 현정자 씨 구술.



〈사진 50〉 현금옥 씨 소장 '도께'



〈사진 51〉 '도께'로 타작하는 시범을 보이는 김두천 씨

<사진 50>은 수망리 김두천 · 현금옥 씨(1934년생)가 사용하고 있는 도리깨다. 서른 즈음에 이 '도께'를 처음 만들고서 고장나면 고치고, 고장나면 또 수리하면서 사용해 왔다. 최근까지도 과수원 담 옆으로 콩을 갈면 그것을 타작할 때 사용했다고 한다. <사진 51>은 김두천 씨가 직접 도리깨를 들어 타작하는 시범을 보이고 있다.

(2) 홀테

'홀테'는 표준어의 '훑이'에 대응하는 말로, 여기서는 보리를 훑는 데 쓰는 농기구를 말한다. '클(그네)'이라고도 하는데 보리를 훑을 때 사용하는 그네를 '보리클', '산디(밭벼)'를 훑을 때 쓰는 것을 '산디클', '나룩(벼)'을 훑을 때 쓰는 것을 '나룩클'이라고 한다.

"홀테로 홀타 놩 간단허게 또 도께로 두드리주."[41]
(훑이로 훑아 놓고 간단하게 또 도리깨로 두드리지.)

"홀트는 거 영 헤긴에 쌀이 영 헹 잇주. 잇이민 영 ᄒᆞᆫ 줌 심엉 쌀드레 탁 걸쳥 박 둥기민 저레 열맨 털어지고 찍은 이디 나오고. 클, 클, 보리클."[42]
(훑는 거 이렇게 해서 살이 이렇게 해서 있지. 있으면 이렇게 한 줌 잡아서 살에 탁 걸쳐서 박 당기면 저리 열맨 떨어지고 짚은 여기 나오고. 그네, 그네, 보리그네.)

보리 따위를 타작할 때는 의귀리 양인필 씨의 구술처럼 그네로 먼저 훑아 놓고 도리깨로 두드려 타작한다. 의귀리 양인필 씨와 현정자 씨(1937년생)는 보리를 훑을 때 사용하는 도구를 '홀테', '보리클'이라고 했다.

4.3. 건조와 손질 관련

4.3.1. 건조 도구

(1) 멍석

'멍석'은 짚을 꼰 새끼를 결어 네모나게 만든 큰 깔개다. 보통 곡식을 널어 말리는 데 사용하는데, 곡식을 손질하거나 맷돌로 곡식을 거피할 때도 이용하였다.

"멍석은 그때 농서헤근에 장만헤근에 말리젠 허민 대여섯 개 잇어난디 그럭저럭 허멍 다 앗아가난. 저거 다 나가 만든 거난. 나 혼 설남은 설에 만든 거난. 그때는 살 수도 엇고, 그때 장가가근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른덜 빌어근에 만든 것도 잇고."[43]

(멍석은 그때 농사해서 장만해서 말리려고 하면 대여섯 개 있었는데 그럭저럭 하면서 다 가져 가니까. 저거 다 내가 만든 거니까. 내가 한 서른 조금 나이에 만든 거니까. 그때는 살 수도 없고, 그때 장가가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른들 빌려다가 만든 것도 있고.)



〈사진 52〉 김성찬 씨 소장 '멍석'

<사진 52>는 수망리 김성찬 씨가 사용했던 '멍석'이다. 김 씨는 농사를 지으면서 곡식을 말리기 위해 대여섯 개의 멍석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은 <사진 52>의 멍석 하나만 남아 있다고 한다. 김 씨는 멍석을 직접 겯기도 하고 동네에서 멍석을 전문적으로 겯는 어른에게 부탁하여 만들기도 했다.

"멍석이 꼬부라지지 말렌 거 담앙 놔둿주. 멍석 지금도 써, 참깨 말릴 적에. 이거 오래서. 나 혼 스무살 때부터."[44]

(멍석이 꼬부라지지 말라고 거 담아서 놔뒀지. 멍석 지금도 써, 참깨 말릴 적에. 이거 오랬어. 나 한 스무살 때부터.)



〈사진 53〉 정개은 씨 소장 '멍석'



〈사진 54〉 오경수 씨 소장 '멍석'

<사진 53>은 남원1리 정개은 씨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멍석'이고, <사진 54>는 의귀리 오경수 씨가 사용하고 있는 멍석이다. 오 씨는 세워서 보관하는 멍석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가운데 곧고 긴 나무를 넣어 보관하고 있었다. 오 씨는 지금도 참깨 따위를 말릴 때 멍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2) 솔박

'솔박'은 나무를 둥그스름하면서도 납작하게 파서 만든 바가지 비슷한 도구다. '솔박'은 주로 곡식을 퍼 담거나 곡식의 쭉정이 등을 없애기 위해 곡식을 바람에 드릴 때 사용했다.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던 것을 근래에 와서는 플라스틱이나 양철로 만들어 사용하는데, 남원읍 지역 조사에서는 여러 가정에서 나무로 된 '솔박'을 아직도 보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솔박'은 제보자에 따라 '손박'으로 불리기도 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좀팍'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43) 수망리 김성찬 씨 구술.
44) 의귀리 오경수 씨 구술.

"곡석 헤근에 영 거리고 불리고 허는 거. 저거 하이고, 멧 설이나 뒈시코? 나가 우리 나이로 팔십팔이라. 게난 그때난에 혼 스무 살에부터 헤실 거라. 나가 살렴 살멍 헌 거난. 이거 남원리 장 헐 때 산 거. 나가 뭐옌, 시어멍신디 뭐옌 들어신고 허민 솔박 ᄒᆞ나로 혼세상 살암젠. 고양 아져 뎅경, 오래 아져 뎅경, 벌렁도 안허고. 이거 벌러지주게, 잘못헹 불라 불고 허민. 경 안헹 잘 썻젠 나 경 칭찬받앗어. 이거 깨지난 하르방 준 거."[45]

(곡식 해서 이렇게 뜨고 불리고 하는 거. 저거 아이고, 몇 살이나 됐을까? 내가 우리 나이로 팔십팔이야. 그러니까 그때니까 한 스무 살부터 했을 거야. 내가 살림 살면서 한 거니까. 이거 남원리 장 할 때 산 거. 내가 뭐라고,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들었는가 하면 '솔박' 하나로 한세상 산다고. 고이 가지고 다녀서, 오래 가지고 다녀서, 깨지도 않고. 이거 깨지지, 잘못해서 밟아 버리고 하면. 그렇지 않고 잘 썼다고 나 그렇게 칭찬받았어. 이거 깨지니까 할아버지(남편)가 꿰맨 거.)

"물린 거 아니, 사실 거라. 벌러져 가난 꿰멘 건 나가 꿰멧주. 우리 할망 버리는 게 없어. 저 구덕도 문딱."[46]

(물린 거 아니, 샀을 거야. 깨져 가니까 꿰맨 건 내가 꿰맸지. 우리 할머니(아내) 버리는 게 없어. 저 바구니도 모두.)



〈사진 55〉 현금옥 씨 소장 '솔박'



〈사진 56〉 현창언 씨 소장 '솔박'

<사진 55>는 현금옥 씨가 보관하고 있는 '솔박'이다. 현 씨가 결혼해서 살림을 시작한 스물 살쯤부터 사용한 것으로 육십 년 넘게 써 온 것이다. 현 씨는 '솔박'을 곱게 쓴다고 시어머니에게 칭찬받을 정도였다고 한다. 깨진 부분은 현 씨의 남편이 꿰매줘 지금까지 계속 사용해 왔다. <사진 56>은 현창언 씨 집에서 사용했던 '솔박'이다. 현 씨의 아내가 주로 사용하던 '솔박'이 금이 나자 현 씨가 꿰매주고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다. 두 '솔박' 모두 철사로 꿰맨 자국이 보인다.

"곡식 널엇다가 담을 때. 나무로 만든 거. 솔피낭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만들고, 복닥낭으로도 만들고. 오래뒌 거주, 우리가 사 온 거. 저거 우리 육십 년대 초에."[47]

(곡식 널었다가 담을 때. 나무로 만든 거. 쇠물푸레나무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만들고, 예덕나무로도 만들고. 오래된 거지, 우리가 사 온 거. 저거 우리 육십 년대 초에.)

"시어멍 써난 거 물려받은 거. 미깡 난 후에 안 썻주. 우리 시집온 땐 농사했어, 보리도 허고 ᄂᆞ물 씨도 갈고 조도 갈고. 보리, 조, 고구마, ᄂᆞ물 씨. 유채도 허고 촘ᄂᆞ물도 허고. ᄎᆞ메기 열매 열면은 그거 까서 씰 풀앗지."[48]

(시어머니가 썼던 거 물려받은 거. 귤 나온 후에 안 썼지. 우리 시집온 때는 농사했어, 보리도 하고 나물 씨도 갈고 조도 갈고. 보리, 조, 고구마, 나물 씨. 유채도 하고 '촘ᄂᆞ물'도 하고. 나물 씨는 'ᄎᆞ메기' 열매 열면은 그거 까서 씨를 팔았지.)

"이거 불림질헐 때 보리도 영 헹 불리고 또 조도 불리고 옛날에, 콩도 불리고. 이거 육십 년쯤에 사 온 거."[49]

(이거 불림질할 때, 보리도 이렇게 해서 불리고 또 조도 불리고 옛날에, 콩도 불리고. 이거 육십 년쯤에 사 온 거.)

<사진 57>은 의귀리 오경수 씨가 보관하고 있는 '솔박'이다. '솔박'은 쇠물푸레나무, 예덕나무 등을 사용해 만들었다고 한다. 전통사회에서는 마을에 '솔박'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오 씨는 육십 년대 초에 구입한 것이라고 한다. <사진 58>은 신례1리 김복선 씨(1942년생)가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아 사용했던 '솔박'이다. '솔박'은 귤 농사를 시작하여 다른 곡식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는 사용할 일이 많지 않다. 귤 농사

45) 수망리 현금옥 씨 구술.
46) 남원1리 현창언 씨 구술.
47) 의귀리 오경수 씨 구술.
48) 신례1리 김복선 씨 구술.
49) 남원1리 강순화 씨 구술.

를 하기 전에는 보리, 조, 고구마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나물을 재배하여 그 씨를 팔기도 했는데, 그 씨를 장만할 때 '솔박'이 필요했다고 한다. <사진 59>는 남원1리 정개은 씨, <사진 60>은 남원1리 고영주 씨(1935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솔박'이다.



〈사진 57〉 오경수 씨 소장 '솔박'



〈사진 58〉 김복선 씨 소장 '솔박'



〈사진 59〉 정개은 씨 소장 '솔박'



〈사진 60〉 고영주 씨 소장 '솔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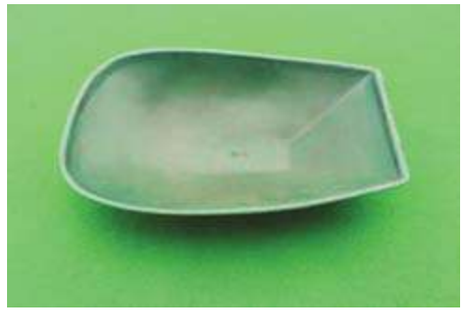
〈사진 61〉 김길순 씨 소장 '솔박'



〈사진 62〉 고신생 씨 소장 '솔박'



〈사진 63〉 오희일 씨 소장 '솔박'



〈사진 64〉 양경용 씨 소장 '솔박'

<사진 61>은 신례1리 김길순 씨, <사진 62>는 신례1리 고신생 씨(1931년생)가 사용했던 '솔박'이다. <사진 63>은 의귀리 오희일 씨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솔박'은 오 씨가 직접 만든 것으로 나무를 깎은 흔적이 보인다. <사진 64>는 위미2리 양경용 씨가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솔박'이다.

4.3.2. 체류

(1) 얼멩이

'얼멩이'는 구멍이 굵은 체로, 표준어의 '어레미'를 말한다. 주로 타작한 곡식을 손질할 때, 껍질이나 줄기 부스러기 등을 거를 때 '얼멩이'를 사용한다.

"그 얼멩이도 우리 아부지가 멘든 거, 지금도 우리 집사람은 써. 콩거튼 거 헐 때, 칠 때 거 쓰지."[50]

(그 어레미도 우리 아버지가 만든 거, 지금도 우리 집사람은 써. 콩같은 거 할 때, 칠 때 그거 쓰지.)

50) 수망리 현금옥 씨 구술.



〈사진 65〉 이대현 씨 소장 '얼멩이'

<사진 65>는 태흥2리 이대현 씨(1955년생)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레미다. 이 씨의 아버지가 만든 것으로, 지금까지도 콩을 타작한 후에 콩깍지를 걸러낼 때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전통적으로 <사진 65>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대나무를 엮어 만들어 사용했으나 근래에 와서는 쳇불을 철사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사진 66〉 고방순 씨 소장 '얼멩이'



〈사진 67〉 고방순 씨 소장 '얼멩이'(아래)

<사진 66>은 신례1리 고방순 씨가 사용했던 어레미다. 이 어레미는 가로 52㎝, 세로 52㎝의 크기의 정방형 모양이다. <사진 67>은 <사진 66> 어레미의 아랫부분 모습이다.

(2) 체

'체'는 곡식을 깨끗하게 손질하거나 가루를 곱게 칠 때, 또는 액체를 밭거나 거르는 데 쓰는 기루를 말한다. '체'도 쓰임에 따라 크기와 모양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쳇불의 구멍의 크기에 따라 체의 이름이 달라진다. 보통 쳇불의 구멍 큰 것부터 '대체, 대거름체, 거름체, 총체 또는 좀진체'라고 부른다. 체는 곡류나 가루의 종류에 따라 구멍의 크기가 다른 체를 골라 사용한다.



〈사진 68〉 고방순 씨 소장 '체'



〈사진 69〉 고방순 씨 소장 '체'(옆)

<사진 68>은 신례1리 고방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체다. 보통 체의 쳇불은 말총이나 명주실, 철사, 나일론으로 짜서 만드는데, <사진 68>의 쳇불은 대오리로 되어 있다. 가늘게 깎은 대오리를 격자 모양으로 엮어 만든 것이다. <사진 69>는 체의 옆 모습이다.

"체도 그 ᄀᆞ리에, 우리 살아올 때난 오죽 오래서게. 이거 물총. 이건 산. 고양 아져 뎅긴덴 헤, 아무것도. 이건 ᄀᆞ는체 이건 거름체 이보단 우이 건 저 무시거, 대거름체, ᄒᆞ꼼 홁은 거. 그보단 큰 건 대체, 그보단 큰 건 얼멩이. 이건 아멩헤도 오래여 가난에 어떵사 헹 헤신디 이거는 이제라 가난 장물 듬앗당 걸러. 겨난 아져 뎅기멍 막 잘 씻고 경헌 거."[51]

(체도 그즈음에, 우리 살아온 때니까 오랬어. 이거 말총. 이건 샀어. 고이 가지고 다닌다고 해, 아무것도. 이건 'ᄀᆞ는체' 이건 '거름체' 이보다는 위의 건 저 뭐, '대거름체', 조금 굵은 거. 그보다 큰 거는 '대체', 그보다 큰 건 어레미. 이건 아무래도 오래 되니까 어떻게 해서 했는지 이거는 이제야 간장 담갔다가 걸러. 그러니까 가지고 다니면서 아주 잘 씻고 그런 거.)

"첸디 이거는 무시거, 이거영 ᄀᆞ튼 거. 부튼 거란디 헐엉 떼진 거. 이거 멧 설 뒈신고 허민 나가 스물댓 설에 산 걸 거라."[52]

(첸데 이거는 뭐, 이거랑 같은 거. 붙은 거였는데 헐어서 떼진 거. 이거 몇 살 됐는가 하면 내가 스물댓 살에 산 걸 거야.)

51) 수망리 현금옥 씨 구술.
52) 수망리 현금옥 씨 구술.

<사진 70>과 <사진 71>은 수망리 현금옥 씨가 사용하고 있는 체다. 현 씨의 구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 씨는 체의 종류를 쳇불의 구멍이 작은 것에서 큰 순서로, 'ᄀᆞ는체-거름체-대거름체-대체-얼멩이'로 구분하고 있다. 가루나 액체를 거르는 그물 모양의 쳇불은 보통 말총이나 명주실, 철사 따위를 짜서 만든다. <사진 70>의 체는 말총으로 만든 것으로, 굵기가 제일 가는 가루 등을 치는 데 사용하는 'ᄀᆞ는체'다. 쳇바퀴에서 쳇불이 떼인 상태로 보관되어 있는데, 현 씨는 이것을 간장을 거를 때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사진 71>은 <사진 70>보다 쳇불의 구멍이 조금 큰 '거름체'다.



〈사진 70〉 현금옥 씨 소장 'ᄀᆞ는체'



〈사진 71〉 현금옥 씨 소장 '거름체'

"이거 뭐 저 작은 건 밑으로 내려가고 우의 건 걸르는 거. 젤 큰 건 얼멩이, 그다음 대체, 거름체, 좀진체. 총으로도 허고 쒜는 쪼금 막끝에 쒜로 나온 거."[53]

(이거 뭐 저 작은 건 밑으로 내려가고 위의 건 거르는 거. 제일 큰 건 어레미, 그다음 '대체', '거름체', '좀진체'. 총으로도 하고 쇠는 조금 마지막에 쇠로 나온 거.)

"대체, 거름체 여러 가진디 잘 모르겠네. 얼멩인 훍은 거 나오는 거고, 대체도 마찬가지고. ᄀᆞ는첸 이거보다 더 줄아. 건 ᄀᆞ루 치는 거."[54]

('대체', '거름체' 여러 가지인데 잘 모르겠어. 어레미는 굵은 거 나오는 거고, 대체도 마찬가지고. 'ᄀᆞ는체'는 이거보다 더 잘아. 건 가루를 치는 거.)

53) 의귀리 오경수 씨 구술.
54) 남원1리 현창언 씨 구술.



〈사진 72〉 오경수 씨 소장 '체'



〈사진 73〉 현창언 씨 소장 '체'

<사진 72>는 의귀리 오경수 씨, <사진 73>은 남원1리 현창언 씨 집에서 사용했던 체다. <사진 72>와 <사진 73>에서 쳇불에 구멍이 생기자 실과 천으로 체를 수선한 흔적이 보인다.



〈사진 74〉 김동곤 씨 소장 '체'



〈사진 75〉 김성찬 씨 소장 '체'



〈사진 76〉 오희일 씨 소장 '체'



〈사진 77〉 이대현 씨 소장 '체'


〈사진 78〉 고영주 씨 소장 '대체'

<사진 74>는 남원1리 김동곤 씨(1941년생), <사진 75>는 수망리 김성찬 씨의 아내가 사용했던 체다. <사진 76>은 의귀리 오희일 씨, <사진 77>은 태흥2리 이대현 씨 집에서 사용하는 체다. <사진 78>의 '대체'는 남원1리 고영주 씨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창고 한쪽 벽면 못에 걸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거 막걸리 걸르는 거. 걸렁 안 허면 이 쿨러로 뿌리는디 구지가 멕혀 가지고, 멕혀서 안 돼. 지금도 쓰는 거, 이거 파손되니까 이거지, 우리 하우스에는 새로 짜진 게 있어."[55]

(이거 막걸리 거르는 거. 걸러서 안 하면 이 스프링클러로 뿌리는데 입구가 막혀 가지고, 막혀서 안 돼. 지금도 쓰는 거, 이거 파손되니까 이거지. 우리 하우스에는 새로 짠 게 있어.)


〈사진 79〉 정개은 씨 소장 '막걸리 거름체'

<사진 79>는 남원1리 정개은 씨가 막걸리를 거르는 데에 사용하고 있는 체다. 정 씨는 귤나무에 거름용으로 막걸리를 뿌리는데 이것을 뿌릴 때는 스프링클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르지 않으면 클러가 막힌다고 한다. 대량의 막걸리를 거르기 편하도록 체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정 씨는 <사진 79>에서 손잡이처럼 나와 있는 나무막대 모서리 네 부분을 큰 통 위에 걸치도록 하고 막걸리를 쳇불에 부어 찌꺼기 등을 거른다고 한다.

55) 남원1리 정개은 씨 구술.
56) 남원1리 정개은 씨 구술.
57) 남원1리 정개은 씨 구술.

"이거 한 콘테나 사단 반은 쓰곡 반은 놔둔 거야. 나중에 쓸라고. 막걸리 밭에 뿌리는 거, 거름용으로."[56]

(이거 한 콘테이너로 사다가 반은 쓰고 반은 놔둔 거야. 나중에 쓰려고. 막걸리 밭에 뿌리는 거, 거름용으로.)

"일 년 농사허젠 허면은 오십 말은 계속 만들엇어, 오십 말. 나도 그전인 막걸리가 식물에 존 것도 몰랐는데, 이 화훼 허는 사름덜이 막걸리를 헤서 뿌리라는 말을 들어가지고. 뿌리에만, 우론 안 주고. 하우스니까 하우스 쿨러. 옛날 그 바나나 헐 때도 쿨러 잇으니까 쿨러로만 허지, 손으론 안 뿌려. 내가 막걸리를 주기 시작헌 거는 흔 십 년쯤 됏어. 딴 사름덜 벨로 안 헤. 그거 굉장히 번거롭고 일허는 게 까다로와. 걸러야, 걸렁 써야 허지. 뿌리가, 뿌리가 좋아지고 막걸리 허게 뒈면 이거 당밀이 들어가든 설탕이 들어가든 들어가야 뒈주게. 그거로 헤 가지고 그거 들어가민 그거 미깡 맛도 좋고."[57]

(일 년 농사하려고 하면 오십 말은 계속 만들었어, 오십 말. 나도 그전에는 막걸리가 식물에 좋은 것도 몰랐는데, 이 화훼 하는 사람들이 막걸리를 해서 뿌리라는 말을 들어서. 뿌리에만, 위로는 안 주고. (비닐)하우스니까 하우스 (스프링)클러. 옛날 그 바나나 할 때도 클러 있으니까 클러로만 하지, 손으로 안 뿌려. 내가 막걸리를 주기 시작한 거는 한 십 년쯤 됐어. 다른 사람들 별로 안 해. 그거 굉장히 번거롭고 일하는 게 까다로워. 걸러야, 걸러서 써야 하지. 뿌리가, 뿌리가 좋아지고 막걸리 하게 되면 이거 당밀이 들어가든 설탕이 들어가든 들어가야 되지. 그거로 해 가지고 그거 들어가면 그거 귤 맛도 좋고.)


〈사진 80〉 정개은 씨 소장 '누룩'

<사진 80>은 남원1리 정개은 씨가 보관하고 있는 누룩이다. 정 씨가 직접 이 누룩을 이용해 직접 막걸리를 만들어 귤나무에 거름용으로 막걸리를 뿌리는 것이다. 정 씨는 화훼농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막걸리가 나무에 좋다는 말을 듣고 십여 년 전부터 막걸리를 거름으로 썼는데, 일 년 귤 농사를 하려면 오십 말 정도의 막걸리를 만들었다고 한다. 막걸리는 나무뿌리 쪽으로만 스프링클러를 이용하여 뿌리는데, 이처럼 하면 귤의 당도가 높아져 맛이 좋다고 한다.

(3) 푸는체

'푸는체'는 곡식 따위를 까불러 쭉정이나 티끌을 골라내는 도구인 '키'를 말한다. '푸는체'는 갈무리할 곡식을 넣어 양손으로 위아래로 흔들어 까끄라기 등이 밖으로 나가게 한다. 이렇게 하여 곡식을 깨끗하게 장만하는 것이다.



〈사진 81〉 고방순 씨 소장 '푸는체'



〈사진 82〉 고방순 씨 소장 '푸는체'(뒷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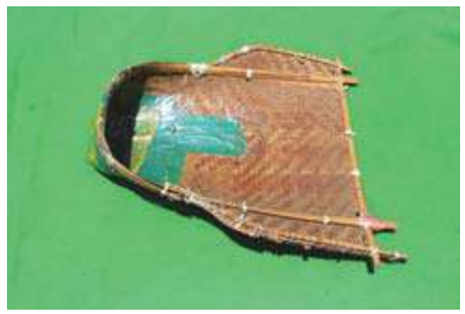
<사진 81>은 신례1리 고방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푸는체'다. 체가 닳은 부분에 헝겊이 덧대어져 있다. <사진 82>는 <사진 81> '푸는체'의 뒷면이다.

"푸는체도 나 온 후제 흔 육십 년 뒌 거. 것이 장에 강 산 거주. 전의 건 헐어 부난 서귀포장에 간에 사단에 쓰는 거주." 58)

(키도 내가 온 후에 한 육십 년 된 거. 그것이 장에 가서 산 거지. 전의 건 헐어 버리니까 서귀포시장에 가서 사다가 쓰는 거지.)



〈사진 83〉 오희일 씨 소장 '푸는체'



〈사진 84〉 양기화 씨 소장 '푸는체'

<사진 83>은 의귀리 오희일 씨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키다. 키 안쪽에 천을 덧붙여 사용하고 있다. <사진 83>은 '푸는체'에 유채 나물의 씨를 널어 말리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 84>는 태흥2리 양기화 씨(1938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키다. 이것은 양 씨가 시집온 후에 시장에 가서 구입하여 줄곧 사용해 온 것이라고 한다. 양 씨는 키가 헐어 올이 쪼개진 부분을 테이프를 붙여 고쳐 사용하고 있다.

4.3.3. ᄀᆞ레류

(1) 물ᄀᆞ레

'물ᄀᆞ레'는 방아를 찧을 때 사용했던 돌로, '연자매'를 말한다. 일반 맷돌보다 수십 배나 큰 것으로, '물(말)'이 돌리는 ᄀᆞ레(맷돌)이라고 해서 '물ᄀᆞ레'라고 불렸다.
실질적으로는 말을 이용하는 경우보다는 소를 더 많이 활용하였고 마소가 없을 때는 여러 사람이 함께 돌리기도 했다. '물ᄀᆞ레'를 지역이나 사람에 따라 '물방에'라 하기도 하고 '방엣돌', '방앗돌'이라고 하기도 한다. 마을마다 여러 개의 '물ᄀᆞ레'를 두어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곡식을 찧는 데 이용했다.

"물ᄀᆞ렌 동네마다 잇어난. 보리 골 땐 물 들주게, 물 들어. 물 놩 버무려사 그걸 골아지주. 게난 사름이 더 들주게. 조곡 무시거 강 골젠 허민 두 사름으론 못 헤여, 세 사름이나." 59)

(연자매는 동네마다 있었어. 보리 갈 때는 물이 들지, 물이 들어. 물을 넣어서 버무려야 그걸 갈 수 있지. 그러니까 사람이 더 들지. 조고 뭐 가서 갈려고 하면 두 사람으로는 못 해, 세 사람이나.)

58) 태흥2리 양기화 씨 구술.
59) 의귀리 양인필 · 현정자 씨 구술.

"여기에 물ᄀᆞ레가 잇어낫거든, 이 자리에. 보리를 이렇게 물 적지면서 사름덜이 이렇게, 사름덜 허다가 나중에 소로도 끌고 물로도 끌고 헷는데 조금씩 발전이 뒈 가지고 이렇게 허다가 또 기계가 나오니까 이게 없어진 건데 이거 이렇게 세와 가지고 빙빙 돌아난 거주. 이렇게 헤서 돌아가면은 보리가 이렇게 힘으로, 그 힘으로 눌려 가지고 까까지거든. 게서 옛날 사름덜 그렇게 헤서 보리를 까까서 그 먹어난 거지. (태흥2리에는 이런 물ᄀᆞ레가 멧 개나 잇엇수꽈?) 내가 알기에는 대여섯 개 잇어난 거 같은디. 내가 뎅기다 보니까 이런 게 잇는 디가 여기베끼 없더라고."[60]

(여기에 연자매가 있었거든, 이 자리에. 보리를 이렇게 물 적시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 하다가 나중에 소로도 끌고 말로도 끌고 했는데 조금씩 발전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또 기계가 나오니까 이게 없어진 건데 이거 이렇게 세워 가지고 빙빙 돌렸던 거지.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 보리가 이렇게 힘으로, 그 힘으로 눌려서 깎이거든. 그래서 옛날 사람들 그렇게 해서 보리를 깎아서 그 먹었던 거지. (태흥2리에 이런 연자매가 몇 개나 있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대여섯 개 있었던 거 같은데. 내가 다니면서 보니까 이런 게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더라고.)



〈사진 85〉 신례리의 공용 '물ᄀᆞ레'



〈사진 86〉 태흥리의 공용 '물ᄀᆞ레'

<사진 85>는 신례리 도로변에 세워져 있는 연자매다. 가운데 뚫린 구멍으로 긴 막대를 넣어 양쪽에서 사람이 밀거나, 한쪽에 말이나 소를 매서 끌도록 하여 방아를 찧는 구조이다. 연자매 아랫부분의 돌도 그대로 남아 있다. <사진 86>은 태흥2리 마을 안쪽 길에 남아 있는 연자매다. 태흥리 사람들은 이 연자매를 사용해 보리에 물을 적시며 보리를 깎아다가 먹었다고 한다. 태흥2리 강승삼 씨(1937년생)의 구술에 의하면 이러한 연자매가 태흥2리에만 대여섯 개 정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다른 연자매들은 남아 있지 않다.

(2) ᄀᆞ레

'ᄀᆞ레'는 표준어의 '맷돌'에 대응하는 말로 곡식을 가는 데 사용하는 도구다. 둥글넓적한 돌 두 짝을 포개어 윗돌에 나 있는 구멍으로 갈 곡식을 넣으면서 손잡이를 돌리며 간다.

"옛날엔 ᄀᆞ레엔 허는디 요즘은 맷돌이엔 허잖아. ᄆᆞ물 거피고 ᄆᆞ물 ᄀᆞ루 골고. ᄆᆞ물 거핀다고 허는 건 껍데기 벗기는 거. 그다음에 ᄀᆞ루 ᄀᆞ는 건 저디서 ᄀᆞ루도 골고. 저 종류별로 ᄆᆞ물 거피는 ᄀᆞ레. ᄀᆞ루 ᄀᆞ는 ᄀᆞ레 따로따로 헷수궤. 껍데기 허는 건 엉기게 ᄀᆞ는 거허고 가루 허는 건 아주 좀질게 헤야 뒈난."[61]

(옛날에는 'ᄀᆞ레'라고 하는데 요즘은 맷돌이라도 하잖아. 메밀 거피하고 메밀가루 갈고. 메밀 거피한다고 하는 건 껍데기를 벗기는 거. 그다음에 가루 가는 건 저기서 가루도 갈고. 저 종류별로 메밀 거피하는 맷돌. 가루 가는 맷돌 따로따로 했어요. 껍데기 하는 건 성기게 가는 거하고 가루 하는 건 아주 잘게 해야 되니까.)



〈사진 87〉 김동곤 씨 소장 'ᄀᆞ레'



〈사진 88〉 김동곤 씨 소장 'ᄀᆞ레'

<사진 87>과 <사진 88>은 남원1리 김동곤 씨가 보관하고 있는 맷돌이다. 김 씨는 여러 종류의 맷돌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김 씨에 의하면 무엇을 갈 것인지에 따라 맷돌을 달리했다고 한다. 메밀을 껍질을 벗기는 것이라면 조금 성긴 맷돌을 이용하였고, 가루를 가는 것이라면 가는 맷돌을 이용했다고 한다.

60) 태흥2리 강승삼 씨 구술.
61) 남원1리 김동곤 씨 구술.

"뭐 가는 거. 옛날에 뭐 가루도 갈고. 우알 잇주게, 우이 놓는 거 아래 놓는 거. 그 전에 다 이걸로 사용헷지. 저건 우잇돌이고. 옛날에 뭐 ᄀᆞ레, ᄀᆞ레엔 헷지."[62]
(뭐 가는 거. 옛날에 뭐 가루도 갈고. 위아래가 있지, 위에 놓는 거 아래 놓는 거. 그 전에 다 이걸로 사용했지. 저건 윗돌이고. 옛날에 뭐 'ᄀᆞ레', 'ᄀᆞ레'라고 했지.)



〈사진 89〉 김성찬 씨 소장 'ᄀᆞ레'



〈사진 90〉 현창언 씨 소장 'ᄀᆞ레'



〈사진 91〉 강도범 씨 소장 'ᄀᆞ레'



〈사진 92〉 이대현 씨 소장 'ᄀᆞ레'

"보리밥 허젠 허민 정ᄀᆞ레서 골아사 밥을 헤 먹주게. 몰ᄀᆞ레서 골앙 오랑. 혼 번만 강 골아 오랑. 그걸 몰류왕, 또 이젠 정ᄀᆞ레 알지, 이거? 그것에서 거피영. 경헤영 그걸 밥 헤영 먹어."[63]
(보리밥 하려고 하면 '정ᄀᆞ레'에서 갈아야 밥을 해 먹지. '몰ᄀᆞ레'에서 갈아서 와서. 한 번만 가서 갈아 와서. 그걸 말려서. 또 이제는 '정ᄀᆞ레' 알지, 이거? 그것에서 거피해서. 그래서 그걸 밥해서 먹어.)

62) 수망리 김성찬 씨 구술.
63) 의귀리 현정자 씨 구술.

의귀리 현정자 씨는 보리밥을 먹으려고 하면 먼저 ' 몰ᄀᆞ레'에 가 보리쌀을 갈아온 후 그것을 말려야 한다고 했다. 그 후에 말린 보리쌀의 껍질을 벗겨내야 그것으로 보리밥을 지어 먹었다고 한다.

4.4. 운반 도구

(1) 골체

'골체'는 표준어의 '삼태기'에 대응하는 것으로, 흙이나 거름 따위를 담아 나를 때 사용하는 도구다. 보통 '골체'는 '정동(댕댕이덩굴)'이나 대나무, 칡, 철사를 엮어서 만든다. 무엇으로 만들었는지에 따라 달리 부르는데, 대나무로 만들면 '대골체', '정동'으로 만들면 '정동골체', 철사로 만들면 '쒜골체'라고 불렀다.

"원 골체 주장. 골체는 감저를 영 ᄒᆞ민 담앙 들러다근에 비와. 그 망테기나 뭐에 비와."[64]
(원 삼태기 주로. 삼태기는 고구마를 이렇게 하면 담아서 들어다가 부어. 그 망태기나 뭐에 부어.)

"(골체는) 대로 멘들앗주. 대로 멘들단에 내중에라가난에 끅으로도 멘들고, 그런 거 헷주. 옛날은 대만 헤낫어. 게난 내중에라가난에 그 끅이여 무시거 하간 거 질긴 거 헤단에 헷어."[65]
(삼태기는 대로 만들었지. 대로 만들다가 나중에 되니까 칡으로 만들고, 그런 거 했지. 옛날은 대만 했었어. 그러니까 나중에 되니까 그 칡이며 무엇 온갖 거 질긴 거 해다가 했어.)

의귀리 현정자 씨 말에 따르면 '골체'는 주로 대나무로 만들어 쓰다가 나중에 돼서야 칡이나 다른 재료로 만들어 사용했다고 한다. 이 '골체'는 고구마 등을 담아 옮길 때 썼다고 한다.

64) 의귀리 현정자 씨 구술.
65) 의귀리 현정자 씨 구술.

(2) 질구덕

'구덕'은 대를 가늘게 쪼개어 엮어 만든 바구니로, '질구덕'은 물건을 넣고 지고 다닐 때 사용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구덕'은 크기나 사용 용도에 따라 이름이 조금씩 다는데 보통 '질구덕'은 크기가 크고, 물건을 넣어서 가지고 다닐 때 사용한다.

"질구덕은 크게 멘들아긴에 짐 졍 뎅기주게. 세답 담앙 뎅기곡. 그건 큰 구덕."[66]
('질구덕'은 크게 만들어서 짐을 지고 다니지. 세답(거리) 담아 다니고. 그건 큰 바구니.)

"질구덕은 큰 거, 메역 ᄌᆞ물 때 쓰는 거. 거 없어, 이때까지 잇나?"[67]
('질구덕'은 큰 거, 미역 캘 때 쓰는 거. 그거 없어, 이때까지 있니?)


〈사진 93〉 현창언 씨 소장 '구덕'


〈사진 94〉 고영주 씨 소장 '구덕'


〈사진 95〉 고방순 씨 소장 '구덕'


〈사진 96〉 김공률 씨 소장 '구덕'

남원1리 강순화 씨(1941년생)는 미역을 캐러 다닐 때 '질구덕'을 가지고 다녔다고 한다. 보통은 미역 캘 때만이 아니라 해녀들이 물질하러 갈 때도 이 바구니에 물질 도구를 넣고 지고 다녔다. 또 밭일하러 갈 때 역시 구덕에 밭일 도구와 점심 도시락 따위를 넣어 다녔다.

<사진 93>은 남원1리 현창언 씨가 사용했던 바구니다. <사진 94>는 남원1리 고영주 씨 집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세탁물을 담아 두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예전에는 세탁물을 넣어 빨래터를 오고 갈 때 사용했던 바구니를 '서답구덕', '빨래구덕'이라고 했다. <사진 95>는 고방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바구니로, 고 씨는 이것을 '큰 구덕'이라고 했다. <사진 96>은 신례1리 김공률 씨(1965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바구니다. 겉을 곡식을 넣을 때 쓰는 자루 천으로 감싸서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대바구니에는 천이나 종이를 발라 사용하기도 한다. 보통 바구니가 헐면 그것을 버리지 않고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하였는데, 그때 바구니에 천 따위를 붙인 것이다. 이것을 천을 바른 바구니라고 해서 'ᄇᆞ른바구리'라고 불렀다. 제보자에 따라 '풀ᄇᆞ른구덕', 'ᄇᆞ른구덕'이라고도 한다.

"거 나가 ᄇᆞ른 거. ᄒᆞᆫ 삼십 년 됌신가."[68]
(그거 내가 바른 거. 한 삼십 년 되고 있나?)


〈사진 97〉 고방순 씨 소장 'ᄇᆞ른바구리'


〈사진 98〉 고방순 씨 소장 'ᄇᆞ른바구리'

66) 의귀리 현정자 씨 구술.
67) 남원1리 강순화 씨 구술.
68) 신례1리 고방순 씨 구술.



〈사진 99〉 고방순 씨 소장 '부른바구리'


〈사진 100〉 고방순 씨 소장 '부른바구리'

<사진 97>에서 <사진 100>은 신례1리 고방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부른바구리'들이다. <사진 97>의 바구니에는 사용하지 않는 놋그릇을 보관하고 있었고, <사진 98>의 바구니에는 숯을 넣어 보관하고 있었다. <사진 99>의 바구니는 예전의 일력을 바른 것인데, 1969년 8월의 일력인 것으로 보아 그즈음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사진 100>의 바구니들은 <사진 98>의 바구니와 같은 천을 붙여 만든 것이다.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저 부른바구리. 종이 헤영 그거 불랑은에 쏠도 담곡. (난) 풀부른바구리엔은 아이 불러 보곡 부른바구리엔만 헤낫어. 풀이여 무시거여 그런 생각은 아이 나난 옛날 어른덜이 부른바구리옌 허곡. 쏠 노는 바구리는 뚜로 차롱ᄀᆞ치 만들앙. 두껑 잇게."[69]
(저 '부른바구리'. 종이 해서 그거 발라서 쌀도 담고. (난) '풀부른바구리'라고는 안 불러 보고 '부른바구리'라고만 했었어. 풀이며 뭐며 그런 생각은 안 나니까 옛날 어른들은 '부른바구리'라고 하고. 쌀 넣는 바구니는 따로 채롱처럼 만들어서. 뚜껑 있게.)

의귀리 현정자 씨는 종이를 바른 바구니를 '풀부른바구리'라고는 하지 않고 '부른바구리'라고 불렀다고 한다. 또 쌀을 넣는 것은, 뚜껑까지 있는 별도의 바구니가 있었다고 한다.

(3) 지게

'지게'는 등에 짐을 사용하는 도구다. 두 개의 가지 돋친 장나무를, 위쪽은 좁고 아래는 벌어지게 나란히 세우고 그 사이에 나무막대기를 가로지르게 맞추어 끼웠다. 줄을 매어 이것을 등에 질 수 있게 만들었다.

"지게가 제일 많이 쓰는 거주. 그 밧 갈레 가젠 허민 잠대 놩 졍 뎅겻주게. 잠대는 원 지게에 놔사. 계속헷주, 계속. 아무거라도, 기자 짐 질 때 고구마 나를 때. 보통 한걸허게 졍 뎅길 수 잇는 건 지게로 많이 날랏주."[70]
(지게가 제일 많이 쓰는 거지. 그 밭 갈러 가려고 하면 쟁기를 놓고 져서 다녔지. 쟁기는 원 지게에 놔야. 계속했지, 계속. 아무거라도, 그저 짐 질 때 고구마 나를 때. 보통 여유있게 지고 다닐 수 있는 건 지게로 많이 날랐지.)

의귀리 양인필 씨, 현정자 씨에 따르면 지게는 활용 용도가 많았다고 한다. 밭을 갈러 갈 때 쟁기를 놓고 지고 가기도 하고, 고구마 등과 같은 소소한 짐들은 지게로 지어 날랐다고 했다.

"마중, 메역 헐 땐 마중 헤야주게. 지게 졍덜 마중ᄒᆞ는 사름 마중ᄒᆞ주게."[71]
(마중, 미역 할 때는 마중 해야지. 지게 지고들 마중하는 사람 마중하지.)

지게는 농사일뿐만 아니라 바닷일을 할 때도 이용하였다. 남원1원 김수정 씨(1931년생)는 해녀들이 미역을 채취할 때, 물에서 나오는 해녀들의 미역 망사리를 들어 주기 위해 마중을 나오는데, 지게를 가지고 와서 지게로 지어 날랐다고 한다.

69) 의귀리 양인필 · 현정자 씨 구술.
70) 의귀리 양인필 · 현정자 씨 구술.
71) 남원1리 김수정 씨 구술.

(4) 니아까

'니아까'는 사람이 끄는 바퀴 둘 달린 손수레로, '리어카'를 일본어식으로 발음한 것이다. 제보자에 따라 '니아카'라고도 하고 '니어커'라고 하기도 한다.

"미깡 날를 때 허는 거. 지금도 계속 쓰는 거."[72]
(귤 나를 때 하는 거. 지금도 계속 쓰는 거.)



〈사진 101〉 정개은 씨 소장 '니아까'



〈사진 102〉 오경수 씨 소장 '니아까'

<사진 101>은 남원리 정개은 씨가 사용하고 있는 리어카이고, <사진 102>는 의귀리 오경수 씨의 리어카다. 리어카 두 대 모두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주로 귤을 나를 때 이것을 사용한다고 한다.

<사진 103>은 수망리 정병순 씨(1949년생) 창고에 걸려 있는 수레바퀴이다.



〈사진 103〉 정병순 씨 소장 '니아까 바퀴'

(5) 경운기

'경운기'는 농작물을 운반하거나 밭을 갈 때 사용하는 농기구다. 지금까지도 농촌 사회에서는 경운기를 농작물을 운반할 때뿐만 아니라 사람이 타고 이동할 때도 널리 쓰고 있다.

"여긴 경운기로 밧 안 갈아낫어. 옛날에 이걸로 짐 시끄는 걸로이 돌도 시끄고 고구마 다 시꺼당 풀고이. 겐디 미깡 허멍 그런 농서를 안 헷지. 밀감을 육십 년도 중반부터 헷는디, 그때도 여기 농사도 육십년도 후반꺼지 농사도 졋어. 처음엔 밀감이 안 뒌덴만 헷거든. 게난 나가 지도자로 헹 뎅길 적에는 이백 고지 이상은 안 뒌덴 허곡."[73]
(여기는 경운기로 밭을 안 갈았었어. 옛날에 이걸로 짐 싣는 것으로, 돌도 싣고 고구마 다 실어다가 팔고. 그런데 귤(농사) 하면서 그런 농사를 안 했지. 밀감을 육십 년도 중반부터 했는데, 그때도 여기 농사도 육십 년도 후반까지 농사도 지었어. 처음에는 밀감이 안 된다고만 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농업)지도자로 해서 다닐 적에는 이백 고지 이상은 안 된다고 하고.)



〈사진 104〉 고영주 씨 소장 '경운기'



〈사진 105〉 오희일 씨 소장 '경운기'

<사진 104>는 남원1리 고영주 씨가 사용하고 있는 경운기이고, <사진 105>는 의귀리 오희일 씨가 사용하고 있는 경운기다. 남원리에서 경운기는 주로 귤 등의 짐을 실어 나르거나 과수원에 농약을 칠 때 사용한다고 한다.

72) 의귀리 오경수 씨 구술.
73) 남원1리 고영주 씨 구술.

농촌에서 경운기는 짐을 운반하거나 사람이 타고 이동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밭을 가는 용도로도 큰 역할을 했다. 제주의 각 지역에서는 1970년대에 경운기가 등장하면서 쟁기로 밭을 갈던 것을 경운기로 대체했다. 밭을 갈 때 소가 필요 없게 되고, 비료가 보급되어 거름의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집집마다 기르던 소들이 사라지는 변화를 보인다. 그런데 남원1리 고영주 씨 구술에 의하면 남원읍 지역에서는 경운기를 이용하여 밭을 갈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은 육십 년대 중반부터 감귤 농사를 시작하면서 그전의 보리, 조, 고구마 농사를 짓던 밭에 귤나무를 심으면서 점차 밭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5) 미깡 바구리

'미깡'은 일본어(みかん)로 귤을 말한다. '미깡 바구리'는 귤을 딸 때 사용하는 바구니로 천이나 쌀 포대 등을 이용하여 둥글게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제보자에 따라 '미깡 구덕', '미깡 망텡이'라고도 했다.

"미깡 바구리, 미깡 구덕. 게난 나 손으로 다. 가정마다 만들엉 쓰주게, 그것도 사젱헤민 돈이난."[74]

(귤 바구니, 귤 바구니. 그러니까 내 손으로 다. 가정마다 만들어서 쓰지, 그것도 사려고 하면 돈이니까.)

"이거 오래뒛어, 십 년. 주웟다가 주웟다가 나가 다 주운 거. 지금도 쓰는 거, 다 뽈앙 놔둿주. 경허난 저추룩 깨껏헨 오래 써점주. 경 안허민 십 년을 써져?"[75]

(이거 오래됐어, 십 년. 기웠다가 기웠다가 내가 다 기운 거. 지금도 쓰는 거, 다 빨아서 놔뒀지. 그러니까 저처럼 깨끗해서 오래 쓰고 있지. 그렇지 않으면 십 년을 쓸 수 있어?)

74) 의귀리 양인필 · 현정자 씨 구술.
75) 위미2리 양경용 씨 구술.
76) 수망리 현금옥 씨 구술.
77) 수망리 김두천 씨 구술.



〈사진 106〉 고영주 씨 소장 '미깡 망텡이'



〈사진 107〉 양경용 씨 소장 '미깡 망텡이'

<사진 106>은 남원1리 고영주 씨가 사용하고 있는 밀감 바구니이고, <사진 107>은 위미2리 양경용 씨가 사용하고 있는 바구니다. 양 씨는 천을 사용하여 이 '미깡 망텡이'를 만들었는데, '망텡이'가 뜯어지면 깁고 뜯어지면 기워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6) 용도

'용도'는 짐을 실을 때 짐을 단단하기 조이기 쉽도록 연결하는 '도르래'를 말한다. 도르래를 연결한 바를 '용도배'라고 한다.

"용도, 옛날 마차에 배 쒜울 때. 구루마엔도 허고 마차엔도 허고. 그거 헐 때 배 쒜우는, 이것에 배를 끼와, 끼왕. 끅 걷어단에 꼬안 헷주. 어웍 걷어단 헤신가?"[76]

(용도, 옛날 마차에 바를 조일 때. '구루마'라고도 하고 '마차'라고도 하고. 그거 할 때 바 조이는 이것에 바를 끼워, 끼워서. 칡 걷어다가 꼬아서 했지. 억새 걷어다가 했는가?)

"그때 보통 난 게 신사라 알지? 신사라로 거의 배 헨. 신사라 헹 몰령 그거 두드령 막 좀질게 깨영."[77]

(그때 보통 나온 게 뉴질랜드삼 알지? 뉴질랜드삼으로 거의 바 했어. 신사라 해서 말려서 그거 두드려서 아주 자잘하게 깨어서.)



〈사진 108〉 김두천 씨 소장 '용도'

<사진 108>은 수망리 김두천 씨가 보관하고 있는 도르래다. 마차에 짐을 싣고 묶을 때 사용했던 것으로, 도르래의 구멍에 줄을 끼워서 줄을 단단하게 조여 묶을 수 있도록 했다. 처음에는 용도에 연결한 바를 칡 또는 억새를 걷어다가 만들었는데 이후 뉴질랜드삼이 나오면서 그것을 말려 사용했다고 한다.

(7) 배

'배'는 물건을 묶거나 매는 데에 쓰는 줄을 말한다. 짐을 질 때 사용하는 질빵도 '배'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식물의 줄기나 뿌리 등을 이용하여 바를 만들어 사용하다가 나일론이 등장하면서 대부분 나일론 줄을 이용하고 있다. '배'는 천을 누벼서 만들기도 했다.



〈사진 109〉 현원휴 씨 소장 '배'



〈사진 110〉 강문선 씨 소장 '배'

<사진 109>는 수망리 현원휴 씨가 보관하고 있는, 짐을 지는 데 사용하는 바다. <사진 110>은 신례1리 강문선 씨가 사용하는 짐을 질 때 사용하는 바다.

"배옌도 곧고 질빵이엔도 곧곡. 짐 졍 뎅길 때, 아무거라도 졍 뎅길 때 쓰는 거주. 요새는 저거 안 헤도 아무, 아무 미깡이나 낭 지레, 옛날 낭 지레 배 엇엉 안 뒈주게. 저런 거 엇일 땐 험벅으로 이녁냥으로 멘들아덜 썻어. 험벅으로 멘들앙도 쓰곡 저 찍, 볏찍이, 볏대 그거 헤근에 독, 독, 독, 물 적져근에 뿟앙 물아근에 꼬앙."[78]

('배'라고도 말하고 '질빵'이라고도 말하고. 짐 지고 다닐 때, 아무거라도 지고 다닐 때 쓰는 거지. 요새는 저거 안 해도 아무, 아무 귤이나 나무 지러, 옛날 나무 지러 바가 없어서는 안 되지. 저런 거 없을 때는 헝겊으로 자기대로 만들어서들 썼어. 헝겊으로 만들어서도 쓰고 저 짚, 볏짚, 볏짚 그거 해서 독, 독, 독, 물 적셔서 두드려서 말아서 꼬아서.)

"그때 신사라덜 막 하난 거 뽑안에. 신사란 질기난."[79]
(그때 뉴질랜드삼이 아주 많으니까 뽑아서. 뉴질랜드삼은 질기니까.)

의귀리 현정자 씨는 짐을 질 때 쓰는 것을 '배'라고도 하고 '질빵'이라고도 했다. 요즘은 질빵을 사용할 일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귤을 나르거나 땔감을 하러 갈 때도 질빵이 없으면 안 되었다. 질빵은 볏짚을 이용해서 만들기도 하지만 헝겊으로 만들기도 했다. 뉴질랜드삼을 뽑아서 만들기도 했다.

4.5. 계량 도구

(1) 뒛박

'뒛박'은 곡식을 담아 그 분량을 헤아리는 데 쓰는 물건으로 되를 말한다. 보통 정사각형 모양의 그릇으로, 지역이나 사람에 따라 그냥 '뒈'라고 하기도 하고 '관뒈'라고 하기도 한다.

"뒛박은 오래뒌 건 아니. 도장 안 맞으면은 걸리니까 도장 받은 거라, 다."[80]
(관되는 오래된 건 아니. 도장 안 맞으면 걸리니까 도장 받은 거야, 다.)

78) 신례1리 강문선 씨 구술.
79) 의귀리 양인필 씨 구술.
80) 남원1리 고영주 씨 구술.

"ᄂᆞ물씨도 뒈고 보리도 뒈고 조도 뒈곡 우리 ᄀᆞ트민 저 쌀도 뒈고. 경허민 먹을 거 엇이민 동네 부제칩이가 잇주게. 밧 하근에 곡석덜 많이 헤 들이면은 이제 이런 걸로 뒈여근에 ᄒᆞᆫ 뒈 주고, 일헤 주민 이걸로 뒈영 주고. 그땐 돈이 어려우니까 쌀로 줘지. 지금은 키로로 허는 건디 옛날엔 뒛박으로 헷어."[81]

(나물 씨도 되고 보리도 되고 조도 되고 우리 같으면 저 쌀도 되고. 그러면 먹을 거 없으면 동네 부잣집이 있지. 밭 많아서 곡식들 많이 (수확)해 들이면 이제 이런 걸로 되어서 한 되 주고, 일해 주면 이걸로 돼서 주고. 그땐 돈이 어려우니까 쌀로 줬지. 지금은 킬로그램으로 하는 건데 옛날엔 되로 했어.)



〈사진 111〉 고영주 씨 소장 '뒛박'



〈사진 112〉 김복선 씨 소장 '뒛박'

<사진 111>은 남원1리 고영주 씨가 보관하고 있는 되다. 되는 정해진 규격이 있는 것이므로 고 씨의 말에 의하면 <사진 111>에서 보이는 도장이 규격에 맞는 것이라는 표시로 찍힌 것이라고 한다. <사진 112>는 신례1리 김복선 씨가 사용했던 되다. 김 씨의 '뒛박'에도 도장이 찍힌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거 쌀, 쌀 뒐 때. 우리 할망 써난 거주. ᄒᆞᆫ 육십 년, 육십오 년 뒛어."[82]

(거 쌀, 쌀 될 때. 우리 할머니(아내) 썼던 거지. 한 육십 년, 육십오 년 됐어.)

"뒛박은 이거 서른일곱에 산 거."[83]

(되는 이거 서른일곱에 산 거.)



〈사진 113〉 강도범 씨 소장 '뒛박'



〈사진 114〉 양경용 씨 소장 '관뒈'



〈사진 115〉 김길순 씨 소장 '뒛박'



〈사진 116〉 김성찬 씨 소장 '뒛박'

<사진 113>은 위미2리 강도범 씨의 아내가 사용했던 되다. 사용한 지 육십 년이 넘은 것이라고 한다. <사진 114>는 위리2리 양경용 씨가 삼십 대에 장만해서 사용해 온 것이다. <사진 115>는 신례1리 김길순 씨, <사진 116>은 수망리 김성찬 씨가 보관하고 있는 되다.

"뒛박이엔도 골아 봑 관뒈엔도 골아 봑. 이거 오 홉 들이. 반 승 들이라, 반 승 들이. 이거 두 개 허민 큰 뒈 하나주."[84]

('뒛박'이라고도 말해 보고 '관되'라고도 말해 보고. 이거 오 홉 들이. 반 승 들이야, 반 승 들이. 이거 두 개 하면 큰 되 하나지.)

81) 신례1리 김복선 씨 구술.
82) 위미2리 강도범 씨 구술.
83) 위미2리 양경용 씨 구술.
84) 신례1리 강문선 씨 구술.



〈사진 117〉 강문선 씨 소장 '뒛박'

<사진 117>은 신례1리 강문선 씨가 보관하고 있는 작은 되다. 강 씨는 되를 '뒛박'이라고도 하고 '관뒈'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했다. <사진 117>의 되는 보통 앞서 살펴본 되의 반이 들어가는 분량의 크기라고 한다.

(2) 저울

'저울'은 물건의 무게를 다는 데 쓰는 도구다. 손에 쥔 채 물건의 무게를 다는 저울을 '손저울' 또는 '들른 저울', 시계침 모양의 바늘로 무게를 확인하는 '시계 저울', 받침판 위에 물건을 올려놓고 위쪽에 있는 저울대에서 추로 무게를 다는 것은 '앚은벵이저울', 근 단위의 무게를 재는 것은 '근저울'이라고 한다.



〈사진 118〉 고방순 씨 소장 '저울'



〈사진 119〉 고방순 씨 소장 '저울'



〈사진 120〉 고방순 씨 소장 '저울의 추'



〈사진 121〉 고방순 씨 소장 '저울의 추'

<사진 118>과 <사진 119>은 신례1리 고방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손저울'이고, <사진 120>과 <사진 121>은 고 씨가 보관하고 있는 저울의 추다. '손저울'은 저울에 달려 있는 접시 위에 물건을 올려 저울을 손에 들게 추로 무게를 재는 방식이다.

"저거 고사리 꺼껑 풀 때 써난 거주. 고사리만 먹엉 사난, 육백 그람 허민 난 칠백 그람, 이것이 육백 그람 ᄒᆞ꼼 더 놔 불민 딴 저울로 재민 칠백 그람 뒈어. 게난 경허지 말렌 저 족은 저울 사다근에 저 딱 육백 그람 헤근에 눈 두 개만 주렌 헤도 난 눈 세 개 썩 줘 불고. 나 고사리 스물일곱에부터 매해, 경헹 꺼껑 이 집 짓고 아이덜 공부시키고. 직접 솖앙 널엉 물려근에. 아홉 근 반 거끄난, 터럭 돋은 마다리 이만이헌 걸로 ᄒᆞ나 허난, 우리 아덜 시끄레 가난 밀세기 들어앉앙, 우리 아덜 "어무니 절대 고사리 꺼끄지 맙서." 어머니 얼먹엇덴. 올리도 아홉 번은 가 와도 고사리 꺼끄지 못헹 읒 근 반 베낀 못 거끄난. 읒 근허고 사백 그람 거끄난 사돈칩이 서 근 보내고 우리 두 근 허고."[85]

(저거 고사리 꺾어서 팔 때 썼던 거지. 고사리만 먹고 사니까, 육백 그램 하면 난 칠백 그램, 이것이 육백 그램 조금 더 넣어 버리면 다른 저울로 재면 칠백 그램 돼.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저 작은 저울 사다가 저 딱 육백 그램 해서 눈 두 개만 주라고 해도 난 눈 세 개씩 줘 버리고. 나 고사리 스물일곱에부터 매해, 그래서 꺾어서 이 집 짓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직접 삶아서 널어서 말려서. 아홉 근 반 꺾으니까, 털 돋은 마대 이만한 걸로 하나 하니까, 우리 아들 실으러 가니까 털썩 들어앉아서, 우리 아들이 "어머니 절대 고사리 꺾지 마세요." 어머니 언걸먹었다고. 올해도 아홉 번은 갔다 와도 고사리 꺾지 못해서 여섯 근 반밖에 못 꺾으니까. 여섯 근하고 사백 그램 꺾으니까 사돈집에 세 근 보내고 우리 두 근 하고.)

"그 전에 처음에 미깡농서 헐 때는 뭐 농협에서도 감귤도 취급 않고 허니까 일반 상인덜 올 때는 여기는 헤 가지고 상인덜이 저울 이거 없이는 딴 저울 하나도 없어. 앚은저울이든 시계저울 아무 저울이 엇어 부니까 이런 들른저울, 옛날 판매칩이엔 헤 가지고 뒈지 잡앙 ᄑᆞ는 디 판매칩이엔 헷는디 그 집이서도 이런 큰 저울 썻주게. 게난 집이 밀감농사 허는 데도 이 손저울 가져 가지고 포따리에 미깡을 큰 포따리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네모난 포따리니까 이거 걸려서 썼지. 이거 근저울이야, 근저울."[86]

85) 위미2리 양경용 씨 구술.
86) 남원1리 정개은 씨 구술.

(그 전에 처음에 귤농사 할 때는 뭐 농협에서도 감귤도 취급하지 않고 하니까 일반 상인들 올 때는 여기는 해 가지고 상인들이 저울 이거 없이는 딴 저울 하나도 없어. '앞은저울'이든 '시계저울' 아무 저울이 없으니까 이런 '들른저울', 옛날 '판매칩'이라고 해서 돼지 잡아서 파는 데 '판매칩'이라고 했는데 그 집에서도 이런 큰 저울 썼지. 그러니까 집의 밀감농사 하는 데도 이 손저울 가져서 보따리에 귤을 큰 보따리에 담아서 이렇게 네모난 보따리니까 이거 걸려서 썼지. 이거 '근저울'이야, '근저울'.)

"엿날에 메역 뜰 때도 저걸로 뜨고 소라, 전복 다 뜨는 거."[87]
(옛날에 미역 뜰 때도 저걸로 뜨고 소라, 전복 다 뜨는 거.)

"물건 뭐 풀려고 허면 저울이는 거지. 뒈지 거튼 거 그런 거 저울일 때."[88]
(물건 뭐 팔려고 하면 무게를 재는 거지. 돼지 같은 거 그런 거 무게를 잴 때.)


〈사진 122〉 양경용 씨 소장 '손저울'


〈사진 123〉 정개은 씨 소장 '근저울'


〈사진 124〉 오춘보 씨 소장 '손저울'


〈사진 125〉 현원휴 씨 소장 '저울'

87) 위미2리 오춘보 씨 구술. 88) 수망리 현원휴 씨 구술. 89) 신례1리 김석종 씨 구술.

<사진 122>는 위미2리 양경용 씨가 사용하고 있는 저울이다. 양 씨가 말린 고사리의 무게를 잴 때 사용했던 것이다. <사진 123>은 남원1리 정개은 씨의 '근저울'이다. 정 씨는 이 저울을 손에 드는 저울이라는 의미로 '들른 저울'이라고도 하고, 근 단위로 무게를 잴 때 사용한다고 해서 '근저울'이라고도 하고 있다. <사진 124>는 위미2리 오춘보 씨(1935년생)의 '손저울'로 미역, 소라, 전복 등과 같은 해산물의 무게를 잴 때 사용했다고 한다. <사진 125>는 수망리 현원휴 씨가 보관하고 있는 저울이다.

"미깡 뜰 때. 게난 옛날에는 저런 앚은벵이 저울 헤가지고 헷는데 이제는 시계 저울 저거 동그랑헌 거. 흔 관이 삼 점 칠오. 게난에 십팔 키로. 콘테나가 이키로 헷어, 이십 키로. 요샌 미깡 다 키로."[89]
(귤을 뜰 때.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런 앉은뱅이 저울 해서 했는데 이제는 시계 저울 저거 동그란 거. 한 관이 삼 점 칠오. 그러니까 십팔 킬로그램. 콘테이너가 이 킬로그램 했어, 이십 킬로그램. 요새는 귤 다 킬로그램.)


〈사진 126〉 정개은 씨 소장 '저울'


〈사진 127〉 고영주 씨 소장 '저울'


〈사진 128〉 양기화 씨 소장 '저울'


〈사진 129〉 김석종 씨 소장 '시계 저울'

<사진 126>은 남원1리 정개은 씨, <사진 127>은 남원1리 고영주 씨, <사진 128>은 태흥2리 양기화 씨가 보관하고 있는 저울이다. <사진 129>는 신례1리 김석종 씨가 사용하고 있는 저울인데, 김 씨는 이것을 '시계 저울'이라고도 불렀다. 이 저울은 귤의 무게를 재서 팔 때 사용하고 있다.

"이거는 밀감 뜨는 거. 밀감 농사, 군인 갓다 오니까 스물다섯 살부터 계속헌 거지. 육십사 년도서부터. 그때는 대학나무거든. 초창기는 아니지만, 초창기 쪼금 지나서."[90]
(이거는 밀감 뜨는 거. 밀감 농사, 군인 갔다가 오니까 스물다섯 살부터 계속한 거지. 육십사 년도부터. 그때는 대학나무거든. 초창기는 아니지만, 초창기 조금 지나서.)


〈사진 130〉 정개은 씨 소장 '저울'


〈사진 131〉 정덕준 씨 소장 '저울'


〈사진 132〉 현창언 씨 소장 '저울'


〈사진 133〉 오희일 씨 소장 '저울'

90) 남원1리 현창언 씨 구술.
91) 의귀리 양인필 씨 구술.
92) 의귀리 현정자 씨 구술.


〈사진 134〉 김두천 씨 소장 '저울'


〈사진 135〉 양경용 씨 소장 '저울추'

<사진 130>은 남원1리 정개은 씨, <사진 131>은 남원1리 정덕준 씨, <사진 132>는 남원1리 현창언 씨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울이다. 현 씨가 스물다섯 살일 때부터 귤 농사를 지으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저울이라고 한다. <사진 133>은 의귀리 오희일 씨, <사진 134>는 수망리 김두천 씨가 사용하고 있는 저울이다. <사진 135>는 위미2리 양경용 씨가 보관하고 있는 저울의 추인데 남원읍 지역에서의 저울은 대부분 수확한 감귤을 판매할 때 무게를 재는 용도로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었다.

"게난 그 낭을 열두 본에 열아서 열매를 첫 수확을 헤여 보니까 보따리장사가 왓어, 사레. 미깡 사러 왓는디 보따리에 싼에 뜨멍, 영 들르멍 저울로 뜨멍 삼십 관을 처음 풀앗주게. 삼십 관을 ᄑᆞ난에 그것이 사릅 송아지 ᄒᆞ나 살 돈이 뒌단 말이여."[91]
(그러니까 그 나무를 열두 본에 열어서 열매를 첫 수확을 해 보니까 보따리장수가 왔어, 사러. 귤 사러 왔는데 보따리에 싸서 뜨면서, 이렇게 들면서 저울로 뜨면서 삼십 관을 처음 팔았지. 삼십 관을 파니까 그것이 사릅 송아지를 하나 살 돈이 된다는 말이야.)

"날레 너는 멍석, 날레 너는 멍석. 멍석 페완에 그 미깡을 멍석에 타다 놘에 쳇 미깡으로 풀앗어. 게난 포따리장시 오란. 게난 그때 처음으로 돈 심어 봣주. 돈이엥 헌 거 구경을 못 헷어."[92]
('날레' 너는 멍석, '날레' 너는 멍석. 멍석 펴서 그 귤을 멍석에 따다가 놔서 첫 귤을 팔았어. 그러니까 보따리장수가 와서. 그러니까 그때 처음으로 돈을 만져 봤지. 돈이라고 하는 거 구경을 못 했어.)

의귀리 양인필, 현정자 씨는 감귤 농사를 시작하여 처음 수확했을 당시에는 수확한 귤을 사기 위해 보따리장수가 나들었다고 한다. 귤을 마당에 멍석을 깔아 놓고 무게를 재면서 귤을 팔았는데 그때 처음으로 비로소 돈을 손에 쥘 수 있었다고 한다.

4.6. 저장 도구

(1) 항

'항'은 항아리를 일컫는 말이다. 보통 물이나 간장 등을 담는 용도이지만 별다른 용기가 없었던 시절 곡식을 보관하는 용으로도 널리 쓰였다.



〈사진 136〉 양금석 가옥 헛간의 '지세항'

<사진 136>은 신례1리 고방순 씨가 사용했던 항아리들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양금석 가옥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고 씨에 의하면 예전에는 사진의 항아리들을 '고팡(고방)'에 놓고 곡식을 보관하는 데에 사용했다고 한다.

"이 잡곡덜, 보리 허면은 그레 놓고. 항 안방, 고팡에 갖다 놧거든. 그땐 항아리가 많이 잇어난디. 저 곡식덜 허면은 저 항아리베끼 놀 디가 엇거든. 지금은 프라스틱이 나왓지만. 저것에 놔야 곡식이 상허지도 안허영 깨껏허거든."[93]

(이 잡곡들, 보리 하면 그리 넣고. 항아리 고방, 고방에 갖다 놨거든. 그때는 항아리가 많이 있었는데. 저 곡식들 하면 저 항아리밖에 넣을 데가 없거든. 지금은 플라스틱이 나왔지만. 저것에 넣어야 곡식이 상하지도 않아서 깨끗하거든.)

"저거 시어멍안티 나 물려받은 거야. 옛날 물려받앙 보리 놓는 거 보리. 고팡이엔 헌디 놩. 보리 열여섯 말 들어."[94]

(저거 시어머니한테 나 물려받은 거야. 옛날 물려받아서 보리 넣는 거 보리. 고방이라고 하는데 놔서. 보리 열여섯 말 들어.)

"백 년 뒌 거. 시어머니 친정에서 물려 온 거, 요거. 백 년 넘엇수다. 우리 시어머니가 백 설이 넘어시난. 이거 근때 시집온 때 물려받은 거. 시집완에 살단 내부난 나가 물려받은 거지. 이거 보리 담앗주, 안팡에 놩. 요거, 요거 두껑. 이 두껑은 장테. 그믓 나도 이것만 가져가지 못헹 허는 사름이 잇어."[95]

(백 년 된 거. 시어머니가 친정에서 물려받아 온 거, 요거. 백 년 넘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백 살 넘었으니까. 이거 그때 시집올 때 물려받은 거. 시집와서 살다가 내버리니까 내가 물려받은 거지. 이거 보리 담았지, 고방에 놔서. 요거, 요거 뚜껑. 이 뚜껑은 '장테'. 금이 나도 이것만 가져가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어.)



〈사진 137〉 현창언 씨 소장 '항'



〈사진 138〉 강순화 씨 소장 '항'



〈사진 139〉 강순화 씨 소장 '항'

93) 남원1리 현창언 씨 구술.
94) 남원1리 강순화 씨 구술.
95) 위미2리 양경용 씨 구술.

<사진 137>은 남원1리 현창언 씨가 사용했던 항아리다. 현 씨의 말에 따르면 항은 플라스틱 제품이 나오기 전 곡식을 보관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다고 한다. <사진 138>은 남원1리 강순화 씨가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아 사용했던 항아리다. 곡식 열여섯 말이 들어가는 크기라고 한다. <사진 139>는 위미2리 양경용 씨가 사용했던 항아리다. 양 씨의 시어머니가 친정에서 물려받아 온 것으로, 백 년이 넘은 항아리라고 한다. 양 씨도 이 항아리를 고방에 놓아 곡식을 저장하는 용기로 사용했다.

"여기 쌀 놓고. 옛날은 고팡이라고 즉, 말허믄 이 창고주, 창고. 그디 놧주."[96]
(여기 쌀 넣고. 옛날은 고방이라고 즉, 말하면 이 창고지, 창고. 거기 놨지.)

"거 엿날 거. 그 전이 보리 허민 보리 담아 놓고 조 산디 담아 놓고. 무신 마다리도 베랑 엇어낫지. 그걸로 헨에 문딱 경 헤낫주게. 경헹 이제 보리썰도 헹 흠치 골아다 놓고 보리도 담고 그것이 큰 항이주게. 혼 섬짜리라. 열 말짜리도 잇고 혼 섬짜리도 잇고. 혼 섬이민 열닷 말. 열다섯 말이민게, 거 뒈로 넉 뒈가 혼 말이주, 혼 말."[97]
(거 옛날 거. 그 전에 보리 하면 보리 담아 놓고 조 밭벼 담아 놓고 무슨 마대라도 별로 없었지. 그걸로 해서 모두 그렇게 했었지. 그래서 이제 보리쌀도 해서 한꺼번에 갈아다가 놓고 보리도 담고 그것이 큰 항이지. 한 섬짜리야. 열 말짜리도 있고 한 섬짜리도 있고. 한 섬이면 열닷 말. 열다섯 말이면, 거 되로 넉 되가 한 말이지, 한 말.)

"이것에 쌀 넣고 물 넣고 허멍 살앗주, 고방이엔 헤근에 고방에 놩. 이거 두 섬, 서른 말 드는 거."[98]
(이것에 쌀 넣고 물 넣고 하면서 살았지, 고방이라고 해서 고방에 넣어서. 이거 두 섬, 서른 말 드는 거.)

96) 의귀리 김병수 씨 구술.
97) 태흥2리 양기화 씨 구술.
98) 수망리 김성찬 씨 구술.


〈사진 140〉 김병수 씨 소장 '항'


〈사진 141〉 양기화 씨 소장 '항'


〈사진 142〉 김성찬 씨 소장 '항'

<사진 140>은 의귀리 김병수 씨 집에서 사용했던 항아리다. 김 씨는 항에 쌀을 담은 후에 고방에 두고 보관했다고 한다. 지금은 항아리의 주둥이가 깨진 채 집 뒤 텃밭 한쪽에 놓여 있다. <사진 141>은 태흥2리 양기화 씨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항아리다. 보리 열다섯 말이 들어가는 크기라고 한다. <사진 142>는 수망리 김성찬 씨 집 뒤에 놓여 있는 항아리들이다. 사진에서 가장 큰 항아리는 두 섬, 서른 말을 넣을 수 있는 크기라고 한다.


〈사진 143〉 양경용 씨 소장 '항'


〈사진 144〉 양경용 씨 소장 '항'


〈사진 145〉 현순열 씨 소장 '항'

"요거는 뭐 삼십 대에 산 거난에. 장사 뎅기난 산 거주. 보리농사 헌 거 놔두는 거주. 안팡에 이거 허고 도라무깡 돌라낸 거 허고 헤근에. 군대 강 왕 결혼헹 직접 산 거우다, 이거. 보리 그때 흔 섬 들이로 사져신가? 열닷 말, 열닷 말 들이로 사져신가, 그때."[99]

(요거는 뭐 삼십 대에 산 거니까. 장사 다니니까 산 거지. 보리농사 한 거 놔두는 거지. 광에 이거 하고 드럼통 도려낸 거 하고 해서. 군대 갔다 와서 결혼해서 직접 산 겁니다, 이거. 보리 그때 한 섬 들이로 샀는가? 열닷 말, 열닷 말 들이로 샀는가, 그때.)



〈사진 146〉 오상종 씨 소장 '항'



〈사진 147〉 현창언 씨 소장 '항'



〈사진 148〉 고영주 씨 소장 '항'

<사진 143>과 <사진 144>은 위미2리 양경용 씨의 항아리다. 양 씨가 삼십 대에 마을마다 돌아다니는 장사꾼에게 구입한 것이다. <사진 145>는 위미2리 현순열 씨, <사진 146>은 위미2리 오상종 씨(1942년생), <사진 147>은 남원1리 현창언 씨, <사진 148>은 남원1리 고영주 씨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항아리다.

(2) 도라무통

'도라무통'은 두꺼운 철판으로 만든 원기통 모양의 큰 통인 '드럼통'을 말한다. 제보자에 따라 '드럼통'을 가리키는 일본어 '도라무깡'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도라무'와 '통'을 합성한 말인 '도라무통'을 쓰기도 한다. 주로 기름 따위를 담는 데 사용했던 것을 농가에서 곡식 등을 보관하는 저장고로 이용해 왔다.

"도당 헤다근에 돌라둥. 쥉인가 쥐 때문에 도라무통 헷주게. 도라무깡이엔도 허고 도라무통이엔도 허고. 처음에 우리 두린 때 일본 시댄 몰라. 미국 사름덜 들어오멍 저런 걸로 기름이 다 왓거든게. 지금은 배로 기름을 시꺼 오지만은 옛날은 저 도라무통으로. 보리농사 질 때는 그 놈의 쥔가 쥉인가 하난에 도라무통에 노면은 그게 고망을 못 뚤르거든. 경헨 놔둬낫주게."[100]

(함석 해다가 (뚜껑)을 도려두고. '쥉이'인가 쥐 때문에 드럼통 했지. '도라무깡'이라고도 하고 '도라무통'이라고도 하고. 처음에 우리 어렸을 때 일본 시대는 몰라. 미국 사람들 들어오면서 저런 거로 기름이 다 왔거든. 지금은 배로 기름을 실어 오지만 옛날은 저 드럼통으로. 보리농사 지을 때 그놈의 쥐인가 '쥉이'인가 많으니까 드럼통에 넣으면 그게 구멍을 못 뚫거든. 그렇게 놔뒀었지.)

"아이고, 도라무깡은 그거 새 세대 난 때. 도라무깡이 어디 실 말이가? 옛날은 도라무깡이 엇엇주, 엿날사."[101]

(아이고, 드럼통은 그거 새 시대 났을 때. 드럼통이 어디 있을 말이야? 옛날은 드럼통이 없었지, 옛날에야.)

남원1리 고영주 씨는 미군들이 들어와 지내면서 기름을 넣어 들여왔던 드럼통을 보리를 보관할 때 사용했다고 한다. 드럼통에 보관하면 쥐들이 쪼아 먹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의귀리 현정자 씨도 새 시대로 들어서면서 드럼통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했다.

<사진 149>는 신례1리 강문선 씨 집 마당 한쪽에 놓여 있는 드럼통이다. 곡식을 보관할 때 사용했던 것으로, 지금은 낙엽 등 소소한 것을 소각할 때 사용하고 있다.



〈사진 150〉 강문선 씨 소장 '도라무깡'

99) 위미2리 양경용 씨 구술.
100) 남원1리 고영주 씨 구술.
101) 의귀리 현정자 씨 구술.

(3) 나무 상자

'나무 상자'는 물건을 넣어 두기 위하여 나무로 네모나게 만든 것을 말한다. 1960년대부터 감귤 농사를 시작했던 남원읍 지역에서는 감귤을 보관할 때 사용했던 나무 상자를 여러 제보자에게서 확인할 수 있었다.

"옛날에 미깡 상자 손으로 다 짰지. 그 낭을 제재소 강 오려다가, 옛날에 그 북풍이, 북풍이 세 가지고 돌담을 다아 가지고, 또 이 돌담 안에 삼나무를 심어 가지고 키왓거든게. 삼나무가 숙대낭이라. 숙대낭을 다 심었지. 방풍낭이 하나도 엇기 때문에. 방풍낭 없이는 미깡낭이 전부 다 바람 때문에 상허기 때문에 삼나무 심어가지고 키와가지고 헷는데, 왜 상자 허기 시작헌 거 그 방풍낭을 짤르니까 잘라서 그 가지 같은 건 땔감으로 쓰지만 솔진 거는 제재소 강 오려 가지고, 그 삼나무 전부 다 돈 줭 사젠 허면은 저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집이서 자기 손수 못 사다가 짜 가지고 썼지. 우리도 내 손으로 짠 게 이 창고 안에 있어."[102]

(옛날에 감귤 상자 손으로 다 짰지. 그 나무를 제재소에 가서 오려다가, 옛날에 그 북풍이, 북풍이 세어서 돌담을 쌓아서, 또 이 돌담 안에 삼나무를 심어서 키웠거든. 삼나무가 '숙대낭'이야. 삼나무를 다 심었지. 방풍나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방풍나무 없이는 감귤나무가 전부 다 바람 때문에 상하기 때문에 삼나무 심어서 키워서 했는데, 왜 상자 하기 시작한 거 그 방풍나무를 자르니까 잘라서 그 가지 같은 건 땔감으로 쓰지만 살진 것은 제재소 가서 오려서, 그 삼나무 전부 다 돈 주고 사려고 하면 저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집에서 자기 손수 못 사다가 짜서 썼지. 우리도 내 손으로 짠 게 이 창고 안에 있어.)

남원1리 정개은 씨에 따르면 예전 감귤 묘목을 심을 시기에 방풍용으로 감귤 과수원 주위로 삼나무를 심었었다고 한다. 제주도는 예부터 바람이 강한 곳이어서 방풍 나무가 없이는 감귤나무가 바람에 쉬이 다 상하므로 방풍용 삼나무를 키운 것이다. 정 씨는 이 나무들을 잘라서 잔 나무들은 땔감으로 사용하고 큰 나무들은 나무 상자를 만들어 감귤을 보관하는 상자로 이용했다. 감귤 보관용 나무 상자는 남원읍 지역의 여러 집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102) 남원1리 정개은 씨 구술.
103) 의귀리 양인필 씨 구술.
104) 수망리 김두천 씨 구술.

"(미깡 상자는) 숙대낭. 그거 보통 우리가 질롸서, 거 방풍용으로 싱거서 그걸 끈언에 만들엇주게. 게난 이거 상당히, 육십 년대난에 이거 멧 년이라게"[103]

((귤 상자는) 삼나무. 그거 보통 우리가 길러서, 그것 방풍용으로 심어서 그걸 잘라서 만들었지.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육십 년대니까 이거 몇 년이야.)

"밀감 저장. 이거 밀감 상자 쳇번은 막 어렵게 구헷주. 이거 나 손으로 다 만든 거. 지금 이게 푸는 것보담 좀 커. 이거 전부 나 손으로 만든 거. 쓰기는 멧 년 전이꺼지 썻어."[104]

(밀감 저장. 이거 밀감 상자 처음은 아주 어렵게 구했지. 이거 나 손으로 다 만든 거. 지금 이게 파는 것보다 좀 커. 이거 전부 내 손으로 만든 거. 쓰기는 몇 년 전에까지 썼어.)



〈사진 150〉 김두천 씨 소장 '나무 상자'



〈사진 151〉 오희일 씨 소장 '나무 상자'



〈사진 152〉 양기화 씨 소장 '나무 상자'



〈사진 153〉 고영주 씨 소장 '나무 상자'

<사진 150>은 수망리 김두천 씨가 보관하고 있는 나무 상자다. 김 씨가 직접 손으로 짠 상자라고 한다. <사진 151>은 의귀리 오희일 씨, <사진 152>는 태흥2리 양기화 씨가 보관하고 있는 나무 상자인데 양 씨 역시 직접 이 상자들을 만들었다고 한다. 양 씨가 만든 것은 파는 상자들보다 크다는 말을 덧붙였다. <사진 153은> 남원1리 고영주 씨가 보관하고 있는 나무 상자다.

"콘테나로 쓴 것이 요즘 삼십 년. 그 전인 상자 그거로 헤서 허면은 우리는 개인은 나무상자 헤가지고 보관헷다가, 옛날에는 그거 헷다가 보관헷다가 상인안테 풀고. 게난 상인은 지금부터 혼 사오십 년 뒛주. 미깡 허니까 이런 상자 쓰단 콘테나가 나왓어. 그 전인 상자 하영 썻주."[105]

('콘테나'로 쓴 것이 요즘 삼십 년. 그 전엔 상자 그거로 해서 하면 우리는, 개인은 나무상자 해서 보관했다가, 옛날에는 그거 했다가 보관했다가 상인에게 팔고. 그러니까 상인은 지금부터 한 사오십 년 됐지. 감귤 하니까 이런 상자 쓰다가 '콘테나'가 나왔어. 그 전엔 상자 많이 썼지.)



〈사진 154〉 김공률 씨 소장 '콘테나'

<사진 154>는 신례1리 김공률 씨 집 창고에 쌓여 있는 콘테이너다. 귤을 따서 운반하고 보관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감귤 농사를 짓는 집에서는 앞서 사진에서처럼 나무 상자를 만들어 사용하다가 플라스틱 용기들이 등장하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제품들로 도구가 바뀌고 있다.

4.7. 기타 도구

(1) 글겡이

'글겡이'는 검불이나 곡물 따위를 긁어모으는 데 쓰는 기구로, '갈퀴'를 말한다. 한쪽 끝에 휘어진 갈고리 모양의 철사 여러 개를 묶어서 만든다. 예전에는 땔감을 구할 때 많이 사용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벌초 후의 검불이나 낙엽을 그러모을 때 주로 사용하고 있다.

"벌초허면은 잡초덜 긁어내는 거. 옛날에 솔입 거튼 거 걷어다가 불을 땔라면은 이런 걸로 허거든. 이건 신식으로 헌 거."[106]

(벌초하면 잡초들 긁어내는 거. 옛날에 솔가리 같은 거 그러모아다가 불을 때려면 이런 걸로 하거든. 이건 신식으로 하는 거.)



〈사진 155〉 현창언 씨 소장 '글겡이'

<사진 155>는 남원1리 현창언 씨가 사용하고 있는 '글겡이'다. 이것은 벌초 때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관하고 있다.

(2) 비창

'비창'은 해녀가 바닷속에서 전복 등의 해산물을 캘 때 사용하는 도구인데, 밭일에서 이용하기도 한다. 구좌읍 지역에서는 당근을 캘 때 비창을 사용하였고, 대정읍이나 한경면 지역에서는 마늘을 캘 때 이 '비창'을 응용하여 만든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다. 남원읍 지역에서는 '비창'을 이용하여 '삼마(반하)'를 채취했었다는 확인할 수 있었다.

"생복 허는 건디, 생복 허는 건디 이거 사 가지고 삼마 판 거라. 이거는 생복 안 떼 봣어, 삼마. 삼마 파고 ᄒᆞ나 몽글아져 벤 엇으난 요거, 요것 또 사다가 헷주. 나 강 파민 ᄒᆞ루에 ᄒᆞᆫ 말은 넘어 파고. 놈은 못 파, 놈은 관뒈로 두 개 파민 난 넉 뒈."[107]

(생복 하는 건데, 생복 하는 건데 이거 사 가지고 반하 판 거야. 이거는 생복 안 떼 봤어, 반하. 반하 파고 하나 몽그라져 버려서 없으니까 요거, 요것 또 사다가 했지. 내가 가서 파면 하루에 한 말은 넘어 파고. 다른 사람은 못 파, 다른 사람은 관되로 두 개 파면 난 넉 되.)

105) 신례1리 김석종 씨 구술.
106) 남원1리 현창언 씨 구술.
107) 위미2리 양경용 씨 구술.

"이거 삼마 파레. 이거 어디 강 봉가와시니게. 삼마 파는 거, 이걸로 삼마 팡 나 돈 많이 번 거, 이거. 삼마 파고 고사리 거끄고. 서른일곱에 허난에 혼 십 년은 삼마 팟주게. 혼 십 년은 삼마 팟어. 가면은 관뒈로 일곱 개, 관뒈 저걸로 일곱 개 영 올려근에 허곡 두 깡통, 하나 깡통으로 하나 더 허면은 두 말. 겐 한 짐이주게. 두 번 강 이틀만 가민 헤근에 함덕 강 풀아근에 함덕 강 풀아근에. 송당 강 머정, 송당 강 머정근에 함덕 가근에 저 거 풀아근에 혼 번 더 헤근에 오면은 삼십만 원은 더 벌어, 나흘 헹."[108]

(이거 반하 파러. 이거 어디 가서 주워왔어. 반하 파는 거, 이걸로 반하 파서 나 돈 많이 번 거, 이거. 반하 파고 고사리 꺾고. 서른일곱에 하니까 한 십 년은 반하 팠지. 한 십 년은 반하 팠어. 가면 관되로 일곱 개, 관되 저걸로 일곱 개 이렇게 올려서 하고 두 깡통, 하나 깡통으로 하나 더 하면 두 말. 그래서 한 짐이지. 두 번 가서 이틀만 가면 해서 함덕 가서 팔아서 함덕 가서 팔아서. 송당 가서 머물고, 송당 가서 머물다가 함덕 가서 저 거 팔아서 한 번 더 해서 오면 삼십만 원은 더 벌어, 나흘 해서.)



〈사진 156〉 양경용 씨 소장 '비창'

<사진 156>은 위미2리 양경용 씨가 반하를 캘 때 사용하는 '비창'이다. 원래는 전복을 캘 때 사용하는 '비창'을 구입하여 바다에서는 사용해 보지 않고 반하를 캘 때 사용했었다고 한다. 몽그라져 있는 '비창'의 끝부분을 보면 얼마나 많이 사용하여 닳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3) 호크

'호크'는 영어의 '포크(fork)'를 일본어식으로 발음한 것으로, 농작물의 짚이나 거름 따위를 뜨거나 흩을 때 사용하는 포크 모양의 농기구다.



〈사진 157〉 오경수 씨 소장 '호크'

<사진 157>은 의귀리 오경수 씨의 '호크'다. 오 씨는 이것을 과수원의 잔 나뭇가지를 치우거나 거름을 줄 때 사용하고 있다.

(4) 철궤

'철궤'는 땅에 박힌 돌 따위를 일으킬 때 사용하는 도구다. 보통 쇠로 만드는데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무거운 돌을 일으키거나 움직이게 할 때 사용한다. '철궤'를 제보자에 따라 '지릿대'라고도 하였다.

"돌 일루면서, 과수원 담다우면서 담 일르고."[109]

(돌 일으키면서, 과수원 담쌓으면서 담 일으키고.)

"큰 돌 일를 때 쓰는 거. 미깡낭 심을 때."[110]

(큰 돌 일으킬 때 쓰는 거. 감귤나무 심을 때.)



〈사진 158〉 현창언 씨 소장 '지릿대'



〈사진 159〉 김석종 씨 소장 '철궤'

<사진 158>은 남원1리 현창언 씨, <사진 159>는 신례1리 김석종 씨가 사용했던 '철궤'다. 둘 다 밭을 일궈 감귤 나무를 심을 때 땅속의 박혀 있는 큰 돌을 솟아오르게 하는 데 사용했었다고 한다.

108) 위미2리 양경용 씨 구술.
109) 남원1리 현창언 씨 구술.
110) 신례1리 김석종 씨 구술.

5. 어업 관련

남원읍 지역은 과수 농업이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6개 조사 마을 중 남원1리, 위미2리, 태흥2리는 해안 마을로 반농반어 지역이다. 다른 세 개 마을도 중산간 마을이지만 바닷일을 조금씩 하였다. 어업 관련 도구는 고기잡이 관련 도구, 해녀들이 물질 도구가 주된 도구이다. 이 장에서는 남원1리에서 조사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녀들이 물질할 때 필요한 물옷, 테왁과 망사리, 채취 도구, 기타 도구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5.1. 물옷

'물옷'은 물속에서 일을 할 때 입는 잠수복 따위의 옷을 말한다. 고무로 만든 잠수복이 나오기 전까지 제주의 해녀들은 광목 등의 무명으로 만든 '속곳'을 입고 물질하였다. 머리에는 무명 수건을 쓰고 위에 무명으로 만든 적삼을 입기도 했다.

(1) 속곳

'속곳'은 해녀들이 물질을 할 때 입는 옷으로, '소중의', '소중기'라고도 한다. 보통 무명이나 광목 따위로 만들어 파란 물이나 검은 물을 들여서 입었다.

"속곳, 속곳, 물질헐 때 입는 거. 이것도 그거영 ᄀᆞ튼 거, 통영 갈 때 만든 거. 서른 전에 헌 거. 대보옌 헌 디 두 해 가고 아까 ᄀᆞᆯ은 디. 세 해베끼 안 가 완. 서른 막 전이. 그 땐 그 거시기 열아홉에 시집강 그 해에 가 오고, 스물 나는 해에 가고, 그 듯해 가고 부쪄 놩 ᄌᆞ근ᄌᆞ근 삼 년 가 온 거주."[1]

('속곳', '속곳' 물질할 때 입는 거. 이것도 그거랑 같은 거, 통영 갈 때 만든 거. 서른 안에 한 거. 대보라고 하는 데 두 해 가고 아까 말한 데. 세 해밖에 안 갔다 왔어. 서른 막 전에. 그땐 그 거시기 열아홉에 시집가서 그 해에 갔다 오고, 스물 나는 해에 가고. 그 다음해 가고 붙여 놓고 차근차근 삼 년 갔다 온 거지.)

"옆으로 입는 거. 어깨 영 꿰고 이딘 돌메기 메사, 오른쪽으로. 메친을 이레 메야. 이건 허리에 메사. 요건 돌메기 메사. 옛날에 시집간 사름덜 무조건 돌메기덜 하영. 이건 허리에 딱 메사. 메친, 곰 허리에 허리 곰, 돌메기."[2]

(옆으로 입는 거. 어깨 이렇게 꿰고 여긴 매듭단추 매야, 오른쪽으로. '메친'을 이리 매야. 이건 허리에 매야. 요건 매듭단추 매야. 옛날에 시집간 사람들 무조건 매듭단추들 많이. 이건 허리에 딱 매야. '메친', 고름 허리에 허리 고름, 매듭단추.)

"우리 옛날에 다 이추룩 헤영 돌메기 클르젠 허민 막. 물에 들엉 나가민 이거 클러근에 확 벗어 베사주, 추웡 빨리 불 초젠. 게난 우이 막 쭉 허게시리 배에 발동기에 쭉 대 노민 그디 속곳덜 널어 노민, 속곳 세 개 헹 가도 부족헌 거라 일 년에. 막 내로, 막 솔아 부난게 아래선 불 때고, 불 초고 우이선 몰르렌. 그거 빨리 몰라사 입엉 들 거라부난, 그거 입엉 들 거라부난. 이거 입엉 가곡 골아입은 거 하나도 아졍 가곡 두 개도 아졍 가. 두 개도 아졍 가사. 그자 뱃물질은 몰르지 안허는 따문에. 배에 강 물질허는 따문에."[3]

(우리 옛날에 다 이처럼 해서 매듭단추 풀려고 하면 아주. 물에 들었다가 나가면 이거 풀려서 확 벗어 버려야지, 추워서 빨리 불 쪼려고. 그러니까 위에 마구 쭉 하게끔 배에 발동기에 쭉 대 놓으면 거기 '속곳'들 널어 놓으면, '속곳' 세 개 해서 가도 부족한 거야, 일 년에. 아주 연기로, 마구 살라 버리니까 아래에서 불 때고, 불 쬐고 위에선 마르라고. 그거 빨리 말라야 입고 들어갈 거니까. 이거 입고 가고 갈아입은 거 하나도 가지고 가고 두 개도 가지고 가. 두 개도 가지고 가야. 그저 뱃물질은 마르지 않기 때문에. 배에 가서 물질하기 때문에.)

1) 위미2리 오순만 씨 구술.
2) 위미2리 오순만 씨 구술.
3) 위미2리 오순만 씨 구술.

"속곳은 ᄆᆞ른, ᄆᆞ른 옷, ᄆᆞ른 몸에 입곡, 물에 강 입을 옷 허곡. 두 개도 아졍 가곡, ᄒᆞ나도 아졍 가곡. 경 헤영. 잇는 대로 아졍 가주게, 신 사름은."[4]
(속곳은 마른, 마른 옷, 마른 몸에 입고 물에 가서 입을 옷 하고. 두 개도 가지고 가고, 하나도 가지고 가고. 그렇게 해서. 있는 대로 가지고 가지. 있는 사람은.)



〈사진 1〉 오순만 씨 소장 '속곳'


〈사진 2〉 오순만 씨 소장 '속곳'의 '들메기'

<사진 1>은 위미2리 오순만 씨(1941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속곳'이다. 오 씨가 통영으로 물질을 갔을 때 만든 것이라고 한다. '속곳'을 입을 때는 옆으로 입는 것이라고 한다.

<사진 1>의 왼쪽은 모두 '들메기'라 부르는 매듭단추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 어깨로 '메친'이라 부르는 어깨끈이 가게 하여 입고 매듭단추를 채운다. 허리 부분에는 '허리곰'이라고 부르는 긴 끈이 있는데 이것을 허리에 둘러 묶는다. <사진 2>는 '속곳'에 달려 있는 '들메기'다.

오순만 씨는 물에 들었다가 나오면 이 '들메기'를 얼른 풀어 물에 젖은 '속곳'을 벗고 불을 쬐였다. 추위를 이기며 물질을 하기 위해선 갈아입을 '속곳' 한두 벌은 챙기고 가야 한다. 그리고 젖은 '속곳'은 배의 발동기 위에 널어 두었다고 한다.

4) 남원1리 김수정 씨 구술.
5) 남원1리 김수정 씨 구술.
6) 위미2리 오순만 씨 구술.
7) 위미2리 오순만 씨 구술.

"벌ᄆᆞ작도 허곡. 아래 건 속곳 영 헤영 멘들엉 허리도 ᄯᅮ루. 허린 소랑허게시리 이리 맞게시리 헤여근에 아랫옷으로 헹 부쪄근에 메큰 허영 영 메곡."[5]
(매듭단추도 하고, 아래 건 '속곳'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허리도 따로. 허리는 길쭉하게끔 이리 맞게끔 해서 아랫옷으로 해서 붙여서 '메큰' 해서 이렇게 매고.)

한편, 남원1리 김수정 씨는 '속곳'에 다는 매듭단추를 '벌ᄆᆞ작', 어깨끈은 '메큰'이라고 하였다. 남원읍 지역 내에서도 제보자에 따라 이것들을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달랐다.

"속곳 입언에게 수건도 헤영헌 수건 쓰곡 물적삼도 헤영케 이런 광목으로 멘들앙 입곡. 고무옷 엇이난게. 그자 배에서 팡팡 털어지는 거라, 그 추운 디도. 추운 줄 몰라."[6]
('속곳' 입고 수건도 하얀 수건 쓰고 '물적삼'도 하얗게 이런 광목으로 만들어서 입고. 고무옷 없으니까. 그저 배에서 팡팡 떨어지는 거야, 그 추운 데도. 추운 줄 몰라.)

"물적삼은 헤영케 헤야 허여. 수건도 헤영케 헤야 허여. 수건 쓰고 물적삼 저런 거, 그거 물적삼은 검엉 물 안 들영. 수건도 안 들영 헤영케. 경 헤사 사름덜 베리게. 속곳 물들이는 거는 버물지 말렌. 물감 상 들이고 또 들여 도렌 헹 들임도 허곡. 이거는 막 그때 만들멍 에에, 물 안 들이고 대고 만들어근에 대개 저 무시거 허켜 헨 만들언 내분 거주게. 고무옷 입어 부난. 고무옷 안 입어시민 이거 다 헐리워실 건디 고무옷 입엉 허단 설러 부난에. (게난 삼춘 멧 설에 고무옷 입어집디까?) 아이고, 우리 고무옷 몰라, 멧 설에 입어져신고? 우린 잘 못허주게. 잘 허는 사름덜은 막 상군덜 잇엉, 우리 경 잘허지 안혀."[7]
('물적삼'은 하얗게 해야 해. 수건도 하얗게 해야 해. 수건 쓰고 '물적삼' 저런 거, 그거 '물적삼'은 검어서 물 안 들여서. 수건도 안 들여서 하얗게. 그렇게 해야 사람들 보게. '속곳' 물들이는 거는 더러워지지 말라고. 물감 사서 들이고 또 들여 달라고 해서 들이기도 하고. 이거는 그때 마구 만들면서 에에, 물 안 들이고 대고 만들어서 대개 저 뭐 하겠다고 해서 만들어서 내버린 거지. 고무옷 입어 버리니까. 고무옷 안 입었으면 이거 다 헐게 했을 건데 고무옷 입고 하다가 그만두니까. (그러니까 삼촌 몇 살에 고무옷 입을 수 있었습니까?) 아이고, 우리 고무옷 몰라, 몇 살에 입었지? 우린 잘 못하지. 잘하는 사람들은 막 '상군'들 있어서, 우리 그렇게 잘하지 않아.)

'속곳' 위에는 '물적삼'을 입었고, 또 머리에는 하얀 수건을 둘러썼다. '속곳'인 경우는 더러워지지 말라고 물을 들여서 입기도 했으나 '물적삼'과 '물수건'은 물을 들이지 않고 하얗게 해서 만들었다. <사진 1>의 '속곳'은 오 씨가 몇 번 입고 물질을 하다가 고무옷이 나와서 고무옷을 입으면서 더 이상 입지 않게 돼 보관만 하고 있다고 한다.

"속곳 입엉 난 헨 설럿지. 물옷 안 난 때. 해녀복 안 날 때, 족은아덜 나난 끗 헷어. 마흔ᄋᆞ답. 가이 나난 못 헹. 살림 버치고 물에 들레 가곡 허민 못 허곡 헨 그땐 설럿어. 속곳도 놔뒀단 요자기꺼지 놔뒀단 데껴 베신디."[8]

('속곳' 입고 나는 하고 그만뒀지. 물옷 안 나왔을 때. 해녀복 안 나왔을 때, 작은아들 낳으니까 끝 했어. 마흔여덟. 걔 낳으니까 못 하고. 살림이 (힘에) 부치고 물에 들어가려 가고 하면 못 하고 해서 그땐 그만뒀어. '속곳' 놔뒀다가 요사이까지 놔뒀다가 던져 버렸어.)

남원1리 강순화 씨(1941년생)는 고무로 된 해녀복이 나오기 전, '속곳'을 입고 물질을 하던 시기에만 물질을 했었다고 한다. 작은아들을 낳고 나서 고무옷이 나온 시기에는 물질을 그만두었다고 한다.

"뜨데기 저 소게 놩. 소게 놩 멘들앙 영영 톡허게 써근에 불 초는 거."[9]

('뜨게기' 저 솜 넣어서. 솜 넣어서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톡 하게 써서 불 쬐는 거.)

겨울철 해녀들이 '속곳'을 입고 작업을 할 때는 물에서 나오면 추웠기 때문에 어깨에 걸칠 옷을 준비해서 갔다. 그 옷을 '뜨데기'라고 불렀다. '뜨데기'는 솜을 안에 넣어서 만들었는데, 해녀들은 물질을 하고 나와 '뜨데기'를 뒤집어쓰고 불을 피워서 쬐었다고 한다.

8) 남원1리 강순화 씨 구술.
9) 남원1리 김수정 씨 구술.
10) 위미2리 양경용 씨 구술.
11) 남원1리 김수정 씨 구술.
12) 남원1리 김수정 씨 구술.

(2) 고무옷

'고무옷'은 해녀들이 물속에서 작업할 때 입는 고무로 만든 잠수복이다. 1970년대 초반 고무옷이 등장하면서 물질 도구의 변화를 보인다. 이전까지는 무명으로 만든 '속곳'에 '물수건'을 쓰고 적삼을 입고 작업을 하다가 고무옷이 나오자 고무옷으로 해녀복이 바뀌었다. 상하의 고무로 된 잠수복에 고무모자, 오리발까지 갖추게 되면서 해녀들이 물에 드는 시간이 길어졌다.

"웨방물질 스무 살, 스물한 살에는 고무옷을 안 입엉 속곳 입엉, 스물아홉에 갈 때는 고무옷. 고무옷 입엉 헌 거."[10]

(외방물질 스무 살, 스물한 살에는 고무옷 안 입고 '속곳' 입고, 스물아홉에 갈 때는 고무옷. 고무옷 입고 한 거.)

"엿날은 맨발에 오리발도 아니여. 맨발에, 맨발에 휘여낫어. 게믄 발이 ᄉᆞ뭇 착착 기차져. 물이 얼마나 실려? 저슬에사. 눈 우이, 눈 허영 온 디도 들어낫어. 고무옷 입은 땐 헌디, 고무옷 안 입은 땐 기자 ᄒᆞᆫ 언만 못 살아, 바당에덜. 추워."[11]

(옛날은 맨발에 오리발도 아니야. 맨발에, 맨발에 헤엄쳤었어. 그럼 발이 사뭇 착착 끊어져. 물이 얼마나 시려? 겨울에야. 눈 위에, 눈 하얗게 온 데도 들었었어. 고무옷 입을 때는 했는데, 고무옷 안 입을 때는 그저 한 얼마 못 살아, 바다에서들. 추워.)

"고무옷 아니 입엉 들민 재기 춥주게. 재기 추민 언만 오래 살지 못허여, 바당엔. 이젠 고무옷 입으민 뭐 멧 시간이라도 살앙 나왐시."[12]

(고무옷 안 입고 들어가면 빨리 춥지. 빨리 추우면 얼마 오래 살지 못해, 바다에는. 이제는 고무옷 입으면 뭐 몇 시간이라도 살아서 나오면.)

위미2리 양경용 씨(1941년생)는 스물한 살과 스물여덟 살에 다른 지역으로 물질을 갔었다고 한다. 스물한 살 때는 '속곳'을 입고, 스물여덟 살에는 고무옷을 입고 물질을 했다. 남원1리 김수정 씨는 고무옷이 나오기 전에는 발도 맨발에 물질했다고 한다. 눈이 하얗게 내리는 날에 물질을 하기도 했는데 추위에 발이 시려서 끊어질 정도였다고 한다. 해녀들이 고무옷을 입게 되면서 바뀐 것은 바다에서 전보다 훨씬 오래 작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진 3〉 남원1리 공동 탈의장의 '고무옷'



〈사진 4〉 남원1리 공동 탈의장의 '고무옷'과 '고무모자'

<사진 3>과 <사진 4>는 남원1리 해녀탈의장에 걸려 있는 고무옷이다. 고무옷 뒤로 '테왁'과 '망사리'들이 걸려 있는 모습이 보인다.

(3) 눈

'눈'은 해녀들이 물질할 때 쓰는 물안경을 말한다. 최근에는 고무 테두리를 두른 물안경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양쪽으로 두 개의 작은 렌즈에, 테두리가 쇠로 된 '족은눈'을 사용했었다. 이 '족은눈'과 대비하여 큰 렌즈의 물안경을 '큰눈', '왕눈'이라 부르기도 한다. '눈'은 테두리가 고무로 되어 있다고 해서 '고무눈'이라고도 한다.



〈사진 5〉 고방순 씨 소장 '족은눈'

<사진 5>는 신례1리 고방순 씨(1937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족은눈'이다. 렌즈의 테두리는 쇠로 되어 있고 렌즈와 렌즈를 연결하는 부분은 철사로 묶고 있다. 머리에 두르는 줄은 없이 사진에서처럼 렌즈만 남아 있는 상태다.

13) 남원1리 김수정 씨 구술.



〈사진 6〉 고영주 씨 소장 '눈'



〈사진 7〉 현창언 씨 소장 '눈'

<사진 6>은 남원1리 고영주 씨(1935년생) 집에 보관하고 있는 물안경이고, <사진 7>은 남원1리 현창언 씨(1937년생)의 아내가 사용했던 물안경이다.

(4) 귀마개

'귀마개'는 해녀들이 물질을 할 때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귀를 막는 물건을 말한다.

"저 무시거, 귀 막는 저, 밀 헤영 막아낫주. 저 무시거 몰라, 옛날엔. 시방덜은 저 귀막젱 허민 끔 씹어. 끔 씹어근에 헤영 막앙 혼디 옛날은 밀, 밀 헤근에 막 달와근에 저 헤낫어. 우리 어머니네. 우리 두린 때 보민, 허는 거. 밀이 뭣산지 그 저 청, 청 앚져난 주셍이. 그거 헤영 밀 헤영 막 밟아근에. 밀 헤영 막아사주, 저 아이 막는 사름은 아이 막아도 막아사주."[13]

(저 뭐, 귀 막는 저, 밀 해서 막었었지. 저 뭐 몰라, 옛날에는. 시방들은 저 귀 막으려고 하면 껌 씹어. 껌 씹고 해서 막아서 같이 옛날은 밀, 밀 해서 마구 이겨서 저 했었어. 우리 어머니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하는 거. 밀이 뭐인지 그 저 꿀, 꿀 앉혔던 찌꺼기. 그거 해서 밀 해서 마구 밟아서. 밀 해서 막아야지, 저 안 막는 사람은 안 막아도 막아야지.)

남원1리 김수정 씨의 말에 따르면 해녀들은 물질을 할 때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귀마개를 해야 했는데 과거에는 이 귀마개로 밀을 이겨 귀에 꽂았다고 한다. 밀은 꿀을 앉혔던 찌꺼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것을 사용해 꼭 귀를 막아 물질을 했다고 한다. 요즘은 전처럼 밀로 귀를 막지 않고 껌을 씹어 물의 압력을 이겨낸다고 했다.

(5) 연철

'연철'은 해녀들이 물질을 할 때 허리는 차는 물건이다. 고무옷을 입고 바닷물에 들어가면 부력 때문에 물속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으므로 해녀들은 보통 묵직한 연철을 허리에 차고 물에 들어간다.

"그땐 돌멩이 안 차. 그땐 속곳만 입으난. 돌멩이 아이 차." 14)
(그땐 돌멩이 안 차. 그땐 '속곳'만 입으니까. 돌멩이 안 차.)

"연철도 차사. 연철 저 일 킬로, 일 관 오 백. 족으민 터 비여. 무거와사 물 아래 가주." 15)
('연철'도 차야. '연철' 저 일 킬로그램 오 백. 적으면 떠 버려. 무거워야 물 아래 가지.)



〈사진 8〉 남원1리 공동 탈의장의 '연철'

<사진 8>은 남원1리 탈의장에 찍은 '연철'이다. 해녀들이 고무옷을 입게 되면서 달라진 것 중의 하나가 연철이다. 남원1리 김수정 씨는 '연철'을 돌멩이라고도 했는데, '속곳'을 입고 물질할 때는 돌멩이를 차지 않았지만 이제는 연철을 차야 물 아래로 들어가기가 쉽다고 한다. 해녀의 나이가 들수록 허리에 차는 연철을 더 무겁게 한다고 한다.

5.2. 테왁과 망사리

(1) 테왁

'테왁'은 해녀들이 물질할 때 바다에서 타는 물건을 말한다. 이 '테왁'에는 '망사리'를 매달아 채취한 해산물을 '망사리'에 넣는다. 물질을 할 때 '테왁'을 가지고 가서 바다에 띄워 놓고 물속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캐고 물위로 올라오는 것을 반복하며 작업을 한다. 이때 테왁이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테왁에 닻돌을 매달아 두기도 한다.

14) 남원1리 김수정 씨 구술. 15) 남원1리 김수정 씨 구술.
16) 남원1리 김수정 씨 구술. 17) 남원1리 김수정 씨 구술.

"큭, 큭크게 열민. 저 테왁 허젱 크게 연 건 ᄀᆞ만이 놨당 막 익어사. 막 익어근에 탕 그걸 이제 고냥 똘랑, 미시것에 노꼿으로 문 돌아메영. 옛날엔 부엌 헤영 불 솜앙 솟 앚젼 불 솜앙 헤낫지, 밥. 게난 그런 딘 영 돌아멩 놔두민 그 불찝에 ᄒᆞ쏠 누리룽허게 그 안네서 저 씨가 문 녹아가주게. 게민 막 파 비여. 허이구, 옛날엔 춤." 16)
(박, 박 크게 열면. 저 '테왁' 하려고 크게 연 건 가만히 놨다가 마구 익어야. 마구 익어서 타서 그걸 이제 구멍 뚫어서, 뭐에 노끈으로 모두 달아매서. 옛날에는 부엌 해서 불 때서 솥 얹어서 불 때서 했었어, 밥.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이렇게 달아매서 놔두면 불씨에 조금 누르스름하게 그 안에서 저 씨가 모두 녹아가지. 그럼 마구 파 버려. 하이고, 옛날에는 참.)

"테왁도 옛날은 큭. 큭 욜아근에 소곱에 거울, 요만헌 고냥 똘라근에 영 불 솜는, 불 속에 돌아메어. 그 테왁을 ᄒᆞ쏠 저 더운 짐으로 ᄒᆞ쏠 익곡 몰르곡 ᄒᆞ민 그 안네 거울, 씨 그걸 몰려. 씨 영 거울 헤영 씨 담은 것이 저 거울인가, 꺼울인가 하하. 경허민 막 뎅이 찔렁 그 요만헌 고냥 똔 디로 막 막뎅이 찔렁 막 그 안네 그 씨 저 거울 부튼 씨 영 헤근에 막 줏아 가민 그 씨가 문 털어지주게, 문딱 그걸 파내어. 문 파내근에 그 미로 노 꼬아근에 마딱 얼거. 미시거 고무라도 뱅 동글랑 그것에 맞추왕 동글랑헹 딱 맞으민 물 아이 들게 막앙. 경헤여근에 저 얼거근에 테왁에 이런 망사리에 돌아메영." 17)
('테왁'도 옛날은 박. 박 열어서 속에 '거울', 요만한 구멍 뚫어서 이렇게 불 때는, 불 속에 달아매. 그 '테왁'을 조금 저 더운 김으로 조금 익고 마르고 하면 그 안에 속, 씨 그걸 말려. 씨 이렇게 속 해서 씨 담은 것이 저 '거울'인가, '꺼울'인가 하하. 그러면 막대기 찔러서 그 요만한 구멍 뚫은 데로 마구 막대기 찔러서 마구 그 안에 그 씨 저 '거울' 붙은 씨랑 해서 막 쪼아 가면 그 씨가 모두 떨어지지, 모두 그걸 파내. 모두 파내서 그 '미'로 노 꼬아서 모두 얽어. 뭐 고무라도 뱅 동그랗게 그렇게 맞춰서 동그래서 딱 맞으면 물 안 들게 막아서. 그래서 저 얽어서 '테왁'에 이런 망사리 달아매서.)

요즘은 스티로폼을 이용해서 '테왁'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지만, 스티로폼이 나오기 전까지는 박을 이용했다. 박이 열면 큰 것을 골라 두었다가 잘 익으면 땄다. 그 박에 구멍을 뚫어 깨끗이 속의 씨 등을 긁어내 말리는데 말릴 때는 부엌에 불을 때는 아궁이 근처에 걸어 두면 좋았다고 한다. 잘 마르면 이제는 처음에 냈던 구멍에 물이 안 들어가게 구멍을 메운다. 마지막으로 억새의 속껍질을 이용해서 노를 꼬아 박을 둘러 묶으면 '테왁'이 완성된다.

"(그거 만들민 그거 얼마나 써집니까?) 잘만 아져 뎅기민 오래 쓰주게. 잘못허당 어떵헹 돌이라도 다치민 벌러져 불민 못 허주. 난 ᄒᆞᆫ ᄒᆞᆫ 오 년 ᄋᆞ젼 뎅겻지. 막 오래 아졍 뎅엿주."[18]

((그거 만들면 그거 얼마나 쓸 수 있습니까?) 잘만 가지고 다니면 오래 쓰지. 잘못하다가 어떡해서 돌이라도 다치면 깨져 버리면 못 하지. 난 한 한 오 년 가지고 다녔지. 막 오래 가지고 다녔지.)

'테왁'은 박이 깨져 버리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얼마나 조심해서 잘 가지고 다니는지가 문제다. 남원1리 김수정 씨(1931년생)는 한번 테왁을 만들면 오 년 정도 사용했었다고 한다.



〈사진 9〉 남원1리 공동 탈의장의 '테왁'



〈사진 10〉 남원1리 공동 탈의장의 '테왁'

<사진 9>와 <사진 10>은 남원1리 해녀탈의장에 보관하고 있는 '테왁'이다. 남원읍 지역의 해녀들을 개인이 사용하는 물질 도구를 대부분 집으로 가져오지 않고 해녀탈의장에 보관하고 있었다.

"서이 싸람덜은 이치룩 테왁을 얼거두 이딘 테왁 잘도, 욜로 가멍 보라. 테왁 잘도 곱게 얽엉 막 춤 아졍 놀암직허게 얼거. 이치룩 얼그지 아녀. 이런 데 막 감 여러 개, 이 줄이 일곱 가지, 일곱 가지 벵벵 허게시리 헤낫주. 일곱 줄을 영 멘들앙 욜로 요레만이 저 얼거낫어. 이치룩 아니 혀. 요만이 얼거나곡 또 요디, 요디두 요만이 허곡."[19]

18) 남원1리 김수정 씨 구술.
19) 남원1리 김수정 씨 구술.

(서쪽 사람들은 이처럼 '테왁'을 얽어도 여긴 '테왁' 아주, 요리로 가면서 봐라. '테왁' 아주 곱게 얽어서 마구 참 가지고 놀만하게 얽어. 이처럼 얽지 않아. 이런 데 마구 가는 거 여러 개, 이 줄이 일곱 가지, 일곱 가지 뱅뱅 하게 했었어. 일곱 줄을 이렇게 만들어서 요리로 요리만 저 얽었었어. 이처럼 안 해. 요만큼 얽었고 또 요기, 요기도 요만큼 하고.)

'테왁'의 줄을 매는 방법은 지역마다 다르다. 남원1리 김수정 씨는 서쪽 지역의 '테왁'과 남원읍 지역의 '테왁'을 보면 '테왁'을 두르는 줄을 매는 방법이 크게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사진 9>의 '테왁'을 자세히 살펴보면 육각형 모양으로 '테왁'을 두르고 가는 줄을 가지런하게 하여 줄을 묶을 것을 볼 수 있다.

(2) 망사리

'망사리'는 미역이나 소라, 전복 등의 해산물을 채취하여 넣기 위해 만든 그물자루를 말한다.

"미 빠당 물류왕 그거 이제 두드려근에, 복닥 두드령 꼬앙 꼬아근에 손으로 문 얼거. 저 거시기 만들앙. 우리 두린 땐 우리 어머니두 상군 허곡, 나도 허곡 ᄒᆞ민 우리 친정아바지 그 미 빠다근에 물량 두드려근에 그걸로 꼬앙 망사리덜 멘들아 줘낫주."[20]

(억새 뽑아다가 말려서 그거 이제 두드려서, 흠칫 두드려서 꼬아서 꼬아서 손으로 모두 얽어. 저 거시기 만들어서.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어머니도 '상군' 혹, 나도 하고 하면 우리 친정아버지 그 억새 뽑아다가 말려서 두드려서 그걸로 꼬아서 망사리들 만들어 줬었지.)

"옛날은 미덜, 미로 ᄒᆞ곡 저 남총. 남총 그 영 겁데기 뽑아근에 그걸로도 꼬앙 헤나곡 경헷주게. 신사란 안 헤연. 신사란 늘어낭 안 뒈여. 남총허곡 남총, 그 검은 거 그거 뽑앙 저 꼬아근에 망사리 허곡 미, 미 빠다근에 그걸로 꼬아근에 망사리 허곡 헤낫주."[21]

(옛날은 억새들, 억새로 하고 저 종려나무. 종려나무 그 이렇게 껍데기 뽑아서 그걸로도 꼬아서 했었고 그랬지. 뉴질랜드삼은 안 했어. 뉴질랜드삼은 늘어나서 안 돼. 종려나무하고 종려나무, 그 검은 거 그거 뽑아서 저 꼬아서 망사리 하고 억새, 억새 뽑아다가 그걸로 꼬아서 망사리 하고 했었지.)

20) 남원1리 김수정 씨 구술.
21) 남원1리 김수정 씨 구술.

나일론이 나오기 전까지 '테왁'의 줄은 식물의 줄기를 꼬아 만들어 사용했다. '망사리'도 마찬가지로, 남원읍 지역에서 '망사리'는 주로 '미'나 '남총' 등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미'는 참억새의 꽃이 나오기 전에 그것을 싸고 있는 껍질이고, '남총'은 종려나무를 말한다. 억새의 속 줄기나 종려나무의 줄기를 드려 줄을 만들어, 이를 가지고 '망사리'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사진 11〉 남원1리 공동 탈의장의 '테왁'과 '망사리'



〈사진 12〉 남원1리 공동 탈의장의 모습

<사진 11>과 <사진 12>는 남원1리 해녀탈의장에 놓여 있는 '테왁'과 '망사리'들이다. 해녀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해녀탈의장에 보관하고 있다.



〈사진 13〉 고영주 씨 소장 '망사리'



〈사진 14〉 남원1리 공동 탈의장의 '닷돌 망사리'

22) 남원1리 김수정 씨 구술.
23) 남원1리 김수정 씨 구술.

<사진 13>은 남원1리 고영주 씨 집에서 갯가에 고둥 따위의 해산물을 잡으러 갈 때 가지고 다니는 작은 망사리다. <사진 14>는 남원1리 해녀탈의장에서 찍은 '닷돌 망사리'다. '닷'은 한 곳에 멈추어 있게 하기 위하여 줄에 매어 물 밑바닥으로 가라앉히는 물건이다. 해녀들은 물질할 때 '테왁'이 파도에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테왁'에 '닷돌'을 매어 작업을 한다. 물에 들어가기 전 바닷가에서 적당한 돌을 골라 여기에 넣고 물에 들어간다고 한다.

"망사리사, 어음 이만은 헤여근에 테왁 돌곡 망사린 이레 헤여근에. 메역 ᄌᆞ물 땐 메역 ᄌᆞ물곡."[22]
('망사리'야, '어음' 이만큼 해서 테왁 달고 '망사리'는 이리 해서. 미역 캘 때는 미역 캐고.)

"건 어음게. 어음은 저 화전에 가근에 저 볼레 알아져? 다른 건 영 오그령 영 벵 동글랑허게 오그리지 못허여. 볼레줄 이만헌 막 솔진 거 헤당근에 벵허게 저 놀건 때에. 젖인 때에 벵허게 오그령 무꺼근에 무껑 놧당 그거 문 이 저 몰라가민 따시 그거 저 문 겁데기 벳겨근에 딱 허게 무꺼근에 허면. 푸는 사름도 잇어, 헤당. 저 화전에 강. 그 어음 저 아무 낭이나 안 뒈여. 그 볼레줄 헤사."[23]
(건 '어음'. '어음'은 저 화전에 가서 저 보리장나무 알아? 다른 건 이렇게 오그려서 이렇게 뱅 동그랗게 오그리지 못해. 보리장나무 이만한 아주 살진 거 해다가 뱅 저 날것인 때에. 젖은 때에 뱅 오그려서 묶어서 묶어 놨다가 그거 모두 이 저 말라 가면 다시 그거 저 모두 껍데기 벗겨서 딱 묶어서 하면. 파는 사람도 있어, 해다가 저 화전에 가서. 그 어음 저 아무 나무나 안 돼. 그 보리장나무 해야.)

망사리에 두른 테를 '어음'이라고 한다. 제보자에 따라 '어움, 에움'이라고도 하는데 '어음'은 보통 보리장나무, 상동나무, 다래나무 등을 이용하여 만들었다. 남원1리 김수정 씨는 '어음'은 아무 나무로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어음'은 제주에서 '볼레낭'이라고 불리는 보리장나무를 이용해서 만들었다. 보리장나무는 잘 휘어지기 때문에 나무가 마르기 전에 둥글게 하여 오그려서 묶어 두었다가 잘 말려서 껍질을 벗기고 '테왁'의 '어음'으로 사용했다. 한편, '어음'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메역 헐 때 그 망사리 ᄀᆞ득카 부덴 또 이만흔 거 거시기, 잘리 무시것가 잇어, 그물로 뒌 거. 그물로 만든 거난게, 홍사리게. 그거 저 미시것덜 저 소랑허게 저 무시거 담지 아녀냐? 노곳으로, 퍼렁헌 노곳으로 짠 것덜 잇나. 이만이헌 거. 엿날 고구마 담아난 것덜."[24]

(미역 할 때 그 망사리 가득할까 봐 또 이만한 거 거시기, 자루 뭐가 있어, 그물로 된 거. 그물로 만든 거니까, '홍사리'. 그거 저 뭐들 저 갸름하게 저 뭐 담지 않니? 노끈으로, 파란 노끈으로 짠 것들 있어. 이만한 거. 옛날 고구마 담았던 것들.)

망사리에 '어음'이 없는 것을 '홍사리'라고 한다. 김수정 씨는 미역을 캘 때 망사리가 가득 찰까 봐 별도의 '홍사리'를 가지고 갔다고 한다.

(3) 조레기

'조레기'는 작은 그물주머니로, 전복이나 해삼, 문어 따위의 해산물을 넣는 용도로 사용한다. '조락'이라고도 한다.

"조레기 창 가믄, 시방 테레비에 보민 저 서이 사름덜 테왁에 조레기 이만썩 헌 거 창 조레기에도 담곡 망사리에도 담곡 허는디 이딘 무시거 조레기 아니 혀. 이딘 조레기 요만헌 거 아졍 가민 만약에 전북이나 잡안, 전북은 소라에 ᄀᆞ치 잡아 놓곡 그디 미시거."[25]

('조락' 차고 가면, 시방 텔레비전 보면 저 서쪽 사람들 '테왁'에 '조레기' 이만큼씩 한 거 차서 '조레기'에도 담고 '망사리'에도 담고 하는데 여기는 뭐 '조레기' 안 해. 여긴 '조레기' 요만한 거 가지고 가면 만약에 전복이나 잡아서, 전복은 소라에 같이 잡아 넣고 거기 뭐.)

"구물로 요만헌 짜주게. 짜근에 어음 영 둘앙. 이디 저 무시거 막뎅이 무시거, 저 무시거니? 저 쒜로 영 오그려근에. 요만은 헤영 그디 영 문 얽엉 조레기 영 아랜 호우쌍 영 문딱 꿰주게. 영 풀어지민 꿰여근엥 알로 호우쌍 졸라메곡 이 우인 또 손 들어갈 만이. 고냥 나게 헤여근에 망사리에 둘앙 강 그디 강 저 헤숨 잡은 사름은 고동에 헤숨 잡아노민 흠 나주게. 영 막 밀령 휘여 뎅겨가민. 게난 그 헤숨 놓젠 조레기 허주, 저 서이 싸름덜ᄀᆞ추룩 ᄒᆞ지 아녀. 이딘 조레기 요만썩헌 거 아졍 뎅겨. 또 오분작 잡아 놓젠 허민 그 조레기에 오분작 잡아 놓고 경허주."[26]

(그물로 요만큼 짜지. 짜서 '어음' 이렇게 달아서. 여기 저 뭐 막대기 뭐, 저 뭐니? 저 쇠로 이렇게 오그려서. 요만큼 해서 거기 이렇게 모두 얽어서 '조레기' 이렇게 아랜 싸서 이렇게 모두 딱 꿰지. 이렇게 풀어지면 꿰서 아래로 싸서 졸라매고 이 위엔 또 손 들어갈 만큼. 구멍 나게 해서 망사리에 달고 가서 거기 가서 저 해삼 잡은 사람은 소라에 해삼 잡아 놓으면 흠 나지. 이렇게 막 밀어서 헤엄쳐 다녀가면. 그러니까 그 해삼 넣으려고 '조레기' 하지, 저 서쪽 사람들같이 하지 않아. 여긴 '조레기' 이만큼한 거 가지고 다녀. 또 오분자기 잡아 놓으려고 하면 그 '조레기'에 오분작 잡아 넣고 그렇게 하지.)



〈사진 15〉 남원1리 공동 탈의장의 '조레기'



〈사진 16〉 남원1리 공동 탈의장의 '조레기'

<사진 15>와 <사진 16>은 남원1리 해녀탈의장에 보관하고 있는 '조레기'다. 남원1리 김수정 씨의 말에 따르면 손이 들어갈 만큼 크기로 그물을 사용해 짠 '조레기'를 '어음'에 달고 물질을 나간다고 했다. 이 '조레기'는 해삼을 넣거나 오분자기를 잡아 넣어두는 용도로 쓰이는데 해삼의 경우 소라와 함께 잡아 '망사리'에 그냥 넣어두게 되면 '해삼'에 흠이 생기기 때문에 '조레기'에 별도로 담아 놓는다고 한다.

24) 남원1리 김수정 씨 구술.
25) 남원1리 김수정 씨 구술.
26) 남원1리 김수정 씨 구술.

5.3. 채취 도구

(1)골겡이

'골겡이'는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호미를 가리키는 말이다. 지역이나 제보자에 따라 들에서 사용하는 '골겡이'와 구분하여 바다에서 사용하는 것을 '호멩이' 또는 '까꾸리'라고 하기도 한다.

"골겡이도 아졍 뎅기곡. 골겡인 아졍 가민 영 물 아래 강은에 물쏘곱에 들어강 돌도 영 일러져. 돌 일르민 돌 아래 오분작도 부트곡. 엿날은 전북도 부터낫저, ᄀᆞ치덜."[27]

(호미도 가지고 다니고. 호민 가지고 가면 이렇게 물 아래 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돌도 이렇게 일으킬 수 있어. 돌 일으키면 돌 아래 오분자기도 붙고. 옛날은 전복도 붙었었어, 같이들.)

"골겡인 손에 심곡 비창은 허리에 차곡. 저 망사리, 손에 아니 심은 땐 또 망사리 들이치곡. 테왁에 망사리 들이치곡."[28]

(호미는 손에 잡고 '비창'은 허리에 차고. 저 망사리, 손에 안 잡을 때는 또 망사리에 들어뜨리고.)

남원1리 김수정 씨는 물질을 할 때 '비창'은 허리에 차고 호미는 손에 들고 작업을 했다고 한다. 물속에서 호미로 돌을 일으키면 돌 아래 오분자기나 전복이 붙어 있는 것을 캘 수 있었다.

"이건 해녀덜이 바다에 가서 소라 잡는 거. 소라도 잡고, 잡을 때 쓰고 저 귀, 귀 ᄀᆞ튼 거 그런 거 잡을 때 쓰는 거."[29]

(이건 해녀들이 바다에 가서 소라 잡는 거. 소라도 잡고, 잡을 때 쓰고 저 성게, 성게 같은 거 그런 거 잡을 때 쓰는 거.)

27) 남원1리 김수정 씨 구술.
28) 남원1리 김수정 씨 구술.
29) 남원1리 정개은 씨 구술.
30) 남원1리 강순화 씨 구술.

"바당에 헤섬 잡을 때도 허고 문어 잡을 때도 그 고냥에 들어가민 폭. 이거보단 좀 커, 귀 잡을 때. 물꾸럭 잡는 거랑 귀 잡는 건 ᄀᆞ치 쓰는 거. 요새 허는 건 커. 이건 옛날 헤난 거."[30]

(바다의 해삼 잡을 때도 하고 문어 잡을 때도, 그 구멍에 들어가면 폭. 이거보다 조금 커, 성게 잡을 때. 문어 잡는 거랑 성게 잡는 건 같이 쓰는 거. 요새 하는 건 커. 이건 옛날 했던 거.)



〈사진 17〉 남원1리 탈의장의 '골겡이'



〈사진 18〉 고영주 씨 소장 '골겡이'



〈사진 19〉 현창언 씨 소장 '골겡이'



〈사진 20〉 강순화 씨 소장 '호멩이'

<사진 17>에서 <사진 20>은 남원1리 해녀탈의장, 고영주 씨, 현창언 씨가 보관하고 있는 호미다. <사진 20>은 정개은 · 강순화 씨가 보관하고 있는 호미인데, 강순화 씨는 이것을 '호멩이'라고 불렀다. 강 씨는 성게와 문어 잡을 때 쓰는 호미가 <사진 20>의 것보다 조금 더 길었다고 한다. 위 사진에서 해녀들이 바다에서 사용하는 호미는 밭일을 하는 호미와 모양이 조금 다르다.

"바다에 쓰고 검질메고 이거. 이거 검질메다가, 이거 두 개 바다에 썻주게."[31]
(바다에 쓰고 김매고 이거. 이거 김매다가, 이거 두 개 바다에 썼지.)



〈사진 21〉 양경용 씨 소장 '골겡이'

<사진 21>은 위미2리 양경용 씨가 사용하고 있는 호미다. 양 씨는 밭일에 사용하는 것이나 바닷일에 사용하는 호미를 달리하지 않았다고 한다.

(2) 비창

'비창'은 해녀들이 전복을 딸 때 사용하는 도구다. 쇠로 된 기다란 모양으로 자루의 끝을 고리 모양으로 구부려 끈이나 고무줄 따위를 묶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비창'의 '비'는 전복의 의미로, '비창'은 '전복을 따는 창'이라는 의미다.

"요것이 비창이민 생복허는 건 물옷에다가 영헹 감앙 숨병 뎅기당 봐지민 속 빠내영 속 떼는 거."[32]
(요것이 '비창'이면 전복하는 건 물옷에다가 이렇게 감아서 물에 들어서 다니다가 보이면 쏙 빼내서 쏙 떼는 거.)



〈사진 22〉 남원1리 공동 탈의장의 '비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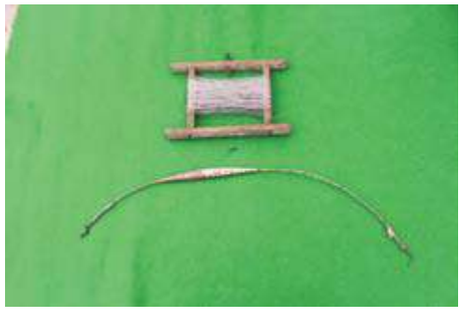
<사진 22>는 남원1리 해녀탈의장에서 찍은 '비창'이다. 남원1리 강순화 씨는 물질할 때 '비창'은 물옷 허리에 끼워서 다니다가 전복이 보이면 꺼내서 전복을 뗄 때 사용했다고 했다.

"비창, 요만은헌 저 쒜로 만든 거 잇어. 쏠랑허게시리, 요만은 헐 거라."[33]
(비창, 요만한 저 쇠로 만든 거 있어. 홀쭉하게끔 요만큼은 할 거야.)

(3) 갈치 낚싯대

'갈치 낚싯대'는 갈치를 낚을 때 사용하는 낚싯줄이다.

"처음 갈치 나끌 때 썼던 거. 이거 엿날에 풍선덜 헤갖고. 이게 지금 없어졌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어 갖고 여기에 이렇게 헤서 여기 낙시 메달아 갖고, 갈치 낙시 매달아 갖고. 손으로 잡는 거. 잡아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허고 잇으면은 옛날에는 불 키거나 허지 않고, 밤에 나깟으니까. 그때가 육십오 년도 정도."[34]
(처음 갈치 낚을 때 썼던 거. 이거 옛날에 풍선들 해서. 이게 지금 없어졌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어서 여기에 이렇게 해서 여기 낚시 매달아서, 갈치 낚시 매달아서. 손으로 잡는 거. 잡아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옛날에는 불 켜거나 하지 않고, 밤에 낚았으니까. 그때가 육십오 년도 정도.)



〈사진 23〉 김용남 씨 소장 '갈치 낚싯대'

31) 위미2리 양경용 씨 구술.
32) 남원1리 강순화 씨 구술.
33) 남원1리 김수정 씨 구술.
34) 태흥2리 김용남 씨 구술.



〈사진 24〉 '갈치 낚싯대'를 들고 설명하고 있는 김용남 씨

<사진 23>은 태흥2리 김용남 씨(1946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갈치 낚싯대다. 이것은 육십오 년 정도에 김 씨가 처음 갈치 낚시할 때 사용했던 것이라고 한다. 당시에는 풍선을 타고 나가 한 사람이 하나씩 사진의 낚싯대를 드리워 갈치를 낚았다고 한다.

"풍선에 다섯 사름 정도 탕, 한 사람이 이거 하나, 그때는 하나만 가지고 했으니까. 하룻밤에 그때 내가 제일 많이 나끌 때가 육십 마리 정도. 또 적게 나끄면은 삼십 마리 정도 그렇게 헷는데. 그때는 이런 작은 것덜이 아니고 갈치가 크니까, 큰 갈치들. 경허민 그거 그때 돈으로는, 그때는 돈이 뭐 하루 일당이 백 원, 이백 원이엇으니까 갈칫값도 백 원, 이백 원. 쌀도 허고 돈도 허고. 그땐 뒈는 대로 어떻게 팔앗는데. 나는 실제로 어부가 아니고, 난 그냥 붙어 다니면서, 가끔가끔 가서 한 번씩 헷던 거고."[35]

(풍선에 다섯 사람 정도 타서, 한 사람이 이거 하나, 그때는 하나만 가지고 했으니까. 하룻밤에 그때 내가 제일 많이 낚을 때가 육십 마리 정도. 또 적게 낚으면 삼십 마리 정도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이런 작은 것들 아니고 갈치가 크니까, 큰 갈치들. 그러면 그거 그때 돈으로는, 그때는 돈이 뭐 하루 일당이 백 원, 이백 원이었으니까 갈칫값도 백 원, 이백 원. 쌀도 하고 돈도 하고. 그때는 되는 대로 어떻게 팔았는데. 나는 실제로 어부가 아니고, 난 그냥 붙어 다니면서, 가끔가끔 가서 한 번씩 했던 거고.)

태흥2리 김용남 씨는 실제 어부는 아니지만, 가끔 어부들을 따라 풍선을 타고 나가 갈치 낚시를 했었다. <사진 23>의 갈치 낚싯대를 가지고 나가 많이 낚을 때는 하룻밤에 60마리 정도를 낚기도 했다고 한다.

"군대 갓다 와서 칠십이 년도에 제대헷으니까 칠십오 년도꺼진, 그때 군대 갓다 와 보니까 이 방식이 바뀌서 바뀠더라고. 그때부터는 지금 허는 방식대로 줄을 여러 개 매달아서 이걸 없애고 큰 줄을 헷어. 낚시를 줄줄이 헤서 그때는 다섯 개 여섯 개였는데 지금 현재는 낚시가 스무 개도. 그렇게 헤서 그때부터는 불 키고 허기 시작헌 거지. 갈친 낮이 안 나끄지. 밤이만, 밤이 불 키민 훨씬 많이 나끄지."[36]

(군대 갔다 와서 칠십이 년도에 제대했으니까 칠십오 년도까진, 그때 군대 갔다 와 보니까 이 방식이 바꿔서 바뀠더라고. 그때부터는 지금 하는 방식대로 줄을 여러 개 매달아서 이걸 없애고 큰 줄을 했어. 낚시를 줄줄이 해서 그때는 다섯 개 여섯 개였는데 지금 현재는 낚시가 스무 개도.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는 불 켜고 하기 시작한 거지. 갈친 낮에 안 낚지. 밤에만, 밤에 불 켜면 훨씬 많이 낚지.)

김 씨는 군대를 갔다 와서 보니까 그때부터는 갈치 낚시 방법이 바뀌어 있었다고 한다. <사진 23>의 낚싯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갈치잡이처럼 긴 줄에 여러 개의 낚시를 매달아서 갈치를 낚았다고 했다. 또 갈치는 밤에 잡는데, 칠십 년대부터 기계배로 불을 밝혀 잡기 시작했다고 한다.

"오십칠 년도, 오십육 년도에 처음으로 여기서 그 지금 삼포그물이엔 허는데 그물을 허면서 풍선으로, 처음으로 허면서 여기서 그물을 짰어, 우리 손으로. 그때 그 줄이 나왓어. 나와서 처음으로 짯는데, 짜서 오십오 년도 육십 년도 뒈니까 그게 풍선이 발동기 엔진 달려 있는 거로 바꾸면서 그렇게 헷고, 나는 이거는 계속 그 육십오 년도까지는 풍선을 타고 다녓어. 내가 군대 갓다 와 보니까 다 기계배로 다 바뀠더라고."[37]

(오십칠 년도, 오십육 년도에 처음으로 여기서 그 지금 '삼포그물'이라고 하는데 그물을 하면서 풍선으로, 처음으로 하면서 여기서 그물을 짰어. 우리 손으로. 그때는 그 줄이 나왔어. 나와서 처음으로 짰는데, 짜서 오십오 년도 육십 년도 되니까 그게 풍선이 발동기 엔진 달려 있는 것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했고, 나는 이거는 계속 그 육십오 년도까지는 풍선을 타고 다녔어. 내가 군대 갔다 와 보니까 기계배로 다 바뀠더라고.)

35) 태흥2리 김용남 씨 구술.
36) 태흥2리 김용남 씨 구술.
37) 태흥2리 김용남 씨 구술.

"여기서는 테우로는 별로 안 했었고 그 풍선으로. 멜도 풍선으로 헷지, 여기서는 테우로 헤 보진 안헷어. 테우는 나도 아주 잘 만들아. 그거는 자리를 헐려고 헌 게 아니라 바다에 해초를 그 비여다가 밭에 걸름 헐려고. 듬북이라고 허는데 지금 이거 밀려오는 거 그때는 다 끗어다가 썻주. 지금 밀려오는 건 우린 는젱이, 는젱이 허는디 건 미끌미끌헤, 그게. 우리가 여기서 허는 건 미끈미끈 허진 않고 좀 사락사락헌 그런 거랏어."[38]

(여기서는 '테우'로는 별로 안 했었고 그 풍선으로. 멸치도 풍선으로 했지, 여기서는 '테우'로 해 보지는 않았어. '테우'는 나도 아주 잘 만들어. 그거는 자리돔을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바다에 해초를 그 베어다가 밭에 거름을 하려고. 듬북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 밀려오는 거 그때는 다 끌어다가 썼지. 지금 밀려오는 건 우리는 '는젱이', '는젱이'라고 하는데 건 미끌미끌해, 그게.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건 미끈미끈 하지는 않고 좀 사락사락한 그런 거였어.)

김용남 씨는 오십 년대 중반에 '삼포그물'을 짰었는데, 그때는 풍선이었던 배들이 육십년 대에 엔진이 달린 배로 바뀌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래도 김 씨는 육십 년대 중반까지는 계속 풍선으로 갈치 낚시를 다녔는데, 군대를 다녀온 후에는 갈치잡이배도 대부분 기계배로 바뀌었다고 한다. 또 김 씨는 태흥2리에서는 자리돔이나 멸치를 잡을 때도 '테우'를 이용했던 것이 아니라 풍선을 이용했었다고 한다. '테우'는 단지 거름으로 사용할 해초를 걷어 올 때 사용했었다고 한다.

한편 태흥2리 고영수 씨는 <사진 23>의 갈치 낚시대를 '선비'라고 불렀다.

"갈치 나끄는 뭐, 그거 보고 선비라 그러는데 선비, 선비. 낙시 두 개로 이렇게 헤가지고 옛날에는 그 줄도 노꼿 헤근에 피, 뒈지 피 그거 얼려가지고 그거 노꼿으로 만들어낫주. 노끗을, 노끗에다가 뒈지 필 들여, 줄 허젠 허면은. 나이론이 그땐 안 나왓고. 쪼금 그전에는 신사라엔 뭐가 잇엇어이. 그걸로 꼬아가지고 이렇게 허다가 이제 그 미녕실 닮은 걸로, 그 실이 나오니까 그거에 피 들여가지고 그 낙시줄을 헷는데. 경허민 줄이 질기니까. 피 들이면은 나중에는 딱 삶아 내면은, 쪄 내면은 그 줄이 새카맣거든. 새카망헨 질기거든. 옛날에 그렇게 헷다 그러더라고. 난 미녕씰 들여난 거는 기억나는데 신사라에 들여난 건 나 모르겠어. 그렇게 헷다고덜 허니까. 겐 후에 차차차 나이롱줄이, 그게 나온 건데, 피를 적정 그거 솖아. 몰르면은, 피 들영 몰르면은 쪄 내지게. 쪄 내면은 그게 노끗이 새카망허게 아주 단단허게 뒈. 그렇게 헤낫다고. 그거를 가진 사름은 엇일 거라."[39]

(갈치 낚는 뭐, 그거 보고 '선비'라고 그러는데 '선비', '선비'. 낚시 두 개로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그 줄도 노끈으로 해서 피, 돼지 피 그거 얼려서 그거 노끈으로 만들었었지. 노끈을, 노끈에다가 돼지 피를 들여, 줄 하려고 하면. 나일론이 그때는 안 나왔고. 조금 그전에는 뉴질랜드삼이라고 뭐가 있었어. 그것으로 꼬아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무명실 같은 거로, 그 실이 나오니까 그것에 피를 들여서 그 낚싯줄을 했는데. 그러면 줄이 질기니까. 피 들이면은 나중에 딱 삶아 내면, 쪄 내면 그 줄이 새카맣거든. 새카매서 질기거든. 옛날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 난 무명실 들였던 거는 기억나는데 뉴질랜드삼 들였던 거는 내가 모르겠어. 그렇게 했다고들 하니까. 그래서 후에 차차차차 나일론줄이, 그게 나온 건데, 피를 적셔서 그거 삶아. 마르면, 피 들여서 마르면 쪄 내지. 쪄 내면 그게 노끈이 새카맣게 아주 단단하게 돼. 그렇게 했었다고. 그것을 가진 사람은 없을 거야.)

태흥2리 고영수 씨(1943년생)의 구술에 의하면 나일론 낚싯줄이 나오기 전까지 낚싯줄은 뉴질랜드삼이나 무명실에 돼지 핏물을 들여서 사용했다고 한다. 줄에 돼지 피를 들이면 줄이 질겨진다. 때문에 줄에 돼지 피를 들여 찌거나 삶아 말린 후 낚싯줄로 사용했다고 한다.

(4) 물꾸럭 잡이 대

'물꾸럭'은 '문어'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문어'는 지역에 따라 '뭉게'라고도 한다. '물꾸럭잡이 대'는 문어를 잡을 때 사용했던 대를 말한다.

38) 태흥2리 김용남 씨 구술.
39) 태흥2리 고영수 씨 구술.

"옛날 어른덜 물꾸럭 헷주, 물꾸럭. 게난 나도 옛날에는 이거 허기 전에 헤가지고 옛날은 풍선 가져 가지고이 옥돔 잡으레 갈 때 저 주로 니껍을 딴 거로 안 쓰고, 요즘은 딴 거로 많이 쓰지만은 그때는 물꾸럭. 옛날엔 기곗배가 없어 가지고 풍선 가지고 다니고. 이디 흰 천 둘아메고 마늘 헤가지고, 마늘 냄새나게시리 흰 천 허고 허면은 문어들이 이렇게 홀려서 와서 부뜨는 거야. 딱 부뜨믄 뗑겨서 잡아. 먹으레, 냄새로 왕 확 부뜨면 뗑기면. (문어가 마늘 냄새를 좋아헙니까?) 좋아허는 거 같애. 그 항상 마늘을 무꺼 가지고, 요만이 무꺼 가지고. 천, 흰 천은 잘 보이기 위해서 허영헌 천 헤가지고 갈기갈기 찢어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지. 갯바위 가 가지고 물꾸럭 잡으면 상투기 딱 뒈싸져 가지고 두 마리고, 세 마리고 들렁 다닐 수가 있지. 두세 마리 잡아지면 그때 가격을 얼마 받아신지. 걸 팔았지. 그 어부덜안테 팔아가지고 용돈 쓰곡 헷주. 옥돔잡이 미끼로, 굉장히 그거는 한번 고기가 올라와 가지고 또 또 들이쳐 가지고. 그 물꾸럭 송송 썰어 가지고. 이거는 나가 십 년 전까지 써낫지."[40]

(옛날 어른들 '물꾸럭'이라고 했지, 문어.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는 이거 하기 전에 해서 옛날은 풍선 가지고 옥돔 잡으러 갈 때 저 주로 미끼를 다른 거로 안 쓰고, 요즘은 다른 거로 많이 쓰지만 그때는 문어. 옛날에는 기계배가 없어서 풍선 가지고 다니고. 여기 흰 천 달아매고 마늘 해서, 마늘 냄새나게끔 흰 천 하고 하면 문어들이 이렇게 홀려서 와서 붙는 거야. 딱 붙으면 당겨서 잡아. 먹으러, 냄새로 와서 확 붙으면 당기면. (문어가 마늘 냄새를 좋아합니까?) 좋아하는 거 같아. 그 항상 마늘을 묶어서, 요만큼 묶어서. 천, 흰 천은 잘 보이기 위해서 하얀 천 해서 갈기갈기 찢어서 이렇게 움직이지. 갯바위에 가서 문어 잡으면 '상투기' 딱 뒤집어서 두 마리고, 세 마리고 들고 다닐 수 있지. 두세 마리 잡으면 그때 가격을 얼마 받았는지. 걸 팔았지. 그 어부들한테 팔아서 용돈 쓰고 했지. 옥돔잡이 미끼로, 굉장히 그거는 한번 고기가 올라와서 또 또 들어뜨려서. 그 문어 송송 썰어서. 이거는 내가 십 년 전까지 썼었어.)

<사진 25>는 남원1리 정개은 씨(1939년생)가 문어를 잡을 때 사용했던 대다. 정 씨는 이 대를 사용해 십 년 전까지 문어를 잡았다. 문어는 옥돔을 잡을 때 쓰이는 좋은 미끼로, 잡은 미끼를 옥돔잡이 어부에게 팔아 용돈을 벌어 쓸 수 있었다고 한다. 문어

40) 남원1리 정개은 씨 구술.
41) 남원1리 김수정 씨 구술.
42) 남원1리 김수정 씨 구술.



〈사진 25〉 정개은 씨 소장 '물꾸럭 잡이 대'

를 잡을 때는 사진의 대 끝에 흰 천을 길고 가늘게 잘라 묶어 거기에 마늘을 매달면 문어들이 마늘 냄새에 홀려서 낚싯대의 흰 천에 와서 붙어서 문어를 쉽게 잡을 수 있었다고 한다.

(5) 소살

'소살'은 표준어의 '작살'에 대응하는 말로, 물고기를 찔러 잡는 도구다. 작대기 끝에 뾰족한 쇠꼬챙이를 박아 만든다. 제보자들은 '작살'이라고도 하고 '소살'이라고도 불렀다.

"작살 아졍 뎅이는 사름은 시방도 아졍 뎅인다. 작살이 아이라 소살. 작살은 영 양가달 돋은 거이 작살. 소살은 이디 두 개, 두 발, 두 발 헤연."[41]

(작살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시방도 가지고 다닌다. '작살'이 아니라 '소살'. 작살은 이렇게 양다리 돋은 거 작살. '소살'은 여기 두 개, 두 발, 두 발 해서.)

"이건 저 돌 엉덕이주게. 엉덕이민 그 즘진 구물 벵 허게 이제 싸민, 그 쏘곱에 궤기덜 신 거 바려근에 빙허게 쌍 강 이만썩 혼 작살을, 기자 요만은 혼 거라. 저 대, 대 헤여근에 허믄 작살 헤근에 거 아졍 강 쑥닥쑥닥헤 가민 화륵ᄒᆞ게 나오라 가민 그 구물에 문딱 쓰주게. 그 구물에 쓰민 것덜 헤여근에 우리 어머니 혼 구덕썩 질구덕으로 ᄒᆞ나썩 잡아 오라낫어. 엿날은 고기도 하곡, 세상 거 하낫주만 이제는 저 소살 아졍 뎅기는 사름덜도 무시거 요멘썩헌 것덜 쏘곡, 궤기가 엇어."[42]

(이건 저 돌 '엉덕'이지. '엉덕'이면 그 자잘한 그물 뱅 하게 이제 싸면, 그 속에 고기들 있는 거 봐서 빙 싸서 가서 이만한 작살을, 그저 요만한 거야. 저 대, 대 해서 하면 작살 해서 그거 가지고 가서 '쑥닥쑥닥해' 가면 우르르 나와 가면 그 그물에 모두 쓰지. 그 그물에 쓰면 그것들 해서 우리 어머니 한 바구니씩 '질구덕'으로 하나씩 잡아 왔었어. 옛날은 고기도 많고, 세상 거 많았지만 이제는 저 '소살'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뭐 요만한 것들 쏘고, 고기가 없어.)

남원1리 김수정 씨는 '작살'과 '소살'을 구분하고 있는데, 설명으로는 '작살'과 '소살' 모두 두 개의 발이 돋은 것으로 차이가 없어 보인다. 바닷속 큰 바위의 절벽인 '엉덕'에서 물고기가 보이는 바위 사이에 그물을 둘러씌워 놓고 작살로 바위틈을 쑤시면 물고기들이 몰려나오면서 그물에 싸인다고 한다. 김 씨의 어머니는 그렇게 해서 큰 바구니에 하나씩 물고기를 잡아 올 만큼 물고기들이 많았다고 한다. 김 씨에 따르면 작살은 바다 속에서 물고기를 쏠 때만이 아니고 바위틈의 물고기를 몰 때도 사용했다고 한다.

(6) 호미

'호미'는 곡식이나 풀 따위를 벨 때 사용하는 도구로, '낫'을 말한다. '호미'는 밭일을 할 때만이 아니라 미역이나 톳을 채취하는 등 바닷일을 할 때도 사용한다.

"톨게, 저 거시기 호미로. 저 무시거 보리 비는, 보리 비는 호미. 마다리 아졍 가, 마다리 아졍 강 막 널곡. 시방 그 벌겅헌 마다리 엇느냐게? 그거 아졍 강. 망사린 안 헌다. 망사리두 잇어근에 그레 담음은 헌다마는 그자 저 무시거니 마다리에 담앙덜 막 져 날른다."[43]

(톳, 저 거시기 낫으로. 저 뭐 보리 베는, 보리 베는 낫. 마대 가지고 가서, 마대 가지고 가서 마구 널고. 지금 그 벌건 마대 없니? 그거 가지고 가서. '망사리'는 안 해. '망사리'도 있어서 그리 담기는 하지만 그저 저 뭐 마대에 담아서들 마구 져 날라.)

남원1리 김수정 씨는 톳을 채취할 때 보리를 벨 때 사용하는 낫을 썼다고 했다. 김 씨는 마대와 낫을 들고 가서 톳을 베어 마대에 담아서 지고 날라 와서 널었다.

43) 남원1리 김수정 씨 구술.
44) 남원1리 강순화 씨 구술.

5.4. 기타 도구

(1) 그물

'그물'은 노끈이나 실 따위로 여러 코의 구멍이 나게 얽은 물건으로, 물고기 따위를 잡는 데 사용한다.

"큰딸이 ○○여고 나왓주게. 그때 처음 간에, 가이 방 빌어 주젠 간. 방 빌어 주젠 강 거기 동문로타리 장에 강 사온 거. 이것도 오랜 거. 그 뚤이 이제 오십셋. (뭐 잡아 낫수꽈?) 옛날에 이거 노민 고기 엄청 많이, 요번이도 강 잡아난, 곳으로 강. 겐디 이거 우리 뚤 고등학교 일학년 때 산 거야. 우럭도 들고 숭어도 들고 방어도 잇당 혼 번씩 들고."[44]

(큰딸이 ○○여고 나왔지. 그때 처음 가서, 걔 방 빌려 주려고 갔어. 방 빌려 주려고 가서 거기 동문로터리 장에 가서 사온 거. 이것도 오랜 거. 그 딸이 이제 오십삼. (뭐 잡았었습니까?) 옛날에 이거 놓으면 고기 엄청 많이, 요번에도 가서 잡았었어, 가로 가서. 그런데 이거 우리 딸 고등학교 일학년 때 산 거야. 우럭도 들고 숭어도 들고 방어도 있다가 한 번씩 들고.)



〈사진 26〉 정개은 씨 소장 '그물'

<사진 26>은 남원1리 정개은 씨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물이다. 삼십여 년 전 정 씨의 큰딸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제주시내에 갔다가 근처 시장에서 구입한 것이라고 한다. 바닷가로 가서 그물을 쳐 놓고 바닷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우럭이나 숭어 등의 바닷고기를 잡았다. 정 씨가 최근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2) 구덕

'구덕'은 대오리를 결어서 만든 바구니를 말한다. 바구니의 용도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달라지는데, 물건을 넣어 등에 져 나르는 데에 쓰는 비교적 큰 바구니를 '질구

덕', 물동이를 넣어 져 나를 때 쓰는 '물구덕', 빨랫감을 넣어서 나를 때 쓰는 '서답구덕', 허리에 차서 사용하는 '출구덕' 등으로 나뉜다. 바닷일을 할 때는, 해녀들이 물질 도구나 해산물을 넣고 지고 다니는 '질구덕'과 바닷가에서 고둥이나 게 등 해산물을 잡으러 다닐 때 사용하는 '출구덕'을 사용한다. 한편, 남원읍 조사에서는 허리에 차거나 어깨에 메는 크기의 자그마한 크기의 바구니를 '바구리', '조락', '조레기'라고 하였다.

"질구덕에 검질, 검질 담앙 가근에, 낭이 잇어? 저 이레, 이 남원린 낭으로 불 솝아낫주만은 저 우트렌 검질 거 질구덕에 잔뜩 담앙, 테왁 놓곡 졍 가근엥 불 솝아낫주."[45]
('질구덕'에 검불, 검불 담고 가서, 나무가 있어? 저 이리, 이 남원리는 나무로 불 땠었지만 저 위로는 검불 거 '질구덕'에 잔뜩 담고, '테왁' 놓고 지고 가서 불 땠었지.)

"출구덕엔 미시것덜 헹당덜 노민 족앙 못 허지. 질구덕 아졍 강, 메역 주물 땐 질구덕에도 잔뜩 담앙 졍 오곡. 또 쉐덜 신 사름은 쉐에, 바레기 이신 사름은 바레기 먼 메역덜 시꺼다근에 먼 물량 풀곡. 물량 먼 풀아낫어 메역."[46]
('출구덕'에는 무엇들 해다가 넣으면 작아서 못 하지. '질구덕' 가지고 가서, 미역 캘 때는 '질구덕'에도 잔뜩 담아서 지고 오고. 또 소들 있는 사람은 소에, 달구지 있는 사람은 달구지에 모두 미역들 실어다가 모두 말려서 팔고. 말려서 모두 팔았었어, 미역.)

바닷일에서 '질구덕'은 여러 용도로 사용되었다. 해녀들은 물질을 하고 나오면 추위에, 나오자마자 불을 쬐며 몸을 녹인다. 그때 땔감으로 사용할 '검불', '나무' 등을, 물질을 갈 때 '질구덕'에 담아 가지고 갔다. 또 미역을 캘 때는 '질구덕'을 가지고 가 미역을 잔뜩 담아 지고 돌아왔다고 한다.

45) 남원1리 김수정 씨 구술.
46) 남원1리 김수정 씨 구술.
47) 남원1리 고영주 씨 구술.
48) 태흥2리 양기화 씨 구술.

"(구덕도 막ᄋᆞ라 종류가 잇어예?) 그렇주게, 질구덕 뭐 ᄀᆞ는대구덕, 뭐 어렝이 바구리. 쪼글락헌 건 바구리옌 허지. 출구덕은 요거보다 조금 큰 거. 요거보다 족은 건, 그건 여기선 저 바구리옌 허여. 조락이엔도 허고. 어렝이 조락, 어렝이 잡으레 뎅길 때 허는 거 어렝이 조락. 지금도 심심허민 어렝이 잡으레 뎅겸주."[47]
((바구니도 아주 여러 종류가 있지요?) 그렇지, '질구덕' 뭐 'ᄀᆞ는대구덕', 뭐 '어렝이 바구리'. 자그마한 건 '바구리'라고 하지. '출구덕'은 요거보다 조금 큰 거. 요거보다 작은 건, 그건 여기서는 저 '바구리'라고 해. '조락'이라고도 하고. '어렝이 조락', 어렝놀래기 잡으러 다닐 때 하는 거 '어렝이조락'. 지금도 심심하면 어렝놀래기 잡으러 다니고 있지.)

"바당에 보말 잡으레 갈 때. 허리에 차근에 보말 잡으레 갈 때 허는 거고. 출구덕은 큰 거지. 족은 바구리라도 일름이 이신디 조레기, 조레기. 조레기 구덕. 바당에베끼 못 써. 지퍼사 물에 영 커져도 것지지도 아녀고."[48]
(바다에 고둥 잡으러 갈 때. 허리에 차서 고둥 잡으러 갈 때 하는 거고. '출구덕'은 큰 거지. 작은 바구니라도 이름이 있는데 '조레기', '조레기'. '조레기' 바구니. 바다에밖에 못 써. 깊어야 물에 이렇게 담겨도 상하지도 않고.)


〈사진 27〉 고영주 씨 소장 '조락'


〈사진 28〉 양기화 씨 소장 '조레기'

<사진 27>은 남원1리 고영주 씨가 보관하고 있는 바구니다. 고 씨는 이를 '조락'이라고 불렀는데, 어렝놀래기를 잡으러 다닐 때 사용하는 것으로 '어렝이 조락'이라고 했다. <사진 28>은 태흥2리 양기화 씨(1938년생)가 사용했던 바구니로, 양 씨는 '조레기'라 부르고 있다. 바다에 고둥을 잡으러 다닐 때 사용했었다고 한다.

6. 목축 관련

말과 소는 농사일뿐만 아니라 운반과 이동 수단으로 농가의 중요한 자산이었다. 마소를 이용하여 밭을 갈고, 땅을 고르고 짐을 운반하였다. 또 마소를 키워 팔아 수입을 얻기도 했다. 그런데 생활 환경이 변화하고 경운기 등의 농기구가 등장하면서 마소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자 일반 농가에서 마소는 자취를 감추었고, 축산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들에 의해 대단위로 마소를 기르는 형태로 산업의 구조가 바뀌었다.

남원읍 지역은 지금까지도 마을 공동 목장을 두어 소를 사육하고 있다. 특히 조사마을 중 의귀리는 조선시대부터 말의 본고장으로 말 목축이 성행했던 곳이다. 현재 각 가정의 주택은 개량되어 현대식 건물로 바뀌거나 예전 가옥이라 하더라도 마소의 길렀던 외양간은 각종 농기구를 보관하는 창고로 변한 지 오래지만, 몇몇 제보자에게서 목축 관련 도구를 조사할 수 있었다. 특히 남원읍 조사에서는 그동안 조사하지 못했던 사용했던 '무제미(굴레)', '안장', '낭몰톡' 등의 말 관련 도구를 조사할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목축 관련 도구를 소와 말 관련 도구와 돼지 관련 도구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6.1. 마소 관련

농촌 사회에서 마소를 키우면서, 마소의 가장 큰 역할은 농사를 지을 밭을 가는 일이었다. 밭을 가는 '밧갈쉐'는 주로 수소였다. 세 살이 되면 소에게 밭을 가는 것을 가르치는데, 잘 길들여 그 후 몇 년 밭을 갈고 하고 힘이 떨어지면 다시 다른 소를 가르쳐 밭을 갈게 하였다. 의귀리 오희일 씨는 소를 열 마리 넘게 길렀다.

"소가 한 열 멧 마리까지 질뤄낫는디. 밧 가는 건 아무 쉐나 안 허고 저 밧갈쉐, 밧 가는 쉐라고 헤서 밧갈쉔디 암소로 밧 가는 디도 잇고 숫소로 가는 디도 잇고. 우린 숫소로만 갈앗어. 그 쉐 ᄀᆞ르쳐얍주게. 소가 세 살에, 사릅에 가르쳥 멧 설까지 밧 가는 건 대충 흔이 없주. 흔 오 년 허면은 소가 늙어 불면은 교체도 허곡."[1]

(소를 한 열 몇 마리까지 길렀었는데. 밭 가는 건 아무 소나 안 하고 저 '밭갈소' 밭 가는 소라고 해서 '밭갈소'인데 암소로 밧 가는 데도 있고 수소로 가는 데도 있고. 우린 수소로만 갈았어. 그 소 가르쳐야지. 소가 세 살에, 사릅에 가르쳐서 몇 살까지 밭 가는 건 대충 한이 없지. 한 오 년 하면 소가 늙어 버리면 교체도 하고.)

한편, 남원1리 양덕부 씨(1960년생)의 아버지(양상석, 1926~2010)는 '테우리'로 백여 마리의 말을 키웠었다고 한다. 또 양 씨의 집에는 소도 십여 마리가 있었다고 한다. 양 씨의 말에 따르면 소를 외양간에 가두어 먹일 때는 하루에 한 번씩은 소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근처 못을 찾았다고 했다.

"처음에는 말만 키우다가 쉐 열 멧 마리를 키왓는데, 열 멧 마리를 키우면서 이제 쉐 물 멕이러 다녀. 지금 남원에 소방서가 잇주게, 거기가 너무뭇이라고 헤. 너무못인데 거기에다가 소 열 멧 마리를 데리고 가면은 아버지는 물을 타 가지고 몰고 우리는 샛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서야 뒈. 쉐덜이 갈 때는 물 먹으러 가는 거 알아. 겐 샛길로 안 빠져. 돌아올 땐 물 먹어지니까 샛길로 빠지젠 허민 그걸 막고."[2]

(처음에는 말만 키우다가 소 열 몇 마리를 키웠는데, 열 몇 마리를 키우면서 이제 소 물 먹이러 다녀. 지금 남원에 소방서가 있어, 거기가 '너무못'이라고 해. '너무못'인데 거기에 소 열 몇 마리를 데리고 가면 아버지는 말을 타 가지고 몰고 우리는 샛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서야 돼. 소들이 갈 때는 물 먹으러 가는 거 알아. 그래서 샛길로 안 빠져. 돌아올 때는 물 먹으니까 샛길로 빠지려고 하면 그걸 막고.)

1) 의귀리 오희일 씨 구술.
2) 남원1리 양덕부 씨 구술.

"물은 그냥 들에 놔두지. 타는 물만, 타는 물만 데려오고 언제 물들을 데려오느냐, 조팟 밟을 때 있어. 밧 볼린덴 허는 얘기, 그런 얘기 들어봣잖아예? 물들이 내려왕 그 밧을 볼리주게. 허면은 그거를 어러러러 막 허면서 그걸 헤. 물 다 아니고 혼 열 무리 정도만 데려왕 그 밧을 볼리주게. 볼릴 때는 무리를 지엉 도는 거라. 허면은 그 소리에, 음악에 맞췽, 아버지 노래를 잘 불럿주게. 그거 어러러 헤, 게민 물들이 그거 따라 쭉 헤. 그 기억이 선명허네. 우리 밧만 아니고, 내려오면은 금방 올려보내지 않고 친척덜 밧이라든가 돌아다니면서 밧을 막 볼렷주게."[3]

(말은 그냥 들에 놔두지. 타는 말만, 타는 말만 데려오고 언제 말들을 데려오느냐, (조를 파종해서) 조밭을 밟을 때 있어. 밭 밟는다고 하는 얘기,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말들이 내려와서 그 밭을 밟게 해. 하면 그것을 어러러러 마구 하면서 그걸 해. 말 다 아니고 한 열 마리 정도만 데려와서 그 밭을 밟게 하지. 밟을 때는 무리를 지어서 도는 거야. 그러면 그 소리에, 음악에 맞춰서, 아버지가 노래를 잘 불렀지. 그거 어러러 해, 그러면 말들이 그거 따라서 쭉 해. 그 기억이 선명하네. 우리 밭만 아니고, 내려오면은 금방 올려보내지 않고 친척들 밭이라든가 돌아다니면서 밭을 마구 밟게 했지.)

말은 조를 파종할 때 씨앗을 뿌린 후 땅을 밟아 줄 때 이용했다. 제주는 땅이 화산회토로 이루어져 건조하기 때문에 파종 후 땅을 다져 주어야 씨앗이 바람에 날리지 않고 싹을 틔울 수 있었다. 사계절 산이나 들판에 방목하여 자라게 하는 말들도 조를 파종하는 시기에는 끌고 와서 밭을 밟게 했다.

"아부지가 이런 안장, 낙인, 베낭, 망원경, 차반지 같은 것덜을 잘 놔두라 헨 아버지가 살아난 집에다가 이걸 다 놔뒀주."[4]

(아버지가 이런 안장, 낙인, 베낭, 망원경, '차반지' 같은 것들을 잘 놔두라고 해서 아버지가 살았던 집에다가 이걸 다 놔뒀지.)

'테우리'를 하셨던 양상석 씨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셨다고 한다. 그러면서 관련 물건들을 잘 관리하라고 당부하였다고 한다.

3) 남원1리 양덕부 씨 구술.
4) 남원1리 양덕부 씨 구술.

(1) 쉐막

'쉐막'은 소를 가두어 기르는 곳으로, 표준어의 '외양간'에 대응하는 말이다.

"쉐 요섯 마리. 두 줄로게, 가운디 이렇게 저쪽 세 개 이쪽 세 개."[5]

(소 여섯 마리 두 줄로, 가운데 이렇게 저쪽 세 개, 이쪽 세 개.)



〈사진 1〉 현원휴 씨 집의 '쉐막'



〈사진 2〉 김성찬 씨 집의 '창고'

<사진 1>은 수망리 현원휴 씨(1932년생) 집의 외양간이다. 현 씨는 이곳에서 소 두 세 마리를 키웠었다고 한다. <사진 2>는 수망리 김성찬 씨(1935년생) 집의 창고이다. 외양간이었던 공간을 이제는 창고로 쓰고 있다. <사진 2> 왼쪽에 문이 있는 공간은 헛간으로 농기구나 곡식들을 보관했었고, 가운데 문과 오른쪽 문이 있는 공간이 이어져 있는데 여기가 바로 외양간으로 사용했던 곳이다. 이 외양간에 소를 두 줄로 매어서 여섯 마리 정도 길렀었다고 한다.

"메낭이 잇어사 쉐 맬 거 아이라, 쉐 메는 메낭. 우리는 영 쉐막 보통 영 갈랑 영 여기도 메곡, 영 헨 요게 메낭. 여기 또 이쪽으로도 메낭."[6]

('메낭'이 있어야 소를 맬 거 아니야, 소 매는 '메낭'. 우리는 이렇게 외양간 보통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여기도 매고, 이렇게 해서 요것이 '메낭'. 여기 또 이쪽으로도 '메낭'.)

5) 수망리 김성찬 씨 구술.
6) 의귀리 양인필 씨 구술.

외양간에는 소를 매는 것이 필요하다. 의귀리의 양인필 씨는 외양간 가운에 '메낭'을 가운데 두어 이 '메낭'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소를 매었었다고 한다.

(2) 무제미

'무제미'는 말을 부리기 위해 머리와 목에서 고삐에 걸쳐 얽어매는 줄을 말한다. 표준어의 '굴레'에 해당하는데 제보자에 따라 '무제미'를 '녹대'라고 부르기도 했다.

"입에 씌우는 거. 이거 영 아굴탁에 영 씌와 놔근에게 저."[7]
(입에 씌우는 거. 이거 이렇게 턱에 이렇게 씌워 놓아서 저.)



〈사진 3〉 오춘화 씨 소장 '무제미'



〈사진 4〉 오춘화 씨 소장 '무제미'와 '물줄'



〈사진 5〉 장덕지 씨 소장 '무제미'



〈사진 6〉 정병순 씨 소장 '무제미'

7) 태흥2리 양기화 씨 구술.
8) 남원1리 장덕지 씨 구술.
9) 의귀리 양인필 · 현정자 씨 구술.
10) 의귀리 양인필 씨 구술.

"입을 이레 담앙 영 머리에 가게. 뒤로 줄 멜 거주. 무제미, 녹대옌도 헌다. 굴레옌도 허고."[8]
(입을 이리 담아서 이렇게 머리에 가게. 뒤로 줄 맬 거지. '무제미', '녹대'라고도 한다. '굴레'라고도 하고.)

<사진 3>과 <사진 4>는 위미2리 오춘화 씨(1947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무제미'다. 이것은 오 씨의 남편이 말을 키울 때 사용했던 것이다. <사진 5>는 남원1리 장덕지 씨(1945년생)의 '무제미'로, 장 씨는 이를 '녹대'라고 하기도 하고 '굴레'라고 부르기도 했다. <사진 6>은 수망리 정병순 씨(1949년생)가 보관하는 '무제미'다.

"뿔에 허는 게 녹대. 뿔에, 뿔에 걸치는 거 그거 영 헹 메는 거 녹대."[9]
(뿔에 하는 게 '녹대'. 뿔에, 뿔에 걸치는 거 그거 이렇게 해서 매는 거 '녹대')

"그 신사라 두드령 몰류왕. 마께 잇어사주게. 던드렁마께, 던드렁. 던드렁이 집이마다 다 잇어. 두드령 몰류와. 그걸 쎄영, 쎄영 노 꼬앙. 그걸 또 뭐이라는가 드령, 드령. 세 곱 헤야 쉐 녹대 ᄒᆞ나가 뒈주."[10]
(그 뉴질랜드삼 두드려서 말려서. 방망이 있어야지, '던드렁마께', '던드렁'. '던드렁'이 집마다 다 있어. 두드려서 말려. 그걸 쐬어서, 쐬어서 노 꼬아서. 그걸 또 뭐였더라 드려서, 드려서. 세 겹 해야 소 녹대 하나가 되지.)

한편, 의귀리 양인필 씨(1935년생), 현정자 씨(1937년생)는 소의 뿔에 걸어 소를 끌거나 외양간 등에 매어 둘 때 사용하는 것을 '녹대'라고 하였다. 나일론줄이 나오기 전에는 '신사라(뉴질랜드삼)'를 말리고 두드려서 '녹대' 등을 만들어 사용했다고 말했다.

(3) 줄레와 말톡

'줄레'는 들판에 가서 소나 말이 먹이를 먹게 할 때 고삐에 연결하는 줄을 말한다. 소를 매는 데 사용하는 것을 '쉐줄레', 말을 매는 데에 사용하는 것을 '물줄레'라고 구분하여 부르기도 한다. 고삐에 '줄레'를 연결하여 줄을 길게 하고 이 '줄레'의 끝을 나무나 담에 묶기도 하고 땅에 징처럼 박아 묶어 두기도 하는데 이때 땅에 박는 것을 '말톡'이라고 한다. '말톡'은 표준어의 '말뚝'에 대응한다.

"줄레 허니까 생각나는데 나 어린 때 삭삭 더운 날, 아부지가 물 고쪄 멩 오라, 물 고쪄 멩 오라. 줄레가 한 이십 메타쯤 뒈지. 물 고쪄 메라 허는 건, 물이 풀 뜯잖아. 그걸 다른 쪽으로 옮기렌. 그 줄레 다음에 징이, 막대기. 그 징이 잇주게, 징으로 헤서 돌멩이로 그거 잘 안 들어가이, 거 빠지카 부덴 돌멩이로 헤가지고 박앙, 박는 건 좋은데 고쪄 메라 허민 그거 뻬는 게 막. (그 물톡은 쒜로 뒌 거랏수꽈?) 으, 나 헐 땐 쒜. 나는 쒜로 헌 거 닮아. 요만큼 헤서 날카롭게, 박기 좋게끔. 물, 물. 집에서 키우는, 탕 다니는 물. 그것을 이제 물 고쪄 메레 잘 다녓주게."[11]

('줄레' 하니까 생각나는데 내가 어렸을 때 아주 더운 날, 아버지가 말 바꿔 매고 와라, 말 바꿔 매고 와라. '줄레'가 한 이십 미터쯤 되지. 말 바꿔 매라고 하는 건, 말이 풀을 뜯잖아. 그걸 다른 쪽으로 옮기라고. 그 '줄레' 다음에 징, 막대기. 그 징이 있지, 징으로 해서 돌멩이로 그거 잘 안 들어가. 그것 빠질까 봐 돌멩이로 해서 박아서, 박는 것은 좋은데 바꿔 매라고 하면 그것 뽑는 게 아주. (그 말뚝은 쇠로 된 거였습니까?) 으, 내가 할 때는 쇠. 나는 쇠로 한 거 같아. 요만큼 해서 날카롭게, 박기 좋게. 말, 말. 집에서 키우는, 타고 다니는 말. 그것을 이제 말 바꿔 매러 잘 다녔지.)

집에서 돌보는 말은 가까운 들이나 길가에 가서 매어 두고 풀을 먹이기도 한다. 남원1리 양덕부 씨는 어린 시절 말을 옮겨 매는 일을 자주 했었다고 한다. 말을 다른 곳으로 옮겨 매는 일을 '물 고쪄 메다'라고 했다.

"쉐줄은 다 엇어져 불고. 그건 옛날 신사라. 신사라 그걸로도 많이 허고 대개 멍줄로는 쉐에 허는 건 안 허고. 신사라가 질기니까, 신사라로 이런 베 메고 또 제라허게 막 허젠 허면은 저 여기 진이라고 잇어, 진. 그 모시 닮은 거. 그건 꺽죽 벳겨 가지고 진풀, 그걸 거죽 벳겨서 베를 멘들앗어. 그걸 헤야 제라헌 익은 베. 쉐 질메 헤가지고 거기 무끌 때 진풀로 베 멘들앗주."[12]

(소를 묶는 줄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건 옛날 뉴질랜드삼. 뉴질랜드삼 그걸로도 많이 하고 대개 멀꿀로는 소에 하는 건 안 하고. 뉴질랜드삼이 질기니까, 뉴질랜드삼으로 이런 바 메고 또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저 여기 '진'이라고 있어, '진'. 그 모시 닮은 거. 그거 껍질 벗겨서 '진풀', 그거 껍질 벗겨서 바를 만들었어. 그걸 해야 제대로 된 바. 소 길마 해서 거기 묶을 때 '진풀'로 바 만들었지.)

소나 말을 묶어 매는 사용하는 줄은, 지금은 나일론 줄을 이용하고 있지만, 나일론이 보편화되기 전까지는 짚이나 덩굴을 이용하여 바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의귀리 오희일 씨 구술에 의하면 줄을 만들 때는 '신사라(뉴질랜드삼)'나 '진풀'을 이용했다.

"이거 목장 물 보레 뎅길 때 가졍 다녀난 거 닮은데. 그 낙인 찍고 헐 때 말 걸려 메젠."[13]

(이거 목장에 말 보러 다닐 때 가지고 다녔던 거 같은데. 그 낙인 찍고 할 때 말 걸려 매려고.)



〈사진 7〉 양덕부 씨 소장 '베낭'과 '물줄'

<사진 7>은 남원1리 양덕부 씨의 아버지가 말을 돌아보기 위해 목장에 다닐 때 가지고 다녔던 베낭과 '물줄'이다. 줄은 말을 붙잡아 맬 때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마소를 줄에 매어 묶어 둘 때 사용하는 것을 '말톡'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나무로 만들어 쓰다가 이후 대장간이 나온 후부터는 쇠로 만들어 사용했다.

"옛날엔 말톡이엔 헤근에 나무로 이렇게 멘들거든. 쯔른 나무 헤 가지고 이렇게 코젱이 못아근에 이디 뭐야 새끼 딱 잡아 무꺼가지고 허는 거. 쉐 어디 촐 멕일 때. 옛날은 촐이 만허거든 이디 나가면."[14]

(옛날에는 '말톡'이라고 해서 나무로 이렇게 만들거든. 짧은 나무를 해 가지고 이렇게 꼬챙이 마아서 여기 뭐 새끼 딱 잡아 묶어서 하는 거. 소 어디 꼴 먹을 때. 옛날은 꼴이 많거든 여기 나가면.)

11) 남원1리 양덕부 씨 구술.
12) 의귀리 오희일 씨 구술.
13) 남원1리 양덕부 씨 구술.
14) 남원1리 현창언 씨 구술.

"말툭이엔 골아. 이디선 몰톡이엔은 안 혀고. 말도 메곡, 소도 메곡 다 메어. 말툭은 제일 질긴 낭. 처음 헐 땐양. 조록이나 저 뭐인가? 산에 가민 진달래나무, 진달래나무를. 그런 것이 제일 질기주게. 낭 말툭 헐 때는 처음 원 첨, 아무것도 엇엉 헐 때 남 말툭 허곡. 불미가 나오라 가난 쒜 말툭 헷주게. 그때는 허젱 헤도 쒜 말툭 헐 수가 엇주게."[15]

('말툭'이라고 말해. 여기서는 '몰톡'이라고는 안 하고. 말도 매고, 소도 매고 다 매. 말뚝은 제일 질긴 나무. 처음 할 때는요. 조록나무나 저 뭐지? 산에 가면 진달래나무, 진달래나무를. 그런 것이 제일 질기지. 나무 말뚝 할 때는 처음 원 참, 아무것도 없어서 할 때 나무 말뚝 하고. 대장간이 나와 가니까 쇠 말뚝 했지. 그때는 하려고 해도 쇠 말뚝 할 수가 없지.)

말뚝은 제보자에 따라 '말톡'이라고도 하고 '말툭'이라고도 한다. 의귀리 양인필 · 현정자 씨는 '말툭'은 조록나무나 진달래나무 등 질긴 나무를 이용해서 만들어 썼다고 한다. 나무 말뚝을 쓰다가 대장간이 생기자 쇠로 말뚝을 만들어 사용했다.

"말톡이여, 말톡. 우리 클 때 낭으로 헌 거지. 쒜로 헌 건 후에, 후에지."[16]

(말뚝이야, 말뚝. 우리 클 때 나무로 한 거지. 쇠로 한 건 후에, 후에지.)



〈사진 8〉 장덕지 씨 소장 '말톡'

<사진 8>은 남원1리 장덕지 씨가 보관하고 있는 말뚝이다. 실제 사용했던 것은 아니고 말 관련 도구를 재현해 보이기 위해 만들어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장 씨가 어렸을 때는 사진에서와 같이 나무로 만든 말뚝을 이용하였다. 남원1리 양덕부 씨가 초등학생일 때는 나무로 된 말뚝은 없었고 쇠로 된 말뚝을 이용했다고 한다.

15) 의귀리 양인필 · 현정자 씨 구술.
16) 남원1리 장덕지 씨 구술.
17) 남원1리 장덕지 씨 구술.
18) 남원1리 양덕부 씨 구술.

(4) 몰접게

'몰접게'는 말로 밭을 갈거나 수레를 연결하여 짐을 실을 때 말의 목에 매는 나뭇가지를 말한다. 즉 소의 목대와 같은 것인데 말에 쓰여 '몰접게'라고 부른다.

"몰 헤영 앞이 영. 두 개 잇어야주게, 목에 허는 거난. 경헤여근에 이걸로 헤근에 밧도 갈고 헐 때 접게엔 헌다. 쒜는 멍에가 잇는데 몰에는 이걸로. 영 헹 일로 무껑."[17]

(말에 해서 앞에 이렇게. 두 개 있어야지, 목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로 해서 밭도 갈고 할 때 '접게'라고 해. 소는 멍에가 있는데 말에는 이걸로. 이렇게 해서 이리로 묶어서.)



〈사진 9〉 장덕지 씨 소장 '몰접게'

<사진 9>는 남원1리 장덕지 씨가 보관하고 있는 '몰접게'다. 말의 목에 두른 후 아래쪽으로 묶게 되어 있다. 양쪽에 고리가 있는데, 이 고리를 길마의 갈고리에 연결하고, 다시 수레의 손잡이를 연결하여 묶게 된다.

(5) 질메

'질메'는 표준어의 '길마'로, 짐을 싣기 위하여 소나 말의 등에 안장처럼 얹는 도구를 말한다. 소와 말을 구분하여 소에 하는 것을 '쒜질메', 말에 하는 것을 '몰질메'라고 한다.

"이거 쒜에 쓴 거. 그 바레끼, 마차. 바레끼렌 허주게. 우리가 촐왓이, 밧이 만 평짜리 잇어낫주게. 그 남원에서 촐왓까지가 한 십 키로 정도 뒈. 경허면은 이거 쒜 헤가지고 바레끼 끌엉 강 거기서 촐을 한 열흘쯤 베. 살면서, 촐왓에 살면서 그 촐을 다 비고겐 그 촐들을 다 날랑 오주게. 바레끼에다가 거 멜 때. 멍에 헹 그걸 이엉 바레끼에."[18]

(이거 소에 쓴 거. 그 달구지, 마차. '바레끼'라고 하지. 우리 꼴밭이, 밭이 만 평짜리 있었었어. 그 남원에서 꼴밭까지가 한 십 키로 정도 돼. 그러면 이거 소 해서 달구지 끌고 가서 거기서 꼴을 한 열흘쯤 베. 살면서, 꼴밭에 살면서 그 꼴을 다 베고 그래서 그 꼴들을 다 날라 오지. 달구지에다가 그거 맬 때, 멍에 해서 그걸 이어서 달구지에.)


〈사진 10〉 양덕부 씨 소장 '쉐질메'

<사진 10>은 남원1리 양덕부 씨의 아버지가 사용했던 길마다. 소에 짐을 실을 때 사용했던 것으로 나무로 된 길마 아래 소의 등에 가하는 힘을 완화하기 위해서 '등테'가 덧대어 있다. 이 '등테'는 말의 등에 씌워 말이 아프지 않게 헝겊이나 짚 따위로 덧대는 물건을 말한다. 길마는 소에 달구지를 맬 때 사용했는데, 소의 목에 멍에를 메고 등에 길마를 얹어 달구지를 연결하였다. 꼴을 장만하여 운반할 때는 소에 달구지를 연결하여 꼴을 싣고 날랐다.

한편, 달구지를 이용하지 않고, 길마 양쪽으로 짐을 묶어 운반하기도 했다.

"출 시끌 때 질메 지와근에 혼쪽에 열다섯 단썩, 열다섯 뭇썩 양쪽에 서른 뭇을 시꺼낫주게."[19]
(꼴 실을 때 길마 지워서 한쪽에 열다섯 단씩, 열다섯 뭇씩 양쪽에 서른 뭇을 실었었지.)

"(걸름은) 멩텡이에 담앙. 멩텡이 두 개에 요추룩 동글락헝 멩텡이에 담앙 발로 꼰꼰 볼라근에 대깍헤민 혼 사름 들르젠 허민 든직허주. 돗걸름, 거 돗통에 돗걸름. 경허민 양쪽에 영 탁 시껑 메영 가낫주."[20]
((거름은) 망태기에 담아서. 망태기 두 개에 이처럼 동그란 망태기에 담아서 발로 꼭꼭 밟아서 가뜩하면 한 사람 들려고 하면 든직하지. 돼지거름, 그거 돼지우리에 돼지거름. 그럼 양쪽에 이렇게 탁 실어서 매고 갔었지.)

19) 의귀리 양인필 씨 구술.
20) 의귀리 현정자 씨 구술.
21) 남원1리 장덕지 씨 구술.

길마는 소에 달구지를 연결할 때도 사용하지만, 소에 직접 짐을 실을 때도 이용했다. 의귀리 양인필 씨, 현정자 씨는 꼴을 운반할 때 길마 양쪽에 꼴을 열다섯 뭇씩 실어 날랐다고 한다. 거름을 실어 나를 때는 망태기를 이용했는데, 거름을 망태기에 넣어 길마 양쪽에 나눠 실었다.

"저거는 질메. 몰 허는 거영 쉐 허는 거영 틀리주게. 이걸 몰 등에 걸쳐 놩 이걸 연결헹. 이건 등에 허고 이건 목에 헹 연결헹 요레 톡 놩, 요거 요거에. 영 놩이 이거 놓고 이거 등에 허고 이건 목에 헹 목 힘을 주어서, 이거 걸리고. 경허영 저레 바레기 잇지이, 마차. 마차에 동글락헌 것이 잇나. 걸 그레 톡 걸쳥 무끄는 거주. 마차가 이렇게 있으면 앞에 나무가 이만이 오지."[21]
(저거는 길마. 말에 하는 거랑 소에 하는 거랑 다르지. 이걸 말 등에 걸쳐 놓고 이걸 연결해서 이건 등에 하고 이건 목에 해서 연결해서 요리 톡 놓아서, 요거 요거에. 이렇게 놔서 이거 놓고 이거 등에 하고 이건 목에 해서 목에 힘을 주어서, 이거 걸리고. 그래서 저리 달구지 있지, 마차. 마차에 동그란 것이 있어. 그걸 그리 톡 걸쳐서 묶는 거지. 마차가 이렇게 있으면 앞에 나무가 이만큼 오지.)


〈사진 11〉 장덕지 씨 소장 '물질메'


〈사진 12〉 장덕지 씨 소장 '물질메'(옆)



<사진 11>은 남원1리 장덕지 씨가 보관하고 있는 '물질메'다. 앞의 <사진 10>의 소에 쓰는 길마와 모양은 거의 비슷하나 크기는 소에 쓰는 '길마'와 다르다. '물질메'가 상대적으로 폭이 좁은 편이다.

〈사진 13〉 '물접게'와 '물질메'를 이은 모습

목축관련

길마는 마소에 수레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데, 말에 수레를 연결할 때는 앞의 <사진 9>의 '물접게'를 말의 목에 메고 등에 <사진 11>의 길마를 얹는다. 그러고 나서 앞의 <사진 9>의 '물접게' 양쪽의 고리를 길마 아래쪽의 갈고리에 끼운다. <사진 13>은 '물접게'와 '물질메'를 연결한 모습이다. 이렇게 연결하고 난 후 수레의 손잡이를 길마의 아래쪽 갈고리에 끼운다.

(6) 안장

'안장'은 말 따위의 등에 얹어서 사람이 타기에 편리하도록 만든 도구를 말한다. 말을 부릴 때 쓰는 대표적인 말갖춤 도구로, 보통 안장의 몸통은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가죽을 씌운 것이 많다. 안장 밑에는 말이 등이 다치지 않도록 깔개를 깔았다.

"안장, 그거 아부지가 탄 거. 그거는 일본에서 가져왔다는 얘기를 허는 거 닮아. 우리 일본에 큰아버지가 참 잘살앗주게. 큰 훼사를 헤가지고 잘살앗는데 큰아부지가 가져왓다는 얘기를 들었던 거 닮아."[22]

(안장 그거 아버지가 탄 거. 그거는 일본에서 가져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 같아. 우리 일본에 큰아버지가 참 잘살았어. 큰 회사를 해서 잘살았는데 큰아버지가 가져왔다는 얘기를 들었던 거 같아.)

"이거는 우리 처 할아버지가 써난 거난이 저 일제강점기 때주. 이거 다른 디 책에 보믄 조선후기 거주, 요것이 이 문양이. 처간 신례. 이건 오래뒌 거."[23]

(이거는 우리 처 할아버지가 썼던 거니까 저 일제강점기 때지. 이거 다른 데 책에 보면 조선 후기 거지, 요것이 이 문양이. 처가는 신례. 이건 오래된 거.)

<사진 14>은 신례1리 고방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안장이다. <사진 16>은 남원1리 양덕부 씨의 안장이다. 양 씨는 아버지가 대여섯 살 때부터 70년대 중반에 소들과 말들을 다 처분하기 전까지 아버지가 말을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 이때 양 씨의 아버지가 말을 타고 다닐 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사진 16>의 안장이다. <사진 17>은 남원1리 장덕지 씨가 보관하고 있는 안장인데 장 씨 아내의 할아버지(신례1리)가 사용했던 것을 물려받아 보관하고 있다.



〈사진 14〉 고방순 씨 소장 '안장'



〈사진 15〉 고방순 씨 소장 '안장'(위)



〈사진 16〉 양덕부 씨 소장 '안장'



〈사진 17〉 장덕지 씨 소장 '안장'

(7) 낫

'낫'은 꼴 따위를 벨 때 사용하는 도구로, 날이 길고 손잡이가 길다. 보통 서서 두 손으로 '낫'을 후려서 꼴을 벤다. 남원읍 지역에서는 성산읍, 구좌읍 지역과 마찬가지로 꼴을 벨 때 서서 베는 '낫'을 이용했었다. 애월읍, 한경면, 대정읍의 제주시 서쪽 지역에서 '호미'라고 부르는 낫을 이용해서 앉아서 베는 것과는 다르다. 제주시를 기준으로 동서 지역에서 꼴을 베는 도구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18〉 '낫질'을 재현해 보이는 현원휴 씨

22) 남원1리 양덕부 씨 구술.
23) 남원1리 장덕지 씨 구술.

목축 관련

<사진 18>은 수망리 현원휴 씨가 꼴을 벨 때 '낫질'하는 모습을 재현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 쉐 질러난. 말도 요번이꺼지 질루단 아저씨가 돌아가셔 부난 안 허여. 친정이 의귀린디, 친정에서도 소 많이 질롸낫주게. 나도 시집올 때 ᄒᆞ나 가졍오고. 건 아무나 주지도 안 허고 부제칩이고 살 만허면 똘덜토게 하나썩 줘낫주게."[24]
(우리 소 길렀었어. 말도 요번까지 기르다가 아저씨(남편)가 돌아가셔 버리니까 안 해. 친정이 의귀리인데, 친정에서는 소 많이 길렀었지. 나도 시집올 때 하나 가져서 오고. 건 아무나 주지 않고 부잣집이고 살 만하면 딸들도 하나씩 줬었지.)

"우린 저런 낫으로 촐 비영 모여 노면 그런 거 무끄고. 우리도 낫질 헤져, 저런 거. 저런 낫질도. 낫질 남저덜이 헤도, 우리 의귀리 살 때 아부지가 나 앞이 사근에 그거 배우렌 허멍 경 배와근에 낫질도 헤난."[25]
(우린 저런 낫으로 꼴 베어서 모아 놓으면 그런 거 묶고. 우리도 낫질 할 수 있어, 저런 거. 저런 낫질도. 낫질 남자들이 해도, 우리 의귀리 살 때 아버지가 내 앞에 서서 그거 배우라고 하면서 그렇게 배워서 낫질도 했었어.)


〈사진 19〉 현원휴 씨 소장 '낫'


〈사진 20〉 오춘화 씨 소장 '낫'

24) 태흥2리 오춘화 씨 구술.
25) 태흥2리 오춘화 씨 구술.
26) 의귀리 오경수 씨 구술.
27) 수망리 김두생 씨 구술.

<사진 19>는 수망리 현원휴 씨가 사용했던 '낫'이고, <사진 20>은 태흥2리 오춘화 씨(1947년생)의 남편이 사용했던 '낫'이다. 오 씨는 의귀리가 친정인데 오 씨의 친정에서도 소를 많이 길렀다고 한다. 오 씨는 친정에서 기른 소를 받아오기도 했다고 한다. 한편, '낫질'은 보통 남자들이 하고 베여 놓은 꼴들을 여성들이 묶는데 오 씨는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에게서 '낫질'하는 것을 배워 꼴을 베는 일도 했었다고 한다.

"촐 빌 때 쓰는 거. 쉐 대여섯 개 질럿주."[26]
(꼴 벨 때 쓰는 거. 소 대여섯 개(마리) 길렀지.)

"그거는 뭐 우리 사용허다근에 낡으면은 갈고 갈고. 날ᄌᆞ룩도 바꾸고. 날도 바꾼 거 주게. 낡아근에 못 쓰민 바꽝. 나도 (소) 열 마리까지 키와나신디. 여기 여기 다 메낫어. 여기 쉐막이라. 여기한 다섯 마리쯤 허지. 그땐 먹이통 엇이 촐 그냥 줘지. 그냥 그냥 촐단을 쭉허게 데껑 내불어. 삼십 년 전에 쉐 다 설러 불언. 미깡 농사덜 허멍 다 설러 불엇지."[27]
(그거는 뭐 우리 사용하다가 낡으면 갈고 갈고. 자루도 바꾸고. 날도 바꾼 거지. 낡아서 못 쓰면 바꿔. 나도 (소) 열 마리까지 키웠었는데. 여기 여기 다 맸었어. 여기 외양간이야. 여기 한 다섯 마리쯤 하지. 그땐 먹이통 없이 꼴 그냥 줬지. 그냥 그냥 꼴단을 쭉 던져서 내버려. 삼십 년 전에 소 다 치워 버렸어. 귤 농사들 하면서 다 치워 버렸지.)


〈사진 21〉 오경수 씨 소장 '낫'


〈사진 22〉 김두생 씨 소장 '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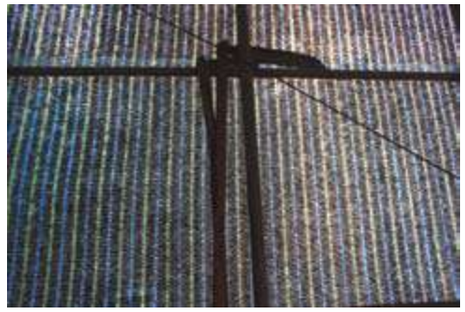
〈사진 23〉 오희일 씨 소장 '낫'과 '호미'



〈사진 24〉 김용남 씨 소장 '낫'



〈사진 25〉 현창언 씨 소장 '낫'



〈사진 26〉 이대현 씨 소장 '낫'

<사진 21>은 의귀리 오경수 씨(1941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낫'이고, <사진 22>는 수망리 김두생 씨(1942년생)의 '낫'이다. 김두생 씨는 소를 열 마리 정도 키웠었는데 소의 먹이를 장만할 때 쓰는 '낫'의 날이 닳으면 갈고, 자루가 부러지면 자루를 바꿔 끼우며 낫을 계속 사용해 왔다고 한다. 김 씨는 계속 소를 키우다가 귤 농사를 짓게 되면서 소들을 정리했다고 한다.

<사진 23>은 의귀리 오희일 씨(1941년생)가 사용했던 '낫'과 '호미'이고, <사진 24>는 태흥2리 김용남 씨(1946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낫'이다. <사진 25>는 남원1리 현창언 씨(1937년생), <사진 26>은 태흥2리 이대현 씨(1955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낫'이다.

28) 남원1리 현창언 씨 구술.

"이거 쉐 길르젠 허민 촐 비는 거. 흔 열 마리 길롯어. 옛날 이디 쉐막이라신디 새로 개조헤 부니까. 쉐 허젠 허민 이거 두 개, 세 개 잇어낫거든. 놉, 우리 장남덜 빌어서 허는 따문에. 이거 집은 나가 만드는 거. 이거 날, 이거 안 허민 날 부려져 불엉. 쉔 오래 질롸신디, 칠십 년도까지는 쉐 질루고 그 후에는 안 헌 거 닮아. 과수원 헐랴고 허니까 인력도 모자라고. 흔 칠십년도에 설러 불언."[28]

(이거 소 기르려고 하면 꼴 베는 거. 한 열 마리 길렀어. 옛날 여기 외양간이었는데 새로 개조해 버리니까. 소 하려고 하면 이거 두 개, 세 개 있었거든. 놉, 우리 장정들 빌려서 하는 때문에. 이거 집은 내가 만든 거. 이거 날, 이거 안 하면 날이 부러져 버려서. 소는 오래 길렀는데, 칠십 년도까지는 소 기르고 그 후에는 안 한 거 같아. 과수원 하려고 하니까 인력도 모자라고. 한 칠십 년도에 그만둬 버렸어.)



〈사진 27〉 현창언 씨 소장 '낫집'



〈사진 28〉 현창언 씨 소장 '낫'과 '낫집'

<사진 27>은 남원1리 현창언 씨의 '낫집'이다. 현 씨가 직접 나무로 만든 것으로, '낫집'을 하지 않으면 가지고 다니면서 날이 부러질 수 있어서 날을 끼우는 집을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한다.

(8) 재갈과 몰방울

'재갈'을 말을 부리기 위하여 입에 물리는 가느다란 막대를 말한다. 보통 쇠로 만들었는데 굴레가 달려있고 여기에 고삐를 맨다. '몰방울'은 말의 목에 다는 방울로, 철제나 놋쇠 등으로 만든다. 방울 소리는 말의 위치를 알려 줄 뿐만 아니라, 말이 다른 곳으로 주위를 돌리지 않고 빨리 걸을 수 있게 한다.

"요것은 재갈이, 제주도 거. 입에 물릴 거. 입에 물령 끈으로 헤근에. 일헐 때는 물리면은 움직거리지 못허주게, 재갈이엔 헌다, 재갈."[29]
(요것은 재갈, 제주도 거. 입에 물리는 거. 입에 물려서 끈으로 해서 일할 때 물리면 움직거리지 못하지, 재갈이라고 해, 재갈.)

"이걸 뭐라 허느냐 허면 무제미렌 무제미. 이걸 직접 만들엇주게, 이거 무제미. 이게 다 다르거든, 이 말마다 크기가.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그걸 다 묶엇주. 이거(재갈과 말방울)는 타는 말만."[30]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무제미'라고 굴레. 이걸 직접 만들었지, 이거 굴레. 이게 다 다르거든, 이 말마다 크기가.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그걸 다 묶었지. 이거(재갈과 말방울)는 타는 말만.)



〈사진 29〉 장덕지 씨 소장 '재갈'



〈사진 30〉 양덕부 씨 소장 굴레의 '재갈'과 말방울'

<사진 29>는 남원1리 장덕지 씨가 보관하고 있는 재갈이다. 재갈의 길쭉한 부분을 말의 입에 물리고 양쪽 고리에 고삐와 굴레 줄을 연결한다. <사진 30>은 남원1리 양덕부 씨가 보관하고 있는 굴레인데 <사진 30>에서 재갈의 고리에 줄이 연결되어 있고, 가죽으로 된 굴레와 하얀색 고삐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굴레에 말방울이 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9) 남원1리 장덕지 씨 구술.
30) 남원1리 양덕부 씨 구술.
31) 의귀리 양인필 씨 구술.

(9) 넥인

'넥인'은 표준어의 '낙인'에 대응하는 말로, 쇠붙이로 만들어 불에 달구어 찍는 도장을 말한다. 소나 말의 엉덩이에 낙인을 찍어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표시했다.

"엿날은 가족별로 성씨별로 넥인도 틀리고, 귀표도 틀리곡. 우리는 저 풍풍 자. 우리 권당들은 다 썻주. 경허고 귀는 바르게 짤르곡 우 끗을, 우 끗을 짤라. 영헤야 산에다 놔도 자기 소를 찾을 수 잇주게."[31]
(옛날은 가족별로 성씨별로 낙인도 다르고, 귀표도 다르고. 우리는 저 풍풍 자. 우리 권당들은 다 썼지. 그리고 귀는 바르게 자르고 위 끝을, 위 끝을 잘라. 그래야 산에다 놔도 자기 소를 찾을 수 있지.)

겨우내 '쉐막'에 매어 돌본 소를 풀이 돋아 우거질 때가 되면 목장으로 보낸다. 소를 방목할 때는 다른 소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소에 낙인을 찍는다. 한편, 소는 '귀표'를 하기도 한다. '귀표'는 가축의 임자를 밝히기 위하여 가축의 귀에 다는 표지다. 주로 쇠를 이용하여 만든 귀표를 소나 말의 귀에 끼웠다. 낙인과 마찬가지로 귀표만 보면 마소의 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낙인과 귀표는 집안마다 다른 문양으로 하는데, 의귀리 양인필 씨 집안에서는 풍(風) 자 낙인을 썼다. 귀는 위쪽을 곧게 잘라 표시를 했다고 한다.

"초등학교 한 사학년쯤인 거 닮아. 낙인이, 우리 집에서 그 저 진구슬목장이라고 헤, 진구슬목장. 진구슬목장이 지금 더클래식골프장 우에 민오름 있어. 그 근방이 진구슬목장이라낫주게. 그 진구슬목장까지 걸엉 강, 혼 네다섯 사름이 걸엉 가. 강 물들을이 울타리 안에 다 이렇게 담아. 담으면은 낙인은 어떻게 찍느냐 허면은 두 사람, 두 사람은 큰 대막뎅이, 대막뎅이에다가 밧줄을 이렇게 무꺼. 겐 이렇게 이렇게 유도를 허면은 물덜이 거기에 따라 막 뛰어다녀. 무리를 지어가지고 막데기를 이렇게, 큰 대나무로 이렇게 허면은 자동적으로 물덜이 이렇게 움직이더라고. 원 그리듯이. 그러면서 딱 낚아채면은 두 사람이 밧줄을 딱 잡아당기더라고 잡아당기면은 한 사람이 또 달려가서 코 이쪽에서 딱 잡앗던 거 닮아. 코 딱 잡고 그다음 눕히고 우리, 조카허고 나가 둘이 갓엇는데 뭘 허느냐 허면은 돌무덤, 그 낙인 달궈야 헐 거 아니? 돌 요만큼

헌 무덤에다가 불을 살롸가지고 우리가 그 역할을 헤. 아부지가, 네 사름 정도 (말을) 딱 눕형 그 낙인을, 불 막 달룬 걸 엉덩이 쪽에다가 이걸 찍더라고."[32]

(초등학교 한 사학년쯤인 거 같아. 낙인, 우리 집에서 그 저 '진구슬목장'이라고 해, '진구슬목장'. '진구슬목장'이 지금 '더클래식골프장' 위에 '민오름'이 있어. 그 근방이 '진구슬목장'이었어. 그 '진구슬목장'까지 걸어서 가서, 한 네다섯 사람이 걸어서 가. 가서 말들을 이 울타리 안에 다 이렇게 담아. 담으면 낙인은 어떻게 찍느냐 하면 두 사람, 두 사람은 대막대기, 대막대기에다 밧줄을 이렇게 묶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유도를 하면 말들이 거기에 따라 마구 뛰어다녀. 무리를 지어서 막대기를 이렇게, 큰 대나무로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말들이 이렇게 움직이더라고. 원 그리듯이. 그러면서 딱 낚아채면 두 사람이 밧줄을 딱 잡아당기더라고 잡아당기면 한 사람이 또 달려가서 코를 이쪽에서 딱 잡았던 거 같아. 코를 딱 잡고 그다음 눕히고 우리, 조카하고 내가 둘이 갔었는데 뭘 하느냐 하면 돌무더기, 그 낙인을 달궈야 할 거 아니? 돌 요만한 무더기에다가 불을 살라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해. 아버지가, 네 사람 정도가 (말을) 딱 눕혀서 그 낙인을, 불 마구 달군 것을 엉덩이 쪽에다가 이걸 찍더라고.)

"이 흙토 자가 나 그 어린 시절에도, 흙토 자잖아. 이 흙토 자들이 많아게. 이 흙토 자들이 잇는데 어떤 흙토 자가 있엇느냐 허민 우리 동네 원으로 만든 흙토 자가 있어, 모양이. 이 흙토 자가 내가 생각허기에는, 아부지한테 들은 건 아니고, 너무 단순한, 단순하고 또 멀리서 보기 쉽고, 식별허기 쉽고 그렇게 헤서 만든 것이 토 자 아닌가. 나가 추측이."[33]

(이 흙토 자가 내가 그 어린 시절에도, 흙토 자잖아. 이 흙토 자들이 많아. 이 흙토 자들이 있는데 어떤 흙토 자가 있었느냐 하면 우리 동네 원으로 만든 흙토 자가 있어, 모양이. 이 흙토 자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버지한테 들은 건 아니고, 너무 단순한, 단순하고 또 멀리서 보기 쉽고, 식별하기 쉽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토 자 아닌가. 내가 추측이.)

32) 남원1리 양덕부 씨 구술.
33) 남원1리 양덕부 씨 구술.
34) 남원1리 정개은 씨 구술.



〈사진 31〉 양덕부 씨 소장 '낙인'



〈사진 32〉 양덕부 씨 소장 '낙인'(아래)

<사진 31>은 남원1리 양덕부 씨의 아버지가 사용했던 낙인이다. 흙토 자로 되어 있는데, 양 씨는 멀리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쉬운 글자로 낙인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양 씨는 초등학교 시절 말에 낙인을 찍는 것을 보았던 기억을 생생하게 들려주었다.

(10) 작두

'작두'는 마소의 먹이를 잘게 썰 때 사용하는 도구다. 대체로 길고 두툼한 나무토막 위에 긴 칼날을 달아 그 사이에 짚이나 풀 따위를 넣어 자루를 손으로 눌러 썰게 되어 있다.

"작귀, 작귀라고 옛날 사름덜 소 질룰 때 저걸로, 저런 식으로 만든 거 헤가지고 풀을 썰어가지고 소 멕엿지. 이 밧 가는 소들은 거기에 사료 서꺼 가지고, 잘 멕여야 뒈기 때문에 큰 작귀로 헤낫어. 저게 웨 우리 집에 있느냐 허면 내가 중간에 약초를 헤다가, 약초 써는 걸로 저걸 사용헷어. 촐 허는 건 큰 거라. 막 큰 거. 길이가 이만은 허지."[34]

(작두, 작두라고 옛날 사람들 소 기를 때 저걸로, 저런 식으로 만든 거 해서 풀을 썰어서 소 먹였지. 이 밭 가는 소들은 거기에 사료 섞어서, 잘 먹여야 되기 때문에 큰 작두로 했었어. 저게 왜 우리 집에 있느냐 하면 내가 중간에 약초를 해다가, 약초 써는 거로 저것을 사용했어. 꼴 하는 건 큰 거야, 아주 큰 거. 길이가 이만은 하지.)



〈사진 33〉 정개은 씨 소장 '작귀'

<사진 33>은 남원1리 정개은 씨(1939년생)가 사용하고 있는 작두다. 정 씨는 작두를 '작귀'라고 하였다. 이 작두는 정 씨가 약초를 자를 때 썼던 것으로, 실제 마소의 먹이 장만용 작두는 사진의 작두보다 큰 것이다.

(11) 신돌

'신돌'은 칼이나 낫 따위의 연장을 갈아 날을 세우는 데 쓰는 '숫돌'을 말한다.

"칼 골고 호미 골고 낫은 이걸로 못 골아. 낫 ᄀᆞ는 신돌이 좋은 신돌이 잇거든."[35]
(칼 갈고 낫 갈고 '낫'은 이걸로 못 갈아. '낫' 가는 숫돌이 좋은 숫돌이 있거든.)

"저 거시기 낫이나 집의 칼 그런 거 ᄀᆞ는 거. 요거는 좀 잘 끈어지는 거고, 요거는 제라허게 놀 내우는 거고."[36]
(저 거시기 '낫'이나 집의 칼 그런 거 가는 거. 요거는 좀 잘 끊기는 거고, 요거는 제대로 날 나게 하는 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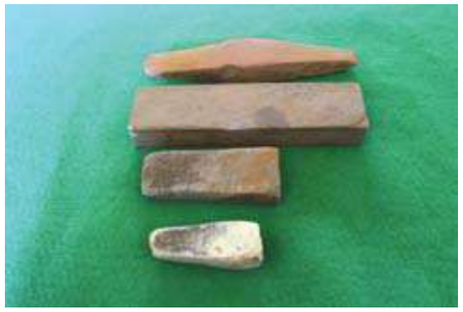


〈사진 34〉 현창언 씨 소장 '신돌'



〈사진 35〉 김성찬 씨 소장 '신돌'

35) 남원1리 현창언 씨 구술.
36) 수망리 김성찬 씨 구술.
37) 의귀리 현정자 씨 구술.



〈사진 36〉 현원휴 씨 소장 '신돌'



〈사진 37〉 강도범 씨 소장 '신돌'

<사진 34>는 남원1리 현창언 씨가 사용하고 있는 숫돌이다. 낫을 가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현 씨는 서서 꼴을 베는 손잡이가 긴 '낫'을 가는 것은 별도의 숫돌을 사용한다고 한다. <사진 35>는 수망리 김성찬 씨가 사용하고 있는 숫돌이다. 김 씨는 두 숫돌의 용도를 달리하여 사용했는데, 숫돌의 닳은 모양을 통해 그 용도가 달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36>은 수망리 현원휴 씨, <사진 37>은 위미2리 강도범 씨(1937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숫돌이다.

"두 번, 낮 후제 두 번은 골아야. 경 안혀민 비당 무끼민 잘 빨리 비질 못허주. 게난 두 번은 골아사. 낮 전 두 번 낮 후제 두 번 경 헤사. 골질 안헤민 혼참 헤 나민 그게 무끼여."[37]
(두 번, 낮 후에 두 번은 갈아야. 그렇지 않으면 (꼴을) 베다가 무디면 잘 빨리 베지를 못하지. 그러니까 두 번은 갈아야. 낮 전에 두 번 낮 후에 두 번 그렇게 해야. 갈지를 않으면 한참 하고 나면 그게 무뎌.)

꼴을 베려면 '신돌'을 가지고 가야 한다. 꼴을 베다가 보면 낫의 날이 무디어지기 때문에 '신돌'을 가지고 다니면서 낫을 갈아 준다. 의귀리 현정자 씨는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 정도는 낫을 갈아야 한다고 했다.

(12) 망울

'망울'은 발을 갈 때 마소가 풀이나 곡식 등을 먹지 못하게 마소의 주둥이에 씌우는 것으로, 표준어의 '부리망'에 대응한다. '망울'은 짚이나 억새 등으로 만들었는데, 나일론이 나오자 그 후부터는 나일론으로 만들어 썼다.

"건 망울. 망울 헤근에이, 거의 소에, 촐 먹지 못허게. 쉐도 허고 물도 저걸 헤. 수망린가 어디서 쓰는 걸 나가 도렌 헌 거여."[38]

(그건 부리망. 부리망 해서, 거의 소에, 꼴 먹지 못하게. 소도 하고 말도 저걸 해. 수망리인가 어디에서 쓰는 걸 내가 달라고 한 거야.)



〈사진 38〉 장덕지 씨 소장 '망울'

<사진 38>은 남원1리 장덕지 씨가 소장하고 있는 부리망이다. 부리망은 마소가 밭을 갈 때 먹이를 먹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사진은 소에 사용했던 '쉐망울'이다. 장 씨는 수망리의 지인이 사용했던 것을 받아와 보관하고 있었다.

(13) 약질이

'약질이'는 마소에게 약을 먹일 때 사용하는 도구다. 보통 대나무를 잘라 만드는데 한쪽은 막혀 있고 한쪽은 입에 넣을 수 있도록 사선형으로 되어 있다.

"약 멕이는 거. 쉐안티, 물쉐. 옛날에 약 멕일 때."[39]

(약 먹이는 거. 소한테, 마소. 옛날에 약 먹일 때.)



〈사진 39〉 장덕지 씨 소장 '약질이'

<사진 39>는 장덕지 씨가 보관하고 있는 '약질이'다. 마소가 아파서 약을 먹일 때 사용하던 것이라고 한다.

(14) 망원경

'망원경'은 멀리 있는 물체 따위를 크고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든 도구다.

38) 남원1리 장덕지 씨 구술.
39) 남원1리 장덕지 씨 구술.
40) 남원1리 양덕부 씨 구술.

"일본서 가져왔는지, 큰아버지가 보내왔는지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네. 이거는 (목장에) 갈 때 꼭 가졍 다녔어. 물 춪으레 가잖아, 물 춪으레. 물 춪으레 가면은, 그 아버지네 멤버가 한 네 명 정돈데 가면은 어디 강 자느냐 허면은 궤, 조그만 동굴에 가서 자면서 메칠 살면서 허는데 이거를 필수품으로 헤서 가지고 다녓던 거 닮아. 그 가방은 망원경 담는 거."[40]

(일본에서 가져왔는지, 큰아버지가 보내왔는지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네. 이거는 (목장에) 갈 때 꼭 가지고 다녔어. 말 찾으러 가잖아, 말 찾으러. 말 찾으러 가면, 그 아버지네 멤버가 한 네 명 정도인데 가면 어디 가서 자느냐 하면 굴, 조그만 동굴에 가서 자면서 며칠 살면서 하는데 이것을 필수품으로 해서 가지고 다녔던 거 같아. 그 가방은 망원경 담는 거.)



〈사진 40〉 양덕부 씨 소장 '망원경'



〈사진 41〉 양덕부 씨 소장 '망원경 가방'

<사진 40>은 남원1리 양덕부 씨의 아버지가 사용했던 망원경이고, <사진 41>은 망원경을 보관하는 가방이다. 양 씨의 아버지는 목장에 말을 돌보러 갈 때 항상 망원경을 챙겨 갔었다고 한다.

6.2. 돼지 관련

(1) 돗통

'돗통'은 돼지를 가두어 기르면서, 한쪽에 대소변을 볼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을 말한다. 다른 말로는 '돗통시', '통시', '통세'라고도 한다. 제주의 전통 '돗통'은 돼지를 가두어 기르는 돼지우리 한쪽에 돼지가 비 등을 피할 수 있도록 '돗집'이 있다. 그리고 한쪽에는 볼일을 볼 수 있는 변소가 있다. 이 변소에는 발을 디디고 앉아서 뒤를 볼 수 있게 한 '지들팡'이 놓여 있다. '지들팡'은 표준어의 '부춛돌'에 대응하는 제주어이다.



〈사진 42〉 양금석 가옥의 '돗통'



〈사진 43〉 양금석 가옥의 '돗집'

<사진 42>와 <사진 43>은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신례1리 양금석 가옥의 '돗통'이다. 이 '돗통'은 2014년에 복원한 것이라고 한다. <사진 42>에서 '디딜팡', <사진 43>에서 '돗집'을 확인할 수 있다.

"엿날에는이 집 안 짓언에 지들팡 놘에 영 헨이 지들팡 놔난 거라, 이디. 지들팡 놧단에 거 틀어둰에 집 짓은 거. 이건 중간에사 짓은 거. 이제는 집 안에 헷지만은 그때는, 이젠 안 뎅겨 이디."[41]

(옛날에는 집 안 짓고 '지들팡'을 놓아서 이렇게 해서 '지들팡' 놨던 거야, 여기. '지들팡' 놨다가 거 틀어두고 집 지은 거. 이건 중간에야 지은 거. 이제는 집 안에 했지만 그때는, 이젠 안 다녀 여기.)

신례1리 강문선 씨(1933년생) 집에는 돼지우리를 키우던 '돗통'을 허물고 벽돌을 쌓아 만든 화장실이 있다. 강 씨의 구술에 의하면 예전의 화장실은 비를 막아주는 지붕 따위가 없이 부춛돌이 놓여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 한창 주택 개량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화장실에도 변화가 있었다. 근래에는 건물 안에 화장실을 만들면서 실외의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옛날에 여기 돗통, 돼지 이디 헤낫주게. 이건 돗도고리. 돌 저런 걸로 헤난 거 신식으로 허니까 이거지. 저거 돼지 줌자는 집."[42]

(옛날에 여기 '돗통', 돼지 여기 했었어. 이건 '돗도고리'. 돌 저런 것으로 했던 거 신식으로 하니까 이거지. 저거 돼지 잠자는 집.)

<사진 44>는 남원1리 현창언 씨 집에 남아 있는 옛 '돗통'이 있었던 자리다. 지금은 쓰레기 따위를 소각하는 장소로 쓰고 있다. <사진 45>는 신례1리 김공률 씨(1965년생)의 집의 '돗통' 자리다.



〈사진 44〉 현창언 씨 집의 '돗통' 자리



〈사진 45〉 김공률 씨 집의 '돗통' 자리

(2) 돗도고리

'돗도고리'는 돌을 파서 만든, 돼지에게 먹이를 줄 때 사용하는 그릇이다. '돗'은 돼지, '도고리'는 함지박과 같이 큰 바가지 모양의 그릇을 나타내는 제주어이다.



〈사진 46〉 현창언 씨 소장 '돗도고리'



〈사진 47〉 이대헌 씨 소장 '돗도고리'

<사진 46>은 남원1리 현창언 씨가 보관하고 있는 '돗도고리'다. <사진 47>은 태흥2리 이대헌 씨 집에서 사용했던 '돗도고리'로 지금은 화분으로 쓰고 있다.

41) 신례1리 강문선 씨 구술.
42) 남원1리 현창언 씨 구술.

목축관련



III

마무리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Ⅷ, 남원읍 편』은 서귀포시 남원읍 지역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사용했던 도구를 현지 조사하여 정리한 책이다.

이 책에는 남원읍의 17개 행정 마을 가운데 남원1리, 수망리, 신례1리, 위리2리, 의귀리, 태흥2리의 6개 마을을 조사 지점으로 하여 조사한 내용을 실었다. 여기서 남원1리, 위미2리, 태흥2리는 해안 마을이고, 수망리, 신례1리, 의귀리는 중산간 마을이다. 조사는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 마을에서 47명의 토박이 제보자를 직접 만나 도구의 실물 사진을 찍고, 사용 용도를 구술 조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현장 조사 후 구술 채록한 녹음 자료를 꼼꼼히 전사하고, 전사한 자료와 사진 자료와 살피면서 내용을 정리하였다. 책에는 760여 장의 사진 자료와 함께 제보자의 구술을 실었다.

이 책은 Ⅰ장 조사 개요, Ⅱ장 조사 내용, Ⅲ장 마무리, 부록으로 구성하였다. Ⅰ장에는 조사 개요와 조사단 구성, 조사 범위와 방법 등을 정리하였고, 조사 지역인 남원읍 지역의 자연환경과 6개 조사 마을을 개괄적으로 소개하였다.

Ⅱ장은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농업 관련, 어업 관련, 목축 관련'의 6개의 절로 나누어 조사 내용을 실었다. 조사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생활' 관련 도구는 바느질 도구, 손질 도구, 세탁 도구, 옷감과 의복 등에 대해 기술하였다. 바느질 도구로는 재봉틀과 '미싱 지름', '미싱 도라이바' 등 재봉틀에 딸린 부속 도구들을 소개하였다. 한편 남원읍 지역에서는 발재봉틀을 사용할 때 이용했던 의자도 조사할 수 있었다. '바농상지', '바농줄레', '실패' '바농질자'는 물론, 바느질용 물건을 구분하여 보관하는 작은 주머니인 '고넹이포', 바늘을 갈 때 사용하는 '속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손질 도구로는 '다듬이돔베'과 '홍짓대와 다듬이마께' 외에도 숯을 넣어 사용했던 작은 프라이팬 모양의 '다리미'를 조사하였다.

의복으로는 1960년대 초 결혼할 때 입었던 장옷과 치마저고리, 60년에서 80년대 외출복으로 입었던 여러 종류의 치마저고리를 소개하였다. 사람이 죽으면 입는 여성용 수의 일체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이번 남원읍 지역에서는 가정에서 옷감을 짤 때 사용했던 베틀에 들어가는 부품인 '도투마리', 'ᄇᆞ디', 'ᄇᆞ디집'을 조사할 수 있었고, 옷 등을 보관할 때 사용했던 '부담', '쳉빗 바구리', '탕건' 등도 조사하여 소개하였다.

둘째, 식생활 분야에서는 식기류와 조리 도구, 저장과 운반 도구, 제기 등을 조사하여 기술하였다. 식기류의 경우는 여러 종류의 밥그릇과 국그릇, 보시기와 접시류, 술잔, 종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남원읍 지역에서는 여러 종류의 'ᄆᆞ물사발'과 'ᄆᆞ물젭시', 나무로 만든 쟁반 등을 조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 밥을 담아 아랫목에 보관할 때 사용했던 '밥통'과 장을 담고 다녔던 나무로 만든 '장통'도 조사할 수 있었다. 이것들은 대부분 신례1리 고방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고씨의 집에서 식생활 도구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도구를 확인하였다.

식생활 관련 도구로 여러 종류의 '구덕'과 '차롱'도 조사할 수 있었는데 '구덕'과 '차롱'의 쓰임새에 대한 제보자들의 구술을 사진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다. 조리 도구로는 '가메솟'을 비롯한 '지세 시리', '남도고리', '고소리', '돔베', '곰박', '낭국자', '남죽', '방에혹과 방엣귀', '절벤본', '바드렝이' 등을 조사하여 실었다. 그동안 실물을 조사하지 못했던 '낭쟁반', '곰박'이나 '함박', '고수왈'에 대한 구술은 이번 조사의 큰 수확이라 할 수 있다. 또 아궁이 위에 솥이 놓여 있는 옛날 부엌도 조사할 수 있었다. 저장 도구로는 여러 종류의 항아리와 허벅 등을 조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번 남원읍 지역 조사에서는 여러 제보자에게서 놋그릇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놋그릇은 대부분 제기로 사용했던 것으로, 현재는 '멧그릇'이나 '갱그릇' 등은 사용하지 않지만, 향로나 향합 등은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었다.

셋째, 주생활 분야에서는 집 구조, 가재도구, 조명 도구, 난방 도구, 연장류 등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집 구조에서는 정낭을 끼웠던 정주석과 전통 가옥에 쓰였던 문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신례1리 양금석 가옥에서 전통 가옥의 마루와 '난간', '대문'과 '호령창'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재도구로는 '궤'와 '문서함', '뒤주', '제사상' 등을 조사하여 실었다. 조명 도구로 '각지'와 '남포등'을 조사하는 행운이 있었다. 난방 도구로는 양금석 가옥에서 '부섭'을 확인하였고, '정동화리' 등을 조사하여 구술 자료와 함께 사진을 실었다. 연장류의 경우는 '톱', '망치', '못빼기', '메', '도치', '자귀', '대패', '징', '끌', '줄' 등을 조사하여 기술하였다. 그 외에 목수들이 집을 지을 때 기울기를 살피는 '추'와 '곱은자', '대패', '끌', '먹통과 먹줄'도 확인하였다. 또 불을 피우고 보관할 때 사용

하는 ‘화심’과 짚 따위를 두드릴 때 쓰는 ‘덩드렁’과 ‘덩드렁마께’, 물건을 걸어두는 데 쓰는 ‘간지’와 ‘공젱이’도 조사하여 사진과 함께 구술을 함께 실어 그 쓰임새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애기구덕’이나 ‘ᄀᆞᆨ박세기’, ‘요강’ 등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농업 관련 도구는 파종 관련 도구, 김매기와 수확 도구, 건조와 손질 도구, 운반 도구, 계량 도구, 저장 도구 등으로 나누어 조사한 자료를 정리하였다. 파종 관련 도구로는 ‘잠대’와 ‘멍에’, ‘보섭과 벳’, ‘갈레죽’, ‘곡괭이’, ‘쉐스랑’ 등이 조사되었고, 김매기와 수확 관련 도구로는 ‘골겡이’와 ‘호미’, ‘도께’ 등을 확인하였다. 특히 남원읍 지역에서 나무로 만든 ‘갈레죽’을 처음으로 조사하였고, 바나나 농사를 지을 때 사용했었다는 ‘따비’도 볼 수 있었다.

건조와 손질 관련해서는 ‘멍석’과 ‘솔박’, ‘체’, ‘얼멩이’, ‘푸는체’, ‘ᄆᆞᆯᄀᆞ레’, ‘ᄀᆞ레’ 등의 도구를 조사하여 구술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다. 이번 남원읍 조사에서는 철사나 나일론 줄이 아닌 대오리를 엮어 쳇불을 만든 체를 조사할 수 있었다. 한편, 운반 도구로 ‘골체’와 ‘질구덕’, ‘ᄇᆞ른바구리’ 등이 조사되었다. 계량 도구로는 ‘됏박’과 ‘저울’ 등을 볼 수 있었는데, 남원읍 지역에서 ‘저울’은 감귤을 수확하여 판매할 때 주로 사용되었다.

저장 도구로는 ‘항’과 ‘도로무깡’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감귤을 따서 보관할 때 사용했던 ‘나무 상자’들을 조사할 수 있었다. 이 ‘나무 상자’들은 과수원 주위로 심었던 방풍림인 삼나무를 잘라 제보자들이 직접 만들어 사용했던 것으로, 남원읍 지역의 특성이 드러나는 도구다. 남원읍 지역은 1960년대 후반부터 감귤 농사를 시작하면서 1970년 이후에 빠르게 과수 농업으로 전환되었다. 때문에 밭농사 관련 농기구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리 사라지고 있다는 점도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어업 관련 도구는 해녀들의 물질 도구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남원읍 지역의 해녀들은 물질 도구를 개인적으로 보관하기보다는 해녀탈의장에 놓아 두는 경우가 많았다. 이 책에는 남원1리 김수정 어르신의 도움으로 남원1리 해녀탈의장에 보관되어 있는 도구들을 조사하여 실었다.

우선 해녀들의 물옷인 ‘속곳’과 ‘고무옷’, ‘고무모자’, ‘눈’ 등을 조사하였다. 물질 도구인 ‘테왁’과 ‘망사리’, ‘조레기’, ‘골겡이’, ‘비창’ 등의 채취 도구도 그 쓰임새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에 바닷일에 사용했던 ‘구덕’, ‘그물’ 등도 볼 수 있었다.

특히 남원읍 지역 조사에서는 ‘갈치 낚싯대’와 ‘물꾸럭 잡이 대’도 조사할 수 있었는데, 풍선을 이용해서 갈치 낚시를 나갔던 이야기나 무명실에 돼지 피를 들여 실을 질기게 만들어 낚시줄로 만들어 사용했었다는 제보자들의 생생한 구술을 표준어 대역과 함께 실었다.

여섯째, 목축 관련 도구는 마소와 돼지를 기르는 데 사용했던 도구를 나누어 정리하였다. 마소 관련해서는, 소를 가둬 길렀던 ‘쉐막’과 마소를 묶어 매는 ‘무제미’, ‘줄레’와 ‘ᄆᆞᆯ톡’, ‘ᄆᆞᆯ접게’, ‘질메’, ‘낫’, ‘안장’, ‘재갈’, ‘낙인’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돼지와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신례1리 양금석 가옥에서 ‘돗집’과 ‘지들팡’이 놓여 있는 옛 ‘돗통’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남원읍 조사에서는 ‘ᄆᆞᆯ테우리’였던 아버지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양덕부 씨와 말 관련 조사와 연구를 하고 있는 장덕지 씨의 도움으로, 나무로 만든 ‘ᄆᆞᆯ톡’과 ‘안장’, ‘재갈’, ‘말방울’ 등의 실물을 조사하고 여러 제보자들의 구술을 통해 목축 관련 도구를 정리할 수 있었다. 이는 이번 조사의 큰 성과라 할 수 있겠다.

부록에는 의귀리 양인필(1935년생) · 현정자(1937년생) 씨와 남원1리 김수정(1931년생)씨의 구술을 표준어 대역과 함께 실었다. 첫 번째 이야기인 의귀리 양인필 · 현정자 씨의 구술은 식생활과 목축, 농사 관련한 도구를 중심으로 구술 조사한 것이고 두 번째 남원1리 김수정 씨의 이야기는 바닷일에 관련한 것으로, 김 씨의 물질 경험 등과 바닷일에 필요한 도구에 관한 것이다. 이 구술들은 제주 사람들이 사용했던 전통 생활 도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시대에 변화에 따른 생활 도구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가볍고 사용하기 편한 물건이 나오면 낡고 무거운 옛 물건들은 사용하지 않게 되고 내팽개쳐지기 마련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뽀얀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기는 하지만 집안 어딘가에 옛물건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것이다.

삶의 현장에서 썼던 생활 도구는, 박물관의 도록이나 전시실 유리창 안에 놓여 있을 때보다, 실제 그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손에 들려 있을 때 그 빛을 더 발한다고 생각한다. 낡고 다였지만, 또 색이 바래고 먼지가 쌓였지만, 선인들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을 직접 볼 수 있고, 옛 물건에 대한 사람들을 기억을 들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 책에 실려 있는 사진과 제보자들의 구술이 제주 사람들의 옛 삶의 모습을 그려 보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참고자료

고광민(2019), 『제주도 도구의 생활사』, 한그루.

국립제주박물관(2015), 『제주말테우리』, (주)디자인인트로.

이훈종(1993), 『민족생활어사전』, 한길사.

제주특별자치도(2008), 『남원읍 역사문화지』,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2013),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Ⅰ-애월읍 편』.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2014),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Ⅱ-조천읍 편』.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2015),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Ⅲ-구좌읍 편』.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2016),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Ⅳ-안덕면 편』.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2017),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Ⅴ-한경면 편』.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2018),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Ⅵ-성산읍 편』.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2019),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Ⅶ-대정읍 편』.

현평효 외(2009),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서귀포문화대전, http://seogwipo.grandculture.net/?local=seogwipo

서귀포시청, https://www.seogwipo.go.kr/index.htm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https://www.seogwipo.go.kr/local/namwon/main.htm

우리말샘, https://opendict.korean.go.kr/main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부 록

의귀리 양인필 · 현정자 씨의 도구 이야기

김보향 게믄 삼춘 성함이 어떵 됨수꽈? 일름이? (그럼 삼촌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이름이?)

현정자 현정자.(현정자.)

김보향 예, 현자 정자 자자. 멧 년생마씨? (예, 현자 정자 자자. 몇 년생요?)

현정자 무시거? (뭐?)

김보향 멧 년생? (몇 년생?)

양인필 삼십칠 년. (삼십칠 년.)

김보향 삼십칠 년생. 자, 삼춘은 성함이 어떵 됨수과? (삼십칠 년생. 자, 삼촌은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현정자 양인필. (양인필.)

김보향 양자 인자 필자예. 몇 년생이시꽈? (양자 인자 필자요. 몇 년생입니까?)

양인필 삼십오 년생. (삼십오 년생.)

김보향 예, 삼십오 년생. 게난예, 오늘은 뭘 물어볼 거냐면 우리 이런 도구에 관한 조사니까 정지서 써난 물건들 어떤 것들 이신지, 또 농사짓을 때, 농사지을 때 어떤 것들 이신지, 아니면 집 짓젠 허면 어떤 물건들 영 써나신지, 쉐도 질롸나수꽈? (예예, 삼십오 년생. 그러니까요, 오늘은 뭘 물어볼 거냐면 우리 이런 도구에 관한 조사니까 부엌에서 썼던 물건들 어떤 것들 있는지, 또 농사지을 때, 농사지을 때 어떤 것들 있는지, 아니면 집 지으려고 하면 어떤 물건들 이렇게 썼었는지, 소도 길렀었습니까?)

현정자 하이고, 쉐 질루곡 말곡게. (하이고, 소 기르고 말고.)

김보향 예, 좋수다. (예, 좋습니다.)

현정자 쉐, 원 지금 귤농사 허는 정도ᄀᆞ치 쉐를 전업으로 질뢋주게. (소, 원 지금 귤농사 하는 정도같이 소를 전업으로 길렀지.)

식생활 도구

김보향 아, 게난 경헐 때 써난 물건들이 뭐가 이신지를 영 여쭤보쿠다예. 우선은 저기 정지서 써난 거부터 물어보게마씨, 정지. (아, 그러니까 그럴 때 썼던 물건들이 뭐가 있는지를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저기 부엌에서 썼던 거부터 물어볼게요, 부엌.)

현정자 정지? (부엌?)

김보향 예, 옛날 정지. 그니까 삼춘이, 삼춘 실례지만 몇 살에 여기 시집왓수꽈? (예, 옛날 부엌. 그니까 삼촌이, 삼촌 실례지만 몇 살에 여기 시집왔습니까?)

현정자 스물에. (스물에.)

김보향 스물에예. 스물에 딱 이 집에 시집왕 정지 딱 들어삿수다. 뭐가 보염수꽈? 뭐가 뭐뭐 잇어나수꽈, 정지에? (스물에요. 스물에 딱 이 집에 시집와서 부엌 딱 들어섰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뭐가, 뭐 뭐 있었습니까, 부엌에?)

현정자 아이, 정지옝 헌 거 정제 말 아니라? (아, '정지'라고 하는 거 '정제' 말 아니야?)

김보향 아, 정제. (아, '정제'.)

현정자 정제, 정제. ('정제', 부엌.)

김보향 여기 정제렌 골앗구나예, 정제예. (여기 '정제'라고 말했군요, '정제'요.)

현정자 나 시집오란 일단 딱 오란 보난 뒷날 아칙 밥을 먹젠 밥을 출려 논 거 보난, 남도고리. 남으로 만든 영 낭푼이ᄀᆞ치 영 만든 거. 그것에 밥을 퍼 놔. 퍼 노민 밥은 뭔 밥이냐 허민 좁쏠, 그때 저 뒈약세기옌 헤난 게 잇어. (내가 시집와서 일단 딱 와서 보니까 뒷날 아침에 밥을 먹으려고 밥을 차려 놓은 거 보니까, 함지박. 나무로 만든 이렇게 양푼같이 이렇게 만든 거. 그것에 밥을 퍼 놔. 퍼 놓으면 밥은 뭔 밥이냐 하면 좁쌀, 그때 저 '뒈약세기'라고 했던 게 있어.)

김보향 네. (네.)

현정자 저 요만은 헌에 ᄒᆞᆫ 사발 드는 거 낭으로 판 거. 큰, 큰 거는 솔박이고. (저 요만큼 해서 한 사발 드는 거 나무로 판 거. 큰, 큰 거는 '솔박'이고.)

김보향 예, 솔박추룩 생긴 거. (예, '솔박'처럼 생긴 거.)

현정자 응, 뒈약세기로 쏠을 떠긴에 밥을 허주. 게난 뒈약세기로 쏠 하나 떵 노믄 감저는 낭푼이로 하나 썰엉 놩 밥을 허지. 밥을 허민 그 밥을 풀 때는 밥자로 닥닥 닥 젓엉 서꺼지게 허영 그 남도고리에 밥을 퍼 놩 이젠 출려 노민 멧 식구가 앉느냐 헤민 우리 시아주방들이 저 다섯 성젠디 ᄒᆞᆫ 사름은 선생으로 나

가 불고, 우리 하르방은 군인 가 불고 허난에. (응, '뒈약세기'로 쌀을 떠서 밥을 하지. 그러니까 '뒈약세기'로 쌀 하나 떠서 놓으면 고구마는 양푼으로 하나 썰어서 놔서 밥을 하지. 밥을 하면 그 밥을 풀 때는 밥자로 닥 닥 닥 저어서 섞이게 해서 그 함지박에 밥을 퍼 놔서 이젠 차려 놓으면 몇 식구가 앉느냐 하면 우리 시아주버니들이 저 다섯 형제인데 한 사람은 선생으로 나가 버리고, 우리 할아버지(남편)는 군인 가 버리고 하니까.)

김보향 아고, 시집와신디 군인 가 불언. (아이고, 시집왔는데 군인 가 버렸어.)

현정자 어, 세 성제가 그디 앚앙 밥을 먹으민 족아도 속숨, 하도 속숨 기자 떠 논 거민 그거 먹어지민 다 일어상 나가. 그 시절엔 밥 굶을 때난. 게민 족다 하다도 아녀고, 맛엇뎅 헐 수가 엇주. 배가 고픈 때난 경헌 때 시집을 오랏어, 그런 때. (어, 세 형제가 거기 앉아서 밥을 먹으면 적어도 아무 말 않고, 많아도 아무 말 않고 그저 떠 놓은 거면 그거 먹으면 다 일어서서 나가. 그 시절에는 밥 굶을 때니까. 그럼 적다 많다고도 안 하고, 맛없다고 할 수가 없지. 배가 고픈 때니까 그런 때 시집을 왔어. 그런 때.)

김보향 게난 낭도고리에 밥 펑 먹엇구나. (그러니까 함지박에 밥을 퍼서 먹었구나.)

현정자 음음. 남도고리에. (음음, 함지박에.)

김보향 게믄 자, 밥 펑 먹어난, 일단 밥상을, 올라간 건 이땅 물어. (그럼 자, 밥 퍼서 먹었던, 일단 밥상을, 올라간 거는 이따가 물어.)

현정자 상은 아니. (상은 아니.)

김보향 상은 아니? 밥상 아니? 경허믄 어떵? (상은 아니? 밥상 아니? 그러면 어떻게?)

현정자 게난에 이 바닥이엔 헌 거, 정제. 정젠디 (웃음) 골아사주. 집을 똑 지금 이치룩 앚앗주. 앚아신디 칸을 딱 영만 짤랏어. 칸을 영 짤르난 이짝은 정제. (그러니까 이 바닥이라고 하는 거, 부엌. 부엌인데 (웃음) 말해야지. 집을 꼭 지금 이처럼 앉았지. 앉았는데 칸을 딱 이렇게만 잘랐어. 칸을 이렇게 자르니까 이쪽은 부엌.)

김보향 이짝은 정제. (이쪽은 부엌.)

현정자 이짝은 검질. 검질이엥 헤민 알카? (이쪽은 김. 김이라고 하면 알까?)

김보향 예, 예. (예, 예.)

현정자 쉐촐. 그런 거. (쇠꼴. 그런 거.)

김보향 불 땔 거예? (불 땔 거요?)

현정자 그걸 이디 바닥에 끌앙, 이디 앚앙 밥을 먹주, 그 바닥에. 그걸. (그걸 여기 바닥에 깔아서, 여기 앉아서 밥을 먹지, 그 바닥에. 그걸.)

김보향 에, 하하하. (에, 하하하.)

권미소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현정자 게난 이 바닥드레 그 남도고리에 밥 퍼근에 이디 앚아 노민 가족이 다 이디 앚앙 밥을 먹어. 수저는 혼 사름에 하나썩 시난에. 으하하하. (그러니까 이 바닥에 그 함지박에 밥 퍼서 여기 가져다 놓으면 다 여기 앉아서 밥을 먹어. 수저는 한 사람에 하나씩 있으니까. 으하하하.)

김보향 게민, 게민. (그럼, 그럼.)

현정자 그 사삼 사건 끝 때주게. 그때가. (그 사삼 사건 끝 때지. 그때가.)

김보향 끝엔게, 끝엔게. 게믄 삼춘 봅서예. 여기는 촐 끈디 앚앙 먹엇수다. 맨 가운데는 낭도고리가 싯고. 반찬이나 국은 뭐에 뜰 거? (끝에는, 끝에는. 그럼 삼촌 보세요. 여기는 꼴 깐 데 앉아서 먹었습니다. 맨 가운데는 함지박이 있고. 반찬이나 국은 뭐에 뜰 거?)

현정자 반찬은 엇곡, 국은 사발, 사발이 경 힘들어. 사발은 그때는 ᄆᆞ물사발이엔 헌 사발이 잇어낫어. 게난 ᄆᆞ물사발은 영 헨 둘러져도 이 굽뎅이엔, 이 밑창엔 요치룩 동그롯 동그롯허게시리 그때 헤진 거 잇어낫주. 그것에 국을 떵 줭 먹어낫주게. (반찬은 없고, 국은 사발, 사발이 그렇게 힘들어. 사발은 그때는 'ᄆᆞ물사발'이라고 하는 사발이 있었어. 그러니까 'ᄆᆞ물사발'은 이렇게 해서 둘러져도 그 굽에는, 이 밑창에는 요처럼 동긋 동긋하게끔 그때 한 거 있었지. 그것에 국을 떠 줘서 먹었었지.)

김보향 게난 ᄆᆞ물사발이, 국사발도 ᄆᆞ물사발이 잇어낫수꽈? 우리 본 건 우리 영 사진 찍으러 가멍 본 거는 젭시들만 이십디다예. (그러니까 'ᄆᆞ물사발'이, 국사발도 'ᄆᆞ물사발'이 있었습니까? 우리 본 건 우리 이렇게 사진 찍으러 가면서 본 거는 접시들만 있습디다.)

현정자 젭시만? 아이고, 이만큼 큰 사발덜 잇어낫주게. 이만큼 큰 사발, 이만큼 큰 사발이 잇엇어. (접시만? 아이고, 이만큼 큰 사발들 있었지. 이만큼 큰 사발, 이만큼 큰 사발이 있었어.)

김보향 게민 그때는 ᄆᆞ물사발, 밥사발도 다 그런 ᄆᆞ물사발이라난? (그럼 그때는 '메밀사발', 밥사발도 다 그런 'ᄆᆞ물사발'이었어?)

현정자 ᄆᆞ물사발. ᄆᆞ물사발인디 또 그때는 저 놋그릇. ('ᄆᆞ물사발'. 'ᄆᆞ물사발'인데 또 그때는 저 놋그릇.)

김보향 놋그릇예. (놋그릇요.)

현정자 놋그릇은 제, 제사허곡. 놋그릇은 제사. (놋그릇은 제, 제사하고. 놋그릇은 제사.)

김보향 (사진을 가리키며) 이거 ᄆᆞ물사발이우다예. (이거 'ᄆᆞ물사발'입니다.)

현정자 이거 ᄆᆞ물사발. 디자인이 이건게. 게난 굽에도 이거 쩜쩜 헤졋네게. 영 동글동글. (이거 'ᄆᆞ물사발'. 디자인이 이거네. 그러니까 굽에도 이건 점점 (표시)되었네. 이렇게 동글동글.)

김보향 쩜쩜 헤졋네예. 그민, 그민 다 밥사발, ᄆᆞ물사발도 ᄆᆞ물사발이라난? (점점 (표시)되어 있어요. 그럼, 그럼 다 밥사발, 'ᄆᆞ물사발'도 'ᄆᆞ물사발'이었어?)

현정자 ᄆᆞ물사발. ('ᄆᆞ물사발'.)

김보향 이런 밥사발, 국사발 나온 거는 언제라? (이런 밥사발, 국사발 나온 거는 언제야?)

현정자 이런 거는 이거 이다음에 나오랏지. (이런 거는 이거 이다음에 나왔지.)

김보향 이다음에 나오랏지, 예예. (이다음에 나왔지, 예예.)

현정자 이다음에. 이거는 왜 허, 허느냐 허면은 나가 어린 때 일본서 아홉 설에 들어오랏거든, 여기. 제주돌 아홉 설에 들어오라신디 일본 사발 보고 여기 들어오란 보난 이 사발이 잇거든게. 게난에 요거는 이다음에 나온 거, 이다음에. 이건 처음 나오고 이거는 내중에 나온 거라. (이다음에. 이거는 왜 하, 하느냐 하면 내가 어렸을 때 일본에서 아홉 살에 들어왔었거든, 여기. 제주도를 아홉 살에 들어왔는데 일본 사발 보고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이 사발이 있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이다음에 나온 거, 이다음에. 이건 처음 나오고 이거는 나중에 나온 거야.)

김보향 게민 밥은 낭도고리에 거려신디 국은 다 이 ᄆᆞ물사발에 거령 줫구나? (그럼 밥은 함지박에 떴는데 국은 다 이 'ᄆᆞ물사발'에 떠서 줬구나?)

현정자 음음. 게난 사발에만 거리지도 못허곡, 기자 닥치는 양 그릇도 경 식구 하민 다 일일이 헐 수가 엇어. 게민 사발 하나에 둘리가 거려도 먹곡 하나, 어른신딘 하나도 가곡 경헨 헤낫주. 식구 한 사름은 다 일일이 다 하나 헐 수가 엇어. (음음. 그러니까 사발에만 뜨지도 못하고, 그저 닥치는 대로 그릇도 그렇게 식구 많으면 다 일일이 할 수가 없어. 그럼 사발 하나에 둘이 떠서도 먹고 하나, 어른에게는 하나도 가고 그렇게 했었지. 식구 많은 사람은 다 일일이 다 하나 할 수가 없어.)

김보향 그때 숟가락, 젓가락은? (그때 숟가락, 젓가락은?)

현정자 숟가락은 다 잇어근에. (숟가락은 다 있어서.)

김보향 어떤 숟가락이라? (어떤 숟가락이야?)

현정자 숟가락은 지금 여기 숟가락이나 일반. (숟가락은 지금 여기 숟가락이나 일반.)

양인필 숟가락은, 지금 여기 숟가락이 아니고 놋숟구락. (숟가락은, 지금 여기 숟가락이 아니고 놋숟가락.)

김보향 놋숟가락예. (놋숟가락요.)

현정자 놋숟가락은. (놋숟가락은.)

김보향 ᄂᆞ린 거? 응. (내려온 거? 응.)

현정자 놋숟가락은 제사 때 쓸 때만 그런 거 쓰는 거. (놋숟가락은 제사 때 쓸 때만 그런 거 쓰는 거.)

양인필 제사 때도 쓰고, 가정에서도 쓰곡 허주. (제사 때도 쓰고, 가정에서도 쓰고 하지.)

김보향 삼촌, 일반 그때 밥 먹을 때도 놋숟가락으로 먹은 거 아니면 그냥 일반 숟가락? (삼촌, 일반 그때 밥 먹을 때도 놋숟가락으로 먹은 아니면 그냥 일반 숟가락?)

현정자 그자 일반 숟가락. 일반 숟가락. (그저 일반 숟가락. 일반 숟가락.)

김보향 일반 숟가락은 잇어낫구나. (일반 숟가락은 있었구나.)

현정자 놋숟가락이 경 많질 아녓주게. (놋숟가락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

김보향 음, 밥은 경헹 먹엇고. 게민예, 솟디 보면, 아니 이제 정제에 보면 솟이 이실 거 아니꽈예? (음, 밥은 그렇게 먹었고. 그럼요, 솥에 보면, 아니 이제 부엌에 보면 솥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정자 솟이 잇주. (솥이 있지.)

김보향 솟이 몇 개나 잇어낫수꽈? (솥이 몇 개나 있었습니까?)

현정자 솟은 경헤도. (솥은 그래도.)

양인필 네 개? (네 개?)

현정자 저, 아이고, 처음 나온 땐 네 개 아니 놨주. 큰솟 하나 앚지고, 이펜이 두 개, 두 개 헨에 세 개 앚지곡, 그루후제라사 쩨끌락헌 거 하나 더 앚져수다게. 게난 그때는 세 개. (저 아이고, 처음 나온 땐 네 개 안 놨지. 큰솥 하나 앉히고, 이편에 두 개, 두 개 해서 세 개 앉히고, 그 후에야 자그마한 거 하나 더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세 개.)

김보향 세 개. 제일 큰솟은 게메, 게메, 가메솟이랏수꽈? (세 개. 제일 큰솥은 글쎄, 글쎄, 가마솥이었습니까?)

현정자 아니, 가메솟보단 작은 거. (아니, 가마솥보다는 작은 거.)

김보향 작은 거. (작은 거.)

양인필 두말떼기주게. ('두말떼기'지.)

김보향 두말떼기. 두말떼기면 그거 진짜 두 말이 들어가는 거꽈? 아니면 다섯? ('두말떼기'. '두말떼기'면 그거 진짜 두 말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섯?)

양인필 두 말은 들어가. (두 말은 들어가.)

현정자 두말떼기옌 헌 거는 두 말 쏠은 들어가도 밥은 못 헤, 밥은 못 헤. ('두말떼기'라고 하는 거는 두 말 쌀은 들어가도 밥은 못 해, 밥은 못 해.)

김보향 맞아, 맞아. (맞아, 맞아.)

현정자 쌀은 들어가는디 밥은 안 뒈. (쌀은 들어가는데 밥은 안 돼.)

김보향 으으. 겐디 두말떼기렌 불럿구나예, 그걸예. (으으. 그런데 '두말떼기'라고 불렀군요, 그걸요.)

현정자 두말떼기옌. ('두말떼기'라고.)

김보향 게민 삼춘 밥헹 먹을 때 큰솟 하나 잇고, 족은 거 두 개 이시민 어느 솟에 밥을 헷수꽈? (그럼 삼촌 밥해서 먹을 때 큰솥 하나 있고, 작은 거 두 개 있으면 어느 솥에 밥을 했습니까?)

현정자 그 두말떼기에는 안 혀곡 그다음에. (그 '두말떼기'에는 안 하고 그다음에.)

김보향 그다음 거? (그 다음 거?)

현정자 그다음에 허곡 국은 또 그다음. (그다음에 하고 국은 또 그다음.)

김보향 그믄 그 두말떼기 솟은 뭐 헐 때 썻어? (그럼 그 '두말떼기' 솥은 뭐 할 때 썼어?)

현정자 두말떼기 헐 땐 무신 감절 치나 무신 저. ('두말떼기' 할 때는 무슨 고구마를 치거나 무슨 저.)

양인필 메주 솖을 때. (메주 삶을 때.)

현정자 콩, 콩 솖을 때, 그런 때 사용허주. (콩, 콩 삶을 때, 그런 때 사용하지.)

김보향 콩 솖을 때예, 예예. (콩 삶을 때요, 예예.)

현정자 장 담젱 허민 그 메주 솖을 때. (장 담그려고 하면 그 메주 삶을 때.)

김보향 그 솟은 지금 저기 나중에야 시멘트 불룅 네모나게 만들엇주마는. (그 솥은 지금 저기 나중에야 시멘트 발라서 네모나게 만들었지만.)

현정자 그때는 돌. (그때는 돌.)

김보향 돌? (돌?)

현정자 돌 세 개. (돌 세 개.)

김보향 세 개, 예. 그민 돌을 불르는 일름이 잇어? (세 개, 예. 그럼 돌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

양인필 불턱. (불턱.)

현정자 돌 세 개가 영 헹 예를 들엉 요거 두 개 허민 요 뒤에 하나. 경헹 똑 앚져. (돌 세 개가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요거 두 개 하면 요 뒤에 하나. 그렇게 똑 앉혀.)

양인필 불턱이엔 허주. (불턱이라고 하지.)

김보향 불턱이렌 헤, 솟덕이렌 헤? (불턱이라고 해, 봇돌이라고 해?)

양인필 솟덕이엔도 허고, 불턱이엔도 허고. (봇돌이라고도 하고, 불턱이라고도 하고.)

현정자 솟덕, 솟덕. (봇돌, 봇돌.)

김보향 그 돌 세 개를 놩 솟 얹어 놔. 예. 자, 정지에 솟? (그 돌 세 개를 놔서 솥 얹어 놔. 예. 자, 부엌에 솥?)

현정자 경허고 부, 부섭이엔 헌 거는 저 마루, 마루옝 헌 디가 잇주. 마루옝 헌 디도 이제 가운디 요것이 대문이민 이 가운디를 안 헹 쪼끔 안트레 들어오랑. (그리고 부, '부섭'이라고 하는 거는 저 마루, 마루라고 하는 데가 있지. 마루라고 하는 데도 이제 가운데 요것이 마루문이면 이 가운데를 안 하고 조금 안으로 들어와서.)

김보향 그니까 뒷문 쪽에? (그니까 뒷문 쪽에?)

양인필 으으, 뒷문 쪽에. (으으, 뒷문 쪽에.)

현정자 으, 게난 지금 그트민 저거 대문이민 이 정돈 들어오랑 부섭을 네귀반장허게 영 헤여. 게민 이디서 나무 헤당 이디서 불 와랑와랑 살랑 불 추곡. (으,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저거 대문이면 이 정도는 들어와서 '부섭'을 네모반듯하게 이렇게 해. 그럼 여기서 나무 해다가 여기서 불 활활 살라서 불 쬐고.)

김보향 불 추곡. 그민 여기서 음식도 헷수꽈? (불 쬐고. 그럼 여기서 음식도 했습니까?)

현정자 아니, 음식은 안 헤여. (아니, 음식은 안 해.)

양인필 음식, 음식은. (음식, 음식은.)

현정자 음식은 구워 먹는 거나. (음식은 구워 먹는 거나.)

양인필 큰일 때나 구워 먹을 때. (큰일 때나 구워 먹을 때.)

김보향 식게 때? 여기서? (제사 때? 여기서?)

양인필 식게 때 저, 저. (제사 때 저, 저.)

현정자 그디서 적갈, 그디서 허는 거, 이디서. (거기서 적, 거기서 하는 거, 여기서.)

양인필 적갈도 굽곡, 우리 저 이딧말로 삔떡 지질 때 그런 때 쓰주. (적도 굽고, 우리 저 여깃말로 빙떡 지질 때 그런 때 쓰지.)

김보향 빙떡 지질 때예. 여기 빙떡이렌 헷수꽈? 정기떡이렌 골안? (빙떡 지질 때요. 여

기 빙떡이라고 했습니까? '정기떡'이라고 말했어?)

양인필 정기떡이엔 하영 골안. ('정기떡'이라고 많이 말했어.)

현정자 처음은 정기떡. (처음은 '정기떡'.)

양인필 요즘은 삔떡이엔 허주. (요즘은 빙떡이라고 하지.)

김보향 기지예. (그렇지요.)

현정자 삔떡은 저 북군서. 북군서 우리 어린 때 웨가가 북군이주. 게난 거기 가민 삔떡, 삔떡 허고 이 남군은. (빙떡은 저 북군에서. 북군에서 우리 어릴 때 외가가 북군이지. 그러니까 거기 가면 빙떡, 빙떡 하고 남군은.)

김보향 북군, 북군 어디꽈, 삼춘? (북군, 북군 어딥니까, 삼촌?)

현정자 제주시 산지. (제주시 '산지'.)

김보향 산지서 여기 시집완? ('산지'에서 여기 시집왔어?)

현정자 아니, 시집을 아니 오고 웨가칩. (아니, 시집을 안 오고 외갓집.)

김보향 아, 웨가칩? (아, 외갓집?)

현정자 우리 친정어머니네 집. 게난 거기가. (우리 친정어머니네 집. 그러니까 거기가.)

김보향 음음. 삼촌은 원래가 여기고? (음음. 삼촌은 원래가 여기고?)

현정자 난 수망리. (난 수망리.)

김보향 수망리고. 수망리서 여기 오고예. 자, 정지 물엄수다예. 정제에 솟 세 개가 잇곡 또 정제에 뭐가 잇수꽈? (수망리고. 수망리에서 여기 오고요. 자, 부엌 묻고 있습니다. 부엌에 솥 세 개가 있고 또 부엌에 뭐가 있습니까?)

현정자 물항. (물독.)

김보향 물항, 예. 물항 어마니 헌 거 잇어난? (물독, 예. 물독 얼마나 한 거 있었어?)

현정자 물항은, 물항은 큰 거 놓앗주. 물황을 큰 걸 노민 엿날엔 황이 지세황이엥 헌 황이 잇엇어. (물독은, 물독은 큰 거 놓았지. 물독을 큰 걸 놓으면 옛날에는 항아리가 '지세황'이라고 하는 항아리가 있었어.)

양인필 검은 항, 검은 항. (검은 항아리, 검은 항아리.)

김보향 검은 항. (검은 항아리.)

현정자 지세황인디 저, 재료가 뜰린 거라. ᄒᆞ쏠 얍곡. 게민 그 지세항에 물을 질어다 노민 여름엔 할망덜이 허는 말이 "수왕수왕수왕헌 게 물이 씨원헌다." 허곡 사개항엔 경 안 헤도 지세황을 돈 엇엉 사질 못헤여. ('지세황'인데 저, 재료가 다른 거야. 조금 얇고. 그럼 그 '지세항'에 물을 길어다 놓으면 여름에는 할머니들이 하는 말이 "수왕수왕수왕한' 게 물이 시원한다." 하고 사기 항아리라고 그렇게 안 해도 '지세황'을 돈 없어서 사질 못해.)

김보향 지세항이 비쌋수꽈? ('지세항'이 비쌌습니까?)

현정자 응, 비싸. 게난에 그거는 부제칩 사름 물항으로 놓아. (으, 비싸. 그러니까 그거는 부잣집 사람 물독으로 놓아.)

김보향 예예. (예예.)

현정자 게난 돈 엇인 사름은 기냥 지금 이신 사기 항 그거 놔근에 물을 질어다 노민 지세항에 물이 씨원헌뎅 허주.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그냥 지금 있는 사기 항아리 그거 놔서 물을 길어다 놓으면 '지세항'에 물이 시원한다고 하지.)

김보향 아, 기꽈? 게민 정제에, 정제에 물항은 하나만 이실 거? (아, 그렇습니까? 그럼 부엌에, 부엌에 물독은 하나만 있을 거?)

현정자 어, 물항은 딱 하나. (어, 물독은 딱 하나.)

김보향 예예. (예예.)

현정자 경허곡 또 난 오란 보난에 그때 다른 딘 저 찬장이 엇엇어. 엇어신디 우리 씨집인 오란 보난 우리 씨할아부지가 만들엉사 놔신디 어떵사 헤신디 이 똑영 헹 네귀반장허게 헤영 영 헨에 이디 칸, 네 칸으로 허곡 발 영 돋진 거. 경헨 낭문으로 열곡 더끄곡 헌 저 찬장인디 바닥엔 보난에 대 헤연 여껀. (그리고 또 난 와서 보니까 그때 다른 데는 저 찬장이 없었어. 없었는데 우리 시집에는 와서 보니까 우리 시할아버지가 만들어서 놨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 꼭 이렇게 해서 네모반듯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칸, 네 칸으로 하고 발 이렇게 돋게 한 거. 그래서 나무문으로 열고 덮고 하는 거 저 찬장인데 바닥에는 보니까 대 해서 엮었어.)

김보향 여껀. (엮었어.)

현정자 게난 씻엉 그레 노민 물 빠지렌. (그러니까 씻어서 그리 넣으면 물 빠지라고.)

김보향 물 빠지렌예, 삼춘 그거 찬장이렌 헷수꽈, 살레렌 골앗수꽈?
(물 빠지라고요, 삼촌 그거 찬장이라고 했습니까, '살레'라고 말했습니까?)

현정자 살레. ('살레'.)

김보향 예예. 옛날 말로 골아 줍서예. (예예. 옛날 말로 말해 주세요.)

현정자 으, 살레, 옛날. (으, '살레', 옛날.)

양인필 찬장은 요즘 말이고. (찬장은 요즘 말이고.)

김보향 예, 요즘 말이고. 게난 발 돋은 살레가 잇어신디 그거 멧 칸이라? (예, 요즘 말

이고. 그러니까 발 돋은 '살레'가 있었는데 그거 몇 칸이야?)

현정자 두 칸. 영 이 층인디 칸은 네 칸. (두 칸. 이렇게 이 층인데 칸은 네 칸.)

김보향 음음. (음음.)

현정자 이 층인디 칸은 네 칸. (이 층인데 칸은 네 칸.)

김보향 아, 칸은 네 칸이라? (아, 칸은 네 칸이야?)

현정자 아래도 두 칸, 우이도 두 칸. (아래도 두 칸, 위에도 두 칸.)

권미소 나놘,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김보향 아, 예예예. 그민 영 이시민 영 발 돋으민, 발 돋아시민 영 나누고 영 나눠? 거난 네 칸이 뒌 거예? (아, 예예예. 그럼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발 돋으면, 발 돋았으면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네 칸이 된 거요?)

현정자 네 칸이고이, 이 발은 따로. (네 칸이고, 이 발은 따로.)

김보향 발은 따로예. (발은 따로요.)

현정자 따로고. 일로 우트레. (따로고. 이리로 위로.)

김보향 맨 밑에는 다 대나무 깔앙, 예? (맨 밑에는 다 대나무 깔아서, 예?)

현정자 응, 바닥, 바닥. (응, 바닥, 바닥.)

김보향 자, 바닥에 무사 대나무를 깔앗수꽈? (자, 바닥에 왜 대나무를 깔았습니까?)

현정자 아니, 무사사 깔아신디 그거 물 빠지렌 깐 거주. (아니, 왜 깔았는지 그거 물 빠지라고 깐 거지.)

김보향 예예. (예예.)

현정자 저 나문 허민 썩으난. (저 나무는 하면 썩으니까.)

김보향 맞수다, 맞수다예. 게난 대나문 요렇게 똥그랑하게 뒈 잇잖아예. 짤르민 영 영 게난 대나무를 영 동그랑허게 뒌 걸 반으로 쪼개?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대나무는 요렇게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자르면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대나무를 이렇게 동그랗게 된 걸 반으로 쪼개?)

현정자 다 요추룩 짜 놘. 짜 놘. 깨언, 깨언. (다 요처럼 짜 놨어. 짜 놨어. 깼어, 깼어.)

김보향 영 뒤집으믄 이렇게 하믄 안 뒈잖아예? (이렇게 뒤집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현정자 아니, 어펀, 어펀. (아니, 엎었어, 엎었어.)

김보향 어펑예. 다 어펑 차곡차곡 노민 물이 싹 빠지게. (엎어서요. 다 엎어서 차곡차곡 넣으면 물이 싹 빠지게.)

현정자 게난 그것이 저 영 여껀. 여끈 걸 그레 놘에. (그러니까 그것이 저 이렇게 엮었어. 엮은 걸 그리 넣어서.)

김보향 예예. 기민 살레에 밑에는 그릇 씻은 거 어프고예. 우에는 뭐 놧수꽈? (예예. 그럼 '살레' 밑에는 그릇 씻은 거 엎고요. 위에는 뭐 놨습니까?)

현정자 우엔 놀 게 엇주. (위엔 놓을 게 없지.)

김보향 아, 놀 게 엇어? (아, 놓을 게 없어?)

현정자 으, 엿날은 뭣을 놓아게? 그릇이 엇이민.(으, 옛날은 뭣을 놓아? 그릇이 없으면.)

양인필 엿날에사 숭키, 숭키쯤 헤당은에 놓곡. 송키엔 헌 건 누물. (옛날에야 푸성귀, 푸성귀쯤 해다가 놓고. 푸성귀라고 하는 건 나물.)

현정자 게민 우리 물을, 물을 질레 냇가에 갈 거 아니? 내창이엔 골아사주, 엿날 말. 내창에 강 물을 졍 오민 그걸 오라긴에 팡팡팡 비웁주. 허벅으로 영 헹 져긴에 팡팡팡 비우곡.(그럼 우리 물을, 물을 길러 냇가에 갈 거 아니? '내창'이라고 말해야지, 옛날 말. 내에 가서 물을 져서 오면 그걸 와서 팡팡팡 비우지. '허벅'으로 이렇게 해서 져서 팡팡팡 비우고.)

김보향 영 졍 오민 이거 부릴 때 어디 부려? (이렇게 져서 오면 이거 부릴 때 어디 부려?)

현정자 아니, 물팡이 또 잇주. (아니, '물팡'이 또 있지.)

양인필 부리지 안헤근에 물을 비워사. (부리지 않고 물을 부어야.)

김보향 물팡에 그냥? ('물팡'에 그냥?)

현정자 아니, 그난 물을 비와 논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물을 부어 놓은 다음에.)

양인필 물항에 비와야주게. (물독에 부어야지.)

김보향 진 양 영 비울 거예? (진 채 이렇게 비울 거요?)

현정자 졍 오라근에 팡팡허게 다 비와지민 이젠 나오라근에 영헝 무뚱 엠에 돌 헤영 팡을 만들아. 넙삭한 돌, 이치룩 넙삭, 물구덕 놀 만헌 것에 발 돋져긴에, 발 돋져긴에 허민 물 비와지민 그 팡더레 오랑 부려 놓주게. (지고 와서 팡팡하게 다 부으면 이제 나와서 이런 문밖 옆에 돌 해서 '팡'을 만들어. 넓적한 돌, 이처럼 넓적, '물구덕' 놓을 만한 것에 발 돋게 해서, 발 돋게 해서 하면 물 부으면 그 '팡'에 와서 부려 놓지.)

김보향 허벅을예. ('허벅'을요.)

현정자 게민 또 물 질레 갈 땐 그대로 베도 아이 벳기고 그대로 졍 나가곡 졍 들어오고. (그럼 또 물 길러 갈 때는 그대로 바도 안 벗기고 그대로 지고 나가고 지고 들어오고.)

김보향 그 구덕을 무슨 구덕이렌 불러? (그 바구니를 무슨 바구니라고 불러?)

현정자 물구덕. ('물구덕'.)

김보향 물구덕. 그 물, 그 팡을 무슨 팡이렌 골아? ('물구덕'. 그 물, 그 '팡'을 무슨 '팡'이라고 말해?)

현정자 물팡. ('물팡'.)

김보향 예, 고맙수다. 겨민. (예, 고맙습니다. 그럼.)

현정자 응, 경허민 또 채소를, 채소엔 곧지 말앙 ᄉᆞᆼ키엔 헤사주. (응, 그러면 또 채소를, 채소라고 말하지 말고 '숭키'라고 해야지.)

김보향 예에, 고맙수다. (예에, 고맙습니다.)

현정자 ᄉᆞᆼ키를 저 물구덕 귀허게 놩 가근에, 냇가에 강 씻엉 또 귀허게 놔긴에 경 와, 그때는. (푸성귀를 저 '물구덕' 귀하게 넣어서 가서, 냇가에 가서 씻어서 또 귀하게 넣어서 지고 와, 그때는.)

김보향 아아, 물구덕 옆이? (아아, '물구덕' 옆에?)

현정자 물구덕 옆에. 허벅 논 옆이 영 양쪽으로. ('물구덕' 옆에. '허벅' 놓은 옆에 이렇게 양쪽으로.)

김보향 예, 허벅 논 옆이 놔? (예, 허벅 놓은 옆에 놔?)

현정자 경허고 또 빨래헐 거 시민 그레 꽉 허게 담아놩 강 빨래허여근에 또 그 물 질엉 놔 뒁 그 옆데레 꽉 채와근에 놩 오곡. (그리고 또 빨래할 거 있으면 그리 꽉 하게 담아 놓고 가서 빨래해서 또 그 물 길어 놔 두고 그 옆으로 꽉 채워서 놔서 오고.)

김보향 예예. (예예.)

현정자 그 시절은 경헷어, 하이고. (그 시절은 그랬어, 하이고.)

권미소 서답? (세답?)

현정자 세답, 세답. (세답, 세답.)

김보향 세답. 자, 정제 거 봠신디예, 정제에 이제 자, 솟 잇고, 솟 솟 세 개 잇수다예. 물항 잇고, 살레 이수다. 그다음 정제에 또 뭐가 이실 건고? (세답. 자, 부엌 거 보고 있는데요, 부엌에 이제 자, 솥 있고, 솥 솥 세 개가 있습니다. 물독 있고, 살레 있습니다. 그다음 부엌에 또 뭐가 있을 건가?)

양인필 땔감. (땔감.)

현정자 그다음 또 무시거, 쏠 노는 항. 망데기, 망데기. (그다음 또 뭐, 쌀 넣는 항아리. '망데기', '망데기'.)

김보향 아아. (아아.)

현정자 쏠 망데기. (쌀 '망데기'.)

김보향 삼춘, 삼춘네 쏠 망데기도 정제에 놔 둬난? (삼촌, 삼촌네 쌀 '망데기'도 부엌에 놔 뒀었어?)

양인필 응, 놔 둬낫주. (응, 놔 뒀었지.)

현정자 망데기 놩 먹엇주. 그 좁쏠을 원, 예를 들렁 닮은 대승 ᄒᆞᆫ 뒈라도 허믄 그레 놩 경헨 뒈약세기 그디 들이쳥 그거로 하나 떠근에 헤여. 게난에 식구가 하도 그 뒈약세기로 하나 더 쏠을 안 거려, 어려우난에게. 경헤여. ('망데기' 놔서 먹었지. 그 좁쌀을 원, 예를 들어서 닮은 큰 되 한 되라도 하면 그리 놔서 그래서 '뒈약세기' 거기 들어뜨려서 그거로 하나 떠서 해. 그러니까 식구가 많아도 그 '뒈약세기'로 하나 더 쌀을 안 떠,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

김보향 경 거기에 감저 서껑 먹고 헌 거마씨? (그렇게 거기에 고구마 섞어서 먹고 한 거요?)

현정자 감자 서끄민 아이고, 쏠로 영 먹단 감저 영 밀려 뒁 쏠방울 떠먹곡. 경헷어. (고구마 섞으면 아이고, 쌀로 이렇게 먹다가 고구마 이렇게 밀려 두고 쌀방울 떠먹고. 그랬어.)

김보향 예. (예.)

현정자 막 이 집인 부제칩이엥 헹 시집을 오라도 그 시절은 벨 수가 엇인 때. (마구 이 집은 부잣집이라고 해서 시집을 와도 그 시절은 별 수가 없을 때.)

김보향 예예예. 아니, 살레에 출레 먹던 거 담아 두고 안 헷수꽈? (예예예. 아니, '살레'에 '출레' 먹던 거 담아 두고 안 했습니까?)

양인필 아아, 출레도 놔두주.(아아, '출레'도 놔두지.)

현정자 출레 그, 출레가 무시거라? 장도 엇엉, 장도 족앙. 장도 내중에 자기대로 콩 갈안 장을 담음 시작허난 출레여 무신 장이엥 헤영 그디 놔졋주, 그 사삼사건 끝에 처음 살 때는 출레도 엇엇어. ('출레' 그, '출레'가 뭐야? 장도 없어서, 장도 적어서. 장도 나중에 자기대로 콩 갈아서 장을 담기 시작하니까 '출레'며 무슨 장이라고 해서 거기 놀 수 있었지, 그 사삼사건 끝에 처음 살 때는 '출레'도 없었어.)

김보향 출레도 엇어. ('출레'도 없어.)

현정자 그 사삼사건 딱 끗난에 남원리 살단 의귀리 성 다완 오랑 의귀리 사름은 살앗거든. 그때 살 때는 어떵헹 살아신고 허난 집이엔 헌 게 요 발이, 체염은 나무 헤당 똑 헤영 네 귀에 세완. 영 에염으론 억새 헤당 어웍이엥 골아사

켜. 어웍을 헤당 여껏어, 영. 여끄고 문이엥 헌 건 그 어웍 여꺼근에 그거 문을 더끄곡 열곡 경헹 이딜 들어오민 이거가 네 귀에 헤영 이거 다 여끌 거 아니? 네 귀에 세완. 견에 욜로 문 헤민 일로 들어오민 족게시리 욜론 영 헨 나무를 ᄀᆞ루 놩. 이딘 솟, 그땐 솟 두 개도 엇언 하나로 살앗어. (그 사삼사건 딱 끝나니까 남원리 살다가 의귀리 성 쌓아서 와서 의귀리 사람은 살았거든. 그때 살 때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니까 집이라고 하는 게 요 발, 처음은 나무 해다가 꼭 해서 네 모서리에 세웠어. 이렇게 옆으로는 억새 해다가 '어웍'이라고 말해야겠어. 억새를 해다가 엮었어, 이렇게. 엮고 문이라고 하는 건 그 억새 엮어서 그거 문을 닫고 열고 그렇게 해서 여기를 들어오면 이것이 네 모서리에 해서 이거 다 엮을 거 아니? 네 모서리에 세웠어. 그래서 요리로 문 하면 이리로 들어오면 작게끔 요리로는 이렇게 해서 나무를 가로 놓아서. 여기 솥, 그때는 솥 두 개도 없어서 하나로 살았어.)

김보향 하나예. (하나요.)

현정자 하나로 돌 세 개 놩 톡 허게 놔근에 이디서 불 솜곡 밥인가 죽인가 헤영 이디서 먹곡, 이디서 자곡. 게난 다 검질 꼴앙. (하나로 돌 세 개 놔서 톡 하게 놔서 여기서 불 때고 밥인가 죽인가 해서 여기서 먹고, 여기서 자고. 그러니까 다 검불 깔아서.)

김보향 게난 그때 집 지을 때는 그 불 다 타분 사람들 다 모앙 집을 지은 거 아니? (그러니까 그때 집 지을 때는 그 불 다 타버린 사람들 다 모아서 집을 지은 거 아니?)

현정자 응응. 게난. (응응. 그러니까.)

현정자 모아서 자기만씩. (모아서 자기만큼씩.)

현정자 자기만씩, 각자. (자기만큼씩, 각자.)

김보향 그 집을 뭐, 무슨 집이렌 불럿수꽈? (그 집을 뭐, 무슨 집이라고 불렀습니까?)

양인필 함바집. ('함바집'.)

김보향 함바집이렌 불러난? ('함바집'이라고 불렀었어?)

현정자 함바집, 함바집. ('함바집', '함바집'.)

김보향 그민 어음, 어음집이렌 안 헤낫수꽈? (그럼 '어음', '어음집'이라고 안 했었습니까?)

현정자 아니, 어웍이엔은 아니 곧곡 그자 함바집이엔만 골안. (아니, '어웍'이라고는 안 말하고 그저 '함바집'이라고만 말했어.)

김보향 그민 이 의귀리 사람들 모영 그 함바집 짓엇을 때 멧 채나 멧 사람 집이나 잇어나신고예? (그럼 이 의귀리 사람들 모여서 그 '함바집' 지었을 때 몇 채나 몇 사람 집이나 있었나요?)

양인필 아, 여기 꽤 많앗주. (아, 여기 꽤 많았지.)

현정자 다섯. (다섯.)

양인필 한 이 백 세대는 더 뒛주. (한 이 백 세대는 더 됐지.)

김보향 어? (어?)

양인필 수망, 한남리 같이 살아시난. (수망, 한남리 같이 살았으니까.)

현정자 게난 수망, 한남 다 여기 처음에 살안. (그러니까 수망, 한남 다 여기 처음에 살았어.)

양인필 의귀리만 헤도 ᄒᆞᆫ 백오십 세대. (의귀리만 해도 한 백오십 세대.)

현정자 수망, 한남, 의귀리 오란, 완 의귀리서 ᄒᆞᆫ 일이 년 산 다음에 수망리도 갈령 가곡, 한남리도 갈령. 게난 그 가는 디도 다 간 성 다왕 갓어. (수망, 한남, 의귀리 와서, 와서 의귀리에서 한 일이 년 산 다음에 수망리도 갈려서 가고, 한남리도 갈려서. 그러니까 그 가는 데도 다 가서 성 쌓아서 갔어.)

김보향 게민 그 어느 터에 그 집을 짓엉 살아낫어? (그럼 그 어느 터에 그 집을 지어서 살았었어?)

양인필 으, 바로. (으, 바로.)

현정자 이거 그 터주. 이거. 이거 그 터라. (이거 그 터지. 이거. 이거 그 터야.)

김보향 이거 그 터라? (이거 그 터야?)

양인필 이거 올레가 그 성담, 동 성담. (이거 '올레'가 그 '성담', 동 '성담'.)

현정자 게난에 저 이 저디 버스 뎅기는 길, 그것이 섯바위. 게난 요거 버스 뎅기는 길이민 영 헨 성 답고. (그러니까 저 이 저기 버스 다니는 길, 그것이 '섯바위'. 그러니까 요거 버스 다니는 길이면 이렇게 해서 성 쌓고.)

김보향 서쪽 바위, 섯바위? (서쪽 바위, '섯바위'?)

현정자 또 남쪽으론 이 앞길. (또 남쪽으로는 이 앞길.)

양인필 일차 성 쌈을 그렇게 쌋주. (일차 성 쌓기를 그렇게 쌓았지.)

현정자 앞길, 게난에 앞길은 이 바위로 성 싸고, 영 싸곡 헤신디 우린이 동 끗뎅이에 살앗어. (앞길, 그러니까 앞길은 이 바위로 성 쌓고, 이렇게 쌓고 했는데 우린 동 끝에 살았어.)

김보향 쪼금 북쪽으로예? (조금 북쪽으로요?)

양인필 응, 북쪽으로. (응, 북쪽으로.)

현정자 우린 이 동쪽에. (우린 이 동쪽에.)

김보향 동쪽에? 아. (동쪽에? 아.)

현정자 게난에 이건 버스 길로 수망리레 올라가는 길이고, 이 앞길은 이거난에 게난 우린 이디 살앗주. 이디 살아신디 여기 문 돌곡, 여기 문 돌곡 딱 두 밧디 돌아서 성 다왕. (그러니까 이건 버스 길로 수망리로 올라가는 길이고, 이 앞길은 이거니까 그러니까 우린 여기 살았지. 여기 살았는데 여기 문 달고, 여기 문 달고 딱 두 군데 달아서 성 쌓아서.)

김보향 그때 얘기도 여기 왕 ᄐᆞ루 또 들어사쿠다. 그때 얘기를. (그때 얘기도 여기 와서 따로 또 들어야겠습니다. 그때 얘기를.)

현정자 처음에는 이디 오란 살 때는 다 보초 사, 이디. 보초 사민 나가젱 헤민 이디서 허락헹 나갓당 들어오곡 경헤낫어. (처음에는 여기 와서 살 때는 다 보초 서, 여기. 보초 서면 나가려고 하면 여기서 허락해서 나갔다가 들어오고 그랬었어.)

양인필 문 열어 줘사 나가고. (문 열어 줘야 나가고.)

김보향 예예예, 살레, 정제 얘기 다시 돌아가 가지고예, 정제서 이제 밥헤 먹젠 허민 뭣도 씻고 헤야 뒈잖아예? 쏠도 씻어야 뒈고. 그거 뭣에 놩 쏠을 씻어수꽈? (예예예, '살레', 부엌 얘기 다시 돌아가 가지고요, 부엌에서 이제 밥해 먹으려고 하면 뭣도 씻고 해야 되잖아요? 쌀도 씻어야 되고. 그거 뭐에 놔서 쌀을 씻었습니까?)

현정자 콕박세기, 허허허. 낭푼이도 엇어, 그때 처음 오랑 산 때는. 게난 콕박세긴 경 쉬워시카 부덴? 처음 오란 성 다왕 살 땐 쏠 씻고 하간 데굴베기 헹 살아서게. 기자 좁쏠도 기자 놩 씻지 안헹. (바가지, 하하하. 양푼도 없어, 그때 처음 와서 살 때는. 그러니까 바가지는 그렇게 쉬웠을까 봐? 처음 와서 성 쌓아서 살 때는 쌀 씻고 온갖 곳에서 뒹굴면서 살았어. 그저 좁쌀도 그저 놔서 씻지 않고.)

김보향 안 씻엉? 보리쏠은 씻어살 거 아니? (안 씻어서? 보리쌀은 씻어야 할 거 아니?)

현정자 아, 보리쏠은 씻엇지. 보리쏠 먹을 때는 좋은 때. 보리밥 난 때는 해방이주게, 처음 살 때도. (아, 보리쌀은 씻었지. 보리쌀 먹을 때는 좋은 때. 보리밥 나온 때는 해방이지, 처음 살 때도.)

김보향 아, 게난 쏠 씻는 것만이 아니고 감저도 씻어야 뒐 거고, ᄉᆞᆼ키도 씻어야 뒐 거고. 허젠 허민? (아, 그럼 쌀 씻는 것만이 아니고 고구마도 씻어야 될 거고, 푸성귀도 씻어야 될 거고. 하려고 하면?)

양인필 아, 그런 건 그때 당시는 바가쓰는 엇엇고, 장태ᄀᆞ튼 거 잇엇주. (아, 그런 건 그때 당시는 바케쓰는 없었고, 장태같은 거 있었지.)

김보향 그지? 장태. (그렇지요? 장태.)

현정자 장태. (장태.)

양인필 장태 ᄀᆞ튼 거, 잇엇주. (장태같은 거, 있었지.)

김보향 예예. (예예.)

현정자 장태, 게난 사기 장태. 무거운 거 그거 들렁. (장태, 그러니까 사기 장태. 무거운 거 그거 들고.)

김보향 요즘 보면 항 두껑으로 쓰는 장태 잇지 아녓과예? (요즘 보면 항아리 뚜껑으로 쓰는 장태 있지 않습니까?)

양인필 으으, 그것보단 약헌 거. 약해. (으으, 그것보다는 약한 거. 약해.)

김보향 아, 그것보단 약한 거? 그민 항 두께로 쓰는 장태들은 그 두께용으로 나온 거꽈? (아, 그것보다는 약한 거? 그럼 항아리 뚜껑으로 쓰는 장태들은 그 뚜껑으로 나온 겁니까?)

양인필 두께용으로 나온. (뚜껑용으로 나온.)

현정자 아니, 그때는 황 두껑 아이 나오라낫어. (아니, 그때는 항아리 뚜껑 안 나왔었어.)

김보향 안 나왓어예. (안 나왔어요.)

현정자 순 황은 황, 장태는 그 살렴으로 쓰는 거. (순 항아리는 항아리, 장태는 그 살림으로 쓰는 거.)

김보향 그지예. 응. (그렇지요. 응.)

현정자 황 뚜껑이엔 헹 나오진 안헷어. 게난 이 멧 년 후제 살기 좋곡 개발이 뒈어 가난 황 뚜껑이여 무신 황이여 벨거 다 나오라낫주. (항아리 뚜껑이라고 해서 나오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이 몇 년 후에 살기 좋고 개발이 돼 가니까 항아리 뚜껑이며 무슨 항아리며 별거 다 나왔지.)

양인필 황 색깔도 그 다 틀려. (항아리 색깔도 그 다 달라.)

현정자 아니, 색깔은 비슷비슷헷주만은. (아니, 색깔은 비슷비슷했지만.)

김보향 예에, 그 아까 살레 옆에 수저 같은 거 담아 놓젠 허민? (예에, 그 아까 '살레' 옆에 수저 같은 거 담아 놓으려고 하면?)

양인필 아, 수저통이 잇엇주. (아, 수저통이 있었지.)

현정자 저 낭 헨 판에. 그거에 영 헹 에염더레. (저 나무 해서 파서. 그거에 이렇게 해서 옆으로.)

양인필 대나무 여꺼도 뒈고, 여끈 것도 잇고. (대나무 엮어도 되고, 엮은 것도 있고.)

현정자 게난 그건 하는 디가. (그러니까 그건 하는 데가.)

김보향 대나무로 영 영 영 영 이어가지고 만들엇구나. (대나무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어가지고 만들었구나.)

현정자 경헌 디도 잇고, 나무로 팡 헌 사름도 잇고. (그런 데도 있고, 나무로 파서 한 사람도 있고.)

김보향 낭으로 팡 헌 사름도 잇고예, 이제 겨민 숟가락, 젓가락은 그 아까 잇엇던 거 놋도 쓰고, 그냥 쒜숟가락, 젓가락도 쓰고? (나무로 파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제 그럼 숟가락, 젓가락은 그 아까 있었던 거 놋도 쓰고, 그냥 쇠숟가락, 젓가락도 쓰고?)

현정자 아니, 저 놋그릇이엥 헌 건 가정에서 쓰지 아녀고 제사. (아니, 저 놋그릇이라고 하는 건 가정에서 쓰지 않고 제사.)

양인필 아니, 수저는 써서게. (아니, 수저는 썼어.)

현정자 제사나 멩질이나 뒈사. 그것이 귀헤여긴에게 아무상허게 써져게? (제사나 명절이나 돼야. 그것이 귀해서 아무렇지 않게 쓸 수 있어?)

김보향 국 거릴 때는 뭐로 거렷수꽈? (국 뜰 때는 뭐로 떴습니까?)

현정자 국자, 낭 국자. (국자, 나무 국자.)

김보향 남 국자예? (나무 국자요?)

현정자 낭으로 판 국자. (나무로 판 국자.)

김보향 밥 거릴 때는 뭐로 거렷수꽈? (밥 뜰 때는 뭐로 떴습니까?)

현정자 낭 밥자. (나무 밥자.)

김보향 낭 밥자도 잇어낫수꽈? (나무 밥자도 있었습니까?)

현정자 으, 잇어낫어. (으, 있었어.)

양인필 밥자도 잇고, 젓는 거. (밥자도 있고, 젓는 거.)

김보향 그건 뭐라? 영 젓는 거? (그건 뭐야? 이렇게 젓는 거?)

양인필 남죽. (죽젓개.)

현정자 남죽, 남죽. (죽젓개, 죽젓개.)

김보향 예에, 남죽도 잇고예. 젓는, 젓을 때는 남죽으로 젓고, 거릴 때는 영 거리고. 그 낭으로 만든 것 중에예, 그 우리 솔벤 절벤 찌면, 아니 솖으민 떡 솖은 거 건질 때 쓰는 거 잇잖아예? (예에, 죽젓개도 있고요. 젓는, 저을 때는 죽젓개로 젓고, 뜰 때는 이렇게 뜨고. 그 나무로 만든 것 중에요, 그 우리 솔편 절편 찌면, 아니 삶으면 떡 삶은 거 건질 때 쓰는 거 있잖아요?)

현정자 함박, 함박. ('함박', '함박'.)

김보향 그거 함박이렌 골앗수꽈? (그거 '함박'이라고 말했습니까?)

현정자 거 고냥 똘른 그 낭으로 멘들앙 요만허게 멘들앙. (거 구멍 뚫은 그 나무로 만들어서 요만하게 만들어서.)

양인필 함박, 곰베옌도. ('함박', '곰베'라고도.)

김보향 예예. (예예.)

양인필 곰베. ('곰베'.)

현정자 무시거? (뭐?)

김보향 곰베. ('곰베'.)

현정자 곰베는 무시거 아이꽝게. ('곰베'는 뭐 아닙니까.)

김보향 뭐? (뭐?)

현정자 저 우리 밧디 가근에. (저 우리 밭에 가서.)

양인필 아니,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곰베. 맞아. (아니,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곰베'. 맞아.)

현정자 함박이엥 골아낫어. ('함박'이엔 말했었어.)

김보향 곰박? ('곰박'?)

양인필 아, 함박은 박세기로 헌 것이, 박세기로 헌 것이. (아, '함박'은 바가지로 하는 것이, 바가지로 하는 것이.)

현정자 게메게, 게난 그거 거리젱 헤민 함박. (그래, 그러니까 그거 뜨려고 하면 '함박'.)

김보향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양인필 곰베는 또 나무로 파서 공기 똘른 것이. ('곰베'는 또 나무로 파서 구멍 뚫은 것이.)

현정자 아니, 함박도 낭으로 파. (아니, '함박'도 나무로 파.)

김보향 곰, 곰박이꽈? 곰베꽈? (곰, '곰박'입니까? '곰베'입니까?)

양인필 곰벡일 거라, 나. ('곰벡'일 거야, 나.)

김보향 곰베는 삼춘이 말한 거 영 두드리는 거 닮고. ('곰베'는 삼촌이 말한 거 이렇게 두드리는 거 같고.)

현정자 으, 저 밧을 새로 밧을 갈앙 벙에가 영 일어나민 그걸 피우주. (으, 저 밭을 새로 밭을 갈아서 볏밥이 이렇게 일어나면 그걸 펴지.)

양인필 그건 곰베. (그건 '곰베'.)

김보향 곰베, 예예예. 영 거리는 건? ('곰베', 예예예. 이렇게 뜨는 건?)

양인필 곰박. ('곰박'.)

현정자 난 함박이엥 허는 건 떡 건지는 거 그 낭으로 만든 거주게, 것도. 솔박ᄀᆞ치 만들아도 솔박보당은 품도 크곡 기럭시도 키곡 경헹 고냥을 요거만썩 고냥 뚤라. (난 '함박'이라고 하는 건 떡 건지는 거 그 나무로 만든 거지, 것도. '솔박'같이 만들어도 '솔박'보다는 폭도 크고 길이도 크고 그래서 구멍을 요거만큼씩 구멍 뚫어.)

양인필 그것보단은 족게 뚤르주. (그것보다는 작게 뚫지.)

김보향 아, 영 영 우리 국자처럼 영 손잡이 잇는 건 아니고? (아, 이렇게 이렇게 우리 국자처럼 이렇게 손잡이 있는 건 아니고?)

현정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김보향 그냥 그냥 저기? (그냥 그냥 저기?)

현정자 함박을 멘들민 욜로 허민 그만이헌 함박이민 요 기럭신 헐 거라. (함박을 만들면 요리로 하면 그만한 '함박'이면 요 길이는 할 거야.)

김보향 아이고. (아이고.)

현정자 요만이 헤영 크게 헤영 경 헹 영 헹 크게 헤민 이렌 벌어지곡, 요렌 ᄒᆞ쏠 홅아지게 헤여. (요만큼 해서 크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크게 하면 이리는 벌어지고, 요리는 조금 홅아지게 해.)

김보향 예예. (예예.)

현정자 경헹 이디 궁기, 고냥 뚤르민 떡을 영 건지민 물 싹 빠지게. (그래서 여기 구멍, 구멍 뚫으면 떡을 이렇게 건지면 물 싹 빠지게.)

권미소 아, 체만이 체만이 하는 건가? (아, 체만큼, 체만큼 하는 건가?)

현정자 게난 영 헤여긴에 이딘 넙곡.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긴 넓고.)

김보향 낭푼 크기만 헌게. (양푼 크기만 하네.)

현정자 이레 오라 가민 쫄아들어. 이레 오민 쫄아들게 만들아. (이리 와 가면 졸아들어. 이리 오면 졸아들게 만들어.)

권미소 손잡는 디는예. (손잡는 데는요.)

현정자 쫄아들게 이렌 만들어. 함박이엔 헤나신디. (졸아들게 이리는 만들어. '함박'이라고 했었는데.)

김보향 게민 정지에 그 멜첫, 자리젓 담은 단지는 엇어낫어? (그럼 부엌에 그 멸치젓, 자리젓 담은 단지는 없었어?)

현정자 무사 엇어게? (왜 없어?)

양인필 추추 살아가난 다 잇엇주. (차차 살아가니까 다 있었지.)

현정자 그거 잇어도 저 멜첫, 자리젓 담는 것도 아이고, 막 오래연. 사삼사건 끗때 ᄒᆞᆫ 여남은 해 살아가사 그런 거 헤 먹엇주. 어디 그거허곡 저거허곡 헐 말이라? 처음 살 때는 성 다왕 오랑 살 땐 다 굶엇어. 굶엉 못 살아가난에 미국에서 배급이엥 헨 온 걸 보난 밀체, 밀 깎은 거. 그걸 오난에 물 놩 솖으난 그 여물이 엇이난 물 ᄯᅳ로 체 ᄯᅳ로. 원 물이 안 가는 거라. (그거 있어도 저 멸치젓, 자리젓 담그는 것도 아이고, 막 오랬어. 사삼사건 끝에 한 여남은 해 살아가야 그런 거 해 먹었지. 어디 그거하고 저거하고 할 말이야? 처음 살 때는 성 쌓아서 와서 살 때는 다 굶었어. 굶어서 못 살아가니까 미국에서 배급이라고 해서 온 걸 보니까 밀 껍질, 밀 깎은 거. 그걸 오난에 물 넣어서 삶으니까 그 여물이 없으니까 물 따로 체 따로. 원 물이 안 가는 거야.)

양인필 먹질 못헷주게. (먹질 못했지.)

현정자 게난 그걸 거려 놩 먹젱 헤민 먹얼져게? 아명 배고파도 입에 놩 기자 노리당 바끄는 사름, 솜지는 사름. 경허멍 살앙 다 죽어가 가난 또 ᄒᆞᆫ춤 이시난에 미국에서 또 보낸 건 뭔고 허난 강냉이 ᄀᆞ루. 그거 노난 맛이 경 좋앙. 범벅을 헤민 맛이 조는디 범벅을 헤영 ᄒᆞᆫ 때 먹어 불민 따신 먹을 게 엇이난 그걸 죽으로 쑤엉. 죽으로 쑤어긴에 죽도 그것만 놩 쑤지 안헹 성 베꼇디 허가받앙 나가긴에 드릇ᄂᆞ물이 잇어낫어, 그땐. 그 드릇ᄂᆞ물을 캐당 그걸 놩 막 널르게, 하게시리 풀대죽 쒕 하하. ᄒᆞᆫ 때 먹을 거 두 때, 세 때 늘랑 먹엉 살앗주. (그러니까 그걸 떠 놔서 먹으려고 하면 먹을 수 있어? 아무리 배고파도 입에 넣어서 그저 놀리다가 뱉는 사람, 삼키는 사람. 그러면서 살아서 다 죽어가 가니까 또 한참 있으니까 미국에서 또 보낸 건 뭔가 하니까 강냉이 가루. 그거 넣으니까 맛이 그렇게 좋아서. 범벅을 하면 맛이 좋은데 범벅을 해서 한 때 먹어 버리면 다시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걸 죽으로 쒀서. 죽으로 쒀서 죽도 그것만 넣어서 쑤지 않고 성 밖에 허가받아서 나가서 들나물이 있었어, 그땐. 그 들나물을 캐다가 그걸 넣어서 아주 넓게, 많게끔 '풀대죽' 쒀서 하하. 한 때 먹을 거 두 때, 세 때 늘려서 먹고 살았지.)

김보향 게난 그 죽을 풀대죽이렌 골아난? (그러니까 그 죽을 '풀대죽'이라고 말했었어?)

현정자 응. 풀대죽. (응. '풀대죽'.)

김보향 풀도 놓고 대죽ᄀᆞ루도 놓고? (풀도 넣고 수수가루도 넣고?)

현정자 응, 풀대죽. 게난에 그것이 그것 저것 헨 올 게 풀대죽이주게. 겡헤영 그거 먹엉 살앗어. (응, '풀대죽'. 그러니까 그것이 그것 저것 해서 올 게 '풀대죽'이지. 그래

서 그거 먹고 살았어.)

김보향 양 늘리젠예. 하영 허젠. (양 늘리려고요. 많이 하려고.)

현정자 경혜영 그거 먹엉 ᄎᆞᄎᆞᄎᆞ 살아가는 게 조 농살 지기 시작헷주게. 겡헹 그 때부터 ᄒᆞ쏠, ᄒᆞ쏠 살아갓주. 아이고, 우리 세상 사삼사건에이, 남군 사름덜 살아난 사름은 그거 거끈 사름베낀 몰라. 절대 몰라. 말로 헌 건 표현이 안 뒈어. (그래서 그거 먹고 차차차차 살아가는 게 조 농사를 짓기 시작했지.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조금 살아갔지. 아이고, 우리 세상 사삼사건에, 남군 사람들 살았던 사람은 그거 겪은 사람밖에 몰라. 절대 몰라. 말로 한 건 표현이 안 돼.)

김보향 게난 게난 이제는 그 쪼끔 살아지게 뒈난 식게 멩질 지내젠 허민 여럿 그릇들이 잇어야 뒐 거 아니꽈예? 예를 들면 떡 치젠 허민, 떡 허젠 허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 조금 살게 되니까 제사 명절 지내려고 하면 여러 그릇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떡 찌려고 하면, 떡 찌려고 하면?)

현정자 시리, 시리. 시리 잇어. (시루, 시루. 시루 있어.)

김보향 예, 예, 시리. (예, 예, 시루.)

현정자 시리 게난 그때도 사삼사건에 전에 시리덜이 어디 벌러지지 안헹들 이신 디가 잇엉. 게민 ᄒᆞᆫ 집이 시민 다 빌어다근 헤낫어. (시루 그러니까 그때도 사삼사건에 전에 시루들이 어디 깨지지 않아서들 있는 데가 있어서. 그럼 한 집에 있으면 다 빌려다가 했었어.)

김보향 아아, 집마다 곶추지 못헷구나. (아아, 집마다 갖추지 못했구나.)

현정자 어, 집마다 어디 시난? 게난 ᄒᆞᆫ 집이 시민 새 오라 가민 거 빌어당 다 헷주. (어, 집마다 어디 있어서? 그러니까 한 집에 있으면 새 돼 가면 거 빌려다가 다 했지.)

김보향 겐디 영 시리도 보난 종류가 다 ᄐᆞ납디다? 옛날 것들은 무신 시리렌 골읍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루도 보난 종류가 다 다릅디다? 옛날 것들은 무슨 시리라고 말합니까?)

현정자 무신? (무슨?)

김보향 지세로 만든 시리를? ('지세'로 만든 시루를?)

현정자 아, 지세로 멘든 시리도 잇고, 사기로 멘든 것도 잇고, 건. (아, '지세'로 만든 시루도 있고, 사기로 만든 것도 있고, 건.)

김보향 사기로 만든 것도 있고. (사기로 만든 것도 있고.)

양인필 지세가 많주. (지세가 많지.)

김보향 게난 쪼금 쪼금 쪼금 더 이시난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도 잇고? (그러니까 조금 조금 더 있으니까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도 있고?)

현정자 그건 내중에게. 그거는 호끔. (그건 나중에. 그거는 조금.)

양인필 겐디 알미늄은 벨로 안 썻주. (그런데 알루미늄은 별로 안 썼지.)

김보향 알미늄은 벨로 안 썻어? (알루미늄은 별로 안 썼어?)

양인필 지세, 지세 시리를 많이 썻어. ('지세', '지세' 시루를 많이 썼어.)

현정자 지세 시리로만 쳐신디 ᄒᆞ쏠 세상이 ᄒᆞ쏠 낫안 바꽈져 가난에 알미늄 낫주, 그 전인 그런 것도 엇고. ('지세' 시루로만 쪘는데 조금 세상이 조금 나아서 바뀌어 가니까 알루미늄 났지, 그 전에는 그런 것도 없고.)

김보향 삼춘은 지세 시리 하게 뒈면 떡 얼마나 쳐낫수꽈, 거기에? 얼마나 큰 거에 쳐난? (삼촌은 '지세' 시루 하게 되면 떡 얼마나 쪘었습니까, 거기에? 얼마나 큰 거에 쪘었어?)

현정자 지세 시린 컷지. ('지세' 시루는 컸지.)

양인필 지세 시리도 큰 거 잇고, 작은 거 잇고. ('지세' 시루도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고.)

현정자 그때는이, 저 엿날에 저 부제칩이서덜 써나난 영 이만큼 큰 것도 잇고, 요만큼 작은 것도 잇어. (그때는, 저 옛날에 저 부잣집에서들 썼었던 이렇게 이만큼 큰 것도 있고, 요만큼 작은 것도 있어.)

양인필 건 너무 크고. (건 너무 크고.)

현정자 작은 거 요만이헌 건 통이 지펑 요 정돈 뒈어. (작은 거 요만큼한 건 통이 깊어서 요 정도는 돼.)

김보향 거기 얼마나 들어? ᄒᆞᆫ 뒈 들어, 두 뒈 들어? (거기 얼마나 들어? 한 되 들어, 두 되 들어?)

현정자 아니, 두 뒈 들어, 그거. 그건 두 뒈 들어. (아니, 두 되 들어, 그거. 그건 두 되 들어.)

김보향 아, 두 뒈 들어예. 그거 말고 두 뒈 들이, ᄒᆞᆫ 말 들이 큰 거 말고예, 요만한 시리도 잇어나수꽈? (아, 두 되 들어요. 그거 말고 두 되 들이, 한 말 들이 큰 거 말고요, 요만한 시루도 있었습니까?)

현정자 그거이 잇주게, 그런 거. (그거 있지, 그런 거.)

김보향 그건 뭐렌 불러난? (그런 뭐라고 불렀었어?)

현정자 것도 시리옝 허는데 건 그 시리에 친 거는 저 떡을 베지 안헤영 그대로 올리는 거. (것도 시루라고 하는데 건 그 시루에 찐 거는 저 떡을 베지 않고 그대로 올리는 거.)

양인필 그대로 올리는 거. (그대로 올리는 거.)

김보향 언제 영 올립니까? 그, 그 베지 안헹 올리는 거는? (언제 이렇게 올립니까? 그, 그 베지 않고 올리는 거는?)

현정자 베지 안헤영 올리는 거는. (베지 않고 올리는 거는.)

김보향 거 식게 때는 큰 거에 허잖아예? 그 족은 시리 쓸 때는 언제 그 족은 시리를 쓸 거? (거 제사 때는 큰 거에 하잖아요? 그 작은 시루 쓸 때는 언제 그 작은 시루를 쓸 거?)

현정자 그거는 무신 기도나 헐 때 썸주. (그거는 무슨 기도나 할 때 쓰고 있지.)

양인필 기도헐 때나, 생, 생일 헐 때나. (기도할 때나, 생, 생일 할 때나.)

김보향 당에 갈 때? (당에 갈 때?)

현정자 아니, 아니. 기자 벨도로 ᄒᆞ쏠 쓸 때. (아니, 아니. 그저 별도로 조금 쓸 때.)

김보향 벨도로 ᄒᆞ쏠 쓸 때. (별도로 조금 쓸 때.)

현정자 응, 기도헐 때. (응, 기도할 때.)

김보향 집 짓엉은에 뭐 올릴 때나? (집 지어서 뭐 올릴 때나?)

현정자 게메, 게난 그냥 기자 기도헐 때, 그건. 식게 멩질 땐 그건 아이 써. (글쎄, 그러니까 그냥 그저 기도할 때, 그건. 제사 명절 땐 그건 안 써.)

김보향 그건 아니라예. 기도헐 때예, 맞수다. (그건 아니지요. 기도할 때요, 맞습니다.)

현정자 큰 시리에, 족은 시리 엇인 사름은 큰 시리에 허젱 허민 시리 ᄒᆞ나 ᄀᆞ득일게 엇이민 기자 알로 두 빗이나 세 빗이나 헤영 치민 비우젱은 허민 벌러지주게, 게민 옷 앗당 그레 ᄀᆞ득허게 담앙 꽁꽁 누루떵 톡 어퍼근에 그걸 베주게.(큰 시루에, 작은 시루 없는 사람은 큰 시루에 하려고 하면 시루 하나 가득하게 할 게 없으면 그저 아래도 두 '빗'이나 세 '빗'이나 해서 찌면 비우려고 하면 깨지지, 그럼 옷 가져다가 그리 가득하게 담아서 꽁꽁 눌러서 톡 엎어서 그걸 베지.)

김보향 음음. (음음.)

현정자 게난 이만큼 통 지픈 거 요만이헌 거 어프젱 허민 살락헤 불주게. (그러니까 이만큼 통 깊은 거 요만큼한 거 엎으려고 하면 '살락헤' 버리지.)

김보향 아아, 이 공간 남아 잇으니까 이 공간에 옷을 담아 놩 영 조심허게 어프는 거? (아아, 이 공간 남아 있으니까 이 공간에 옷을 담아 놓고 이렇게 조심하게 엎는 거?)

현정자 요것이 지금 떡은 요 물만이베낀 엇인디 이 우트렌 공간이난 옷을 딱 담아. 겡헹 어퍼 놔근에 시리떡을 영 베주게. 게난 그때 넘은 사름베낀 모른덴 허난? 그런 건. (요것이 지금 떡은 요 물만큼밖에 없는데 이 위로는 공간이니까 옷을 딱 담아. 그래서 엎어 놓고 시루떡을 이렇게 베지. 그러니까 그때 넘은 사람밖에 모른다고 한다니까? 그런 건.)

김보향 게난 떡 치젠 허민 시리가 필요헷어예. 시리떡도 잇지만 예전에 절벤, 솔벤도 헤지 않아수꽈예? (그러니까 떡 찌려고 하면 시루가 필요했지요. 시루떡도 있지만 예전에 절편, 솔편도 하지 않았습니까?)

현정자 절벤, 솔벤, 인절미 다 허주게. (절편, 솔편, 인절미 다 하지.)

김보향 다 허주게예. (다 하지요.)

양인필 다 허주. (다 하지.)

김보향 솔벤허고 인절미허고 절벤허고 또 뭐 헷수꽈?
(솔편하고 인절미하고 절편하고 또 뭐 했습니까?)

현정자 우찍. (웃기떡.)

김보향 우찍도 하고예. 자, 솔벤, 절벤 하젠 하민 떡 찍어내는 뭐가 잇어살 거 아니?
(웃기떡도 하고요. 자, 솔편, 절편 하려고 하면 떡 찍어내는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니?)

현정자 건 절벤 누루뜨는 건 저 낭으로 만들고. (건 절편 누르는 건 저 나무로 만들고.)

김보향 그거 뭐렌 불러? (그거 뭐라고 불러?)

현정자 솔벤, 절벤 떡 누루뜨는. (솔편, 절편 떡 누르는.)

권미소 본? (떡살?)

김보향 절벤본? ('절벤본'?)

현정자 응. 그건 절벤, 기자, 기자 절벤본이고. 또 솔벤본은 저 양철인가 쒜로 영 헨 멘든 거. (응. 그건 절편, 그저, 그저 '절벤본'이고. 또 '솔벤본'은 저 양철인가 쇠로 이렇게 만든 거.)

김보향 반 모냥예? 반착 모냥예? (반 모양요? 반쪽 모양요?)

양인필 응, 반달 모양. (응, 반달 모양.)

김보향 예, 반착 모냥. 그건 솔벤본, 절벤본 영 불럿구나. (예, 반쪽 모양. 그건 '솔벤본', '절벤본' 영 불렀구나.)

현정자 응, 그건 겅헤여. (응, 그건 그래.)

김보향 이 의귀리는 우찍으로 뭐 썻수꽈? (이 의귀리는 웃기떡으로 뭐 썼습니까?)

양인필 우찍으론 보통은 저 인절, 인절미 멘드는 쌀, 그거 쌀이주, 쌀. (웃기떡으로는 보통은 저 인절, 인절미 만드는 쌀, 그거 쌀이지, 쌀.)

김보향 곤쏠로 헌 거? 곤쏠그민 그거 우찍은 그냥 밀어 놩? (흰쌀로 한 거? 흰쌀 그럼 그거 웃기떡은 그냥 밀어 놓고?)

현정자 우찍은 무시거로 허느냐? (웃기떡은 뭐로 하냐?)

김보향 예예. (예예.)

현정자 우찍은 기자 그 그 곤쏠로 만드는, 그튼 재료로 허는디 손으로. (웃기떡은 그저 그 그 흰쌀로 만드는, 같은 재료로 하는데 손으로.)

김보향 으, 손으로? 음. (으, 손으로? 음.)

현정자 음, 손으로 기자 쪼금 쫄랑 영 영 헤긴에 납작허게 헤민 기자 쒱 손으로 영 영 헹 줍아. 경헹 헷어. (음, 손으로 그저 조금 잘라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납작하게 하면 그저 쥐어서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집어. 그렇게 했어.)

김보향 아, 이 모서리만 영영 줍을 거? (아, 이 모서리만 이렇게 이렇게 집을 거?)

현정자 응, 줍아, 응응. 경헌디 내중에 ᄒᆞ쏠 개발뒈 가난에 어떤 사람은 종지고 보시곡 그것만 헹 꼭 허게 누루떵 기차지민 또 영 줍고 또 헤신디 처음은, 우리 시집오랑 살 땐 아주 옛날이주게, 게난. (응, 집어, 응응. 그런데 나중에 조금 개발돼 가니까 어떤 사람은 종지고 보시기고 그것만 해서 꼭 하게 눌러서 잘라지면 또 이렇게 집고 했는데 처음은, 우리 시집와서 살 때는 아주 옛날이지, 그러니까.)

양인필 손으로 만들엇주, 거 다. (손으로 만들었지, 거 다.)

현정자 손으로, 손으로. (손으로, 손으로.)

김보향 게민 떡 반죽허젠 허민 뭣에 놩 영영 ᄆᆞᆯ아수꽈? (그럼 떡 반죽하려고 하면 뭣에 놔서 이렇게 이렇게 반죽했습니까?)

현정자 그 도고리에. (그 함지박에.)

김보향 도고리. 낭도고리? 응, 도고리에 놩 영영 ᄆᆞᆯ앙? (함지박. 함지박? 응, 함지박에 놔서 이렇게 이렇게 반죽해서?)

현정자 그땐 그릇이 엇어부난게. (그땐 그릇이 없어버리니까.)

김보향 영 영 밀젠 허믄? (이렇게 이렇게 밀려고 하면?)

현정자 사삼사건엔 다 엇으뎅긴 때난게. (사삼사건에는 다 없어진 때니까.)

김보향 영 영 줍앙 반죽한 걸 밀젠 허믄 뭐로 밀어? (이렇게 이렇게 집어서 반죽한 걸 밀려고 하면 뭐로 밀어?)

현정자 밀젠은 그땐 무시거. (밀려고는 그땐 뭐.)

양인필 마께가 잇엇주. (방망이가 있었지.)

현정자 마께가 잇어. 그 사삼사건에도 그런 건 카당도 잇당 남은 게 잇엇주. (방망이가 있어. 그 사삼사건에도 그런 건 타다가도 있다가 남은 게 있었지.)

양인필 다듬이마께도 잇고. (다듬잇방망이도 있고.)

현정자 게난 그 엿날 것 앗당 그거 헤연 마께로. (그러니까 그 옛날 것 가져다가 그거 해서 방망이로.)

김보향 밑에는 뭐에 놩? 돔베 놩예? (밑에는 뭐에 놓아서? 도마에 놓아서요?)

현정자 돔베. (도마.)

김보향 여기, 삼춘네도 큰 돔베 잇어낫수꽈? (여기, 삼촌네도 큰 도마 있었습니까?)

양인필 잇어낫주. (있었지.)

김보향 그 큰 돔베를 음식헐 때만 썻수꽈? 요거 헐 때도 썻수꽈? (그 큰 도마를 음식할 때만 썼습니까? 요거 할 때도 썼습니까?)

양인필 다듬이헐 때 ᄯᆞ루 잇주게. (다듬이할 때 따로 있지.)

현정자 빨래 두드릴 때. (빨래 두드릴 때.)

김보향 게민 다듬이헐 때 쓰는 거 ᄯᆞ로 잇고? (그럼 다듬이할 때 쓰는 거 따로 있고?)

양인필 정제 돔베 따로 잇고. (부엌 도마 따로 있고.)

김보향 정제 돔베 ᄯᆞ로 잇고? 게믄 정제 돔베 떡도 밀고 고기도 썰고예? (부엌 도마 따로 있고? 그럼 부엌 도마 떡도 밀고 고기도 썰고요?)

현정자 떡도 밀고 다 헤여. (떡도 밀고 다 해.)

김보향 적고기 썰고예. 그민, 떡을 찌젠 허민, 숢는 거 말고예. (적 썰고요. 그럼 떡 찌려고 하면, 삶는 거 말고요.)

현정자 찌젠 허민 고수왈 놔. 저 솟디 고수왈. (찌려고 하면 '고수왈' 놓아. 저 솥에 '고수왈'.)

김보향 뭐가 잇어야 뒈? (뭐가 있어야 돼?)

현정자 솟 안에, 고수왈. 고수왈이엔 허주, 그거. (솥 안에, '고수왈'. '고수왈'이라고 하지, 그거.)

김보향 고수왈? 예, 고, 수, 왈. ('고수왈'? 예, 고, 수, 왈.)

현정자 고수왈. 그 바드렝이. ('고수왈'. 그 겅그레.)

김보향 바드렝이, 떡 바드렝이. (겅그레, 떡 겅그레.)

현정자 바드렝이 만들아근에 바드렝이 안네 그 노는 거ᄀᆞ라 고수왈이엥 허주. 그거 놩 그 우트레 바드렝이 놩 떡을 놩 쳐. (겅그레 만들어서 겅그레 안에 그 놓는 것 보고 '고수왈'이라고 하지. 그거 놔서 그 위로 겅그레 놔서 떡을 놔서 쪄.)

양인필 바드렝이엔 헌 거 잇주. (겅그레라고 하는 거 있지.)
김보향 밑에 고수왈은 뭐로 만든 거? (밑에 '고수왈'은 뭐로 만든 거?)
현정자 낭으로. (나무로.)
양인필 낭이나 대, 대섭. (나무나 대, 댓잎.)
현정자 낭으로두 허고 저, 이 가루 치는 체가 잇어. 그 체가 그디 체 떼어 뒁 그 옆이 망만 놓앙. 게민 그거 놩 우트레 바드렝이 놩 떡을 쳐. (나무로도 하고 저, 이 가루 치는 체가 있어. 그 체가 거기 체 떼어 두고 그 옆에 쳇바퀴만 놓아서. 그럼 그거 놔서 위로 겅그레 놔서 떡을 쪄.)
김보향 게민 그걸 고수왈이렌 헐 거. (그럼 그걸 '고수왈'이라고 할 거.)
현정자 고수왈이엥 골아. ('고수왈'이라고 말해.)
김보향 아, 예. 좋수다. (아, 예. 좋습니다.)
현정자 게난에 할망덜이 "아이, 그 고수왈 혼저 앗당 놓으라게. 바드렝이 놔근에 혼저 치게." 경헤여.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아이, 그 '고수왈' 어서 가져다 놓아라. 겅그레 놓아서 어서 찌자." 그래.)
김보향 바드렝인 뭐로 만들엇수꽈? (겅그레는 뭐로 만들었습니까?)
현정자 대. (대.)
김보향 대, 대로 여껑 둥그렁허게 만들엉예. 그민 삼춘네 나중에 상웨떡 같은 것도 만들어나수꽈? (대, 대로 엮어서 둥그렇게 만들어서요. 그럼 삼촌네 나중에 상화떡 같은 것도 만들었었습니까?)
현정자 상웨떡도 경헌 것에 헤영. (상화떡도 그런 것에 해서.)
김보향 게믄 옛날에 상웨떡 보난 어디 가난 막 철사로 헤가지고 만들엉? (그럼 옛날에 상화떡 보니까 어디 가니까 마구 철사로 해서 만들어서?)
현정자 철사로도, 그건 내중에. (철사로도, 그런 나중에.)
양인필 그건 나중에고. (그런 나중에고.)
김보향 내중에. (나중에.)
현정자 그 떡 칠 때는, 상웨떡 칠 때는 바드렝이 우트레 천을 끌아. 물 적정 천을 끌주. 물 아이 적지민 그것에 붙엉 떼기가 궂주. (그 떡 찔 때는, 상화떡 찔 때는 겅그레 위로 천을 깔아. 물 적셔서 천을 깔지. 물 안 적시면 그것에 붙어서 떼기가 궂지.)
김보향 맞수다, 예예. (맞습니다, 예예.)
현정자 경헹 헤낫주게. (그렇게 했었지.)

김보향 떡은 솔벤, 절벤은 경 헹 쳐 냇고, 솖아 냇고, 그 빙떡은 어디서 지졋수꽈? (떡은 솔편, 절편을 그렇게 해서 쪄 냈고, 삶아 냈고, 그 빙떡은 어디에서 지졌습니까?)
현정자 빙떡은 정제에서 지지는디, 솟뚜껑에. 갈라, 영 가르싸 놔근에 솟뚜껑. 낭 불 때엉. (빙떡은 부엌에서 지지는데, 솥뚜껑에. 뒤집, 이렇게 뒤집어 놔서 솥뚜껑. 나무 불 때서.)
김보향 낭 불 때엉, 예. 솟뚜껑에 놓고. 자, 아까 물항에 물을 질젠 허난 허벅 경 물 지레 가낫잖아예? 삼춘은 어느 내창에 가낫수꽈? (나무 불 때어서, 예. 솥뚜껑에 놓고. 자, 아까 물독에 물을 길으려고 하니까 허벅 져서 물 지러 갔었잖아요? 삼촌은 어느 내에 갔었습니까?)
현정자 이디 사난에 이 이 내창, 이 내창에도 가고 (여기 사니까 이 이 내, 이 내에도 가고.)
양인필 요 앞이, 저 절물이엔 헌 디가 제일 좋아. (요 앞에, 저 절물이라고 하는 데가 제일 좋아.)
현정자 이 내창에 물 떨어지민 생이물이엥 헌 디도 먹는 물이 잇고. (이 내에 물 떨어지면 '생이물'이라고 하는 데도 먹는 물이 있고.)
김보향 생이물? ('생이물'?)
현정자 샘물. (샘물.)
김보향 샘물? (샘물?)
현정자 창새미소. ('창새미소.)
김보향 다시 한번? 창? (다시 한번? 창?)
양인필 창새미소. ('창새미소.)
김보향 창새미소? ('창새미소'?)
현정자 선대개소. ('선대개소.)
김보향 선대개소? 예. ('선대개소'?)
현정자 으, 경헨 우린 네 밧디 강 물 질어당 먹언. (으, 그래서 우린 네 군데 가서 물 길어다가 먹었어.)
김보향 네 군데 물 질언예. (네 군데 물 길어서요.)
현정자 게난 그 먹는 물 뻐뜨민 또 이신 디 강 또 질어 오곡 허젱 허민 그물 땐 네 밧딜 다 뎅견. (그러니까 그 먹는 물 밭으면 또 있는 데 가서 또 길어 오고 하려고 하면 가물 때는 네 군데를 다 다녀.)
김보향 게난 물이 귀헷수꽈, 의귀린? (그러니까 물이 귀했습니까, 의귀리는?)

현정자 구물민 귀허주게. (가물면 귀하지.)

양인필 크게 저, 귀허도 안헤연. 우리 남원읍 관내에선 제일 낫은 디라. (크게 저, 귀하지도 않아. 우리 남원읍 관내에선 제일 나은 데야.)

김보향 제일 낫은 디예, 물이 많은 디예? (제일 나은 데요, 물이 많은 데요?)

현정자 제일 낫은 디라두 나무에 저. (제일 나은 데라도 나무에 저.)

양인필 저 표선면 가시리 저 서끄지 다 오주게, 물 질레. 구문 때는. (저 표선면 가시리 저 서쪽까지 다 오지, 물 길러. 가물었을 때는.)

현정자 나무에 저 새 비영 여껑 영 졸라 무껑 물항더레 물 받아근에도 쓰곡, 비 올 땐 초집이 물 샐민 그레 받앙 쓰곡 경헤낫어. (나무에 저 띠 베어서 엮어서 이렇게 잘라 묶어서 물독에 물 받아서도 쓰고, 비 올 때는 초가집에 물 새면 그리 받아서도 쓰고 그랬었어.)

현정자 춤항. ('춤항'.)

김보향 비 오민 물 받앙 쓰고, 낭에? (비 오면 물 받아서 쓰고, 나무에?)

현정자 굴른걸로. (군것으로.)

양인필 저 굴른걸로, 굴른걸로 세수나 허고 기자. (저 군것으로, 군것으로 세수나 하고 그저.)

김보향 낭에 물 받진 안헷수꽈? (나무의 물 받지는 않았습니까?)

현정자 낭에도 받아. (나무에도 받아.)

양인필 춤물 받는다는 거주. ('춤물' 받는다는 거지.)

현정자 건 테레비에 계속 나오주. (건 텔레비전에 계속 나오지.)

김보향 춤물 받는 항을? ('춤물' 받는 항아리를?)

현정자 큰 항이주. (큰 항아리지.)

김보향 춤, 춤항이렌 골앗수꽈? ('춤', '춤항'이라고 말했습니까?)

양인필 응, 춤항이엥 헷주. (으, '춤항'이라고 했지.)

현정자 기자 그거 사개항으로 헤도 춤물항이엥 허주게. (그저 그거 사기항아리로 해도 '춤물항'이라고 하지.)

김보향 게민 삼춘, 그 물 받는 나무는 주로 무슨 낭? (그럼 삼촌, 그 물 받는 나무는 주로 무슨 나무?)

현정자 아무 낭이나. (아무 나무나.)

양인필 돔벡낭이나 조록낭이나. (동백나무나 조록나무나.)

김보향 돔백낭이나 조록낭이나? (동백나무나 조록나무나?)

현정자 낭 골리진 안혀고. 그자 집 에염에 큰 낭 시민 골령은 안 헨디 낭이 여라 개 시민. (나무 고르지는 않고. 그저 집 옆에 큰 나무 있으면 골라서는 안 했는데 나무가 여러 개 있으면.)

양인필 낭도 신낭 구뜬 건 그 독이 좀 잇어서 아녀고. (나무도 신나무 같은 건 그 독이 좀 있어서 안 하고.)

김보향 맞수다. 게난.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인필 돔벡허곡 저 조록, 탄탄헌 거. (동백하고 저 조록, 탄탄한 거.)

김보향 조록낭예. 자, 떡 헌 거는, 떡 헷수다예. 떡 헌 거는 어디 담아수꽈? (조록나무요. 자, 떡 한 거는, 떡 했습니다. 떡 한 거는 어디 담았습니까?)

현정자 차롱에. (채롱에.)

김보향 차롱에, 예에. 게난 떡, 집에 차롱이 막으라 개 잇어야 될 거 아니? 떡 놓는 차롱도 잇고, 또 뭐 담아, 차롱에? (채롱에, 예에. 그러니까 떡, 집에 채롱이 아주 여러 개 있어야 될 거 아니? 떡 넣는 채롱도 있고, 또 뭐 담아, 채롱에?)

현정자 차롱에 적갈 담고. (채롱에 적 담고.)

양인필 다 따로따로 만들앙 썻주게. (다 따로따로 만들어서 썼지.)

김보향 적갈도 담고, 떡도 담고, 예. 밧디 갈 때도 차롱에 밥 담앙 갑디가? (적도 담고, 떡도 담고, 예. 밭에 갈 때도 채롱에 밥 담아서 갑디까?)

현정자 으, 밧디 갈 때 담는 차롱은. (으, 밭에 갈 때 담는 채롱은.)

양인필 밥차반은 또 뚜로 잇어. ('밥차반'은 또 따로 있어.)

현정자 또 저 떡 노는 차롱 닮지 안허게시리 영. (또 저 떡 넣는 채롱 같지 않게끔 이렇게.)

양인필 통도 지프곡. (통도 깊고.)

현정자 소랑소랑허게 헤도 통을 영 기퍼. (길쭉하게 해도 통이 이렇게 깊어.)

양인필 경허곡 들렁 가지기 좋게시리. (그리고 들고 가기 좋게끔.)

현정자 지프고 또 두껑도 만들고. 두껑 딱 맞게 헤영. (깊고 또 뚜껑도 만들고. 뚜껑 딱 맞게 해서.)

양인필 뚜껑 헤영 뚜러메아졍 갈 수도 잇고. 경허주. (뚜껑 해서 둘러매고 갈 수도 있고. 그렇지.)

현정자 그것에 또 양쪽으로 끈 돌아메게 헤긴에 하르방덜 영 메엉도 가고. (그것에 또 양쪽으로 끈 달아매게 해서 할아버지들 이렇게 메서도 가고.)

김보향 어깨에 멩예? (어깨에 메서요?)
현정자 메엉도 가고, 지엉도 가고. (메서도 가고 지고도 가고.)
김보향 게민 그거 불르는 이름은 ᄐᆞ나지 안허여? (그럼 그거 부르는 이름은 다르지 않아?)
현정자 아니, 정심 차롱. (아니, 점심 채롱.)
김보향 아, 정심 차롱? (아, 점심 채롱?)
양인필 정심 차반지. (점심 '차반지'.)
김보향 예. (예.)
양인필 차반지. ('차반지'.)
현정자 정심 차반지, 견디 정심 차반지게, 정심 차롱이엥 골아. 기자 보통. (점심 '차반지', 그런데 점심 '차반지', 정심 채롱이라고 말해. 그저 보통.)
김보향 밧디 점심 가졍 가젠 허민 차롱 하나에 다 담앗수꽈? (밭에 점심 가지고 가려고 하면 채롱 하나에 다 담았습니까?)
현정자 응, 다 담아. (응, 다 담아.)
김보향 뭐 담아? (뭐 담아?)
현정자 담을 게 잇어게? 담을 게 엇어. (담을 게 있어? 담을 게 없어.)
김보향 담을 게 엇어. (담을 게 없어.)
현정자 장이나 김치를 경 못 먹어. 김치가 어디 시난? (장이나 김치를 그렇게 못 먹어. 김치가 어디 있어서?)
양인필 그때 당시에 채소를 심지 못혜영 허난게. (그때 당시에 채소를 심지 못해서 하니까.)
현정자 아이고, 김치가 엇어, 김치가 엇어. 김치만 잇이민 원 밥을 아무 만이라도 먹어짐 직헤여. (아이고, 김치가 없어, 김치가 없어. 김치만 있으면 원 밥을 아무 만큼이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양인필 뒌장허곡 반치지. (된장하고 파초장아찌.)
현정자 경허고 그때는. (그러고 그때는.)
김보향 반치지. (파초장아찌.)
현정자 반치지도 콩이 갈안 장을 담음 시작헤야. 게난 장 담을 때 반치를 썰엉 요 두께썩 요만헌 두께썩 줄라근에 장항에 노민 그거 익으민 그거 앗아 내민 큰 반찬이주게. (파초장아찌도 콩 갈아서 장을 담그기 시작해야. 그러니까 장 담을 때 파초를 썰어서 요 두께씩 요만한 두께씩 잘라서 장독에 넣으면 그거 익으면 그거 가져 내면 큰 반찬이지.)

김보향 장항이렌 허민 뒌장에 묻엇수꽈? 간장에 묻엇수꽈? (장독이라고 하면 된장에 묻었습니까, 간장에 묻었습니까?)
현정자 아니, 기자 담음 때. (아니, 그저 담을 때.)
김보향 담음 때? (담을 때?)
현정자 담을 때. (담을 때.)
김보향 게민 메주, 메주 영 소금물에 메주 담글 때? (그럼 메주, 메주 이렇게 소금물에 메주 담글 때?)
양인필 간장허고 메주 ᄀᆞ치. 같이, 같이. (간장하고 메주 같이. 같이, 같이.)
현정자 응, 같이, 같이 담아근에 또 그 따로 장물 거리기 전이 그게 남지 안헹 다 먹어 불어. 아이고, 다 먹어 비영 엇어져, 엇어져. 반찬이 그거, 그 이상 맛 존 반찬이 엇어. (응, 같이, 같이 담가서 또 그 따로 간장 뜨기 전에 그게 남지 않아 다 먹어 버려. 아이고, 다 먹어 버려서 없어져, 없어져. 반찬이 그거, 그 이상 맛 좋은 반찬이 없어.)
김보향 게민 삼춘 영 생각헤 봅서예. 그런 뒌장, 간장을 담앙 먹은 게 삼춘 몇 살 때 뒌장을 영 담앙, 메주 솖앙 장을 담아졋수꽈? (그럼 삼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런 된장, 간장을 담가서 먹은 게 삼촌 몇 살 때 된장을 이렇게 담가서, 메주 삶아서 장을 담글 수 있었습니까?)
현정자 아니, 솟디서 솖앗주게. (아니, 솥에서 삶았지.)
양인필 아니, 멧 설 때. (아니, 몇 살 때.)
김보향 멧 설 때? (몇 살 때?)
현정자 멧 설 때에? (몇 살 때에?)
김보향 사삼 때에 못 헤신게예. (사삼 때에 못 했네요.)
현정자 나, 나 무시거, 스물셋 뒈난 담앗주게. 스물셋 뒈난. (나, 나 뭐, 스물셋 되니까 담갔지. 스물셋 되니까.)
김보향 스물셋 뒈난예. 멜첫, 자리젓은 멧 설 때난 영 담앙 먹어졋수꽈? (스물셋 되니까요. 멸치젓, 자리젓은 몇 살 때니까 이렇게 담가서 먹을 수 있었습니까?)
현정자 아이고, 그건 아멩헤도 스물 ᄒᆞᆫ 일곱, ᄋᆞ답 뒈사 담앙 먹엇어. 돈 엇엉 사지 못혜영. (아이고, 그건 아무래도 스물 한 일곱, 여덟 되어야 담가서 먹었어. 돈 없어서 사지 못해서.)
김보향 아아, 사지 못헹. 게민 그 후제는 쭉 ᄒᆞ끔씩이라도 담앙 먹고? (아아, 사지 못해서. 그럼 그 후에는 쭉 조금씩이라도 담가서 먹고?)

현정자 아이고, 겨난에 그때는 저 돈 주엉 사곡풀곡을 안 헷주게. 집이 시민 자리 장시가 구덕에 놩 경 이디 풀렐 와. "자리 삽서, 멜 삽서." 허멍 오주게. (아이고, 그러니까 그때는 저 돈 줘서 사고팔고를 안 했지. 집에 있으면 자리돔 장수가 바구니에 놔서 지고 여기 팔러 와. "자리돔 사세요, 멸치 사세요." 하면서 오지.)

양인필 눈물 겨와. (눈물 겨워.)

현정자 오민 사는 사름이 뭣으로 사는고 허민 감저. 감저. 그 사람덜투 돈 받을 거로도 생각 안 혀곡. 그 멜첫, 멜이곡 춤 아무거라도 다 그거 주어. 감저 주곡 자리도 사곡 멜도 사곡 경허주. (오면 사는 사람은 뭐로 사는가 하면 고구마. 고구마. 그 사람들도 돈 받을 거로도 생각 안 하고. 그 멸치젓, 멸치고 참 아무거라도 다 그거 줘. 고구마 주고 자리돔도 사고 멸치도 사고 그랬지.)

현정자 옥돔, 옥돔도 풀레 오고, 자리도 풀레 오고 다 허주. (옥돔, 옥돔도 팔러 오고, 자리돔도 팔레 오고 다 하지.)

김보향 그거 줘. (그거 줘.)

현정자 돈 줭 사는 식은 엇고. (돈 줘서 사는 식은 없고.)

김보향 뒌장은 얼마나 담아낫수꽈, 삼춘? 메주는 멧 뒈나? 멧 말이나? (된장은 얼마나 담았었습니까, 삼촌? 메주는 몇 되나? 몇 말이나?)

현정자 아니, 난 담음 시작허난 처음은 혼 말 담아신디 말제라 가난에 두 말도 담곡, 서 말도 담곡 경헨. (아니, 난 담기 시작하니까 처음은 한 말 담갔는데 나중에 가니까 두 말도 담그고 서 말도 담그고 그랬어.)

김보향 경 죽장 담앙 먹어난예? (그렇게 줄곧 담아서 먹었었지요?)

현정자 죽장, 원원, 일생 죽장 담앗주. (줄곧, 원원, 일생 줄곧 담갔지.)

김보향 게난 이제 뒌장 잇고 멜첫, 자리젓 잇고, 아까 반치지 잇고, 또 반찬이 뭐 잇어낫어? (그러니까 이제 된장 있고 멸치젓, 자리젓 있고, 아까 파초장아찌 있고, 또 반찬이 뭐 있었어?)

현정자 저 마농지. 그거. (저 마늘장아찌. 그거.)

김보향 마농지. 마농지는 뭐에 담앗수꽈? 그릇, 단지에? (마늘장아찌. 마늘장아찌는 뭐에 담갔었습니까? 그릇, 단지에?)

현정자 그것도 저, 단지가 아니고 저. (그것도 저, 단지가 아니고 저.)

양인필 짜그만한 항아리. 알동이, 알동이. (자그마한 항아리. '알동이', '알동이'.)

현정자 항, 족은 항에, 알동이엔 헌 동이가 잇엇어. ('항아리', 작은 항아리에, '알동이'라고 하는 동이가 있었어.)

김보향 얼마나 커? 알동이는? (얼마나 커? '알동이'는?)

현정자 알동이는 요만은 크주. ('알동이'는 요만큼 크지.)

김보향 아, 큰 거에 담앗구나? (아, 큰 거에 담았구나?)

현정자 게난에 그때는 마농지도 아무 디도 엇엉, 마농이 엇엉 잘 못 헷어. 나 그거 일 년 그거 담아 봐신디 우리 밧디 간 허난에 마농이 하도 잘 뒈어. 경허난에 그걸 헤당 다 담으난 그 알동이로 하나가 뒌 거 아니? 뒈난. 그게 완전 요새 그트민 소고기 반찬보담도 더 좋은 반찬이라, 게난. 아니, 그거 마농지 봄 난 그거 헤연에 담은 건디 팔뤌 출 헐 때 뒈난 그게 엇어 불언. 다 먹어 비언, 그거. 그것만 먹어난. 그것만 먹언. 아이고, 게난 그게 아무 집이나 엇엇어. 경 어려와. (그러니까 그때는 마늘장아찌도 아무 데도 없어서, 마늘이 없어서 잘 못 했어. 나 그거 일 년 그거 담가 봤는데 우리 밭에 가서 하니까 마늘이 하도 잘 돼. 그러니까 그걸 해다가 다 담그니까 그 '알동이'로 하나가 된 거 아니? 되니까. 그게 완전 요새 같으면 소고기 반찬보다도 더 좋은 반찬이야, 그러니까. 아니, 그거 마늘장아찌 봄 나서 그거 해서 담근 건디 팔월 꼴 할 때 되니까 그게 없어 버렸어. 다 먹어 버렸어, 그거. 그것만 먹었었어. 그것만 먹었어. 아이고, 그러니까 그게 아무 집이나 없었어. 그렇게 어려워.)

김보향 자, 봅서예. 아까 알, 알? (자, 보세요. 아까 알, 알?)

현정자 알동이. ('알동이'.)

김보향 그민 그 그 마농지는 알동이에 담고, 멜첫, 자리젓은? (그럼 그 그 마늘장아찌는 '알동이'에 담고, 멸치젓, 자리젓은?)

현정자 요만이헌 거. (요만큼한 거.)

김보향 요만이헌 단지에 담고, 뒌장, 간장은? (요만큼한 단지에 담고, 된장, 간장은?)

양인필 뒌장, 간장은 큰 항에. (된장, 간장은 큰 항아리에.)

현정자 큰 항에, 건 큰 항에. (큰 항아리에, 건 큰 항아리에.)

김보향 큰 항에 담고. 망데기에는 아까 쏠 담고예? 예예, 물항, 쏠항 또 뚜로 잇엇, 잇어낫고예? (큰 항에 담고. '망데기'에는 아까 쌀 담고요? 예예, 물독, 쌀독 또 따로 있어, 있었고요?)

현정자 저 물항은 큰 거. 망데기엔, 쏠이 엇이나산디 기자 요만이헌 망데기에. (저 물독은 큰 거. '망데기'에는, 쌀이 없어서인지 그저 요만한 '망데기'에.)

양인필 추추 살아가난 쏠항도 컷주게. 보리쏠 나고 좁쏠 나고 허니까. (차차 살아가니

까 쌀독도 컸지. 보리쌀 나고 좁쌀 나고 하니까.)

현정자 경헷주게. (그랬지.)

김보향 맞수다. 삼춘 차롱은 영 멧 개나 잇어나수꽈? 차롱은 막? (맞습니다. 삼촌 채롱은 이렇게 몇 개나 있었습니까? 채롱은 마구?)

현정자 차롱은 우린 씨하르부지 잇고 허난에 차롱은 ᄒᆞᆫ 네 배, 두껑 더껑 네 개. (채롱은 우린 시할아버지 있고 하니까 채롱은 한 네 배, 뚜껑 덮어서 네 개.)

김보향 네 배. 게민 그 차롱은 떡차롱, 적차롱 구분을 헹 썻수꽈? 그거? (네 배. 그럼 그 채롱은 '떡차롱', '적차롱' 구분을 해서 썼습니까? 그거?)

현정자 다 놔, 다 놔. 딱 떡 ᄐᆞ루, 적갈 ᄐᆞ루, 생선 ᄐᆞ루. (다 놔, 다 놔. 딱 떡 따로, 적 따로, 생선 따로.)

김보향 게민 영 차롱이 영 차롱이 여기 네 개나 잇이민 야이는 떡 놓는 데만 쓰는 거, 야이는 적 놓는 데만 쓰는 거, 야이는 밥 쌍 도시락 가는 걸로만 쓰는 거? (그럼 이렇게 채롱이 이렇게 채롱이 여기 네 개나 있으면 얘는 떡 넣는 데만 쓰는 거, 얘는 적 넣는 데만 쓰는 거, 얘는 밥 싸서 도시락 가는 걸로만 쓰는 거?)

현정자 어, 경허난에 지금도, 지금도 그거 경헤긴에 젯상 엠드레 다 들러다 놔. (어,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도 그거 그렇게 해서 제사상 옆으로 다 들어다 놔.)

김보향 지금도 그? (지금도 그?)

현정자 차롱 써. (채롱 써.)

김보향 아이고, 기꽈? (아이고, 그렇습니까?)

현정자 차롱 써. 차판도 쓰고 헌디 차롱이 오히려 더 좋아. (채롱 써. 쟁반도 쓰고 하는데 채롱이 오히려 더 좋아.)

김보향 더 좋아? (더 좋아?)

현정자 것에 헹 두껑 탁 더껑 갖당 노민 저 상에 출림 새에 먼지도 아이 들곡 기자 그것에 톡톡 아래 요런 종이 끌아근에 적갈도 헤영 톡 두껑 더껑 상 엠더레 앗당 노민 어둑으민덜 두껑 율앙 출려 놓주게. (것에 해서 뚜껑 딱 덮어서 가져다가 놓으면 저 상에 차리는 사이에 먼지도 안 들고 그저 그것에 톡톡 아래 요런 종이 깔아서 적도 해서 톡 뚜껑 덮어서 상 옆으로 가져다 놓으면 어두우면 뚜껑 열어서 차려 놓지.)

김보향 막 좋수다, 삼춘. (아주 좋습니다, 삼촌.)

현정자 그거 저 좋아. 요새 다 저 차판 헤당덜 놓주게. (그거 저 좋아. 요새 다 저 쟁반 해다가들 놓지.)

김보향 나중에 식게상 차리민예, 그 옆에 잇는 거 사진 한번 찍읍서. 찍엉 놔둡서. 차롱에. (나중에 제사상 차리면요, 그 옆에 있는 거 사진 한번 찍으세요. 찍어서 놔두세요. 채롱에.)

양인필 식게상? 아아. (제사상? 아아.)

김보향 음식 담앙 영 차롱에 잇는. 예, 경 다 그거 다 의미 잇는 거우다게, 요새 못 보는. (음식 담아서 이렇게 채롱에 있는. 예, 그렇게 다 그거 다 의미 있는 겁니다, 요새 못 보는.)

현정자 아이, 난 안 허켜게. 나가 나가 아니 헤민 어렵주게. (아이, 난 안 하겠어. 내가 내가 안 하면 어렵지.)

김보향 게민 삼춘 영 봅서예. 그런 차롱은 어디 강 구헌 거꽈? 어디 강 산 거꽈? (그럼 삼촌 이렇게 보세요. 그런 채롱은 어디 가서 구한 겁니까? 어디 가서 산 겁니까?)

현정자 아니, 기자 여기서, 여기서 산 거. (아니, 그저 여기서, 여기서 산 거.)

양인필 대 잇으니까 쪼꼼 헌 사름은 다 만들주게. (대 있으니까 조금 하는 사람은 다 만들지.)

김보향 그민 삼춘네 써난 건 누게가 만든 거라? (그럼 삼촌네 썼던 건 누가 만든 거야?)

현정자 우리 삿어. 우린 안 만들엉 상 썻어. 다 대 그릇도 다 산. (우리 샀어. 우린 안 만들어서 사서 썼어. 다 대 그릇도 다 샀어.)

양인필 아니, 난 아니 헤신디 조부님도 다 만들어나고. 또 이 동네 잘 만드는 분이 잇어낫어. (아니, 난 안 했는데 조부님도 다 만들었었고. 또 이 동네 잘 만드는 분이 있었어.)

김보향 의귀리에 잘 만드는 분 성함이 뭐꽈? (의귀리에 잘 만드는 분 성함이 뭡니까?)

현정자 죽어 불엇어. 죽어 불언. (죽어 버렸어. 죽어 버렸어.)

양인필 돌아갓주. 막 오래뒛주. (돌아갔지, 아주 오래됐지.)

김보향 돌아가신디? (돌아가셨는데?)

양인필 오신국이라고. (오신국이라고.)

김보향 예, 들엇수다. 예예. 다른 집이서도 나옵디다. (예, 들었습니다. 예예. 다른 집에서도 나옵디다.)

현정자 그 사람은 잇엉, 지금 그 사람 잇엉, 그 손재주민 제주도 안에 한국에선 없어. 그 손재주. (그 사람은 있어서, 지금 그 사람 있어서, 그 손재주면 제주도 안에 한국에선 없어. 그 손재주.)

양인필 손매가 좋아. (손매가 좋아.)

현정자 그 사름은 지금 잇어시민 그거 하나 만들아도 춤 돈이 하영. (그 사람은 지금 있었으면 그거 하나 만들어도 참 돈이 많이.)

양인필 ᄀᆞ는대구덕이엔 헌 거 잇주. 게난 아가씨들 들렁 뎅경, 뒤에 쪙 뎅기곡.('ᄀᆞ는대구덕'이라고 하는 거 있지. 그러니까 아가씨들 들고 다녀서, 뒤에 껴서 다니고.)

현정자 아니, 부지, 부지 놔근에 부지엔 헌 거는 엿날에 쏠. 쌀 두 뒈 놓아긴에 잔치칩에도 부제허곡 대소상칩이도 부제허고 헤낫주. 게민 그거 들렁 가는 구덕.(아니, 부조, 부조 넣어서 부조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쌀. 쌀 두 되 넣어서 잔치집에도 부조하고 대소상집에도 부조하고 했었지. 그럼 그거 들고 가는 바구니.)

김보향 구덕, 응. 그걸 ᄀᆞ는대구덕이렌 헐 거예?
(바구니, 응. 그걸 'ᄀᆞ는대구덕'이라고 할 거요?)

양인필 ᄀᆞ는대구덕. ('ᄀᆞ는대구덕'.)

김보향 그 오신국 어르신이 만든 ᄀᆞ는대구덕이나 차롱이나 삼춘 잇어? (그 오신국 어르신이 만든 'ᄀᆞ는대구덕'이나 채롱이나 삼촌 있어?)

현정자 엇어. (없어.)

양인필 그거 ᄒᆞ나 잇어낫는데 어디 가벼시? 누게 봉가 가벼시? (그거 하나 있었는데 어디 가버렸는지? 누가 주워 가버렸는지?)

현정자 아이고, 엇어. (아이고, 없어.)

김보향 삼춘도 ᄀᆞ는대구덕도 썻지예? (삼촌도 'ᄀᆞ는대구덕'도 썼지요?)

현정자 썻지. (썼지.)

김보향 ᄀᆞ는대구덕도 크기가 막 ᄐᆞ나지 안허여? ('ᄀᆞ는대구덕'도 크기가 아주 다르지 않아?)

현정자 아이고, ᄯᅡ나. 지금 구덕 하나가 그건 사 온 건디 누게 헌 건 모르크라.
(아이고, 달라. 지금 바구니 하나가 그건 사 온 건데 누가 한 건 모르겠어.)

김보향 이땅 이땅 찍기로 허고예, 이땅 춪아내렌 허쿠다. 게난 ᄀᆞ는대구덕에 부지헐 때도 식게칩이 가는 거랑 사돈칩이 가는 거랑?(이따가 이따가 찍기로 하고요, 이따가 찾아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ᄀᆞ는대구덕'에 부조할 때도 제삿집에 가는 거랑 사돈집에 가는 거랑?)

양인필 사돈칩이 가는 거 돗다리 놓안 졍 가는 거. 술 ᄒᆞᆫ 뒈 놓고. (사돈집에 가는 거 돼지다리 넣어서 지고 가는 거. 술 한 되 넣고.)

현정자 건 잔치헐 때. (건 잔치할 때.)

양인필 잔치헐 때. 경허난. (잔치할 때. 그러니까.)

김보향 크기가? (크기가?)

양인필 크기가 조끔 더 커. (크기가 조금 더 커.)

김보향 예, 사돈칩이 갈 때는 부지 얼마나 헷수꽈? (예, 사돈집에 갈 때는 부조 얼마나 했습니까?)

현정자 부지를 허지 안 혀고. (부조를 하지 않고.)

김보향 겨난 쏠? (그러니까 쌀?)

현정자 결혼헤영 잔치허민 시집을 이디 나가 오난 뒷날은 처가칩일 가살 거 아니? 가젠 허난에 우리 씨어머니네가 씨할마니네영 방에를 막 쏠 놩 졈서. 그걸 떡을 만들안 쪈에 그걸 젼에 사둔칩일 가는 거라. 돗다리 하나 놓고. 경헹 가민 또 저 여자 사둔칩이서 또 헤 오곡. 그거 기자 잔치헤 나민 음식 사둔찌리 나눈 거. (결혼해서 잔치하면 시집을 여기 내가 오니까 뒷날은 처갓집을 가야할 거 아니? 가려고 하니까 우리 시어머니네가 시할머니네랑 방아를 마구 쌀 넣고 지고 있어. 그걸 떡을 만들어서 쪄서 그걸 지고 사돈집엘 가는 거야. 돼지다리 하나 넣고. 그렇게 가면 또 저 여자 사돈집에서 또 해 오고. 그거 그저 잔치하고 나면 음식 사돈끼리 나눈 거.)

양인필 나눠 먹기. (나눠 먹기.)

김보향 삼춘 아까 떡 찔 때 영 헹 막 찧엇덴 헷잖아예? 뭐에 영 찧을 거? (삼촌 아까 떡 찔 때 이렇게 해서 마구 찧었다고 했잖아요? 뭐에 이렇게 찧을 거?)

현정자 방에에서게. (방아에서.)

김보향 방에에예. 그거 방에렌 골을 거? 방에에 그 돌만 이신 걸 뭐렌 불러낫수꽈? 그 돌을? (방아에요. 그거 방아라고 말할 거? 방아에 그 돌만 있는 걸 뭐라고 불렀었습니까? 그 돌을?)

현정자 방에혹. (방아확.)

김보향 방에혹예. (방아확요.)

현정자 그 낭은, 밑에로 낭이고이. 영 도고리ᄀᆞ치 허곡 가운데 쪼끌락헌 방에혹. (그 나무는, 밑으로 나무고. 이렇게 함지박같이 하고 가운데 조그마한 방아확.)

김보향 그거 남방에렌은 안 헨? (그거 '남방아'라고는 안 했어?)

양인필 남방아, 남방에가 맞주. ('남방아', '남방아'가 맞지.)

현정자 남방에. 경허고 돌 영헌 거는 돌방에게, 건. ('남방아'. 그리고 돌 이런 거는 돌방아, 건.)

김보향 예예, 돌방에렌도 허고예. 거믄 낭을 영 찧는 이 나무를 뭐렌 불럿수꽈?
(예예, 돌방아라고도 하고요. 그럼 나무를 이렇게 찧는 이 나무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현정자 그거게, 방엣귀. (그거, 방앗공이.)

김보향 방엣귀. (방앗공이.)

현정자 방엣귀 영 헤긴에 서이가 지민, 서이너이가 질 땐 소리 치믄 볼 만헤여.
(방앗공이 이렇게 해서 셋이 찧으면, 서넛이 찧을 땐 소리 치면 볼 만해.)

김보향 거난 둘이가 찧으민 두콜방에? (그러니까 둘이 찧으면 '두콜방에'?)

현정자 세콜방에, 네콜방에. ('세콜방에', '네콜방에'.)

김보향 예, 예, 좋수다. (예, 예, 좋습니다.)

현정자 경헌디 엿날에도 세콜방에, 네콜방에 질 때는 막 소리치멍 헤민 요새 ᄀᆞ트민 테레비에 다 나올 거. 볼 만헤여. 그거, 응. (그런데 옛날에도 '세콜방에', '네콜방에' 찧을 때는 마구 소리치면서 하면 요새 같으면 텔레비전에 다 나올 거. 볼 만해. 그거, 응.)

김보향 게난 삼춘도 영 방에 찍어 보고예? (그러니까 삼촌도 이렇게 방아 찧어 보고요?)

현정자 응, 난 그걸 잘헤연. (응, 난 그걸 잘했어.)

김보향 그믄 헤 봅서. 생각헤 보면 이렇게 나무가 잇고, 그 밑에 방에혹이 잇고 헷던 그걸 삼춘 몇 살까지 영 써난 거 닮수꽈? (그럼 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이렇게 나무가 있고, 그 밑에 방아확이 있고 했던 그걸 삼촌 몇 살까지 이렇게 썼던 거 같습니까?)

현정자 아니, 건 떡이나 허젱 헤사 졋주게. (아니, 건 떡이나 하려고 해야 찧었지.)

김보향 그 나무는 이젠 다 없어져 불엇잖아예. (그 나무는 이젠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양인필 줏어 가는 사름이 다 줏어 가벼주. (주워 가는 사람이 다 주워 가버렸지.)

현정자 혹은 잇주만. (혹은 있지만.)

김보향 혹은 남아 이신디. (혹은 남아 있는데.)

양인필 돌문화공원에쯤 가민 이실 거라. (돌문화공원에쯤 가면 있을 거야.)

김보향 근디 그런 남방에를 일반 가정에서 몇 십 년대까지 써나신고예? (그런데 그런 '남방에'를 일반 가정에서 몇 십 년대 썼었나요?)

양인필 몇 십 년대? (몇 십 년대?)

김보향 칠십 년대까지 썻수꽈? (칠십 년대까지 썼습니까?)

현정자 나 시집올 때ᄁᆞ진 써시난. (나 시집올 때까진 썼으니까.)

김보향 그때는 육십 년대고, 오십 년대고. 삼춘 시집올 때는 오십 년대고. (그때는 육십 년대고, 오십 년대고. 삼촌 시집올 때는 오십 년대고.)

현정자 나 시집올 때ᄁᆞ지는 그거 써신디 저 아방 군대 가노난 거 엇어져실 거라.
(나 시집올 때까지는 그거 썼는데 저 아버지(남편) 군대 가니까 거 없어졌을 거야.)

양인필 게메, 경허난에. (글쎄, 그러니까.)

현정자 그때는 웨 엇어졋느냐 허면 우리 촌사름덜은 그런 걸 원 생각을 안 헤영.
(그때는 왜 없어졌느냐 하면 우리 촌사람들은 그런 걸 전혀 생각을 안 해서.)

김보향 맞수다. (맞습니다.)

현정자 기자 우리 밧디 강 오랑 보민, 요 우리 모욕탕이민 그 엿날 ᄆᆞ물사발 깨진 거, 접시 깨진 게 민짝헤낫주. 아이, 내중엔 보난 조각도 하나 엇어. 게난 우린 그런 건 관심을 아이 줘주게, 게난. 게난 ᄆᆞᆫ딱 방에 ᄀᆞ튼 거 그런 거 다 아져 가불어. 밧 가는 잠대도 원 영헌 디 찔렁 내벼도 신경 아이 써근에. (그저 우리 밭에 갔다 와서 보면, 요 우리 목욕탕이면 그 옛날 'ᄆᆞ물사발' 깨진 거, 접시 깨진 게 가득했었지. 아이, 나중에 보니까 조각도 하나 없어. 그러니까 우린 그런 거 관심을 안 줬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두 방아 같은 거 그런 거 다 가지고 가버려. 밭 가는 쟁기도 원 이런 데 찔러서 내버려도 신경 안 쓰고.)

양인필 우리가 집을, 창고 잇엇다가 창고 엇어짐 시작헤영. (우리가 집을, 창고 있었다가 창고 없어지기 시작해서.)

현정자 그걸 아져가는 걸 신경도 아이 쓰고. 그걸 아무것도 아니로게. (그걸 가져가는 걸 신경도 안 쓰고. 그걸 아무것도 아니라고.)

양인필 옆에 내놩 놔둔 게 다 가져갓주. (옆에 내놓아 놔둔 게 다 가져갔지.)

김보향 정제 보당 여기까지 갓수다예. 이제 정제 다시 돌아강 정제에예, 그 불 솜젠 허민 뭐? (부엌 보다가 여기까지 갔습니다. 이제 부엌 다시 돌아가서 부엌에요, 그 불 때려고 하면 뭐?)

현정자 부지뗑이. (부지깽이.)

김보향 부지뗑이, 예. (부지깽이, 예.)

현정자 부지뗑이, 그 낭으로 영헌 거. (부지깽이, 그 나무로 이런 거.)

김보향 그것도 잇고, 이제 또 그 불 솜젠 허민 뭐가, 여기 뭐가 잇어야 이걸 이걸 불 땔 거 아니? (그것도 있고, 이제 또 그 불 때려고 하면 뭐가, 여기 뭐가 있어야 이걸 이걸 불 땔 거 아니?)

현정자 검질게, 검질. 검질 헤영 솟강알더레 부지뗑이로 영 영 허멍 솜주게. (검불, 검

불. 검불 해서 아궁이에 부지깽이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때지.)

김보향 검질, 불 솜는 검질들은 주로 뭘 갖당 솜아수꽈? (검불, 불 때는 검불들은 주로 뭘 가져다가 땠습니까?)

현정자 밧디 가근에 저, 쉐촐. 쉐촐. 그런 거 비어당. (밭에 가서 저. 쇠꼴. 쇠꼴. 그런 거 베어다가.)

양인필 소 소 키우니까 소 키우니까 소 먹어난 뒤치. 응, 그거 그거 안아당. (소 소 키우니까, 소 키우니까 소 먹었던 '뒤치'. 응, 그거 그거 안아다가.)

김보향 음, 뒤치. (음, '뒤치'.)

현정자 그것도 허곡 검질도 따로 비어당 눌곡. (그것도 하고 검불도 따로 베어다가 가리고.)

김보향 눌곡, 불 솜젠예. 예. 불 솜아나민 그? (가리고, 불 때려고요. 예. 불 때고 나면 그?)

현정자 불치, 불치. (재, 재.)

김보향 불치, 예. 그 불치들 걷어당 뭐에 썻수꽈? (재, 예. 그 재를 걷어다가 뭐에 썼습니까?)

현정자 저 걸름으로. (저 거름으로.)

김보향 걸름으로? (거름으로?)

현정자 게민 그거 불치가 잘도 좋아. 농사지민. 지금 불치 시민 저 무시거. (그럼 그거 재가 아주 좋아. 농사지으면. 지금 재 있으면 저 뭐.)

양인필 고구마 심을 때, 메밀 심을 때. (고구마 심을 때, 메밀 심을 때.)

현정자 귤나무에도 그거 노민 막 좋아. 발이 살앙 작 벋엉 좋은디 요샌 불치가 엇주게. (귤나무에 그거 놓으면 아주 좋아. 발이 살아서 쫙 벋어서 좋은데 요샌 재가 없지.)

김보향 게민 정제, 여기 정제에 여기 솟덕 노민 여기 불치 모으는 데가 따로 잇엇수꽈? (그럼 부엌, 여기 부엌에 여기 봇돌 놓으면 여기 재 모으는 데가 따로 있었습니까?)

양인필 따로 잇엇주. (따로 있었지.)

현정자 으, 등어레. (으, '등어레'.)

김보향 등어레? ('등어레'?)

양인필 등어레 좀 잇고, 그디 차민 딴 데 갖당 놓고. ('등어레' 좀 있고, 거기 차면 딴 데 가져다 놓고.)

현정자 여기 여기 영헹 솟 앚진 디민 요 뒤에 골른 거 영 잇주게. 그민 이레 불칠 영 밀려. 밀려근에 ᄀᆞ득으민 담아당 농사져. 감저도 심곡, 조 볼리는 데도 놓곡 기자 하민. (여기 여기 이렇게 솥 앉힌 데면 요 뒤에 고른 거 이렇게 있지. 그럼 이리 재를 이렇게 밀어. 밀어서 가득하면 담아다가 농사져. 고구마도 심고, 조 밟는 데도 놓고 그저 많으면.)

김보향 솟디서, 솟디서 밥허젠 허민 불 솜젠 허민 영 앉앙 불 때젠 허민 힘들잖아? 여기 뭐 놔? (솥에서, 솥에서 밥하려고 하면 불 때려고 하면 이렇게 앉아서 불 때려고 하면 힘들잖아? 여기 뭐 놔서?)

현정자 방석. (방석.)

김보향 방석. 방석 뭐로 만들엇수꽈? (방석. 방석 뭐로 만들었습니까?)

현정자 촐 그 새 비어당 만들아. (꼴 그 띠 베어다가 만들어.)

양인필 초가집이난 초가집 일, 저 줄 매단 나머지. (초가집이니까 초가집 일, 저 줄 매다가 나머지.)

현정자 줄, 줄. 그걸로 영 만들아. (줄, 줄. 그걸로 이렇게 만들어.)

김보향 지붕 일 때 줄 매난 그 집줄 가졍예, 만들엉? (지붕 일 때 줄 맸던 그 '집줄' 가지고요, 만들어서?)

현정자 그걸로 만들앙. (그걸로 만들어서.)

김보향 그걸로도 허고, 낭 방석도 만들언? (그걸로도 하고, 나무 방석도 만들었어?)

현정자 응, 낭방석은 내중에라 가난. 그거 낭방석이엥 헌 건 요새처럼 널작허게 안 헤영 그자 토막. 낭토막 짤라긴에 방석. (응, 나무방석은 나중에 가니까. 그거 나무방석이라고 하는 건 요새처럼 넓적하게 안 하고 그저 토막. 나무토막 잘라서 방석.)

김보향 예, 그민 이건, 이거는 집줄, 줄방석이렌 골앗수꽈? (예, 그러면 이건, 이거는 '집줄', '줄방석'이라고 말했습니까?)

현정자 줄방석이엔 골안. ('줄방석'이라고 말했어.)

김보향 여기 의귀리는 초가지붕을 얼마만에 한 번씩 일엇수꽈? (여기 의귀리는 초가지붕을 얼마만에 한 번씩 일었습니까?)

현정자 일 년에 ᄒᆞᆫ 번. (일 년에 한 번.)

양인필 매년. (매년.)

김보향 매년. (매년.)

현정자 건 웨그냐면 바람이 불거든. 바람이 세거든. (건 왜냐하면 바람이 불거든. 바람이 세거든.)

김보향 맞수다, 맞수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현정자 매년, 일 년에 한 번 꼭 헤야. (매년, 일 년에 한 번 꼭 해야.)

김보향 이젠 정지에 다 골아신가? 정지에 이신 거? 부섭이 정지에 잇지는 안헷지예?

(이젠 부엌에 다 말했나? 부엌에 있는 거? '부섭'이 부엌에 있지는 않았지요?)

현정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양인필 건 마루에. (건 마루에.)

김보향 게민 마루에만 부섭이 잇어예. 그 부섭 말고 그 화로 말고 따로 이렇게 화로도 잇어낫수꽈? (그럼 마루에만 '부섭'이 있어요. 그 '부섭' 말고 그 화로 말고 따로 이렇게 화로도 있었습니까?)

양인필 정동화리엔 헨 방에서 쓰는 거, 방에서 쓰는 거. ('정동화로'라고 해서 방에서 쓰는 거, 방에서 쓰는 거.)

현정자 건 화로. (건 화로.)

김보향 정동화리예? (정동화로요?)

현정자 세 발 돋은 정동화리. (세 발 돋은 정동화로.)

김보향 세 발 돋은 정동화리. 화로는 그거 따로 잇고, 이 동네는 돌화리가 영 움직여 다니는 돌화리는 따로 엇엇수꽈? (세 발 돋은 정동화로. 화로는 그거 따로 있고, 이 동네는 돌화로가 이렇게 움직여 다니는 돌화로는 따로 없었습니까?)

현정자 아니, 돌화리로 움직거령 엿날엔 뎅기지 안혀곡. (아니, 돌화로로 움직거려서 옛날에는 다니지 않고.)

김보향 틋난게. (다르네.)

양인필 돌화리도 잇엇는데. (돌화로도 있었는데.)

현정자 기자 부섭으로 만들고, 돌화리 들렁 뎅기는 건이, 호쏠 저 개발뒈가난 돌화리 헷주, 돌화린. (그저 부섭으로 만들고, 돌화로 들고 다니는 건, 조금 저 개발돼 가니까 돌화로 했지, 돌화로는.)

김보향 게난예, 이게 좀 틋난 게 이 남원리나 서귀포는 부섭이 잇어예. 저짝 편엔 엇수다. (그러니까요, 이게 좀 다른 게 이 남원리나 서귀포는 부섭이 있어요. 저쪽 편에는 없습니다.)

현정자 엇언? (없었어?)

김보향 예, 우린 저기 구좌디예, 거긴 돌화리가 잇어. 들렁 뎅기는 돌화리. (예, 우린 저기 구좌인데요, 거긴 돌화로가 있어. 들고 다니는 돌화로.)

현정자 응, 들렁 뎅경이. 여기는 안 들렁 뎅겨. (응, 들고 다녀서. 여기는 안 들고 다녀.)

김보향 맞수다, 맞수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양인필 돌화리 소랑한 것도 잇고, 막 큰 것도 잇고. (돌화로 길쭉한 것도 있고, 아주 큰 것도 있고.)

현정자 동글락헌 것도 잇고게. 저 그 돌화리도 알아지는데 이디선 그런 거 사용을 아니 헤 봣어. (동그란 것도 있고. 저 그 돌화로도 아는데 여기선 그런 거 사용을 안 해 봤어.)

김보향 이제 부섭에, 부섭에 영 숫들 거리고 하젠 허민 또?
(이제 '부섭'에, '부섭'에 이렇게 숯들 뜨고 하려고 하면 또?)

현정자 접제기 잇주게. (집게 있지.)

김보향 접제기 잇주게, 그거 뭐렌 골앗수꽈, 접제기? (집게 있지. 그거 뭐라고 말했습니까, 집게?)

현정자 아니, 그땐 접제기엔 골앗어. (아니, 그땐 '접제기'라고 말했어.)

김보향 불젓가락 골앗수꽈? (부젓가락 말했습니까?)

현정자 경, 경은 곧주게. (그렇게, 그렇게는 말하지.)

양인필 불젓가락, 숟가락도 잇엇어. (부젓가락, 숟가락도 있었어.)

김보향 숟가락도 잇어예? 부젓가락? (숟가락도 있어요? 부젓가락?)

현정자 불 접제기. 저 숯불 담는 숟가락도 잇주게. (불 집게. 저 숯불 담는 숟가락도 있지.)

김보향 숟가락도 잇고예. (숟가락도 있고요.)

현정자 옆에 놩. 그것도 잇주. 호쏠 큰 거. (옆에 놔서. 그것도 있지. 조금 큰 거.)

김보향 불젓가락을 영 숫 줍을 때도 썻지만 여기 걸치는 것도 썻수꽈?
(부젓가락을 이렇게 숯 집을 때도 썼지만 여기 걸치는 것도 썼습니까?)

양인필 적쉐. (석쇠.)

김보향 적쉐. (석쇠.)

현정자 저 무시거 건 고기 굽젠 헤민, 적쉐. (저 뭐 건 고기 구우려고 하면, 석쇠.)

김보향 뭐 헐 때 고기를 구웟어? (뭐 할 때 고기를 구웠어?)

양인필 적갈. (적.)

현정자 저 무시거게, 아무거 헐 때라도. (저 뭐, 아무거 할 때라도.)

김보향 적갈을예, 뒈지고기 솖으민 그거 여자가 적갈을 다 헷수꽈?
(적을요, 돼지고기 삶으면 그거 여자가 적을 다 했습니까?)

현정자 남자. (남자.)

김보향 예, 어디서? (예, 어디서?)

양인필 저 남자가 다 헷주. 적갈은 남자가 허곡 떡은 여자가 허곡. (저 남자가 다 했지.

적은 남자가 하고 떡은 여자가 하고.)

김보향 맞수다, 맞수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현정자 겨난 엿날엔 적갈은 일체 여자 손 안 대언, 남자. 다 써는 거고. (그러니까 옛날엔 적은 일체 여자 손 안 대고, 남자. 다 써는 거고.)

김보향 그니까 솖는 것부터 남자가 헤연? 솖는 건 여자가 허민? (그러니까 삶는 것부터 남자가 했어? 삶는 건 여자가 하면?)

양인필 솖는 건 엇주. 저 다 생걸로, 생걸로 허여. (삶는 건 없지. 저 다 생것으로, 생 것으로 해.)

현정자 저, 적갈 하는 건 안 헤여. (저 적 하는 거 안 해.)

김보향 여기는 생걸로 썰엉 구워수꽈? (여기는 생것으로 썰어서 구웠습니까?)

양인필 어, 기름장 불르멍 구웟어. 정성을 막 들이주. (어, 기름장 바르면서 구웠어. 정성을 막 들이지.)

현정자 이딘 솖진 안헤연. 엿날부터 솖진 안허연, 기자. (여긴 삶지는 않았어. 옛날부터 삶진 않았어, 그저.)

김보향 게믄 삼춘, ᄆᆞ른 생선도 구워야 뒐 거 아니꽈? 게민 그거 굽는 것도 남자가 허는 거? (그럼 삼촌, 마른 생선도 구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굽는 것도 남자가 하는 거?)

양인필 남자가 헤연. (남자가 했어.)

현정자 이 제숙이엥 헌 건 남자. 여자가 안 헤여. (이 '제숙'이라고 하는 건 남자. 여자가 안 해.)

김보향 삼춘 혹시 술도 헤봣수꽈? (삼촌 혹시 술도 해 봤습니까?)

현정자 술도 헤 봣주게. (술도 해 봤지.)

김보향 그 술 허젠 허민 뭐가 필요허여? (그 술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

현정자 누룩. (누룩.)

김보향 누룩도 잇어야 뒈고 영 소주 내리는 거 똑똑똑똑똑 내리는 거? (누룩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소주 내리는 거, 똑똑똑똑똑 내리는 거?)

양인필 떨어지는 거? 아, 고소리. (떨어지는 거? 아, 소줏고리.)

김보향 예예. (예예.)

현정자 아, 술 짜는 거? 고소리게, 고소리. 술 멘들아 놔긴에 헐 때엔 고소리에 술 그 만든, 궤민 담아. 알로. (아, 술 짜는 거? 소줏고리, 소줏고리. 술 만들어 놓고 할 때에는 고소리에 술 그 만든, 괴면 담아. 아래로.)

김보향 게난 게난 궤는 것부터 먼저 골아 줍서. 어떵 궬 거라? 항아리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괴는 것부터 먼저 말해 주세요. 어떻게 괼 거야? 항아리에?)

현정자 아니, 솟디서. (아니, 솥에서.)

김보향 솟디서? (솥에서?)

현정자 솟딜 노민 고소릴 솟 우트레 놓아. 놓아긴에 또 그 바윌 다 돌아가멍. (솥에 놓으면 소줏고리를 솥 위로 놓아. 놓아서 또 그 가장자리를 다 돌아가면서.)

양인필 그건 저, 술 다 뒌 다음에. (그건 저, 술 다 된 다음에.)

현정자 저, 게메게. 짐 아이 나가게 다 영 붙여 불어. 가루 헤여근에 영 좁앙. (저, 글쎄. 김 안 나가게 다 이렇게 붙여 버려. 가루 해서 이렇게 집어서.)

김보향 고소리 위로예? (소줏고리 위로요?)

현정자 솟, 솟이 요 솟바위에 앚져살 거 아니라? 게민 그딘 짐 못 나가게 헤여. 헤여긴에 궤여 가민 요 고소리 존등이로 술이 나오주. 경허곡 고소리 이 우엔 물 놓곡. (솥, 솥이 요 솥 가장자리에 앉혀야 할 거 아니야? 그럼 거긴 김 못 나가게 해. 해서 끓어가면 요 소줏고리 부리로 술이 나오지. 그리고 소줏고리 이 위에는 물 넣고.)

김보향 아, 삼춘 여기 고소리민 여기 영 나와 잇는 거 고소리 존등이? (아, 삼촌 여기 소줏고리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소줏고리 '존등이'?)

현정자 존등이로. ('존등이'로.)

양인필 코. (코.)

김보향 예, 고소리 코. (예, 소줏고리 코.)

현정자 존등이로. ('존등이'로.)

김보향 아, 예. 고소리 좃이라고는 안 하고? (아, 예. 소줏고리 '좇'이라고는 안 하고?)

양인필 코옌 헤. (코라고 해.)

김보향 아, 코옌 헤예. (아, 코라고 해요.)

현정자 코옌 허고 고소리 존등이로 나오지게. (코라고 하고 고소리 부리로 나오지.)

김보향 존등이로 나와. 자, 여긴 솟이우다예. 고소리 앚졋수다예. (부리로 나와. 자, 여긴 솥입니다. 소줏고리 앉혔습니다.)

현정자 그민 이 바위 저 가루 물 헤여긴에 반죽헤영 불라 불주게게. (그럼 이 가장자리 저 가루 물 해서 반죽해서 발라 버리지.)

김보향 예, 게민 이 우인 뭐 얹어야 뒐 거 아니? (예, 그럼 이 위엔 뭐 얹어야 될 거 아니?)

현정자 우엔 그디 저 물 놓아. (위엔 거기 저 물 넣어.)

김보향 장태 헹? (장태 해서?)

현정자 응. (응.)

김보향 여기 물 놓앙예. (여기 물 넣어서예.)

현정자 게난 중간, 중간으로 그 영 나오는 게 시난 물 나오는 거. 글론 술.(그러니까 중간, 중간으로 그 이렇게 나오는 게 있으니까 물 나오는 거. 그리로는 술.)

김보향 겐디 여기 고소리에 술 언치기 전에 항아리에 뭔가 담아 둬야 뒐 거 아니? (그런데 여기 소줏고리에 술 앉히기 전에 항아리에 뭔가 담가 둬야 될 거 아니?)

양인필 술 담아사, 술이 뒈사 고소리로 헨. (술 담가야, 술이 돼야 소줏고리로 해서.)

현정자 게메, 겐 술 뒌 다음에 고소리에 허주게. (글쎄, 그래서 술 된 다음에 소줏고리에 하지.)

김보향 술 뒈는 거를 골아 줍서. (술 되는 거를 말해 주세요.)

양인필 골아 도렌. (말해 달래.)

현정자 아, 술 허는 건, 술 허는 건 예를 들엉. (아, 술 하는 건, 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양인필 오메기떡 허영. ('오메기떡' 해서.)

현정자 그땐 쌀만을 허젠 허민 쌀이 엇이난. 쏠만 담은 술은 맛이 조는디, 감절 서껑 허주게, 게난. (그때는 쌀만을 하려고 하면 쌀이 없으니까. 쌀만 담근 술은 맛이 좋은데, 고구마를 섞어서 하지, 그러니까.)

양인필 감저술이 뚜로 잇엇주. (고구마술이 따로 있었지.)

현정자 감저 서꺼근에 누룩 놔근엥 뒈직허게 헤영 영 젓엉 놔두어. 젓어근에 그땐 검질헤영 베껏디로 싸. 거 뚜삿아 궬 거난. 우엔 무시거 장태고 솟뚜껑이고 영 막아 뒁. 경헤긴에 검질로 싸곡 춤 요런 거라도 그땐 엇인 때주게. 경허당 무신 주, 주럭이옝 헤, 우리 할망덜. 주룩 헤당 술항 쌋어게 영 허멍 허주게. 경허민 그거 궨 다음에 바글바글 궨 때는, 바글바글 궨 때는 아니 허고. 바글바글 궨 땐 아니 허곡 그 막 궤엉 막 까지젠, 꺼지젠 헐 때 술을 짜주게. (고구마 섞어서 누룩 넣어서 되직하게 해서 이렇게 저어서 놔둬. 저어서 그땐 검불 해서 밖으로 싸. 거 따뜻해야 괼 거니까. 위에 뭐 장태고 솥뚜껑이고 이렇게 막아 둬서. 그렇게 해서 검불로 싸고 참 요런 거라도 그땐 없는 때지. 그러다가 무슨 주, '주럭'이라고 해, 우리 할머니들. 헝겊 해다가 술독 쌌어. 이렇게 하면서 하지. 그러면 그거 괸 다음에 부글부글 괸 때는, 부글부글 괸 때는 안 하고. 부글부글 괸 땐 안 하고 그 막 괴어서 막 꺼지려고, 꺼지려고 할 때 술을 짜지.)

김보향 예예, 메칠이나 경 담으민 술이 궵니까? (예예, 며칠이나 그렇게 담으면 술이 괍니까?)

현정자 아이고, 그건 저 일기에 메영. (아이고, 그건 저 일기에 따라서.)

김보향 일기에 메영. (일기에 따라서.)

현정자 이런 거라도 헤영 뚜시게 헤사. (이런 거라도 해서 따뜻하게 해야.)

김보향 예, 게난 삼춘 술도 영 잘 멘들아낫수꽈? (예, 그러니까 삼촌 술도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까?)

현정자 나 술 혼번 술장시허젠, 그땐 술을 담으민 껄려낫어. 그 저 조사 뎅경. 조사 뎅경 허난. 난 술 담을 충도 몰르고 시집오란 군대 가 분 때난 아무것도 몰른 때라. 몰르난 요 옆이 친척 할망이 잇어신디 할망은 당신네 집이서 담으민 껄리카 부덴 날ᄀᆞ라 "아이고, 아시야, 저 아시네 고팡에서 술 혼디 담게." 허난 난 뭣도 모르고 "경헙서." 헹 기자 담앗주. 담안 내중엔 보난 그 껄리민 과로 내고 허는 걸 몰란 허락헹 헤낫어게. 경헹 혼번 술 담는 거 헤낫주. (나 술 한번 술장사하려고, 그땐 술을 담그면 걸렸었어. 그 저 조사 다녀. 조사 다녀서 하니까 난 술 담글 줄도 모르고 시집와서 군대 가 버린 때니까 아무것도 모른 때야. 모르니까 요 옆의 친척 할머니가 있었는데 할머니는 당신네 집에서 담그면 걸릴까 봐 날보고 "아이고, 아우야, 저 아우네 고방에서 술 같이 담그자." 하니까 난 뭣도 모르고 "그렇게 하세요." 해서 그저 담갔지. 담가서 나중에는 보니까 그 걸리면 과로 내고 하는 걸 몰라서 허락해서 했었어. 그래서 한번 술 담그는 거 했었지.)

김보향 삼춘, 그럼 술 영 허면 하영 만들민 이 술만 담는 뭐가 잇잖아예? (삼촌, 그럼 술 이렇게 하면 많이 만들면 이 술만 담는 뭐가 있잖아요?)

현정자 저 두리병. (저 '두리병'.)

김보향 두리병, 어떤 거? ('두리병'. 어떤 거?)

현정자 저 사기로 만들앙 굽은 이만이 허고. (저 사기로 만들어서 굽은 이만큼 하고.)

양인필 허벅보단 작은 거. ('허벅'보다는 작은 거.)

현정자 영 길어, 길어. 목자린 영 길어, 길어. (이렇게 길어, 길어. 목은 이렇게 길어, 길어.)

김보향 이거 이거 길어예. 그거 이름이 뭐라? 다시 한번만? (이거 이거 길어요. 그거 이름이 뭐야? 다시 한번만?)

현정자 두루병이엥 골아낫어. 두루벵이엔 골아낫어. 두루병. ('두루병'이라고 말했었어.

'두루벵'이렌 말했었어. '두루병'.)

김보향 두루병? 등덜펭? 등절펭? ('두루병'? '등덜펭'? '등절펭'?)

양인필 두리병. 두리병. ('두리병'. '두리병'.)

김보향 두리병? 두루병? ('두리병'? '두루병'?)

현정자 게난 그거 저 북군허곡 이디허곡 곧는 것도 사투리가 틀리주게. (그러니까 그거 저 북군하고 이디하고 말하는 것도 사투리가 다르지.)

김보향 예, 좋수다. 삼춘네는 두루병예. 두루병예. 항아리는 요렇게 볼록허고 주둥이도 이렇게 나와 잇는예? 예예. 그거이고, 술 하영 담아 두젠 허민 술추니도 잇어나지 안헤영? (예, 좋습니다. 삼촌네는 '두루병'요. '두루병'요. 항아리는 요렇게 볼록하고 주둥이도 이렇게 나와 있는요? 예예. 그거이고, 술 많이 담아 두려고 하면 '술추니'도 있었지 않아?)

양인필 술추니도 잇엇주. ('술추니'도 있었지.)

현정자 그거는 제라허게 장사술 하영 담는 거. (그거는 완전히 장사 술 많이 담는 거.)

김보향 맞아. (맞아.)

현정자 게난 사 올 때도 그 추니로 사 오민 이만은 높아이. 이만이 높으고 일로 비웁는 디도 잇주게. 겐디 그거는 장삿칩에서 아져 오주, 개인 칩이 추니가 힘들어, 잇인 집이가. 가다오다나 잇주. (그러니까 사 올 때 그 '추니'로 사 오면 이만큼 높아. 이만큼 높고 이리로 붓는 데도 있지. 그런데 그거는 장삿집에서 가지고 오지, 개인 집에 '추니'가 힘들어, 있는 집이. 오다가다나 있지.)

김보향 그 아까 고소리 존등이에서 술 떨어지잖아예? 똑똑똑 떨어질 때 밑에 뭐에 받앗수꽈? (그 아까 소줏고리 부리에서 술 떨어지잖아요? 똑똑똑 떨어질 때 밑에 뭐에 받았습니까?)

현정자 그건 혼이 엇어. 아무거라도, 기자. 저, 그 받는 게 똑 쪼꼴락헌 단지. (그건 한이 없어. 아무것이라도, 그저. 저, 그 받는 게 똑 조그마한 단지.)

김보향 단지? (단지?)

현정자 째끌락헌 단지. (자그마한 단지.)

김보향 이, 이 두루병에 직접 받진 안헤연? (이, 이 '두루병'에 직접 받지는 않았어?)

양인필 허벅에 직접 받음도 헷주. ('허벅'에 직접 받기도 했지.)

현정자 아니, 아니. 두루병에 직접 받을 때도 잇엄주만은 보통은 기자. 받아 놩 그디 길어. (아니, 아니. '두루병'에 직접 받을 때도 있었지만 보통은 그냥. 받아 놓고 거기 길어.)

김보향 단지에 담아 놩 영 비우는 거예? (단지에 담아 놓고 이렇게 붓는 거요?)

현정자 보통은 비와. (보통은 부어.)

김보향 예예. (예예.)

목축 도구

김보향 쉐 질르젠 하민 쉐는 어디 멧수꽈? (소 기르려고 하면 소는 어디 맸습니까?)

현정자 쉐막에. (외양간에.)

양인필 쉐막이 잇주, 뚜루 영. (외양간이 있지, 따로 이렇게.)

현정자 밧거레 짓으민 그거 ᄀᆞ라 쉐막. 쉐 메난. (밭거리 지으면 그것보고 외양간. 소 맸던.)

김보향 영 쉐막에 들어가민 뭐가 잇수꽈? 뭐 보이는 거, 쉐막 안엔 뭐 뭐 잇수꽈? (이렇게 외양간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뭐 보이는 거, 외양간 안엔 뭐 뭐 있습니까?)

현정자 쉐막 안네 잠대여, 그 밧 가는 거 다 그디. (외양간 안에 쟁기여, 그 밭 가는 거 다 거기.)

양인필 메낭. 메낭이엔. ('메낭'. '메낭'이라고.)

김보향 예. (예.)

양인필 메낭이 잇어사 쉐 맬 거 아이라, 쉐 메는 메낭. ('메낭'이 있어야 소 맬 거 아니야, 소 매는 '메낭'.)

김보향 예, 예. 그럼예, 안에 들어가니까 쉐막이 영 네모반듯허우다. 메낭은, 여기가 들어오는 입구라예. (예, 예. 그럼요, 안에 들어가니까 외양간이 이렇게 네모반듯합니다. '메낭'은, 여기가 들어오는 입구예요.)

현정자 가운디. (가운데.)

김보향 예에. (예에.)

양인필 영 우리는 보통 영 갈랑 영 여기도 메곡, 영 헨 요게 메낭. (이렇게 우리는 보통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여기도 매고, 이렇게 해서 요게 '메낭')

김보향 예. (예.)

양인필 여기 또 이쪽으로도 메낭. (여기 또 이쪽으로도 '메낭'.)

김보향 예. (예.)

양인필 경헹. (그래서.)

김보향 그민 가운데로 여기 메낭이 이신 거? (그럼 가운데로 여기 '메낭'이 있는 거?)

현정자 · 양인필 으. (으.)

김보향 게민 여기, 이 안쪽으로 쉐를 멧 마리나 멧수꽈? (그럼 여기, 이 안쪽으로 소를 몇 마리나 맸습니까?)

현정자 세 ᄆᆞ리 메주. (세 마리 매지.)

양인필 보통 세 ᄆᆞ리. (보통 세 마리.)

현정자 세 ᄆᆞ리 메. ᄒᆞᆫ쪽에. (세 마리 매. 한쪽에.)

양인필 ᄒᆞᆫ ᄒᆞᆫ 칸에 세 ᄆᆞ리. 세 ᄆᆞ리 멜 때, 네 ᄆᆞ리 멜 때.(한 한 칸에 세 마리. 세 마리 맬 때, 네 마리 맬 때.)

현정자 네 ᄆᆞ리 허젱 허민 족아. (네 마리 하려고 하면 작아.)

김보향 세 ᄆᆞ리 메고, 여기 전체에 여섯 ᄆᆞ리는 멘 거? (세 마리 매고, 여기 전체에 여섯 마리는 맨 거?)

양인필 어. (어.)

김보향 · 권미소 아아. (아아.)

현정자 어, 여섯 ᄆᆞ리. (어, 여섯 마리.)

김보향 메낭 잇고. 이 먹이, 쉐촐이나 쉐죽이나 먹젠 허민 그릇 엇어난? 쉐들은? ('메낭' 있고. 이 먹이, 쇠꼴이나 소죽이나 먹으려고 하면 그릇 없었어? 소들은?)

현정자 그릇이 어디 셔게? 촐, 촐만 앗당 그디. (그릇이 어디 있어? 꼴, 꼴만 가져다가 거기.)

양인필 촐, 촐만 줘지. 저 밧 가는 소나 잇당 밧이나 갈레 가젠 허민 먹이를 멘들앙 은에. (꼴, 꼴만 줬지. 저 밭 가는 소나 있다가 밭이나 갈러 가려고 하면 먹이를 만들어서.)

현정자 그거 힘들어. (그거 힘들어.)

양인필 ᄒᆞᆫ 솟 끓영 ᄒᆞ는 사름도 잇곡, 기자 버무령. (한 솥 끓여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저 버무려서.)

김보향 버무령. (버무려서.)

양인필 썰엉은에 버무령 멕임도 허곡. (썰어서 버무려서 먹이기도 하고.)

현정자 촐에 버무령. (꼴에 버무려서.)

김보향 이 메낭에 메젠 허민 요기 뿔에 헹 멜 거잖아예. 이걸 뭐렌 부릅니까? (이 '메낭'에 매려고 하면 여기 뿔에 해서 맬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양인필 녹대. (고삐.)

현정자 녹대, 녹대, 쉐. (고삐, 고삐, 소.)

김보향 이건 녹대. 여기 하는 게 녹대 아니고? (이건 고삐. 여기 하는 게 고삐 아니고?)

양인필 아니 아니, 뿔에 허는 게 녹대. (아니 아니, 뿔에 하는 게 고삐.)

현정자 뿔에, 뿔에 걸치는 거 그거 영 헹 메는 거 녹대. (뿔에, 뿔에 걸치는 거 그거 이렇게 해서 매는 거 고삐.)

양인필 이거, 이거 쓰는 건 망울. (이거, 이거 쓰는 건 부리망.)

현정자 망울. (부리망.)

김보향 망울, 뭐 먹지 말렌 씌우는 건 망울. 이거 녹대라예. 그 나이론 줄 나오기 전에 이런 녹대는 뭐로 멘들앗수꽈? (부리망, 뭐 먹지 말라고 씌우는 건 부리망. 이거 고삐지요. 그 나일론 줄 나오기 전에 이런 고삐는 뭐로 만들었습니까?)

양인필 신사라. (뉴질랜드삼.)

김보향 신사라? (뉴질랜드삼?)

현정자 질기주게, 신사라가. (질기지, 뉴질랜드삼이.)

김보향 질기, 그 녹대를 한번 멘들어 봅서. 신사라 그차 왕 어떵할 거? (질기, 그 고삐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뉴질랜드삼 잘라 와서 어떡할 거?)

양인필 어떵허느니. (어떡하니.)

현정자 두드려. (두드려.)

양인필 그 신사라 두드령 ᄆᆞᆯ류왕. (그 뉴질랜드삼 두드려서 말려서.)

김보향 두드리젠 허민 뭐가 잇어야 뒐 거꽈? (두드리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될 겁니까?)

현정자 마께. (방망이.)

양인필 마께 잇어사주게. (방망이 있어야지.)

김보향 덩드렁? ('덩드렁'?)

양인필 던드렁마께, 던드렁. ('던드렁마께', '던드렁'.)

현정자 저, 아래 돌. (저, 아래 돌.)

양인필 던드렁이 집이마다 다 잇어. ('던드렁'이 집마다 다 있어.)

김보향 그민 아래 돌은 덩드렁이고? (그럼 아래 돌은 '덩드렁'이고?)

현정자 마께. (방방이.)

김보향 두드리는 마께는? (두드리는 방망이는?)

현정자 마께, 경허민 덩드렁마께, 덩드렁마께. (방망이, 그러면 '덩드렁마께', '덩드렁마께'.)

김보향 덩드렁마께. 그걸로 막 두드려? ('덩드렁마께'. 그걸로 막 두드려?)

양인필 두드령 ᄆᆞᆯ류와. (두드려서 말려.)

현정자 두드령은에 그걸 복삭 헤민 ᄆᆞᆯ류와. 경헹. (두드려서 그걸 폭삭 하면 말려. 그래서.)

양인필 그걸 쎄영, 쎄영 노 꼬앙. 그걸 또 뭐이라는가, 드령. (그걸 쏘여, 쏘여서 노 꼬아

서. 그걸 또 뭐라는가, 드려서.)

김보향 드령? (드려서?)

양인필 음, 드령. 세 곱 헤야 쉐녹대 ᄒᆞ나가 뒈주. (음, 드려서. 세 겹 해야 소고삐 하나가 되지.)

김보향 드리는 게 뭐꽈? (드리는 게 뭡니까?)

현정자 드리는 건. (드리는 건.)

양인필 꼬는 거주, 따시. (꼬는 거지, 또.)

현정자 아니. 거 이레 주라, 보저. 나가 이거를 헤민이, 처음엔 영 헤긴에 요걸 영, 영 헨 꼰 거라. 꼬민 드리는 거는 또 딴 거 ᄒᆞᆫ 곱 헤여근에 요레 또 트멍으로 쏙쏙허게 들어가. 경 헹. (아니. 거 이리 줘라, 보자. 내가 이거를 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요걸 이렇게, 이렇게 해서 꼬는 거야. 꼬면 드리는 거는 또 다른 거 한 겹 해서 요리 또 틈으로 쏙쏙 들어가. 그렇게 해서.)

김보향 한 번 꼬앙 또 다시? (한 번 꼬아서 또 다시?)

현정자 그다음에는 꼽, 저 ᄯᅩ루 하나 헤여긴에. (그다음에는 꼽, 저 따로 하나 해서.)

양인필 세 번 허고, 세 번. (세 번 하고, 세 번.)

현정자 그 트멍으로 쏙쏙허게 올라강 세 곱이 뒈민. (그 틈으로 쏙쏙 올라가서 세 겹이 되면.)

양인필 경혜영 코 멘들곡 헤여근에. (그래서 코 만들고 해서.)

현정자 코 멘들고 헤근에. 든든헤여. (코 만들고 해서. 단단해.)

양인필 소뿔에 걸려낫주. (소뿔에 걸렸었지.)

현정자 처음은 두 곱으로만 영 꼬아 놩. 영 꼬민 틈이가 영 영 다 잇지? (처음은 두 겹으로만 이렇게 꼬아 놓고. 이렇게 꼬면 틈이 이렇게 이렇게 다 있지?)

김보향 으. (으.)

현정자 게민 그 트멍더레 또 영 여꺼 가는 거라. (그럼 그 틈에 또 이렇게 엮어 가는 거야.)

김보향 영 여끄는 거 뭐 엇어도? (이렇게 엮는 거 뭐 없어도?)

현정자 아니, 손으로, 손으로. (아니, 손으로, 손으로.)

김보향 손으로 여꺼집니까? (손으로 엮을 수 있습니까?)

양인필 손으로 지둥에 메영은에 드려. (손으로 기둥에 매서 드려.)

현정자 막 든든허게 허여. (아주 단단하게 해.)

양인필 드린덴 허주, 그것ᄀᆞ라. (드린다고 하지, 그것보고.)

김보향 거 어디에 메영 드려? (거 어디에 매어서 드려?)

현정자 지둥. (기둥.)

양인필 기둥. (기둥.)

김보향 지둥에 메엉 드려. 예. (기둥에 매서 드려. 예.)

현정자 그걸 쉐녹댈 허젱 헤민 완전 질기게 든든허게 헤사난이. (그걸 소고삐를 하려고 하면 완전 질기게 단단하게 해야니까.)

양인필 호렝이로 또 데우고 경헤근에. ('호렝이'로 또 틀고 그래서.)

현정자 지둥에 ᄒᆞᆫ꼿은 딱 무끄곡 ᄒᆞᆫ꼿은 심어. (기둥에 한끝은 딱 묶고 한끝은 잡아.)

김보향 심엉. (잡고.)

현정자 경헹. (그래서.)

김보향 영 영 드리는 거예. (이렇게 이렇게 드리는 거요.)

현정자 둥기멍. (당기면서.)

김보향 게난 신사라로도 녹대 허곡 또? (그러니까 뉴질랜드삼으로도 고삐 하고 또?)

현정자 신사라는 재료주게, 재료. (뉴질랜드삼은 재료지, 재료.)

김보향 맞수다, 맞수다. 또 녹대 만들 때 다른 거 뭐 써난 거 잇수꽈? (맞습니다, 맞습니다. 또 고삐 만들 때 다른 거 뭐 썼던 거 있습니까?)

현정자 끅도 써나고. (칡도 썼었고.)

김보향 끅도 써나고예? (칡도 썼었고요?)

현정자 아이고, 찍도 쓰고 ᄒᆞᆫ이 엇주게. (아이고, 칡도 쓰고 한이 없지.)

김보향 맞수다, 맞수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현정자 어게, 게난 질긴 것이. (그래, 그러니까 질긴 것이.)

김보향 여기, 여기 하는 건 녹대라예? 겐디 이 쉐를 밭에 강 풀을 멕이젠 허민? 질게 영 영? (여기, 여기 하는 건 고삐지요? 그런데 이 소를 밭에 가서 풀을 먹이려고 하면? 길게 이렇게 이렇게?)

현정자 줄대. 저, 줄대. ('줄대'. 저, '줄대'.)

김보향 줄대, 예예, 영 영 허는 건 줄대. ('줄대', 예예,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 '줄대'.)

양인필 줄레, 줄레. ('줄레', '줄레'.)

김보향 줄레? 줄레이고. ('줄레'? '줄레'이고.)

현정자 줄레, 줄레, 줄레. ('줄레', '줄레', '줄레'.)

양인필 어, 줄레 맞아. (어, '줄레' 맞아.)

김보향 영 연결한 건 줄레이고, 이젠 그걸 도망가지 말렌 땅에 톡 박아둔 건? (이렇게 연결한 건 '줄레'이고, 이젠 그걸 도망가지 말라고 땅에 톡 박아둔 건?)

현정자 말툭. (말뚝.)

양인필 말툭. (말뚝.)

김보향 예. 말? (예. 말?)

현정자 말툭. (말뚝.)

김보향 자, 말툭이꽈, 몰톡이꽈? (자, '말툭'입니까, '몰톡'입니까?)

현정자 말툭이엔 골아. 이디선 몰톡이엔은 안 혀고. ('말툭'이라고 말해. 여기선 '몰톡'이라고는 안 하고.)

양인필 말도 메곡, 소도 메곡 다 메어. (말도 매고, 소도 다 매.)

현정자 두 개 다 메난. (두 개 다 맸었어.)

김보향 그 말툭은 뭐로 멘들앗수과? (그 '말툭'은 뭐로 만들었습니까?)

현정자 쒜루. (쇠로.)

양인필 아니, 쒜로 멘든 적도 잇주만은 제일 질긴 나무. (아니, 쇠로 만든 적도 있지만 제일 질긴 나무.)

현정자 처음 헐 땐양. (처음 할 때는요.)

양인필 조록이나 저 뭐인가, 산에 가민 진달래나무. (조록나무나 저 뭐인가, 산에 가면 진달래나무.)

김보향 진달래나무를 옛날에는 뭐렌 골아신고예? 아, 좋수다. 조록이낭. 진달래낭, 예. (진달래나무를 옛날에는 뭐라고 말했는가요?, 아, 좋습니다. 조록나무. 진달래나무, 예.)

양인필 진달래나무를. 그런 것이 제일 질기주게. (진달래나무를. 그런 것이 제일 질기지.)

현정자 낭 말툭 헐 때는 처음 원 첨, 아무것도 엇엉 헐 때 남 말툭 허곡. 불미가 나오라 가난 쒜 말툭 헷주게. 그때는 허젱 헤도 쒜 말툭 헐 수가 엇주게. (나무 말뚝 할 때는 처음 원 첨, 아무것도 없어서 할 때 나무 말뚝 하고. 대장간이 나와 가니까 쇠 말뚝 했지. 그때는 하려고 해도 쇠 말뚝 할 수가 없었지.)

김보향 의귀리도 불미가 셔낫수꽈? (의귀리도 대장간이 있었습니까?)

현정자 잇어낫어. 게난 불미가 나오난 쒜 말툭을 허고, 불미 나기 전인 낭 말툭. (있었어. 그러니까 대장간이 나오니까 쇠 말뚝을 하고, 대장간 나기 전에는 나무 말뚝.)

양인필 불미가 두 군데나 잇어낫어. (대장간이 두 군데나 있었어.)

김보향 · 권미소 아, 두 군데나? (아, 두 군데나?)

현정자 낭 말툭은 이녁 손으로 까까근엥 헷주게. (나무 말뚝은 자기 손으로 깎아서 했지.)

김보향 맞수다. 그 불미가 언제 나왓수꽈, 의귀리에? (맞습니다. 그 대장간이 언제 나왔습니까, 의귀리에?)

양인필 사삼사건. (사삼사건.)

현정자 후에. (후에.)

양인필 직, 직전에도 잇주만은, 직후에 제주, 제주시 사람이 와서 헤낫어. 요 저 지금 교회 잇는 그 쪼끔 도에서. (직, 직전에도 있지만, 직후에 제주, 제주시 사람이 와서 했었어. 요 저 지금 교회 있는 그 조금 입구에서.)

현정자 게난 해방뒌 다음에, 사삼사건 해방뒌 다음에. (그러니까 해방돼서 다음에, 사삼사건 해방된 다음에.)

김보향 게민 쉐 질르젠 허민 이제 말툭도 잇고예, 줄레도 잇고예, 녹대도 잇고예? (그럼 쇠 기르려고 하면 이제 말뚝도 있고요, '줄레'도 있고요, 고삐로 있고요?)

현정자 게난 다 이녁 손으로 만들앙. (그러니까 다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김보향 만들엉 헤난 거. (만들어서 했던 거.)

현정자 돈 엇이난 사지도 못허고. 이녁 손으로 다 만들앙. (돈 없으니까 사지도 못하고. 자기 손으로 다 만들어서.)

양인필 그때는 푸는 디도 엇엇주. (그때는 파는 데도 없었지.)

김보향 예예, 게민예, 그럼 이 쉐는, 쉐나 쉐를 하영 질럿수꽈, 몰을 질럿수꽈? (예예, 그럼요, 그럼 이 소는, 소나 소를 많이 길렀습니까, 말을 길렀습니까?)

현정자 우린 쉐 하영 질런. (우린 소 많이 길렀어.)

김보향 쉐 몃 ᄆᆞ리까지나 질러낫수꽈? (소 몇 마리까지나 길렀었습니까?)

양인필 쉐 여남은 ᄆᆞ리 질러낫주. (소 여남은 마리 길렀었지.)

현정자 우린 쉐 질르멍 밧도 사고. 그걸로 생활헷주. (우린 소 길르면서 밭도 사고. 그걸로 생활했지.)

김보향 게믄 쉐 풀앙 아이들 공부시키고 헷수꽈? (그럼 소 팔아서 아이들 공부시키고 했습니까?)

현정자 음, 음. 공분 못 시기곡 그거론 공분 못 시기고. (음, 음. 공부 못 시키고 그거론 공부는 못 시키고.)

김보향 밧 산? (밭 샀어?)

현정자 쉐 풀안 밧 삿주. (소 팔아서 밭 샀지.)

김보향 아, 그민 ᄋᆞ남은 ᄆᆞ리민 ᄒᆞᆫ 여섯 ᄆᆞ리, 일곱 ᄆᆞ리 헤난? (아, 그럼 여남은 마리면 한 여섯 마리, 일곱 마리 했었어?)

현정자 여섯 ᄆᆞ리. (여섯 마리.)

김보향 그민 쉐 먹이 허젠 허민? (그럼 소 먹이 하려고 하면?)

현정자 촐 비레. (꼴 베러.)

김보향 촐 비레 가야잖아예, 촐은 뭐로 강 비엇수꽈? (꼴 베러 가야잖아요, 꼴은 뭐로 가서 베었습니까?)

현정자 낫으로. ('낫'으로.)

김보향 낫으로. 낫이 어떵 생긴 거꽈? ('낫'으로. 낫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현정자 조룩은 이만. (자루는 이만.)

양인필 조룩은 길게, 이렇게. (자루는 길게, 이렇게.)

현정자 풀 비는 낫은 이렇게 뒈어. (풀 베는 '낫'은 이렇게 돼.)

양인필 이렇게 뒌 거주. (이렇게 된 거지.)

현정자 저디 잇어. (저기 있어.)

김보향 잇어? 옛날엔 아무것도 엇엇덴 헤신디 다 이신게. (있어?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는데 다 있네요.)

현정자 아이고. 아덜 오난 아졍 가 비엇저. 요제기. 아방은 저레 데껴 부난. (아이고, 아들 오니까 가져고 가 버렸어. 요전번. 아버지(남편)는 저리 던져 버리니까.)

김보향 그 쉐 ᄒᆞᆫ ᄆᆞ리 질르젠 허민 촐 멧 못을 헹 놔둬야 뒐 거? (그 소 한 마리 기르려고 하면 꼴 몇 뭇을 해서 놔둬야 될 거?)

양인필 서른 바리, 삼백 단. (서른 바리, 삼백 단.)

김보향 어, 게민 서른 바리예. 한 바리가 멧, 멧? 여기는 뭇이 아니고 단? 요거 하나? (어, 그럼 서른 바리요. 한 바리가 몇, 몇? 여기는 뭇이 아니고 단? 요거 하나?)

현정자 ᄒᆞᆫ 단, ᄒᆞᆫ 단. (한 단, 한 단.)

김보향 ᄒᆞᆫ 단. (한 단.)

현정자 서른 단이. (서른 단이.)

양인필 뭇이엔도 헤여. (뭇이라고도 해.)

김보향 뭇이엔도 헤예. 게난 이 단이 몇 개가 ᄒᆞᆫ 바리? (뭇이라고도 해. 그러니까 이 단이 몇 개가 한 바리?)

양인필 서른 개가 ᄒᆞᆫ 바리. 경허민 서른, 서른 바리민 ᄒᆞᆫ ᄆᆞ리 멕인덴 허주게, 보통.

(서른 개가 한 바리. 그러면 서른, 서른 바리면 한 마리 먹인다고 하지, 보통.)

김보향 서른 바리? 게민 구백 못인게. (서른 바리? 그럼 구백 못이네.)

양인필 음음, 구백 못. (음음, 구백 못.)

현정자 아이고, 확실헤지크라? 이젠 오래여 부난에. (아이고, 확실하겠어? 이젠 오래돼 버리니까.)

양인필 확실허주. (확실하지.)

김보향 촐 비레는 가젠 허민 낫 가졍 들렁 가고, 또 뭐 들렁 갓수꽈? (꼴 베러는 가려고 하면 '낫' 가지고 들고 가고, 또 뭐 들고 갔습니까?)

양인필 호미. (낫.)

권미소 호미? (낫?)

김보향 호미도 가졍 가고. 낫 골젠 허민 뭐도 셔야 뒐 거? (낫도 가지고 가고. 낫 갈려고 하면 뭐도 있어야 될 거?)

현정자 신돌. (숫돌.)

김보향 신돌. (숫돌.)

현정자 물. (물.)

김보향 물. (물.)

권미소 신돌. (숫돌.)

김보향 그 촐 비젠, 촐 빌 때 신돌 가졍 강 그? (그 꼴 베려고, 꼴 벨 때 숫돌 가지고 가서 그?)

현정자 골아사 뒈어. (갈아야 돼.)

양인필 골아사. (갈아야.)

김보향 멧 번을 곱니까? (몇 번을 갑니까?)

현정자 하이고, 저. (하이고, 저.)

양인필 기자 두 번. (그저 두 번.)

현정자 낮전. (낮전.)

양인필 두 번 세 번 쉴 때마다 ᄀᆞ는 사름도 잇고. (두 번 세 번 쉴 때마다 가는 사람도 있고.)

현정자 두 번, 낮후제 두 번은 골아야. 경 안혀민 비당 무끼민 잘 빨리 골질, 저 비질 못허주. 게난 두 번은 골아사. (두 번, 오후에 두 번은 갈아야. 그렇지 않으면 베다가 무디면 잘 빨리 갈질, 저 베질 못하지. 그러니까 두 번은 갈아야.)

김보향 두 번은 골아사. (두 번은 갈아야.)

현정자 낮전 두 번 낮후제 두 번. (낮전 두 번 오후에 두 번.)

김보향 맞수다. (맞습니다.)

현정자 경헤사. 골질 안헤민 혼춤 헤 나민 그게 무끼여. (그래야. 갈질 않으면 한참 하고 나면 그게 무뎌.)

김보향 맞수다. 쉐, 그 촐 먹이 주잖아예? 그거 말고 촐을 영, 영 영 썰엉도 줘낫수꽈? (맞습니다. 소, 그 꼴 먹이 주잖아요? 그거 말고 꼴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썰어서도 줬었습니까?)

현정자 으으, 썰엉두 주고. (으으, 썰어서도 주고.)

김보향 이거 뭘로 써는 거라? (이거 뭐로 써는 거야?)

양인필 작두. (작두.)

현정자 작두옝 허는가 작귀옝 허는가? 원, 몰르켜게. (작두라고 하는가 '작귀'라고 하는가? 원, 모르겠어.)

양인필 작두, 작두. (작두, 작두.)

김보향 음음, 작두로 영 영 영 썰엉 줘난 거. (음음, 작두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썰어서 줬던 거.)

현정자 지금도 경헴주. (지금도 그러고 있지.)

양인필 썰엉 일허레 가는 소나 멕이곡 경헷주. (썰어서 일하러 가는 소나 먹이고 그랬지.)

김보향 쉐는 질루멍 영 풀기도 헷주만은 야이 뭐 헐 때 써난마씨? (소는 기르면서 이렇게 팔기도 했지만 얘 뭐 할 때 썼었어요?)

양인필 밧 갈 때. (밭 갈 때.)

김보향 밧 갈 때. 밧 가는 쉐를? (밭 갈 때. 밭 가는 소를?)

양인필 밧 갈곡, 엿날에는 밧도 볼, 볼름도 허곡.(밭 갈고, 옛날에는 밭도 밟, 밟기도 하고.)

현정자 밧 가는 쉐는 밧갈쉐. (밭 가는 소는 '밧갈쉐'.)

김보향 볼름도 허고예. 자, 밧 가는 쉐는 뭐렌 골아? (밟기도 하고요. 자, 밭 가는 소는 뭐라고 말해?)

양인필 밧갈쉐. (밧갈소.)

김보향 밧갈쉐예. 여기 의귀는 밧갈쉐 남자 쉐가 헷수꽈? 여자 쉐가 헷수꽈? ('밧갈쉐'요. 여기 의귀는 '밧갈쉐' 남자 소가 했습니까? 여자 소가 했습니까?)

양인필 남자 쉐가, 보통은 남자. 음. (남자 소가, 보통은 남자. 음.)

김보향 남자 쉐예. 밧 갈젠 하민 쉐 ᄀᆞ리쳐살 거 아니꽈예? 밧 가는 거예? (남자 소요. 밭 갈려고 하면 소 가르쳐야 할 거 아닙니까? 밭 가는 거요?)

양인필 어어, 그렇주. (어어, 그렇지.)

김보향 멧 살 뒈면 야이를 ᄀᆞ르쳣수꽈? (몇 살 되면 얘를 가르쳤습니까?)

양인필 세 설 때 ᄀᆞ리쳐. (세 살 때 가르쳐.)

김보향 세 설을 뭐렌 골앗수꽈? (세 살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현정자 사릅. (사릅.)

김보향 예, 사릅 때 ᄀᆞ리칠 거라예. 쉐 ᄀᆞ리치는 걸 혼번 골아 봅서. 어떵 ᄀᆞ리쳐살 건지? (예, 사릅 때 가르칠 거지요. 소 가르치는 걸 한번 말해 보세요. 어떻게 가르쳐야 할 건지?)

양인필 어떵 ᄀᆞ리쳐? 앞에서 사람, 혼사람 이끄곡. 뒤에서 장기 메왕은에 메왕은에. (어떻게 가르쳐? 앞에서 사람, 한 사람 이끌고. 뒤에서 쟁기 메워서 메워서.)

현정자 그 부림패로 부림패로. (그 '부림패'로, '부림패'로.)

양인필 허처허처 허멍. ('허처허처' 하면서.)

현정자 확확 후리멍. (확확 후리면서.)

양인필 말 듣게시리 허는 거주. (말 듣게끔 하는 거지.)

현정자 게난. (그러니까.)

김보향 게난. (그러니까.)

현정자 쉐도 그 뒤에서 밧 갈, 잠대 심엉 가는 사름이 부림패로 확 후리민 쉐도 노래여, 노래여. 드러누워 보젠 허당도 일어사곡 아니 가 보젠 발버둥 치당도 가곡. (소도 그 뒤에서 밭 갈, 쟁기 잡고 가는 사람이 '부림패'로 확 후리면 소도 놀래, 놀래. 드러누워 보려고 하다가도 일어서고 안 가 보려고 발버둥 치다가도 가고.)

양인필 게난 꿰 부리는 쉐가 잇어. 엇지 안헹 잇는디, 사람이 잘 달래야. (그러니까 꾀 부리는 소가 있어. 없지 않고 있는데, 사람이 잘 달래야.)

김보향 게니까. (그러니까.)

양인필 큰소리치지 말곡, 것도 사람이나 다름 엇이 동물이난에. (큰소리치지 말고, 것도 사람이니까 다름 없이 동물이니까.)

김보향 맞수다. (맞습니다.)

양인필 으, 곱게 달래야. (으, 곱게 달래야.)

현정자 경허당 아이 들어가민. (그러다가 안 들어가면.)

양인필 달래면서 ᄀᆞ리쳥 놩은에 욕헐 거 욕허곡 경헤야 뒈는 거. (달래면서 가리쳐 놔서 욕할 거 욕하고 그래야 되는 거.)

김보향 겐디 이 쉐가 처음서부터 영 잠대 메왕 헤져? (그런데 이 소가 처음부터 이렇게 쟁기 메워서 할 수 있어?)

현정자 처음부떠. (처음부터.)

양인필 처음, 처음. (처음, 처음.)

현정자 처음은 낭토막 헹 헷어. (처음은 나무토막 해서 했어.)

양인필 저 잠대 아니 메왕은에. (저 쟁기 안 메우고.)

현정자 낭토막 끗엉. (나무토막 끌고.)

양인필 돌도 끗으곡 경 저 끄슬키도 끗으곡 헤영 혼 적도 잇엇주게. (돌도 끌고 그렇게 저 끙게도 끌고 해서 한 적도 있었지.)

김보향 맞수다, 그지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현정자 처음, 처음은 잠대 안 헨 낭토막. (처음, 처음은 쟁기 안 하고 나무토막.)

김보향 맞아. (맞아.)

현정자 저 낭토막도 허고, 저 나뭇가지 헤긴에 끄슬키 헤영. (저 나무토막도 하고, 저 나뭇가지 해서 끙게 해서.)

김보향 끄슬키 헤영. (끙게 해서.)

현정자 그거 헤영 멧 번 헤 난 다음에. (그거 해서 몇 번을 하고 난 다음에.)

김보향 그 끄슬키나 낭토막이나 돌이나 영 끗을 때, 그거 밧디 강 헷수꽈? 질레서 헷수꽈? (그 끙게나 나무토막이나 돌이나 이렇게 끌 때, 그거 밭에 가서 했습니까? 길에서 했습니까?)

양인필 질레서도 헐 적도 잇주만은 밧디 강도 주로 허주게. (길에서도 할 적도 있지만 밭에 가서도 주로 하지.)

현정자 질레서는 벨로 허질 안혀곡. 우영팟디설 허나 밧딜 강 헌 걸 허나 그걸 하영 헷주. 질레서는, 그때는 질도 영 널르지 않으곡, 영 족주. (길에서는 별로 하지 않고. 텃밭에서 하거나 밭에 가서 하는 걸 하거나 그걸 많이 했지. 길에서는, 그때는 길도 이렇게 넓지 않고, 이렇게 좁지.)

김보향 맞수다. (맞습니다.)

현정자 겨난 보편적으로는 밧디 갓주덜. (그러니까 보편적으로는 밭에 갔지.)

김보향 그 돌도 끗엇덴 하는디 그 돌 구멍 뚤러졍 잇잖아예? 구멍 뚤러야 뒈잖아예? (그 돌도 끌었다고 하는데 그 돌 구멍 뚫려 있잖아요? 구멍 뚫어야 되잖아요?)

양인필 구멍 뚤른 돌도 잇곡, 경 안현 돌도 잇는디 베덜 이시난에 베에 무껑은에 경 허영 임시 경 혼두 번 허는 거난에. 경 자주 허는 것이 아니난에. (구멍 뚫은 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돌도 있는데 바들 있으니까 바에 묶어서 그러고 임시 그렇게 한두 번 하는 거니까. 그렇게 자주 하는 것이 아니니까.)

김보향 음음. (음음.)

현정자 겐디예, 이디선 돌은 벨로 아니 끗어 봣어.(그런데, 여기선 돌은 별로 안 끌어 봤어.)

김보향 돌을 벨로 아니 끗어 봣어예? (돌을 별로 안 끌어 봤어요?)

현정자 그자 낭토막 허곡, 저 낭설피 헤영. 그거 영. (그저 나무토막 하고 저 섶 해서. 그거 이렇게.)

김보향 그럼 이제 야이ᄀᆞ리쳣수다예. 사릅에ᄀᆞ리쳥 이제 밧 갈기를 시작헷어예. 밧을 갈, 처음 갈 때는 앞에서 끗을 거? (그럼 이제 얘 가르쳤습니다. 사름에 가르쳐서 이제 밭 갈기를 시작했어요. 밭을 갈, 처음 갈 때는 앞에서 끌 거?)

양인필 으, 사름이, 사름이 이꺼 줘야. (으, 사람이, 사람이 이끌어 줘야.)

현정자 녹대 헤영 혼 사름 끗어. (고삐 해서 한 사람 끌어.)

김보향 이꺼 주는 거예? (끌어 주는 거요?)

양인필 응, 혼 메칠, 혼 사름 이꺼 줘사. (응, 한 며칠, 한 사람 끌어 줘야.)

현정자 그거 헤사게, 멍에에 가민 영 돌곡 허는 걸 배와사. (그거 해야, 밭머리에 가면 이렇게 돌고 하는 걸 배워야.)

양인필 ᄀᆞ리쳐 놔야. (가르쳐 놔야.)

김보향 게민 이제 야이는 쉐고 뒤에 잠, 잠대를 메울 거우다예. 잠대 메울 때 소 뒤에 여기 뭐 얹을 거? (그럼 이제 얘는 소고, 뒤에 잠, 쟁기를 메울 겁니다. 쟁기 메울 때 소 뒤에 여기 뭐 얹을 거?)

현정자 멍에. (멍에.)

김보향 멍에, 예예. 멍에 얹이곡, 멍에에 또? (멍에, 예예. 멍에 얹고, 멍에에 또?)

양인필 접궤, 접궤. ('접궤', '접궤'.)

현정자 또 부림패. (또 '부림패'.)

김보향 예, 여기 모가지 내려오는 거 접궤예? (예, 여기 모가지 내려오는 거 '접궤'요?)

양인필 으, 접궤. (으, '접궤')

현정자 경허곡 부림패. (그리고 '부림패'.)

김보향 영 잡는 거 부림패? (이렇게 잡는 거 '부림패'?)

양인필 부림패에 줄대. ('부림패'에 '줄대'.)

현정자 그거 부림패. (그거 '부림패'.)

김보향 줄대. ('줄대'.)

양인필 응, 줄대. (응, '줄대'.)

김보향 줄대. 자, 이 부림패를 웬착도 잡고 오른착도 잡을 거꽈? ('줄대'. 자, 이 '부림패'를 왼쪽도 잡고 오른쪽도 잡을 겁니까?)

양인필 응, 그렇주. 응. (으, 그렇지. 응.)

현정자 양쪽 다 잡아. (양쪽 다 잡아.)

김보향 양쪽 다 잡아? 그럼 이걸 가린석이렌은 안 골아난? (양쪽 다 잡아? 그럼 이걸 '가린석'이라고는 안 말했어?)

양인필 가린석? ('가린석'?)

김보향 아니? 이거 두 개 다 부림패? (아니? 이거 두 개 다 '부림패'?)

현정자 으으. 다 부림패. (으으. 다 '부림패'.)

김보향 아, 예예. (아, 예예.)

현정자 부림패민. ('부림패'면.)

양인필 부림패, 가린석. 가린석이엔 허민 이 등으로 영. ('부림패', '가린석'. '가린석'이라고 하면 이 등으로 이렇게.)

김보향 여기 묶는 거. 여기 묶는 거. 아, 이거? 예에. (여기 묶는 거. 여기 묶는 거. 아, 이거? 예에.)

양인필 그것ᄀᆞ라 가린석이라고 헐 걸로 보는디. (그것보고 '가린석'이라고 할 걸로 보는데.)

현정자 게난 부림패 헤민 요거는 쉐가 저리 가젠 헤민 이펜에서 박 ᄃᆞᆼ기곡 요레 가젠 허민 ᄃᆞᆼ기곡, 경헤당 또 말 아이 들민 확 후리곡 경허주게. (그러니까 '부림패' 하면 요거는 소가 저리 가려고 하면 이편에서 박 당기고 요리 가려고 하면 당기고, 그러다가 또 말 안 들으면 확 후리고 그랬지.)

김보향 후릴 때, 말 안 듣는 놈 후릴 때 오른쪽으로도 후리고 왼쪽으로도 후려? (후릴 때, 말 안 듣는 놈 후릴 때 오른쪽으로도 후리고 왼쪽으로도 후려?)

현정자 으. (으.)

양인필 그 소가 가는 방향을. (그 소가 가는 방향을.)

현정자 잘못 가민. (잘못 가면.)

양인필 잘못 감젠 헤영은에 ᄀᆞ리칠 때 왼쪽드레 갈 때는 오른쪽으로 ᄃᆞᆼ기면서 후릴 수도 잇고. (잘못 간다고 해서는 가르칠 때 왼쪽으로 갈 때는 오른쪽으로 당기면서 후릴 수도 있고.)

김보향 예, 경헹 이게 밧이우다예, 여기서부터 ᄎᆞᄎᆞᄎᆞᄎᆞ 갈앙 여기 멍에에 가서 야이가 돌아야 뒐 거꿰예? (예, 그래서 이게 밭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차차차차 갈아서 여기 밭머리에 가서 얘가 돌아야 될 거지요?)

현정자 그땐 ᄃᆞᆼ겨. (그때는 당겨.)

김보향 그때 오른쪽으로 돌 거꽈, 왼착으로 돌 거꽈? (그때 오른쪽으로 돌 겁니까, 왼쪽으로 돌 겁니까?)

현정자 그건 밧 갊에. (그건 밭 가는 거에.)

양인필 웬착으로 돌 거주. (왼쪽으로 돌 거지.)

현정자 밧 갊에. (밭 가는 거에.)

양인필 밧 갊에도 메주만은 보통은 오른쪽으로 처음 돌주게. (밭 가는 것에도 따르지만 보통은 오른쪽으로 처음 돌지.)

김보향 그니까 영 강 쉐 오른쪽으로 돌렌, 돌렌 영 시킬 거? 그민 오른쪽을 영 영 영 영 줍아뎅기민 뒈? (그니까 이렇게 가서 소 오른쪽으로 돌라고, 돌라고 이렇게 시킬 거? 그럼 오른쪽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아당기면 돼?)

현정자 으, 이착은 눅이고 이착은 쏙쏙 ᄃᆞᆼ겨. 경헤여. (으, 이쪽은 눅이고 이쪽은 쏙쏙 당겨. 그래서.)

김보향 밧 갈 때 영 오른쪽으로 돌앙 여기 멍에 오면 다시 오른쪽? (밭 갈 때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서 여기 밭머리 오면 다시 오른쪽?)

현정자 원, 왼쪽으로 갓든 ᄂᆞ단착으로 갓든 카브 꺼끄면은. (원, 왼쪽으로 갔든 오른쪽으로 갔든 커브 꺾으면.)

권미소 그런 건 상관없네. (그런 건 상관없네.)

김보향 쏙쏙쏙쏙쏙 ᄃᆞᆼ겨예? (쏙쏙쏙쏙쏙 당겨요?)

현정자 게민 알아. (그럼 알아.)

김보향 알아. (알아.)

현정자 게민. (그럼.)

양인필 쉐가 다 알아. (소가 다 알아.)

현정자 저 잠대 헤영 가는 사름이 처음은 영 헷당 영 뒤에ᄁᆡ지 싹 뒤에ᄁᆡ지 가주, 카블 꺼꺼부난. (저 쟁기 해서 가는 사람이 처음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뒤에까지 싹 뒤에까지 가지, 커브 꺾어 버리니까.)

김보향 으. (으.)

현정자 게난 그 가는 사름이 조종을 시기는 거주. (그러니까 그 가는 사람이 조종을 시키는 거지.)

김보향 조종을 시기는 거. 자, 그럼 이젠예, 아까 쉐 목에 영 대는 거 뭐렌 골앗어? (조조을 시키는 거. 자, 그럼 이젠요, 아까 소 목에 이렇게 대는 거 뭐라고 말했어?)

양인필 접궤. ('접궤'.)

김보향 아, 여기 멍에 댕 모가지 오는 게 접궤. (아, 여기 멍에 대고 목에 오는 게 '접궤'.)

양인필 접궤. ('접궤'.)

현정자 어, 건 접궤. (어, 건 '접궤'.)

김보향 멍에랑 접궤, 멍에도 삼촌이 만들어 봣수꽈? (멍에랑 '접궤', 멍에도 삼촌이 만들어 봤습니까?)

양인필 목수가 만들주. (목수가 만들지.)

김보향 목수가 만들어. 그거 무슨 낭으로 허는지 알아질 거? (목수가 만들어. 그거 무슨 나무로 하는지 알아질 거?)

양인필 머개낭, 거벼운 낭. 머귀낭. (머귀나무, 가벼운 나무. 머귀나무.)

김보향 머귀낭. 가벼운 낭예. 머귀낭. 접궤는? (머귀나무. 가벼운 나무요. 머귀나무. '접궤'는?)

현정자 몰라 거 질긴 낭으로 헷주게. (몰라 거 질긴 나무로 했지.)

양인필 접궤는 윤누리, 윤노리낭. ('접궤'는 윤노리, 윤노리나무.)

김보향 윤노리낭예. 윤노리낭예. 예예. (윤노리나무요. 윤노리나무요. 예예.)

양인필 그건 휘울 수 잇어야 뒈는 거니까. (그건 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김보향 예, 예. 그럼 이제는 잠대 한번 물어보쿠다예. 잠대가 영 생겻수다예. 영, 영. 요기 손잡이 잡는 거를 뭐렌 골을 거? (예, 예. 그런 이제는 쟁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쟁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요기 손잡이 잡는 거를 뭐라고 말할 거?)

양인필 그거? (그거?)

현정자 게나저나 잠대옌 헐 거주. (그러나저러나 쟁기라고 할 거지.)

김보향 전체는 잠대예. 손잡이 잡는 거, 양지머리, 양주머리? (전체는 쟁기요. 손잡이 잡는 거, 양지머리, 양지머리?)

양인필 양지머리, 양주머리. 양주. (양지머리, 양지머리. 양지.)

김보향 영 구짝헌 이 대가 잇어. 구짝헌 이 대는 뭐렌 골을 거? 영 밑으로 영? (이렇게 곧은 이 대가 있어. 곧은 이 대는 뭐라고 말할 거?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양인필 설칫, 설칫이 아니고. (한마루, 한마루가 아니고.)

현정자 뚜루 경 구별을 헹 골아사. 잊어 불언. (따로 그렇게 구별을 해서 말해야. 잊어 버렸어.)

김보향 삼춘 기억남수다게. 삼춘은 기억나멘. 설칫이 잇고. 밑으로 영 내려온 거 잇고. (삼촌 기억납니다. 삼촌은 기억나요. 한마루 있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 있고.)

현정자 일름은 게메, 이신디 일름을 몰라. (이름은 글쎄, 있는데 이름을 몰라.)

양인필 아니, 이름도 기억이 이실 거라만은. (아니, 이름도 기억이 있을 거지만.)

김보향 이실 거라만은 잘 생각 안 남수다예. 예를 들면 그림으로 보여드리쿠다예. (있을 거지만 잘 생각 안 납니다. 예를 들면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정자 그림으로는 훤허난에게. (그림으로는 훤하니까.)

김보향 그림으론 훤헌 거. (그림으로는 훤한 거.)

양인필 이것이 잠대주. (이것이 쟁기지.)

김보향 이거 잠대민 영 길죽헌 낭이 잇고, 요기 양지머리가 잇어예. (이거 쟁기면 이렇게 길쭉한 나무가 있고, 여기 양지머리가 있어요.)

양인필 이거, 양죽머리. 양죽머리옌 허여. (이거, 양지머리. '양죽머리'라고 해.)

김보향 오케이. 양죽머리. (오케이. '양죽머리'.)

양인필 거, 양죽머리, 요거는 저 뭐인가. (거, 양지머리, 요거는 저 뭐인가.)

현정자 보섭, 보섭. (보습, 보습.)

김보향 여기 앞에 끼우는 거 보섭예? (여기 앞에 끼는 거 보습요?)

양인필 보섭, 벳. (보습, 볏.)

김보향 예, 뒛수다. (예, 됐습니다.)

양인필 요건 설칫. (요건 한마루.)

김보향 이건 설칫, 맞수다. (이건 한마루, 맞습니다.)

현정자 요것더레 찔르는 쒜는 보섭, 요렌 베엔사 허는디 뭐옌사 허는디. (요것에 찌르는 쇠는 보습, 요리는 베라고 하는지 뭐라고 하는지.)

권미소 벳? (볏?)

김보향 벳, 예에, 오케이. 벳, 벳. 뒛수다, 뒛수다. 예예. 허는 거예. 보섭 끼우고 벳은 영 자차지게 하는 거예? (볏, 예에, 오케이. 볏, 볏. 됐습니다. 됐습니다. 예예. 하는 거요. 보습 끼우고 볏은 이렇게 젖히게 하는 거요?)

양인필 으. (으.)

김보향 예. 보섭은 땅을 갈고. (예. 보습은 땅을 갈고.)
양인필 어, 그렇주. (어, 그렇지.)
현정자 또 저 그것에 끼우는 낭은 영 영 어프는 거. (또 저 그것에 끼우는 나무는 이렇게 이렇게 엎는 거.)
김보향 어프는 거? (엎는 거?)
현정자 그디 저 무시거 낭만 허질 아녀고 어프는 저, 거ᄀᆞ라 뭐옌 헤여? 쒜? (거기 저 뭐 나무만 하질 않고 엎는 저, 것보고 뭐라고 해? 쇠?)
양인필 벳, 벳. (볏, 볏.)
현정자 벳. (볏.)
양인필 곳사 곧지 안헤냐. (아까 말하지 않았니.)
현정자 보섭은 봉오지에 찔르고 벳은 여기 시민 영 영 어프는 거. 그 갈아가는 벙에를 영 어퍼. 게민 뒤에서 가는. (보습은 봉우리에 찌르고 볏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엎는 거. 그 갈아가는 볏밥을 이렇게 엎어. 그럼 뒤에서 가는.)
양인필 밧 아이 갈아난 사름이 더 잘 알아. (밭 안 갈았던 사람이 더 잘 알아.)
김보향 하하. (하하.)
현정자 아니, 갈다시피 허난. (아니, 갈다시피 하니까.)
김보향 삼춘이 말씀이 좋으셔. (삼촌이 말씀이 좋으셔.)
현정자 이, 가는 사름이 영 영 ᄒᆞ쏠 영 ᄒᆞ쏠 영 허주. 게민 그게 탁탁탁탁 어퍼져. (이, 가는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지. 그럼 그게 탁탁탁탁 엎어져.)
김보향 어퍼져예. 밧 영 갈고 쉐는 밧 가는 거라예? 또 짐도 시껏잖아예, 쉐는예? 짐 시끄젠 허민 등어리에 뭐를 얹어살 거 아니? (엎어져요. 밭 이렇게 갈고 소는 밭 가는 거지요? 또 짐도 실었잖아요, 소는요? 짐 실으려고 하면 등에 뭐를 얹어야 할 거 아니?)
양인필 질메. (길마.)
김보향 질메. 예. (길마. 예.)
양인필 촐 시끌 때 질메 지와근에 ᄒᆞᆫ쪽에 열다섯 단썩, 열다섯 뭇썩 양쪽에 서른 뭇을 시꺼낫주게. (꼴 실을 때 길마 지워서 한쪽에 열다섯 단 씩, 열다섯 뭇씩 양쪽에 서른 뭇을 실었었지.)
현정자 ᄒᆞᆫ 바리. (한 바리.)
김보향 ᄒᆞᆫ 바리. 그게 ᄒᆞᆫ 바리? (한 바리. 그게 한 바리?)

양인필 으, 그게 ᄒᆞᆫ 바리. (으, 그게 한 바리.)
김보향 그 촐도 시꺼나고, 또 뭐도 시꺼낫수꽈? (그 꼴도 실었었고, 또 뭐도 실었었습니까?)
현정자 아무거라도 짐 다 시꺼. (아무거라도 짐 다 실어.)
김보향 거름도 시꺼낫수꽈? (거름도 실었었습니까?)
현정자 어, 걸름 시끄주. (어, 거름 실었지.)
양인필 돗걸름도 시끄곡 경. (돼지거름도 싣고 그렇게.)
현정자 건 멩텡이에 담앙. (그건 망태기에 담아서.)
김보향 멩텡이에 담앙? (망태기에 담아서.)
현정자 멩텡이 두 개에 요추룩 동글락헝 멩텡이에 담앙 발로 꼰꼰 볼라근에 대깍헤민 ᄒᆞᆫ 사름 들르젠 허민 든직허주. 돗걸름, 거 돗통에 돗걸름. 경허민 양쪽에 영 탁 시껑 메영 가낫주. (망태기 두 개에 요처럼 동그랗게 망태기에 담아서 발로 꼰꼰 밟아서 가뜩하면 한 사람 들려고 하면 든직하지. 돼지거름, 거 돼지우리에 돼지거름. 그러면 양쪽에 이렇게 탁 실어서 매서 갔었지.)
김보향 아까 밧 갈 때 쉐 뭐 먹지 말렌 여기 뭐도 씌워난?
(아까 밭 갈 때 소 뭐 먹지 말라고 여기 뭐도 씌웠었어?)
양인필 으. (으.)
김보향 이거 뭐? (이거 뭐?)
양인필 망울. (부리망.)
김보향 망울예. 뭐 먹지 말렌 방울도 씌우고예? (부리망요. 뭐 먹지 말라고 부리망도 씌우고요?)
현정자 으, 망울. (으, 부리망.)
김보향 예예, 쉐에 우리 육지에서 요즘 사진, 테레비에 보는 것처럼 코도 뚤러낫수꽈? (예예, 소에 우리 육지에서 요즘 사진, 텔레비전에 보는 것처럼 코도 뚫었었습니까?)
양인필 코 말 아이 들으민 코 뚤러사. (코 말 안 들으면 코 뚫어야.)
현정자 아니, 코를 꿰어사. (아니, 코를 꿰어야.)
김보향 예. (예.)
현정자 저 처음 ᄀᆞ리친 땐 코 꿰어사. 경 안 헤민 버쳥 못 헤여. 힘쎄 노난. 코 꿰민 이 줄로 확 ᄃᆞᆼ겨도 말 듣는 거라. (저 처음 가르칠 때는 코 꿰어야. 그렇지 않으면 (힘에) 부쳐서 못 해. 힘세 놓으니까. 코 꿰면 이 줄로 확 당겨도 말 듣는 거야.)
양인필 훨씬 수월허주게. (훨씬 수월하지.)

김보향 코 꿰민 여기 뭘 찔러 넣을 거? 이거 불르는 이름이 잇수꽈? 엇어? 코 끼는 거? (코 꿰면 여기 뭘 찔러 넣을 거? 이거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까? 없어? 코 끼우는 거?)

양인필 그거 실 거라만은 이, 이, 그건 원 생각을 못헷주. (그거 있을 거지만 이, 이, 그건 원 생각을 못했지.)

현정자 코, 코. (코, 코.)

김보향 뒛수다, 뒛수다. 그럼예, 쉐 여기서 목장에 보내낫수꽈?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럼요, 소 여기서 목장에 보냈었습니까?)

현정자 어. (어.)

양인필 목장에 보낸. (목장에 보냈어.)

김보향 목장에 보내젠 허민 야이 우리 소여 하젠 허민 여기 뭐 도장 찍을 거? (목장에 보내려고 하면 얘 우리 소야 하려고 하면 여기 뭐 도장 찍을 거?)

현정자 넥인. (낙인.)

김보향 넥인, 넥인. (낙인, 낙인.)

현정자 딱 넥인 줘사. 요새 사름덜 귀걸이 헤, 요즘에. (딱 낙인 줘야. 요새 사람들 귀걸이 해, 요즘에.)

양인필 요즘은 숫자꼬지 쓰는디. (요즘은 숫자까지 쓰는데.)

현정자 넥인 허곡, 귀표 허곡. (낙인 하고, 귀표 하고.)

김보향 귀표 허곡. (귀표 하고.)

현정자 게난 요새 우리 곧주. 사름들토 다 넥인 지곡 귀표, 귀걸이 헴젠 골아지주. 귀표, 쉐 허는 거 헴젠 골아져. (그러니까 요새 우리 말하지. 사람들도 다 낙인 지고 귀표, 귀걸이 한다고 말하지. 귀표, 소 하는 거 한다고 말하게 돼.)

김보향 게난 이 귀표도 막 옛날서부터도 귀표 헷수꽈? (그러니까 이 귀표도 아주 옛날부터도 귀표 했습니까?)

현정자 으, 엿날부터 귀표. (으, 옛날부터 귀표.)

양인필 엿날, 엿날부터. 요즘은 안 허는디 옛날부터 귀표. (옛날, 옛날부터. 요즘은 안 하는데 옛날부터 귀표.)

현정자 요샌 안 헤도 아주 옛날부터. (요새는 안 해도 아주 옛날부터.)

양인필 엿날은 가족별로 성씨별로. (옛날은 가족별로 성씨별로.)

김보향 맞수다. (맞습니다.)

양인필 넥인도 틀리고, 귀표도 틀리곡. (낙인도 다르고, 귀표도 다르고.)

현정자 글자도 뜰리곡. (글자도 다르고.)

김보향 삼촌네는 넥인에 무슨 자를 써낫수꽈? (삼촌네는 낙인에 무슨 자를 썼었습니까?)

양인필 우리는 저 풍풍 자. (우리는 저 풍풍 자.)

김보향 음, 풍 자. 아, 겨민 삼춘만 쓴 거? 삼춘네 형제들이? (음, 풍 자. 아, 그럼 삼촌만 쓴 거? 삼촌네 형제들이?)

양인필 우리 권당들은 다 썻주. 경허고 귀는 바르게 짤르곡. (우리 권당들은 다 썼지. 그리고 귀는 바르게 자르고.)

권미소 바르게 짤르고? (바르게 자르고?)

김보향 여기? 바르게 짤르고? (여기? 바르게 자르고?)

현정자 귀 채주게. (귀 째지.)

양인필 우 끗을, 우 끗을. (위 끝을, 위 끝을.)

현정자 채는 디도 잇고, 짤르는 디도 잇고. 봉오지엔 쪼금 짤르곡. (째는 데도 있고, 자르는 데도 있고. 봉우리는 조금 자르고.)

양인필 영헤야 산에다 놔도 자기 소를 찾을 수 잇주게. (이래야 산에다 놔도 자기 소를 찾을 수 있지.)

김보향 맞수다. (맞습니다.)

현정자 게난 귀 쪼금 채곡. (그러니까 귀 조금 째고.)

양인필 게난 도독넘들이 잡아가서 쉐 잡아먹기 전에 들령은 찾을 수가 잇어. (그러니까 도둑놈들이 잡아가서 소 잡아먹기 전에 들려서는 찾을 수가 없어.)

김보향 게 쉐 목장에 올렷당 잊어붐도 헤낫수꽈, 삼춘은? (그래 소 목장에 올렸다가 잃어버리기도 했었습니까, 삼촌은?)

양인필 잊어붐도 헤영 춪으러 뎅기기도 허곡. (잃어버리기도 해서 찾으러 당기기도 하고.)

현정자 우린 일러불진 안허고. (우린 잃어버리지는 않고.)

양인필 일주일은 춪으레 갓어. (일주일은 찾으러 갔어.)

김보향 춪으러 왓어? (찾으러 왔어?)

양인필 경허단에 밧 가는 암쉐를 헹 혼 해 부릴 땐디 요 동쪽에 간 널른 밧데 강 메영 놔두난에 도망가 불언. (그러다가 밭 가는 암소를 해서 한 해 부릴 때인데 요 동쪽에 가서 넓은 밭에 가서 매어 놔두니까 도망가 버렸어.)

권미소 아이고. (아이고.)

양인필 어, 경헤연 ᄂᆞ시 일주일을 춪아도 못 춪으니까 저 위미리 물 터진 점쟁이렌

허는 봉서 점쟁이가 잇엇어이. 그디 강 들으민 알 거라, 허멍. 아, 진짜 그디 강 들언. 들엉 춪앗주게. (어, 그래서 도무지 일주일을 찾아도 못 찾으니까 저 위미리 물 터진 점쟁이라고 하는 봉사 점쟁이가 있었어. 거기 가서 들으면 알 거야, 하면서. 아, 진짜 거기 가서 들었어. 들어서 찾았지.)

현정자 들으난 도독은 안 아져갓덴. (들으니까 도둑은 안 가지고 갔다고.)

양인필 들으난에 도독은 안 가져가고, 쉐 메난 디서부떠 동쪽으로, 동북쪽으로 물, 물가에만 돌암젠. (들으니까 도둑은 안 가져가고 소 맸던 데서부터 동쪽으로, 동북쪽으로 물, 물가에만 돈다고.)

현정자 가두와졋젠, 가두와졋젠. (가두어졌다고, 가두어졌다고.)

김보향 가두와졋젠? (가두어졌다고?)

양인필 경헤연 저 안자리 표선면 안자리 거기 간에. (그래서 저 '안자리' 표선명 '안자리' 거기 가서.)

현정자 그꺼지 걸엉 가 오랏어. (그까지 걸어서 갔다 왔어.)

양인필 거기 간에 춪아오라낫어. (거기 가서 찾아왔었어.)

김보향 잊어불지 안허난 소망이우다.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다행입니다.)

양인필 춤 잊어불지 안혀난 소망. (참,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다행.)

현정자 도독 아이 가져간 거난에. (도둑 안 가져간 거니까.)

농업 도구

김보향 쉐 질를 때 ᄒᆞ는 얘기는 들엇고예. 농사지을 때 쓰는 거예. 밧을 갈 때는 잠대가 필요헤예. 그거 말고 영영 땅 파젠 허민 뭐가 잇어사? (소 기를 때 하는 얘기는 들었고요. 농사지을 때 쓰는 거요. 밭을 갈 때는 쟁기가 필요해요. 그거 말고 이렇게 이렇게 땅 파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현정자 쉐스렁, 궹이. (쇠스랑, 괭이.)

양인필 궹이, 궹이. (괭이, 괭이.)

김보향 궹이도 잇고, 쉐스렁도 잇고? (괭이도 있고, 쇠스랑도 있고?)

현정자 목궹이도 잇고. (곡괭이도 있고.)

김보향 목궹이도 잇고. 그민 궹이는 뭐 헐 때 쓰고 쉐스렁은 뭐 헐 때 썻어? (목괭이도 있고. 그럼 괭이는 뭐 할 때 쓰고 쇠스랑은 뭐 할 때 썼어?)

양인필 쉐스렁은 걸름 뿌릴 때 쓰는 거고. (쇠스랑은 거름 뿌릴 때 쓰는 거고.)

현정자 걸름, 걸름. (거름, 거름.)

양인필 소막에 소걸름 틀 때도 쓰곡, 경허는 도구고. 궹이는 기자 거볍게시리 땅 쪼꼼 팔 적에. (외양간에 소두엄 칠 때도 쓰고, 그러는 도구고. 괭이는 그저 가볍게끔 땅 조금 팔 적에.)

김보향 게볍게시리예? (가볍게끔요?)

양인필 저, 채소나 심을 때 경허곡 헷주. (저, 채소나 심을 때 그러고 했지.)

현정자 삽도 경허곡, 목궹이는 돌 파. (삽도 그러고, 곡괭이는 돌 파.)

김보향 돌 파? 예예. (돌 파? 예예.)

현정자 게난 돌 이신 밧디 삽도 잘 안 들어가고 궹이도 잘 아이 들어가민 그 목궹이에 코지로 영 일러 놩 긁어내곡. (그러니까 돌 있는 밭에 삽도 잘 안 들어가고 괭이도 잘 안 들어가면 그 곡괭이의 꼬챙이로 이렇게 일으켜 놔서 긁어내고.)

김보향 게민 옛날에 여기 테역밧 갈 때 뾰족하게 헤가지고 땅 파는 거? (그럼 옛날에 여기 띠밭 갈 때 뾰족하게 해서 땅 파는 거?)

현정자 따비. (따비.)

김보향 예예. (예예.)

양인필 따비 잇주. (따비 있지.)

김보향 그것도 써낫수꽈? (그것도 썼었습니까?)

양인필 우리는 벨로 안 썻는디 우리 조상들은 썻주. (우리는 별로 안 썼는데 우리 조상들은 썼지.)

김보향 아아. (아아.)

현정자 우리 씨하르부지넨 써낫주. (우리 시할아버지네는 썼었지.)

김보향 으. 그민 옛날에 그런 따비도 다 낭으로 만든 거라? (으. 그럼 옛날에 그런 따비도 다 나무로 만든 거야?)

김보향 으, 코젱이. (으, 꼬챙이.)

양인필 아니, 아니 밑에 밑엘 저 철로. (아니, 아니 밑에 밑에를 저 철로.)

현정자 쉐 코젱이는 저 쒜, 쒜. (쇠 꼬챙이는 저 쇠, 쇠.)

양인필 만들앙 끼왓어. (만들어서 끼웠어.)

김보향 여기 하나짜리가 아니고 세 개짜리엿수꽈? (여기 하나짜리가 아니고 세 개짜리였습니까?)

양인필 아니. 두 개짜리 잇고. (아니. 두 개짜리 있고.)

현정자 하난 아니라. (하나는 아니야.)
김보향 그치? (그렇죠?)
현정자 두 개짜리도 잇고 세 개짜리 잇고. (두 개짜리도 있고 세 개짜리 있고.)
김보향 땅에 들어가는 거예. 탁 헹. 따비, 땅 팔 때. 예예. (땅에 들어가는 거요. 탁 해서. 따비, 땅 팔 때. 예예.)
현정자 게난에 낭으론 만든디 봉오지엔 쒜라, 쒜라. (그러니까 나무로는 만드는데 봉오리에는 쇠야, 쇠야.)
양인필 보통은 두 개. 세 개짜리 허민 힘들어. (보통은 두 개. 세 개짜리 하면 힘들어.)
김보향 삼춘 갈레죽이렌 헌 게 뭐꽈? (삼촌 '갈레죽'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현정자 갈레죽? ('갈레죽'?)
양인필 삽. (삽.)
김보향 삽, 음. (삽, 음.)
양인필 갈레죽. ('갈레죽'.)
김보향 그 삽, 갈레죽은 뭐 할 때 써낫수꽈? (그 삽, '갈레죽'은 뭐 할 때 썼었습니까?)
현정자 그건 구뎅이 팔 때 대중 쓰곡 밧디도 쓰주게. (그건 구덩이 팔 때 대중 쓰고 밭에도 쓰지.)
양인필 고, 고구마 종자 놀 때. (고, 고구마 종자 놓을 때.)
김보향 으. (으.)
현정자 그런 때 계속 써. 삽 계속 써. 고구마 종자 놓젠 허민. (그런 때 계속 써. 삽 계속 써. 고구마 종자 놓으려고 하면.)
양인필 그런 때나 쓰곡. 또 우리 무신 나무. 우리 미깡낭 심젠 허민 그걸로 다 헷주. (그런 때나 쓰고. 또 우리 무슨 나무. 우리 귤나무 심으려고 하면 그걸로 다 했지.)
현정자 삽으로 미깡낭도 다 심엇어. (삽으로 귤나무도 다 심었어.)
김보향 삽으로 나무 다 심고예. (삽으로 나무 다 심고요.)
현정자 요새는 포크레인으로 헷주만은. (요새는 포크레인으로 했지만.)
김보향 지금은 영 삽이 쒜로 뒈어 잇잖아예? 근디 옛날에는 그것도 낭으로 뒈어 잇는 게 잇어낫수꽈? (지금은 이렇게 삽이 쇠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것도 나무로 되어 있는 게 있었습니까?)
현정자 아니, 아니. 쒜. (아니, 아니. 쇠.)
김보향 다 쒜? (다 쇠?)

현정자 으. (으.)
양인필 낭으로 뒌 건 아주 엿날. 그 모양만은 나도 봐난 도래가 잇는디. (나무로 된 건 아주 옛날. 그 모양만은 나도 봤던 적이 있는데.)
현정자 저, 우리 난 후젠 낭으로 헌 건 엇엇어. 다 지금이나 일반. (저, 우리 태어난 후에는 나무로 한 것 없었어. 다 지금이나 일반.)
양인필 우리 세대엔 엇엇어. 조룩은 낭으로 뒌 것도 하주. (우리 세대에는 없었어. 자루는 나무로 된 것도 많지.)
김보향 조룩? 그치, 조룩은 나무로 뒈어 잇고예? 예예. 삼춘 이제 보리 갈고 빌 때는 뭐로 빌 거라? (자루? 그렇지, 자루는 나무로 되어 있고요? 예예. 삼촌 이제 보리 갈고 벨 때는 뭐로 벨 거야?)
현정자 호미로. (호미로.)
김보향 호미로 빌 거라예. 그민 이제 호미로 비엉 몰른 것들 영 헤야 뒐 거? (호미로 벨 거지요. 그럼 이제 호미로 베어서 마른 것들 이렇게 해야 될 거?)
현정자 도께, 도께. 두드령. (도리깨, 도리깨. 두드려서.)
양인필 아니, 도께 허기 전에 홀테. (아니, 도리깨 하기 전에 훑이.)
현정자 홀트는 거? (훑는 거?)
양인필 홀테로 홀타 놩 간단허게 또 도께로 두드리주. (훑이로 훑아 놓고 간단하게 또 도리깨로 두드리지.)
김보향 음, 게민 홀트는 걸 먼저 할 거라? (음, 그럼 훑는 걸 먼저 할 거야?)
양인필 어, 홀트는 거 먼저 허주. (어, 훑는 거 먼저 하지.)
현정자 모녀 홀타사. (먼저 훑아야.)
김보향 예예. (예예.)
양인필 찍을 갈라 놔야 두드림이 쉽주게. (짚을 갈라 놔야 두드리기가 쉽지.)
현정자 홀트는 거 영 헤긴에 쌀이 영 헹 잇주. 잇이민 영 혼 줌 심엉 쌀드레 탁 걸쳥 박 둥기 민 저레 열맨 털어지고 찍은 이디 나오고. (훑는 거 이렇게 해서 쌀이 이렇게 해서 있지. 있으면 이렇게 한 줌 잡고 살에 탁 걸쳐서 박 당기면 저리 열매는 떨어지고 짚은 여기 나오고.)
김보향 이거 불르는 이름이 뭐꽈? 홀트는 거 불르는 이름. (이거 부르는 이름이 뭡니까? 훑는 거 부르는 이름.)
현정자 잊어비영 골아지크라? (잊어버려서 말할 수 있겠어?)

양인필 홀테. (홅이.)
김보향 보리클이엔 불러난? ('보리클'이라고 불렀었어?)
현정자 어 맞다. 클, 클. 보리클. (어 맞다. 그네, 그네. 보리그네.)
현정자 보리 홀테. (보리 홅이.)
김보향 보리클예. 보리클로 영 헤 놩 도께로 영 두드리는 거예? (보리그네요. 보리그네로 이렇게 해 놓고 도리깨로 이렇게 두드리는 거요?)
양인필 으. (으.)
김보향 자, 이제 다 타작헹. (자, 이제 다 타작해서.)
양인필 타작허여. (타작해.)
김보향 타작헤 놓고 이제 야이를 널어살 거 아니꽈예? (타작해 놓고 이제 얘를 널어야 할 거 아닙니까?)
양인필 건조시켜. (건조시켜.)
현정자 널기 전에 불려사. (널기 전에 불려야.)
양인필 멍석에 널엉. (멍석에 널어서.)
김보향 불리젠 허민 뭐? (불리려고 하면 뭐?)
현정자 솔박으로 불려사. ('솔박'으로 불려야.)
김보향 솔박으로 불려. ('솔박'으로 불려.)
현정자 으. (으.)
김보향 밑에는 뭐 깔고? (밑에는 뭐 깔고?)
현정자 멍석 꼴아근에. (멍석 깔아서.)
김보향 멍석 꼴앙예. (멍석 깔아서요.)
현정자 멍석 꼴앙 ᄇᆞ름 헹 불려사. (멍석 깔아서 바람 해서 불려야.)
김보향 불려사. (불려야.)
현정자 경헤 놔사 널 거. (그래 놔야 널 거.)
김보향 예, 그 타작헐 때 영 뭐 쳐야 뒈지도 안헹? (예, 그 타작할 때 이렇게 뭐 쳐야 되지도 않아?)
현정자 얼멩이. (어레미.)
김보향 얼멩이. 그 얼멩이는 뭐로 멘들앗수꽈? (어레미. 그 어레미는 뭐로 만들었습니까?)
현정자 대. (대.)
김보향 대로 멘들엉예. 얼멩이로 치고, 불리고 널 거예? 멍석에 널엇지예? (대로 만들어서요. 어레미로 치고, 불리고 널 거요? 멍석에 널었지요?)
양인필 멍석에 널언. (멍석에 널었어.)
김보향 야이 약간 쫌 우에 ᄆᆞ르민 뒤집어 줘살 거 아니예? (얘 약간 좀 위에 마르면 뒤집어 줘야 할 거 아니요?)
현정자 젓어사. (저어야.)
김보향 젓어사? 뭐로? (저어야? 뭐로?)
현정자 저, 젓는 거 잇주, 저 낭으로. (저, 젓는 거 있지, 저 나무로.)
양인필 그는데. (고무래.)
현정자 무시거? (뭐?)
양인필 그는데. (고무래.)
현정자 으, 근. (으, 근.)
김보향 근데, 군데? (고무래.)
현정자 근데, 근데. (고무래, 고무래.)
김보향 근데, 예예. (고무래, 예예.)
현정자 으, 근데라. (으, 고무래야.)
양인필 그는데. (고무래.)
김보향 근데 생긴 게 영 헹 여기 앞에 영 나온 거 이십디다예. (고무래 생긴 게 이렇게 해서 여기 앞에 이렇게 나온 거 있습디다.)
현정자 게난 그것에도 발을 영 요만썩 쫄르게. 영 헹 과작허게 헷주. (그러니까 그것에도 발을 이렇게 요만큼씩 짧게. 이렇게 해서 '과작하게' 했지.)
김보향 과작허게예. ('과작하게요'.)
현정자 경헤민 영 긁어지주게. (그러면 이렇게 긁히지.)
김보향 여기가 우둘투툴투둘 영 뒈여 잇는 거 아니? (여기가 우둘투둘투둘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
현정자 으. (으.)
김보향 영 헹 긁게 뒈어 잇는 거예? (이렇게 해서 긁게 되어 있는 거요?)
현정자 우트렌 토막이라도. (위로는 토막이라도.)
양인필 그는데, 그는데. (고무래, 고무래.)
현정자 이제 손가락을 돋주, 영. (이제 손가락을 돋지, 이렇게.)
김보향 겐디 삼춘 보니까 그 날레근데도 잇고, 우리 굴묵 짓을 때? (그런데 삼촌 보니

까 그 고무래도 있고 우리 '굴묵' 땔 때?)

현정자 아, 굴묵군데? 굴묵군덴 기자 널짝하게 멘들아. (아, 고무래? 고무래는 그저 넓적하게 만들어.)

김보향 으. (으.)

현정자 꼭꼭 찔르곡, 저 굴묵 짇어 낭 말쩨엔 잰 또 파내곡. 파내곡 찔르곡 허주게. (꼭꼭 찌르고, 저 '굴묵' 때고 나서 말째에는 재는 또 파내고. 파내고 찌르고 하지.)

김보향 보리타작 다 허곡, 몰리곡 다 헷수다예. 야이를 장만헤살 거 아니꽈? 야이를 어디 강 골 거? (보리타작 다 하고, 말리고 다 했습니다. 얘를 장만해야 할 거 아닙니까? 얘를 어디 가서 갈 거?)

현정자 몰ᄀᆞ레. (연자매.)

김보향 몰ᄀᆞ레. 의귀리도 몰ᄀᆞ레가 셔낫수꽈?(연자매. 의귀리도 연자매가 있었습니까?)

양인필 몰ᄀᆞ렌 동네마다 잇어난. (연자매는 동네마다 있었어.)

김보향 동네마다 잇어난. 게난 몰ᄀᆞ레강 보리ᄀᆞ는 걸 어떵헐 건지 한번, 뭐 뭐 가져가야 헐 거꽈, 보리 골젠 허민? (동네마다 있었던. 그러니까 연자매 가서 보리 가는 걸 어떡할 건지 한번, 뭐 뭐 가져가야 할 겁니까, 보리 갈려고 하면?)

현정자 보리 골 땐 물 들주게, 물 들어. (보리 갈 때는 물 들지, 물 들어.)

양인필 물 놔사 골 거고. (물 넣어야 갈 거고.)

현정자 물 놩 버무려사 그걸 골아지주. (물 넣고 버무려야 그걸 갈 수 있지.)

양인필 게난 사름이 더 들주게. (그러니까 사람이 더 들지.)

현정자 조곡 무시거 강 골젠 허민. (조고 뭐 가서 갈려고 하면.)

양인필 두 사름으론 못 헤여, 세 사름이나. (두 사람으로는 못 해, 세 사람이나.)

현정자 ᄀᆞ는디 체를. (가는데 체를.)

양인필 몰을 메우나. (말을 메우거나.)

김보향 으, 몰을 메우나? (으, 말을 메우거나?)

양인필 경헤야. (그래야.)

현정자 열 방울이민 열 방울 홈치 다 골아지질 안헤여. 경헹 체가 북삭헤민 푸는체로 더러 퍼뒁도 또 놩 골곡. 경헤여. (열 방울이면 열 방울 한꺼번에 다 갈아지지 않아. 그래서 겨가 '북삭하면' 키로 더러 퍼두고 또 넣어서 갈고. 그래.)

권미소 푸는체도 앗앙 가살 거. (키도 가지고 가야 할 거.)

김보향 음, 집이 집이 가졍왕 몰령 또 골레 가고는? (음, 집에 집에 가져와서 말려서 또 갈러 가고는?)

현정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김보향 경 안 헤여? (그렇게 안 해?)

현정자 으, 그디 골레 강 시작헌 건 그디서 다 골앙 와. (으, 거기 갈러 가서 시작한 건 거기서 다 갈아서 와.)

양인필 아이, 저 초불, 두불 골앙 왕 널엉 몰류와사 또 세불을 골아사 보리밥을 헨 먹주. (아이, 저 초벌, 두벌 갈아서 와서 널어서 말려야 또 세벌을 갈아야 보리밥을 해서 먹지.)

김보향 그니까,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정자 무시거 말이꽈? (뭐 말입니까?)

김보향 보리밥 헤 먹젠 허민? (보리밥 해 먹으려고 하면?)

양인필 보리밥을 헤 먹주. (보리밥을 해 먹지.)

현정자 보리밥 허젠 허민 정ᄀᆞ레사 골아사 밥을 헤 먹주게. (보리밥 하려고 하면 맷돌에야 갈아야 밥을 해 먹지.)

양인필 아, 게난 몰류와사 헐 거 아니라. (아, 그러니까 말려야 할 거 아니야.)

현정자 몰ᄀᆞ레서 골앙 오랑. (연자매에서 갈아서 와서.)

김보향 한 번만 가, 몰ᄀᆞ레? 두 번 가? (한 번만 가, 연자매? 두 번 가?)

현정자 혼 번만 강 골아 오랑. (한 번만 가서 갈아 와서.)

김보향 으. (으.)

현정자 그걸 몰류왕. (그걸 말려서.)

김보향 몰류왕. (말려서.)

현정자 또 이젠 정ᄀᆞ레 알지, 이거? 그것에서 거피영. (또 이젠 맷돌 알지, 이거? 그것에서 거피해서.)

김보향 음. (음.)

현정자 경헤영 그걸 밥 헤영 먹어. (그래서 그걸 밥 해서 먹어.)

김보향 몰ᄀᆞ렌 혼 번만 가는 거꽈? 그거 몰류왕 잘 안 골아지민 또 몰ᄀᆞ레강 안 헤여? (연자매는 한 번만 가는 겁니까? 그거 말려서 잘 안 갈리면 또 연자매 가서 안 해?)

현정자 아니, 우린 경 안 헤봔. (아니, 우리는 그렇게 안 해봤어.)

양인필 아니, 그럴 수도 잇주만은. (아니, 그럴 수도 있지만.)

현정자 그디서 여라 번 골암주게. 게난 조ᄀᆞ튼 건 물 아이 적진 거난 잘 아이 골아지

민 푸는체로 퍼 둬근에 또 골곡 헤낫어. (거기서 여러 번 갈고 있지. 그러니까 조 같은 건 물 안 적신 거니까 잘 안 갈리면 키로 까불러 둬서 또 갈고 했었어.)

김보향 맞수다, 맞수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현정자 겐디 보리는 푸지 안헹 그자 골아. (그런데 보리는 까부르지 않고 그자 갈아.)

김보향 보리 말고예, 감저 같은 거 캘 때 감저 헹 영 담앙 오젠 허민 뭐에 담앙 왓수꽈? (보리 말고요, 고구마 같은 거 캘 때 고구마 해서 이렇게 담아서 오려고 하면 뭐에 담아서 왔습니까?)

양인필 망텡이, 가마니. (망태기, 가마니.)

김보향 망텡이. (망태기.)

현정자 망텡이. (망태기.)

양인필 그거랏주. 엿날은. (그거였지. 옛날은.)

현정자 구덕도. (바구니도.)

김보향 아니, 골체는 안 허고? (아니, 삼태기는 안 하고?)

양인필 골체도 들주. (삼태기도 들지.)

현정자 원 골체 주장. 골체는. (원 삼태기 주로. 삼태기는.)

김보향 골체 주장. (삼태기 주로.)

현정자 감저를 영 ᄒᆞ민 담앙 들러다근에 비와. (고구마를 이렇게 하면 담아서 들어다가 부어.)

양인필 망테기레 비우던지. (망태기에 붓든지.)

현정자 그 그릇더레 비와. 골체. (그 그릇에 부어. 삼태기.)

양인필 으, 경허는 거. (으, 그러는 거.)

김보향 골체는 뭐로 멘들아낫수꽈? (삼태기는 뭐로 만들었습니까?)

양인필 대로 멘들앗주. (대로 만들었지.)

김보향 대로 멘들언. 그 칙? (대로 만들었어. 그 칡?)

현정자 대로 멘들단에 내중에라 가난에 끅으로도 멘들고, 그런 거 헷주. 옛날은 대만 헤낫어. (대로 만들다가 나중에야 가니까 칡으로도 만들고, 그런 거 했지. 옛날은 대만 했었어.)

김보향 대만 헤낫어? (대만 했었어?)

현정자 게난 내중에라 가난에 그 끅이여 무시거 하간 거 질긴 거 헤단에 헷어. (그러니까 나중에야 가니까 그 칡이며 뭐 온갖 거 질긴 거 해다가 했어.)

김보향 삼춘 여기 구덕도 막ᄋᆞ라 종류가 잇잖아예? 구덕 종류도예? (삼촌 여기 바구니도 아주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바구니 종류도요?)

현정자 곤대구덕. ('곤대구덕'.)

김보향 곤대구덕 또? ('곤대구덕' 또?)

양인필 촐구덕이엔 헌 건.('촐구덕'이라고 하는 건.)

현정자 촐구덕. ('촐구덕'.)

양인필 촘 엉기게. (참 엉기게.)

현정자 그건 촐구덕이엔 헌 건. (그건 '촐구덕'이라고 하는 건.)

양인필 대를 넙게시리 헤영. (대를 넙게끔 해서.)

현정자 잘 달루지 안헹게. (잘 다루지 않고.)

김보향 잘 달루지 안헹예. (잘 다루지 않고요.)

현정자 으, 기자 걸치는 거고, 곤대구덕은 막 잘 헤영, 재료를 잘 다듬앙 허민 그건 곤대구덕. (으, 그저 걸치는 거고, '곤대구덕'은 아주 잘 해서 재료를 잘 다듬어서 하면 그건 '곤대구덕'.)

김보향 질구덕은 뭐꽈? ('질구덕'은 뭡니까?)

현정자 질구덕은 크게 멘들아긴에 짐 졍 뎅기주게. ('질구덕' 크게 만들어서 짐 지고 다니지.)

김보향 짐 졍 뎅기는 거. (짐 지고 다니는 거.)

현정자 세답 담앙 뎅기곡. (세답 담고 다니고.)

김보향 세답 담앙 뎅기곡. (세답 담고 다니고.)

현정자 그건 큰 구덕. (그건 큰 바구니.)

김보향 그민 여기에 구덕 쓰당 막 헐언예. 그민 거기에 뭐 부쳥 쓰지 안헤영? (그럼 여기에 바구니 쓰다가 마구 헐었어요. 그럼 거기에 뭐 붙여서 쓰지 않아?)

현정자 저, ᄇᆞ른바구리. (저 'ᄇᆞ른바구리'.)

김보향 ᄇᆞ른바구리. ('ᄇᆞ른바구리'.)

현정자 종이 헤영. (종이 해서.)

양인필 그거 불왕은에 쏠도 담곡. (그거 발라서 쌀도 담고.)

김보향 그거 ᄇᆞ른바구리꽈, 풀ᄇᆞ른구덕? (그거 'ᄇᆞ른바구리'입니까, '풀ᄇᆞ른구덕'?)

현정자 아니, 풀ᄇᆞ른바구리엔은 아이 불러 보곡, ᄇᆞ른바구리엔만 헤낫어. (아니, '풀ᄇᆞ른구덕'라고는 안 불러 보고, 'ᄇᆞ른바구리'라고만 했었어.)

김보향 예, ᄇᆞ른바구리예. (예, 'ᄇᆞ른바구리'요.)

현정자 풀이여 무시거여 그런 생각은 아이 나난 옛날 어른덜이 ᄇᆞ른바구리옌 허곡. 쏠 노는 바구리는 뚜로 차롱ᄀᆞ치 만들앙. 두껑 잇게. (풀이며 뭐며 그런 생각은 안 나니까 옛날 어른들은 'ᄇᆞ른바구리'라고 하고. 쌀 넣는 바구니는 따로 채롱같이 만들어서. 뚜껑 있게.)

김보향 지게는 안 써봔? (지게는 안 써 봤어?)

현정자 · 양인필 무사 안 써? (왜 안 써?)

양인필 지게가 제일 많이 쓰는 거주. (지게가 제일 많이 쓰는 거지.)

현정자 그 밧 갈레 가젠 허민 잠대 놩 경 뎅겻주게. 잠대는 원 지게에 놔사. 계속헷주, 계속. (그 밭 갈러 가려고 하면 쟁기 넣고 지고 다녔지. 쟁기는 원 지게에 놔야. 계속했지.)

김보향 또 지게 또 뭐 헐 때 썻수꽈? (또 지게 또 뭐 할 때 썼습니까?)

현정자 지게는 짐 질 때. (지게는 짐 질 때.)

김보향 짐 질 때, 예를 들면 뭐 같은 거 지게에 놩 졋수꽈? (짐 질 때, 예를 들면 뭐 같은 거 지게에 놔서 졌습니까?)

현정자 아무거라도, 기자 짐 질 때. (아무거라도, 그저 짐 질 때.)

양인필 고구마 나를 때. (고구마 나를 때.)

김보향 고구마 나를 때. (고구마 나를 때.)

현정자 아무거라도, 기자. 고구마나 무나 생기리 허젠 허민 기자 아무거라도. (아무거라도, 그저. 고구마나 무나 무말랭이 하려고 하면 그저 아무거라도.)

양인필 보통 한걸허게 정 뎅길 수 잇는 건 지게로 많이 날랏주. (보통 여유 있게 지고 다닐 수 있는 건 지게로 많이 날랐지.)

김보향 곡석들 헹 들여왓수다예. 그걸 어디에 보관헷수꽈? (곡식들 해서 들여왔습니다. 그걸 어디에 보관했습니까?)

현정자 아이고, 부제칩인 저 뒈지옝 허느냐? 무시거엔 헷주만은. (아이고, 부잣집은 저 뒤주라고 하느냐? 뭐라고 했지만.)

김보향 뒤주. (뒤주.)

현정자 고팡에 놓주게. 고팡. (고방에 놓지. 고방.)

김보향 고팡에 뭐 놩 그걸 놀 거라? (고방에 뭐 놔서 그걸 넣을 거야?)

현정자 황. (항아리.)

양인필 멕도 놓고, 항도 놓고. (멱도 놓고, 항아리도 놓고.)

현정자 보편적으로 고팡에는 황. (보편적으로 고방에는 항아리.)

양인필 뒤주도 놓곡 경헤낫어. (뒤주도 놓고 그랬었어.)

현정자 황 놓곡, 저 고팡에 미처 아이 들어간 땐 밧거리 쉐막에, 쉐막에 그자 멕에 들러다 놓주게. (항아리 놓고, 저 고방에 미처 안 들어간 때는 바깥채 외양간에, 외양간에 그저 멱에 들어다 놓지.)

김보향 멕에 들러다 노민 그거 중이가 다 먹어 불쿠다? (멱에 들어다 놓으면 그거 쥐가 다 먹어 버리겠네요?)

현정자 중이 먹주게. 막 먹어. 막 먹엉 멩텡이덜 쏘무라 불곡 막 헤여. (쥐 먹지. 마구 먹어. 마구 먹어서 망태기 쪼아 버리고 막 해.)

김보향 예. (예.)

현정자 게난 그걸 몰령 제라허게 고팡에 들어감 샌 밧거리 놓는 거. (그러니까 그걸 말려서 제대로 고방에 들어가는 사이에 바깥채 놓는 거.)

김보향 그 도라무깡에는 보관 안 헤낫수꽈? (그 드럼통에는 보관 안 했습니까?)

현정자 아이고, 도라무깡은 그거 새 세대 난 때. (아이고, 드럼통은 그거 새 시대 났을 때.)

김보향 새 시대 난 때? 맞수다. (새 시대 났을 때? 맞습니다.)

현정자 도라무깡이 어디 실 말이가? (드럼통이 어디 있을 말이니?)

양인필 옛날은 도라무깡이 엇엇주. 엿날사. (옛날은 드럼통이 없었지. 옛날에야.)

현정자 새 시대 나난. (새 시대 나니까.)

김보향 게민 삼춘 영 고팡 열어 봅서예. 고팡 여난 황이 몇 개나 잇어낫수꽈? 삼춘네 집이? (그럼 삼촌 이렇게 고방 열어 보세요. 고방 여니까 항아리가 몇 개나 있었습니까? 삼촌네 집에?)

현정자 황은. (항아리는.)

양인필 여남은 개 잇어나실 거라. (여남은 개 있었을 거야.)

현정자 나도 댓 개 잇어낫주마는 우리 씨어머니네 여남은 개 잇엉 살앗어. (나도 댓 개 있었지만 우리 시어머니네 여남은 개 있어서 살았어.)

김보향 여남은 개 잇엉 살앗어예. 곡석덜 채워 놀 거예? (여남은 개 있어서 살았어요. 곡식들 채워 넣을 거예?)

현정자 식구 하난. (식구가 많으니까.)

김보향 우에 뚜껑 딱 덮고예? (위에 뚜껑 딱 덮고요?)

현정자 그 저, 따로따로 다 놀 게 잇어긴에. (그 저, 따로따로 다 넣을 게 있어서.)
김보향 예예. (예예.)
현정자 우린 다섯 개베낀 엇어낫주만은. (우린 다섯 개밖에 없었지만.)
김보향 예예. 의귀 미깡 농사를 언제부터 짓엇수꽈? (예예. 의귀 귤 농사를 언제부터 지었습니까?)
현정자 미깡 농사는 우리는. (귤 농사는 우리는.)
양인필 짓기는 오래뒛는데. (짓기는 오래됐는데.)
현정자 저 미시거. 혼 오십 년 뒛어. (저 뭐. 한 오십 년 됐어.)
양인필 오십 년 더 뒛주. 육십 년 뒛주, 육십 년. (오십 년 더 됐지. 육십 년 됐지, 육십 년.)
현정자 오십 멧 년 뒛어. 저, 나가 은희가 멧 설이꽈? 개띠가 멧 설이라? (오십 몇 년 됐어. 저 내가 은희가 몇 살입니까? 개띠가 몇 살입니까?)
김보향 오십팔 년 개띠? (오십팔 년 개띠?)
양인필 쉰, 쉰ᄒᆞ난가? (쉰, 쉰하나인가?)
현정자 나가 첨으로 미깡낭을 요 동녘 우연에 심엇주. (내가 처음으로 귤나무를 요 동녘 텃밭에 심었지.)
양인필 그디가 마끗디 심것주? (거기가 마지막에 심었지?)
현정자 아이고. 젤 ᄆᆞ녀 알담으로 두 줄 심글 때양, 저 동수네 집이 간에 사다가 심글 때에, 그걸 심그단에 나가 애길 낫주게. (아이고. 제일 먼저 아랫담으로 두 줄 심을 때요, 저 동수네 집에 가서 사다가 심을 때에, 그걸 심다가 내가 아길 낳았지.)
권미소 아고. (아고.)
김보향 큰아이? (큰아이?)
현정자 아니. (아니.)
김보향 누구? (누구?)
현정자 막넹이뚤. (막내딸.)
김보향 막넹이뚤. (막내딸.)
현정자 쉰하나냐? 원 ᄀᆞ만시라. (쉰하나냐? 원 가만있어라.)
김보향 개띠 예, 알쿠다. (개띠 예, 알겠습니다.)
현정자 개띠. (개띠.)
김보향 가이 심글 때 난 거? (걔 심을 때 낳은 거?)
현정자 저 처음으로 저디 심그단에 배가 아팡 죽어짐 직헤도 요걸 다 안 헤 불민 오늘 일 못헹 애기 나 불민 어떵 헐 거라. (저 처음으로 저기 심으니까 배가 아파서 죽을 것 같아도 요걸 다 안 해 버리면 오늘 일 못해서 아기 낳아 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양인필 제일 마끗디 심글 때주. (제일 마지막에 심을 때지.)
현정자 아방ᄀᆞ라도 아이 곧고 나만 막 힘든 거라. 경허단에 낭을 심그당 멧 개 남아도. (아버지(남편)에게도 안 말하고 나만 마구 힘든 거야. 그러다가 나무를 심다가 몇 개 남아도.)
양인필 그 말은 아이 골아도 뒈주. (그 말은 안 말해도 되지.)
현정자 젼디지 못허난 젼디지 못허난 나만 조용히 나오란, 오줌 싸레 가는ᄎᆞ룩 헹 나오란에 방에 강 나만. 아방이 원 이유 엇이 간 사름이 엇일 거 아니? 허난 마당에 오란에 막 불러도 대답을 안 헷주. (견디지 못하니까 견디지 못하니까 나만 조용히 나와서, 오줌 싸러 가는 것처럼 해서 나와서 방에 가서 나만. 아버지(남편)가 원 이유 없이 간 사람이 없을 거 아니? 그러니까 마당에 와서 마구 불러도 대답을 안 했지.)
김보향 으. (으.)
현정자 대답을 아니 허난 또 강 혼자 싱그단에 이상허다 헨에 오란 방문 확 여난. 경허멍 난 아이가 쉰하나 뒈실 거라. 경허난에 쉰흔 해 뒛주. 우리 시작허건 디가. 그걸 곧젠 허난 곧는 거주. (대답을 안 하니까 또 가서 혼자 심다가 이상하다 해서 와서 방문 확 여니까. 그러면서 낳은 아이가 쉰하나 됐을 거야. 그러니까 쉰한 해 됐지, 우리 시작한 지가. 그걸 말하려고 하니까 말하는 거지.)
김보향 맞수다. 나 중간에 하나 빼먹어신디예, 곡석 타작헹 장만허민 이거 치는 것도 잇잖아예? (맞습니다. 나 중간에 하나 빼먹었는데요, 곡식 타작해서 장만하면 이거 치는 것도 있잖아요?)
현정자 푸, 푸는체게. (푸, 키.)
김보향 푸는체도 잇고, 영 영 허는 거? (키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현정자 얼멩이. (얼멩이.)
김보향 얼멩이 말고. 체도 막 종류가 여러 개 잇수꽈? (얼멩이 말고. 체도 막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까?)
양인필 아, ᄋᆞ라 개 잇주. (아, 여러 개 있지.)
현정자 대체, 거름체, ᄀᆞ는체, 합체. ('대체', '거름체', 'ᄀᆞ는체', '합체'.)
김보향 합체, 젤 ᄀᆞ는 게 합체? ('합체', 제일 가는 게 '합체'?)

현정자 그거는 제일 좀진 ᄀᆞ루. (그거는 제일 가는 가루.)
양인필 ᄀᆞ루, ᄀᆞ루. (가루, 가루.)
현정자 ᄀᆞ루로 맛잇게 만드는 거. (가루로 맛있게 만드는 거.)
김보향 으. (으.)
현정자 잘 골아진 거. (잘 갈린 거.)
김보향 맞수다, 맞수다. 예예. 여기까지만. 미깡까지. 아니 미깡 헐 땐 도구가 뭐가 필요헌 거 잇수과? 미깡 농사지을 때 필요한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예. 여기까지만. 귤까지. 아니 귤 할 때 도구는 뭐가 필요한 거 있습니까? 귤 농사지을 때 필요한 거?)
양인필 우리 처음 미깡 헐 적에는 상당히 어렵게 시작을 헷주게. (우리 처음 귤 할 적에는 상당히 어렵게 시작을 했지.)
김보향 몇 년도에 시작헌 거? (몇 년도에 시작한 거?)
현정자 골으난게, 쉰하나. (말하니까, 쉰하나.)
양인필 그때는 농약도 엇엇어. 처음 미깡낭을 멧 개 심으니까 창과병이 심헌다고 헤서 무슨 약을 쓰렌 허느냐면 니꼬찡, 담배로 만든 니꼬찡을 첨, 우리 남원에 수의사 아내가 농약방을 하니까 거기 가서 니꼬찡을 사다가 낀찌루 부리는 뭐라고 허느니? (그때는 농약도 없었어. 처음 귤나무를 몇 개 심으니까 '창과병'이 심하다고 해서 무슨 약을 쓰라고 하느냐 하면 니코틴, 담배로 만든 니코틴을 첨, 우리 남원에 수의사 아내가 농약방을 하니까 거기 가서 니코틴을 사다가 '낀찌루 부리'는 뭐라고 하니?)
현정자 뽐뿌? (펌프?)
양인필 그걸로도 헤 보고. (그걸로도 해 보고.)
현정자 모기약 영헌 때 헤난 거. (모기약 이럴 때 했던 거.)
양인필 ᄎᆞᄎᆞᄎᆞᄎᆞ 옥안 무가 더ː라 밧, 밧디 심게 뒈니까 지렛대 분부기가 잇엇고. 그 지렛대 분무기 허면서도 이 등으로 졍 하는 소형 분무기가 잇고.
(차차차차 커서 나무가 더 여러 밭, 밭에 심게 되니까 지렛대 분무기가 있었고. 그 지렛대 분무기 하면서도 이 등으로 져서 하는 소형 분무기가 있고.)
현정자 지렛대엔 헌 거는. (지렛대라고 하는 거는.)
김보향 미깡 농사 시작허니까 분무기가 바로 생겻구나예? 미깡낭 심글 때는 다 삽으로 파고? (귤 농사 시작하니까 분무기가 바로 생겼군요? 귤나무 심을 때는 다 삽으로 파고?)
양인필 삽으로 파고. (삽으로 파고.)
현정자 목궹이로 다. (곡괭이로 다.)
김보향 목궹이로. (곡괭이로.)
양인필 삽으로 목궹이로, 놉 아이 빌언. (삽으로 곡궹이로, 놉 안 빌려서.)
현정자 우린 ᄒᆞᆫ 만 평 인부 하나투 아이 빌언에 둘리가 다 싱것어. 다 판에. (우린 한 만 평 인부 하나도 안 빌려서 둘이 다 심었어. 다 파서.)
김보향 애썻수다, 애썻수다. (애썼습니다, 애썼습니다.)
양인필 경헤영 허는디 ᄎᆞᄎᆞ 살아가난 요샌 뭐 기계화가 뒈어근에. (그래서 하는데 차차 살아가니까 요새는 뭐 기계화가 돼서.)
현정자 아이고, 그때허고 비교헤집니까게. (아이고, 그때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김보향 미깡 탈 때 바구니를 다 옛날에, 다른 집 강 보난 만들앙 써십디다예. (귤 딸 때 바구니를 다 옛날에, 다른 집 가서 보니까 만들어서 써십디다.)
현정자 다 만들앙. (다 만들어서.)
양인필 여기 지금도. (여기 지금도.)
김보향 그걸 뭐렌? (그걸 뭐라고?)
현정자 미깡 바구리. (귤 바구니.)
김보향 미깡 바구리? (귤 바구니?)
현정자 미깡 구덕. (귤 바구니.)
김보향 미깡 구덕. 예예, 만들엉 쓰고. (귤 바구니. 예예, 만들어서 쓰고.)
현정자 게난 나 손으로 다, 가정마다 만들엉 쓰주게, 그것도 사젱 헤민 돈이난. (그러니까 내 손으로 다, 가정마다 만들어서 쓰지, 그것도 사려고 하면 돈이니까.)
김보향 맞수다. (맞습니다.)
현정자 게난 이젠 만드는 거 설러 뒁 사 와. (그러니까 이젠 만드는 거 치워 두고 사 와.)
김보향 미깡 상자는 처음에 만들앗수꽈? 뭘로 만들앗수꽈? (귤 상자는 처음에 만들었습니까? 뭘로 만들었습니까?)
양인필 수기 나무. (삼나무.)
김보향 수기 나무. 거 숙대낭예? (삼나무. 거 삼나무요?)
양인필 어, 숙대낭. (어, 삼나무.)
김보향 숙대낭으로 만든 거. (삼나무로 만든 거.)

양인필 그거 보통 우리가 질롸서 거 방풍용으로 싱거서 그걸 끈언에 만들엇주게. (그거 보통 우리가 길러서 거 방풍용으로 심어서 그걸 잘라서 만들었지.)

김보향 예. (예.)

양인필 게난 이거, 상당히 육십 년대난에 이거 멧 년이라게?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육십 년대니까 이거 몇 년이야?)

김보향 그 처음에 모종 심글 때, 모종 사기는 힘들지 안헷수꽈? (그 처음에 모종 사기는 힘들지 않았습니까?)

양인필 힘들엇주. (힘들었지.)

현정자 처음은 통지낭. (처음은 '통지낭'.)

양인필 통지낭 자기대로 베영 헌 사름들투 잇곡 또 모자란 사름덜은 사당 그 엿날부터 그 묘목 장사꾼덜이 잇엇어. 게난. ('통지낭' 자기대로 베어서 한 사람들도 있고 또 모자란 사람들은 사다가 그 옛날부터 그 묘목 장사꾼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현정자 아이, 우리 처음 묘목은 부락으로 일산이엔 헹 일년생을 일본서 온 게 잇엇어, 부락에서. (아니, 우리 처음 묘목은 부락으로 일산이라고 해서 일년생을 일본에서 온 게 있었어, 부락에서.)

양인필 건 열두 봉. (건 열두 봉.)

현정자 겨난 그땐 미깡이 혼 열 개 못 삿어. (그러니까 그땐 귤이 한 열 개 못 샀어.)

양인필 열두 본, 열두 본. (열두 본, 열두 본.)

현정자 그걸 부락으로 사단에 지금 이 집 짓은 우연이 저짝에 잇어낫주, 질 나부난 거주. 그딜 심언. 그걸 처음 심어두 약 헐 충도 몰르고 그때는 뭣도 몰랏어. 경헤신디 그 낭이 보난 품종이 좋안게. (그걸 부락으로 사다가 지금 이 집 지은 텃밭에 저쪽에 있었지, 길 나버리니까 거지. 거길 심었어. 그걸 처음 심어도 약 할 줄도 모르고 그때는 뭣도 몰랐어. 그랬는데 그 나무가 보니까 품종이 좋았어.)

양인필 나가 군대 갓다 온 후제부터. (내가 군대 갔다 온 후부터.)

현정자 그만헌 낭이 엇어. (그만한 나무가 없어.)

양인필 약을 험 시작을 헷주. (약을 하기 시작을 했지.)

현정자 게난 그걸로 헨에 심음 시작은 허난 처음 그거 심은 땐 아무것도 몰란, 원. 기냥.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심기 시작은 하니까 처음 그거 심었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 원. 그냥.)

양인필 게난 그 낭을 열두 본에 열아서 열매를 첫 수확을 헤여 보니까 보따리장사가 왓어, 사레. 미깡 사러 왓는디 보따리에 싼에 뜨멍, 영 들르멍. (그러니까 그 나무를 열두 본에 열어서 열매를 첫 수확을 해 보니까 보따리장수가 왔어, 사러. 귤 사러 왔는데 보따리에 싸서 뜨면서, 이렇게 들면서.)

현정자 겨난 미깡을 타다 놘. (그러니까 귤을 따다 놔서.)

김보향 저울로 뜨멍? (저울로 뜨면서?)

양인필 으, 저울로 뜨멍. (으, 저울로 뜨면서.)

현정자 미깡을 타다 노난에 어디다 타다 놓는고 허난. (귤을 따다 놓으니까 어디에다 따다 놓는가 하니까.)

양인필 삼십 관을 처음 풀앗주게. (삼십 관을 처음 팔았지.)

현정자 나는 멧 관 처레도 몰르고. 마당에 멍석 페왕. (나는 몇 관인 줄도 모르고. 마당에 멍석 펴서.)

양인필 삼십 관을 푸난에 그것이 사릅 송아지 ᄒᆞ나 살 돈이 뒌단 말이여. (삼십 관을 파니까 그것이 사릅 송아지 하나 살 돈이 된다 말이야.)

현정자 날레 너는 멍석, 날레 너는 멍석. 멍석 페완에 그 미깡을 멍석에 타다 놘에 쳇 미깡으로 풀앗어. 게난 포따리장시 오란. ('날레' 너는 멍석, '날레' 너는 멍석. 멍석 펴서 그 귤을 멍석에 따다 놔서 첫 귤로 팔았어. 그러니까 보따리장수 와서.)

김보향 아아. (아아.)

현정자 게난 그때 처음으로 돈 심어 봣주. 돈이엥 헌 거 구경을 못 혯어. (그러니까 그때 처음으로 돈 잡아 봤지. 돈이라고 하는 거 구경을 못 했어.)

권미소 미깡 하난 돈 나고. (귤 하니까 돈 나고.)

양인필 어, 미깡나무 허난 춤 대학 나무엔 허다시피 경 헷주게. (어, 귤나무 하니까 참 대학 나무라고 하다시피 그렇게 했지.)

김보향 예, 고맙수다. 오늘 여기까지만.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남원1리 김수정 씨의 바닷일 이야기

김보향 삼촌 성함이 어떵 됌수꽈? 일름? (삼촌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이름?)
김수정 김수정. (김수정.)
김보향 김자 수자 정자예. 몃 년생마씨? (김자 수자 정자요. 몇 년생요?)
김수정 몰라, 몃 년생인디. (몰라, 몇 년생인지.)
김보향 띠는 무슨 띠꽈? (띠는 무슨 띠입니까?)
김수정 양띠. (양띠.)
김보향 게난 삼춘 몇 살 때부터 팔십다섯까지 물질을 헨? (그러니까 삼촌 몇 살 때부터 팔십다섯까지 물질을 했어?)
김수정 혼 열네 설, 열세 설. (한 열세 살, 열세 살.)
김보향 아하하. (아하하.)
김수정 열세 설, 열네 설. (열네 살, 열네 살.)
김보향 아, 칠십 년을 넘게 물질을 헷어? (아, 칠십 년을 넘게 물질을 했어?)
권미소 상군이엇구나, 삼춘. ('상군'이었구나, 삼촌.)
김수정 어, 그때게 열네 설, 열다섯 설 될 땐게, 그땐 막 어린 때난 막 배울 때주게. (어, 그때 열네 살, 열다섯 살 될 때, 그때는 아주 어렸을 때니까 막 배울 때지.)
김보향 예. (예.)
김수정 영 훨 치도 몰라낫어. (이렇게 헤엄칠 줄도 몰랐었어.)
김보향 예. (예.)
김수정 훨 치도 몰랑 물 아래 강 무싱거 오분작이나 뭐 무시거 구젱기라도. (헤엄칠 줄도 몰라서 물 아래 가서 뭐 오분자기나 뭐 뭐 소라라도.)
김보향 게민 그건 놂으로예? 아이들이랑예? (그럼 그건 노는 거로요? 아이들과요?)
김수정 으? (으?)
김보향 아이덜이영 바닷가 강 노는 걸로 헌 거 아니예? (아이들이랑 바닷가 가서 노는 걸로 한 거 아니요?)
김수정 헤도 영 휘질 못헤낫어. 경헹 테왁 헤근에 영 틔와 뒁 물 아래 강 오라근에 쭐락허게 강 테왁 강 심곡. *** 휘어 가질 못헨. 그냥 영 보딘 디 저 테왁 시민 쭐락허게 가근에 테왁 심곡 헤신디. 헤여 가난 영 ***도 영 휘어지곡 경 헷주. (해도 이렇게 헤엄치지 못했었어. 그래서 '테왁' 해서 이렇게 띄워 두고 물 아래 가서 와서 확 가서 '테왁' 가서 잡고. *** 헤엄쳐 가지를 못했어. 그냥 이렇게 가까운 데 저 '테왁' 있으면 확 가서 '테왁' 잡고 했는데. 해 가니까 이렇게 ***도 이렇게 헤엄칠 수 있게 되고 그랬지.)
김보향 경 헹 본격적으로 그거 영 휘어져 가지고 테왁 멩 멀리 나강 물질헌 건 몇 살 때부터 헷어?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그거 이렇게 헤엄쳐 가지고 '테왁' 매서 멀리 나가서 물질한 건 몇 살 때부터 했어?)
김수정 그때사 혼 열여, 열다섯, 열댓, 혼 열ᄋᆞ섯 뒈 가민 막 휘언 무시거 헷주게. 열일곱에 나 결혼헨에. (그때야 한 열여, 열다섯, 열댓, 한 열여섯 돼 가면 마구 헤엄쳐서 뭐 했지. 열일곱에 나 결혼해서.)
김보향 열일곱에? (열일곱에?)
김수정 스무, 스무 설인가? 스물인가 스물 혼 살인가 헤연에 육지도 세 번 가 왓어. 물질허레. (스무, 스물 살인가? 스물인가 스물한 살인가 해서 육지도 세 번 갔다 왔어. 물질하러.)
김보향 웨방 어디, 어디 다녀낫수꽈? 세 번을? (외방 어디, 어디 다녔었습니까? 세 번을?)
김수정 어디? (어디?)
김보향 웨방 물질? (외방 물질?)
김수정 육지. (육지.)
김보향 육지 어디 가낫수꽈? (육지 어디 갔었습니까?)
김수정 양푸옌 헌 디. (양포라고 하는 데.)
김보향 양포예. 예예, 양포예. 그민 그거 몇 살에 양포를 나가난? (양포요. 예예, 양포요. 그럼 그거 몇 살에 양포에 나갔었어?)
김수정 아메도 스물엔가, 스물혼 살엔가 가져실 거라. (아무래도 스물엔가, 스물한 살엔가 갔을 거야.)
김보향 음, 스물엔가 스물혼 살에. (음, 스물엔가 스물한 살에.)
김수정 열아홉. 허난 스물, 스물에 가져실 거라. 스물에, 스물ᄒᆞ나, 스물둘, 아, 스물

훈 솔에 가 오라졋구나. 스물훈 설, 스물둘, 스물셋. (열아홉. 그러니까 스물, 스물에 갔을 거야. 스물에, 스물하나, 스물둘, 아, 스물한 살에 갔다 왔구나. 스물한 살, 스물둘, 스물셋.)

김보향 그렇게 삼 년 갓다 온 거? (그렇게 삼 년 갔다 온 거?)

김수정 스물셋꺼지, 으. 삼 년 가젠 허단에 가젠, 허단 못 갓주. ᄋᆞ 저 세 번 가 오고 네 번차 가젠 허단에. (스물셋까지, 으. 삼 년 가려고 하다가, 가려고 하다가 못 갔지. 어 저 세 번 갔다 오고 네 번째 가려고 하다가.)

김보향 음. 무사? (음. 왜?)

김수정 실, 실펀 아이 간. (실, 가기 싫어서 안 갔어.)

김보향 아, 실펀 아니 간? (아, 가기 싫어서 안 갔어?)

김수정 응. (응.)

김보향 그 세 번 다 양포 갓다 온 거? (그 세 번 다 양포 갔다 온 거?)

김수정 응. (응.)

김보향 그민, 거기 강, 우리 물질하젠 허민 여기서 구미 헨 갈 거 아니예? 몃 사람이 훈디 갓어? (그럼, 거기 가서, 우리 물질하려고 하면 여기서 그룹 해서 갈 거 아니요? 몇 사람이 같이 갔어?)

김수정 모집헤영. (모집해서.)

김보향 모집헤영, 그니까. (모집해서, 그러니까.)

김수정 응, 모집헤영. 저 그디 인술자가 이제 이딧 사람ᄀᆞ라 모집헤영 오렝 허민 그 인술잔 그디서 헤여근에 막 주장 헤여근에 물건 오민 풀곡, 돈 받아다 주곡 경허주. (응, 모집해서. 저 거기 인솔자가 이제 여기 사람보고 모집해서 오라고 하면 그 인솔자는 거기서 해서 막 주장 해서 물건 오면 팔고, 돈 받아다 주고 그렇지.)

김보향 음, 그 사람을 전주렌 불럿수꽈? (음, 그 사람을 전주라고 불렀습니까?)

김수정 무시거? (뭐?)

김보향 그 인솔자를 전주렌 헷수꽈? (그 인솔자를 전주라고 했습니까?)

김수정 전주, 전주. (전주, 전주.)

김보향 전주예. 게민 그 전주한테 몇 푼 떼 주는 거? (전주요. 그럼 그 전주한테 몇 푼 떼 주는 거?)

김수정 무시거? (뭐?)

김보향 돈 떼 줘야 뒐 거잖아, 돈 줘야 뒐 거잖아. 그 사람안테. 물건 풀앙. (돈 떼 줘야 뒐 거잖아, 돈 줘야 뒐 거잖아. 그 사람한테. 물건 팔아서.)

김수정 물건 풀앙 저 해녀덜 돈 줘야주게. (물건 팔아서 저 해녀들 돈 줘야지.)

김보향 으으. (으으.)

김수정 메역을 허나. (미역을 하거나.)

김보향 메역을 허나. (미역을 하거나.)

김수정 또, 저 성기 저, 저 뭐니? 하이고, 영 쫄랑허는 거 나 잊어볏저, 멍지. (또, 저 '성기' 저, 저 뭐니? 하이고, 이렇게 '쫄랑하는' 거 나 잊어버렸어, 멍게.)

김보향 어, 멍지. (어, 멍게.)

김수정 멍지 ᄒᆞ곡 메역 ᄒᆞ곡. (멍게 하고 미역 하고.)

김보향 멍게를 여긴 멍지옌 불럿구나. (멍게를 여긴 '멍지'라고 불렀구나.)

김수정 생복 ᄒᆞ고 고동 잡곡 허민 풀민 인술자가 그거 돈 받아당 해녀들 갈라 주주. (생복 하고 소라 잡고 하면 팔면 인솔자가 그거 돈 받아다가 해녀들 나눠 주지.)

김보향 · 권미소 아아. (아아.)

김보향 게난 그 웨방 물질 갈 때, 양포 갈 때 메역만 헌 거 아니구나예? (그러니까 그 외방 물질 갈 때, 양포 갈 때 미역만 한 거 아니군요?)

김수정 무시거? (뭐?)

김보향 메역만 헌 게 아니고 그런 거 다 헷구나? (미역만 한 게 아니고 그런 거 다 했구나?)

김수정 으으, 메역도 허곡 메역은 그 전주가 돌, 이만이헌 여, 메역 나는 여 상 그디 허렌 ᄒᆞ주게. 그디 ᄌᆞ물렌 허주. 전주가 그 돌 사근에. (으으, 미역도 하고 미역은 그 전주가 돌, 이만큼한 여, 미역 나는 여 사서 거기 하라고 하지. 거기 캐라고 하지. 전주가 그 돌 사서.)

김보향 그니까 바당에. (그러니까 바다에.)

김수정 메역 나는 돌. (미역 나는 돌.)

김보향 메역 나는 돌을예. 그 주변에서 메역 허라 헤가지고. (미역 나는 돌을요. 그 주변에서 미역 해라 해서.)

김수정 어, 어, 그디서 헐 거주. 그 메역 막 난 쏘곱엔 영 고냥엔 영 보민 오분작 삐작 삐작 문 부뜨고 허주. 헤헤. (어, 어, 거기서 할 거지. 그 미역 마구 난 속에는 이렇게 구멍에는 이렇게 보면 오분자기 '삐작삐작' 모두 붙고 하지. 헤헤.)

김보향 게민 그 물질 갈 때 몇 월에 나강 몇 월에 들어옵니까? (그럼 그 물질 갈 때 몇 월에 나가서 몇 월에 들어옵니까?)

김수정 아칙? (아침?)

김보향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김수정 어디? (어디?)

김보향 우리 제주도에서, 제주도에서 글로 나가야 뒐 거 아니? 배 탕? (우리 제주도에서, 제주도에서 그리로 나가야 될 거 아니? 배 타서?)

김수정 어, 배 탕. (어, 배 타서.)

김보향 그거 봄에 나강 언제 들어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그거 봄에 나가서 언제 들어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김수정 봄이 나가민 팔뤌 추석 뒈 가민 오주. (봄에 나가면 팔월 추석 돼 가면 오지.)

김보향 게민 삼월에 나강? 사월에 나강? 언제 삼월, 사월? (그럼 삼월에 나가서? 사월에 나가서? 언제 삼월, 사월?)

김수정 어, 어. 그디 사는 사름은 살곡. 저을 물에, 저을에도 물질허켄 허멍 살곡. 오는 사름은 팔뤌 추석 뒈 가민 와. (어, 어. 거기 사는 사람은 살고. 겨울 물에, 겨울에도 물질하겠다고 하면서 살고. 오는 사람은 팔월 추석 돼 가면 와.)

김보향 팔월 추석 뒈가민 와. 나가는 건 삼월에 나가고예? (팔월 추석 돼 가면 와. 나가는 건 삼월에 나가고요?)

김수정 몰라, 이월에사 감신디 삼월에사 감신디 몰라. 막 추운 때 가. (몰라, 이월에야 가는지 삼월에야 가는지 몰라. 아주 추울 때 가.)

김보향 추운 때 가예. 겅 살당. (추울 때 가요. 그렇게 살다가.)

김수정 나도 겅 저 나이 어린 때 뎅겨나부난 잘 몰르크라. (나도 그렇게 저 나이 어릴 때 다녀서 잘 모르겠어.)

김보향 여기서는 뭐 ᄌᆞ물아낫수꽈? (여기서는 뭐 캤었습니까?)

김수정 뭐? (뭐?)

김보향 물질헐 때? (물질할 때?)

김수정 이디? 메역. (여기? 미역.)

김보향 메역 ᄌᆞ물고. (미역 캐고.)

김수정 메역 ᄌᆞ물곡, 전북 ᄌᆞ물곡. 고동 잡으곡, 소라 잡곡. (미역 캐고, 전복 캐고. 소라 잡고, 소라 잡고.)

김보향 전복이랑 고동이 옛날부터 막 잡아난 거 아니잖아? (전복이랑 소라가 옛날부터 마구 잡았던 거 아니잖아?)

김수정 막 잡앗주게. 엿날은 막 하낫주, 이젠 엇어도. (마구 잡았지. 옛날은 아주 많았지. 이젠 없어도.)

김보향 그게 돈 뒌 게 언제서부터? 그 옛날서부터 그게 다 돈 뒛수꽈? (그게 돈 된 게 언제서부터? 그 옛날서부터 그게 다 돈 됐습니까?)

김수정 그거 다 풀아근에 돈 뒈어낫주게, 옛날두. (그거 다 팔아서 돈 됐었지, 옛날도.)

김보향 어, 건 뭘 하영, 거 뭐가 젤 돈 하영 뒈수꽈, 삼춘은? (어, 건 뭘 많이, 거 뭐가 제일 돈 많이 됐습니까, 삼촌은?)

김수정 저 걸레 이레 도라. (저 걸레 이리 줘라.)

김보향 삼춘헌테 헙서. 바람, 삼춘한테 헙서. (삼촌한테 하세요. 바람, 삼촌한테 하세요.)

김수정 아이, 막 더위 먹어 노난 ᄉᆞ뭇 원 더움도. (아이, 마구 더위 먹어 놓으니까 사뭇 원 덥기도.)

김보향 더움도? (덥기도?)

김수정 엿날도게, 엿날은 물건이 막 하낫주게. 고무옷 안 입엉 들어도. 고무옷 아니 입엉 들민 재기 춥주게. 재기 추민 언만 오래 살지 못허여, 바당엔. 이젠 고무옷 입으민 뭐 멧 시간이라도 살앙 나왐시? (옛날도, 옛날은 물건이 아주 많았지. 고무옷 안 입고 들어도. 고무옷 안 입고 들면 재게 춥지. 재게 추우면 얼마 살지 못해, 바다에는. 이제는 고무옷 입으면 뭐 몇 시간이라도 살아서 나오니?)

김보향 그지예. 그지. (그렇지요, 그죠.)

김수정 겨민 엿날은 전북도 하곡, 소라도 하곡, 메역도 하곡 헤낫주만은. 이젠 메역 요 작년, 작년 막 좋안에 저 쌩차 ᄌᆞ물앙들 문 풀멍 헤나신디 올힌 메역 원 아이 낫젠. 오염뒈언. (그럼 옛날은 전복도 많고, 소라도 많고, 미역도 많고 했었지만. 이젠 미역 요 작년, 작년 아주 좋아서 생짜 캐서들 모두 팔면서 했었는데 올해는 미역 전혀 안 났대. 오염 되었어.)

김보향 아, 오염뒈언. (아, 오염 되었어.)

김수정 이 저 양어장들 헤영 막 오염뒈언. 듬북도 ᄒᆞ나 아이 나. (이 저 양어장들 해서 마구 오염되었어. 듬북도 하나 안 나.)

김보향 아이고. (아이고.)

김수정 바당에 풀이 읏어. 바당 이제 기자 헤영이라, 돌이. (바다에 풀이 없어. 바다 이제 그저 하얗더라, 돌이.)

김보향 헤영이라예. (하얘요.)

김수정 전인 바당에 돌 ᄉᆞ뭇 이 앞이 듬북도 민짝허곡 메역이랑 고동이영 잇어낫주마는 이젠 고동도, 저 소라도 읏어. (전에는 바다에 돌 사뭇 이 앞에 듬북도 가득하고 미역이랑 소라도 있었지만 이젠 소라도, 저 소라도 없어.)

김보향 소라도 엇어. (소라도 없어.)

김수정 소라도 저 알러레 상군들이나 강 잡아 오주. (소라도 저 아래로 '상군'들이나 가서 잡아 오지.)

김보향 으, 게민 삼춘 영 물질 가젠 허민 뭐 뭐 들렁 아졍 가야 뒐 거? (으, 그럼 삼촌 이렇게 물질 가려고 하면 뭐 뭐 들고 가지고 가야 될 거?)

김수정 미시거 들렁 가? (뭐 들고 가?)

김보향 어. (어.)

김수정 테왁. ('테왁'.)

김보향 테왁하고. ('테왁'하고.)

김수정 테왁허곡 고무옷 입곡. ('테왁'하고 고무옷 입고.)

김보향 고무옷 입고? (고무옷 입고?)

김수정 눈 쓰곡. (물안경 쓰고.)

김보향 눈 쓰고, 또? (물안경 쓰고, 또?)

김수정 그거주. (그거지.)

김보향 게난 여기서부터 고무옷 입엉 갈 거 아니잖아? 구덕에? 질구덕?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고무옷 입고 갈 거 아니잖아? 바구니에? '질구덕'?)

김수정 구덕에, 엿날은 구덕에 진디 이젠 콘테나에. (바구니에, 옛날은 바구니에 졌는데 이젠 콘테이너에.)

김보향 예, 우리 지금 거 말고 옛날 걸로 골아 줍서. (예, 우리 지금 거 말고 옛날 걸로 말해 주세요.)

김수정 옛날 구덕에, 촐구덕, 으. (옛날 바구니에, '촐구덕', 으.)

김보향 촐구덕? ('촐구덕'?)

김수정 으, 엿날은 고무옷이 잇어게? 우이 저 물수건, 물적삼. (으, 옛날은 고무옷이 있어? 위에 저 '물수건', '물적삼'.)

김보향 물적삼. ('물적삼'.)

김수정 적삼 입곡, 수건 쓰곡. 쪼꼴락헌 눈 쓰곡. (적삼 입고, 수건 쓰고. 작은 눈 쓰고.)

김보향 그거 쪼꼴락헌 눈을 족은눈이렌 골안? 그냥 쪼꼴락한 눈이렌 골안? 뭐렌 골안? (그거 작은 눈을 '족은눈'이라고 말했어? 그냥 '족은눈'이라고 말했어? 뭐라고 말했어?)

김수정 기냥 족은눈이주게, 족은눈. (그냥 '족은눈'이지, '족은눈'.)

김보향 족은눈예. ('족은눈'요.)

김수정 으, 족은눈. (으, '족은눈'.)

김보향 영 안경으로 뒈어 잇는예? (이렇게 안경으로 되어 있는요?)

김수정 으, 족은눈 영 영 헌 거. 칭이 영 돌아멩 허곡. 구덕에 졍 가근에 고무옷, 저 아랜 속곳. 아랜 검은 속곳 입곡, 흰 속곳도 만들앙 이런 디 문 저 뭐니 벌ᄆᆞ작 헤영 이디 빈지룩헹 돌아근에 문 매여. (으, '작은눈' 이렇게 이렇게 한 거. 끈이 이렇게 달아매서 하고. 바구니에 지고 가서 고무옷, 저 아래는 '속곳'. 아래는 검은 '속곳' 입고, 흰 '속곳'도 만들어서 이런 데 모두 저 뭐니 매듭단추 해서 여기 줄줄이 달아매서 모두 매.)

김보향 여기 이쪽에 벌ᄆᆞ작예? (여기 이쪽에 매듭단추요?)

김수정 으. (으.)

김보향 우에 세 개, 밑에 세 개? (위에 세 개, 밑에 세 개?)

김수정 으, 세 개만 뒈어? 댓, 서너 네 개썩 돌앙. (으, 세 개만 돼? 댓, 서너 네 개씩 달아서.)

김보향 서너 네 개썩 돌아? (서너 네 개씩 달아?)

김수정 이디 민짝허게 돌곡 검은 속곳엔 이제 우인 흰 적삼, 물수건도 흰 거. (여기 '민짝하게' 달고 검은 '속곳'에는 이제 위에는 흰 적삼, '물수건'도 흰 거.)

김보향 흰 거? (흰 거?)

김수정 으, 족은눈 쓰곡. (으, '족은눈' 쓰고.)

김보향 족은눈 쓰곡. 그 속곳을 삼춘 언제까지 입엇수꽈? ('족은눈' 쓰고. 그 '속곳'을 삼촌 언제까지 입었습니까?)

김수정 무시거? (뭐?)

김보향 몇 살까지 속곳을 입어난? (몇 살까지 '속곳'을 입었었어?)

김수정 몰라, 멧 살ᄁᆞ지산디 거 고무옷 나난에 저 물적삼이영 속곳이영 치와 벳주. (몰라, 몇 살까지인지 거 고무옷 나오니까 저 '물적삼'이랑 '속곳'이랑 치워 버렸지.)

김보향 아아. (아아.)

김수정 고무옷 남 시작허난. 고무옷 나온 건디도 이제 오랫어. 멧 년 뒛어. (고무옷 나기 시작하니까. 고무옷 나온 지도 이제 오랬어. 몇 년 됐어.)

김보향 오래서예. 예예. (오랬어요, 예예.)

김수정 멧 설 때사 헤나신디 몰라. (몇 살 때야 했었는지 몰라.)
김보향 모르커라. 구덕에 출구덕? (모르겠어. 바구니에 '출구덕'?)
김수정 출구덕. ('출구덕'.)
김보향 그 질구덕 안 헹 출구덕? (그 '질구덕' 안 해서 '출구덕'?)
김수정 질구덕. ('질구덕'.)
김보향 아, 질구덕. (아, '질구덕'.)
김수정 출구덕엔 미시것덜 헤당덜 노민 족앙 못 허지. 질구덕 아졍 강, 메역 ᄌᆞ물 땐 질구덕에도 잔뜩 담앙 졍 오곡. 또 쉐덜 신 사름은 쉐에, 바레기 이신 사름은 바레기 먼 메역덜 시꺼다근에 먼 몰량 풀곡. 몰량 먼 풀아낫어, 메역. ('출구덕'이라고 뭣들 해다가 넣으면 작아서 못 하지. '질구덕' 가지고 가서, 미역 캘 때는 '질구덕'에도 잔뜩 담아서 져서 오고. 또 소들 있는 사람은 소에, 달구지 있는 사람은 달구지에 모두 미역들 실어다가 모두 말려서 팔고. 말려서 모두 팔았었어, 미역.)
김보향 몰량은. (말려서는.)
김수정 옛날엔 메역 ᄌᆞ물앙 먼 밧 사곡 집 사곡덜 헤낫주게. (옛날에는 미역 캐서 모두 밭 사고 집 사고들 했었지.)
김보향 기지예. (그렇죠.)
김수정 해녀덜. (해녀들.)
김보향 게민 그 미역은 이녁만씩 몰령 ᄑᆞ는 거? (그럼 그 미역은 자기만큼씩 말려서 파는 거?)
김수정 몰령, 몰려근에. (말려서, 말려서.)
김보향 어. (어.)
김수정 몰령 장갑으로 이만썩 질게 헤연에 코뚱허게 졸라매엉 파랗게 몰려근에. (말려서 장갑으로 이만큼씩 길게 해서 가지런하게 잘라매서 파랗게 말려서.)
김보향 바당 갈 때 질구덕에예. 물옷을 멧 개, 속곳을 멧 개 담아수꽈? (바다 갈 때 '질구덕'에요. 물옷을 몇 개, '속곳'을 몇 개 담았습니까?)
김수정 속곳? ('속곳'?)
김보향 하나만 담앙 가는 거? 아니잖아? 속곳 멧 개 놘? (하나만 담아서 가는 거? 아니잖아? '속곳' 몇 개 넣었어?)
김수정 ᄆᆞ른, ᄆᆞ른 옷, ᄆᆞ른 몸에 입곡, 물에 강 입을 옷 허곡. (마른, 마른 옷, 마른 몸에 입고, 물에 가서 입을 옷 하고.)

김보향 하나, 하나 더 놩예? (하나, 하나 더 넣어서요?)
김수정 으. (으.)
김보향 예예. (예예.)
김수정 두 개도 아졍 가곡, ᄒᆞ나도 아졍 가곡. 경 헤영. (두 개도 가지고 가고, 하나도 가지고 가고. 그렇게 해서.)
김보향 아, 두 개도 아져 가고, ᄒᆞ나도 아져 가곡. (아, 두 개도 가지고 가고, 하나도 가지고 가고.)
김수정 잇는 대로 아졍 가주게, 신 사름은. (있는 대로 가지고 가지, 있는 사람은.)
김보향 그 전복 트젠 뭐도 담앙 갈 거 아니? 거 뭐? (그 전복 떼려고 뭐도 담아서 갈 거 아니? 거 뭐?)
김수정 망사리에 담앙 오랑. (망사리에 담아서 와서.)
김보향 망사리에 담앙 오고. (망사리에 담아서 오고.)
김수정 곳디 나민 받는 사람이 잇어. 받는 사람이 이시난 받앙 풀아다근에 돈 주곡 헤낫지. (가에 나오면 받는 사람이 있어.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받아서 팔아다가 돈 주고 했었지.)
김보향 그거 틀 때, 영? (그거 뗄 때, 이렇게?)
김수정 비창. ('비창'.)
김보향 비창. ('비창'.)
김수정 요만은 헌 저 쒜로 만든 거 잇어. 쏠랑허게시리. 요만, 요만은 헐 거라. (요만큼 한 저 쇠로 만든 거 있어. 홀쭉하게끔. 요만, 요만큼은 할 거야.)
김보향 비창허고, 또? ('비창'하고, 또?)
김수정 골겡이도 아졍 뎅기곡. (호미도 가지고 다니고.)
김보향 골겡이도 가졍 가고예. 골겡이도 가졍 가야 그걸 맬 거라예. 예. (호미도 가지고 가고요. 호미도 가지고 가야 그걸 맬 거지요. 예.)
김수정 으. 골겡인 아졍 가민 영 물 아래 강은에 물 쏘곱에 들어강 돌도 영 일러져. 돌 일르민 돌 아래 오분작도 부트곡. (으. 호미는 가지고 가면 이렇게 물 아래 가서 물 속에 들어가서 돌도 이렇게 일으킬 수 있어. 돌 일으키면 돌 아래 오분자기도 붙고.)
김보향 오분작도 부트고. (오분자기도 붙고.)
김수정 전북도. (전복도.)
김보향 전복도 부트고. (전복도 붙고.)

김수정 엿날은 전북도 부터낫저, ᄀᆞ치덜. (옛날은 전복도 붙었었어, 같이들.)

김보향 예예. 고무옷 입으면 여기 허리에도 뭐 차야 뒈지 안헤여? (예예, 고무옷 입으면 여기 허리에도 뭐 차야 되지 않아?)

김수정 연철. ('연철'.)

김보향 연철. ('연철'.)

김수정 연철 저 일 킬로, 일관 오백. (연철 저 일 킬로그램, 일 관 오백.)

김보향 아, 무게가? (아, 무게가?)

김수정 으, 족으민 터 비여. (으, 적으면 떠 버려.)

김보향 아, 예예. (아, 예예.)

김수정 무거와사 물 아래 가주. (무거워야 물 아래 가지.)

김보향 으. 삼춘 여기 귀 물 들지 말렌 뭐는 안 헤낫수꽈? (으. 삼촌 여기 귀에 물 들지 말라고 뭐는 안 했었습니까?)

김수정 저 무시거. 귀 막는 저, 밀 헤영 막아낫주. (저 뭐, 귀 막는 저, 밀 해서 막았었지.)

김보향 밀예. (밀요.)

김수정 밀. (밀.)

김보향 밀 영 영 영 헤가지고 귀 막고? (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귀 막고?)

김수정 저 무시거 몰라, 옛날엔. 시방덜은 저 귀 막젱 허민 끔 씹어. 끔 씹어근에 헤영 막앙 혼디 옛날은 밀, 밀 헤근에 그 무시거 막 달와근에 저 헤낫어. 우리 어머니네, 우리 두린 때 보민, 허는 거. (저 뭐 몰라, 옛날에는. 시방들은 저 귀 막으려고 하면 껌 씹어. 껌 씹어서 해서 막아서 하는데 옛날은 밀, 밀 해서 그 뭐 마구 이겨서 저 했었어. 우리 어머니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하는 거.)

김보향 아아. (아아.)

김수정 밀이 뭣산지 그 저 청, 청 앚져난 주셍이. 그거 헤영 밀 헤영 막 밟아근에. (밀이 뭐인지 그 저 꿀, 꿀 앉혔던 찌꺼기. 그거 해서 밀 해서 마구 밟아서.)

김보향 음. (음.)

김수정 밀 헤영 막아사주, 저 아이 막는 사름은 아이 막아도, 막아사주. 아이 막아? (밀 해서 막아야지, 저 안 막는 사람은 안 막아도, 막아야지. 안 막아?)

김보향 삼춘 물에 들어갈 때 비창이랑 골겡이랑 두 개 다 허리에 창 갓수꽈? (삼촌 물에 들어갈 때 '비창'이랑 호미랑 두 개 다 허리에 차서 갔습니까?)

김수정 골겡인 손에 심곡. (호미는 손에 잡고.)

김보향 골겡인 손에 심곡. (호미는 손에 잡고.)

김수정 비창은 허리에 차곡. ('비창'은 허리에 차고.)

김보향 허리에 차곡, 아. (허리에 차고, 아.)

김수정 저 망사리, 손에 아니 심은 땐 또 망사리 들이치곡. 테왁에 망사리 들이치곡. (저 망사리, 손에 안 잡을 때는 또 망사리 들어뜨리고. '테왁'에 망사리 들어뜨리고.)

김보향 아, 들이치곡. (아, 들어뜨리고.)

김수정 어, 들이쳐. (어, 들어뜨려.)

김보향 게민 물에 들 때는 그냥 여기 뭐 허리에도 뭐 안 창 가곡? 조락 같은 거? (그럼 물에 들 때는 그냥 여기 뭐 허리에도 뭐 안 차서 가고? '조락' 같은 거?)

김수정 아니. (아니.)

김보향 작은 망사리 안 헤? (작은 망사리 안 해?)

김수정 조락 창 가믄, 시방 테레비에 보민 저 서이 사름덜 테왁에 조레기 이만썩헌 거 창 조레기에도 담곡 망사리에도 담곡 허는디 이딘 무시거 조레기 아니혀. ('조락' 차서 가면, 시방 텔레비전에 보면 저 서쪽 사람들 '테왁'에 '조레기' 이만한 거 차서 '조레기'에도 담고 망사리에도 담고 하는데 여긴 뭐 '조레기' 안 해.)

김보향 아아. (아아.)

김수정 이딘 조레기 요만헌 거 아졍 가민 만약에 전북이나 잡안, 전북은 소라에 ᄀᆞ치 잡아 놓곡 그디 미시거. (여긴 '조레기' 요만한 거 가지고 가면 만약에 전복이나 잡아서, 전복은 소라에 같이 잡아 넣고 거기 뭐.)

김보향 여기는 구덕을 조레기렌 골읍디다 보말 잡으러 가는 조레기. (여기는 바구니를 '조레기'라고 말합디다. 고둥 잡으러 가는 '조레기'.)

김수정 어디? (어디?)

김보향 저기 태흥에서는. 구덕? (저기 태흥에서는. 구덕?)

김수정 태흥리? (태흥리?)

김보향 으. (으.)

김수정 조레기주게. ('조레기'지.)

김보향 그 구덕 닮은 거예? 아니? (그 바구니 같은 거요? 아니?)

김수정 구덕 닮은 것이 잇어? (바구니 같은 것이 있어?)

김보향 그. (그.)

김수정 구물로. (그물로.)

김보향 그물로 그거 조레기렌 헤? (그물로 그거 '조레기'라고 해?)

김수정 에, 구물로 요만헌 짜주게. 짜근에 어음 영 돌앙. (에, 그물로 요만큼 짜지. 짜서 '어음' 이렇게 달아서.)

김보향 어음 돌앙? ('어음' 달아서?)

김수정 이디 저 무시거 막뎅이 무시거, 저 무시거니? 저 쒜로 영 오그려근에. (여기 저 뭐 막대기 뭐, 저 뭐지? 저 쇠로 이렇게 오그려서.)

김보향 예. (예.)

김수정 요만은 헤영 그디 영 문 얼겅 조레기 영 아랜 호우쌍 영 문딱 꿰주게. 영 풀어지민 꿰여근엥 알로 호우쌍 줄라메곡 이 우인 또 손 들어갈 만이. (요만은 해서 거기 이렇게 모두 얽어. '조레기' 이렇게 아래는 감싸서 이렇게 모두 꿰지. 이렇게 풀어지면 꿰어서 아래로 감싸서 잘라매고 이 위에는 또 손 들어갈 만큼.)

김보향 음. (음.)

김수정 고냥 나게 헤여근에. (구멍 나게 해서.)

김보향 맞아, 크게 내지 안헤근에예? (맞아, 크게 내지 않고요?)

김수정 망사리에 돌앙 강 그디 강 저 헤솜 잡은 사름은 고동에 헤솜 잡아 노민 흠 나주게. 영 막 밀령 휘여 뎅겨가민. 게난 그 헤솜 놓젠 조레기 허주, 저 서이 싸름덜ᄀᆞ추룩 ᄒᆞ지 아녀. 이딘 조레기 요만썩헌 거 아졍 뎅겨. 또 오분작 잡아 놓젠 허민 그 조레기에 오분작 잡아 놓고 경허주. (망사리에 달아서 가서 거기 가서 저 해삼 잡은 사람은 소라에 해삼 잡아 넣으면 흠 나지. 이렇게 마구 밀려서 휘어 다녀가면. 그러니까 그 해삼 넣으려고 '조레기' 하지, 저 서쪽 사람들같이 하지 않아. 여긴 '조레기' 요만한 거 가지고 다녀. 또 오분자기 잡아 넣으려고 하면 그 '조레기'에 오분자기 잡아 넣고 그러지.)

김보향 테왁엔 뭐 잡아 놓고? 망사리에는 미역 헤 놓고? ('테왁'에는 뭐 잡아 넣고? 망사리에는 미역 해 넣고?)

김수정 망사, 테왁에 부쩟주게. (망사, '테왁'에 붙었지.)

김보향 예예. (예예.)

김수정 망사리사. 어음 이만은 헤여근에 테왁 돌곡 망사린 이레 헤여근에. 메역 ᄌᆞ물 땐 메역 ᄌᆞ물곡, 고동 잡을 땐 고동이영 또 전복은 엇어이, 이젠. 엿날은 엿날은 잇어도. 이제 전북 잡는 사름이 엇어. (망사리야. '어음' 이만큼은 해서 '테왁' 달고 망사리는 이리 해서. 미역 캘 때는 미역 캐고, 소라 잡을 때는 소라랑 또 전복은 없어, 이젠. 옛날은 옛날은 있어도. 이제 전복 잡는 사람이 없어.)

김보향 게민 물에 들엉 고동도 하영 잡아낫수꽈? (그럼 물에 들어서 소라도 많이 잡았었습니까?)

김수정 하영 잡아낫주게. (많이 잡았었지.)

김보향 아, 물에 들엉? (아, 물에 들어서?)

김수정 혼번 들엉 나면 혼 삼십 키로썩. (한번 들고 나면 한 삼십 킬로그램씩.)

김보향 아이고. (아이고.)

김수정 상군덜은 백 키로썩 잡아. 상군덜 저 아래 강 망사리 크게 헤영은에 그 망사리 ᄒᆞ나 잡앙 와. 백 키로썩. ('상군'들은 백 킬로그램씩 잡아. 상군들 저 아래 가서 망사리 크게 해서 그 망사리 하나 잡아서 와. 백 킬로그램씩.)

김보향 그민, 그민 물에 잡는 게, 물에 들엉 잡는 게 메역이랑 고동이랑 전복, 해삼 그런 거 말고 여기는 우미는 안 헤낫수꽈? (그럼, 그럼 물에 잡는 게, 물에 들어서 잡는 게 미역이랑 소라랑 전복, 해삼 그런 거 말고 여기는 우뭇가사리는 안 했었습니까?)

김수정 무시거? (뭐?)

김보향 우미, 우미. (우뭇가사리, 우뭇가사리.)

김수정 우미? (우뭇가사리?)

김보향 으. (으.)

김수정 이젠 우밋 바당 엇어. (이제는 우뭇가사리 바다 없어.)

김보향 엇어. (없어.)

김수정 어, 우미가 아이 나. 겨곡. (어, 우뭇가사리가 안 나. 그리고.)

김보향 톨은? (톳은?)

김수정 톨은 엿날엔 민짝헨 톨 헤다근에 ᄆᆞᆯ류완 풀아낫주, 이젠 톨도 읏어. 오염됀. 바당이 문 **이라. 톨이 ᄉᆞ뭇 이만썩헌 톨 민짝헤나신디 원, 이 양어장 ᄒᆞ는 통에 원 바당에 그만 신세 져 벳어. (톳은 옛날에는 '민짝해서' 톳 해다가 말려서 팔았었지, 이젠 톳도 없어. 오염돼서. 바다가 모두 **이야. 톳이 사뭇 이만한 톳 '민짝했었는데' 원, 이 양어장 하는 통에 원 바다에 그만 신세 져 버렸어.)

김보향 톨 언제까지 헤낫수꽈? 톨은? (톳 언제까지 했었습니까? 톳은?)

김수정 언제ᄁᆞ지사 헤신디 양어장 험 전이ᄁᆞ진 톨이 잇어나신디. (언제까지야 했는지 양어장 하기 전에까지는 톳이 있었는데.)

김보향 으. (으.)

김수정 이젠 톨이 읏어. (이젠 톳이 없어.)
김보향 잠시만예. (잠시만요.)
김수정 차가운 물에 저 모, 목욕을 허민 추민 낭덜 헤여근에 막 불 솜아낫주. (차가운 물에 저 모, 목욕을 하면 추우면 나무들 해서 마구 불 땠었지.)
권미소 게난. (그러니까.)
김수정 불 솜앙 초와나신디 이젠 더운물, 보이라 물 뜨뜻한 물에 오랑 모욕을 허민. (불 때서 쬐었었는데 이젠 더운물, 보일러 물 뜨뜻한 물에 와서 목욕을 하면.)
권미소 ᄃᆞ신 물 나오난? (따뜻한 물 나오니까?)
김수정 으, ᄯᅮ신 물 나오난 그 물에 모욕허민 불덜 아니 초와. 게곡. (으, 따뜻한 물 나오니까 그 물에 목욕하면 불들 안 쬐어. 그리고.)
권미소 거난 엿날엔, 엿날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옛날에는?)
김수정 엿날엔 불 솜안 초와낫주. (옛날에는 불 때서 쬐었었지.)
권미소 게난 그 불, 불 솜을 걸로 뭘? (그러니까 그 불, 불 때는 걸로 뭘?)
김수정 낭. (나무.)
권미소 무슨 낭? 게난 무슨 낭 아졍 갓어, 아졍 가난? (무슨 나무? 그러니까 무슨 나무 가지고 갔어, 가지고 갔었어?)
김수정 아무 낭이라도게. (아무 나무라도.)
권미소 아무 낭이라도? (아무 나무라도?)
김수정 삭은, 저 몰른 낭덜. (삭은, 저 마른 나무들.)
권미소 게민 영 불 솜는 요기? (그럼 이렇게 불 때는 여기?)
김수정 어, 봉덕 멘들앙. (어, '봉덕' 만들어서.)
권미소 봉덕 멘들앙? ('봉덕' 만들어서.)
김수정 봉덕 멘들앙 그디 불 솜앙 초와낫주. ('봉덕' 만들어서 거기 불 때서 쬐었었지.)
권미소 봉덕 멘들앙예. ('봉덕' 만들어서요.)
김수정 이젠 저 좀수덜 앚는 디 보이라 틀민 그 저 ᄯᅮ슨 물에 모욕헹 오랑 ᄯᅮ슨 디덜 앚이민 불 아이 초와도 뒈어. (이젠 저 해녀들 앉는 데 보일러 켜면 그 저 따뜻한 물에 목욕해서 와서 따뜻한 데들 앉으면 불 안 쬐어도 돼.)
권미소 게믄 질구덕에예, 불 솜을 거 낭도 앗앙 가고? (그럼 '질구덕'에요, 불 땔 거 나무도 가지고 가고?)
김수정 이젠 아니. 엿날은 헨. (이젠 아니. 옛날은 했어.)

권미소 엿날에. 삼춘 우린 엿날 거가 필요한 거라예. (옛날에. 삼촌 우린 옛날 거가 필요한 거예요.)
김수정 엿날엔. (옛날에는.)
권미소 영 더프는 것도? (이렇게 덮는 것도?)
김수정 질구덕에 검질. ('질구덕'에 검불.)
권미소 검질. (검불.)
김수정 검질 담앙 가근에 낭이 잇어? 저 이레, 이 남원린 낭으로 불 솜아낫주만은 저 우트렌 검질 거 질구덕에 잔뜩 담앙 테왁 놓곡 졍 가근엥 불 솜아낫주. ('검불' 담아서 가서 나무가 있어? 저 이리, 이 남원리는 나무로 불 땠었지만 저 위로는 검불 거 '질구덕'에 잔뜩 담아서 '테왁' 놓고 지고 가서 불 땠었지.)
권미소 남원리는 부젯 동네였구나예? 낭 아졍 강? (남원리는 부자 동네였군요? 나무 가지고 가고?)
김수정 아니, 검질이 읏어부난. (아니, 검불이 없으니까.)
권미소 검질이 엇어부난? (검불이 없으니까?)
김수정 검질이 저 화전에벳기 강 헤 온 따문에. (검불이 저 화전에밖에 가서 해 오는 때문에.)
권미소 어. (어.)
김수정 쉐 신 사름은 쉐촐이나 어떵 강 ᄒᆞ썰 헤 오주, 낭덜 저 화전이 강 낭덜 져당 밥두 헤먹어낫주게. (소 있는 사람은 쇠꼴 어떻게 가서 조금 해 오지, 나무들 저 화전에 가서 나무들 져다가 밥도 해먹었었지.)
권미소 아, 검질 엇이난? (아, 검불 없으니까?)
김수정 이디 촐왓디, 저 촐인가 검질 밧이 엇주게, 이렌. 엇이난 저기 저, 엇인 사름덜은 저 화전에 강 저 막 먼 디 그디 강 낭덜 져당근엥에 밥덜 헹 먹엇주. (여기 꼴밭, 저 꼴인가 검불 밭이 없지, 이리는. 없으니까 저기 저, 없는 사람들은 저 화전에 가서 저 아주 먼 데 거기 가서 나무들 져다가 밥들 해서 먹었지.)
권미소 머리에 영 둘러쌍 봉덕에 불 또 영 때주만은? (머리에 이렇게 둘러싸서 '봉덕'에 불 또 이렇게 때지만?)
김수정 거시기. (거시기.)
권미소 거세기? 건 뭐? (거시기? 건 뭐?)
김수정 뜨데기. ('뜨데기'.)

권미소 뜨데기? ('뜨데기'.)

김수정 뜨데기 저 소게 놩. ('뜨데기' 저 솜 넣어서.)

권미소 소게 놩. (솜 넣어서.)

김수정 소게 놩 멘들앙 영영 톡허게 써근에 불 초는 거. (솜 넣어서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톡 써서 불 쬐는 거.)

권미소 그믄 삼춘예, 속곳도 가져가고예, 머리에도 뭐 쓸 거 아니예? (그럼 삼촌요, '속곳'도 가져가고요, 머리에도 뭐 쓸 거 아니요?)

김수정 으, 머리에도 쓰곡게. (으, 머리에도 쓰고.)

권미소 거 머리에 쓰는 건 뭐렌 헙니까? (거 머리에 쓰는 건 뭐라고 합니까?)

김수정 머리에 미싱거 썽 가? (머리에 뭐 쓰고 가?)

권미소 수건 말고? (수건 말고?)

김수정 수건 썽 가주. (수건 써서 가지.)

권미소 수건 말고 어디 다른 데 가 보난 까부리? (수건 말고 어디 다른 데 가 보니까 '까부리'?)

김수정 까부리? ('까부리'?)

권미소 까부린 이디 엇어? ('까부리'는 여기 없어?)

김수정 까부린 저 물에 들 땐 까부리덜 써낫어. ('까부리'는 저 물에 들 때는 '까부리'덜 썼었어.)

권미소 예, 거 어떵 생긴 거마씨? (예, 거 어떻게 생긴 거예요?)

김수정 물에 들 때 써난 사름은 써난 거. (물에 들 때 썼던 사람은 썼던 거.)

권미소 음. (음.)

김수정 그때 저슬이사 무시거 물에 들레 바당에 갈 때 추우민게 무신 수건덜 썽 뎅여낫주, 수건. (그때 겨울에야 뭐 물에 들러 바다에 갈 때 추우면 무슨 수건들 써서 다녔었지, 수건.)

권미소 겐 이딘 까부린 잘 쓰진 않앗던 거 닮다예? (그래서 여긴 '까부리'는 잘 쓰진 않았던 거 같네요?)

김수정 이젠 수건도 안 쓰곡 마을 저, 기자 이젠 저 미시거 모자덜 썽 뎅이주. 모자덜. (이젠 수건도 안 쓰고 마을 저, 그저 이젠 저 뭐 모자들 써서 다니지. 모자들.)

권미소 게메예. 이젠 또 발도? (그러니까요. 이젠 또 발도?)

김수정 발도 보선 신엉 가곡. 양발 신엉 가곡. (발도 버선 신고 가고. 양말 신고 가고.)

권미소 그땐 양말 신엉 가곡? (그땐 양말 신고 가고?)

김수정 으. 엿날은 맨발에 오리발도 아니여. (으. 옛날은 맨발에 오리발도 아니야.)

권미소 오리발도 아니여? (오리발도 아니야?)

김수정 으, 맨발에, 맨발에 휘여낫어. 게믄 발이 ᄉᆞ뭇 착착 기차져. (으, 맨발에, 맨발에 헤엄쳤었어. 그럼 발이 사뭇 착착 끊어져.)

권미소 하이구. (하이구.)

김수정 물이 얼마나 실려? 저슬에사. 눈 우이, 눈 허영 온 디도 들어낫어. (물이 얼마나 시려워? 겨울에야. 눈 위에, 눈 허옇게 온 데도 들었었어.)

권미소 게난예, 경 추운디 어떵 들어나신고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추운데 어떻게 들었었는가요?)

김수정 고무옷 입은 땐 헌디, 고무옷 안 입은 땐 기자 어여, 혼 언마 못 살아, 바당에덜. 추워. (고무옷 입은 때는 그런데, 고무옷 안 입을 때는 그저 어여, 한 얼마 못 살아, 바다에서들. 추워.)

권미소 음, 맞아예. (음, 맞아요.)

김수정 난 고무옷 입으민, 집이서 고무옷 문 입엉. (난 고무옷 입으면, 집에서 고무옷 모두 입고.)

권미소 집이서부터? (집에서부터?)

김수정 양발, 양발 신곡, 신 신곡 헤영 걸어가근에 일로 강 빠졍 이 앞이 들어낫어. (양말, 양말 신고, 신 신고 해서 걸어가서 이리로 가서 빠져서 이 앞에 들었었어.)

권미소 아아, 이 앞이? 바로 앞이? (아아, 이 앞에? 바로 앞에?)

김수정 이 앞이, 바로, 바로 앞이. (이 앞에, 바로, 바로 앞에.)

권미소 게난. (그러니까.)

김수정 이 바로 앞이도 이 곳디 막 오분작도 하곡, 소라도 하곡 헤나서. 막 멀리 안 나가도 이 곳디덜 하나썩덜 이젠 문 곳디 엇어. 부딘 디 엇어. (이 바로 앞에도 이 가에 마구 오분자기도 하고, 소라도 하고 했었어. 아주 멀리 안 나가도 이 가에들 하나씩들 이젠 모두 가에 없어. 가까운 데 없어.)

권미소 겐 삼춘 물에 들엇당 나오믄 남자 삼춘이 마중도 가낫수꽈? (그래서 삼촌 물에 들었다가 나오면 남자 삼촌이 마중도 갔었습니까?)

김수정 마중 메역 헐 땐 마중 헤야주게. (마중 미역 할 때는 마중 해야지.)

권미소 어떵헹? 뭐 끗엉 강? (어떡해서? 뭐 끌고 가서?)

김수정 지게. (지게.)

권미소 지게 졍? (지게 져서?)

김수정 지게 졍덜 마중ᄒᆞ는 사름 마중ᄒᆞ주게. (지게 져서들 마중하는 사람 마중하지.)

권미소 아, 겜 삼춘 들믄? (아, 그럼 삼촌 들면?)

김수정 으, 남자덜 신 사름은 시방두 저 성게 잡는디 남, 남자들 가근에 ᄆᆞᆫ 벌러 주곡, 까 주곡 헹 헴시녜. (으, 남자들 있는 사람은 시방도 저 성게 잡는데 남, 남자들 가서 모두 깨 주고, 까 주고 해서 하고 있잖아.)

김보향 음, 우리 테왁 할 때예, 지금은 이런 테왁이잖아? 지금은 다 이런 거잖아예? 나일론으로 헤 가지고? (음, 우리 '테왁' 할 때요, 지금은 이런 '테왁'이잖아요? 지금은 다 이런 거잖아요? 나일론으로 해 가지고?)

김수정 서이 싸람덜은 이치룩 테왁을 얼거두 이딘 테왁 잘도, 욜로 가멍 보라. 테왁 잘도 곱게 얼겅 막 촘, 아졍 놀암직허게 얼거. 이치룩 얼그지 아녀. 이런 데 막 감, 여러 개 ᄒᆞᆫ 영 ᄒᆞᆫ 이 줄이. (서쪽 사람들은 이처럼 '테왁'을 얽어도 여긴 '테왁' 아주, 욜로 가면서 봐라. '테왁' 아주 곱게 얽어서 아주 참, 가지고 놀만하게 얽어. 이처럼 얽지 않아. 이런 데 마구 감, 여러 개 한 이렇게 한 이 줄이.)

김보향 으. (으.)

김수정 이 줄이. (이 줄이.)

김보향 이 줄을 뭐렌? (이 줄을 뭐라고?)

김수정 일곱 가지, 일곱 가지 벵벵 허게시리 헤낫주. (일곱 가지, 일곱 가지 뱅뱅 하게끔 했었지.)

김보향 아, 그민 이거 동글랑한게 줄이 일곱 개나 나와? (아, 그럼 이거 동그래서 줄이 일곱 개나 나와?)

김수정 아니, 으. 일곱 줄, 일곱 줄을 영 멘들앙 욜로 요레만이 저 얼거낫어. 이치룩 아니 혀. 요만이 얼거나곡 또 요디, 요디두 요만이헌 허곡. (아니, 으. 일곱 줄, 일곱 줄을 이렇게 만들어서 요리로 요리만큼 저 얽었었어. 이처럼 안 해. 요만큼 얽었었고 또 요기, 요기도 요만한 하고.)

김보향 음. (음.)

김수정 ᄒᆞᆫ ᄋᆞ슷, ᄋᆞ슷, ᄋᆞ슷 줄 쌀 거라, 영. ᄋᆞ슷 줄. 테왁 큰 것엔. (한 여섯, 여섯 줄 쌀 거야, 이렇게. 여섯 줄. '테왁' 큰 것에는.)

김보향 큰 것에예? (큰 것에요?)

김수정 ᄋᆞ슷 줄도 싸곡. (여섯 줄도 싸고.)

김보향 영 둘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감싼다는 얘기? (이렇게 둘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감싼다는 얘기?)

김수정 일곱, 일곱 줄도 허곡 헤영. (일곱, 일곱 줄도 하고 해서.)

김보향 예. (예.)

김수정 이렌 영 줄 ᄀᆞ추룩 이레 소랑소랑허게 이레 ᄆᆞᆫ딱 얼, 영 얼그주게. 영 요추룩, 요것추룩. (이리는 이렇게 줄같이 이리 길쭉길쭉하게 이리 모두 얼, 이렇게 얽지. 이렇게 요처럼, 요것처럼.)

김보향 예, 게난 삼춘 영허민 쌀 때 요 줄을 뭐렌 불르는 일름이 잇수꽈? (예, 그러니까 삼촌 이러면 쌀 때 요 줄을 뭐라고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까?)

김수정 얼그는 거. (얽는 거.)

김보향 얼그, 그냥 얼그는 거? (얽, 그냥 얽는 거?)

김수정 어, 얼그는 거. (어, 얽는 거.)

김보향 게민 이렇게? (그럼 이렇게?)

김수정 테왁 얼그는 거. ('테왁' 얽는 거.)

김보향 이렇게 줄 여섯 개를 얼근덴 허는 말이지예? (이렇게 줄 여섯 개를 얽는다고 하는 말이지요?)

김수정 으, 으. (으, 으.)

김보향 뚱그룽. (둥근.)

김수정 요 안네 ᄒᆞᆫ ᄋᆞ슷 줄이나 일곱이나 요거 이거ᄀᆞ추룩 콧등허게 영 얼거. (요 안에 한 여섯 줄이나 일곱이나 요거 이거처럼 가지런하게 이렇게 얽어.)

김보향 음. (음.)

김수정 이거 저 조레기 차신게, 이거. (이거 저 '조레기' 찼네, 이거.)

김보향 예, 맞수다. 조레기 채운 거예. (예, 맞습니다. '조레기' 채운 거요.)

김수정 조레기 차신게. 헤헤. ('조레기' 찼네. 헤헤.)

김보향 예예예. (예예예.)

김수정 서이 싸름덜은 이치룩벳긴 안 얼거. (서쪽 사람들은 이처럼밖에는 안 얽어.)

김보향 예. (예.)

김수정 시방 테레비에 보민. (시방 텔레비전에 보면.)

김보향 예. 아, 여긴 좀 ᄐᆞ나구나. (예. 아, 여기는 좀 다르구나.)

김수정 이 남원린 테왁 얼근 거 보민 잘도 곱게덜 얼거. (이 남원리는 '테왁' 얽은 거 보면 아주 곱게들 얽어.)

김보향 아, 기민예. 지금은 이런 테왁이라예? 옛날에는 이 망시리가, 망사리가 이런 거, 나일론 아니엇잖아? 뭘로 헤? (아, 그럼요. 지금은 이런 '테왁'이지요? 옛날에는 이 망사리가, 망사리가 이런 거, 나일론 아니었잖아? 뭘로 해?)

김수정 무시거? (뭐?)

김보향 뭐? (뭐?)

김수정 미, 미. ('미', '미'.)

김보향 미, 으. ('미', 으.)

김수정 미 빠당 몰류왕 그거 이제 두드려근에 복닥 두드령 꼬앙 꼬아근에 손으로 문 얼거, 저 거시기 만들앙. ('미' 뽑아다가 말려서 그거 이제 두드려서 폭삭 두드려서 꼬아서 꼬아서 손으로 모두 얽어, 저 거시기 만들어서.)

김보향 음, 음. (음, 음.)

김수정 우리 두린 땐 우리 어머니두 상군 허곡 나도 허곡 ᄒᆞ민 우리 친정아바지 그 미 빠다근에 몰량 두드려근에 그걸로 꼬앙 망사리덜 멘들아 줘낫주.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어머니도 '상군' 하고 나도 하고 하면 우리 친정아버지 그 '미' 뽑아다가 말려서 두드려서 그걸로 꼬아서 망사리들 만들어 줬었지.)

김보향 기지예, 아이구. 게민 여긴 미로만 헤낫수꽈? 다른 건 안 헤난? 미로만 망사리 만들어난? (그렇지요, 아이구. 그럼 여긴 '미'로만 했었습니까? 다른 건 안 했어? '미'로만 망사리 만들었었어?)

김수정 으, 옛날은 미덜, 미로 ᄒᆞ곡 저 남총.(으, 옛날은 '미'들, '미'로 하고 저 종려나무.)

김보향 예. (예.)

김수정 남총 그 영 겁데기 뽑아근에 그걸로도 꼬앙 헤나곡 경헷주게. (종려나무 그 이렇게 껍데기 뽑아서 그걸로도 꼬아서 했었고 그랬었지.)

김보향 어, 신사란 안 헤난? (어, 뉴질랜드삼은 안 했었어?)

김수정 신사란 안 헤연. (뉴질랜드삼은 안 했어.)

김보향 안 헤난. 그냥 미랑 남총이랑예? (안 했었어. 그냥 '미'랑 종려나무랑요?)

김수정 신사란 늘어낭 안 뒈여. (뉴질랜드삼은 늘어나서 안 돼.)

김보향 안 뒈여. 예, 게민 요거는? (안 돼. 예, 그럼 요거는?)

김수정 남총허곡 남총 그 검은 거 그거 뽑앙 저 꼬아근에 망사리 허곡 미. (종려나무 하고 종려나무 그 검은 거 그거 뽑아서 저 꼬아서 망사리 하고 '미'.)

김보향 음. (음.)

김수정 미 빠다근에 그걸로 꼬아근에 망사리 허곡 헤낫주. (미 뽑아다가 그걸로 꼬아서 망사리 하고 했었지.)

김보향 음. (음.)

김수정 시방은 문 이치룩 구물들 시난에 허곡. (시방은 모두 이처럼 그물들 있으니까 하고.)

김보향 맞수다. (맞습니다.)

김수정 테왁도 옛날은 ᄏᆞ. ('테왁'도 옛날은 박.)

김보향 ᄏᆞ. 예. (박. 예.)

김수정 ᄏᆞ 올아근에 소곱에 거울, 요만헌 고냥 똘라근에 영 불 솜는, 불 속에 둘아메어. 그 테왁을 ᄒᆞ쏠 저 더운 짐으로 ᄒᆞ쏠 익곡 몰르곡 ᄒᆞ민 그 안네 거울, 씨 그걸 몰라. (박 열어서 속에 '거울', 요만한 구멍 뚫어서 이렇게 불 때는, 불 속에 달아매. 그 '테왁'을 조금 저 더운 김으로 조금 익고 마르고 하면 그 안에 '거울', 씨 그걸 말려.)

김보향 그걸 거울이렌 골아? (그걸 '거울'이라고 말해?)

김수정 거울. ('거울'.)

김보향 아. (아.)

김수정 씨 영 어울 헤영 씨 담은 것이 저 거울인가, 꺼울인가 하하. (씨 이렇게 속 해서 씨 담은 것이 저 '거울'인가, '꺼울'인가 하하.)

김보향 아, 허울, 허물? (아, '허울', 허물?)

김수정 거울, 거울. ('거울', '거울'.)

김보향 거울. ('거울'.)

김수정 경허민 막뎅이 찔렁 그 요만헌 고냥 똔 디로 막 막뎅이 찔렁 막 그 안네 그 씨 저 거울 부튼 씨영 헤근에 막 줏아 가민 그 씨가 문 털어지주게. (그러면 막대기 찔러서 그 요만한 구멍 뚫은 데로 마구 막대기 찔러서 마구 그 안에 그 씨 저 '거울' 붙은 씨랑 해서 마구 쪼아 가면 그 씨가 모두 떨어지지.)

김보향 음. (음.)

김수정 털어지민 골랑골랑허민 알르레 털어지곡, 털어지곡 허영 문딱 문딱 놔두, 나두룩 그걸 파내어. (떨어지면 '골랑골랑하면' 아래로 떨어지고, 떨어지고 해서 모두 모두 놔두, 나오도록 그걸 파내.)

김보향 음. (음.)

김수정 문 파내근에 그 미로 노 꼬아근에 마딱 얼거. (모두 파내서 그 '미'로 노 꼬아서 모두 얽어.)

김보향 음. 기민 만약에 그거 파내면 그거 잘 막아야 뒈잖아예? (음. 그럼 만약에 그거 파내면 그거 잘 막아야 되잖아요?)

김수정 막아사주. (막아야지.)

김보향 어, 어떵 막아? (어, 어떻게 막아?)

김수정 미시거 고무라도 뱅 동글랑 그것에 맞추왕 동글랑헹 딱 맞으민 물 아이 들게 막앙. (뭐 고무라도 뱅 동그랗게 그것에 맞추워서 동그랗게 딱 맞으면 물 안 들게 막아서.)

김보향 아하. (아하.)

김수정 경헤여근에 저 얼거근에 테왁에 이런 망사리에 돌아메영. (그래서 저 얽어근에 '테왁'에 이런 망사리에 달아매서.)

김보향 으, 그민 그걸 큭박세기로 혜영 큭 만든 거를? (으, 그럼 그걸 박으로 해서 박 만든 거를?)

김수정 큭, 큭 크게 열민. (박, 박 크게 열면.)

김보향 예. (예.)

김수정 저 테왁 허젱 크게 연 건 ᄀᆞ만이 놧당 막 막 익어사. 막 익어근에 탕 그걸 이제 고냥 뚤랑, 미시것에 노꼿으로 문 돌아메영 옛날엔 부엌 헤영 불 솜앙 솟 앚젼 불 솜앙 헤낫지, 밥. 게난 그런 딘 영 돌아멩 놔두민 그 불찝(불치)에 ᄒᆞ쏠 누리룽허게 그 안네서 저 씨가 문 녹아 가주게. (저 '테왁' 하려고 크게 연 건 가만히 놨다가 마구 마구 익어야. 마구 익어서 따서 그걸 이제 구멍 뚫어서, 뭐에 노끈으로 모두 달아매서 옛날에는 부엌 해서 불 때서 솥 앉혀서 불 때서 했었지, 밥.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이렇게 달아매서 놔두면 그 재에 조금 누르스름하게 그 안에서 저 씨가 모두 녹아 가지.)

김보향 음. (음.)

김수정 게민 막 파 비여. 허이구, 옛날엔 춤. (그럼 마구 파 버려. 하이고, 옛날엔 참.)

김보향 그거 만들민 그거 얼마나 써집니까? 일 년 씁니까? 그거 ᄒᆞ나로?
(그거 만들면 그거 얼마나 쓸 수 있습니까? 일 년 씁니까? 그거 하나로?)

김수정 무시거? (뭐?)

김보향 큭 하나로?(박 하나로?)

김수정 테왁? ('테왁'?)

김보향 으, 테왁. (으, '테왁'.)

김수정 잘만 아져 뎅기민 오래 쓰주게. (잘만 가지고 다니면 오래 쓰지.)

김보향 오래 써. (오래 써.)

김수정 잘못허당 어떵헹 돌이라도 다치민 벌러져 불민 못 허주. (잘못하다가 어떡해서 돌이라도 다치면 깨져 버리면 못 하지.)

김보향 으, 게면 삼촌은 멩심헹 일 년 그거 썻수꽈? 이 년도 썻수꽈? (으, 그럼 삼촌은 명심해서 일 년 그거 썼습니까? 이 년도 썼습니까?)

김수정 아이구, 일 년이랑마랑 ᄒᆞᆫ 오 년 ᄋᆞ젼 뎅겻지. (아이구, 일 년은커녕 한 오 년 가지고 다녔지.)

김보향 아아. (아아.)

김수정 막 오래 아졍 뎅엿주. (아주 오래 가지고 다녔지.)

김보향 아, 막 고양 헷구나게? (아, 아주 고이 다뤘구나?)

김수정 고양 허믄게. 고양 아졍 뎅기민. (고이 다루면. 고이 가지고 다니면.)

김보향 고양 아졍 뎅기민예? (고이 가지고 다니면요?)

김수정 그 돌르레게 어떵 잘못ᄒᆞ민 그문 나민 벌러져근에. (그 돌에 어떻게 잘못하면 금 나면 깨져서.)

김보향 아, 그민 그건 큭으로 요건 박세기 만들고 요거는 뭐렌 헐 거꽈? 아까 삼춘 골아신디. (아, 그럼 그건 박으로 요건 바가지 만들고 요거는 뭐라고 할 겁니까? 아까 삼촌 말했는데.)

김수정 건 어음게. (건 '어음'이야.)

김보향 어음, 이 어음은 뭐로 만들엇어? ('어음', 이 '어음'은 뭐 만들었어?)

김수정 낭으루. (나무로.)

김보향 무슨 낭? (무슨 나무?)

김수정 저 화전에 가근에 저 볼레 알아져? (저 화전에 가서 저 보리장나무 알아?)

김보향 예. (예.)

김수정 볼레줄. (보리장나무.)

김보향 볼레줄. (보리장나무.)

김수정 다른 건 영 오그령 영 벵 동글랑허게 오그리지 못허여. 볼레줄 이만헌 막 솔친 거 헤당근에 벵 허게 저 놀 건 때에. (다른 건 이렇게 오그려서 이렇게 뱅 동그

랗게 오그리지 못해. 보리장나무 이만한 아주 살찐 거 해다가 뱅 하게 저 날 것일 때에.)

김보향 놀 건 때. (날 것일 때.)

김수정 젖인 때에. (젖은 때에.)

김보향 맞아. (맞아.)

김수정 벵 허게 오그령 무꺼근에. (뱅 하게 오그려서 묶어서.)

김보향 으. (으.)

김수정 무껑 놨당 그거 문 이 저 몰라가민 따시 그거 저 문 겁데기 벳겨근에 딱허게 무꺼근에 허면. 푸는 사름도 잇어, 헤당. 저 화전에 강. (묶어 놨다가 그거 모두 이 저 말라가면 다시 그거 저 모두 껍데기 벗겨서 딱 묶어서 하면. 파는 사람도 있어, 해다가. 저 화전에 가서.)

김보향 아, 일부러 그 어음 할 낭으로예, 헤당예? (아, 일부러 그 '어음' 할 나무로요, 해다가요?)

김수정 어? (어?)

김보향 일부러 그 어음 헐 낭으로 헤당? (일부러 그 '어음' 할 나무로 해다가?)

김수정 으으. (으으.)

김보향 푸는 거예? (파는 거요?)

김수정 그 어음 저 아무 낭이나 안 뒈여. (그 '어음' 저 아무 나무로나 안 돼.)

김보향 아무 낭 안 뒈여. (아무 나무 안 돼.)

김수정 그 볼레줄 헤사. (그 보리장나무 해야.)

김보향 상동낭 아니? (상동나무 아니?)

김수정 볼레줄인가 그 무신 거. (보리장나무인가 그 무슨 거.)

김보향 상동낭? (상동나무?)

김수정 무신 낭산디 저 어음 ᄒᆞ는 낭이 잇어. (무슨 나무인지 저 '어음' 하는 나무가 있어.)

김보향 삼춘 물에 들 때 아까 골겡이랑 비창 가졍 가신디 작살은 안 가졍 가봣수꽈? (삼촌 물에 들때 아까 호미랑 '비창' 가지고 갔는데 작살은 안 가지고 가봤습니까?)

김수정 무시거? (뭐?)

김보향 작살? 고기. (작살? 고기.)

김수정 작살? (작살?)

김보향 으, 고기 그. (으, 고기 그.)

김수정 작살 아졍 뎅이는 사름은 시방도 아졍 뎅인다. (작살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시방도 가지고 다닌다.)

김보향 시방도 아졍. (시방도 가지고.)

김수정 저 솔치, 저 소살. (저 솔치, 저 '소살'.)

김보향 소살. 여기는 소살이구나, 작살 아니고. (작살. 여기는 '소살'이구나, 작살 아니고.)

김수정 소살. (작살.)

김보향 예. (예.)

김수정 작살이 아이라 소살. 작살은 영 양가달 돋은 거이, 작살. (작살이 아니라 '소살'. 작살은 이렇게 양다리 돋은 거, 작살.)

김보향 음. (음.)

김수정 양가달 돋아근에. (양다리 돋아서.)

권미소 소살은 멧 개? ('소살'은 몇 개?)

김수정 두 개. (두 개.)

권미소 두 발, 두 발 소살? (두 발, 두 발 '소살'?)

김수정 두 발. (두 발.)

권미소 시 발은 엇어마씨? (세 발은 없어요?)

김수정 몰라, 두 발 헤연 엿날 우리 어머니네 조그만ᄒᆞᆫ 구물. (몰라, 두 발 해서 옛날 우리 어머니네 조그마한 그물.)

김보향 음. (음.)

김수정 이건 저 돌 엉덕이주게. 엉덕이민 그 줌진 구물 벵 허게 이제 싸민 그 쏘곱에 궤기덜 신 거 바려근에 빙허게 쌍 강 이만썩ᄒᆞᆫ 작살을. 기자 요만은ᄒᆞᆫ 거라. 저 대, 대 헤여근에 허믄 작살 헤근에 거 아졍 강 쑥닥쑥닥헤 가민 화륵ᄒᆞ게 나오라 가민 그 구물에 문딱 쓰주게. (이건 저 돌 '엉덕'이지. '엉덕'이면 그 자잘한 그물 뱅 하게 이제 싸면 그 속에 고기들 있는 거 봐서 빙 싸서 가서 이만한 작살을. 그저 요만큼은 한 거야. 저 대, 대 해서 하면 작살 해서 거 가지고 가서 '쑥닥쑥닥해' 가면 우르르 나와 가면 그 그물에 모두 쓰지.)

김보향 아, 그 사이에 그물, 그물을 씌워 놓고? (아, 그 사이에 그물, 그물을 씌워 놓고?)

김수정 그 구물에 쓰민 것덜 헤여근에 우리 어머니 ᄒᆞᆫ 구덕썩 질구덕으로 ᄒᆞ나썩 잡아 오라낫어. 엿날은 고기도 하곡, 세상 거 하낫주만 이제는 저 소살 아졍 뎅기는 사름덜도 무시거 요멘썩헌 것덜 쏘곡, 궤기가 엇어. (그 그물에 쓰면 그것들 해서 우리 어머니 한 바구니씩 '질구덕'으로 하나씩 잡아 왔었어. 옛날은 고

기도 많고, 세상 거 많았지만 이제는 저 작살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뭐 요만한 것들 쏘고, 고기가 없어.)

김보향 그때 무슨 궤기덜 쏘앙 와낫수과? (그때 무슨 고기들 쏴서 왔었습니까?)

김수정 갯돔, 웽이. (감성돔, 흑돔.)

김보향 아이고. (아이고.)

김수정 또 다, 다금바리, 북바리. (또 다, 다금바리, 붉바리.)

김보향 아이고. (아이고.)

김수정 경헹 쏘앙덜. 북바리옌 헌 건 시뻘경헌 거. (그렇게 쏘아서들. 붉바리라고 하는 건 시뻘건 거.)

김보향 맞수다. (맞습니다.)

김수정 북바리가 젤 알아주는 거. 다금바리도 알아주곡. (붉바리가 제일 알아주는 거. 다금바리도 알아주고.)

김보향 다금바리도 알아주고. (다금바리도 알아주고.)

김수정 갯돔. 시방은 갯돔이주, 옛날은 물톳이엥 헤낫어. 물톳. (감성돔. 시방은 '갯돔'이지, 옛날은 '물톳'이라고 했었어. '물톳'.)

김보향 물톳, 아. ('물톳', 아.)

김수정 물톳, 시방은 갯돔, 물톳이라, 물톳. ('물톳', 시방은 '갯돔', '물톳'이야, '물톳'.)

김보향 아. (아.)

김수정 우리 어머니네 그것덜 심어 오민. (우리 어머니네 그것들 잡아 오면.)

권미소 물토새기? ('물토새기'?)

김수정 물톳. 물톳이엔 헤낫어. ('물톳'. '물톳'이라고 했었어.)

김보향 으, 물톳. (으, '물톳'.)

김수정 일름이 물톳. 시방은 그것ᄀᆞ라 갯돔이렌 헤두. (이름이 '물톳'. 시방은 그것보고 '갯돔'이라고 해도.)

김보향 갯돔이렌 헤도예.('갯돔'이라고 해도요.)

김수정 시방은 그거 갯돔이라. 고기가 엇어, 엇어. 하이구. (시방은 그거 감성돔이야. 고기가 없어, 없어. 하이구.)

김보향 그 물에 들 때 망시리 하나만 가졍 가난, 삼춘? (그 물에 들 때 망사리 하나만 가지고 갔었어, 삼촌?)

김수정 어디 강? (어디 강?)

김보향 물에 갈 때 망시리는? (물에 갈 때 망사리는?)

김수정 ᄒᆞ나도 ᄀᆞ득지지 못허주. 망사리 멧 개나 아졍 갈 거라. (하나도 가득하게 하지 못하지. 망사리 몇 개나 가지고 갈 거야.)

김보향 게민 그 소라 잡을 때 망사리랑 미역 할 때 망사리랑? (그럼 그 소라 잡을 때 망사리랑 미역 할 때 망사리랑?)

김수정 ᄀᆞ타, ᄀᆞ타. (같아, 같아.)

김보향 ᄀᆞ타, ᄀᆞ타. ᄀᆞ튼 거예. (같아, 같아. 같은 거요.)

김수정 메역 헐 때 그 망사리 ᄀᆞ득카 부덴 또 이만ᄒᆞᆫ 거 거시기, 잘리 무시것가 잇어, 그물로 뒌 거. (미역 할 때 그 망사리 가득할까 봐 또 이만한 거 거시기, 자루 뭔가 있어, 그물로 된 거.)

김보향 예. (예.)

권미소 잘리. (자루.)

김수정 그거 ᄯᅩ로 아졍 강 것에도 담앙 오곡. (그거 따로 가지고 가서 것에도 담아서 오고.)

김보향 그니까. 그것에도 담앙 오고. (그러니까. 그것에도 담아서 오고.)

김수정 담앙 오곡 헌다. (담아서 오고 한다.)

김보향 그 잘리는 뭐렌 불럿수꽈? (그 자루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김수정 미시거? (뭐?)

김보향 그 잘리? (그 자루?)

김수정 자리, 잘리? (자루, 자루?)

김보향 으, 바릇찰리? (으, '바릇찰리'?)

김수정 으? (으?)

김보향 바릇찰리? 그냥 잘리렌 불런? ('바릇찰리'? 그냥 '잘리'라고 불렀어?)

김수정 거시기. 그물로 만든 거난게, 홍사리게. (거시기. 그물로 만든 거니까, '홍사리'.)

권미소 홍사리. ('홍사리'.)

김보향 홍사리이, 홍사리. 그민 그 홍사리는 어음이 엇어예? ('홍사리', '홍사리'. 그럼 그 '홍사리'는 '어음'이 없지요?)

김수정 그거 저 미시것덜 저 소랑허게 저 무시거 담지 아녀냐? (그거 저 뭣들 저 길쭉하게 저 뭐 담지 않았냐?)

김보향 다마네기 담는 거 같은 거? (양파 담는 거 같은 거?)

김수정 다마네긴 벌건 거 얄룬 거 허주마는 노꼿으로. (양파는 벌건 거 얇은 거 하지만

노끈으로.)

김보향 음. (음.)

김수정 노곳으로, 퍼렁헌 노곳으로 짠 것덜 잇나. 이만이헌 거. (노끈으로, 파란 노끈으로 짠 것들 있어. 이만큼한 거.)

김보향 삼춘. (삼촌.)

김수정 엿날 고구마 담아난 것덜. (옛날 고구마 담았던 것들.)

김보향 그 홍사리는 어음이 엇지예? (그 '홍사리'는 '어음' 없지요?)

김수정 엇어. (없어.)

김보향 엇엉예, 그자 그물만. (없어요, 그저 그물만.)

김수정 엇엉 그자 헤어지민 어음엔 영 형 영 벌겨근엥 영 돌아매민, 이만이 돌아매민 기자 거 테왁에 망사리 ᄀᆞ득으민. (없어서 그저 하게 되면 '어음'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벌여서 이렇게 달아매면, 이만큼 달아매면 그저 거 '테왁'에 망사리 가득하면.)

김보향 음. (음.)

김수정 그레 담아 버려. 굴 우이 담앙 오곡. (그리 담아 버려. '굴' 위에 담아서 오고.)

김보향 그니까. (그러니까.)

김수정 거 경 우이 담앙 오는 사름이 베랑 엇어게. 막 상군 하영 잡, 저 메역 ᄌᆞ무는 사름은 헤두. (거 그렇게 위에 담아서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 아주 '상군' 많이 잡, 저 미역 캐는 사람은 해도.)

김보향 음. (음.)

김수정 메역은 요 앞이 가민 민짝헤나난게. (미역은 요 앞에 가면 가득했었으니까.)

김보향 게난 이 남원 앞바다 메역이 막 좋아낫덴 헙디다예. (그러니까 이 남원 앞바다 미역이 아주 좋았었다고 합디다예.)

김수정 남원이 안여 메역 막 알아줘낫주. (남원이 '안여 미역' 아주 알아줬었지.)

김보향 안여 메역예? 예, 예. ('안여 미역'요? 예, 예.)

김수정 안여 메역 알아줘낫주. ('안여 미역' 알아줬었지.)

김보향 알아줘낫주예. (알아줬었지요.)

김수정 엿날 군인덜 살 때 ᄉᆞ뭇 이디 막 메역덜 허영 막 춤 군인신디 문 풀멍 헤낫주. (옛날 군인들 살 때 사뭇 여기 마구 미역들 해서 마구 참 군인에게 모두 팔면서 했었지.)

김보향 어, 기민 이 앞바다에 안여가 잇수꽈? 여 이름이 안여? (어, 그럼 이 앞바다에 '안여'가 있습니까? 여 이름이 '안여'?)

김수정 어, 이름이 안여. 그 시방은 물들엉 몰라신가? 이 안여 안네 그 큰 것, 여덜이 잇어. 거멍헌 여 ᄒᆞᆫ 세 갠가? (어, 이름이 '안여'. 그 시방은 물밀어서 몰랐는가? 이 '안여' 안에 그 큰 것, 여들이 있어. 거먼 여 한 세 개인가?)

김보향 그민 그거 세 개를 다 안여렌 얘기헤여? (그럼 그거 세 개를 다 '안여'라고 얘기해?)

김수정 그것가 안여. (그것이 '안여'.)

김보향 아. (아.)

김수정 물쌈 전이 그디 가지 못헤여. 물싸민 영 싸민 그 목으로 들어강 ᄒᆞ민 그 안에 물 막 싸. 막 싸민 그자 ᄀᆞ메기 잡아 오곡, 오분작도 잡아 오곡 헌디 물들민, 물들어 가민 나오라 베사. (물써기 전에 거기 가지 못해. 물써면 이렇게 써면 그 목으로 들어가서 하면 그 안에 물 마구 써. 마구 써면 그저 고둥 잡아 오고, 오분자기도 잡아 오고 하는데 물밀면, 물밀어 가면 나와 버려야.)

김보향 음. (음.)

김수정 곳디 닮지 아니헹. 안여난, 막아지난 안여옌 헴주게. (가 같지 않아서. '안여'니까, 막히니까 '안여'라고 하고 있지.)

김보향 맞수다, 맞수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수정 엿날은 밤 ᄀᆞ메기 잡으레 간에, 킁킁ᄒᆞ난에 횃불 싼에 ᄀᆞ메기 잡으레 가난에게 물드는 거를 몰란 ᄀᆞ메기만 잡단 보난 물들어 부난. (옛날은 밤 고둥 잡으러 가서, 캄캄하니까 횃불 켜서 고둥 잡으러 가니까 물미는 것을 몰라서 고둥만 잡다가 보니까 물밀어 버리니까.)

김보향 못 나완. (못 나왔어.)

김수정 죽어낫젠 헤라. (죽었었다고 하더라.)

김보향 아아. (아아.)

김수정 못 나오란. (못 나왔어.)

김보향 밤에. (밤에.)

김수정 응. (응.)

김보향 ᄀᆞ메기 잡으레는 뭐 뭐 가졍가야 뒐 거? (고둥 잡으러는 뭐 뭐 가지고 가야 될 거?)

김수정 소쿠리도 아졍 가곡, 구덕도 아졍 가곡. (소쿠리도 가지고 가고, 바구니도 가지고 가고.)

김보향 소쿠리, 구덕. (소쿠리, 바구니.)

김수정 으, 촐구덕. (으, '촐구덕'.)

김보향 출구덕. 크기 요만이 허게예? ('출구덕'. 크기 요만큼 하게요?)

김수정 으, 영 친 돌아근에 허리에, 친 돌앙 허리에 영 창근에. (으, 이렇게 끈 달아서 허리에, 끈 달아서 허리에 이렇게 차서.)

김보향 그거 들곡 골겡이도 들곡. 이 불은 어떵 헤낫어? 불 어떵 만들아낫수꽈? (그거 들고 호미도 들고. 이 불은 어떻게 했었어? 불 어떻게 만들었었습니까?)

김수정 훳불 싸믄 저 검질. (횃불 켜면 저 검불.)

김보향 으, 검질. (으, 검불.)

김수정 검질 헤근에 기자 이거 지러기민 영 놔근에 무끄곡. (검불 해서 그저 이거 길이면 이렇게 놔서 묶고.)

김보향 음. (음.)

김수정 또 이 ᄌᆞ룩더레 또 놩 영 무끄곡. (또 이 자루에 또 놔서 이렇게 묶고.)

김보향 음. (음.)

김수정 거 검질로 벵벵허게 영 묶곡 이만헌 질게 헤영 강 그 불, 불 쌍 가근에 그 불 싸, 저 다 부떠 가민 나오라 베사주게. (거 검불로 뱅뱅 이렇게 묶고 이만한 길게 해서 가서 그 불, 불 켜고 가서 그 불 켜, 저 다 붙어 가면 나와 버려야지.)

김보향 으, 그걸로 ᄀᆞ메기 잡은 거? 으. (으, 그걸로 고둥 잡은 거? 으.)

김수정 어, 그 밤이 불 쌍 가민 ᄀᆞ메기가 과작허게 난덴. ᄀᆞ메기랑 뭐 저 문어랑 헤숩, 헤숩두. (어, 그 밤에 불 켜서 가면 고둥이 '과작하게' 나온다고. 고둥이랑 뭐 저 문어랑 해삼, 해삼도.)

김보향 ᄀᆞ메기가 뭐꽈? 보말이꽈? ('ᄀᆞ메기'가 뭡니까? 고둥입니까?)

김수정 보말. (고둥.)

김보향 보말, ᄀᆞ메기렌 얘기한 거예? (고둥, 'ᄀᆞ메기'라고 얘기한 거요?)

김수정 으, 보말. (으, 고둥.)

김보향 아까 물에 들엉 잡는 고둥은 뭐꽈? (아까 물에 들어서 잡는 '고둥'은 뭡니까?)

김수정 물에 들엉 잡는 거? (물에 들어서 잡는 거?)

김보향 아까 고둥 잡는덴 헤신디. (아까 '고둥' 잡는다고 했는데.)

김수정 소라. (소라.)

김보향 소라, 예, 예. 소라 잡는 거. (소라, 예, 예. 소라 잡는 거.)

김수정 이젠 고둥이렌 헤두 소라주게, 소라. (이젠 '고둥'이라고 해도 소라지, 소라.)

김보향 예예, 다 명칭이 다르니까, 예. ᄀᆞ메기는 보말 잡는 거. 게민 그. (예예, 다 명칭이 다르니까, 예. 'ᄀᆞ메기'는 고둥 잡는 거. 그럼 그.)

김수정 어, 이제 그 소라 저 것이 보말덜 잡앙 문 풀암세, 키루에 ᄉᆞ만 원. (어, 이제 그 소라 저 것이 고둥들 잡아서 모두 팔고 있어, 킬로그램에 사만 원.)

김보향 ᄉᆞ만 원, ᄀᆞ메기. (사만 원, 고둥.)

김수정 으, 게난 이 해녀덜 막 잡앙 물에 들엉 막 잡앙 풀암시녜게. (으, 그러니까 이 해녀들 막 잡아서 물에 들어서 막 잡아서 팔고 있어.)

김보향 밤이 그 불 쌍 여기에? (밤에 그 불 켜서 여기에?)

김수정 엿날이주, 이젠. 밤이 불 싸? (옛날이지, 이젠. 밤에 불 켜?)

김보향 맞아, 게니까 엿날에 밤이 불 쌍 문어도 잡아보고? (맞아, 그러니까 옛날에 밤에 불 켜서 문어도 잡아보고?)

김수정 문어도 잇곡. (문어도 있고.)

김보향 여기 문어렌 헷수꽈? 물꾸럭이렌 헷수꽈? (여기 문어라고 했습니까? '물꾸럭'이라고 했습니까?)

김수정 물꾸럭이엔두 허곡, 문어엔두 허곡, 뭉게엔두 허곡. ('물꾸럭'이라고도 하고, 문어라고도 하고, '뭉게'라고도 하고.)

김보향 다 골아낫수꽈? (다 말했었습니까?)

김수정 일름이 막 세 가지라. (이름이 아주 세 가지야.)

김보향 낙지는 안 잡아보고? (낙지는 안 잡아보고?)

김수정 낙지두 잇주게, 낙지. (낙지도 있지, 낙지.)

김보향 낙지두 잡아보고? (낙지도 잡아보고?)

김수정 낙지두 쩌기. 낙지두 기자 밤이 나오란 찍찍허게서리 저 뭉게도 나오라. 우리 집이 아방 산 땐 밤이 후라시 불 쌍 가민 기자 그 요만이헌 낚시, 헌 거 아정 강 막뎅이 이만이헌 거 허민 확 걸려근에 문어도 하영 잡아나곡. (낙지도 저기, 낙지도 그저 밤에 나와서 찍찍 저 문어도 나와. 우리 집의 아버지(남편)이 살았을 때는 밤에 플래시 불 켜서 가면 그저 그 요만한 낚시, 한 거 가지고 가서 막대기 이만한 거 하면 확 걸려서 문어도 많이 잡았었고.)

김보향 음. (음.)

김수정 헤숩두 연젠 이딘 저 무시건가 듬북 하영 난 땐 하이구, 밤이 물쌍 가민 헤숩이 기자 착착 돌 우이 착착ᄒᆞ게 막 느랏느랏허게, 물싸민 자빠졍 잇어. 가민 ᄒᆞᆫ 다락썩 잡아 와. 우리 똘덜 두린 때 아방이영 ᄀᆞ치 가민 ᄒᆞᆫ 다라썩 잡아

와, 헤숨이. (해삼도 예전에는 여긴 저 뭐 듬북 많이 날 때는 하이구, 밤에 물써서 가면 해삼이 그저 착착 돌 위에 착착 아주 나른히, 물써면 자빠져서 있어. 가면 한 대야씩 잡아 와. 우리 딸들 어렸을 때 아버지랑 같이 가면 한 대야씩 잡아 와, 해삼이.)

김보향 아이고. (아이고.)

김수정 경 헤신디 이젠 하이구, 헤숨 ᄒᆞ나 보기가 춤. (그렇게 했는데 이젠 하이구, 해삼 하나 보기가 참.)

김보향 그지예, 이제는 엇어. (그렇지요, 이제는 없어.)

김수정 그땐 뭐, 저 물건도 하곡 듬북도 경 이 바당에 저 듬북이 잇어사 먹을 커가 나오주, 듬북 엇어 부난이. (그땐 뭐 저, 물건도 많고 듬북도 그렇게 이 바다에 저 듬북이 있어야 먹을 것이 나오지, 듬북 없어 버리니까.)

김보향 아아. 그게 바당. (아아. 그게 바다.)

김수정 바다가 허영이라. 막 백 바당이라, 돌이. 전인 돌에두 막 풀 잇어근에 막 *이 영돋곡 듬북이영 막 잇어나신디. 이 앞이 듬북이 민짝헤낫어. (바다가 하얘. 아주 백 바다야, 돌이. 전에는 돌에도 막 풀 있어서 막 *이랑 돋고 듬북이랑 마구 있었는데. 이 앞에 듬북이 가득했었어.)

김보향 삼춘 옛날에 그 듬북들은 다 뭐 헷수꽈? (삼촌 옛날에 그 듬북들은 다 뭐 했습니까?)

김수정 밧디 ᄀᆞᆯ아근에. (밭에 갈아서.)

김보향 예. (예.)

김수정 밧디 ᄀᆞᆯ앙 감저도 심그곡 조두 ᄇᆞᆯ리곡, 산디도 ᄇᆞᆯ리곡. (밭에 갈아서 고구마도 심고 조도 밟고, 밭벼도 밟고.)

김보향 걸름헷구나. (거름했구나.)

김수정 어, 걸름. 밧 엇인 사름은 그 듬북헤여근에 저 듬북 ᄀᆞᆯ켄 허민 밧 빌려주곡, 듬북 아이 ᄀᆞᆯ민 밧도 아이 빌려줘낫어. (어, 거름. 밭 없는 사람은 그 듬북해서 저 듬북 갈겠다고 하면 밭 빌려주고, 듬북 안 갈면 밭도 안 빌려줬었어.)

김보향 예에. (예에.)

김수정 허이구, 우리도 ᄂᆞᆷ이 밧 빌엉 허젠 허난 듬북 ᄆᆞᆫ 헤연에 ᄆᆞᆫ ᄀᆞᆯ아근에 ᄂᆞᆷ이 밧 헤낫저. 감저도 놓곡, 고구마도 심그곡. (허이구, 우리도 남의 밭 빌려서 하려고 하니까 듬북 모두 해서 모두 갈아서 남의 밭 했었어. 고구마도 놓고, 고구마도 심고.)

김보향 게민 그 듬북은 개인이 헌 거라? ᄀᆞ치 공동으로 헌 거라? (그럼 그 듬북은 개인이 한 거야? 같이 공동으로 한 거야?)

김수정 이녁 냥으로도 허곡 또 올르민 파도 쎄영 올르민 그 접 안네 가근에 ᄆᆞ딱 갈른다. (자기 대로도 하고 또 오르면 파도 세서 오르면 그 계 안에 가서 모두 가른다.)

김보향 기지. 접 허는 사름들 ᄀᆞ치 강예? (그렇죠. 계 하는 사람들 같이 가서요?)

김수정 으, 영 ᄒᆞᆫ 섬썩 영 딱딱 끈엉 ᄒᆞᆫ 섬썩 갈라근에 ᄆᆞᆯ류왕 그거 밧디덜 ᄀᆞᆯ곡. 기자 바당에 저 자연산으로 강 잡아 올 땐 테우나 이젠, 그땐 테우로 잡아낫주. 테우로 가근에 호미 막 질게 헤영 꽉꽉 끈엉 허곡. 또 해녀도 들엉 강 ᄌᆞ물민 저 그 배에선 남저 ᄆᆞᆫ 올려근에 배에서 시껑 오랑 ᄀᆞᆫ디 왕 널곡 허민 건 이녁 냥으로 허는 거. (으, 이렇게 한 섬씩 이렇게 딱딱 끊어서 한 섬씩 갈라서 말려서 그거 밭에들 깔고. 그저 바다에 저 자연산으로 가서 잡아 올 땐 '테우'나 이젠, 그땐 '테우'로 잡았었지. '테우'로 가서 낫 아주 길게 해서 꽉꽉 끊어서 하고. 또 해녀도 들어서 가서 캐면 저 그 배에서는 남자가 모두 올려서 배에서 실어서 와서 가에 와서 널고 하면 그건 자기대로 하는 거.)

김보향 아아. (아아.)

김수정 올린 건, 파도 쎄영 올린 건 그 접 안에 ᄆᆞᆫ 갈르는 거. (오른 건, 파도 세서 오른 건 그 계 안에 모두 가르는 거.)

김보향 예에. (예에.)

김수정 이녁 냥으로 헤 온 건 이녁 거. (자기대로 해 온 건 자기 거.)

김보향 이녁 거. 아, 게민 ᄂᆞᆯ 불어 낭 올리는 거는 저기 "듬북 허레 옵서." 헹 마을 사름 ᄀᆞ치, 같이 가는 거? (자기 거. 아, 그럼 너울 일고 나서 올리는 거는 저기 "듬북 하러 오세요." 해서 마을 사람 같이, 같이 가는 거?)

김수정 어, 막 채족헤여근에 그 듬북 ᄒᆞᆯ 사름들은 ᄆᆞᆫ 오랑 헙센 허믄 ᄆᆞᆫ 온다게. 테레비에 보난 그 듬북 막 올련게 마다리로덜 강 막 담으멍 헴서라게. 그거 어드레. (어, 아주 재촉해서 그 듬북 할 사람들은 모두 와서 하라고 하면 모두 와. 텔레비전에 보니까 그 듬북 마구 올려서 마대로들 가서 마구 담으면서 하고 있더라. 그거 어디로.)

김보향 그거는. (그거는.)

김수정 건 걸지 아녀. (건 걸지 않아.)

김보향 걸지 안헤. 궹이모자반. (걸지 않아. 괭생이모자반.)

김수정 잘도 올려서라. 어느 ᄆᆞ슬산디. (잘도 올랐더라. 어느 마을인지.)

김보향 게믄 아까 삼춘 듬북 허레 갈 때 호미 영 진 거 가졍 갓덴 헷잖아예? (그럼 아까 삼촌 듬북 하러 갈 때 낫 이렇게 긴 거 가지고 갔다고 했잖아요?)

김수정 아니, 이만ᄒᆞᆫ 거. 기자 기자 빔질허는 거. (아니, 이만한 거. 그저 그저 베는 거.)
김보향 우리 보리 비는 호미 똑같은 거? (우리 보리 베는 낫 똑같은 거?)
김수정 그 닮은 거 아졍 강. (그 같은 거 가지고 가서.)
김보향 아, 그 닮은 거 가졍 강. (아, 그 같은 거 가지고 가서.)
김수정 거 닮은 건, 진 거 영 끈젠 아졍 가주게. (거 같은 건, 긴 거 이렇게 끊으려고 가지고 가지.)
김보향 거 배에서 헐 때도 호미 진 거 써나진 안헤연? (거 배에서 할 때도 낫 긴 거 썼었지는 않아?)
김수정 배에선 그 배 우이서 끈젱 허민 영 건거 허주마는 끈지 못헤여. 탁 얼거져 노민. (배에서는 그 배 위에서 끊으려고 하면 이렇게 '건거' 하지만 끊지 못해. 탁 얽혀 놓으면.)
김보향 음. (음.)
김수정 ᄌᆞ물아사주, 해녀 들엉 알로 강 ᄌᆞ물민 기자. (캐야지, 해녀 (물에) 들어서 아래로 가서 캐면 그저.)
김보향 아아. (아아.)
김수정 저 갈쿠리루 영 올리, 올리주. (저 갈고리로 이렇게 올리, 올리지.)
김보향 갈쿠리로 올리는 거? (갈고리로 올리는 거?)
김수정 어, 공젱이 헤영. (어, 갈고리 해서.)
김보향 공젱이 헤영. (갈고리 해서.)
김수정 공젱이 헤여근에 올리는 거. (갈고리 해서 올리는 거.)
김보향 그믄 공젱인 낭에 헹 질게 헹? (그럼 갈고리는 나무에 해서 길게 해서?)
김수정 낭에 헤영 영 코젱이 신 거 영 헹 올령. 하하. (나무에 해서 이렇게 코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올려. 하하.)
김보향 아, 게민 좀수, 해녀는 밑에서 비는 거라예? (아, 그럼 잠수, 해녀는 밑에서 베는 거지요?)
김수정 으, 비영 영 ᄒᆞ민 막 물 우이 트주게. (으, 베어서 이렇게 하면 마구 물 위에 뜨지.)
김보향 으. (으.)
김수정 물 우이 트민 거 공젱이로 헤여근에 건졍 배 우트레 올령 시꺼 오주. (물 위에 뜨면 거 갈고리로 해서 건져서 배 위로 올려서 실어 오지.)
김보향 아, 예. 듬북은 경 작업한 거고, 기민 톳은 어떵 작업헷수꽈, 톳은? (아, 예. 듬북은 그렇게 작업한 거고. 그럼 톳은 어떻게 작업했습니까, 톳은?)
권미소 톨? (톳?)
김수정 톳? (톳?)
김보향 톳? (톳?)
김수정 톨은 물싸민. (톨은 물써면.)
김보향 여긴 톨? 톳? (여기는 '톨'? 톳?)
김수정 톨. ('톨'.)
김보향 톨, 예. 톨은? ('톨', 예. 톳은?)
김수정 톨은게, 미짝하게 나민 그 조합이 든 사름, 아이 든 사름은 못 헤여. (톳은, 빈틈없이 나면 그 조합에 든 사람, 안 든 사람은 못 해.)
김보향 음, 어촌계. (음, 어촌계.)
김수정 조합이 든 사름들은 다 가근에 문 비멍 시껑, 저 져근에 이 곳드레 문 올라오랑 곳디 문 널곡 몰랴근에. (조합에 든 사람들은 다 가서 모두 베면서 실어, 저 져서 이 가로 모두 올라와서 가에 모두 널고 말려서.)
김보향 게난 톳은 물싸민 곳디서 허는? (그러니까 톳은 물써면 가에서 하는?)
김수정 물싸민 곳디서 ᄒᆞ는 거. (물써면 가에서 하는 거.)
김보향 아아. 그건 물에 들엉? (아아. 그건 물에 들어서?)
김수정 저 안여 안네 그디루. (저 '안여' 안에 거기로.)
김보향 아, 안여 안에 들엉예? (아, '안여' 안에 들어가서요?)
김수정 으. (으.)
김보향 예예예. (예예예.)
김수정 안여 안네 그디 우이 곳디덜 ᄒᆞ곡, 경 허메. ('안여' 안에 거기 위에 가에들 하고, 그렇게 해.)
김보향 게민 톳 허레 가젠 허민 뭐 가졍 가야 될 거꽈? (그럼 톳 하러 가려고 하면 뭐 가지고 가야 될 겁니까?)
김수정 톨로게, 저 거시기 호미로. (톳으로, 저 거시기 낫으로.)
김보향 호미예? (낫으로요?)
김수정 으, 저 무시거 보리 비는, 보리 비는 호미. (으, 저 뭐 보리 베는, 보리 베는 낫.)
김보향 보리 비는 호미, 그거 가지고. 망사리도 가져갈 거? 마다리 가졍 갈 거? (보리 베는 낫, 그거 가지고. 망사리도 가져갈 거? 마대 가지고 갈 거?)

김수정 마다리. (마대.)
김보향 마다리, 예. (마대, 예.)
김수정 마다리 아졍 가. 마다리 아졍 강 막 널곡. (마대 가지고 가. 마대 가지고 가서 마구 널고.)
김보향 보리 공판할 때 쓰는 마다리들? (보리 공판할 때 쓰는 마대들?)
김수정 으? (으?)
김보향 보리 공판할 때 쓰는 마다리들? (보리 공판할 때 쓰는 마대들?)
김수정 으, 그 닮은 거. 시방 그 벌겅헌 마다리 엇느냐게. 그거 아졍 강. (으, 그 닮은 거. 시방 그 벌건 마대 없냐. 그거 가지고 가.)
김보향 예에, 그거. 그 톨 헐 때 망사린 안 가져가 봔? (예에, 그거. 그 톳 할 때 망사리는 안 가져가 봤어?)
김수정 망사린 안 헌다. (망사리는 안 한다.)
김보향 아, 마다리에. 예에. (아, 마대에. 예에.)
김수정 망사리두 잇어근에 그레 담음은 헌다마는 그자 저 무시거니 마다리에 담앙 덜 막 져 날른다. (망사리도 있어서 그리 담기는 한다만 그저 저 뭐니 마대에 담아서 들 마구 져 나른다.)
김보향 음. 그민 그건 톨은 공동으로 허는 거꽈? 갸인으로 허는 거꽈? (음. 그럼 그건 톳은 공동으로 하는 겁니까? 개인으로 하는 겁니까?)
김수정 공동으로 헤영. (공동으로 해서.)
김보향 어, 겅 헹? (어, 그렇게 해서?)
김수정 풀앙. (팔아서.)
김보향 풀앙? (팔아서?)
김수정 아이고, 톨 허젠 허민. (아이고, 톳 하려고 하면.)
김보향 예. (예.)
김수정 놀차 바당에 강 그거 문 비어 놩 곳디 오랑 몰류아. 멧 번 쎄왓다가 몰랏다가 헤영 막 ᄉᆞ뭇 집만 ᄒᆞᆫ, 두어 개, 서너 개 저 눌엇당 그거 이제 또 문 조합이서 가 받으레 오민 그거 문 풀앙 돈 갈르곡. (생짜 바다에 가서 그거 모두 베어 놔서 가에 와서 말려. 몇 번 쏘였다가 말렸다가 해서 사뭇 집만 한, 두어 개, 서너 개 저 가렸다가 그거 이제 또 모두 조합에서 받으러 오면 그거 모두 팔아서 돈 가르고.)
김보향 아. 돈 갈르는 거? (아. 돈 가르는 거?)

김수정 으. 겨난. (으. 그러니까.)
김보향 그민 그거 널민은 이거 뒤집으러도 가고? (그럼 그거 널면 이거 뒤집으러도 가고?)
김수정 어. (어.)
김보향 예, 헤헤헤. (예, 헤헤헤.)
김수정 널레 가곡. (널러 가고.)
김보향 널러 가고? (널러 가고?)
김수정 뒈쓰레 가곡, 들이레 가곡. (뒤집으러 가고, 들이러 가고.)
김보향 예에. (예에.)
김수정 아이고. (아이고.)
김보향 ᄀᆞ치들예? (같이들요?)
김수정 하이고, 하이고. 그땐 시방은 전화 잇어근에 전화로 ᄒᆞ레 나오렌 허주마는, 그땐 채족 문 헤여나사. 집집마다 반장, 반장 쓰민. (하이고, 하이고. 그땐 시방은 전화 있어서 전화로 하러 나오라고 하지만, 그땐 재촉 모두 해야. 집집마다 반장, 반장 쓰면.)
김보향 아아. (아아.)
김수정 허이구, 체족허는 반장 쓰민. (허이구, 재촉하는 반장 쓰면.)
김보향 채적헤영? ('채적해서'?)
김수정 채족허영. (재촉해서.)
김보향 아아. (아아.)
김수정 낼랑 톨 허레 나옵센. (내일은 톳 하러 나오시라고.)
김보향 아, 예예. 재촉허레. (아, 예예. 재촉하러.)
김수정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
김보향 아, 겅 톨 허레 나옵서. 게난 바당 강? (아, 그렇게 톳 하러 나오세요. 그러니까 바다 가서?)
김수정 경허난 엿날엔 물질 못하는 사름두 그 톨 조합원에 드난에 시방 조합이, 것이 벵원에 가두 공짜로 돈 아이 들언 벵원에 뎅겸시녜. (그러니까 옛날에는 물질 못하는 사람도 그 톳 조합원에 드니까 시방 조합이, 것이 병원에 가도 공짜로 돈 안 들고 병원에 다니고 있어.)
김보향 음, 해녀들? (음, 해녀들?)
김수정 해년, 해녀루 올리곡 톨 헤난 사름은 톨 ᄒᆞ는 걸루 톨, 톨 조합원으루 비조

합원으루 들어근에. (해녀는, 해녀로 올리고 톳 했던 사람은 톳 하는 걸로 톳, 톳 조합원으로 비조합원으로 들어서.)

김보향 아, 해녀 조합원이 따로 잇고, 톨 조합원이 따로? (아, 해녀 조합원이 따로 있고, 톳 조합원이 따로?)

김수정 아니. 으, 뚜루. (아니. 으, 따로.)

김보향 따로 잇어? (따로 있어?)

김수정 잇주게. (있지.)

김보향 · 권미소 아아. (아아.)

김수정 뚜루 시난 물질 아녀는 사름들. 물질 아녀는 사름두 톨에 부떵 허주게. (따로 있으니까 물질 안 하는 사람들. 물질 안 하는 사람도 톳에 붙어서 하지.)

김보향 어어. (어어.)

김수정 해녀덜토 허곡 물질 아년 사름들두 부떵 헤영 그거 기냥 조합, 조합이 뒈, 조합원 뒈난에 시방 벵원에두 공짜로 뎅겸서. (해녀들도 하고 물질 안 하는 사람들도 붙어서 해서 그거 그냥 조합, 조합이 돼, 조합원 되니까 시방 병원에도 공짜로 다니고 있어.)

김보향 맞수다, 맞수다. 게난 삼춘 영 물질허멍예, 뭐가 제일 돈이 하영 뒛수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삼촌 이렇게 물질하면서요, 뭐가 제일 돈이 많이 되었습니까?)

김수정 메역. (미역.)

김보향 · 권미소 메역. (미역.)

김수정 메역 주문 거영 또 파도 쎄면 ᄒᆞ쏠 올리곡. 오답 층 헤낫어. (미역 캔 거랑 또 파도 세면 조금 오르고. 여덟 층 했었어.)

김보향 오답 층은, 한 층이 몃 키로? (여덟 층은, 한 층이 몇 킬로그램?)

김수정 한 층에 몰라, 그때. (한 층에 몰라, 그때.)

김보향 오덥 층. (여덟 층.)

김수정 백, 백 근이 한 층이라나신가? (백, 백 근이 한 층이었나?)

김보향 아, 백 근? 으, 예예. (아, 백 근. 으, 예예.)

김수정 백 근이 한 층이라나실 거라. (백 근이 한 층이었을 거야.)

김보향 예. (예.)

김수정 견디 그 시절에 그만이, 나만이 메역 아이 주문 사름두 서방 돈 아이 쓰민 그

걸 내세왕 밧도 사곡. (그런데 그 시절에 그만큼, 나만큼 미역 안 캔 사람도 서방 돈 안 쓰면 그걸 내세워서 밭도 사고.)

김보향 아아. (아아.)

김수정 집도 사곡. 모두왕 거 무시거 한 거, 한 번에만 헌 거냐게. 한 두어 해 ᄌᆞ물앙 ᄒᆞ민은 한디. 난 경 하영 헤도. (집도 사고. 모아서 거 뭐 한 거, 한 번에만 한 거니. 한 두어 해 캐서 하면 같이. 난 그렇게 많이 해도.)

김보향 써 불엇구나? (써 버렸구나?)

김수정 하이구, 돈두 나 하영 벌엇저마는 서방 씀으로 무시거. (하이구, 돈도 나 많이 벌었지만 서방 써서 뭐.)

김보향 게난 그 메역 헹 돈 번 게 삼춘 한 몇 살 때쯤? (그러니까 그 미역 해서 돈 번 게 삼촌 한 몇 살 때쯤?)

김수정 그때, 나가 친정에 저 표선면 세화리라. (그때, 내가 친정이 저 표선면 세화리야.)

권미소 세화리라? (세화리야?)

김보향 표선면 세화리, 예예. 겨믄 여기 와사 물질헌 거? (표선면 세화리, 예예. 그럼 여기 와야 물질한 거?)

김수정 저 세화리 산 때 물질 베완에 세화리 살 때 육지도 가오라시녜. (저 세화리 살 때 물질 배워서 세화리 살 때 육지도 갔다 왔잖아.)

김보향 아. (아.)

김수정 그디서, 그디서. (거기서, 거기서.)

김보향 그믄 여기. (그럼 여기.)

김수정 애기 남 시작ᄒᆞ난 육지 뎅겨지느냐? (아기 낳기 시작하니까 육지 다닐 수 있냐?)

김보향 맞수다, 맞수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수정 아기 아이 난 때 뎅겻주. (아기 안 낳았을 때 다녔지.)

김보향 게난 그때 왕 여기서 막 미역 헹 돈 벌어졋구나. (그러니까 그때 와서 여기서 마구 미역 해서 돈 벌 수 있었구나.)

김수정 으으. 저 세화리 산 때두 막 메역 헤시녜. (으으. 저 세화리 살 때도 막 미역 했어.)

김보향 예에. (예에.)

김수정 메역 헤영 건 웃드르주게. (미역 해서 건 '웃드르'지.)

김보향 예. (예.)

김수정 가마리 오란, 가마리 ᄂᆞ려가근에 메역덜 주물아낫저. (가마리 와서, 가마리 내

려가서 미역들 캤었어.)

김보향 그거 졍 올르멍 헤낫구나게. (그거 져서 오르면서 했었구나.)

김수정 으, 훈 칭. 저 훈착. (으, 한 칭. 저 한쪽.)

김보향 훈착, 예. (한쪽, 예.)

김수정 게민 그 웃드르 사름들투 막 상군덜 하낫저. 우리 친정어멍네영 동네 사름들 문 상군 메역들 ᄌᆞ물앙들 아이고. 물때 어둑은 땐이 해 질, 질 ᄀᆞ리에 메역 ᄌᆞ물앙 우터레덜 문 올려 노민 그것 또 집이 시껑 오젱 허민 시꺼오라지냐? (그럼 그 '웃드르' 사람들도 마구 '상군'들 많았어. 우리 친정어머니네랑 동네 사람들 모두 '상군' 미역들 캐서 아이고. 물때 어두운 때는 해 질, 질 때에 미역 캐서 위로 모두 올려 놓으면 그것 또 집에 실어 오려고 하면 실어 올 수 있냐?)

김보향 음. (음.)

김수정 밤이 시꺼 오라낫어, 막 저 쉐로. (밤에 실어 왔었어, 마구 저 소로.)

김보향 쉐로. 오오호호. (소로. 오오호호.)

김수정 엿날 바레기 잇어낫주만 쉐로덜. 쉐로 문 시꺼 오라낫어. (옛날 달구지 있었지만 소로들. 소로 모두 실어 왔었어.)

김보향 바레기가 뭐꽈? ('바레기'가 뭡니까?)

김수정 마차, 시방. (마차, 시방.)

김보향 마차. 예예. (마차. 예예.)

권미소 아하하. (아하하.)

김보향 아, 쉐로, 쉐로 헹 여기 질메 지왕? (아, 소로, 소로 해서 여기 길마 지워서?)

김수정 으, 질메 지웡. (으, 길마 지워서.)

김보향 아, 예. (아, 예.)

김수정 메역 탁탁 걸쳐근에 시꺼 오라낫지. (미역 탁탁 걸려서 실어 왔었어.)

김보향 아아. (아아.)

김수정 밤이 시꺼낫어. 밤이 시끄곡. 밤에 그 메역 널어뒁. (밤에 실었었어. 밤에 싣고. 밤에 그 미역 널어두고.)

김보향 예. (예.)

김수정 또 뒷날 아칙은 안물에. (또 뒷날 아침은 '안물'에.)

김보향 으. (으.)

김수정 물쌈 전이 안물에 강 또 훈번 들엉 오랑, 낮이 물싸민 또 저문물에 강 들곡.

경헤여. (물써기 전에 '안물'에 가서 또 한번 들어서 와서, 낮에 물써면 또 '저문물'에 가서 들고. 그래.)

김보향 안여랑 안물이랑 다른 디? ('안여'랑 '안물'이랑 다른 데?)

김수정 안물두이, 안물두 ᄒᆞ썰 물싸. ('안물'도, '안물'도 조금 물써.)

김보향 아, 예. (아, 예.)

김수정 안물. ('안물'.)

김보향 다른 데? 장소가 다른 데? 안물이랑 안여랑 ᄐᆞ난 디? (다른 데? 장소가 다른 데? '안물'이랑 '안여'랑 다른 데?)

김수정 안녀? ('안녀'?)

김보향 안여. 여기가 안여. ('안여'. 여기가 '안여'.)

김수정 게민 이딘 안여주만 다른 딧 말이주, 다른 디 저. (그럼 여긴 '안여'지만 다른 데 말이지, 다른 데 저.)

김보향 안물. ('안물')

권미소 세화에서. (세화에서.)

김보향 아, 세화에? (아, 세화에?)

김수정 안물엔 물 ᄒᆞᆫ엇이 하영 안 싸. (안물에는 물 한없이 많이 안 써.)

김보향 아아, 거기? (아아, 거기?)

김수정 물싸믄 물때 ᄒᆞᆫ 일곱 물, ᄋᆞ답 물, 아홉 물, 열 물ᄁᆞ지 물은 싸. (물써면 물때 한 일곱 물, 여덟 물, 아홉 물, 열 물까지 물은 써.)

김보향 음음. (음음.)

김수정 조금엔 ᄒᆞᆫ 아끈줴기, 한줴긴 물 원 안 싸. (조금에는 한 '아끈줴기', 조금은 물 전혀 안 써.)

김보향 음음. (음음.)

김수정 ᄒᆞᆫ 물, 두 물, 서 물ᄁᆞ지도 아이 싸. (한 물, 두 물, 서 물까지도 안 써.)

김보향 너물, 다섯 물, ᄋᆞ섯 물, 일곱 물? (너 물, 다섯 물, 여섯 물, 일곱 물?)

김수정 ᄋᆞ, ᄋᆞ답물날이 제일 물 잘 싸. (여, 여덟무날이 제일 물 잘 써.)

김보향 아, 예예. (아, 예예.)

김수정 ᄋᆞ답물날은 이디 안여 바짝 ᄆᆞᆯ라. (여덟무날은 여기 '안여' 바짝 말라.)

김보향 예예. (예예.)

김수정 게민 그디 들어강덜, 이젠 딱 마감헤근에 ᄒᆞᆫ, ᄀᆞ메기 못 잡게 헤여, 곳디. (그

럼 거기 들어가서들, 이제 딱 마감해서 한, 고둥 못 잡게 해, 가에.)

김보향 ᄀᆞ메기 못 잡고? (고둥 못 잡고?)

김수정 해녀덜이 딱 막아 불어. (해녀들이 딱 막아 버렸어.)

김보향 음음. 게난 그때 왕? (음음. 그러니까 그때 와서?)

김수정 이젠 물질헤난 거 닮도 아녀곡 돈 벌어난 거 닮도 아녀곡. 이젠 들어앚아 노난. (이젠 물질했던 거 같지도 않고 돈 벌었던 거 같지도 않고. 이젠 들어앉아 놓으니까.)

김보향 들어앚아 노난. 아아. 게두 막 돈 벌 때는 막 눈에 막 보이지 않읍디가? (들어앉아 놓으니까. 아아, 그래도 마구 돈 벌 때는 마구 눈에 막 보이지 않습디까?)

김수정 게. (그럼.)

김보향 · 권미소 하하하.(하하하.)

김수정 아이구, 물에 들어근에 강 저 바당이서 돈 나는 건 막 공거 닮아. (아이구, 물에 들어서 가서 저 바다에서 돈 나는 건 아주 공것 같아.)

김보향 공거. (공것.)

김수정 그 돈은 막 아깝는디 놈이 일 가근엥 돈 뭐 오천 원 그때 엿날은 ᄒᆞᆫ 삼천 원 넘어 벌 때믄 하이고, ᄒᆞ루 저물앙 강 일헤영 그 돈 삼천 원 받앙 무시거 허리. 바당엔 강근에 ᄒᆞᆫ 멧 시간 헹 오민 삼천 원만 벌어? (그 돈은 아주 아까운데 남의 일 가서 돈 뭐 오천 원 그때 옛날은 한 삼천 원 넘어 벌 때면 하이고, 하루 종일 가서 일해서 그 돈 삼천 원 받아서 뭐 하리. 바다에는 가서 한 몇 시간 해서 오면 삼천 원 벌어?)

김보향 맞아. (맞아.)

김수정 경헤낫주게. (그랬었지.)

권미소 공거 닮아. (공것 같아.)

김보향 공거 닮아, 바닷 거. (공것 같아, 바다 거.)

김수정 바다엔 강 멧 시간 안 헤두 ᄒᆞ루 일당만 ᄒᆞ느냐게. ᄒᆞ루 일당 저 ᄒᆞᆫ 이틀, 두 번 일당, 일당두 허곡, 사흘 헐 일당두 ᄒᆞ곡 헌디. 놈이 일 허렝 가민 ᄒᆞ루 저물앙 가민 돈 삼천 원 받앙근에 하이, 하하하. (바다에는 가서 몇 시간 안 해도 하루 일당만 하냐. 하루 일당 저 한 이틀, 두 번 일당, 일당도 하고, 사흘 할 일당도 하고 하는데. 남의 일 하려고 가면 하루 종일 가면 돈 삼천 원 받아서 하이, 하하하.)

김보향 겐데 메역 헹 와도 그거 널엉 막 몰리젠, 바짝 허게 널어야잖아예? (그런데 미역 해 와도 그거 널어서 마구 말리려고, 바짝 하게 널어야잖아요?)

김수정 으. (으.)

김보향 곱게 펴왕예? (곱게 펴서요?)

김수정 문 널엉 뒈쌍. (모두 널어서 뒤집어서.)

김보향 으. (으.)

김수정 또 초불에만 몰령은 안 뒈어. 또 두불 또 쎄와사. (또 초벌에만 말려서는 안 돼. 또 두불 또 쐬어야.)

김보향 게난 그거 겅 헐 때도 뭐 열 개씩 낭 짓엉 뭐 허곡.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할 때도 뭐 열 개씩 '낭' 지어서 뭐 하고.)

김수정 으. (으.)

김보향 그것도 잘도 손 가는 거 아니? (그것도 아주 손 가는 거 아니?)

김수정 경 허는 거주, 저 ᄒᆞᆫ 멧 근썩. (그렇게 하는 거지, 저 한 몇 근씩.)

김보향 멧 근썩. (몇 근씩.)

김수정 ᄒᆞᆫ 멧 근썩 놔근에. 저 기냥 뭍대로 헤영은 기자 부륵이 요만썩 무끄민 뒈어. (한 몇 근씩 놔서. 저 그냥 뭍대로 해서는 그저 '부륵이' 요만큼씩 묶으면 돼.)

김보향 으, 부륵이. (으, '부륵이'.)

김수정 엿날은 거 장곽이엔 헌 거 육지 장곽이엔 헌 거 이만썩 헤영 부쩌낫주마는 이딘 그런 장곽 아이 부쩌낫주마는. (옛날은 거 장곽이라고 하는 거 육지 장곽이라고 하는 거 이만큼씩 해서 붙였었지만 여긴 그런 장곽 안 붙였었지만.)

김보향 아아. (아아.)

권미소 곽이 잇어. ('곽'이 있어.)

김보향 이만한 장곽이 잇엉, 여기에 맞게 영헹 붙여낫구나, 메역? (이만한 장곽이 있어서, 여기에 맞게 이렇게 붙였었구나, 미역?)

김수정 엿날은, 엿날은. 건디 이젠 기냥 기냥 웨낭으루. (옛날은, 옛날은. 그런데 이젠 그냥 그냥 '외낭'으로.)

김보향 웨낭으루? ('외낭'으로?)

김수정 웨낭으룬 영 이거 뀌단 허민 영 널어근에 이 꼴렝이레 또 ᄒᆞ난 영 이레 영 부찌곡 헤낫주. ('외낭'으로는 이렇게 이거 뀌다가 하면 이렇게 널어서 이 꼬리로 또 하나는 이렇게 이리 이렇게 붙이고 했었지.)

김보향 아아. (아아.)

김수정 경헤낫어. (그랬었지.)

김보향 기레기만. (길이만.)
김수정 지레기만 ᄒᆞ썰 질게. (길이만 조금 길게.)
김보향 맞수다. 예예예. 거난 경 막 널젠 허민 막 손 가난 건디? (맞습니다. 예예에. 그러니까 그렇게 마구 널려고 하면 마구 손 가니까 그런데?)
김수정 어? (어?)
김보향 막 경허민 손 하영 가난 거. (마구 그러면 손 많이 가니까 거.)
김수정 ᄉᆞ뭇 세벡이부터 널어사주게. (사뭇 새벽부터 널어야지.)
권미소 아휴. (아휴.)
김보향 예에, 맞수다. (예에, 맞습니다.)
김수정 기난 우린 이젠 널 데 엇이민 바당이. 바당이 강 문 널어낫어. (그러니까 우린 이젠 널 데 없으면 바다에. 바다에 가서 모두 널었었어.)
김보향 예예. 게난 옛날 써난 골겡이나 눈이나 엇수꽈? (예에. 그러니까 옛날 썼던 호미나 물안경이나 없습니까?)
김수정 읏어. (없어.)
김보향 골겡이? (호미?)
김수정 골겡이사 시방 골겡이 닮은 거주. (호미야 시방 호미 같은 거지.)
김보향 그니까, 밧디 허는 골겡이 똑ᄀᆞ튼 거 아니예? (그러니까, 밭에 하는 호미 똑같은 거 아니요?)
김수정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김보향 눈이나 물옷이나 뭐 엇수꽈, 옛날 써난 거? (눈이나 물옷이나 뭐 없습니까, 옛날 썼던 거?)
김수정 읏어. 문 데껴 비시네. (없어. 모두 던져 버렸어.)
김보향 문 데껴 불엇어? (모두 던져 버렸어?)
김수정 옛날 거. 요만헌 눈. (옛날 거. 요만한 물안경.)
김보향 비창두 엇어? ('비창'도 없어?)
김수정 비창두 읏어. ('비창'도 없어.)
김보향 으으. (으으.)
김수정 비창두 쪼근 거 나 아젼 뎅기당 어디사 데껴 벼신디. ('비창'도 작은 거 나 가지고 다니다가 어디에야 던져 버렸는지.)
권미소 조레기 닮은 것두 엇수꽈? ('조레기' 같은 것도 없습니까?)

김보향 조레기. ('조레기'.)
김수정 조레기도 엇곡. ('조레기'도 없고.)
김보향 촐바구리? ('촐바구리'?)
김수정 촐바구리도 엇곡.('촐바구리'도 없고.)
김보향 다 엇구나? (다 없구나?)
김수정 으. 문 엇이 데껴 비엇저게. 요번이도 무시거 허레 오란, 조사허레 아이덜 온디, 속곳을 어떵 멩급니께 허멍 허난. 시방 사름은 속곳도 멘글 줄 몰라. (으, 모두 없이 던져 버렸어. 요번에도 뭐 하러 와서, 조사하러 아이들 왔는데, '속곳'을 어떻게 만듭니까 하면서 하니까. 시방 사람은 '속곳'도 만들 줄 몰라.)
김보향 음. (음.)
김수정 속곳도 영 헤영 어떵 어떵 헤영 만들아근에 검은 물 들영. ('속곳'도 이렇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검은 물 들여서.)
김보향 뭐로 검은 물을 들엿수꽈? (뭐로 검은 물을 들였습니까?)
김수정 광목에도 들이곡 미녕에도 들이곡 경헤근에. (광목에도 들이고 무명에도 들이고 그래서.)
김보향 검은 물은 물감 사당? (검은 물은 물감 사다가?)
김수정 어. (어.)
김보향 이거 속곳예. (이거 '속곳'요.)
김수정 이거 속곳이라? (이거 '속곳'이야?)
김보향 으. (으.)
김수정 아니라. (아니야.)
김보향 · 권미소 아니라? 아하하. (아니야? 아하하.)
김보향 속곳. ('속곳'.)
김수정 메큰ᄁᆞ지 멘들아신게. ('메큰'까지 만들었네.)
김보향 으. (으.)
김수정 메큰 아니 혀. ('메큰' 안 해.)
김수정 메큰 아니 혀? ('메큰' 안 해?)
김수정 메큰 ᄒᆞ나. ('메큰' 하나.)
김보향 여긴 ᄒᆞ나. 아, 이건 맞아. (여긴 하나. 아, 이건 맞아.)
김수정 허린 영 ᄯᅩ로 헤영. (허린 이렇게 따로 해서.)

김보향 메큰 오른쪽에 갑니까? 왼쪽에 갑니까? ('메큰' 오른쪽에 갑니까? 왼쪽에 갑니까?)

김수정 왼쪽에 헤실 거라. (왼쪽에 했을 거야.)

김보향 왼쪽에예. 이쪽에 하나 헹 그 돌메기 다는 건 어디? 이쪽? ᄆᆞ작단추? (왼쪽에요. 이쪽에 하나 해서 그 매듭단추 다는 건 어디? 이쪽? 매듭단추?)

김수정 그땐 돌멩이 안 차. (그땐 돌멩이 안 차.)

권미소 게민? (그럼?)

김보향 어? (어?)

김수정 그땐 속곳만 입으난. 돌멩이 아이 차. (그땐 '속곳'만 입으니까. 돌멩이 안 차.)

김보향 아니, 아니 여기 단추. (아니, 아니 여기 단추.)

김수정 단추? 단추두 메곡. ᄆᆞ작단추. (단추? 단추도 매고. 매듭단추.)

김보향 벌ᄆᆞ작, 벌ᄆᆞ작. (매듭단추, 매듭단추.)

김수정 벌ᄆᆞ작도 허곡. 아래 건 속곳 영 헤영 멘들엉 허리도 ᄯᅮ루. 허린 소랑허게 시리 이리 맞게시리 헤여근에 아랫옷으로 헹 부쪄근에 메큰 허영 영 메곡. (매듭단추도 하고, 아래 건 '속곳'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허리도 따로. 허리는 길쭉하게끔 이리 맞게끔 해서 아랫옷으로 해서 붙여서 '메큰' 해서 이렇게 매고.)

김보향 으. (으.)

김수정 이딘 메큰 것이 벌ᄆᆞ작 돌곡. (여기는 '메큰' 것이 매듭단추 달고.)

김보향 오른쪽에 벌ᄆᆞ작. (오른쪽에 매듭단추.)

김수정 아래, 아래 건 이레 영 헤영 벌ᄆᆞ작 돌곡. (아래, 아래 건 이리 이렇게 해서 매듭단추 달고.)

김보향 맞수다. 여기 벌ᄆᆞ작 달곡? (맞수다. 여기 매듭단추 달고?)

김수정 으, 우이 거 우이 허리. (으, 위의 거 위의 허리.)

권미소 삼춘 아까 너다섯 개? (삼촌 아까 네다섯 개?)

김수정 어, 어. 허리에도 단출 ᄃᆞ나 벌ᄆᆞ작을 ᄃᆞ나 허곡 아래에도 그추룩 허곡. (어, 어. 허리에도 단추를 달거나 매듭단추를 달거나 하고 아래에도 그처럼 하고.)

김보향 여기 친 헹 한번 돌게 친 질게 묶지 안헨? (여기 끈 해서 한번 달게 끈 질게 묶지 않았어?)

김수정 무시거? (뭐?)

김보향 여기 허리 친? 허리에 친 안 헤? (여기 허리 끈? 허리에 끈 안 해?)

김수정 곰. (고름.)

김보향 곰. (고름.)

김수정 곰게 영 졸라멜 만썩 요만썩. (고름 이렇게 잘라맬 만큼 요만큼씩.)

김보향 곰예. (고름요.)

김수정 ᄒᆞᆫ 가달은 질게 이렌 영 돌아오곡 ᄒᆞᆫ 가달은 이레 쫄르게 허곡 졸라메곡. (한 가닥은 길게 이리는 이렇게 돌아오고 한 가닥은 이리 짧게 하고 잘라매고.)

김보향 그거 곰이렌 헐 거고. (그거 고름이라고 할 거고.)

김수정 곰. (고름.)

김보향 · 권미소 아. (아.)

김수정 곰 졸라메곡, 하하하. (고름 잘라매고, 하하하.)

김보향 아아. 맞수다. 한쪽만 이 친이. (아아, 맞습니다. 한쪽만 잇어, 끈이.)

권미소 한쪽만 이시난. (한쪽만 있으니까.)

김수정 이건 바로 저 메큰인게, 메큰. (이건 바로 저 '메큰'이네, '메큰'.)

김보향 맞수다. (맞습니다.)

김수정 동글랑허게 헤신게, 소랑허게 헤근에. (동그랗게 했네, 길쭉하게 해서.)

김보향 예, 고맙수다. (예, 고맙습니다.)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Ⅷ 남원읍 편

발 행 인 노정래
발 행 일 2020. 12. 25.
총 괄 부용식
담 당 황이새
외부조사원 김보향, 권미소
학 예 지 원 김완병, 백지현, 김범수, 고창식
학 예 인 턴 김태희, 김효숙
디자인인쇄 디 몽 (demong)
발 행 처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 40
TEL. (064)710-7698 / **FAX.** (064)710-7709
http://museum.jeju.go.kr

ISBN 979-11-87075-11-0 [비매품]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Ⅰ
애월읍 편 (2013)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Ⅱ
조천읍 편 (2014)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Ⅲ
구좌읍 편 (2015)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Ⅳ
안덕면 편 (2016)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Ⅴ
한경면 편 (2017)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Ⅵ
성산읍 편 (2018)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Ⅶ
대정읍 편 (2019)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Ⅷ
남원읍 편 (2020)

· 2021년 표선면 편, 2022년 한림읍 편 발간예정

제주인의 삶과도구 총서 Ⅷ

| 남원읍 편 |

비매품/무료
93380
9 791187 075110
ISBN 979-11-87075-11-0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Folklore & Natural History Museum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